

발 간 등 록 번 호  
72-4190000-000218-01

# 원주지명총람(상)

김은철(金垠哲) 편저



원주시



## 책머리에

우리 원주에 먼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은 수만 년 전,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과 강을 끼고 너른 들판이 있는 이곳은 인류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기름지고 축복받은 이 터에서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치악산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며 대를 이어 뼈를 묻고 이 땅을 지켜왔다.

농경정착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산과 들과 강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들과 물이 필요하였고, 땔나무를 구하고 산나물을 뜯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산이 필요하였다. 사람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구석기에 약 10km, 신석기에 약 5km였다고 하는데, 그 이동거리는 곧 우리의 먼 조상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산과 들, 골짜기를 다닌 거리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니는 삶의 터전 산과 들, 골짜기에도 각각 다른 이름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붙인 것이 땅의 이름, 곧 지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산, 골짜기, 들과 내, 고갯길 등 조상들의 발길이 닿은 모든 곳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거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만 잊혀졌기 때문이다.

지명에는 원래의 땅의 모습과 역사, 조상들의 세계관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어서 지명 그 자체가 곧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가령 태장동의 ‘거릿대’는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지금은 주택 단지가 되었지만 그 이름에는 그곳이 옛날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고갯길의 이름과 위치를 보고 옛날 조상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고개를 넘었으며, 마을 위치와 규모가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삶의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짐을 지고 그 고개를 넘었을 조상들의 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명을 종합인문과학이라 하고 지명이 역사의 정립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명은 강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천 년에 이르는 그 지역의 지리와 역사·문화를 누적하여 간직하고, 고대 우리말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대국어 연구와 우리 문화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명은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조상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 전통문화를 재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지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척되고 전통적인 농경문화가 점차 쇠퇴하면서 고유지명은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다.

산과 논밭이 있던 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농경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그 이름들도 점점 사라져 간다. 지명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붙인 것인데, 산과 들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 지명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농촌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옛 지명과 유래를 알던 어른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20년 이후가 되면 많은 지명들이 잊혀져 소멸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20년이란, 농경사회의 삶을 살아오며 현장의 고유지명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의 자연연령에서 추론되는 제한된 시간이다. 지명을 발굴하여 채록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의 지명을 소멸되기 전에 발굴해서 등재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조사·연구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설정되었으나 이미 그 필요성은 『원주의 지명유래』가 나온 이후인 2000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주의 지명유래』에 1910년대의 기록인 『조선지리지자료』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척된 원주시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현지지명을 재정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번 작업은 지명조사가 어느 한 순간에 답사하여 채록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하는 작업임을 재인식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제반 사안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옛 지리지에 기록된 지명들을 모두 발굴하여 수록하고, 현 위치를 고증하여 반영하였다. 또 누락된 현지 고유지명을 최대한으로 채집하여 수록하고, 지명의 위치와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며, 지명의 유래와 풀이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애썼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옛 지리지에 등재된 지명, 특히 『조선지리지자료』와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 등재된 지명을 동시에 수록하여 현재 지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지명의 어원을 충실히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한국지명총람』은 1967년, 이 책이 2019년이므로 세 권의 책은 각각 약 50년간의 시차를 두고 현지 지명을 기록한 셈이어서, 원주지명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보여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기록에서 나타나는 100여 년에 걸친 변화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원래의 우리말로 된 고유지명이 한자로 기록되며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은 산과 들에는 원래의 고유지명이 남아있는 반면 거기에서 파생된 행정지명은 한자로 되면서 간결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인 지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독려해준 원주시역사박물관 김성찬 학예연구팀장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원주의 지명에 관심을 가지고 고대국어의 전문지식으로 자문해주신 김양진·이철우 교수,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에 애쓴 동료 연구원들에게도 감사한다.

#### 4 \_ 원주지명총람(상)



무엇보다도 현지 지명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마을 어른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분들이 산 역사이며 그 분들이 이 땅의 보물들이다. 길에서, 마을에서, 산에서, 들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소중한 역사였으며 척박한 우리의 삶과 존재의 뿌리 그 자체였다. 그 한 분 한 분들의 숭고한 삶에 필자는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당신의 젊은 발걸음이 닿았던 치악산 구석구석을 잊지 않으려고,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까지 손수 상세하게 그려 벽에 붙여 놓았던 그 어른의 ‘보물지도’를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먼 골짜기 외딴집, 땀과 눈물로 얼룩진 옛 이름들을 가물거리는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며 회한에 젖던 어른들의 눈시울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새댁 때 들었던 잊혀진 그 골짜기 이름을, 반세기가 지난 이제서 누군가 찾아와 들추어 묻고, 아련한 기억 속에서 당신의 옛 젊음을 떠올리던 먼 눈빛, 다시 산을 내려가는 내 등 뒤에 머물던 그 시선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명조사는 항상 미완이다. 사람이 떠나면 있던 지명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나타나 새 지명이 생기며, 세월이 흘러 말이 변하듯이 지명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다음 어느 시기 누가 이 작업을 다시 이어서 할지 나는 알 수 없다. 필자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막다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이 미완의 작업을 후대에 누군가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여 바로잡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원주의 지명유래』에서 수정·보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한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필자는 만족하려고 한다.

2019년 12월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은철

일러두기

- 이 책은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원주 지역의 자연지명을 조사하여 등재한 것이다. 지명은 고유한 자연지명을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수록 대상은 원주시 전 지역의 지명으로, 옛 문헌에 등재되어 전하는 지명과 현지에서 채록된 지명을 모두 실었다.
- 등재 순서는 원주시 직할동·읍·면 순으로 하였고,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원주시 직할동의 경우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 원주시 직할동·면·리의 경우 앞부분에 상위 지명의 [위치]·[연혁]·[유래]·[내용]을 기술한 뒤 하위 지명을 서술하였다.  
〔예〕 귀래면(貴來面) : [위치]·[연혁]·[유래]·[내용]  
귀래리(貴來里) : [위치]·[연혁]·[유래]
- 지명의 표제어는 그 지역에서 현재 통용되는 것을 택하되 가급적 순수 고유지명을 우선적으로 취하였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상의 지명을 쓴 곳도 있으며, 한자가 전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 ) 안에 한자를 기록하였다.
- 이름만 남아있고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지명도 보존의 차원에서 등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동일 지명에 대해 다른 이름이 있는 경우도 모두 표제어로 삼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 동일한 지명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어 나올 때는 중복하여 서술하지 않고 ‘→’를 써서 찾아가도록 하였다.

[예] 가르패 [고개] → 가리파재

가르파재 [고개] → 가리파재

가리치(加里峙) [고개] → 가리파재

가리파(加里坡) [고개] → 가리파재

가리파고개 [고개] → 가리파재

- 각 지명에는 그 지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항목]을 달았다.

[예] 거무내 [마을]	거무내산 [산]
거무내골 [골]	거무내재 [고개]

- 각 지명의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물] ; 건물, 집	[불상] ; 불상, 석불
[고개] ; 고개, 재, ~치, ~령	[비] ; 기념비, 비석
[골] ; 골, 골짜기, 계곡	[비각] ; 효자문, 열녀문 등 비각
[공원] ; 공원	[비행장] ; 비행장
[광산] ; 광산	[산] ; 산, 봉
[광장] ; 광장	[산업] ; 공장, 회사, 사업체
[교회] ; 교회	[샘] ; 샘, 우물, 약수터
[극장] ; 극장	[섬] ; 섬
[굴] ; 굴, 터널	[성] ; 성(城), 산성
[길] ; 길, 거리, 도로, 분기점, 인터체인지	[성당] ; 성당,公所
[나루] ; 나루, 나루터, 포(浦)	[소] ; 소(沼), 늪, 여울
[나무] ; 기념수, 보호수	[숲] ; 숲, 당숲, 보호림
[내] ; 개울, 내, 강, 천(川)	[시설] ; 시설물, 공공건물
[농원] ; 농원, 농장	[역] ; 역(驛)
[누정] ; 누각, 정자	[원] ; 원(院), 참(站)
[다리] ; 다리, 철교	[유원지] ; 유원지
[당] ; 성황당, 제당, 사당	[유물] ; 유물
[둑] ; 둑, 제방	[유적] ; 주거지, 유적
[들] ; 들, 논, 밭, 버덩	[장] ; 장, 시장, 상가
[마을] ; 마을, 동네	[장승] ; 장승
[모롱이] ; 모롱이, 모퉁이	[절] ; 절, 사찰, 암자
[못] ; 못, 연못, 저수지, 소류지, 양어장	[정문] ; 열녀문, 정문
[묘] ; 묘, 능, 공동묘지	[제단] ; 단, 제단
[바위] ; 바위	[주막] ; 주막
[보] ; 보(湫)	[탐] ; 탐, 부도

[터] ; 절터, 건물터 등 장소, 터

[학교] ; 초등, 중등, 대학, 기타 학교

[폭포] ; 폭포

- 각 지명마다 [위치]·[연혁]·[유래]·[유래담]·[내용]·[풀이]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각 지명에 대한 기술순서는 다음의 순으로 하였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이를 생략하였다.

[예] 지명[대표항목]·[위치]·[연혁]·[유래]·[유래담]·[내용]·[풀이]·[전설]·[유물]·[유적]

- 대표항목이 같은 동일 지명이 반복되어 나올 때는 지명(1), 지명(2) 등으로 하였다.

[예] 큰골(1) [골], 큰골(2) [골]

단, 이름이 같은 지명이라도 대표항목이 다를 때에는 번호를 달지 않았다.

[예] 큰골 [골], 큰골 [마을]

- [위치]에서는 ①그 지명의 위치를 동서남북을 위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②현전하는 다른 이름을 적은 후, ③1910년에 채록된 『조선지리지자료』의 지명, ④1966년에 채록된 『한국지명총람』의 지명의 모습을 순서대로 기술하여, 100년 전과 50년 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귀래리의 동쪽에 있는 고개로 현 19번 충원대로와 복원로가 지나는 고갯길이다. 귀래면과 흥업면과의 경계에 있는 큰 고개를 큰양아치, 귀래 쪽의 작은 고개를 작은양아치라고 부른다. ‘양어치(兩御峙)’, ‘양안치(兩鞍峙)’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아치’라 하였다.

- [유래]는 그 지명이 현재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적었다. 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고개가 두 개이므로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또는 둘을 합쳐 양치(兩峙), 양대치(兩大峙)라고 불렀는데 ‘양+치>양치’에 매개모음 ‘ㅏ’가 개입하여 ‘양아치’가 되었다. 큰 고개 두 개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또는 고개가 마치 말안장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안치(兩鞍峙)’라 하였다고도 한다.

- [유래담]은 그 지명에 얹힌 전설, 설화, 민담에 전하는 내용을 기술하여 참고로 하도록 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삼국시대에 고구려왕의 어거가 매지리에 머물고, 신라왕의 어거가 운계리에 머물러 대치하였으므로 그 경계인 이곳을 ‘양어치(兩御峙)’라 하였다고도 한다.

- [내용]은 그 지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어서 가급적 그 지명에 대한 기타 정보를 수록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내용] 《해동지도》(1750)와 《광여도》(1800)에서는 ‘대치(大峙)’와 ‘소치(小峙)’로 구분하였다. 《여지도서》(1765)에 ‘양대치(兩大峙)’라고 하였으며 《대동지지》(1866)에서는 ‘대치(大峙)’와 ‘소치(小峙)’로 구분하였다. 《조선지리지》(1911)에서는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1967)에는 ‘양아치(兩峨峙)’라고 하였고 《원주원성향토지》(1976)에서는 ‘양아峙’라고 기록하였다.

1971년에 개교, 1983년에 폐교된 학교 이름이 ‘양아치분교’였으므로 현지에서는 최근까지도 별 거부감 없이 ‘양아치’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주민들이 ‘양아치’라는 이름을 꺼려 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양아치’와 ‘양안치’ 두 이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현 도로표지판과 등산지도 등에 ‘양안치’로 적고 있어서 ‘양안치’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 [풀이]는 국어학적인 차원에서 해당지명의 어원을 밝혔다. 그러나 그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내용]

[풀이] 18세기와 19세기의 모든 지리지에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양대치(兩大峙)’라 하였다. 이는 크고 작은 고개가 두 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양(兩)+치(峙)>양치’인데 매개

모음이 개입하여 ‘양+(ㅏ)+치>양아치(兩峨峙)’가 되었다. 높은 고개가 두 개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두 고개가 말안장을 닮은 것으로 보아 ‘아’를 ‘안(鞍)’으로 적어 ‘양안치’라고도 하였고, ‘양어치(兩御峙)’라 하여 유래담도 생겼다.

● 해당 지명과 관련된 [전설]·[유물]·[유적] 등은 해당 지명의 항목 안에 넣었다.

● 수록사진은 지명과 관련된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 본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책임자 : 김은철(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책임연구원 : 김종호(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 연 구 원 : 장향실(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 연 구 원 : 윤은애(문학석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외래교수)
- 자 문 위 원 : 김양진(문학박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자 문 위 원 : 이철우(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

● 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참여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책 자 편 찬 : 김성찬(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 사 진 촬 영 : 전제인(원주시 우산동 ‘사진만들기’ 대표)

● 참고문헌 : 본 연구에 참고한 자료 및 문헌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1145)	【해동지도】(1750)
【고려사】(1451)	【여지도】(1765)
【세종실록지리지】(1454)	【여지도서】(1765)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지승】(1778)
【동국여지지】(1660)	【광여도】(1800)
【관동지】(1831)	【조선지지자료】(1911)
【대동지지】(1866)	【조선고적도보】(1935)
【원주읍지】(1871)	【조선환여승람】(1937)
【1872년지방지도】(1872)	【강원도지】(1941)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67.

《전국유적목록》, 문화재관리국, 1970.

《원주원성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춘천의 지명유래》, 춘천문화원,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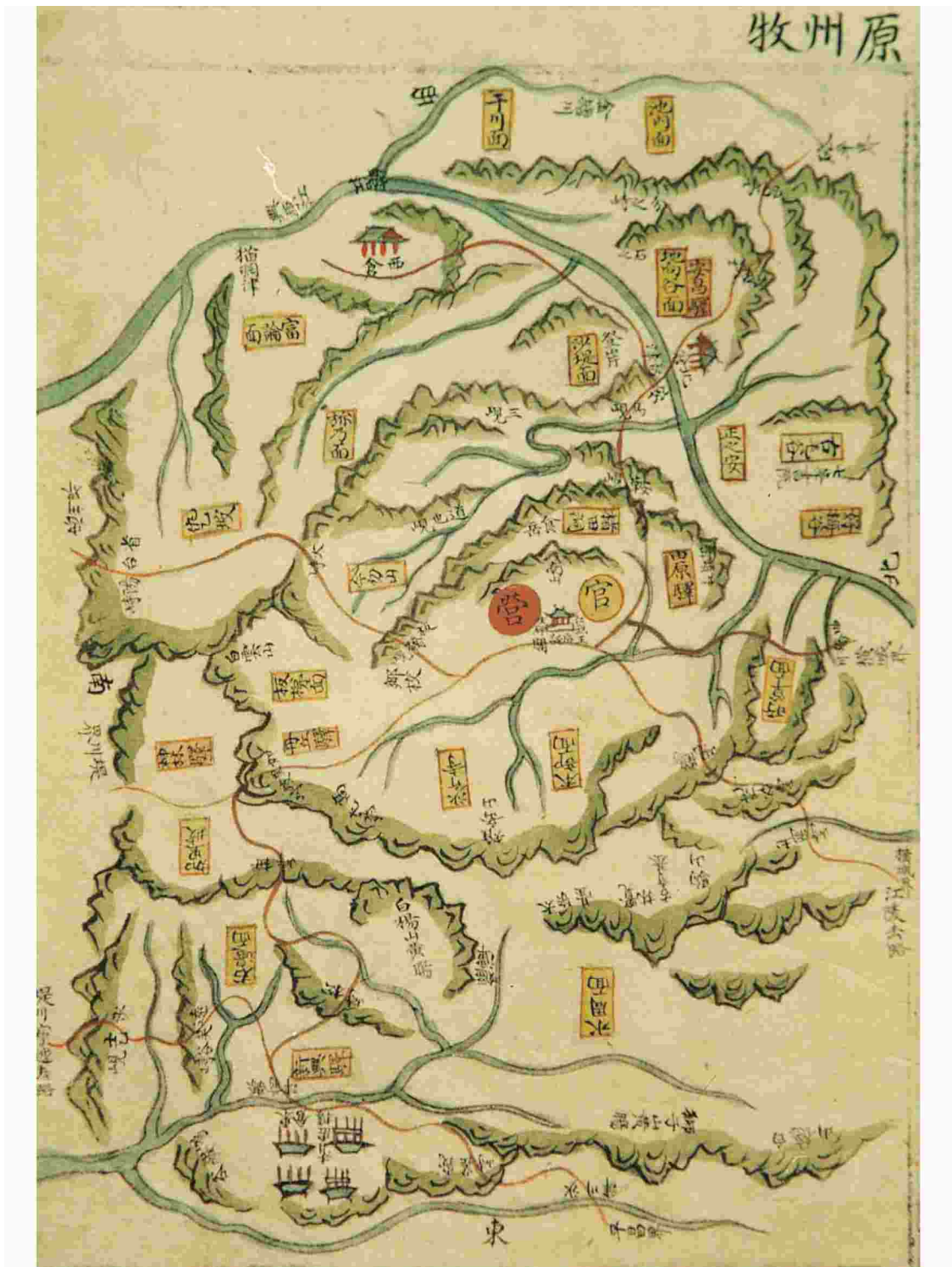
《원주의 지명유래》, 원주시, 1999.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문막읍지》, 문막읍사편찬위원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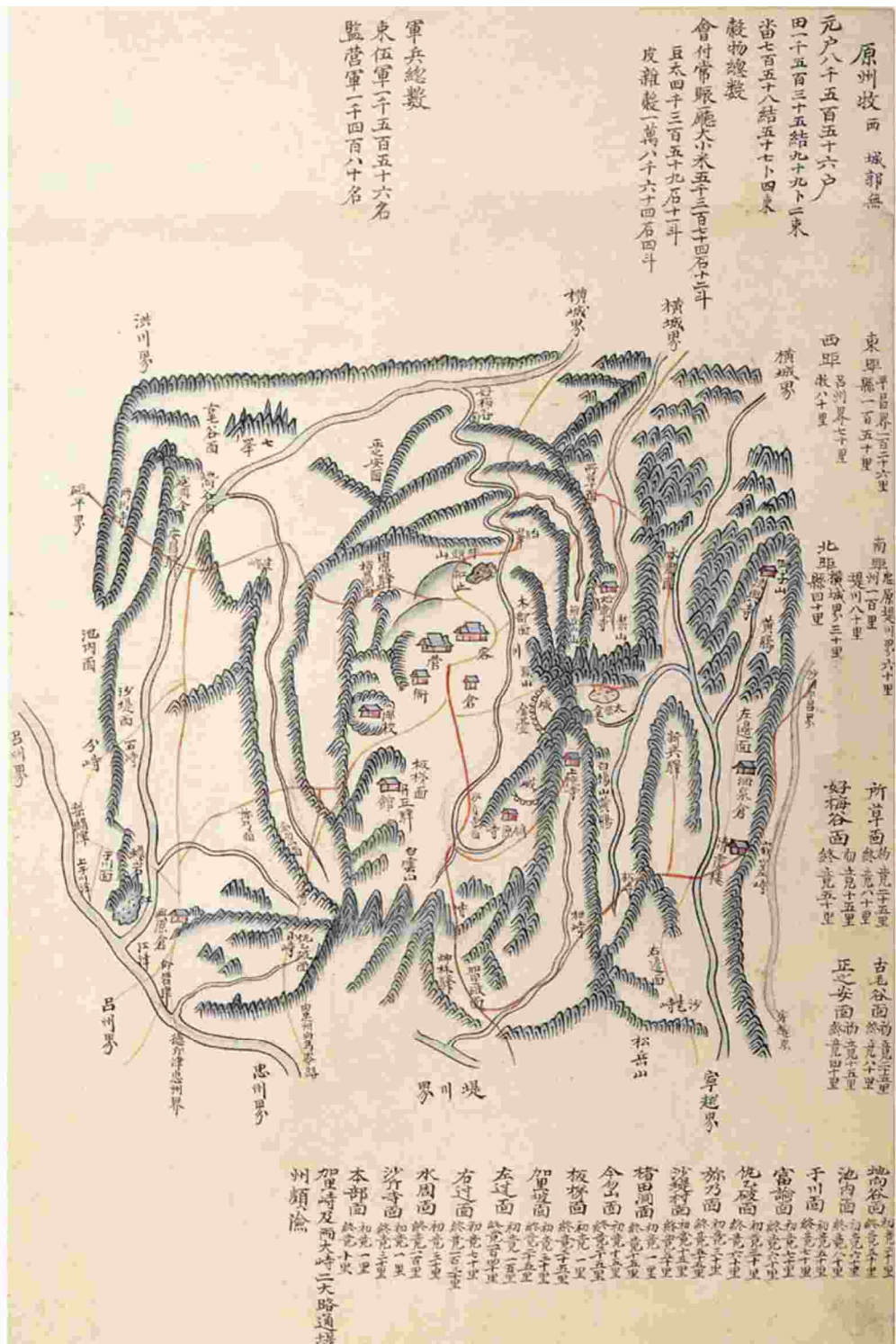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한국하천지명사전》, 국토해양부, 2011.



여지도서(輿地圖書) 원주목(原州牧), 1757~1765년, 한국교회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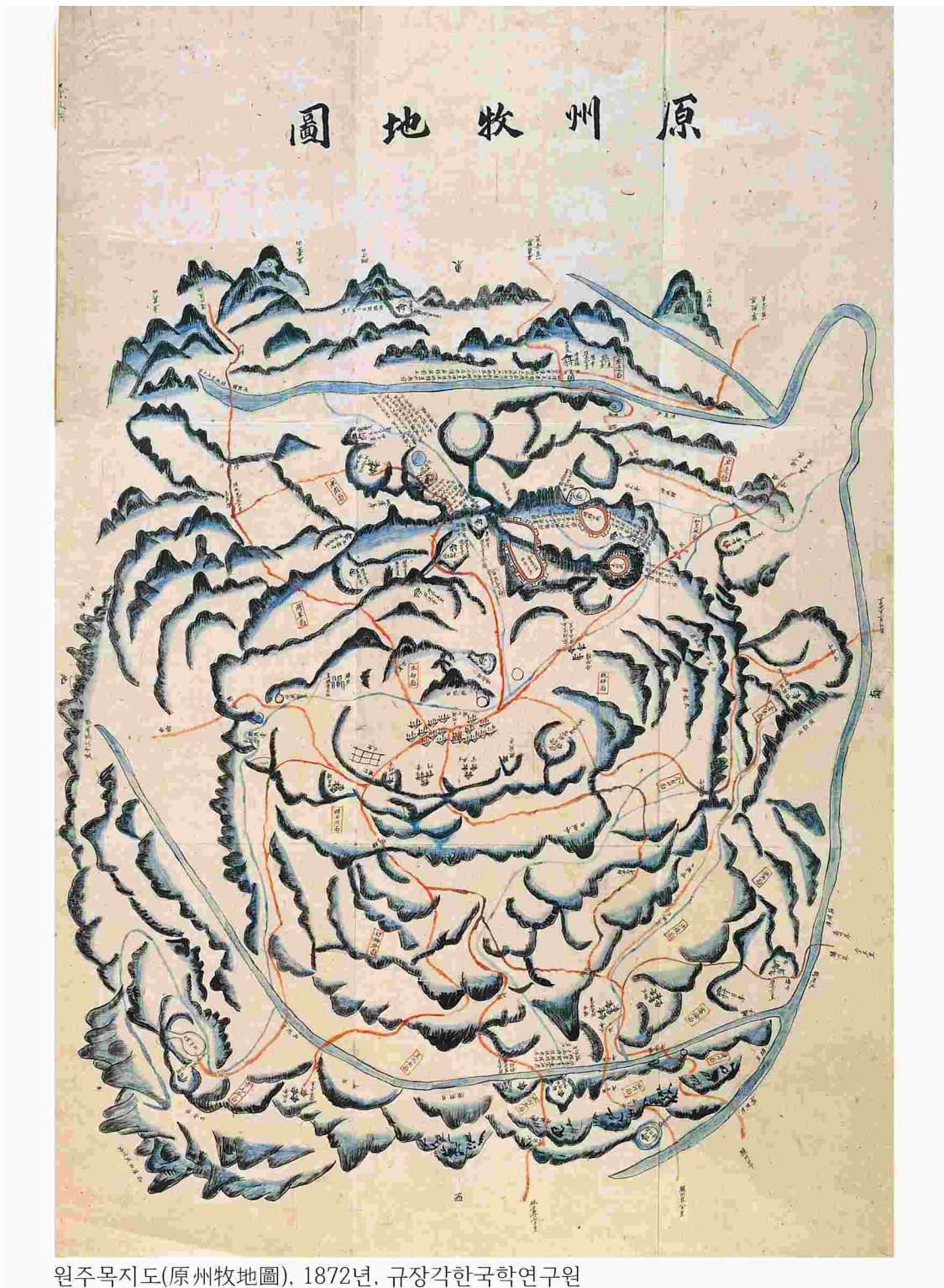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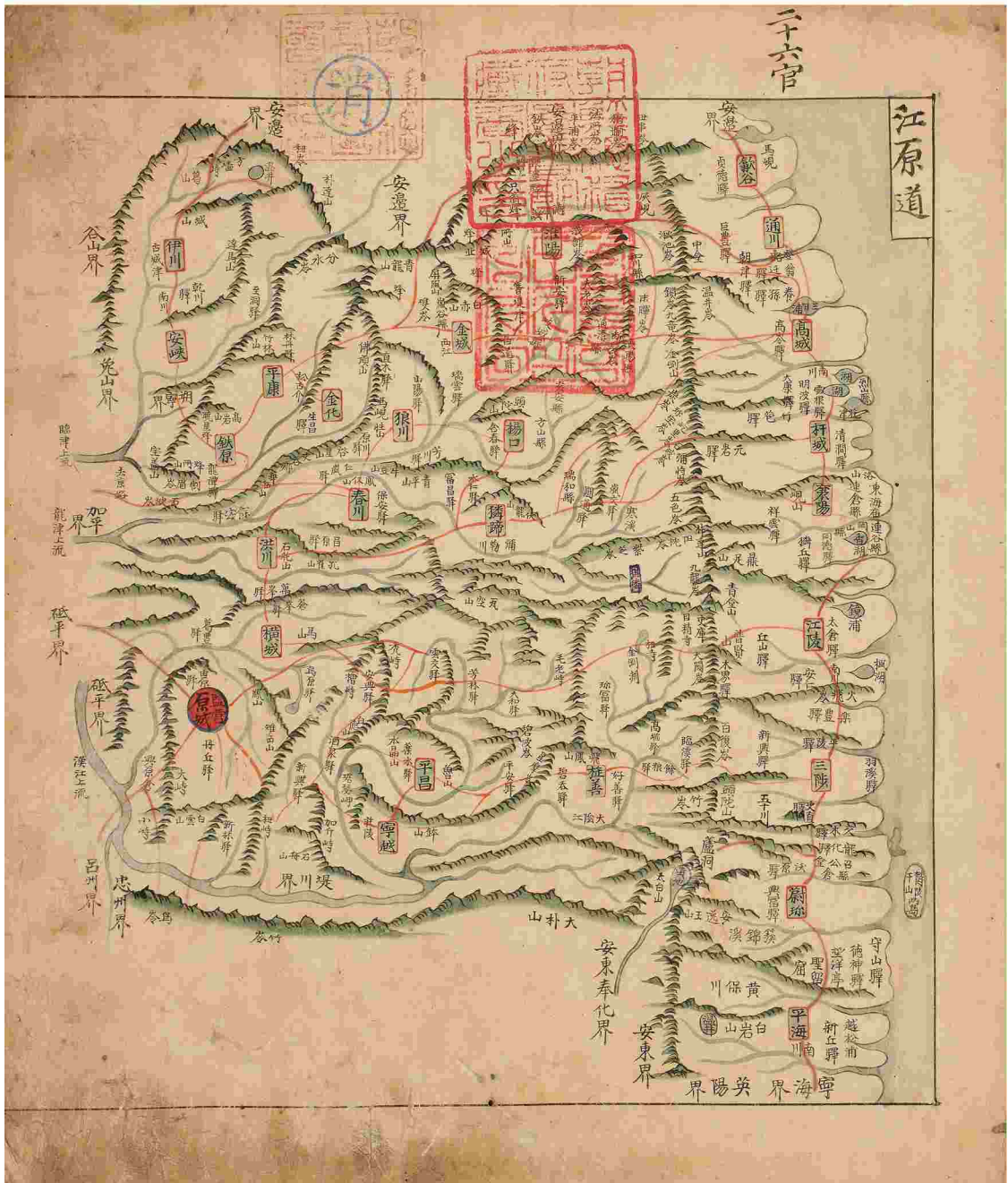
해동지도(海東地圖) 원주목(原州牧), 1750년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주지도 \_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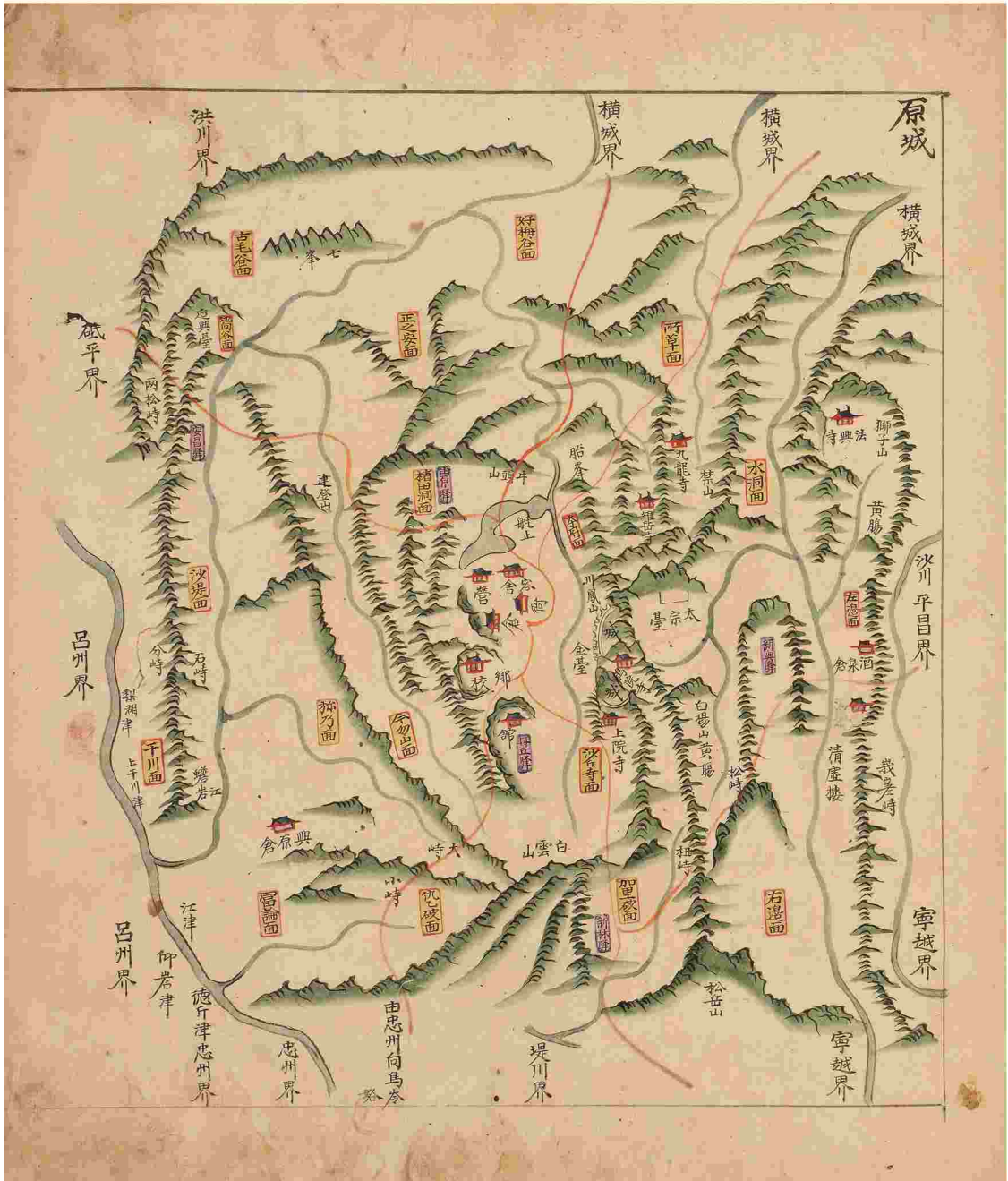






여지도(輿地圖) 강원도(江原道), 국립중앙도서관





여지도(輿地圖) 원성(原城), 국립중앙도서관



광여도(廣輿圖) 원주목(原州牧),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차 례

책머리에 .....	3
일러두기 .....	6
원주지도 .....	12
차 례 .....	22

### 제1편 원주의 역사와 지리 ..... 23

#### 제1장 원주의 역사 ..... 24

제1절 원주의 역사 개관 .....	24
제2절 고대의 원주 .....	25
제3절 고려시대의 원주 .....	27
제4절 조선시대의 원주 .....	28
제5절 근·현대의 원주 .....	30

#### 제2장 원주 지명 및 면·리의 변천 ..... 32

제1절 행정 지명 변천 .....	32
제2절 면(面)·리(里)의 변천 .....	33

#### 제3장 원주의 지리 ..... 40

제1절 위치 .....	40
제2절 면적과 지형 .....	40
제3절 산 .....	41
제4절 내 .....	50

### 제2편 법정동(法定洞) 지명(地名) ..... 57

가현동(加峴洞) .....	84
개운동(開運洞) .....	94
관설동(觀雪洞)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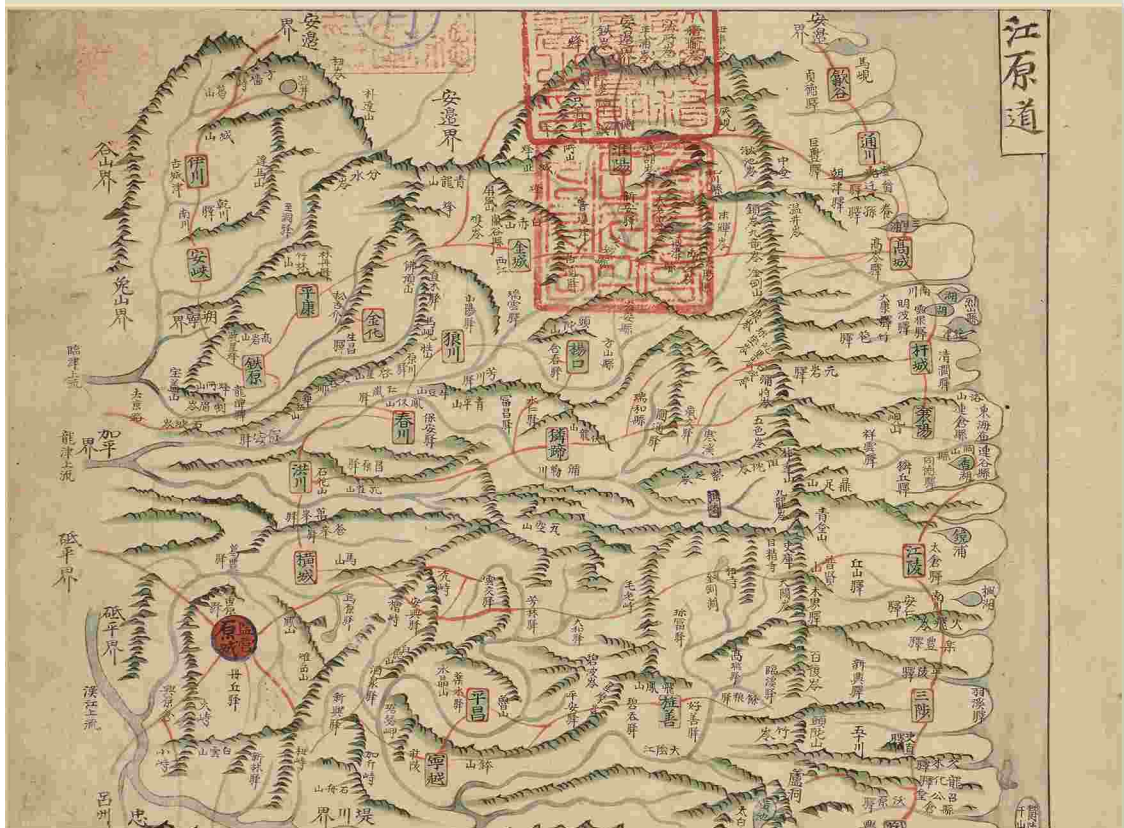
단계동(丹溪洞) .....	114
단구동(丹邱洞) .....	126
명륜동(明倫洞) .....	138
무실동(茂實洞) .....	144
반곡동(盤谷洞) .....	160
봉산동(鳳山洞) .....	178
우산동(牛山洞) .....	196
원인동(園仁洞) .....	206
일산동(一山洞) .....	212
중앙동(中央洞) .....	222
태장동(台庄洞) .....	228
평원동(平原洞) .....	248
학성동(鶴城洞) .....	252
행구동(杏邱洞) .....	260

### 제3편 문막읍(文幕邑) 지명(地名) ..... 281

건등리(建登里) .....	290
궁촌리(宮村里) .....	306
대둔리(垞屯里) .....	322
동화리(桐華里) .....	326
문막리(文幕里) .....	342
반계리(磻溪里) .....	348
비두리(碑頭里) .....	362
취병리(翠屏里) .....	374
포진리(浦津里) .....	388
후용리(厚用里) .....	394

# 제1편

## 원주의 역사와 지리



여지도(輿地圖) 강원도(江原道)



## 제1장 원주의 역사

### 제1절 원주의 역사 개관

원주지역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확실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간의 유적조사에서 지정면 월송리, 부론면 흥호리, 법천리 등에서 구석기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원주 전역에 걸쳐 신석기 유물이 발견된 것을 보면 수만 년 전부터 원주지역에 인류가 생활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악산이라는 험준한 산이 있는 반면에 산 아래의 기름진 평야와 수량과 어족이 풍부한 강을 끼고 있는 원주지역은 그만큼 인류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셈이다.

동쪽에 치악산을 두고 자리 잡은 원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쪽에는 차령산맥의 줄기가 치악산의 비로봉과 삼봉·향로봉·남대봉, 백운산으로 이어져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고, 서북부는 비교적 낮은 산줄기가 완만한 경사로 뻗어 내리면서 넓은 산기슭과 들을 형성하고 있다.

치악산 줄기의 물이 모인 원주천(봉천)과 백운산 줄기의 물이 모인 서곡천은 원주 시내를 관통하여 섬강으로 유입되고, 섬강은 다시 남서쪽으로 흐르며 부론면에서 남한강으로 들어간다. 이들 강이 흐르면서 넓은 원주분지와 기름진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인류가 살기에 풍족한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터전 위에서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우거진 숲에서 열매를 따고 사냥을 하고, 강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다가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삶의 터전을 잡았던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씨족사회, 부족사회를 거쳐서 부족연맹국가형태로 발전하였던 삼한시대에 원주 지방은 마한의 가장 동쪽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마한의 영토를 통합하였을 때에는 백제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정립하였을 때에는 삼국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원주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남과 북으로 진출하는데 발판이 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찍이 고구려는 원주에 평원군(平原郡)을 설치하였고, 신라는 북원소경(北原小京)을 설치하였으며, 신라가 삼국을 평정한 후에는 북원경(北原京)이라고 하여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이 지역이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원(平原)이라는 이름에 이미 넓은 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주는 초기부터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한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평원, 북원을 이어받은 원주(原州)라는 이름은 고려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후, 고려

태조 왕건 23년(940)에 원주라고 이름을 바꾼 이래 몇 번의 변경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지역은 현재까지 원주로 불리고 있다.

원주의 읍호(邑號) 변동을 보면 고려 태조 23년(940)에 원주로 되었다가 고종 46년(1259)에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으며, 원종 원년(1260)에는 다시 원주라고 하고 원종 10년(1269)에는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하였다. 충렬왕 17년(1291)에는 합단적을 막는데 공이 컸다고 하여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고쳤다가 같은 34년(1308)에는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그 후 충선왕 2년(1310)에는 다시 성안부(成安府)로 강등되었고, 공민왕 2년(1353)에는 왕의 태실을 치악산에 안치하고 다시 원주목으로 환원하였다. 이는 위정자들이 논공행상이나 국민교화, 또는 통치수단으로 지방행정구역의 위상을 승격시키거나 격하시켰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서 원주의 행정구역 명칭은 목(牧)이나 도호부(都護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군(郡)이나 현(縣)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변천이 있었는데, 숙종 9년(1683)에는 원성현(原城縣)으로 강등되었다가 같은 38년(1712)에 다시 원주목으로 복구되었으며, 영조 4년(1728)에도 현으로 격하되었다가 같은 13년(1737)에 다시 원주목이 되었다. 고종 32년(1895)에 23부제(府制)의 실시와 함께 원주군(原州郡)으로 되면서 충주부 소속이 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강원도로 이속되었으나 원주군이라는 명칭은 광복 후 시·군이 분리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1955년에는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지역을 원주시(原州市)와 원성군(原城郡)으로 분리하였다가 1989년에는 원성군의 이름을 다시 원주군으로 하였고, 1995년에는 시와 군을 통합하면서 면(面) 지역도 원주시로 편입되었다.

고종 이후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나 분리 또는 통합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 같이 논공행상이나 국민교화·통치수단 등의 이유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제2절 고대의 원주

삼한시대의 원주지역은 54개 부족국가로 형성된 마한(馬韓)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백제가 마한을 병합함에 따라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정립하여 각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5세기 중엽 고구려 장수왕은 압록강 연안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여 백제가 있던 한강유역을 차지함에 따라 원주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장수왕 57년(469)에는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여 군현제도를 실시하면서 원주 지방을 평원군(平原郡)이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공주 지방에 수도를 정한 백제는 신라와 합세하여 잃었

던 한강유역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신라가 동맹을 깨뜨리고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원주지역은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평정한 뒤 문무왕 18년(678) 전국에 9주(州) 5소경(小京)을 설치할 때 원주에 북원소경(北原小京)이 설치되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백제·신라 지역에 각각 3주를 설치하여 9주로 하였는데, 옛 고구려 지역에는 한주(충북·경기도·황해도 지역)·삭주(강원도 영서지역 및 함경도 남부)·명주(울진·동해·강릉·속초·원산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를 두었고, 그 9개 주에 5소경을 두면서 옛 고구려 지역인 한주에 중원소경(중주)을, 삭주에 북원소경(원주)을 두었다.

삭주의 치소(治所)가 춘천에 있었고 원산까지 이르는 북방을 담당하기에는 중원이 너무 멀었으므로 삭주와 명주 지역의 취약한 지방통치력을 보완할 필요성에 의해서 북원소경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즉 원주는 소백산맥 이북의 단양·제천·원주·춘천·김화·원산에 이르는 신라의 북방 삭주 및 명주의 후방 거점도시였던 셈이다. 북원소경을 호위하는 성은 신문왕 5년(685)에 축조하였는데, 그 성은 지금의 영원산성(鵠原山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북원소경은 경덕왕 16년(757)에 북원경(北原京)으로 이름이 바뀌고, 통일신라의 5소경 가운데 하나로서 신라의 북방 경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9세기말 신라가 쇠퇴하자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의 하나였던 양길(梁吉)은 원주를 근거로 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弓裔)는 신림 절골의 석남사(石南寺)를 터전으로 삼아 북동쪽으로 인제·양구·춘천·철원 지방을 점령하고, 동쪽으로는 주천·영월·평창·울진·강릉 등지를 점령하였다. 양길은 대체로 오늘날 강원도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나 점령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였다.

궁예는 양길을 배반하고 898년부터 송악(松岳)에 근거를 두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901년 후고구려를 건설하고 스스로 왕이 됨에 따라 원주 지방에 근거를 두고 영토를 확장하던 양길은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말았다. 그러나 후고구려(태봉)도 불과 18년 만에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王建)에 의하여 멸망하고 원주지역은 왕건이 세운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원주지역 문화와 관련된 문헌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원주 인근에서 확인되는 절터와 불상 등의 유물을 통해 당시 성행했던 불교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를 전후하여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천사와 흥법사, 거둔사와 석남사 등의 유적과 불교 유물들은 번성했던 원주지역의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한편 원주지역 일대에는 통일신라기에 풍미했던 신선술이나 도참사상과 연관된 유적들이 전해오기도 한다. 『조선환여승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원주면 상동리의 건손석이나 판부면 단구리의 돌절구와 같은 유적과 전승은 불교문화와 함께 통일신라시대에 존재했던 원주지역의 또 다른 문화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고려시대의 원주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은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여 왕위에 올라 후백제와 신라를 병합하여 후삼국을 통일한 후 새로운 지방제도를 시행하였다. 태조 23년(940)에는 복원경을 폐지하고 원주(原州)로 개칭하였는데 고려는 개경을 수도로 정하였으므로 복원경을 설치해야 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복원경은 신라에서 보았을 때 북방을 담당할 중요 거점이었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시대의 개성에서 보았을 때는 지형학적으로 중요성이 덜 하였다는 뜻이다. 또한 성종 14년(995) 전국의 행정구역을 10도 12목으로 개편할 때 원주 지방은 중원도(中原道, 현 충북)에 소속되어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현종 9년(1018)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중원도(中原道)를 충주목(忠州牧)으로 개칭하여 원주는 충주목 소속 주지사(州知事)가 되어 관할하였다. 이때 원주는 영월군과 제천군을 속군으로, 평창현·단산현·영춘현·주천현·황려현을 속현으로 하는 큰 군이 되었다. 예종 때 다시 전국의 행정구역을 5도 양계(兩界)로 하였을 때 원주는 교주도(交州道)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교주도는 대체로 오늘날 강원도에서 영동 지방을 제외한 영서 지방이었다.

고종 46년(1259)에 고을 사람이 왕명을 어긴 죄로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그 후 원종 원년(1260)에 다시 주지사로 회복되었다. 원종 10년(1269)에는 원주 지방이 공신 임유무(林惟茂)의 외가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하였다.

충렬왕 17년(1291) 합단적(哈丹賊)의 침입이 있었을 때에 향공진사 원충갑(元冲甲)이 합단적을 물리친 공로를 인정하여 정원도호부를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승격하였다. 합단적이란 원나라의 합단(哈丹)이 충렬왕 13년(1287)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원나라 관군에게 패하자 두만강을 건너서 고려로 침입하였던 세력이다.

고려에서는 군사를 정비하여 그들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방어하기가 어려워 원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중요 문적(文籍)을 강화도로 이송하고 주·현에 명하여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토록 하였다. 안변까지 함락되자 충렬왕은 강화도로 몽진하는 등 국가가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계속 남침하던 합단적이 원주까지 침략하였는데, 이때 원주별초군(原州別抄軍) 소속이었던 원충갑이 10여 차례나 적과 혈전을 벌여 결국 합단적을 물리치고 원주를 보전하였다. 이와 같은 원충갑의 큰 공을 인정하여 본인에게 포상은 물론 원주의 행정구역 명칭을 개칭하여 그의 공적을 기리게 하였던 것이다.

충렬왕 34년(1308)에는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하여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충선왕 2년(1310)에는 성안부(成安府)로 다시 격하되었다가, 공민왕 2년(1353)에는 치악산에 공민왕의 태(胎)를 봉안하고 성안부를 원주목으로 회복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위정자들은 그들의 통치수단으로 한 지역에 반역이나 강상죄(綱常罪)를 범하면 본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위상을 격하시켜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물었고, 국가에 큰 공을 세우면 행정구역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으로 형벌을 공적 기능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공동의 연대책임을 물음으로써 국가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 제4절 조선시대의 원주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건립한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개칭하고, 1394년 11월 29일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1395년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강릉도(江陵道)와 교주도(交州道)를 합하고 강릉의 ‘강(江)’자와 원주의 ‘원(原)’자를 합하여 ‘강원도(江原道)’라고 하였다. 강원도라는 명칭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등장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강원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원주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종전대로 원주목(原州牧)이었지만 강원도 감영을 원주에 설치하여 관찰사가 거주하면서 이때부터 원주는 강원도의 수부(首府)로서 행정·치안·사회·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는 태종 13년(1413)에 확립된 팔도제와 군현제가 바탕이 되었다. 중앙 직할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부 및 개성부·경주부·전주부·영흥부·평양부의 5개 부(府)와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도의 8도제를 시행하였고, 그 밑에 하급행정구역으로서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을 두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에 강원감영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관찰사(觀察使)를 파견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강원도의 지방체제는 부·목·군·현의 강등과 승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큰 변동 없이 1895년 23부제가 실시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세종대(1452)의 원주목(原州牧)에는 1,148호에 3,233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다. 강릉대도호부가 1,025호, 3,513명인 것에 비하면 호수는 123호가 더 많고, 인구는 280명이 적은 것이다. 또한 춘천도호부가 1,119호, 1,950명인 것에 비하면 호수는 29호가 더 많고, 인구는 1,283명이 더 많은 것이다.

숙종 9년(1683)에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원주목을 강등하여 원성현(原城縣)으로 하였다가 숙종 18년(1692)에 다시 원주목으로 환원하였다. 또한 영조 4년(1728)에는 모반사건이 발생하여 원주목을 다시 원성현으로 강등하였다가 영조 13년(1737)에 다시 원주목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 원주목은 강원감영과 같은 영내에 있었는데, 강원감영에는 선화당(宣化堂) 31칸을 비롯하여 대은당(戴恩堂) 38칸, 객사(客舍) 70칸, 포정루(布政樓) 12칸 등 강원감영 내에 있는 건물들을 합하면 총 490여 칸이나 되었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 원주에서 근무하던 관원과 기타 근무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으나 1760년대



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원주목에 목사가 따로 없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5~6품의 판관(判官) 1명이 제일 높은 품관으로 되어있다. 목(牧)에는 당연히 정3품의 목사(牧使)가 있어야 하는데 목사가 없는 것은 원주는 강원도관찰사가 거주하는 강원도 수부이었으므로 대개 원주목사를 관찰사가 겸무(兼務)하였기 때문이다.

원주목에는 품관으로는 판관 1명이 있고, 그 외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3명, 군관(軍官) 110명, 아전(衙前) 69명, 지인(知印) 28명, 사령(使令) 31명, 기생(妓生) 23명, 관노(官奴) 24명, 관비(官婢) 9명 등 총 299명이었다. 이때 강원지역의 관원과 그 부속 인원을 보면 춘천 213명, 정선 104명, 영월 77명, 평창 135명, 삼척 135명, 양양 132명, 횡성 139명, 홍천 104명, 철원 192명 등으로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의 규모가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지도서』에 의하면 원주목은 1읍, 20개 면, 4개 동, 87개 리로 되어 있으며 원주목 관할에는 8,719호, 38,052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다. 이때의 행정체제는 다음과 같다.

#### 【원주목(原州牧) 행정체제】

읍면(邑面)	동리(洞里)	거리(距里)
읍 내(邑 內)	상동(上洞), 중동(中洞), 하동(下洞), 후동(後洞)	
본 부 면(本 部 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분이리(分二里), 삼리(三里), 분삼리(分三리)	관문에서 동쪽 10리
사근사면(沙斤寺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리)	관문에서 동쪽 15리
수 주 면(水 周 面)	초리(初里), 일리(一里), 이리(二里)	관문에서 동쪽 60리
좌 변 면(左 邊 面)	일리(一里), 이리(二리)	관문에서 동쪽 100리
우 변 면(右 邊 面)	일리(一里), 이리(二리), 삼리(三리)	관문에서 동쪽 90리
부 론 면(富 論 面)	일리(一里), 분일리(分一里), 이리(二리), 삼리(三리), 사리(四里), 오리(五里), 육리(六里), 칠리(七리)	관문에서 남쪽 60리
강 천 면(康 川 面)	일리(一里), 분일리(分一里), 이리(二리), 분이리(分二리), 삼리(三리), 사리(四里), 분사리(分四里)	관문에서 서쪽 70리
지 내 면(池 內 面)	일리(一里), 이리(二리)	관문에서 서쪽 70리
사 제 면(沙 堤 面)	일리(一里), 이리(二리), 삼리(三리)	관문에서 서쪽 40리

읍면(邑面)	동리(洞里)	거리(距里)
미 내 면(彌 內 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분이리(分二里), 삼리(三里), 분삼리(分三里)	관문에서 서남쪽 40리
소 초 면(所 草 面)	일리(一里), 분일리(分一里), 이리(二里), 분이리(分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분사리(分四里), 오리(五里), 육리(六里), 분육리(分六里), 칠리(七里), 팔리(八里)	관문에서 북쪽 30리
호매곡면(好梅谷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오리(五里)	관문에서 북쪽 30리
고모곡면(古毛谷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분사리(分四里)	관문에서 서북쪽 60리
정지안면(正之安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관문에서 서북쪽 20리
지향곡면(地向谷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관문에서 서쪽 40리
굴 파 면(尙 破 面)	일리(一里), 분일리(分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관문에서 남쪽 40리
판 제 면(板 梯 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분이리(分二里), 삼리(三里)	관문에서 남쪽 15리
저전동면(楮田洞面)	일리(一里), 분일리(分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관문에서 서쪽 10리
금물산면(今勿山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관문에서 남쪽 20리
가리파면(加里破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관문에서 동남쪽 55리

## 제5절 근·현대의 원주

태종 13년(1413)부터 실시되어 482년간 실시되어 오던 조선의 행정체제는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1895년 5월 팔도제를 폐지하고 지방제도 개정과 지방관 관제를 시행하면서 크게 변하였는데, 8도의 각 감영(監營) 및 안무영(按撫營)과 개성·강화·광주·수원 각 유수부(留守府)와 지방관을 전부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의 행정구역으로, 종래의 부(府)·목(牧)·군(郡)·현(縣) 등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336개의 군(郡)으로 통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성부와 23개의 부에는 관찰사를, 군에는 군수로 하여금 통할하게 하였다.

이때 강원도는 2부 22군이 되었다. 즉 춘천부와 강릉부를 설치하여 춘천부의 관부는 춘천에 설치하고, 강릉부는 그 관부를 강릉에 설치하여 강원도라는 명칭은 없어지게 되었다. 강원도의 감영(監營)이 폐지

되고 500년간 강원도의 수부로 관찰사가 있던 원주는 원주군이 되어 강원도 이름을 잃고 평창군·정선군·영월군과 함께 충주부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팔도제의 전통을 무시한 인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이듬해인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동시에 수도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의 행정구역을 다시 13도(道) 7부(府) 1목(牧) 331군(郡)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에서 지명도 크게 바뀌게 되었고, 이때 실시되었던 13도제의 행정구역은 1945년 이후 지명의 골격이 되었다.

이때 강원도는 팔도시대의 강원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회복하여 원주군을 비롯한 평창군·정선군·영월군 등 충주부에 예속되었던 군들도 모두 강원도에 복속되었다. 그러나 원주에 있던 강원도 감영은 원주에 다시 오지 못하고 춘천에 남게 되었다. 이후 1910년 한일합병 때까지 전국적인 행정구역의 폐치와 분합이 많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군의 위상도 변하게 되었다. 특히 1906년에는 제주목이 폐지됨으로써 목(牧)이 없어졌고, 전국을 4,338면(面)으로 조정하였으며, 원주의 경우 3개 면(수주면·좌변면·우변면)을 영월에, 1개 면(고모곡면)을 횡성에, 2개 면(지내면·강천면)을 여주에 이관하여 면적이 크게 축소되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병합한 일제는 모든 지방행정제도를 그들의 식민지 통치에 적합하게 정비하면서 면제(面制)를 강화하여 면에는 면장을 두어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하도록 하였다. 1910년 전국 지방행정 구역의 수는 13도·12부·317군·4,322개 면이 되었는데, 이때 강원도는 21군·178면·1,499리·동이 있었다.

1916년에 완결을 보게 된 전국의 행정구역은 13도 12부 220군 2,518면 28,181리로 되었고, 이때 강원도는 21군 178면 1,944리·동이었으며, 원주군은 10면 67리·동이었다. 1917년에는 본부면이 원주면으로, 가리파면이 신림면으로, 금물산면이 흥업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37년 원주군의 본부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원주군은 1읍 9개 면이 되었다.

1955년 8월 13일 법률 제372호로 원주읍은 판부면 단구리·행구리 및 호저면 우산리를 편입하여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개칭하여 원주시와 원성군으로 되었고, 1989년 1월 1일부로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하여 원주시와 원주군으로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를 앞두고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주군이 원주시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2장 원주 지명 및 면·리의 변천

### 제1절 행정 지명 변천

고대부터 현재까지 원주의 행정지명 변천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원주 행정 지명 변천】

시대(時代)	명칭(名稱)	시기(時期)
상고 및 삼국시대	마한의 영역	마한 동쪽 지역
	백제의 동북 영역	백제 근초고왕(346~375)
	평원군(平原郡)	고구려 장수왕 55년(467)
통일신라시대	북원소경(北原小京)	문무왕 18년(678)
	북원경(北原京)	경덕왕 16년(757)
고려시대	원주(原州)	태조 23년(940)
	원주(原州)	성종 14년(995) ; 중원도 또는 충주목에 소속
	지주사(知州事)	현종 9년(1018)
	일신현(一新縣)	고종 46년(1259) ; 송필의 반역사건으로 강등
	원주(原州) 지주사(知州事)	원종 1년(1260) ; 지주사 회복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	원종 10년(1269) ; 승격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	충렬왕 17년(1291) ; 원충감의 합단적 격퇴로 승격
	원주목(原州牧)	충렬왕 34년(1308) ; 승격
	성안부(成安府)	충선왕 2년(1310) ; 격하
	원주목(原州牧)	공민왕 2년(1353) ; 회복

시대(時代)	명칭(名稱)	시기(時期)
조선시대	원주목(原州牧)	태조 4년(1395) ; 강원도 설치, 원주에 감영 설치
	원성현(原城縣)	숙종 9년(1683) ; 남편 살해사건으로 강등
	원주목(原州牧)	숙종 18년(1692) ; 회복
	원성현(原城縣)	영조 4년(1728) ; 정무중(鄭茂重)의 모반으로 강등
	원주목(原州牧)	영조 13년(1737) ; 회복
근·현대	원주군(原州郡)	고종 32년(1895) ; 충주부로 이관(8도제 폐지, 23부제 실시)
	원주군(原州郡) 본부면	고종 33년(1896) ; 강원도로 이관(13도제 실시, 강원도청 춘천으로 이전)
	원주군(原州郡) 원주면	1910년 본부면을 원주면으로 개칭(원주면 ; 상동리, 하동리, 화천리, 태장리, 사천리)
	원주군(原州郡) 본부면	1914년 10개 면으로 확정(본부면·가리파면·귀래면·금물산면·건등면·부론면·판부면·소초면·호저면·지정면) 1917년 가리파면>신림면, 금물산면>흥업면으로 개칭
	원주읍·원주군	1937년 본부면이 원주읍(14개 정)으로 승격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개정(15개 동)
	원주시·원성군	1955년 원주시로 승격, 원주군>원성군으로 개칭
	원주시·원주군	1989년 원성군>원주군으로 개칭
	원주시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 통합

## 제2절 면(面)·리(里)의 변천

조선시대 원주목(原州牧)이 관할하였던 지역은 시대에 따라서 그 수와 명칭의 변동이 있었다. 1760년대 『여지도서』를 기준으로 보면 원주목에는 20개 면(본부면·사근사면·수주면·좌변면·우변면·부론

면 · 강천면 · 지내면 · 사제면 · 미내면 · 소초면 · 호매곡면 · 고모곡면 · 정지안면 · 지향곡면 · 굴파면 · 판제면 · 저전동면 · 금물산면 · 가리파면)과 1개 읍(읍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원주목의 관할 면은 1830년경에 편찬된 『관동지』에도 변함없이 20개 면 · 1개 읍으로 되어 있고 이후 1900년까지 명칭의 변경이 있을 뿐 대체적으로 지속되어왔으나 1906년 고모곡면이 횡성군으로, 수주면 · 좌변면 · 우변면이 영월군으로, 지내면 · 강천면이 여주군으로 옮겨져 행정단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12년에 편찬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하면 14면 89리로 되어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주의 면 · 리 현황(1912년)】

면명(面名)	리수(里數)	동리명(洞里名)
가리파면(加里坡面)	6리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귀 래 면(貴 來 面)	7리	초1리, 분1리, 2리, 분2리, 3리, 분3리, 양아치리
금물산면(今勿山面)	5리	초1리, 분1리, 2리, 분4리, 분5리
미 내 면(彌 乃 面)	9리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본 부 면(本 部 面)	4리	1리, 2리, 3리, 본읍리
부 론 면(富 論 面)	9리	본1리, 분1리, 2리, 3리, 4리, 5리, 본6리, 분6리, 7리
부흥사면(富興寺面)	5리	1리, 2리, 3리, 4리, 5리
사 제 면(沙 堤 面)	8리	분1리, 분2리, 분3리, 분4리, 분5리, 분6리, 분7리, 분8리
소 초 면(所 草 面)	10리	초1리, 분1리, 2리, 분4리, 분4리, 5리, 본6리, 분6리, 7리, 8리
저전동면(楮田洞面)	4리	1리, 2리, 3리, 4리
정지안면(正之安面)	5리	본1리, 분1리, 2리, 3리, 4리
지향곡면(地向谷面)	5리	1리, 2리, 3리, 분3리, 4리
판 제 면(板 梯 面)	6리	하1리, 상1리, 본2리, 분2리, 본3리, 분3리
호매곡면(好梅谷面)	6리	1리, 2리, 3리, 본4리, 분4리, 5리

위와 같은 원주군의 14면 제도는 1914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서 10면 67리로 변경되었다. 이때의 면·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주의 면·리 현황(1914년)】**

면 명 (面名)	리 수 (里數)	리 명 (里名)	구 역 (區域)
가리파면 (加里坡面)	7리	구학리(九鶴里) 금당리(金唐里) 성남리(城南里) 송계리(松桂里) 신림리(神林里) 용암리(龍岩里) 황둔리(黃屯里)	가리파면 2리 가리파면 1리 일부 가리파면 4리 가리파면 6리 가리파면 1리 일부 가리파면 3리 가리파면 5리
건 등 면 (建 登 面)	9리	건등리(建登里) 궁촌리(宮村里) 동화리(桐華里) 문막리(文幕里) 반계리(礮溪里) 비두리(碑頭里) 취병리(翠屏里) 포진리(浦津里) 후용리(厚用里)	사제면 분3리, 분4리, 분5리, 미내면 7리 일부 미내면 3리, 4리 사제면 분6리, 분5리 일부 미내면 7리, 8리, 사제면 분4리 각 일부 사제면 분1리, 분2리 일부 미내면 1리, 2리 사제면 분3리, 분2리 각 일부 미내면 5리, 6리 미내면 9리
귀 래 면 (貴 來 面)	5리	귀래리(貴來里) 용암리(龍岩里) 운계리(雲溪里) 운남리(雲南里) 주포리(周浦里)	귀래면 3리, 분3리, 양아치리 귀래면 초1리 귀래면 분2리 귀래면 2리 귀래면 분1리
금물산면 (今勿山面)	5리	대안리(大安里) 매지리(梅芝里) 무실리(茂實里) 사제리(沙堤里) 흥업리(興業里)	금물산면 초1리 금물산면 2리, 분4리 판제면 본3리, 분3리 사제면 분7리, 분8리 금물산면 분1리, 분5리

면 명 (面名)	리 수 (里數)	리 명 (里名)	구 역 (區域)
본 부 면 (本部面)	5리	상동리(上洞里) 하동리(下洞里) 태장리(台庄里) 화천리(花川里) 흥양리(興陽里)	본부면 3리, 본읍리, 부흥사면 1리, 판제면 하1리 일부 본부면 본읍리, 3리 각 일부 본부면 2리, 3리 각 일부 본부면 1리 본부면 2리 일부
부 론 면 (富論面)	6리	노림리(魯林里) 단강리(丹江里) 법천리(法泉里) 손곡리(蓀谷里) 정산리(鼎山里) 흥호리(興湖里)	부론면 7리 일부 부론면 본1리, 분1리 일부 부론면 3리, 4리, 2리 일부 부론면 5리 부론면 2리, 분1리 일부 부론면 본6리, 분6리
소 초 면 (所草面)	7리	교항리(橋項里) 둔둔리(屯屯里) 수암리(壽岩里) 의관리(衣冠里) 장양리(長陽里) 평장리(平庄里) 학곡리(鶴谷里)	소초면 7리 소초면 본6리, 분6리 소초면 2리 소초면 5리 소초면 초1리, 분1리, 분4리 소초면 본4리 소초면 8리
지 정 면 (地正面)	8리	가곡리(佳谷里) 간현리(良峴里) 무장리(茂長里) 보통리(普通里) 신평리(新坪里) 안창리(安昌里) 월송리(月松里) 판대리(判垞里)	지향곡면 분3리(가곡리) 지향곡면 2리(가곡리), 3리(보통리 일부) 정지안면 분1리(무장리), 본1리(생장리), 3리(송호리) 각 일부 지향곡면 3리 일부 정지안면 본1리(생장리), 2리(차면리), 3리(송호리) 각 일부 지향곡면 1리 정지안면 4리(월호리), 3리(송호리) 일부 지향곡면 4리 일부
판 부 면 (板富面)	6리	관설리(觀雲里) 금대리(金垞里) 단구리(丹丘里) 서곡리(瑞谷里) 행구리(杏邱里)	부흥사면 2리, 3리, 판제면 본2리 각 일부 부흥사면 1리, 판제면 본2리 각 일부 판제면 상1리, 하1리, 부흥사면 1리 각 일부 반곡리(盤谷里) 부흥사면 2리, 3리, 4리 각 일부 판제면 분2리 부흥사면 4리 일부, 5리



면 명 (面名)	리 수 (里數)	리 명 (里名)	구 역 (區域)
호 저 면 (好 楮 面)	9리	가현리(加峴里) 고산리(高山里) 광격리(光格里) 대덕리(太德里) 만종리(萬鍾里) 사천리(沙川里) 옥산리(玉山里) 우산리(牛山里) 주산리(珠山里)	저전동면 1리 호매곡면 3리, 본4리, 분4리 각 일부 호매곡면 본4리, 분4리, 분5리 각 일부 호매곡면 5리 저전동면 3리 저전동면 4리 일부 호매곡면 3리 일부 저전동면 2리 호매곡면 1리(호매곡리), 2리(주산리)

이상과 같은 10면 67리는 1937년 원주면이 읍(邑)으로 승격하여 1읍 9면이 되었고, 원주읍은 14개 정(町)을 두었다. 원주군의 이와 같은 제도는 1941년에 편찬된 『강원도지』에 1읍 9면 67리로 되어있다.

#### 【원주군의 읍·면 현황(1941년)】

읍면명	리수	동리명
원 주 읍	5리 14정	상동리(본정1정목, 개운동, 남산정, 대화정), 하동리(영정, 옥정), 태장리(태장정 1~2구), 봉산리(봉산정 1~3구), 사천리(사천정), 본정2정목, 금정
귀 래 면	5리	귀래리, 용암리, 운계리, 운남리, 주포리
문 막 면	9리	건등리, 궁촌리, 동화리, 문막리, 반계리, 비두리, 취병리, 포진리, 후용리
부 론 면	6리	노림리, 단강리, 법천리, 손곡리, 정산리, 흥호리
소 초 면	7리	교항리, 둔둔리, 수암리, 의관리, 장양리, 평장리, 학곡리
신 림 면	7리	구학리, 금당리, 성남리, 송계리, 신림리, 용암리, 황둔리
지 정 면	8리	가곡리, 간현리, 무장리, 보통리, 신평리, 안창리, 월송리, 판대리
판 부 면	6리	관설리, 금대리, 단구리, 반곡리, 서곡리, 행구리
호 저 면	9리	가현리, 고산리, 광격리, 대덕리, 만종리, 사천리, 옥산리, 우산리, 주산리
흥 업 면	5리	대안리, 매지리, 무실리, 사제리, 흥업리

해방 후인 1946년에는 원주읍의 14개 정(町)을 15개 동(洞)으로 바꾸어 평원동, 인동, 중앙동, 일산동,

개운동, 명륜동, 원동, 학성동 1·2구, 단계동, 태장동 1·2구, 봉산동 1·2·3구로 하였다. 해방 이전까지의 행정단위의 변천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원주 행정단위 변천과정 일람】

여지도서 1765	관동지 1831	대동지지 1866	원주읍지 1871	고종32 1895	1912	1916	1917	강원도지 1941
읍 내	읍내면	본부면	읍내	---	본부면	---	원주면	원주읍 (1938)
본 부 면	---		본부면	---				
가리파면	---	----	----	----	----	----	신림면	---
굴 파 면	---	---	귀래면	굴파면	귀래면	---	---	---
금물산면	----	----	----	----	----	금물산면	흥업면	---
사 제 면	---	사제촌면	사제면촌	----	사제면			
미 내 면	며내면	미내면	며내면	---	---	건등면	---	문막면 (1936)
부 론 면	---	---	---	---	---	---	---	---
사근사면	----	----	부흥사면	사근사면	부흥사면	판부면	---	---
판 제 면	---	---	판제면촌	----	판제면			
소 초 면	---	---	---	---	---	---	---	---
저전동면	----	----	----	----	----	호저면	---	---
호매곡면	----	----	----	----	----			
지향곡면	----	----	----	----	----	지정면	---	---
정지안면	----	----	----	----	----			
고모곡면	----	----	----	----	=>횡성군			
수 주 면	---	원의곡면	수주면	---	=>영월군			
좌 변 면	---	---	---	---	=>영월군			
우 변 면	---	---	---	---	=>영월군			
지 내 면	---	---	---	---	=>여주군			
강 천 면	---	---	---	---	=>여주군			

이와 같은 행정체제는 그대로 계속되다가 1955년 9월 1일에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판부면의 단구리·행구리와 호저면 우산리를 원주시로 편입하여 행구동·단구동·우산동으로 함으로서 기존의 평원동·인동·중앙동·일산동·개운동·명륜동·원동·학성동1~2구·단계동·태장1~2구·봉산1~3구 등 15개 동과 합하여 원주시는 18개 동이 되었다. 한편 원주군으로 있던 읍·면지역은 원성군(原城郡)으로 이름을 바꾸어 원주는 원주시·원성군 체제로 분리되었다.

1965년에 원주시는 14동(중앙동, 평원동, 원동, 인동, 개운동, 명륜동, 단구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동, 봉산동, 행구동)의 명칭 및 구역을 설정하였다. 1973년에는 원성군 호저면 가현리, 판부면 관설리, 흥업면 무실리 일원을 원주시로 편입하여 각각 가현동, 관설동, 무실동, 반곡동으로 하여 법정동 18동으로 확정하였다.(가현동, 개운동, 관설동, 단계동, 단구동, 명륜동, 무실동, 반곡동, 봉산동, 우산동, 원동, 인동, 일산동, 중앙동, 태장동, 평원동, 학성동, 행구동)

1983년에는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일부를 원주시에 편입하고, 원주시 관설동 일부(신촌리)를 원성군 판부면에 이관하였으며, 횡성군 서원면의 매호리·산현리 및 압곡리 일부를 원성군 호저면에 편입하였다. 1989년에는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명칭 변경하여 원주는 원주시·원주군 체제가 되었고, 1995년 1월 1일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로 하였다. 이 해에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일부가 원주시 문막으로 편입되고 문막면이 문막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현재 원주시의 법정 읍면동은 1읍 8면 18동이다.

### 【원주시 법정 읍면동 현황】

읍(1)	문막읍
면(8)	귀래면, 부론면, 소초면, 신림면, 지정면, 판부면, 호저면, 흥업면
동(18)	가현동, 개운동, 관설동, 단계동, 단구동, 명륜동, 무실동, 반곡동, 봉산동, 우산동, 원동, 인동, 일산동, 중앙동, 태장동, 평원동, 학성동, 행구동

이렇게 하여 원주시와 원주군으로 분리되었던 원주지역의 행정체제는 원주시 행정체제로 일원화되었으며, 원주시는 그 면적이나 인구 등 종전의 원주시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452년 조선 초기에 원주목에는 1,148호, 3,233명의 인구가 있었으나 1893년(고종 32)에는 20면 91리에 8,637호, 37,646명의 인구가 있었다. 1955년 원주시 승격 당시 원성군이 분리되면서 원주시의 인구는 약 7만 명이었는데, 1965년 94,545명, 1975년 120,335명, 1985년 151,372명이었다. 1995년 원주군과 통합할 때에는 238,027명이었고, 2018년 12월 현재 149,166세대에 인구는 347,234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 제3장 원주의 지리

### 제1절 위치

원주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우리나라 중부지방인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반도의 백두대간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서남쪽에 있으며 동경 127°45'~128°13' 사이와 북위 37°08'~37°30'에 위치한다.

동쪽은 치악산 줄기를 두고 횡성군·영월군, 서쪽은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남쪽은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북쪽은 횡성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동쪽 끝은 신림면 송계리, 서쪽 끝은 부론면 법천리, 남쪽 끝은 부론면 단강리, 북쪽 끝은 호서면 고산리이다. 동서간 거리는 42.7km, 남북간 거리는 42km이다.

### 제2절 면적과 지형

원주시의 총면적은 872.56km<sup>2</sup>로, 이는 한반도의 0.4%, 남한의 0.87%, 강원도의 7.86%에 해당한다. 읍면별 면적은 신림면이 127.41km<sup>2</sup>로 가장 넓고, 문막읍 104.34km<sup>2</sup>, 소초면 103.08km<sup>2</sup>의 순서이다. 반면에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원인동으로 0.48km<sup>2</sup>이다.

원주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과 중생대의 화성암류, 그리고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는 동부 치악산 지역과 서부 문막 부근에 분포하고, 중생대 화성암류는 원주~문막 일원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원주의 지형은 치악산 줄기와 백운산 줄기가 자리한 동쪽과 남쪽은 높고 서쪽과 북쪽은 섬강과 남한강이 흘러 낮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치악산 줄기의 서쪽 완사면과 백운산 줄기의 북쪽 분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원주시의 동쪽은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차령산맥이 치악산의 비로봉(1,288m)·삼봉(1,073m)·향로봉(1,043m)·남대봉(1,182m)·매화산(1,084m) 등으로 이루어진 높고 험준한 산줄기를 형성하고, 북서부는 비교적 완만한 덕고산(521m)·문바위봉(597m)·당산(545m)·관모산(403m) 등이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남쪽은 치악산 줄기가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면서 서쪽으로 뻗어 백운산(1,087m)·십자봉(983

m) · 벼락바위봉(939m) · 구학산(983m) · 갈미봉(595m) 등이 이어져 있다.

남대봉과 가리파에서 발원한 원주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주시를 관통하며 지류인 화천(花川)과 흥양천(興陽川)을 합치면서 사방의 구릉지를 침식해 원주분지를 형성하고 호저면 퍼내에서 섬강(蟾江)으로 유입한다. 백운산에서 발원한 사제천은 매지리와 흥업을 거치면서 넓은 들을 만들었고, 사제리 · 만종리와 동화리를 지나 마라우에서 섬강에 유입한다.

횡성에서 내려오는 섬강은 원주시의 북서부를 흐르면서 호저면 무장리, 지정면 간현리, 문막읍 문막리 · 후용리 일대에 넓고 기름진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흥호리에서 남한강에 합류한다. 섬강은 좁은 협곡을 곡류하며 월송리, 간현, 취병암과 같은 수려한 풍광을 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원평야 다음으로 넓은 문막평야를 비롯한 넓은 들을 만들었다.

### 제3절 산

#### ■ 가마봉 → 투구봉

#### ■ 갈미봉

귀래면 운남리 운암동 남쪽 등치맥이골 끝에 있는 높이 595m의 산이다. 백운산과 십자봉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배재를 지나 서쪽으로 솟아 갈미봉이 되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산 동쪽에 갈기봉과 녹재고개가 있다.

산봉우리가 칼같이 뾰족하므로 갈미봉 · 갈모봉이라고 하였다. ‘갈모봉’, ‘모봉’, ‘간무봉’, ‘갓모산(帽谷)’이라고도 한다.

#### ■ 감악봉(紺岳峰) · 감악산(紺岳山)

신림면 황둔리 창촌 남쪽에 있는 높이 954m의 산이다. 북쪽의 치악산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남쪽으로 석기암(石機巖)을 거쳐 제천 용두산(龍頭山)으로 이어진다.

정상에는 원주시에서 세운 정상표지석(930m)과 제천시에서 세운 정상표지석(945m)이 따로 있다. 정상 남쪽 아래 불당골에는 662년(신라 문무왕 2)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백련사(白蓮寺)가 있다. 절과 정상 사이에 감악산성터가 남아있고 상원사 용마암과 얽힌 전설이 있다.

감악산은 가마바우를 비롯, 정상의 월출봉과 일출봉 등 거대한 암봉들로 이루어진 산이다. 감바우(가마바우)가 있으므로 ‘감악봉 · 감악산’이라고 하였는데 ‘감 · 가마, 곰 · 고모’ 등은 ‘곰’계통의 언어로 ‘크다 · 높다 ·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창촌에서 보면 봉우리가 세 개로 보이므로 ‘삼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감암산(紺巖山)’이라고 하였다.

## ■ 거무산

흥업면 대안리 은행정 서쪽에 있는 높이 500.2m의 산이다. 명봉산 동쪽 줄기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에 이 산의 이름을 따서 면 이름을 ‘금물산면(金勿山面)’이라 하였다.

‘거무’는 ‘금’계통의 언어로 ‘높고 큰,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에서 ‘감·가마, 곰·고모, 검·거무’ 등이 파생되어 널리 분포되었는데 따라서 ‘거무산’은 ‘높고 큰, 신성한 산’이란 뜻이다.

## ■ 건등산(建登山)

문막읍 건등리 구라우와 너그내 북쪽에 있는 높이 259.8m의 산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과 전쟁을 할 때 올랐다고 해서 ‘건등산’이라 하였다. 후삼국시대 건등산에서는 왕건이 진을 치고 있었고 견훤은 후용리에 견훤산성을 쌓아 대적하였다고 전한다. ‘영산(靈山)’, ‘기린산(麒麟山)’이라고도 한다.

## ■ 구학산(九鶴山)

구학산은 신림면 구학리 남서쪽에 있는 높이 983.4m의 산으로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과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경계가 된다. 백운산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벼락바위봉, 다시 남동쪽으로 구력재를 거쳐 솟은 산으로, 산의 남쪽과 서쪽은 급경사 바위지대로 되어있다.

옛날에 이곳 마을의 어느 대갓집에 초상이 나서 명당이라고 알려진 산 정상 바로 아래를 파자 그 속에서 아홉 마리의 학이 날아올라 신선이 되었다는데 이때 날아간 학들이 머문 곳에 학(鶴)자가 들어간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즉 선학, 방학, 황학, 학산, 운학 등이 이러한 지명이며 이후로 마을 이름을 구학리라 하였고 산 이름을 구학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지역의 ‘구’, 또는 ‘구리’와 관계된 지명들은 옛말 ‘굴·굴’ 계통으로 ‘구라·구래·구례·구려·구리’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굴(구리)+재>구라재>구락재>구력재, 구록재’ 등으로 음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학(九鶴)’은 ‘구락·구력’의 소리를 적은 것으로, 이를 음차하면서 ‘구학(九鶴)’이라 하여 이 지역에 많은 ‘학(鶴)’자 지명을 낳아 방학동, 선학동, 황학동 등의 지명이 생겼다. 구력재를 넘어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도 방학리, 운학리가 있고 제천에도 구학리가 있다.

## ■ 긴경산

부론면 노림리 광명터 남동쪽에 있는 높이 352.9m의 산이다. 백운산의 줄기로 노림리, 손곡리, 흥호리의 경계가 된다. ‘경경산’, ‘경정산’, ‘봉화대’, ‘청룡봉’이라고도 한다.

### ■ 남대봉(南大峰, 南臺峰, 南台峰)

신림면 성남리 상원골 위에 있는 높이 1,181.5m의 산으로, 비로봉과 함께 치악산을 대표하는 산봉우리이다. 판부면과 신림면 및 횡성군 안흥면과 경계를 이룬다.

봉우리 남쪽에 더 높은 시명봉(1,196m)이 있으나 남대봉이 주봉으로 인식되고 있다. 봉우리 남동쪽 아래 1,100m 지점에 상원사가 있다. 남쪽의 시명봉과 이름이 서로 바뀐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 봉이 ‘남대봉’, 남쪽 1,196m 봉이 ‘시명봉’으로 정착되었다.

한자로는 남대봉(南臺峰, 南大峰), ‘남태봉(南台峰)’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었는데, 정상 남쪽에 넓은 터를 뜻하는 ‘큰남대’, ‘작은남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이 봉은 봉우리보다는 ‘터’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당산(塘山)

지정면 안창리 수청동 서쪽에 있는 높이 545m의 산이다. 북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 경계가 되고 서쪽으로는 여주시 강천면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당산 동쪽 능선에 대송치가 있다. ‘일당산’이라고도 한다.

### ■ 덕가산(德加山)

흥업면 매지리 남서쪽에 있는 높이 700.5m의 산이다. 매지리와 문막읍 비두리, 귀래면 귀래리의 경계가 된다. ‘대송산’, ‘덕봉산’, ‘덕화산’, ‘영산(靈山)’이라고도 한다.

화전민들이 정착하여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 전투가 치열하여 많은 전사자들이 났다고 한다.

### ■ 덕고산(德高山)

덕고산은 소초면 둔둔리 고리골과 교항리 공산 사이에 있는 높이 521.2m의 산이다. 교항리와 둔둔리의 경계이며 원주시와 횡성군 횡성을 청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 ■ 덩바우산

우산동 우두산 서쪽, 장구봉의 남동쪽 줄기에 있는 높이 262.6m의 바위산으로, 현 상지대학교 북서쪽 영동고속도로 건너에 있다. 우산동과 가현동, 호저면 만종리의 경계가 된다.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덩바우가 있으므로 덩바우산이라 하였다.

### ■ 매봉산(梅峰山)

매봉산은 치악산 줄기의 남쪽에 솟은 산으로 신림면 황둔리 창촌과 성남리 주련골 사이에 있다. 높이 1,094.9m로 신림면과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경계를 이룬다. 산 서쪽에는 높이 1,063.5m의 응봉산(鷹峰

山)이 있다.

산 정상에서 매를 가지고 꿩과 토끼를 사냥했다고 해서 매봉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는 산봉우리에 항상 매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산 아래 석기동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이 매의 부리처럼 생겨서 매봉산으로 부른다고도 한다.

매봉산은 ‘뫼’에서 유래된 경우도 있고, 매(鷹)와 관련된 경우도 있으며 ‘매봉·매봉산, 응봉·응봉산’ 이름은 널리 분포하는 산 이름이다. 흔히 ‘매봉’을 ‘응봉(鷹峰)’으로 쓰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은 항상 혼용되어 쓰인다. 여기에서도 이 산과 서쪽 응봉산(1,063.5m)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 ■ 매화산(梅花山)

매화산은 소초면 학곡리 한다리 남동쪽에 있는 높이 1,085m의 산이다. 치악산의 줄기인데도 수레너미를 경계로 하여 치악산줄기와 구분되어 독립된 다른 산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매화산의 북쪽에는 강림으로 넘어가는 전재가 있다. 소초면 학곡리, 황성군 우천면·강림면의 경계가 된다. ‘매지산(梅枝山)’, ‘신선봉(神仙峰)’이라고도 한다.

### ■ 명봉산(鳴鳳山)

명봉산은 문막읍 건등리 남동쪽에 있는 높이 598.7m, 또는 그 북동쪽의 614.5m의 산을 말한다. 치악산 남대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서쪽으로 휘어져 백운산을 이루고, 여맥이 북쪽으로 이어져 명봉산에서 솟았다.

문막읍 건등리, 궁촌리, 흥업면 대안리와 경계를 이루는, 문막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국수봉, 천마산, 메나산, 동화산, 박달봉, 건등산을 거느리고 있다.

봉우리가 두 개이므로 명봉산 정상에 대해서는 고증이 엇갈린다. 『1917년지적도』에는 614.5m 봉우리라 하였고 국토지리원에서는 남서쪽 598.7m 봉우리를 명봉산으로 표기하였다. 현재 등산객들은 598.7m 봉우리를 명봉산 ‘주봉(主峰)’, 614.5m 봉우리를 명봉산 ‘상봉(上峰)’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봉황이 깃들어 운 산이라고 하여 명봉산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부엉이가 밤에 찾아와서 늘 울기 때문에 명봉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신선봉’, ‘성짚봉’이라고도 한다.

### ■ 미륵산(彌勒山)

귀래면 귀래리, 운계리, 용암리 경계에 있는 높이 695.5m의 산을 말한다. ‘용화산(龍華山)’, ‘대왕산(大王山)’이라고도 한다. 백운산의 지맥이지만 독립된 산으로, 미륵봉·장군봉·신선봉 등 암벽으로 된 12개의 봉우리가 있다.

황산사 뒤쪽 미륵봉에 마애미륵불상이 있으므로 ‘미륵산’이라 하였다. 신라 말 경순왕이 와 있었다고 하여 ‘대왕산’이라고도 하고, 경순왕이 미륵불을 새기고 용화세계를 꿈꾸었다고 하여 ‘용화산’이라고도 한

다. 산 동쪽 아래에는 927년(경순왕 1)에 서응과 학서가 창건하였다는 황산사터가 남아있고 여기에 황산사 삼층석탑과 부도가 있다.

한편 운남리에 있는 배재는 덕주공주가 아버지 경순왕이 있는 이곳을 향해 절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 ■ 배부른산

무실동과 흥업면 경계에 있는 높이 417.6m의 산이다. 감박산·봉화산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주시의 서쪽을 가로막아 흥업면, 호저면과 경계를 이룬다.

산의 모습이 임산부처럼 배가 불러보이므로 배부른산이라 하였고 한자로는 ‘식악산(食岳山)’, ‘포복산(胞腹山)’이라고 하였다.

### ■ 백운산(白雲山)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위에 있는 높이 1,087.1m의 산으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의 경계에 있다. 치악산과 함께 원주를 대표하는 큰 산으로, 가리파재를 중심으로 그 북동쪽에는 치악산이, 남서쪽에는 백운산이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산줄기가 아주 넓게 뻗어있어 남서쪽으로 오두치와 십자봉, 남쪽으로 뱃재와 갈미봉, 서쪽으로는 큰 양아치를 지나 덕가산을 이루고, 덕가산 줄기가 북으로 뻗어 국수봉·명봉산을, 남쪽과 서쪽으로는 미륵산·봉림산·현계산 등을 이룬다.

주민들은 대체로 이 산줄기를 통칭하여 백운산으로 부르고 있어 이 산줄기에는 백운산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많다. 백운산의 주 계곡은 용수골이며, 산 북쪽 아래에 큰용소골과 작은용소골이 있고, 큰용소골에 용소폭포와 용소가 있다.

늘 흰 구름이 끼어 있고 겨울에도 흰 눈이 쌓여 있다고 해서 백운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마치 고기를 겹겹이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육산(肉山)’ 또는 ‘겹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봉림산

귀래면 미륵산의 서쪽, 부론면 현계산의 남동쪽에 있는 높이 579.3m의 산이다. 봉림산 줄기는 남쪽으로 살미까지 이르는데 이 산줄기가 귀래면과 부론면의 경계이다.

원래 봉림산은 서쪽에 있는 부론면 손곡리와 단강리의 경계인 543.3m의 봉우리이나 이 산도 봉림산으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봉림산, 방아재, 방아실, 미륵산, 서지재 등이 혼용되어 같은 이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 봉산(鳳山)

봉산동 원주초등학교 뒤에 있는 높이 233.2m의 산이다. 봉산은 강원감영에서 동쪽 내 건너에 가까이 있는 산이어서 봉천과 함께 자주 언급되었다. 봉산과 봉천은 그만큼 지리적·인문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모든 기록에 다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신성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봉산’은 ‘봉(峰)+산(山)>봉산’, ‘봉(峰)+산(山)+뫼(山)>봉산뫼>봉산미>봉살미’가 된 것이나, 이후 ‘봉(峰)’을 ‘봉(鳳)’으로 보고 봉황과 연관시켜 ‘봉산(鳳山)·봉천(鳳川)’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을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였다. ‘봉(峰)’을 ‘봉(鳳)’으로 미화한 것은 지명을 기록할 때 가급적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 ■ 봉화산(烽火山, 鳳華山)

단계동 백간 서쪽에 있는 높이 336.2m의 산이다. 봉화산 북쪽의 상봉, 남쪽으로 감박산·배부른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원주시의 서쪽을 막고 있어 호저면, 흥업면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옛날에 봉화를 올렸으므로 ‘봉화산’, ‘봉우재’라고도 하였다고 하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 ■ 비산(飛山)

신림면 송계리 솔치재 북동쪽, 버들치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694.3m의 산이다. 원주시 신림면과 영월군 주천면의 경계가 된다. ‘비우산’, ‘배거리산’이라고도 한다. 예부터 산 위에 구름이 걸려 있으면 꼭 비가 온다고 해서 ‘비산’, ‘비우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옛날 서마니강이 범람했을 때 산꼭대기에 배가 걸려들므로 ‘배거리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 ■ 삼봉(三峰)

소초면 흥양리 동쪽 치악산 비로봉 북서쪽 아래에 있는 높이 1,072.6m의 산이다. 치악산의 서쪽 줄기 중 가장 높은 봉우리로, 비로봉 서쪽 쥐너미재에서 다시 북쪽으로 시작되는 능선의 첫 봉우리이다. 북쪽 능선에 투구봉과 토끼봉이 이어져 있어 치악산 줄기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흥양리에서 보아 봉우리가 세 개이므로 삼봉이라 하였다. 또는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여 ‘봉화봉’이라고도 한다.

### ■ 삼봉산(三峰山)

신림면 용암리 역뒤 마을 동쪽 삼봉골에 있는 높이 665m의 산이다. 상봉, 중봉, 하봉이 있다. 봉우리가 세 개이므로 삼봉산이라 하였다.

### ■ 석기암(石機巖)

신림면 황둔리 재사동 남쪽에 있는 높이 906.7m의 산이다. 감악산 줄기 남동쪽에 있으며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돌바우>돌기바우>석기암’이 되었다. 돌바위란 뜻이다. 재사동에 ‘돌고개’, ‘돌기재’가 있으므로 ‘돌재>



돌기재(석기령)', '둘바우>돌기바우(석기암)'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악산과 석기암산이 모두 바위로 된 산이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 ■ 선바우봉

신림면 성남리 선바우골 북동쪽, 작은선바우골 끝에 있는 높이 1,000.6m의 산이다. 치악산 남대봉 동쪽 능선에 있는 산으로 신림면 성남리, 횡성군 강림면,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경계를 이룬다.

#### ■ 소군산(召君山)

호저면 산현리 칠봉 남서쪽, 미재 북동쪽에 있는 높이 474m의 산을 말한다. 매호리와 산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이 산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나 기록이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 ■ 시명봉(始明峰)

신림면 성남리 치악산 남대봉 남쪽, 절골 북서쪽에 있는 높이 1,196m의 산봉우리이다. 치악산 남쪽 줄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가리파재 다릿골 북쪽에 있다. 치악산 줄기에서 가장 남쪽에 있으므로 빛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여 시명봉이라 하였다.

#### ■ 십자봉

백운산 남서쪽, 양아치 남동쪽에 있는 높이 983.2m의 산으로, 백운산(1,014m)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다. 백운산 줄기가 남서쪽으로 뻗다가 오두치에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950m 이상의 봉우리들로 산맥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서쪽으로는 덕가산에 달고 동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를 이룬다. 산 서쪽 줄기에 큰양아치, 작은양아치가 있다.

원래 이름은 '촉새봉'으로, 이는 산이 매우 가파르고 정상이 뾰족하여 생긴 이름인데, 일제강점기에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촉새와 비슷한 십자매를 염두에 두고 십자봉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촉새봉으로 부르지만 십자봉으로 널리 알려져 정착되었다.

#### ■ 영산(靈山)

지정면 가곡리 핏골 남동쪽, 신평리 채미니 남서쪽에 있는 높이 324m의 산이다. 새말고개 남쪽 여우박골산을 지나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 중 가장 높은 산으로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만종리·보통리의 경계가 된다.

산신령이 살고 있어서 영산이라고 하였다 한다. 포수가 짐승을 쫓다가 이 산으로 들어가면 총을 쏘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였다고 한다. 산 서쪽에는 호랑이가 자주 와서 앉으므로 '호랑이 옷방'이라 불리는 넓은 바위가 있다. 한국전쟁 때는 미군과 중공군의 접전지였다. 영산사 절터에 축대가 남아있다.

#### ■ 우두산(牛頭山)

우산동의 한가운데 있는 높이 195.3m, 191.7m의 산을 말한다. 우산공단 남서쪽, 상지대학교의 북동쪽에 있다. 우두산이라는 이름은 현 우산공단 서쪽에 있는 산줄기를 범칭하는 지명이다.

#### ■ 응봉산(鷹峰山)

신림면 성남리 주련골 북동쪽, 전불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 1,063.5m의 봉우리이다. 동쪽으로 황둔리 매봉산과 이어진 능선이 성남리와 황둔리의 경계이며, 북쪽으로 선바우봉과 이어진 능선은 신림면 성남리와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경계를 이룬다. 이 산을 ‘매봉’이라고도 하므로 황둔리 매봉산(1,094.9m)과 서로 혼동되어 이름이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 ■ 장구봉

호저면 만종리 최북단, 절골 북쪽 끝에 있는 높이 346.3m의 산이다. 만종리와 가현동, 지정면 신평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장고봉’, ‘저고무지산’이라고도 한다.

#### ■ 천마산(天馬山, 天麻山)

문막읍 문막리 동쪽, 건등저수지 남쪽에 있는 높이 320m의 산이다. 문막리, 건등리, 포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동쪽 능선에 국수봉, 명봉산이 있다.

#### ■ 천삼산(天蓼山)

감악산 서쪽, 삼봉산 북동쪽에 있는 높이 818.6m의 산이다.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및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천수산’이라고도 한다.

하늘에서 산삼씨앗을 준다는 전설이 있어서 천삼산이라 한다. 늦가을에 비가 내리면 선덕동 천수골의 철철바위로 산삼씨앗이 떨어려 오는데 이는 하늘이 산삼씨앗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는 옛날 한 효자가 병든 아버지를 구하려고 산속을 헤매다가 이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여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으므로 천삼산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 ■ 천지봉(天地峰)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 비로봉과 수레너미, 매화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있는 높이 1,085.7m의 산 봉우리이다. 봉우리 북쪽으로 진달래능선을 거쳐서 수레너미와 매화산에 닿고 남서쪽으로는 배너미재를 거쳐 비로봉에 닿는다.

옛 기록에 ‘천주봉(天柱峰)’이라고 하였다. 구룡사의 승천하는 아홉 마리의 용으로 인하여 천지봉에 아홉 개의 능선이 있다고 한다.

## ■ 치악산(雉岳山)

치악산(1,288m)은 원주의 진산으로서 원주를 상징하는 산이다.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이 오대산과 치악산,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치악산은 원주의 동쪽에 크게 자리하면서 향로봉과 남대봉까지 거대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를 따로 치악산맥으로 부르기도 한다. 치악산의 봉우리로는 비로봉과 향로봉, 남대봉, 시명봉, 삼봉, 투구봉, 토끼봉, 천지봉 등이 있다.

이 치악산맥의 영향으로 원주는 동고서저의 지세를 이루게 되고 이 산줄기에서 발원한 많은 냇가 원주천(봉천)으로 모여 섬강과 남한강으로 흘러들며 원주분지를 형성한다.

원주가 고구려 신라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이었으므로 원주의 진산인 치악산도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옛 이름이 적악산(赤嶽山)이었던 것으로 보아 원래 ‘붉’계통의 산 이름이었다고 생각된다. ‘붉’은 ‘빨다·크다·높다’는 뜻이 있고 이는 ‘赤·白’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198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치악산은 구룡사가 있는 북쪽 계곡과 상원사가 있는 남쪽 계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북쪽 구룡골(큰골)은 산세가 웅장하며 세림폭포에서 시루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사다리병창(병창;벼랑, 절벽)으로 볼릴 만큼 가파르고 험한 바위산인 반면에 상원사가 있는 상원골은 완만한 육산으로 되어있다.

치악산에 있는 절로는 구룡골의 구룡사를 비롯하여 상원골의 상원사, 향로봉 서쪽 아래 고문골에 있는 보문사와 국형사, 고둔치 입구에 있는 관음사, 황골에 있는 석경사와 입석사 등 크고 작은 절들이 많이 있고 각종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치악산 주변에는 고장을 지켜준 영원골의 영원산성과 일론 서쪽에 있는 해미산성, 향로봉 남서쪽 아래에 있는 금두산성이 있어서 예부터 산세를 이용하여 원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 ■ 토끼봉

소초면 흥양리 치악산 삼봉 능선, 투구봉 북쪽에 있는 높이 898.5m의 봉우리를 말한다. 산봉우리 모양이 도끼처럼 날카롭게 생겨서 원래 ‘도끼봉’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토끼봉’으로 정착되고 있다.

## ■ 투구봉

소초면 흥양리 새두둑 동쪽에 있는 높이 996.8m의 산봉우리이다. 쥐너미재에서 다시 새로운 치악산 능선이 시작되는데 삼봉을 거쳐 북쪽 아래에 투구봉이 있고 그 아래에 토끼봉이 있다.

원래 이름은 ‘가마봉’으로, 흥양리 주민들이 신성시하던 산이었는데 지금은 ‘투구봉’으로 알려져 있다. ‘가마봉’은 ‘신성하다’는 뜻을 가진 ‘금’계통의 지명이다. 흥양리에서 보아 모양이 투구와 비슷하므로 ‘투구봉’이라 하였고 옛날 장군이 투구를 벗어놓고 쉬었다는 유래담도 생겼다.

## ■ 향로봉

행구동 웃고문골 위, 보문사 동쪽 위에 있는 높이 1,042.9m의 산봉우리이다. 치악산 비로봉에서 남쪽 5.5km 지점, 비로봉과 남대봉의 중간 지점에 솟아 치악산의 한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행구동과 판부면, 신림면, 횡성군 강림면의 경계가 되는 산으로 남쪽 능선에 평탄한 분지인 금두고원(치악평전)이 있고, 봉우리 아래에 옛 금두산성(金頭山城)과 보문사(웃고문절)가 있다.

#### ■ 현계산(玄溪山)

현계산은 부론면 손곡리의 남쪽, 단강리와 정산리의 북쪽, 법천리의 동쪽에 있는 높이 534m의 산이다. 미륵산의 줄기가 서쪽으로 봉림산에 이르고 다시 북서쪽으로 뻗어 봉을 이룬 산으로, 손곡리와 정산리의 경계가 된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법천사와 거둔사가 이 산자락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 ■ 호암산(虎岩山)

호저면 대덕리 북쪽, 광격리 남쪽에 있는 높이 311.1m의 산으로 광격리, 대덕리, 옥산리의 경계가 된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높은 산으로 동쪽은 섬강에 닿아 있고 서쪽은 매봉, 뒛고개, 영아지로 능선이 이어진다.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바위가 있어서 호암산이라 하였다. 마을마다 발음이 비슷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서, ‘앞산’, ‘영산’, ‘최암산’, ‘회안봉’, ‘회암봉’, ‘회암산’, ‘휴암산’이라고도 한다.

### 제4절 내

#### ■ 구학천(九鶴川)

신림면 구학리 구학산 큰골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향학동, 방학동, 사림을 거쳐 용암리 종림에서 주포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구학산에서 발원하므로 ‘구학천’이라 하였다. ‘황학천(黃鶴川)’, ‘종림천(種林川)’이라고도 한다.

#### ■ 관천(寬川, 寬泉)

문막읍 건등리 메나골 남동쪽 명봉산, 천마산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건등저수지에 머물다가 서쪽으로 너그내, 토평, 잔대물 앞을 지나 석지앞들에서 섬강에 합류한다.

너그내(들)를 지나므로 ‘너그내(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옮겨 ‘관천(寬川)’이라 하였다. ‘너그내’의 ‘내’는 내(川)를 뜻하기도 하고 들(土, 壤)을 뜻하기도 한다. 마을을 ‘관천(寬川)’이라 하고, 내는 ‘관천계

수(寬川溪水)’로 구분하기도 한다.

#### ■ 궁촌천(宮村川)

귀래면 큰양아치와 천은사계곡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귀운궁촌저수지에 머물다가 북서쪽으로 흐르며 날근터를 지나 포진리와 후용리의 경계에서 섬강으로 들어간다.

궁촌리 앞을 흐르므로 마을 이름을 따라 ‘궁촌천’이라 하였다. ‘궁말천’, ‘모래내’, ‘사천(沙川)’, ‘개지개울’이라고도 하며 상류인 귀래에서는 ‘곰네미천’, ‘귀래내’라 부른다.

유로연장 16.9km, 유역면적 61.6km<sup>2</sup>이다.

#### ■ 금창천(金倉川)

신림면 금창리 가리파 고개에서 시작하여 흑천, 금옥동을 지나 둔창 앞에서 둔창천과 합류하고 역골에서 역곡천과 합류한 다음 신림에서 주포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금옥동(金玉洞)과 둔창(屯倉)을 지나므로 ‘금창천’이라 하였다. 주포천을 ‘용암천(龍岩川)’이라고도 불렀고 둔창천이 용암천의 상류에 해당하므로 ‘용암천’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용암천은 ‘주포천’이라 부르고 주포천의 큰 줄기는 성남리를 거쳐 흐르므로 이 내는 마을 이름을 따라 ‘금창천’으로 부른다.

#### ■ 남송천(南松川)

판부면 서곡리 매봉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내남송저수지와 내남송, 외남송을 거쳐 변판서골, 둔전들을 지나 합포원에서 서곡천에 합류한다. 수량은 적지만 매우 긴 내이다. 남송 마을을 관통하므로 ‘남송천’이라 하였다.

#### ■ 대안천(大安川)

흥업면 덕가산과 문막읍 명봉산 사이의 노루재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흘러 대안저수지에 머물다가 대안리 중심부를 흐르고 사제리 사제울 앞 신촌에서 서곡천으로 합류한다.

대안리를 관통하므로 ‘대안천’이라 하였다. 유로연장 9.5km, 유역면적 20.7km<sup>2</sup>이다.

#### ■ 동화천(桐華川)

문막읍 동화리 명봉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동화사, 동화골을 지나고 수반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건등산 북쪽에서 섬강에 들어가는 내이다.

동화골을 지나므로 ‘동화천’이라 하였다.

#### ■ 둔창천(屯倉川)

신림면 금창리 둔창 서쪽 벼락바위봉과 예찬에서 시작하여 금창계곡, 둔창을 거쳐 금창천으로 들어가

는 내를 말한다. 둔창에서 발원하므로 ‘둔창천’이라고 하였다.

#### ■ 매지천(梅芝川)

흥업면 매지리 백운산 줄기인 오두치와, 덕가산 동쪽 양아치에서 발원하여, 매지리를 지나 북쪽으로 흘러 매지저수지에 머문 다음 흥업리 자감촌 앞에서 서곡천에 합류한다.

매지리 앞을 지나므로 ‘매지천’이라 하였다. 회촌 앞을 지나므로 ‘회촌천’이라고도 하고 매남 앞을 흐르므로 ‘매내미개울’이라고도 한다. 유로연장 10.7km, 유역면적 28.3km<sup>2</sup>이다.

#### ■ 모래내

봉화산에서 시작하여 단계택지, 단계초등학교 앞, 우산철교를 지나 복원교 북쪽에서 원주천에 합류한다. 배부른산에서 뚝내까지 내려온 무실천을 뚝내에서 합하고 무상골에서 내려온 무상골천을 모래내사거리에서 합하여 단계동과 우산동을 지나 원주천으로 들어간다.

‘모래내’ 자체가 내 이름이기도 하고 모래내(들)를 지나므로 ‘모래내’라고 하였다. ‘사천(沙川)’, ‘사천천(沙川川)’, ‘단계천(丹溪川)’이라고도 한다.

#### ■ 변재천

봉산동 북쪽 송문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변재저수지와 변재를 지나, 살대울 앞에서 모래기천을 합류하고 다시 남서쪽으로 잠시 흘러 너르내 북쪽에서 화천에 합류한다. 변재를 지나오므로 ‘변재천’이라 하였다.

#### ■ 법천천(法泉川)

부론면 손곡리 봉림산에서 발원하여 현계산의 물을 모아 손곡저수지에 머물다가 법천리를 경유, 안말 앞에서 남한강에 합류한다.

법천리를 경유하여 법천리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므로 ‘법천천’이라 하였다. 손곡리에서 발원하므로 ‘손곡천(蓀谷川)’이라고도 한다. 유로연장 11.8km, 유역면적 30.1km<sup>2</sup>이다.

#### ■ 봉천(鳳川) → 원주천

#### ■ 사제천(沙堤川) → 서곡천

#### ■ 삼산천(三山川)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산, 삼각산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며 지정면 판대리를 거쳐 간현에서 섬강으로 들어간다.



삼산천이라는 이름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三山里)’에서 유래하였다. 마을 뒷산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 삼산리라 하였고 이것이 강 이름이 되었다. ‘판교천(板橋川)’이라고도 한다.

### ■ 서곡천(瑞谷川)

판부면 서곡리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용수골을 거쳐 흥업면 흥업리 잘개미 앞에서 매지천을 합류한 다음 사제리 봉현 앞에서 대안천과 합류, 지정면 보통리를 굽이치며 지나 간현리와 동화리에서 섬강에 합류한다.

서곡리를 지나므로 서곡천이라 하였다. 백운산에서 발원하므로 ‘백운천(白雲川)’이라고도 하고, 사제리 앞을 지나므로 ‘사제천(沙堤川)’, 합포원 앞을 지나므로 ‘합포천(合浦川)’이라고도 한다. 유로연장 22.3km, 유역면적 113.5㎢이다.

### ■ 섬강(蟾江)

섬강은 남한강의 지류로서 길이가 92km에 이른다. 횡성군과 평창군의 군계에 솟은 태기산과 봉복산에서 발원하여 횡섬댐을 거치고 횡성읍과 원주공항을 지나 원주로 흘러든다.

원주의 소초면 둔둔리·의관리, 호저면 대덕리를 지나 옥산리에서 고산리에서 내려온 옥산천을 합류하고 주산리에서는 원주 시내를 관통한 원주천을 합류한다. 횡성 금물산에서 호저면 용곡리와 산현리를 거쳐 내려온 일리천을 합류하고 지정면 간현리에 이르러 판대리 쪽에서 남동류한 삼산천을 합류하며 복도라는 하중도를 형성한다. 안창리 앞에서는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서곡천을, 문막읍 포진리에서 궁촌천을 합류하고 경기도와의 도계를 이루다가 부론면 흥호리에 이르러 남한강에 합류한다.

섬강은 봉천과 더불어 원주의 젓줄이 되어 왔으며 또한 남한강과 섬강의 수운이 발달함에 따라 원주를 한반도의 중요한 거점이 되게 하였다. 부론면에 있는 흥원창과 지정면에 있는 안창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치악산의 황장금표도 수운의 편리함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또한 이 수로를 따라 문물 교류나 문화의 유입도 활발하여 법천사·거둔사·흥법사 등 큰절이 있었다. 섬강은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므로 수량이 풍부한 편이고 협곡에는 경승지가 많아 특히 간현리와 옥산리는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높은 산 협곡을 지나므로 오랜 옛날부터 ‘달(高, 山)+강(江)>달강, 또는 달래강이라 하였다. ‘달’은 ‘高, 山’을 의미하는 옛말로서, 월송리에 ‘달·다래’ 등의 지명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다. 달강을 한자로 ‘월천(月川)’이라 하였는데, 月과 같은 의미의 ‘섬(蟾)’자를 쓰면서 일찍이 ‘섬강’으로 정착되어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이미 섬강(蟾江)이란 이름으로 나온다. 섬(蟾)을 두꺼비로 해석하면서 두꺼비바위와 연관되어 지금은 두꺼비바위 때문에 섬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유로연장 92.6km, 유역면적 1479.5㎢이다.

### ■ 오리현천(梧里縣川)

행구동 치악산 향로봉에서 시작하여 서쪽 아래로 고문골을 거쳐 오리현에서 봉대천을 합류하고 너르내에서 화천에 합류한다. 행구동과 반곡동의 경계가 되는 내로, 오리현 앞을 지나므로 ‘오리현천’이라 하였다. 영랭이 앞을 흐르므로 ‘영랑천’이라고도 한다.

#### ■ 옥산천(玉山川)

호저면 고산리 고니골 북쪽 화채봉에서 발원하여 고산저수지에 머물다가 옥산리 종포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옥산 앞을 지나므로 ‘옥산천’이라고 하였다. 고산에서 발원하므로 ‘고산천(高山川)’이라고도 하고 종포 앞을 지나므로 옛 지리지에서는 ‘포통천(浦通川)’이라고 하였다. 유로연장 10km, 유역면적 20km<sup>2</sup>이다.

#### ■ 용곡천(龍谷川) → 일리천

#### ■ 용암천(龍岩川) → 주포천(1)

#### ■ 오미천(五味川)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용두산과 석기암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오미저수지에 머물다가 신림면 황둔리 청룡에서 황둔천으로 합류한다.

오미리를 관류하므로 ‘오미천’이라 하였다. 유로연장 6.8km, 유역면적 16.7km<sup>2</sup>이다.

#### ■ 운계천(雲溪川)

귀래면 운계리 작은양아치와 십자봉 서쪽 계곡에서 시작하여 운계리 다둔, 칠통골, 느릅재, 대동을 지나며 남쪽으로 흘러 너더리 앞에서 운남천과 합친 후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주포천, 용암천, 동막천, 사기막천을 차례로 합류하고 부론면 단강리 조귀농 앞에서 남한강에 합류한다.

운계리에서 발원하므로 ‘운계천’이라 하였다. 운계리 느릅재(유현)를 지나므로 ‘유현천(楡峴川)’이라고도 하고, 주포리 황산골 앞을 지나므로 ‘황산천(黃山川)’, 부론면 단강리 앞을 지나므로 ‘단강천(丹江川)’이라고도 한다. 충청북도와 도경계를 이루는 내로, 유로연장 28.4km, 유역면적 73.2km<sup>2</sup>이다.

#### ■ 운남천(雲南川)

귀래면 운남리 십자봉 줄기인 백운산과 수리봉, 뒷산의 물줄기가 합하여 운남저수지에 머물었다가 서쪽으로 흐르며 배골과 법동을 지나 귀래초등학교 앞에서 운계천에 합류한다. 운남리를 경유하므로 ‘운남천’이라 하였다.

#### ■ 원심천(遠深川)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갈번데기산에서 발원하여 당산 서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합하고 도전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밤산골에서 증골의 물길을 합한 후 다시 남쪽으로 흘러 반계저수지에 들어간다.

당산 남쪽 계곡의 원심동을 지나오므로 ‘원심천’이라 하였다. ‘원심이’는 원주지역 천주교가 일찍 전파된 오래된 마을이다. 반계저수지 위의 내를 ‘원심천’, 아래의 내를 ‘반계천’으로 부르기도 하고 위와 아래를 합쳐서 ‘원심천’으로 부르기도 한다. 유로연장 13.2km, 유역면적 31.6km<sup>2</sup>이다.

### ■ 원주천(原州川)

치악산 남대봉과 가리파에서 발원하여 원주 시가지를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관류하며 지류인 흥양천, 화천을 합치면서 사방의 구릉지를 침식하여 이른바 원주분지를 형성하고 호저면 주산리 펴내에서 섬강에 합류한다. 원주 시내를 관통하므로 ‘원주천’이라 하였다.

예부터 봉산의 이름을 따서 ‘봉천(鳳川)’ 또는 ‘봉산천(鳳山川)’이라고도 하였고 강원감영의 동쪽을 흐르므로 ‘동천(東川)’이라고도 하였다.

화천(영랑천)과 합치는 치악교 위쪽까지를 봉천·봉산천이라고 부르고 그 하류, 즉 봉산동 앞부터는 원주천이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유로연장 25.7km, 유역면적 152.9km<sup>2</sup>이다.

### ■ 일리천(一里川)

횡성군 금물산과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호저면 용곡리 앵당산 동쪽의 행가리를 거치고 산현리를 지나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옛날 이 지역이 압곡1리(一里)였으므로 ‘일리천(一里川)’이라고 하였다. 용곡리를 지나므로 ‘용곡천’이라고도 한다. 옛 지리지에서는 산점(미재) 앞을 흐르므로 ‘산점천(山岾川)’이라 하였다. 한편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를 흐르는 내는 옛 압곡2리(二里)에 있으므로 ‘이리천(二里川)’이라고 한다. 유로연장 21km, 유역면적 57.1km<sup>2</sup>이다.

### ■ 장양천(長陽川)

소초면 치악산 삼봉과 투구봉·토끼봉 산줄기에서 발원하여 평장리 안골, 수암리 쑥골, 바우골 등을 지나온 평장천, 수암천, 원증천 등이 합류하여 장양리 거머터에서 섬강에 합류한다. 투구봉 아래에서 내려온 원증천(元增川)과 토끼봉에서 내려온 수암천(壽岩川)이 너라우들에서 합친 후, 평장리 안골에서 내려온 평장천(平庄川)과 양촌 앞에서 합류하여 섬강으로 들어간다.

장양리 앞에서 물줄기들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되어 흐르므로 ‘장양천’이라 하였다. ‘원증천’, ‘수암천’, ‘평장천’은 장양천의 각각 다른 이름으로, 각 마을 앞에서 따로 부르는 이름들이다. 유로연장 9.2km, 유역면적 25.8km<sup>2</sup>이다.

### ■ 주포천(周浦川)(1)

신림면 성남리 높은다리 북쪽의 상원골과 북동쪽의 선바우골, 동쪽의 전불골에서 시작하여 성남리를 거쳐 신림리에서 금창천을 합류하고 용암리에서 구학천을 합류한 뒤 충청북도 제천시 학산리에서 제천천에 유입한다.

‘성남천(城南川)’, ‘신림천(神林川)’이라고도 한다. 이 내를 ‘용암천’, ‘신림천’이라고도 하였는데,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를 지나가므로 ‘주포천’이라 하여 공식 하천명이 되었다. 유로연장 14.5km, 유역면적 83.2km<sup>2</sup>이다.

### ■ 주포천(周浦川)(2)

귀래면 미륵산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아홉사리, 새터, 절안 등의 마을이 있는 향산골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향산동 마을 입구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 ■ 화천(花川)

행구동 치악산 고둔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거름터, 유암, 화실을 거쳐 살대울교에서 모래기천을 합류한 후, 너르내에서 다시 오리현천을 합류하여 원주천으로 들어간다.

봉산동의 화실, 화시래를 지나므로 ‘화천’이라고 하였다. ‘궁실천’, ‘화시래천’, ‘화실천’이라고도 한다. 화실, 화천, 실대, 궁실천 등은 ‘살대울’에서 파생된 지명들이다.

### ■ 황둔천(黃屯川)

신림면 치악산 싸리치와 응봉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며 청룡에서 오미천을 합류하고 북쪽으로 흐르다가 서마니에서 주천강에 합류한다.

황둔리를 경유하므로 ‘황둔천’이라고 하였다. ‘계야천(啓野川)’, ‘물안천’, ‘송계천(松桂川)’이라고도 한다. 유로연장 14.5km, 유역면적 58.3km<sup>2</sup>이다.

### ■ 흥양천(興陽川)

소초면 흥양리 웃황골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삼봉과 투구봉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피미에서 합친 후 서쪽으로 살여울, 돌모루, 태장동을 지나 가현동 대동거리 앞에서 원주천에 합류한다.

흥양리에서 발원하여 흥양리 대부분의 지역을 지나므로 ‘흥양천’이라 하였다. 황골을 흐르므로 ‘황골개울’, 돌모루 앞을 지나므로 ‘돌모루개울’, ‘석우천(石隅川)’이라고도 한다. 유로연장 10.7km, 유역면적 23.3km<sup>2</sup>이다.

## 제2편

# 법정동(法定洞) 지명(地名)



원주 시내 시가지 ; 1973년

### [위치]

원주시의 법정동은 가현동·개운동·관설동·단계동·단구동·명륜동·무실동·반곡동·봉산동·우산동·원동·인동·일산동·중앙동·태장동·평원동·학성동·행구동 등 18개이다.

예부터 강원감영을 중심으로 하여 시가지가 형성되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였고, 근대 이후에 구역이 점점 확장되어 오늘에 이른다.

법정동의 동쪽은 행구동과 반곡동·관설동이 치악산 줄기에 이르고, 서쪽은 우산동과 단계동·무실동이 봉화산 줄기에 이르며, 남쪽은 관설동과 단구동, 북쪽은 태장동과 가현동이 원주시의 각 면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연혁]

19세기 전후에 시 중심지는 읍내면과 본부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2년에 이 둘을 본부면으로 통합하면서 상동리와 하동리·태장리·화천리·흥양리의 5개 리를 두었다. 이때 상동리는 현재의 개운동·명륜동·원동·인동 지역이며, 하동리는 평원동과 학성동 지역이었고, 화천리는 봉산동 지역이었다.

1917년에 본부면을 원주면으로 개칭하였다.

1937년에 원주면이 원주읍으로 승격하였는데, 이때의 행정구역은 상동리·하동리·태장리·봉산리·사천리·본정2정목(중앙동)·금정(일산동)이었다.

해방 이후 1946년에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어 평원동·인동·중앙동·일산동·개운동·명륜동·원동·학성동1~2구·단계동·태장동1~구·봉산동1~3구로 하였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판부면의 단구리·행구리와 호저면 우산리를 편입하여 개운동·단계동·단구동·명륜동·봉산동1~3구·우산동·원동·인동·일산동·중앙동·태장동1~2구·평원동·학성동1~2구·행구동 등 18개 동으로 하였다.

1965년에는 봉산동1~3구와 태장동1~2구를 줄여 14개 동(개운동·단계동·단구동·명륜동·봉산동·우산동·원동·인동·일산동·중앙동·태장동·평원동·학성동·행구동)으로 하였으며, 1973년에 가현동·관설동·무실동·반곡동을 편입하여 현재의 18개 동이 되었다.





원주읍청사(중앙동) 낙성식 ; 1954년 10월 5일

원주시청(중앙동) ; 1969년





원주시청(중앙동) ; 1969년

원주시청(일산동) ; 1972년





원주시청(일산동) ; 1973년

원주시청(무실동) ; 2016년







원주군청(일산동) ; 1967년

원주군청(일산동) ; 1971년





개운동사무소 ;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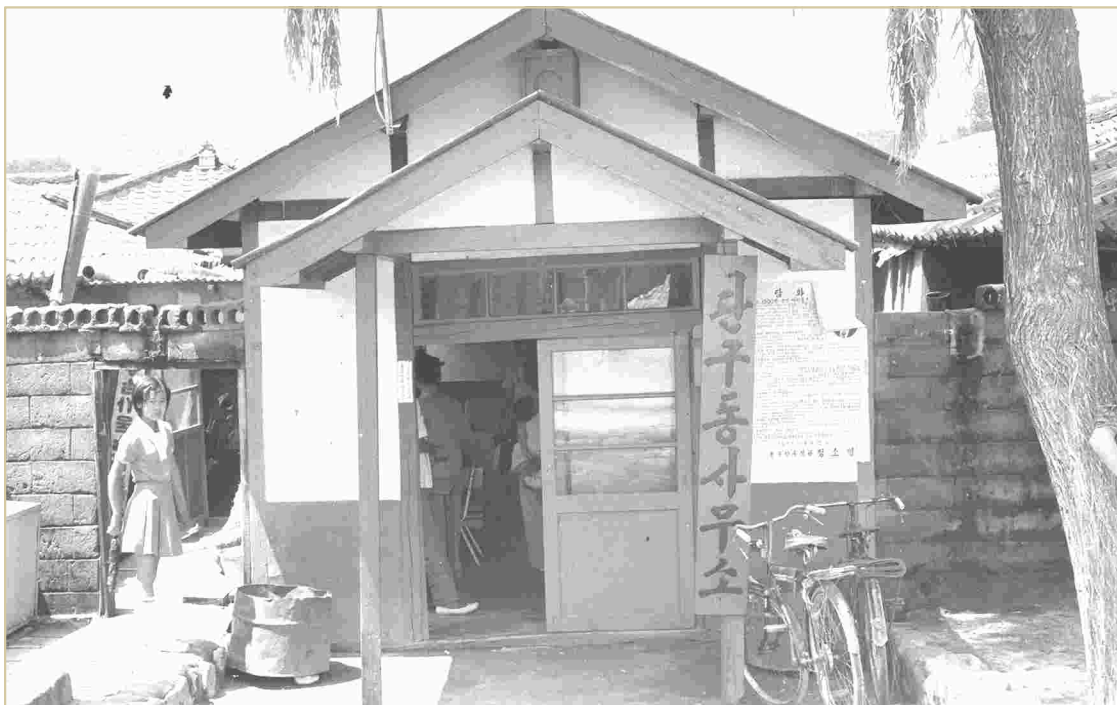
관설동사무소 ; 1973년





단계동사무소 ; 1975년

단구동사무소 ; 1975년







명륜동사무소 ; 1976년

무실동사무소 ; 1978년





반곡동사무소 ; 1977년

봉산1동사무소 ; 1976년







봉산2동사무소 ; 1976년

우산동사무소 ; 1963년





원인동사무소 ; 1976년

일산동사무소 ; 1975년









태장2동사무소 ; 1974년

학성1동사무소 ; 1977년







학성2동사무소 ; 1976년

행구동사무소 ; 1976년





원주 읍내(강원감영) ; 19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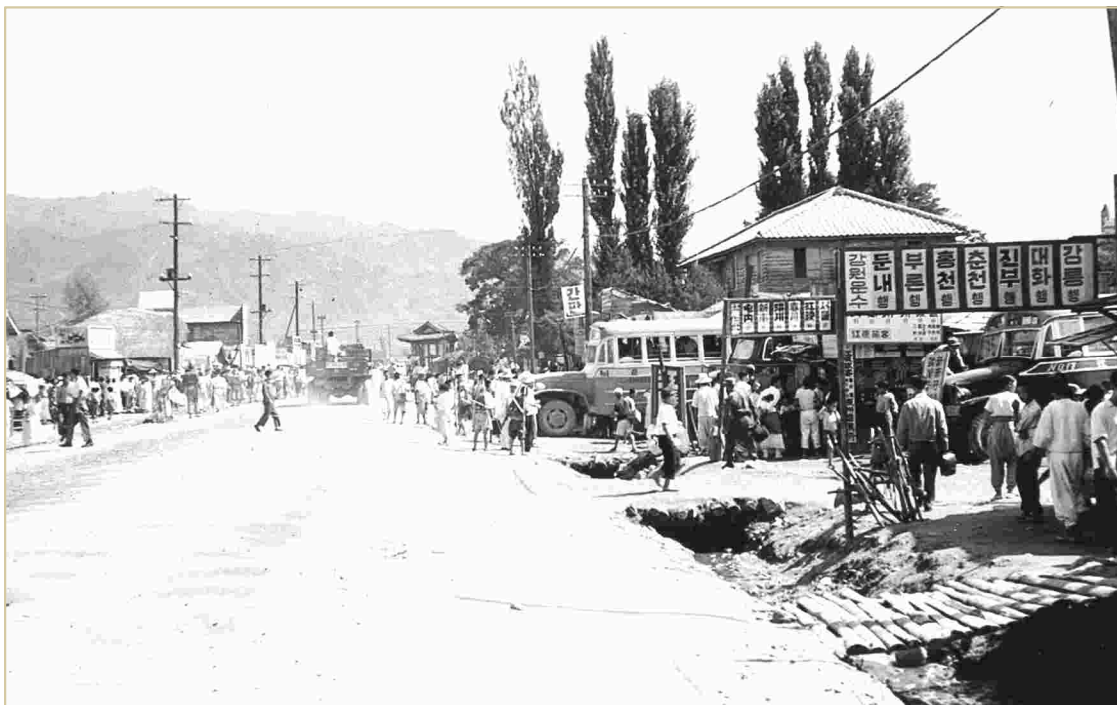
원주 읍내 시가지 ; 1913년





강원감영 앞 도로 ; 1953년

강원감영 앞 도로 ; 1954년







강원감영 앞 도로 ;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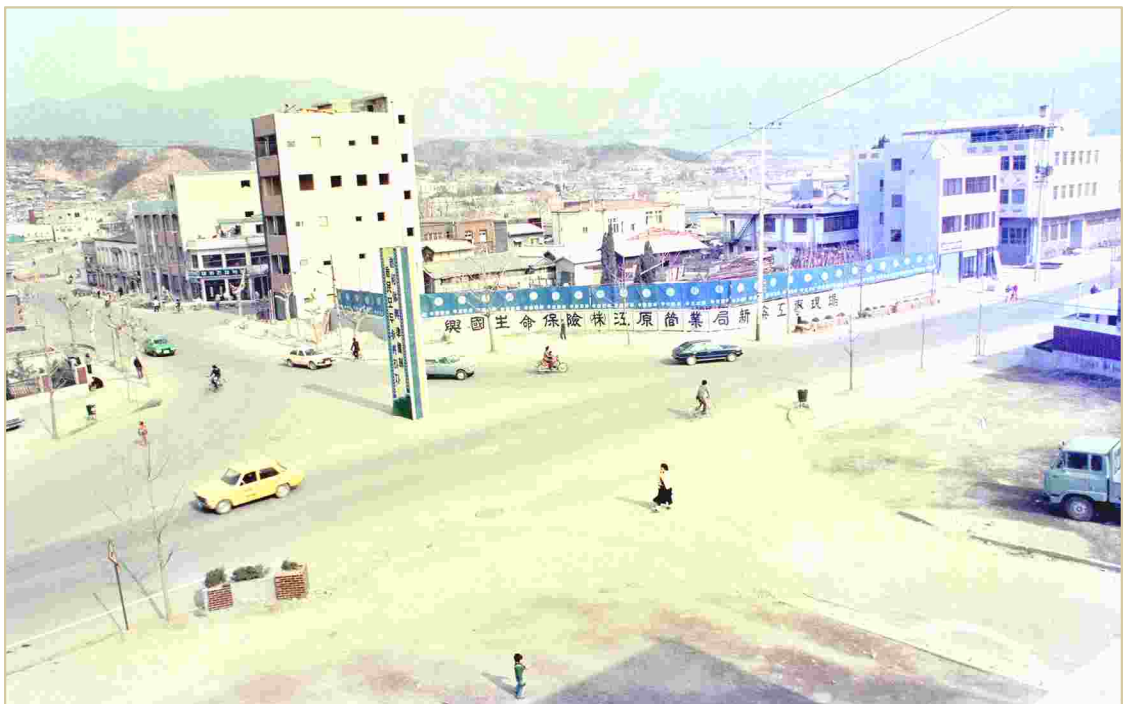
남부시장 사거리 ;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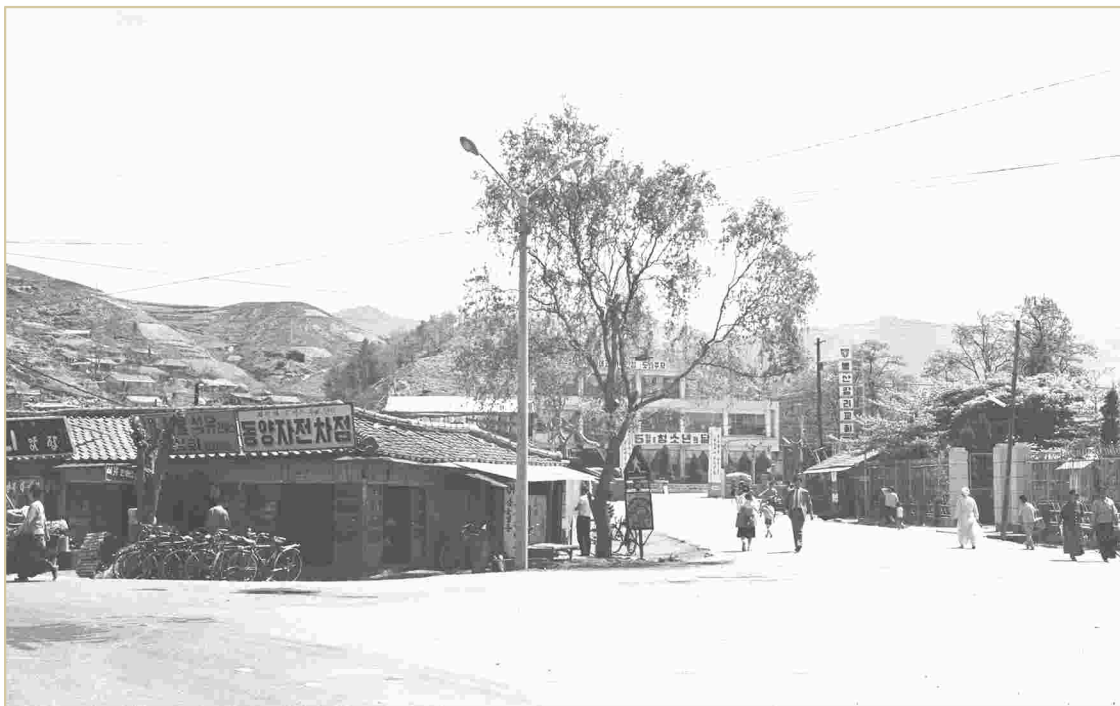




금성호텔 앞 도로 ; 1970년

원인동 사거리 ; 1980년





원주경찰서 삼거리 ; 1970년

하태장(태장2동) ;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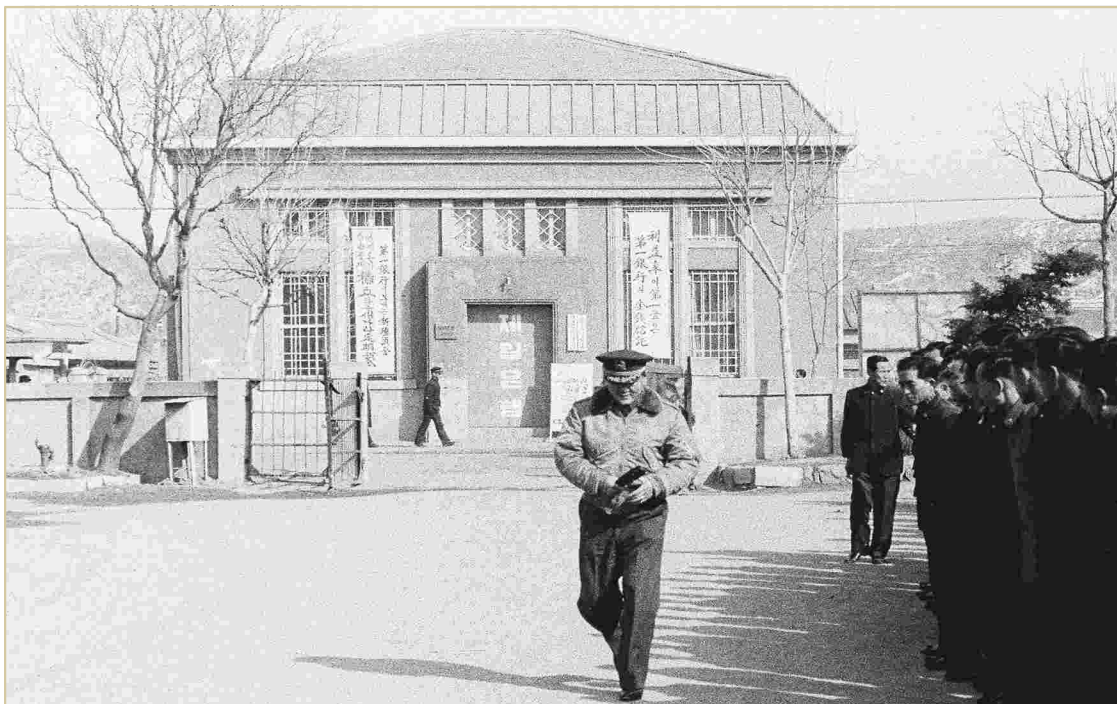




서원대로(단구동) 표지석 ; 1981년

원주의료원 사거리 ;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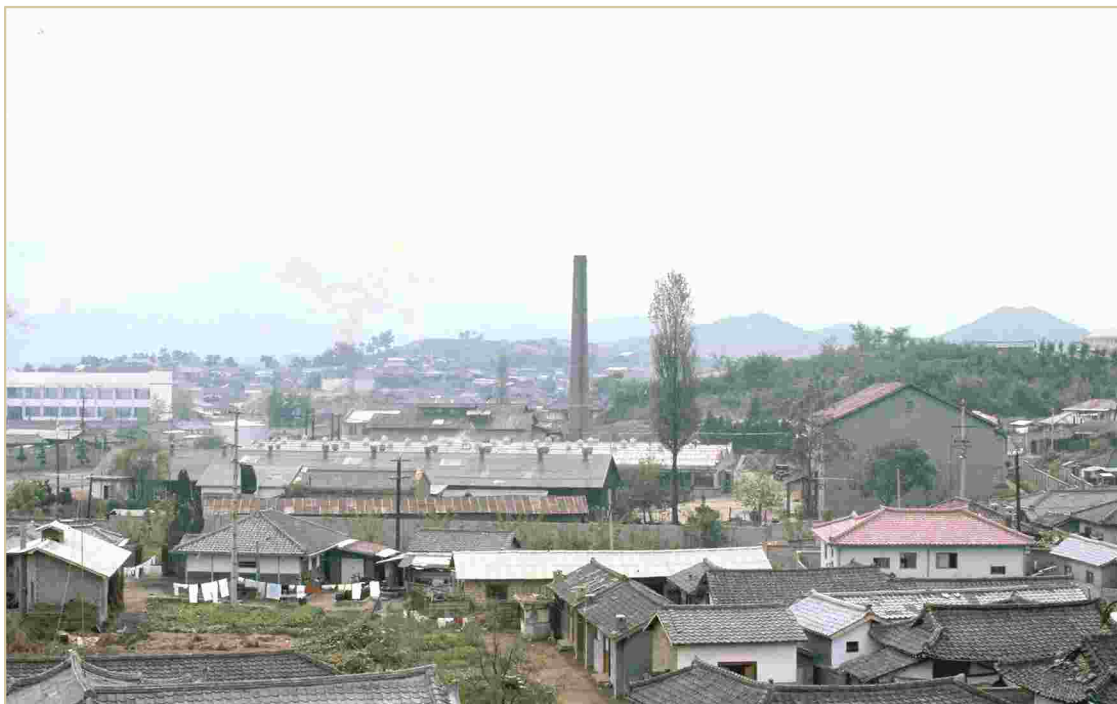




제일은행 ; 1963년

중앙시장 ;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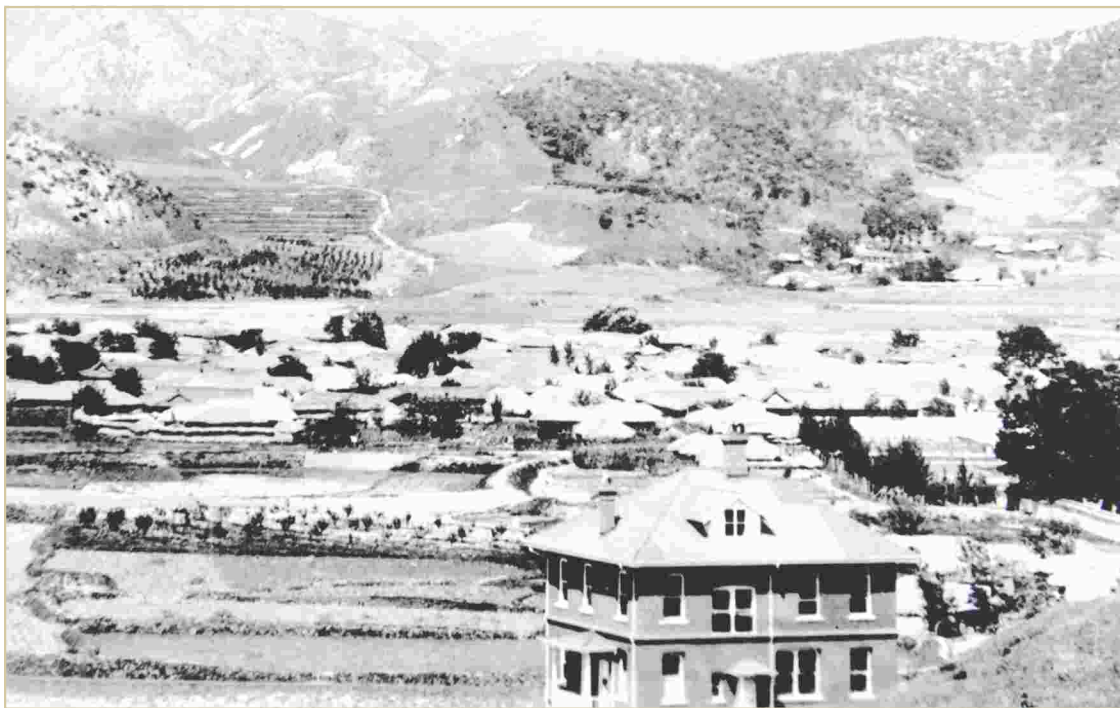


잠사회사(명륜동) ; 1972년

우산공단 ; 1974년







서미감병원 ; 1913년

원주기독병원 ; 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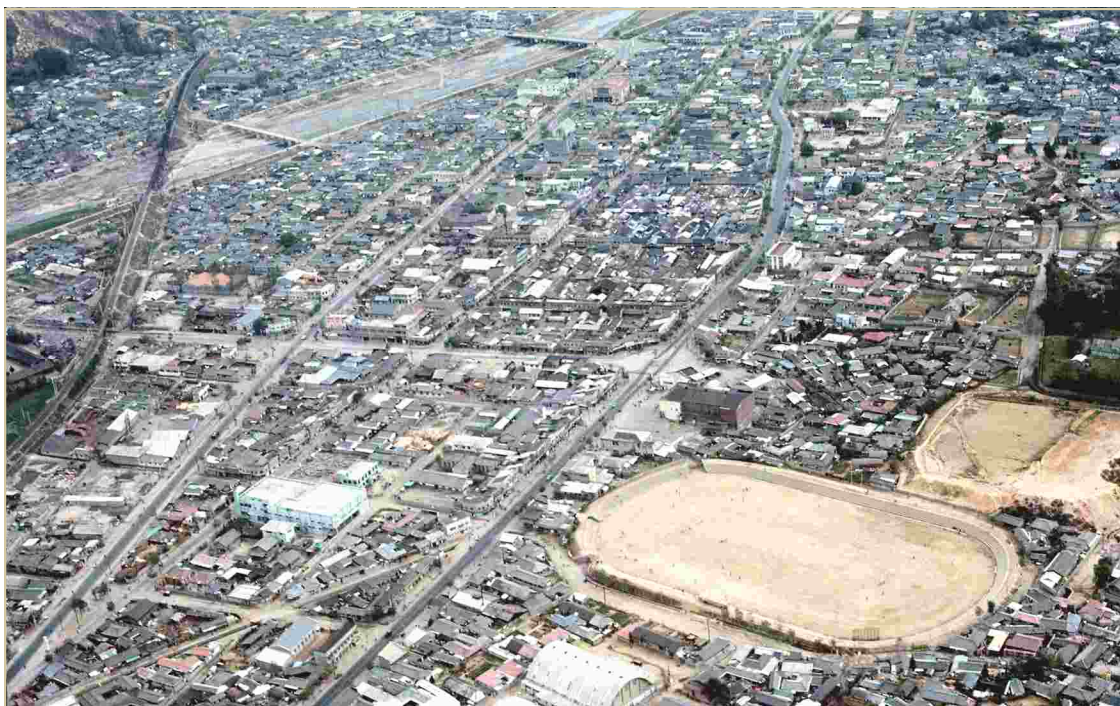


강원도립원주의원(개운동) ; 1942년

원주의료원 ;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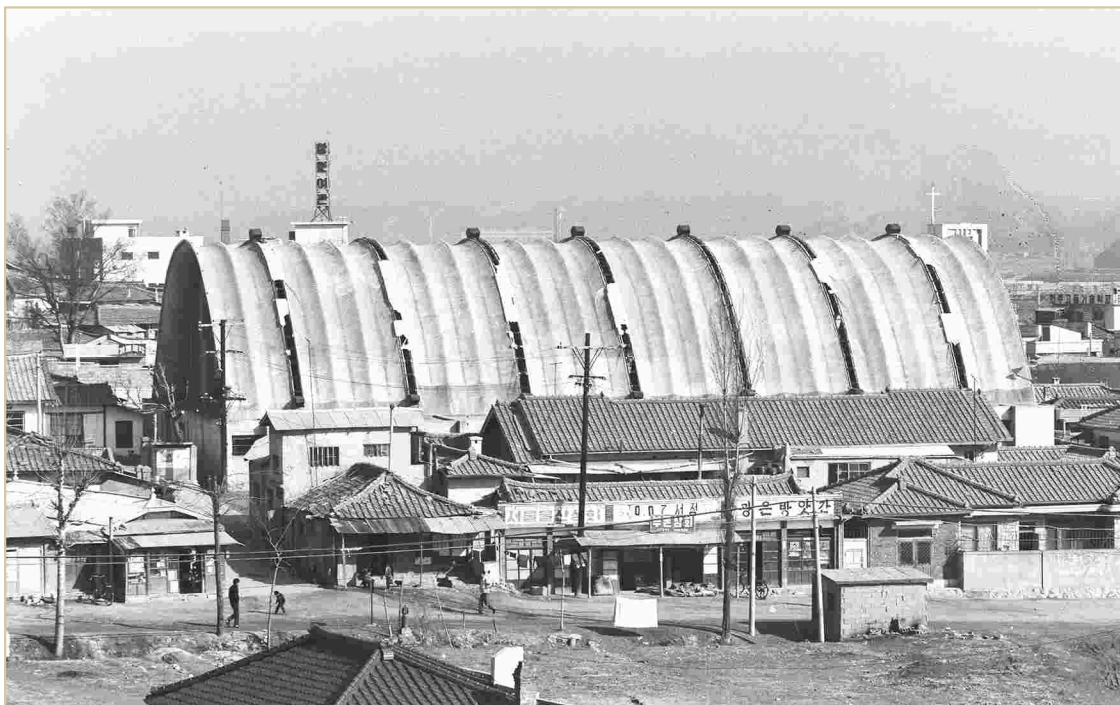






원주공설운동장 ; 1973년

원주실내체육관 ; 1972년







치악교 ; 1980년

원주 시가지 ; 2015년



## 가현동(加峴洞)

### [위치]

가현동은 원주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원주시 직할동 중 북쪽 가장 먼 곳에 있다. 동쪽으로는 북원로를 경계로 하여 태장동과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지정면 신평리, 남쪽으로는 우산동과 호저면 만종리, 북쪽으로는 태장동·호저면 주산리와 각각 접해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저전동면(楮田洞面)의 지역으로서 일리(一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남동·노현·대동거리·봉장·웃골·점실을 병합하여 가현리(加峴里)라 하고, 원주군 호저면(好楮面)에 편입되어 원주군 호저면 가현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原城郡)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원성군 호저면 가현리가 되었다.

1973년 원주시에 편입되어 원주시 가현동이 되었다.

### [유래]

가남(加南)과 노현(老峴)의 이름을 따서 가현리(加峴里)라 하였고, 1973년 원주시에 편입되면서 가현동(加峴洞)이라 하였다.

가남(加南) [마을] → 가치래미

가남동(加南洞) [마을] → 가치래미

가남제방 [둑]

**[위치]** 가치래미 마을 앞에 있는 원주천의 제방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남제방’이라 하였다.



「가남제방 ; 2019년」

가래울 [골]

**[위치]** 웃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리울(加來谷)’이라고 하였다.

가래울들 [들]

**[위치]** 웃골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골저수지 서쪽에 있는 들이다.

가치래미 [마을]

**[위치]** (현)원주공공하수처리장의 북동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마을로 (구)1군사령부의 북서쪽에 접하고 있다. 가현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마을이 (구)1군사령부에 편입되면서 북서쪽만 남게 되어 지금의 마을이 되었다. 한자로 적어 ‘가남(加南)’, ‘가남동(加南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치람이(加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남동(加南洞, 가치래미)’이라 하였다.

**[유래]** 노루고개 너머 물가에 마을이 있으므로 가치래미라 하였다. 지형은 서향으로 되어 있으나 집은 남향으로 지어야 덕을 본다는 말이 전한다.

**[풀이]** 가치래미는 ‘갓(邊)’에서 유래된 것으로 ‘갓+남+이>갓남이>갓너미>가시너미>가시내미>가치내미>가치래미’로 음운 변천하였다. ‘고개 너머의 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남(加南)’은 뜻

과는 상관없이 ‘갓남’을 음차하여 적은 것이다.



「가치래미 ; 2019년」

가치래미고개 [고개]

**[위치]** 가남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태장동 노하, 못마구니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25m이다.

가치래미들 [들]

**[위치]** 가치래미에서 남서쪽으로 원주천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들 서쪽 끝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치람뜰(加南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치래미들’이라 하였다.

건년골 [들]

**[위치]** 점실 양지말들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행랑앞들 남쪽에 있다. 들의 동쪽 일부가 강릉선 철로에 편입되었다.

격고무지고개(擊鼓舞地--) [고개] → 저고무지고개

공동산 [산]

**[위치]** 자은향 북서쪽에 있는 높이 198m의 산을 말한다.

**[유래]**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공동산이라 하였다.

**[내용]** 산 북쪽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나있고 동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가 나있다.

군두봉(群頭峰) [산]

**[위치]** 웃말 북서쪽, 저고무지고개 북쪽에 있는 높이 333m의 산을 말한다. 남쪽에는 저고무지고개

와 장구봉이 있고 북쪽 능선에는 절고개가 있다. 가현동과 지정면 신평리, 호저면 주산리·무장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군둔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군둔산(軍屯山)’이라고 하였다.

**[내용]** 저고무지고개를 비롯한 이 산줄기에서 한 국전쟁 때 전투가 치열하였는데 전후에 이 산에는 시체와 철모가 많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군둔산(群頭山) [산]** → 군두봉

**군둔산(軍屯山) [산]** → 군두봉

**금천정 [샘]**

**[위치]** 매봉산(1)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금천정’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에 금천 군수가 이곳을 지나다가 물을 마시고 갔다고 한다.

**노루개 [고개]** → 노루고개

**노루고개 [고개]**

**[위치]** 하태장에서 북쪽으로 점촌, 장양리로 넘어 가는 고개를 말한다. (구)1군사령부와 (구)캠프롱 사이의 도로가 넓게 난 곳으로 태장동과 경계가 되는 고갯길이다. ‘노루목고개·놀개·놀고개·노리개·노리고개’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노현(老峴)’으로 적었다. 『여지도서』에 ‘장현(獐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노루기(老峴)’라고 하였다.

**[유래]** 태장동에서 북쪽 점촌까지 고개가 길게 늘어져 있었으므로 노루고개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에 노루를 사냥할 때 몰이꾼들이 이곳으로 노루를 몰아 사냥한 고개이므로 노루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노루고개는 전국에 많이 나타나는 지명으로 대개는 ‘노루(獐)’와 연관시켜 ‘장치(獐峙)’로 기록한 예가 많다. 그러나 ‘놀~노루~노리’는 ‘넓다, 늘어지다’의 뜻이 있어서 ‘노루고개’는 대체로 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루’는 ‘널·너르, 놀·노르·노리, 널·너르, 놀·누르·누리, 늘’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는데 ‘노리개’의 ‘노리’도 여

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놀>노루>노리’가 되어 ‘노루고개’가 ‘노리고개’로, ‘노리개’로 실현된 것이다. 이를 한자로 적은 ‘장현(獐峴)’은 ‘노루’의 뜻을 취한 결과이며 ‘노현(老峴)’의 ‘老’는 ‘늘어지다’의 ‘놀~늘’을 음차한 결과이다.

**노루목고개 [고개]** → 노루고개

**노리개 [고개]** → 노루고개

**노리개 [마을]**

**[위치]** 가치래미 남동쪽, 노루고개의 남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구)1군사령부 안의 남서쪽 지역에 있던 마을로 1군사령부에 마을 전체가 편입되어 없어졌다. ‘놀개’, ‘노현(老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노현(老峴, 노리개, 놀개)’라 하였다.

**[유래]** 노루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노루고개>노루개>노리개’라 하였다.

**노리고개 [고개]** → 노루고개

**노적바우 [바위]**

**[위치]** 점실 노적봉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광주원 주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를 새로 내면서 편입되어 없어졌다. ‘도적바우’라고도 한다.

**[내용]** 도로를 낼 때 바위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마을에서 한사코 반대하였으나 도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는데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몸이 아프다는 설이 있다. 원주에 널리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자집’ 이야기가 노적바우와 관련하여 전하고 있다. → 점실 [마을] 유래담

**노적봉 [산]**

**[위치]** 봉장 남동쪽, 대동거리 중간담 북쪽에 있는 121.5m의 산을 말한다. ‘도적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모양이 노적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노적봉들 [들]**

**[위치]** 노적봉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도

적봉들'이라고도 한다.

**[내용]**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에 모두 편입되어 없어졌다.

**노현(老峴)** [마을] → 노리개

**놀개** [고개] → 노루고개

**놀개** [마을] → 노리개

**놀고개** [고개] → 노루고개

**담바우산** [산] → 덩바우산

**대동가(大洞街)** [마을] → 대동거리

**대동거리** [마을]

**[위치]** 가치래미 남서쪽 원주천 건너, 점실 북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서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대동가(大洞街)', '죽동(竹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디동거리(大同街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동거리(대동가大洞街)'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대동창고(大同倉庫)가 있었으므로 대동거리라고 하였다.

**[풀이]** 한자로는 '大同', '大洞', '大東'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이를 '죽동(竹洞)'이라고 한 것은 '크다'는 뜻의 '대(大)'를 대나무로 보아 '竹'을 취한 결과이다.



「수질환경사업소 ; 1997년」

**덤바우산** [산]

**[위치]** 재내재, 말미고개 남동쪽에 있는 262.6m의 바위산을 말한다. 상지대학교 북서쪽 영동고속도

로 건너에 있는 산으로 가현동과 우산동, 호저면 만종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담바우산', '덤부우산', '말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말미(馬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덤부우산'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덩바우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내용]** 북동쪽 아래에 '여우바우골'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박달미까지 '말미골'과 '말미들'이 이어진다. 북서쪽으로 말미고개, 재내재, 장구봉, 저고무지고개, 할미바우산, 군동봉이 이어진다.

**덤부우산** [산] → 덩바우산

**도적바우** [바위] → 노적바우

**도적봉** [산] → 노적봉

**도적봉들** [들] → 노적봉들

**두집네** [마을]

**[위치]** 점실 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지금은 강릉선 철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유래]** 백여 년 전 박씨 형제가 두 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두집네라 하였다.

**뒷골** [골]

**[위치]** 가치래미 마을에서 북쪽 못마구니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 가현골프연습장이 있는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뒤쌀(後谷)'이라고 하였다.

**말미** [산] → 덩바우산

**말미고개** [고개]

**[위치]** 자은향 남서쪽의 여우바우골 위, 덩바우산 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호저면 만종리 말미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230m이다.

**매봉산(1)** [산]

**[위치]** 대동거리 남쪽과 점실 남동쪽에 있는 높이 203m의 산을 말한다. '매봉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미봉산(鷹峰山)'이라고 하였다. 『한



국지명총람』에 ‘매봉재’라 하였다.

**[유래]** 매가 많이 있었다고 하며, 산이 높아서 매가 잘 내려왔다고 한다.



「매봉산(1) : 2019년」

#### 매봉산(2) [산]

**[위치]** 장구봉 동쪽과 웃골 마을 남쪽에 있는 높이 230.1m의 산을 말한다.

**[내용]** 매봉산(2)와 웃골 마을 사이로 광주원주고 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매봉재 [고개]

**[위치]** 점실에서 남동쪽으로 세집담을 거쳐, 우산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매봉산(1) 남서쪽, 우두산 195.3m 봉우리 북동쪽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미봉씨(鷹峰峴)’라 하였다.

#### 매봉재 [산] → 매봉산(1)

#### 버덩담 [마을]

**[위치]** 가치래미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평평한 들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버덩담이라 부른다.

**[풀이]** ‘버덩’은 ‘뜰, 층계, 계단’의 뜻에서 ‘들, 벌판(坪, 野)’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 말로, 지대가 좀 높으면서도 넓은 곳을 뜻한다.

#### 봉장(鳳庄, 鳳在) [마을]

**[위치]** 가치래미 서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대동거리 북서쪽, (현)원주공공하수처리장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가현동과 호저면 주산리 경계에 있다. ‘봉쟁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에 ‘봉장이(鳳庄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봉쟁이(봉장, 鳳在)’라 하였다.

**[유래담1]** 모양이 ‘봉소형(鳳巢形)’이어서 봉쟁이라 부른다고 한다.

**[유래담2]** 먼 옛날 이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세가 점점 쇠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끼니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한 도사가 이 집에 들러서 하는 말이 ‘이 마을이 들어앉아 있는 자리가 봉(鳳)이 묻힌 봉장 터인데 봉의 잔등에 해당하는 곳에 마을이 들어앉은 셈이다. 봉이라는 새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도 처음에는 날려고 퍼덕거리려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마을 전체가 잘 살았으나 이제 그 동안에 힘을 기른 봉이 날아가게 되었으니 모두 못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봉이 아주 날지 못하도록 두 날개를 짓눌러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에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마을 양쪽 백미터 거리에 사람 키 높이의 큰 돌비석을 만들어 세웠다. 봉의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로 짓눌러 놓은 후부터는 부락이 흥하였는데 그곳을 봉이 묻혔던 곳이라 하여 봉장동이라 부른다고 한다.

**[내용]** 마을 동쪽, 봉장과 가치래미 중간에 강릉선 철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봉장들 [들]

**[위치]** 봉장 마을 동쪽에서 호저면 주산리 중방앞들에 이르기까지 원주천 옆으로 펼쳐진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장이뜰(鳳庄坪)’이라고 하였다.

#### 봉장보 [보]

**[위치]** 봉장 마을 앞에 있던 원주천의 보(淤)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장이보(鳳庄淤)’라고 하였다.

#### 봉장주막 [주막]

**[위치]** 봉장 마을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장이주막(鳳庄酒幕)’이라고 하였다.



**봉쟁이** [마을] → 봉장

**봉천(鳳川)** [강]

**[위치]** 원주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천니(鳳川)’라고 하였다.

**불근덕이** [산]

**[위치]** 『조선지리지자료』에 나오는 산 이름이다. ‘불근덕이(赤岸山)’라 하고 1리 점실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풀이]** ‘붉은+덕+이>붉은덕이’가 되었다. ‘덕’은 언덕, 둔덕, 산을 뜻한다. ‘이’는 접미사이다.

**삼십마지기들** [들]

**[위치]** 가지래미 마을 한가운데 있는 들을 말한다.

**상동(上洞)** [마을] → 웃골

**새말** [마을]

**[위치]** 점실 동쪽, 대동거리 남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말(新村)’이라 하였다.

**새말앞들** [들]

**[위치]** 새말 북쪽 밑으로 펼쳐져 있던 들을 말한다. 북쪽 아래에 노적봉들이 이어진다.

**[내용]**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에 모두 편입되어 없어졌다.

**세집담** [마을]

**[위치]** 점실 음달말 남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나면서 도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숯골** [골]

**[위치]** 숯골머리들에서 북쪽으로, 190.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숯골’이라 하였다.

**숯골머리들** [들]

**[위치]** 행랑앞들과 건넌골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넓은 들을 말한다. 숯골 입구에 있는 들이다.

**아랫담** [마을]

**[위치]** 대동거리 노적봉 북쪽 아래, 원주천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던 마을로, 현 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유래]** 웃담, 중간담을 거쳐 가장 낮은 곳에 있었으므로 아랫담이라 하였다.

**야지말** [마을] → 점실

**[위치]** 점실의 옛 이름이다. 이를 한자로 ‘지곡(芝谷)’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야지말(芝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점실(芝谷)’이라 하였다.

**양무골** [골]

**[위치]** 웃골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매봉산 아래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저수지와 양무골 사이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양지말** [마을]

**[위치]** 점실 마을 가운데 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뒤에 산이 막혀 양지가 드는 곳이므로 양지말이라 하였다.

**양지말들** [들]

**[위치]** 점실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강릉선 철로에 대부분 편입되었다.

**여우바우골** [골]

**[위치]** 자은향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덩바우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일부가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에 편입되었다.

**우두산(牛頭山)** [산]

**[위치]** 자은향 동쪽, 우산공단 북서쪽에 있는 높이 195.3m, 172m의 산을 말한다. 가현동과 우산동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담]** 소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우두산(牛頭山)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는 옛날 어느 농

부가 잃어버린 소를 이 산 아래에서 찾았다고 하여 우두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이 산을 우두산이라고도 하고 우산동 상지대학교 북동쪽, 진광고등학교 서쪽의 191.7m 봉우리를 우두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두산은 우산동에 걸쳐 있는 이 산줄기를 전반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이다.

#### 우두산고개 [고개]

**[위치]** 점실에서 남쪽으로 세집담을 지나, 우두산골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남쪽 아래에 연못밀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145m이다. 고갯길에 현재 우두산길이 나 있다.

#### 우두산길 [길]

**[위치]** 점실에서 남쪽으로, 우두산고개를 지나 우산동 우두산골 입구를 향하여 난 길을 말한다.

#### 웃골 [마을]

**[위치]** 가현동의 서쪽 끝, 저고무지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점실에서 서남쪽 골짜기 위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로 적어 ‘상동(上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음골(上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골(상동)’이라 하였다.

**[유래]** 봉장이나 점실에서 보아 골짜기 위 끝에 있는 마을이므로 웃골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 북서쪽으로 군두봉, 남서쪽으로 매봉산과 장구봉으로 막혀 있으며 마을 서쪽으로 군두봉과 장구봉 사이의 저고무지고개가 있다. 마을 남쪽 앞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웃골샘물 [샘]

**[위치]** 웃골 마을 앞 저고무지고개 입구에 있는 샘을 말한다.

**[내용]** 바위 암벽을 뚫고 나오는 물로, 수량이 풍부하여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 웃골앞들 [들]

**[위치]** 웃골 마을과 웃골저수지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웃골저수지 [못]

**[위치]** 웃골 마을 남동쪽 앞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웃골 · 웃골저수지 ; 2019년」

#### 웃담 [마을]

**[위치]** 대동거리 남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유래]** 대동거리 남동쪽 매봉산을 향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웃담이라고 하였다.

#### 음달말 [마을]

**[위치]** 점실 양지말들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강릉선 철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유래]** 앞에 산이 있어 마을이 음지에 있었으므로 음달말이라 하였다.

#### 이터골 [골]

**[위치]** 솟골머리들에서 남쪽 공동산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자은향(紫隱香) [마을]

**[위치]** 우두산 서쪽, 공동산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서쪽에 인접해 있다. ‘잔양이’, ‘재내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자은향(紫隱香)’이라 하였다.

**[유래]** 우두산고개 서쪽 아래에서 서쪽으로, 만종리 절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재내이’, 또는 ‘잔양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서 ‘자은향

(紫隱香)’이라 하였다.

**자은향골** [골] → 재내이골

**자은향들** [들]

**[위치]** 자은향 마을 남쪽, 재내이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대부분 지역이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도에 편입되었다. ‘잔양이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잔양이들(紫陽坪)’이라고 하였다.

**작은항골** [골]

**[위치]** 웃골 마을 저고무지고개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 북쪽에 호저면 주산리 호매동의 작은항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함솔(項谷)’이라 하였다.

**잔양이** [고개] → 재내이

**잔양이들** [들] → 자은향들

**잔양이산** [산] → 재내재

**잘록뱅이** [고개] → 재내이

**장고봉** [산] → 장구봉

**장구봉** [산]

**[위치]** 저고무지고개 남쪽, 재내재 북서쪽 사이에 있는 높이 346.3m의 산을 말한다. 가현동과 지정면 신평리, 호저면 만종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장고봉’, ‘저고무지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저고무지산(擊鼓舞地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모양이 장구처럼 생겼으므로 장구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재건촌(再建村)** [마을] → 청룡마을

**[유래]** 해방 후에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재건촌이라 하였다.

**재내이** [고개]

**[위치]** 재내이골 서쪽 끝, 양무골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덩바우산 북쪽, 장구봉 남쪽 능선에 있는 고개로, 재내재 바로 옆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넘어 호저면 만종리 재내이골을 거쳐 상만중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295m이다. ‘잔양이’, ‘잘록뱅이’라고도 한다.

**재내이** [마을] → 자은향

**재내이골** [골]

**[위치]** 자은향에서 서쪽으로, 재내이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재내이재** [산] → 재내재

**재내재** [산]

**[위치]** 덩바우산 북서쪽, 장구봉 남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301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재내이재’라고도 한다. 봉우리 북쪽 바로 옆에 재내이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잔양이산(蓋香山)’이라 하였다.

**잣골** [골]

**[위치]** 자은향 동쪽에서 세집담까지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대부분이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도에 편입되었다.

**잣골** [마을]

**[위치]** 자은향 동쪽 잣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도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조선지리지』에 ‘지야골(瓦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예전에 기와를 구웠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 주민들의 말로는 옛날 기와집이 있었다 한다.  
**[풀이]** ‘지야’는 ‘기와’의 옛말이다. ‘지야+골>지야골>잣골’로 음운 변천하였다.

**저고무지고개** [고개]

**[위치]** 웃골에서 서쪽으로 신평리 향평, 누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는 고개 아래로 광주원주고속도로의 매봉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저금어지’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격고무지(擊鼓舞地)’라고도 한다. 주민들은 ‘저고무지’ 또는 ‘저금어지’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저고무지(擊鼓舞地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격고무지고개(擊鼓舞地--)’라 하였다.

**[유래담]**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유엔군이 싸우면

서 중공군들이 이 고개에서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어서 ‘격고무지(擊鼓舞地)’라 하였고 그것이 ‘저고무지’, ‘저금어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자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풀이]** 이 고개를 1911년 『조선지리지자료』에서 ‘저고무지지’라고 하고 한자로 ‘격고무지(擊鼓舞地)’로 적었다. ‘격고무지’는 원래 이름 ‘저금어지’, ‘저고무지’의 소리를 음차하여 적은 것이다. 후에 이 한자지명을 뜻풀이를 하여 중공군이 북치고 춤추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이미 먼 옛날부터 이 고개를 ‘저금어지’, ‘저고무지’로 불러왔고 일제강점기에 그것을 한자로 쓰면서 ‘격고무지(擊鼓舞地)’란 어려운 이름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이름 ‘저금어지’, ‘저고무지’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저고무지산** [산] → 장구봉

**저금어지고개** [고개] → 저고무지고개

**적안산(赤岸山)** [산] → 불근덕이

**점실** [마을]

**[위치]** 대동거리 남서쪽, 봉장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으로 강릉선 철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야지말’, ‘지곡(芝谷)’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야지말(芝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점실(지곡芝谷)’이라 하였다.

**[유래]** 질그릇을 만드는 옹기점이 있었으므로 ‘점실’이라 하였다. 지금도 깨어진 기와들이 나온다고 한다.

**[유래담]** 원주의 ‘손님 많은 부잣집’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점실은 원래 부자동네로 그 중 한 부자가 손님이 너무 많아 귀찮아 하다가 노적바위를 깨면 된다는 노승의 말을 듣고 바위를 찼다고 한다. 그 후 집안과 마을이 모두 가난해졌는데 이 일이 있은 후 점점 가산을 실어낸다고 하여 마을 이름이 ‘점실이’가 되었다고 한다.

**점실천** [내]

**[위치]** 저고무지고개에서 웃골저수지와 점실을 거쳐 가치래미 앞에서 원주천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주랍들** [들] → 주래들

**주래들** [들]

**[위치]** 대동거리 앞에서 우산동까지, 원주천을 따라 남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주랍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주라뜰(注岩坪)’이라고 하였다.

**[내용]** 현재 들 일부는 호저로에 편입되고 원주한경체육단지,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 등이 들어서서 들은 모두 없어졌다.

**죽동(竹洞)** [마을] → 대동거리

**줄바우** [바위]

**[위치]** 매봉산(1)에서 북쪽으로, 대동거리에 이르는 골짜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줄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줄을 지어 서 있으므로 줄바우라 하였다.

**줄바우골** [골]

**[위치]** 대동거리에서 남쪽으로 매봉산(1)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줄바우가 있으므로 줄바우골이라 하였다.

**중간담** [마을]

**[위치]** 점실 북동쪽, 대동거리 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유래]** 아랫담과 웃담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간담이라고 하였다.

**지곡(芝谷)** [마을] → 야지말, 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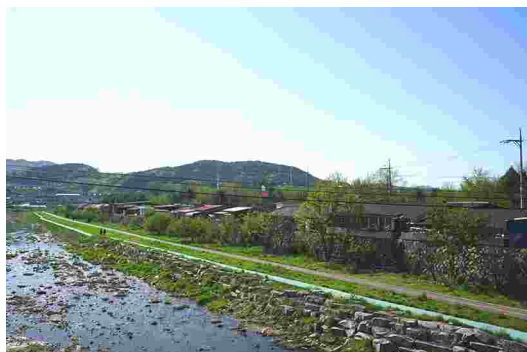
**지아골** [마을] → 잣골

**청룡마을(靑龍--)** [마을]

**[위치]** 흥양천이 원주천에 합류하는 지점에 흥양

천을 따라 길게 나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북쪽은 군부대 자리와 골목 하나만 사이에 두고 막혀있고, 남쪽은 흥양천에 막혀 동서로 길게 나 있는 마을이다. 가현동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재건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재건촌(再建村)’이라 하였다.

**[유래]** 해방 이후에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재건촌(再建村)’이라 하였다.



「청룡마을 ; 2019년」



「청룡마을 표지석 ; 2019년」

#### 할미바우산 [산]

**[위치]** 군두봉 남동쪽, 저고무지고개 북서쪽 사이에 있는 높이 284m의 산을 말한다.

함골 [골] → 황골

항골 [골] → 황골

#### 행랑앞들 [들]

**[위치]** 점실 서쪽과 양지말 남쪽에 있는 들을 말

한다.

**[유래담]** 옛날 이곳에 있던 큰 부잣집 행랑채 앞에 있는 들이므로 행랑앞들이라 하였다.

#### 황골 [골]

**[위치]** 웃골에서 서쪽으로, 군두봉과 할미바우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저고무지고개와 황골고개 사이의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서 작은 황골이 갈라져 나간다. ‘함골’, ‘항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함솔(項谷)’이라고 하였다.

#### 황골고개 [고개]

**[위치]** 작은황골에서 북쪽으로 호저면 주산리 호매동 작은황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군두산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230m이다.



## 개운동(開運洞)

### [위치]

개운동은 원주시청에서 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하여 반곡동, 서쪽으로는 명륜동, 남쪽으로는 단구동, 북쪽으로는 원인동 · 봉산동과 각각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 상동리(上洞里) 지역이었다.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면서 상동리를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 · 개운정(開運町) · 남산정(南山町) · 대화정(大和町)으로, 하동리(下洞里)를 영정(榮町)과 옥정(旭町)으로 나누고, 상동 일부와 하동 일부를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과 금정(錦町)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개운정(開運町)으로 설치되었다.

1946년 일본식 동명을 변경하면서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어 원주읍 개운동이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시 개운동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른다.

### [유래]

무항골에 항상 안개가 끼어 있으므로 안개가 걷히고 원주 발전의 ‘운(運)을 연다’는 뜻으로 ‘개운(開運)’이라 하였다.

## 개운골 [골]

**[위치]** 남문거리에서 남서쪽으로 향교골에 이르는 골짜기로, 향교천이 흐르던 곳을 말한다. 남부시장 앞에서 원주향교에 이르는 곳으로 골짜기를 따라 현재 남원로가 나 있다. 개운동과 명륜동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 개운다리 [마을]

**[위치]** 원주천 옆에 있던 마을을 부르던 옛 이름으로, 남부시장 동쪽, 개봉교 남서쪽 지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기운다리(開雲橋)’라고 하였다.

**[유래]** 다리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다리 이름이 곧 마을 이름이 되었다. 관설동 ‘대평다리’도 같은 이치이다.

## 골동산 [마을]

**[위치]** 원흥3차아파트 서쪽, 개운현대아파트 남쪽에 있는 높이 167m의 산을 말한다. ‘골동산’이라고도 한다.

## 구만동 [마을] → 궁만이

## 궁만이 [마을] → 궁만이

## 궁만동(弓滿洞) [마을] → 궁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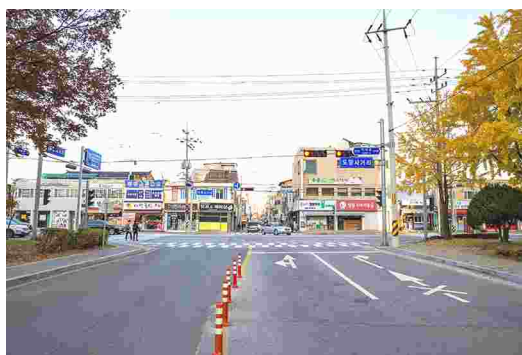
## 궁만이 [마을]

**[위치]** 남부시장 남동쪽, 원주고등학교와 상지여자고등학교 사이, 명륜초등학교의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과거에는 개운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구만이’, ‘구만동’, ‘궁만동’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弓滿’, ‘弓滿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만니(弓滿)’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궁만이(弓滿洞, 구만동)’라고 하였다.

**[유래]** 원주천과 신춘천 사이의 우묵한 낮은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궁안>구만’이라 하였다. ‘궁만(弓滿)’은 원주천이 마을 동쪽을 활처럼 휘돌아가므로 소리와 뜻을 따라 적은 것이다. 정병사의 유래담은 이 궁만(弓滿)의 뜻을 따라 덧붙여진 것이다.

**[유래담]** 이 마을에 살았던 정병사(鄭兵使)의 집에 활이 가득차(弓滿)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풀이]** 구만이는 궁안, 즉 물굽이의 우묵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궁’은 구멍(穴, 孔)을 뜻하는 ‘굽’, ‘구무’에서 나온 옛말로 구멍 또는 구멍처럼 우묵한 곳을 뜻한다. 부론면 손곡리의 ‘구만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지명 ‘구만이’의 공통점은 모두가 강 옆에 있다는 것이다. 이 곳 지형은 동쪽은 원주천이 활처럼 휘돌아나가고 마을 가운데로 갈촌에서 나옹정, 관앞을 흘러온 신춘천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지대가 낮아 장마 때는 항상 물이 역류하며 범람하였던 곳이다. 따라서 지형이 낮고 우묵한 안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궁(穴, 孔)+안(內)>궁안>구만>구만이, 궁만이’가 되었다. ‘구만이’가 ‘궁만이’로 실현되면서 이를 한자로 ‘弓滿’으로 쓰고, 정병사와 활과 관련된 유래담이 생겼다. 『조선지리지자료』 『한국지명총람』에 한자로 적어 ‘弓滿’으로 표기한 것은 ‘궁만이’의 소리를 적은 것이다.



「궁만이 마을 : 2019년」

## 궁만이다리 [다리]

**[위치]** 궁만이 마을 앞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만이다리’라고 하였다.

## 골동산 [산] → 골동산

## 남문(南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남문이 있던 곳을 말

한다. 남부시장사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남문거리 [길]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 남문에 있던 길을 말한다. 남부시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남문거리(南門--)’라 하였다.

#### 남문거리 [마을]

**[위치]** 옛 남문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남부시장사거리 지역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남문거리(南門街)’라고 하였다.

**[유래]** 남문이 있던 곳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남문거리라 하였다.

#### 도깨비비 [비]

**[위치]** 궁만이 마을 입구 길모퉁이에 있던 비석을 말한다. 지금은 휴먼시아아파트 안에 옮겨져 있다.

**[내용]** 도깨비비라고 알려진 비는 사실은 조선시대 김후(金侯)의 선정비(善政碑)로, 훼손된 글자를 ‘공(公)’으로 읽고 잘못 알려진 것이다. 훼손된 글자가 ‘후(侯)’로 판독됨으로써 이 비가 김후(金侯)의 개인 선정비이며, 뒷면의 ‘가정(嘉靖)’이라는 연호(年號)에 의해 1522~1566년 사이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석의 주인공이 김공으로 잘못 알려져 ‘도깨비비’라고 알려져 왔다.

**[전설]** 궁만이 마을 입구에 선정비(善政碑)가 있었다. 그 비는 현재 휴먼시아아파트 안에 있는데, 일명 ‘도깨비비’라고도 부르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지삼군부사(知三軍府使)를 지낸 정병사(鄭兵使)의 원래 이름은 정기원(鄭岐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며 담력도 대단하였다. 어렸을 때 글을 읽다가 한밤에 혼자 정원을 거닐 때마다 장승같은 사람이 나타나 “병사님 행차하십니까?”하고 절을 하였다. 그 후 20세가 되던 해에 금강산에 들어가 ‘영하’ 도사에게서 무술을 사사받고 1년 만에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 사나이가 나타나 “정병사님 이제 오십니까?”하며 절을 하였다. 그제서야 정병사

는 “너는 누구냐?”하고 물으니 “저는 김공이옵시다.”하고 답하기에 “그럼 네가 도깨비란 말이냐.”하고 묻자 “정병사님, 어서 집으로 들어가시지요.”하고는 사라졌다. 그 후 그는 제주목사가 됐고 제주에서 돌아와 병사의 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후에 정기원은 김도깨비의 예언을 되새겨 ‘김공선정지비(金公善政之碑)’를 세웠는데 그 선정비를 가리켜 ‘도깨비비’라고 한다.

도깨비비라고 알려진 그 비는 조선시대 김후(金侯)의 선정비(善政碑)이다.



「도깨비비 ; 2019년」

#### 도말 [마을]

**[위치]** 궁만이 북동쪽 강변에 있던 마을로 현 명륜초등학교 동쪽, 치악교사거리 서쪽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도촌(都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말(都村)’이라 하였다.

**[유래]** 강변이라 돌이 많았으므로 ‘돌말>도말’이라고 하였다. 장마철에 홍수가 나도 돌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떠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는 도씨(都氏)가 살았으므로 도말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도말과 궁만이, 남부시장이 있는 이 지역은 갈촌, 나옹정에서 흘러온 신촌천과 향교골에서 흘러내려온 향교천이 원주천에 합류하는 하류지역으로 지대가 낮아 항상 수해를 입던 곳이다. 자갈이 많은 강 옆에 마을이 섰으므로 ‘돌(石)+마을>돌마을>돌말>도말’이 되었다. 『조선지리지』에 ‘드말들(良里坪)’이라고 한 것은 이 마을이 도씨와는 상

관없이 도말의 소리를 ‘드말’로 기록한 것이다.

#### 도말들 [들]

**[위치]** 명륜초등학교에서 남쪽 통일황소아파트에 이르는 원주천 옆에 발달한 넓은 들을 말한다. ‘도말버덩’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드말들(良里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말들’이라 하였다.

#### 도말버덩 [들] → 도말들

#### 도말보 [보]

**[위치]** 도말들에 물을 대던 원주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말보’라고 하였다.

#### 도촌(都村) [마을] → 도말

#### 드말들(良里坪) [들] → 도말들

#### 무랑골 [마을] → 무항골

#### 무앙골 [마을] → 무항골

#### 무왕골 [마을] → 무항골

#### 무항곡(霧巷谷) [마을] → 무항골

#### 무항골(霧巷-) [골]

**[위치]** 송림앞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단구동성당에서 단구시장으로 가는 단구로가 나 있다. 단구동과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내용]** 골짜기 안, 단구로 길옆에 정충각(旌忠閣)이 있다.

#### 무항골(霧巷-) [마을]

**[위치]** 무항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단구시장 북동쪽 아래, 단구동성당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일부는 군부대에 편입되었다. ‘무랑골·무앙골·무항곡’, ‘송림’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왕골(武旺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랑골(무항곡霧巷谷, 송림松林)’이라 하였다. **[유래]** 안개가 항상 끼어 있었으므로 무항골이라 하였다. 소나무가 많아 송림이라고도 하였다.

**[유래담]** 조선 세종 때 직제학에 이르렀던 원호(元昊)가 낙향하여 있을 때 세조가 호조참의를 제수하여 조정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나졸로 하여금 수소문하였으나 항상 안개 속에 숨어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원호는 생육신 중의 한 사람으로 호를 ‘관란(觀瀾)’ 또는 마을 이름을 따라 ‘무항(霧巷)’이라 하였다.

#### 문화촌(文化村) [마을]

**[위치]** 옛 향교골로 불리던 마을로 젊음의광장사거리 남동쪽, 원마트 부근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1970년대 초부터 문화촌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물레방아거리 [길] [마을]

**[위치]** 신촌천이 흐르던 곳을 복개하고 새로 상가로 조성한 길,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옛날 물레방아가 있던 곳이므로 물레방아거리라고 하였다.



「물레방아 ; 1953년」



「물레방아거리 ; 2019년」

## 비행장 [비행장]

**[위치]** 도말에서 남쪽으로 원주천 옆에 있던 옛 군용 경비행장을 말한다. 현 명륜초등학교 동쪽에서 상지여고를 지나 원주중학교 동쪽, 단구동 통일대성당 사이에 이르던 곳이다. 1972년경 폐쇄되고 이후에 주택단지가 되었다. 현재도 활주로의 일부가 주택가 곳곳에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비행장’이라 하였다.



「비행장 ; 1968년」

## 상동(上洞) [마을] → 상동리

### 상동리(上洞里) [마을]

**[위치]** 1910년대 현 행정구역상의 원동, 인동, 개운동, 명륜동 지역을 지칭하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상동(邑上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동리(上洞里, 상동上洞)’라 하였다.

**[유래]** 본부면의 위쪽에 해당하므로 본부면 상동(上洞)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본부면의 본읍리(本邑里), 삼리(三里)와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일리(一里)와 판제면(板梯面)의 하일리(下一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상동리(上洞里)라 하였다. 1937년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상동리를 개운정(開運町), 남산정(南山町), 대화정(大和町),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으로 나누고, 상동리 일부와 하동리 일부를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 금정(鎭町)으로 나누었다가 1946년 동명 변경에 의하여 남산정을 원동으로, 대화정을 인동으로, 본정이정목을 중앙동으로, 금정을

일산동으로 고치고, 개운정은 개운동으로 하였다.

## 새말 [마을]

**[위치]** 도말 북서쪽, 원주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개봉교사거리에서 원주교오거리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신말’, ‘신촌’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시말(新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신촌新村, 신말)’이라 하였다.

**[유래]**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말이라 하였다.

## 새말양어장 [못]

**[위치]** 새말 동쪽, 원주천 옆에 있던 양어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양어장’이라 하였다.

## 선정비(善政碑) [비] → 도깨비비

### 송림(松林) [마을]

**[위치]** 향교산 송림 숲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단구시장 주변, 개운한신휴플러스1차아파트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 송림(松林) [숲]

**[위치]** 향교산에 있던 소나무 숲을 말한다. 원주의료원 남동쪽, 단구시장 북서쪽, 개운한신휴플러스1차아파트 단지에 있던 숲이다.

## 신말 [마을] → 새말

## 신촌(新村) [마을] → 새말

### 신촌천(新村川) [내]

**[위치]** 관설동 갈촌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나운정을 지나온 물줄기와, 귀론과 저무니골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관앞에서 만난 후, 북쪽으로 흘러 궁만이를 지나 남부시장 앞 개봉교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용]** 물레방아가 있었다. 현재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우시장(牛市場) [장]

**[위치]** 새말에 있던 우시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우시장’이라 하였다.

**[내용]** 시가지가 팽창함에 따라 1960년대 말 봉산



동 배말타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인열왕후탄생지비(仁烈王后誕生地碑)** [비] → 원인동 왕비각터

**[위치]** 개운동 원주고등학교 남쪽 도로변에 있다.



「인열왕후탄생지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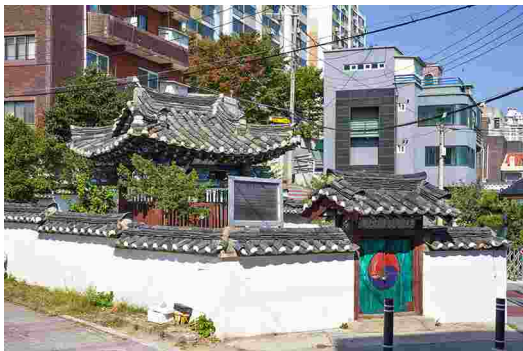
**장승거리보 [보]**

**[위치]** 장승거리에 있던 신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장승거리보(長丞街洑)’라고 하였다.

**정충각(旌忠閣)** [비각]

**[위치]** 개운동 산4번지, 옛 무향골에 있는 비각을 말한다. 현 원주로 도로 옆에 있다.

**[유래]** 생육신의 한 사람인 관란(觀瀾) 원호(元昊)에게 내려진 정려(旌閭)이다. 한국전쟁 때 퇴락한 것을 1971년도에 정충비와 비각을 새로 세우고 현 판을 달았다.



「정충각 ; 2019년」

**제방뚝 [뚝]**

**[위치]** 남부시장 동쪽, 궁만이 동쪽 등 원주천을 막고 있는 뚝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제방뚝’이라 하였다.

**청룡골 [마을]**

**[위치]** 원주고등학교 서쪽 산등성이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 뒤의 산 형상이 마치 청룡의 끝처럼 생겼다 하여 마을을 청룡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치악마을 [마을]**

**[위치]** 옛 도말 마을 지역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개운동행정복지센터 북쪽 건너편의 마을이다.

**[유래]** 1982년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이름을 새로 정하였다. 마을 동쪽에 치악교가 있고 치악산이 가까우므로 치악마을이라 하였다.

**향교골 [골]**

**[위치]** 개운골에서 남서쪽으로 의료원사거리에 이르는 곳, 향교사거리에서 향교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남원로가 나 있고, 주택과 상가, 향교길이 나 있다. 개운동과 명륜동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유래]** 향교로 가는 골짜기였으므로 향교골이라고 하였다.

**향교산(鄕校山) [산]**

**[위치]** 송림 마을 뒤, 송림숲이 있던 산을 말한다. 개운한신희플러스1차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향교산(鄕校山)’이라 하였다.

**[유래]** 향교 남쪽 건너편에 있던 산으로 향교에서 관할하였으므로 향교산이라 하였다.

**향교천(鄕校川) [내]**

**[위치]** 송림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향교골과 개운골을 지나 남부시장 앞 개운교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를 따라 현재 남원로가 나 있다.

## 관설동(觀雪洞)

### [위치]

관설동은 원주시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치악산 줄기를 경계로 하여 판부면 금대리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단구동과 판부면 서곡리, 남쪽으로는 판부면 금대리와 신촌리, 북쪽으로는 반곡동과 접해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이리(二里)·삼리(三里), 판제면(板梯面)의 본이리(本二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들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관설리(觀雪里)라 하고 판부면(板富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판부면 관설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原城郡)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원성군 판부면 관설리가 되었다.

1973년 원주시에 편입되면서 원주시 관설동(觀雪洞)이 되었다.

1983년 관설동의 일부(신촌리)를 원성군 판부면에 이관하였다.

### [유래]

관설의 원래 이름은 ‘별논’이었는데 이것이 ‘별논>볼논’으로 음운 변화를 거치고 ‘볼논’을 한자로 옮겨 ‘관설(觀雪)’이라 하였다.

조선 인조 때 현감 허후(許厚, 1588~1661)가 마을 이름인 ‘볼논’의 한자어 ‘관설(觀雪)’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 [풀이]

‘별논’은 ‘별판의 논’이라는 뜻으로, ‘별+논>별논>볼논>볼논’으로 음운 변화하였다. 따라서 원래는 들의 이름이었다가 마을 이름이 되었고 다시 관설동(觀雪洞)이라는 동 행정명으로 확장되었다.

‘안별논’, ‘밭별논’이라는 마을 이름이 남아있어 어원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가는다리 [마을] → 세교

#### 갈창골 [골]

**[위치]** 옷섭재 외집담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바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갈촌(葛村) [마을]

**[위치]** 대평 서쪽, 모래재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옷말’, ‘아랫말’, ‘웃골’이 있다. 19번 외곽순환도로가 마을 북서쪽을 지나가고 있다. 새로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갈촌(葛村)’이라 하였다.

**[유래]** 야산에 참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갈촌(葛村)이라 하였다. 풍수지리설에 갈화낙지(葛花落地) 토지에 명당이 있다는 설이 전한다.

**[내용]** 마을 남쪽은 백운산 줄기로 막혀 있고 마을 북동쪽에 원주천이 흐르고 있어 그 사이 들을 중심으로 들어선 마을이다. 지금은 마을 북쪽으로 중앙고속도로가 나 있고, 마을 북서쪽 진밭골로는 19번 외곽순환도로가 나 있다.



「갈촌 마을 : 2019년」

#### 갈촌골(1) [골]

**[위치]** 대평저수지 남쪽 위, 대평골 중간에서 남동쪽 봉우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중앙고속도로가 골짜기를 관통하고 있다.

#### 갈촌골(2) [골]

**[위치]** 갈촌 구루니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개건너 [마을]

**[위치]** 아래섭재 중 동덩말 남쪽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옷섭재 옷말의 북동쪽에 있다.

#### 개건너들 [들]

**[위치]** 아래섭재 개건너 마을 동쪽 철길 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골말들 [들]

**[위치]** 아래섭재 개건너들 북쪽, 동덩말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큰숫둔골과 작은숫둔골(1) 서쪽 아래 골짜기 입구에 있는 들이다.

#### 곰바우 [바위]

**[위치]** 해미산성 곰바우봉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곰바우봉 [산]

**[위치]** 숫둔봉 남쪽, 해미산성에 있는 629.7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송골과 옥개골의 동쪽 끝에 있다. ‘곰바우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곰바우가 있으므로 곰바우봉이라 한다. 또는 옛날 치악산에 사는 곰들이 무리지어 금대동 북쪽 산릉을 넘나들었으므로 곰바우봉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곰바우봉을 중심으로 하여 해미산성이 있다. 산성 안에 방석소나무가 있다.

#### 곰바우산 [산] → 곰바우봉

#### 곶집거리 [마을]

**[위치]** 밧벌논 마을 중 남서쪽, 신촌천 동쪽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새말과 아랫담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마을 옆에 곶집이 있었으므로 곶집거리라고 하였다.

#### 곶집거리들 [들]

**[위치]** 초당거리산 남쪽, 아래섭재 서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 관설천(觀雪川) [내] → 신촌천

#### 구루니골 [골]

**[위치]** 갈촌에서 남동쪽으로, 366m 봉우리를 향

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갈촌골(2)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길아재** [고개] → 길아치, 질아재

**[풀이]** ‘길+재>길+(아)+재>길아재, 질아재’가 되었다. ‘길’은 ‘길다’란 뜻이고 ‘재’는 ‘고개’를 뜻하며 ‘아’는 매개모음이다. ‘길>질’은 구개음화에 따른 변화이다.

**길아치** [고개]

**[위치]** 큰숫둔재 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650m이다. ‘길아재’, ‘질아재’, ‘질아치’라고도 한다.

**[내용]** 반곡동 한가터와 판부면 금대리 일론을 오가는 고개이다.

**[풀이]** ‘길+치>길+(아)+치>길아치, 질아치’가 되었다. ‘길’은 ‘길다’는 뜻이고 ‘치’는 ‘고개’를 뜻하며 ‘아’는 매개모음이다. ‘길>질’은 구개음화에 따른 변화이다.

**나비허리** [들]

**[위치]** 내벌 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긴 들을 말한다. 솔경지들에서 남쪽 우리리를 지나 모래구덩이 고개에 이르는 넓고 긴 골짜기에 있던 들이다. 현 박경리문학공원에서 남쪽으로 단관공원사거리를 지나 치악고등학교에 이르는 곳으로, 단관공원길이 넓게 나 있다. 골짜기 끝에 치악고등학교와 중앙하이츠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내비혈’, ‘나비허리’라고도 한다.

**[유래]** 신촌천의 넓은 솔경지들에서 보아 골 안쪽으로 깊숙이 나 있는 들이므로 ‘내벌’이라 하였는데 ‘내벌>내비혈>내비허리>나비허리’의 음운 변화를 거쳐 ‘나비허리’가 되었다.

**나비허리** [마을]

**[위치]** 갯가말 안쪽, 관앞 남쪽, 내벌들 입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박경리문학공원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나비혈(羅飛穴)’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내비혈(나비허리)’

라 하였다.

**[풀이]** 솔경지들 안쪽 깊은 곳에 들어 있으므로 ‘내벌’이라 하였고 그 들 입구에 마을이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내벌’이라 하였다. ‘내벌>내비혈>내비허리>나비허리’가 되었다.

**나옹정(懶翁亭)** [누정]

**[위치]** 나옹정 마을, 문고개와 모래재에서 내려오는 신촌천 지류 옆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유래]** 마을 입구 작은 동산 앞으로 신촌천의 지류가 흐르고 그 위 정자에서 고려시대 나옹화상(懶翁和尚)이 낚시를 했다고 한다. 나옹화상은 고기가 물면 다시 놓아주었다고 하는데 후일 이곳을 나옹대사의 이름을 따서 ‘나옹정(懶翁亭)’이라고 하였다.

**[내용]** 나옹화상(懶翁和尚)은 고려 말의 승려로 태장동 영천사와 여주 신륵사에 사리탑이 있는 등 원주, 여주와 인연이 깊다.

**나옹정(懶翁亭)** [마을]

**[위치]** 솔경지들 남쪽, 내벌들 동쪽, 신촌천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는 윗말이 있었다. 1994년 단관택지로 개발되어 마을은 사라지고 마을 동산이 나옹정어린이공원으로 남아있다. 공원에 마을 기념비가 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나옹정(懶翁亭)’이라 하였다.

**[유래]** 나옹정 정자가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도 ‘나옹정’이라 하였다.



「나옹정 유래비 ; 2019년」

## 나옹정들 [들]

**[위치]** 나옹정 마을 앞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재 단관택지에 모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나옹정들’이라 하였다.

## 내관설(內觀雪) [마을] → 안벌눈

## 내관설들 [들]

**[위치]** 안벌눈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내관설들’이라 하였다.

## 내벌 [들] [마을] → 나비허리

## 내비혈 [들] [마을] → 나비허리

## 논골 [골]

**[위치]** 갈촌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당둔지 [마을]

**[위치]** 현 관설초등학교 남동쪽, 신촌천과 원주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당똥지’라고도 한다.

**[유래]** 원주천 옆 둔ちに 성황당이 있었으므로 당둔지라 하였다.

**[풀이]** ‘당(堂)+둔(屯)+지(只, 地)>당둔지, 당똥지’가 되었다. ‘당’은 성황당, ‘둔’은 둔덕, ‘지’는 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당집이 있는 둔덕이란 뜻이다.

## 당똥지 [마을] → 당둔지

## 당재골 [골]

**[위치]** 초당거리산에서 동쪽으로, 섭재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대수둔(大水屯) [마을] → 큰숫둔

## 대평(大平, 大坪) [마을]

**[위치]** 대평교 북쪽 둔지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쪽에 대평들과 대평저수지가 있다. ‘대평다리’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디평다리(太平橋)’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평다리(대평교 大坪橋)’라 하였다.

**[유래]** 옛날 대평다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있었으므로 ‘대평’, ‘대평다리’라 하였다.

## 대평골 [골]

**[위치]** 대평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갈촌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끝에는 작은백배미골이 이어진다.

## 대평교(大平橋) [다리] → 대평다리

## 대평교(大坪橋) [마을] → 대평

## 대평교들 [들] → 대평들

## 대평교보(大坪橋湫) [보] → 대평보

## 대평교저수지 [못] → 대평저수지

## 대평다리 [다리]

**[위치]** 대평 마을 앞에 있던 옛 원주천의 다리를 말한다. 현 영서고사거리에 대평교가 놓여져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평다리(대평교)’라 하였다.



「대평교 ; 1983년」

## 대평다리 [마을] → 대평

## 대평다리보 [보] → 대평보

## 대평둑 [둑]

**[위치]** 대평 마을 동쪽, 대평교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둑을 말한다. 원주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평교제방’이라 하였다.

## 대평들 [들]

**[위치]** 대평저수지 북쪽 아래에서 단구초등학교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들 가운데로 치악로가 나 있고 19번 외곽순환도로가 나 있으며 유승아파트 및 판부면행정복지센터 등이 들어서 주택단지가 되었다. ‘대평교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평교들’이라 하였다.

#### 대평보 [보]

**[위치]** 대평다리에 있는 원주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디평다리보(太平橋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평교보’라 하였다.

#### 대평저수지 [못]

**[위치]** 대평 마을 서쪽, 갈촌 동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관설동성당 남쪽, 관설교차로 남서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평교저수지’라 하였다.



「대평저수지 ; 2018년」

#### 동산(東山) [산]

**[위치]** 나옹정에 있는 산을 말한다. 현 나옹정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마을 기념비가 있는 곳이다.

#### 동산둔지보 [보]

**[위치]** 나옹정에 있던 신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산둔지보’라 하였다.

#### 동작골 [골]

**[위치]** 대평저수지 남동쪽, 앞산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둔덕말 [마을] → 동덩말

#### 둔덕섭재 [마을]

**[위치]** 섭재 아랫말들의 동쪽 언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섭재 마을 중 철길에 이르는 높은 곳에 있으므로 둔덕섭재라 부른다.

#### 동덩말 [마을]

**[위치]** 아래섭재 북쪽에 있는 작은 집성촌을 말한다. 초당거리산 동쪽, 섭재저수지 남쪽에 있다.

**[유래]** 둔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둔덕+마을>둔덕말’이라 하였는데 둔덕말이 음운 변천하여 ‘둔덕말>둔덩말>동덩말’이 되었다.

#### 독방 [독]

**[위치]** 당둔지에 있는 원주천의 제방을 말한다.

#### 마산 [산]

**[위치]** 밧벌논 남동쪽에 있는 높이 256.3m의 산을 말한다. 산 정상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 막운지들 [들] → 막촌들

#### 막정지들 [들] → 막촌들

#### 막촌(幕村) [마을]

**[위치]** 갈촌 옷말 북쪽, 우무골 남쪽 끝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 막촌들 [들]

**[위치]** 막촌 동쪽 아래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막운지들’, ‘막정지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막정지들(莫云之坪)’이라 하였다.

#### 메기바우 [바위]

**[위치]** 관설동 대평교 앞 개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메기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 밑에 메기가 많이 있어서 메기바우라 한다.

#### 모래구덩이고개 [고개] → 모래재

#### 모래구덩이골 [골]

**[위치]** 갈촌 진밭골 중간에서 북서쪽 모래재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모래재 [고개]

**[위치]** 판부면 서곡리 내남송과 관설동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갈촌에서 모래구덩이골을 지나 내남송으로 가는 고개이다. 현 서곡길이 지나가고 있다.

**[내용]** 모래재 아래 내남송쪽에는 황문터들이 있고 관설동쪽은 모래구덩이골이 있다. 모래재에서 북동쪽으로 갈촌으로 내려가거나 북쪽으로 귀론을 거쳐 나옹정으로 가는 길이 있다.

### 목넘어골 [골]

**[위치]** 웃섭재 외집담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성황당이 있다.

### 발안치골 [골]

**[위치]** 큰숫둔골 위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69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밭별논 [마을]

**[위치]** 별논 마을 중 골짜기 바깥, 원주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웃담’과 ‘아랫담’, ‘학마을’, ‘새말’이 있다. 밭별논과 안별논 사이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외관설(外觀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밭별논(외관설)’이라 하였다.

**[유래]** 별논 마을 중 원주천 쪽, 골짜기 바깥에 있으므로 ‘밭별논>밭별논’이라 하였다.

### 백배미 [골]

**[위치]** 대평저수지 남쪽 위, 갈촌골에서 남서쪽 가섭재(수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앞산 남서쪽 아래에 있다. ‘큰백배미골’과 ‘작은백배미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백배미’라 하였다.

**[유래]** 밭다랭이가 백 개나 될 정도로 많으므로 백배미라 하였다.

### 버덩섭재 [마을] → 웃섭재

### 별논 [마을] → 관설동

### 별논 [마을] → 관설동

### 보들 [들]

**[위치]** 초당거리산 서쪽 봉천 옆으로 넓게 발달한 들을 말한다. 현 영서고등학교의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이다.

**[유래]** 원주천에 보(洑)가 많이 발달해 있으므로 보가 있는 곳의 들이라 하여 보들이라고 한다.

### 불논 [마을] → 관설동

### 불논 [마을] → 관설동

### 봉산천(鳳山川) [내] → 봉산동 원주천

### 봉우재 [산]

**[위치]** 밭별논 서쪽, 신촌천 건너에 있는 282m 높이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현 원주골프타운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산줄기를 가로질러 중앙고속도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봉우재’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 봉우재라 하였다고 하나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 봉천(鳳川) [내] → 봉산동 원주천

**[위치]** 가리파재에서 시작하는 물줄기와 향로봉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금대리와 관설동, 개운동, 봉산동을 거쳐 흐르는 내를 말한다. ‘동천’, ‘봉산천’, ‘원주천’이라고도 한다.

**[유래]** 봉천(鳳川)은 봉산동 봉산(鳳山)에서 따온 이름이고, 동천(東川)은 강원감영의 동쪽에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사당들골 [들]

**[위치]** 진등 마을에서 남쪽으로, 갈촌 아랫말과 웃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19번 외곽순환도로가 들을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 산밑말 [마을]

**[위치]** 대평저수지 동쪽, 앞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앞산 밑에 있는 마을이므로 산밑말이라 하였다.

상섭재 [마을] → 웃섭재

상신성(上薪城) [마을] → 웃섭재

새들 [들]

**[위치]** 밧벌논 새말 남쪽으로 원주천을 따라 발달한 들을 말한다.

새들보 [보]

**[위치]** 새들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드리보(新坪洑)’라고 하였다.

새말 [마을]

**[위치]** 밧벌논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신촌천 하류에 있는 마을로 치악로 서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새말들 [들]

**[위치]** 새말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들’이라 하였다.

선바우 [바위]

**[위치]** 선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바우’라 하였다.

**[유래]** 큰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우라 하였다.

선바우골 [골]

**[위치]** 개건너들 작은숫둔골을 거쳐 남동쪽으로 높이 506.7m 봉우리와 624.9m 봉우리 사이 안부(鞍部)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선바우’가 있어서 선바우골이라 한다.

선바우골 [마을]

**[위치]** 선바우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바우골’이라 하였다.

섬바우 [바위] → 선바우

섬바우골 [마을] → 선바우골

섭성 [성]

**[위치]** 성안이 마을에 있는 옛 성터로 해미산성을 말한다. ‘성터’, ‘신성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

람』에 ‘성터(성성터, 신성터)’라 하였다.

섭성터 [터] → 섭성

섭재 [마을]

**[위치]** 밧벌논 동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마을로 섭성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섭재’와 ‘아래섭재’가 있다. 원주천 동쪽 상류에 있는 웃섭재는 ‘버덩섭재’, 하류에 있는 아래섭재는 ‘둔덕섭재’라고 한다. 섭재를 ‘섭재’라고도 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신성(薪城)’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섭지(薪城)’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섭재(薪城)’라 하였다.

**[유래]** 숲이 우거진 성 밑에 마을이 있으므로 섭재라 하였다.

**[내용]** 상·하 신성 위쪽에 섭성, 곧 해미산성(海美山城)이 있다. 섭재에서 이 성을 섭성, 성터라고 부르고 성안이, 성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미산성은 원래 섭재에서 관할하거나 섭재가 출입의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동쪽 아래에 있는 금대리 일문보다는 섭재 쪽이 교통이 편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풀이]** 섭재는 ‘섭+재’인데 ‘섭’은 나무가 많은 숲을 의미하는 ‘섭, 숲’의 옛말이다. ‘재’는 ‘고개, 성(城), 마을’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이는 성(城)이 고개에 있고 성 안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자로 ‘薪(떨나무, 숲신)’과 ‘城(재성)’을 합해서 ‘신성(薪城)’이라 하였다.



「섭재 마을 ; 2019년」

### 섭재들 [들]

**[위치]** 옷섭재 앞 남서쪽 아래 원주천 변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원주천 동쪽으로 넓게 발달한 들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섭지들(薪城坪)’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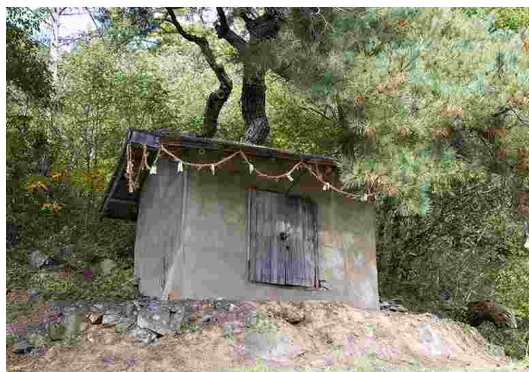
### 섭재보 [보]

**[위치]** 옥개울 마을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洑)를 말한다. 섭재들에 물을 댈다. 『한국지명총람』에 ‘섭재보’라 하였다.

### 섭재성황당 [당]

**[위치]** 옷섭재 외집담 동쪽, 목넘어골 입구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소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치악산신을 모셨다. 매년 음력 9월 8일에 마을 제사를 올린다.



「섭재성황당 ; 2019년」

### 섭재저수지 [못]

**[위치]** 초당거리산 북동쪽, 섭재 북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큰숫둔의 물을 모아 당재골에 물을 댈다.

**[내용]** 1954년에 준공하였다.

### 성골(城-) [골]

**[위치]** 옥개울에서 동쪽으로, 성막골을 지나 해미산성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서 작다리골과 옥개골이 차례로 갈라져 나간다.

**[유래]** 산성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므로 ‘성골(城-)’이라고 하였다.

### 성내(城內) [마을] → 성안이

### 성막골 [골]

**[위치]** 옥개울 동쪽 철길 건너에서 해미산성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성골’, ‘작다리골’, ‘옥개골’이 있다.

### 성안이 [마을]

**[위치]** 섭재 해미산성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성내(城內)’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성니(城內)’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성안이(성내城內)’라 하였다.

### 성터 [터] → 섭성

### 성황당골 [골]

**[위치]** 나옹정에서 남쪽으로 갈촌 아랫말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에 진등 마을과 왜둔지들이 있다. 골짜기에 현재 단관초등학교와 원주단관청솔8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섭성터 [터] → 섭성

### 섭재 [마을] → 섭재

### 세교(細橋) [마을]

**[위치]** 세교 다리 건너 동쪽 철길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옥개울’, ‘잔다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는다리(細橋)’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옥개울(세교細橋)’라 하였다.



「세교 마을 ; 2019년」

### 세교터널 [굴]

**[위치]** 잔다리골과 옥개울 사이에 있는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소수둔(小水屯)** [마을] → 작은숫둔

**소숫둔** [마을] → 작은숫둔

**소을탄소(所乙呑所)** [마을] → 소탄소

**[위치]**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마을 이름이다. 없어진 ‘소을탄소’의 성씨에 ‘지씨(池氏)’가 있었다고 하였다. ‘소을탄(所乙呑)’은 ‘소탄(所呑)’을 달리 기록한 것이다.

**소탄소(所呑所)** [마을]

**[위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관동지』 등의 옛 지리지에 나오는 마을 이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소을탄소(所乙呑所)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관동지』에서는 소탄(所呑)에 지씨(池氏)가 있었다 하였고 소탄소(所呑所)가 동쪽 13리에 있다 하였다. 방향과 거리, 정황 등으로 보아 소탄소(所呑所)는 옛날 숫을 생산하던 섭재 마을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소(所)는 향(鄉)·부곡(部曲)·장(莊)·처(處)와 함께 부곡제(部曲制)를 구성하던 것으로, 군(郡), 현(縣) 이하의 행정단위로 이해된다. ‘향·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있던 농경 집단이었고, ‘소’는 고려 시대에 생긴 것으로, 왕실이나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광업·수산업 부문의 특산물을 생산하여 공납하는 특수한 성격의 집단이었다. 이들은 천민 집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분상 양민으로서 소규모의 행정단위, 특산품을 생산하던 장인(匠人) 집단으로 보고 있다. 소(所)는 조선 초기에 전국적으로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향·부곡과 함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또는 직촌(直村)으로 되어 소멸하였다.

**[풀이]** 소을탄(所乙呑), 또는 소탄(所呑)이라고 하였으므로 소탄소(所呑所)는 ‘所呑+所>所呑所’이다. 소(所)는 고려시대에 특산품을 생산하여 공납하던

특수한 성격의 집단으로 금소(金所), 은소(銀所), 철소(鐵所), 와소(瓦所), 자기소(瓷器所), 지소(紙所) 등이 있었다.

소탄(所呑)의 ‘탄(呑)’은 고구려어에서 골짜기(谷)를 뜻하는 말로, ‘呑·므·頓’으로 기록되었다. 소탄(所呑)이 소리를 적은 것인지 뜻을 적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탄(呑)을 골짜기로 본다면 ‘소탄(所呑)’은 ‘소골, 소골짜기’로 볼 수 있어서 현재 전하는 지명중에 태장동의 소일(<소실<소실, 牛谷)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소실>소실>소일’에서 소일의 옛 이름 ‘소실’의 ‘실’은 신라어 계통의 골짜기(谷)로서, 한자로는 (∼失), 또는 (∼谷)으로 적었으므로 탄(呑)과는 거리가 있다. 소일에서 특별히 생산하던 특산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향과 거리상으로도 소일은 강원감영 북쪽이며, 거리상으로는 7~8리 정도이다. 따라서 동쪽 13리와는 크게 어긋난다.

옛 기록에 단구역을 고을 동쪽 7리, 남쪽 7리, 또는 남쪽 5리라 하였으므로 강원감영에서 동쪽 13리 거리는 현 ‘고동치 입구~신월랑~한가터 입구~반곡역~섭재’를 연결하는 치악산 서쪽 자락으로, 옛 부흥사면에 해당한다.

특산품을 생산하던 所呑所라는 이름과 위 지역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炭’과 ‘呑’의 소리가 같으므로 ‘呑’은 골짜기의 뜻이 아니라 소(所) 중에서 숫을 생산해서 공납하던 곳, 즉 ‘탄소(炭所)’로 추정된다. ‘呑所’를 ‘炭所’로 보면 강원감영 동쪽 13리 거리의 위 지역 중 숫과 관계있는 곳은 섭재이다. 섭재는 해미산성 아래 숲이 우거져(섭=숲의 옛말) 생긴 지명이고 거기에는 ‘큰숫둔·작은숫둔·숫둔봉·숫둔재·숫둔들’ 등 숫과 관련된 지명들이 현재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소탄소(所呑所)는 고려시대에 숫을 생산하여 공납하던 곳으로서, 지금의 섭재를 지칭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의 소(所)는 이곳 소탄소(所呑所) 외에 고을 동



쪽 45리에 ‘사림소(射林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림소는 신림면 용암리 사림(社林, 士林, 射林) 마을로 추정된다.

#### 솔경지 [들]

**[위치]** 내벌 남쪽, 나옹정 북쪽, 단구초등학교 서쪽에 있던 넓은 들을 말한다. 신촌천을 중심으로 넓게 발달한 들이었으나 도로 및 주택단지에 모두 편입되었다. ‘송정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송정뜰(松亭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경지’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소나무가 많았으므로 솔경지라 하였다.

#### 송정들 [들] → 솔경지

#### 수둔 [골] [마을] → 숲둔

#### 수든 [골] [마을] → 숲둔

#### 숲둔 [골]

**[위치]** 관설동 아래섭재에서 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길아치로 통하는 골짜기이다. ‘큰숫둔골’과 ‘작은숫둔골’이 있다. ‘수둔’, ‘수든’이라고도 한다.

#### 숲둔 [마을]

**[위치]** 섭재 큰숫둔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앙선 철로 동쪽 안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습령말(藪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숲둔(수둔)’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안에서 숲을 구웠으므로 ‘숲둔, 숲둔, 수둔’이라고 한다.

**[풀이]** ‘단, 둔, 둔’은 골짜기, 또는 거기에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숲을 구운 골짜기이므로 ‘숲+둔>숲둔>숲둔>수둔’이 되었다.

#### 숫둔들 [들]

**[위치]** 숲둔 마을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숫둔봉 [산]

**[위치]** 큰숫둔재 남쪽, 곰바우봉 북쪽에 있는 높이

744.9m의 산을 말한다. 길아치와 큰숫둔재, 곰바우봉으로 이어지는, 금대리와 관설동의 경계가 되는 능선에 있다.

#### 숫둔재 [고개] → 큰숫둔재

#### 숫둔 [골] [마을] → 숲둔

#### 숫든 [골] [마을] → 숲둔

#### 신성(薪城) [마을] → 섭재

#### 신성터 [터] → 섭성

#### 신촌골 [골]

**[위치]** 관설초등학교에서 앞산과 봉우재 사이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신촌천(新村川)(1) [내]

**[위치]** 판부면 신촌리 백운산(1,087m)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신촌리를 지나고 관설동 앞 당둔지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관설동 앞을 지나므로 ‘관설천(觀雪川)’이라고도 한다.

#### 신촌천(新村川)(2) [내]

**[위치]** 갈촌의 구루니골과 진밭골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나옹정을 지나는 물줄기와, 귀론과 저무니골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관앞에서 만난 후, 북쪽으로 흘러 개운동 궁만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용]** 수량이 많지는 않았으나 옛날에는 나옹정과 내벌, 관앞, 송림앞을 지나 현 개운동 북개천을 지나면서 주변에 넓은 들을 형성한 내였다. 이 내가 원주천에 합류하는 남부시장 앞 현 개운교사거리 주변은 지대가 낮았으므로 원주천이 범람하면 수해를 입었다. 개운동의 ‘궁만’과 ‘도말’은 이곳의 지형 특성이 반영된 지명이다.

#### 아래섭재 [마을]

**[위치]** 섭재 마을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당둔지에서 동쪽 봉천 건너, 철길 아래에 있다. ‘하섭재’, ‘하신성(下薪城)’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하신성(下薪城)’이라 하였다.

**[유래]** 섭재 마을 중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래섭재, 하신성이라고 하였다.

#### 아랫담(1) [마을]

**[위치]** 안벌논 마을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아랫담(2) [마을]

**[위치]** 밧벌논 마을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아랫말(1) [마을]

**[위치]** 갈촌 마을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내용]** 마을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그 사이에 사당들골이 있다.

#### 아랫말(2) [마을]

**[위치]** 옷섭재 마을 중 북서쪽, 개건너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아랫말들 [들]

**[위치]** 옷섭재 중간말과 아랫말(2)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둔덕섭재 동쪽에 있는 들이다.

#### 안벌논 [마을]

**[위치]** 벌논 서쪽, 신촌천 안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봉우재 동쪽 아래, 신촌천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안에 ‘웃담’과 ‘아랫담’이 있다. 마을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내관설(內觀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벌논(내관설)’이라 하였다.

**[유래]** ‘벌논(<벌논>’ 중 골짜기 안쪽에 있으므로 안벌논이라 하였다.

#### 안벌논들 [들]

**[위치]** 안벌논 남쪽 위, 웃담 서쪽 앞에 있는 신촌천 옆의 들을 말한다.

#### 앞산 [산]

**[위치]** 관설초등학교 서쪽, 대평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높이 251m의 산을 말한다. 산 서쪽에 중앙고

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약물탕 [샘]

**[위치]** 봉우재 산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웃물’, ‘약수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약수터(웃물)’라 하였다.

**[유래]** 옷 오른 사람이 이 물로 목을 축이면 낫는다고 해서 옷물, 약물탕이라고 하였다.

#### 약수터 [샘] → 약물탕

#### 엄나무골 [골]

**[위치]** 나옹정 남서쪽, 내벌들 위에서 모래구덩이 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우러리 동쪽, 우무골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현 단관사거리 남서쪽의 주택이 들어선 곳이다.

#### 오목골 [골]

**[위치]** 초당거리산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영서고등학교와 섭재저수지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아니들 [들]

**[위치]** 대평 마을 남동쪽, 당둔지 북동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아니들’이라 하였다.

#### 옥개골 [골]

**[위치]** 옥개울 성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져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해미산성 북서쪽 아래에 있다. 고개 너머에는 일론의 가래골이 있다.

**[유래]** 해미산성 아래 옛 해미산성의 감옥이 있던 골짜기여서 옥개골이라 하였다.

#### 옥개울 [마을]

**[위치]** 잔다리골 마을 남쪽, 현 산성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옥기동(玉介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옥개울(세교, 잔다리)’이라 하였다.

**[유래]** 해미산성의 감옥이 있던 옥개골 입구이므로 ‘옥개골>옥개울’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

**웃물** [샘] → 약물탕

**왜두지** [들] → 왜둔지들

**왜둔지들** [들]

**[위치]** 나옹정 남동쪽, 진등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원주단관청솔6차, 8차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왜두지(瓦屯之)’라고 하였다.

**외관설** [마을] → 밧벌논

**외관설들** [들]

**[위치]** 밧벌논 동쪽 앞에 있는 원주천 옆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외관설들’이라 하였다.

**외집담** [마을]

**[위치]** 웃섭재 마을 중 남쪽 섭재들 한 가운데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내용]** 집이 한 채만 있으므로 외집담이라 하였다.

**우무골** [골]

**[위치]** 나옹정에서 남서쪽으로, 모래구덩이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나옹정어린이공원에서 남쪽으로 단관사거리를 지나 중앙하이츠아파트와 코아루아파트 사이로 길이 나 있는 곳이다. 고개 끝에서 모래재를 지나 내남송에 닿는다. 골짜기 끝 위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웃골** [골]

**[위치]** 갈촌 마을 중 아랫말 앞 사당들골에서 남쪽으로 363m 봉을 향하여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웃골** [마을]

**[위치]** 갈촌 아랫말에서 남동쪽 위 웃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담(1)** [마을]

**[위치]** 안벌논 마을 중 남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담(2)** [마을]

**[위치]** 밧벌논 마을 중 남쪽 마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을 말한다. 현 원주자동차운전학원이 있는 마을이다.

**웃말(1)** [마을]

**[위치]** 갈촌 마을 중 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북쪽 아래에 진밭골이 있고 진밭골로 19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웃말(2)** [마을]

**[위치]** 웃섭재 중 남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섭재** [마을]

**[위치]** 섭재 마을 중 남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웃말’, ‘아랫말’, ‘중간말’, ‘외집담’이 있다. ‘상섭재’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상신성(上薪城)’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신성(상설재)’이라 하였다.

**[유래]** 섭재 위쪽 마을이므로 웃섭재, 상섭재, 상신성이라 하였다.

**윗말** [마을]

**[위치]** 나옹정 마을 중 남쪽 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작다리골** [골]

**[위치]** 옥개울 성골 상류 옥개골 아래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는 선바우골이 있다.

**작은늘갱이골** [골]

**[위치]** 신촌천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봉우재 남쪽에 있다.

**작은백배미골** [골]

**[위치]** 대평골에서 남서쪽 325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백배미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작은숫둔** [마을]

**[위치]** 작은숫둔골(3)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소수둔’, ‘소숫둔’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에 ‘자근숯둔(小炭屯)’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숯둔(소수둔小水屯)’이라 하였다.

#### 작은숯둔골(1) [골]

**[위치]** 관설동 개건너들에서 철길 건너 남동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숯둔골 남쪽에 있다. 골 끝에서 선바우골이 이어진다.

#### 작은숯둔골(2) [골]

**[위치]** 관설동 섭재 중간말에서 철길 넘어 동쪽으로 383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서 큰되골이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 작은숯둔골(3) [골]

**[위치]** 큰숯둔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57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위에 숯둔 마을이 있다.

#### 작은뒷골 [골]

**[위치]** 뒷골들에서 남쪽으로, 남서쪽 47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마산 동쪽, 뒷골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현 아우디서비스가 있고 그 뒤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잔다리 [마을]

**[위치]** 잔다리골 아래, 옥개울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천의 산성교 건너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세교(細橋)’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가는다리(細橋)’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옥개울(잔다리)’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앞 원주천에 작은 나무다리가 있었으므로 잔다리라고 하였다. 지금은 산성교가 세워져 있다. 원래 잔다리 자리는 현 산성교보다 상류인 옥개울 마을 앞이었다고 한다.

#### 잔다리골 [골]

**[위치]** 원주천 세교에서 북동쪽으로, 46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

람』에 ‘잔다리골’이라 하였다.

#### 잔다리성황당 [당]

**[위치]** 잔다리골 마을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마을 입구 말채나무 숲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고 숲만 남아있다.

#### 장대산(長大山) [산]

**[위치]** 대평저수지 남서쪽, 갈촌 남쪽에 있는 높이 277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대산’이라 하였다.

#### 중간말 [마을]

**[위치]** 옷섭재 마을 중 중간에 있는 작은 집성촌을 말한다. 마을 동쪽에 작은숯둔골(2)가 나 있다.

#### 진등 [마을]

**[위치]** 나옹정 남쪽, 대평저수지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에 왜둔지들이 있고 서쪽에 성황당골, 남쪽에 진등들이 있다. 현 단관교차로와 교차로 남동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유래]** 땅이 질어서 진등이라고 하였다. 또는 문고개에서 진등 마을까지 낮은 능선이 길게 나 있으므로 ‘긴등>진등’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 진등들 [들]

**[위치]** 진등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의 대부분이 현 19번 외곽순환도로에 편입되었다.

#### 진밭골 [골]

**[위치]** 진등들에서 남서쪽 모래구덩이고개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들로 경작되었으나 19번 외곽순환도로에 거의 다 편입되었다.

**[유래]** 땅이 질어서 진밭골이라 하였다.

#### 질아재 [고개] → 길아치

#### 질아치 [고개] → 길아치

#### 초당거리산 [산]

**[위치]** 보들 동쪽, 섭재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높이 210m의 산을 말한다. 현 영서고등학교 남동쪽에 있는 아산이다.

**초당앞** [들] → 초당앞들

**초당앞들** [들]

**[위치]** 초당거리산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초당앞’이라 하였다.

**큰되골** [골]

**[위치]** 옷섭재 동쪽 작은숫둔골(2) 끝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큰백배미골** [골]

**[위치]** 대평저수지 남쪽 갈촌골과 신촌골이 만나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작은백배미골 남동쪽에 있다.

**큰숫둔** [마을]

**[위치]** 큰숫둔골 안의 마을을 말한다. ‘숫둔’, ‘대수둔’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큰숫둔(大炭屯)’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큰숫둔(대수둔大水屯)’이라 하였다.

**[내용]** 이 마을을 ‘숫둔’이라고 부르는데 골짜기 상류 마을의 ‘작은숫둔’과 구분하기 위해 ‘큰숫둔’으로 부르기도 한다.

**큰숫둔골** [골]

**[위치]** 관설동 섭재 동당말 동쪽으로, 철길 건너 길게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끝에 길아치가 있고 그 너머에 판부면 금대리 숫둔골, 일론, 영원산성이 있다.

**큰숫둔보** [보]

**[위치]** 큰숫둔골 숫둔들에 딸린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다슈비보(多數碑洑)’라고 하였다.

**큰숫둔재** [고개]

**[위치]** 큰숫둔골에서 동쪽으로, 금대리 일론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숫둔골이 있고 고개 북쪽으로 길아치로 연결된다. 고개 높이는 633m이다. ‘숫둔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큰숫둔지(大炭屯嶺)’라고 하였다.

**뒷골들** [들]

**[위치]** 학마을 남동쪽, 마산 동쪽, 원주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재 공장과 회사들이 들어서고 들은 일부만 남아있다. 현 관설동 시내버스 종점이 있는 자리이다.

**뒷골들보** [보]

**[위치]** 뒷골들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를 말한다.

**하섭재** [마을] → 아래섭재

**하신성(下薪城)** [마을] → 아래섭재

**하신성저수지** [못] → 섭재저수지

**학마을** [마을]

**[위치]** 밧벌논 마을 중 마산 북동쪽, 현 원주자동차운전학원 북동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학이 많이 찾아오므로 학마을이라 하였다.



「학마을 ; 2019년」

**흙애미골** [골]

**[위치]** 관설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서쪽으로 난 골을 말한다. 마산과 작은되골 사이의 골짜기이다.



## 단계동(丹溪洞)

### [위치]

단계동(丹溪洞)은 원주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학성동과 일산동, 서쪽으로는 호저면 만종리, 남쪽으로는 무실동, 북쪽으로는 우산동과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저전동면(楮田洞面)의 사리(四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천리(沙川里)라 하여 호저면(好楮面)에 편입되어 원주군 호저면 사천리가 되었다.

1937년 본부면(本部面)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할 때 지역 확장에 의하여 호저면에서 원주읍으로 편입되면서 이름을 사천정(沙川町)이라 하여 원주군 원주읍 사천정이 되었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사천정을 단계동(丹溪洞)으로 변경하였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시 단계동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 [유래]

단계동은 모래내가 있으므로 모래내를 ‘모래가 흐르는 내’로 해석하여 ‘사천(沙川)’이라 하였다. 그 후에 맑은 모래가 붉은 빛을 띤다고 하여 ‘단(丹)’을 취하고 ‘모래내’의 ‘내’를 ‘계(溪)’로 취하여 ‘단계(丹溪)’라 하였다.

### [풀이]

단계(丹溪), 사천(沙川)은 이곳의 고유지명인 ‘모래내’에서 나온 것이다. ‘모래내’의 ‘모래’의 말뿌리는 ‘모래(沙)’가 아니라 산(山)을 뜻하는 ‘물’이다.

‘모래’가 들어간 지명으로는 ‘모래내’, ‘모래재’가 있다. 모래재는 모래가 있는 고개가 아니라 ‘물+재>물(ㅈ)재>모라재>모래재’가 된 것으로 ‘산의 고개’라는 뜻이다.

‘모래내’도 그 말뿌리가 ‘모래재’처럼 ‘물’이다. 단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모란둑(<물안둑)’, ‘모란교(<물안교)’, ‘모란길(<물안길)’은 ‘물+안>모란’이 된 것이다. 따라서 모래내는 ‘물+내>물(ㅈ)+내>모라내>모래내’가 된 것으로 뜻은 ‘산에 있는 내’인데, 이를 ‘모래가 흐르는 내’로 보아 ‘사천(沙川)’이라 한 것이다. 한편, ‘모래내’에서 ‘내’는 대개 ‘내(川)’로 인식된다. ‘내’는 신라어 ‘那(나)’, ‘川理(나리히)’에서 나온 것으로 ‘내(川)’를 뜻하지만, 고구려의 옛말에 ‘내~네’는 땅 또는 들(土, 壤)을 뜻하였으므로 ‘모래내’의 ‘내’는 ‘내(川)’일 수도 있고 ‘들(土, 壤)’일 수도 있다.

따라서 모래내는 모래가 흐르는 내가 아니라 ‘산골짜기의 내’, 또는 ‘산골짜기의 들’이라는 뜻이다.

### 거칠고개 [고개]

**[위치]** 뚝내에서 동쪽 청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그 고갯길에 현 뚝내사거리에서 원주시청 소년수련관 쪽으로 넘어가는 서원대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거칠고기(荒峴)’라 하였다.

### 건너담 [마을]

**[위치]** 백간과 뚝내의 중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다.

**[유래]** 뚝내에서 보아 개울 건너 서쪽에 몇 집이 모여 있으므로 건너담이라 하였다. ‘담’은 마을에서 떨어져 3~4집이 모여 있을 때 붙이는 이름이다.

### 구나무재 [고개]

**[위치]** 무상골에서 남쪽으로, 청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굴뚝고개 [고개]

**[위치]** 백간에 있던 고개 이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굴뚝고기(突峴)’라고 하였다.

### 금불고개 [고개]

**[위치]** 백간에서 남동쪽 뚝내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AK백화점 앞 자오기사거리 지역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금불고기(琴佛峴)’라고 하였다.

**[유래]** 여기에서 금부처가 나왔다 하여 금불고개라 하였다. 높은 고개였다고 하나 지금은 고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 긴동골 [골] → 무실동 긴동골

### 깃대봉 [산]

**[위치]** 단계초등학교 북서쪽, 단계이안1차아파트 서쪽에 있는 높이 171.2m의 산을 말한다.

**[유래]** 옛날 측량을 하면서 깃대를 꽂았으므로 깃대봉이라고 한다.

### 다랑골 [고개]

**[위치]** 무상골에서 서쪽 매봉산 쪽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소고개와 바우골이 있다.

### 단계천(丹溪川) [내] → 모래내

**[위치]** ‘모래내’의 다른 이름이다. 봉화산에서 시작하여 단계동과 우산동, 원주지방산업단지를 지나서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단계천 ; 1983년」

### 도고목골 [골] → 도구머리골

### 도구머리골 [골]

**[위치]** 백간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W호텔, 쌍용자동차전시장, 골프연습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너머에 긴동골이 있다. ‘도고목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도구머리(都舊首)’, ‘도고목골(都古木谷)’이라고 하였다.

### 동산재(銅山峴) [고개]

**[위치]** 백간에서 남서쪽으로 만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긴동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동산지(銅山峴)’라 하였다.

**[유래]** 동골, 긴동골로 넘어가므로 동산재라고 하였다.

### 뚝내 [내]

**[위치]** 모래내의 한 줄기인 무실천의 다른 이름이다. ‘뚝내개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뚝내기울(後川溪)’이라고 하였다.

### 뚝내 [마을]

**[위치]** 현 뚝내사거리 남동쪽,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서쪽에 있던 마을로, 현 이화마을 위치에 있던 마을이다. ‘뚝내’, ‘뚝내골’, ‘후천(後川)’, ‘후촌(後村)’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뚝내(後川)’라

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뫋내골(뫋내, 후천 後川)’이라 하였다.

**[유래]** 모래내에서 보아 남동쪽으로 등을 지고 높은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뫋내(<뫋내>’, ‘뫋내골(<뫋내>골)’이라 하였다. 새마을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기존지역은 ‘후촌(후천, 뫋내)’, 새로 생긴 마을은 ‘새말(新村)’로 나누어 불렀다.

**[내용]** 뫋내 남서쪽 아래에서는 배부른산에서 내려오는 무실천을 중심으로 하여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하였다. 무실천이 무실동과 단계동을 지나면서 신촌 동쪽의 ‘신촌들’, 뫋내 북쪽, 웃뫋내 남쪽의 ‘후촌들’, 신촌들 남쪽 건너의 ‘열닷마지기 뺨들’, 무리실 서쪽 건너의 ‘양지말들’ 등의 들을 형성하였다. 무실천이 곡선으로 흐르던 들에 현재 넓은 복원로를 직선으로 냈고 주변은 모두 주택단지로 바뀌었다.

**뫋내개울 [내] → 뫋내**

**[내용]** 무실천이 뫋내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뫋내개울이라고 불렀다.

**뫋내골 [골]**

**[위치]** 소삼터골 서쪽 아래에서 남쪽 뫋내 마을 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단계택지사거리에서 단계지하차도로 복원로가 나 있는 곳이다.

**뫋내길 [길]**

**[위치]** 비석거리에서 남쪽 뫋내로 가던 길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뫋내길’이라 하였다.

**뫋내들 [들]**

**[위치]** 뫋내 북쪽, 웃뫋내 남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지금은 모두 도로에 편입되었다. ‘후천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뫋넉(後川坪)’이라고 하였다.

**뫋내 [마을] → 뫋내**

**뫋내골 [골] → 뫋내골**

**뫋내길 [길] → 뫋내길**

**막골 [골]**

**[위치]** 모래내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백간길이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막솔(幕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에 갈머리와 백간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막골고개 [고개]**

**[위치]** 막골에서 동쪽으로, 일산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모래내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막골산 [산]**

**[위치]** 막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 184m의 산을 말한다. 소삼고개 북쪽, 모래내사거리 남동쪽, 현 일산연립 서쪽에 있는 산이다.

**만다골고개 [고개]**

**[위치]** 단계동 백간에서 남쪽으로, 무실동 만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백간공원에서 골프연습장이 있는 도구머리골을 지나 무실동 긴동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무실동 만대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만다골고개라 하였다.

**매봉 [산] → 매봉산**

**매봉산 [산]**

**[위치]** 무상골 남서쪽에 있는 높이 210m의 산을 말한다. 북쪽 능선에 박달미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매봉(鷹峰)’이라 하였다.

**매봉재 [고개]**

**[위치]** 무상골에서 매봉산 남쪽으로, 바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매봉재’라 하였다.

**모래내 [내] [마을] → 모래내**

**모래내길 [길] → 모래내길**

**모래내다리 [다리] → 모란교**

## 모란교 [다리]

**[위치]** 단계초등학교 앞에 있던 모래내의 다리를 말한다. ‘모래내다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모라내다리’라 하였다.

**[유래]** 모래내 안말에 있는 다리이므로 ‘몰안교>모란교’라 하였다.

## 모란길 [길] → 모래내길

**[유래]** 몰(山) 안쪽 마을에 있는 길이므로 ‘몰안길>모란길’이라 하였다.

## 모란독 [독]

**[위치]** 현 단계초등학교앞 모래내를 따라 쌓은 독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모란독’이라 하였다.

**[유래]** 모래내 안말에 있는 독이므로 ‘몰안독>모란독’이라 하였다.

**[풀이]** ‘몰+안+독>몰안독>모란독’이 되었다. ‘몰(山) 안 마을에 있는 독’이란 뜻이다.

## 모래내 [내]

**[위치]** 봉화산에서 시작하여 단계택지, 단계초등학교 앞, 우산철교를 지나 북원교 북쪽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배부른산에서 뚝내까지 내려온 무실천을 뚝내에서 합하고 무상골에서 내려온 무상골천을 모래내사거리에서 합하여 단계동과 우산동을 지나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이다. ‘모라내’, ‘사천(沙川)’, ‘단계천(丹溪川)’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모리니기울(沙川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모라내(모래내, 사천沙川)’라 하였다.

**[풀이]** ‘몰(山)에 있는 내(川, 壤)’라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모래내’라는 지명은 많고 대개의 경우 ‘모래가 많은 내(川)’로 생각하여 ‘사천(沙川)’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모래재, 모래치 등 높은 산에도 ‘모래’가 붙어있는 수가 많으므로 이때 ‘모래’는 ‘沙’가 아니라 ‘山’을 뜻하는 고어 ‘몰’에서 유래한 것이다. ‘말.몰<물’은 ‘크다, 높다’는 뜻을 가진 옛말이다. 즉 ‘모래재’는 ‘몰(山)+재(고개)>몰재

(산고개)’인데 매개모음이 개입되면서 ‘몰+(ㅈ)+재>몰아재>모라재>모래재’가 된 것으로서 ‘모래가 있는 고개’가 아니라 ‘산 고개’란 뜻이다.

‘모래내’는 ‘몰+내>몰(아)내>모라내, 모래내’가 된 것으로서 ‘산의 내(川, 壤)’를 뜻한다. 현재 단계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안말(안담)’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몰(산)의 안쪽에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앞의 독을 ‘모란독(몰+안+독>몰안독>모란독)’이라고 불렀고 그 독길을 ‘모란길(몰+안+길>몰안길>모란길)’, 다리를 ‘모란교(몰+안+교>몰안교>모란교)’로 부른 것은 그 말뿌리가 ‘몰(<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모란’은 모래와는 상관없이 ‘몰+안>몰안>모란’으로 된 것으로 ‘산의 안쪽’이란 뜻이다.

한편 ‘내’는 신라어 ‘那(나)’, ‘川理(나리ㅎ)’에 뿌리를 둔 것으로, 내(川)를 의미하였다. ‘시내’는 ‘실(谷)+내(川)>실내>시내’로서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내’는 고구려에서는 ‘那, 內, 腦’ 등의 소리로 기록된 것으로서 ‘국내성(國內城)’의 ‘내(內)’처럼 ‘땅, 들(土, 壤)’을 의미하였다.

호저면 ‘퍼내(平川)’, 문막읍 건등리의 ‘너그내(寬川)’, 봉산동과 행구동의 ‘너르내(廣川)’, 지성면 월송리의 ‘패날(퍼내일<퍼내실<퍼+내+실)’의 ‘내’도 ‘내(川)’가 아니라 ‘들(壤, 野)’로 해석될 수 있는 지명들이다.

따라서 ‘모래내’는 ‘모래가 있는 내’가 아니라 ‘산골에 있는 내(川)’, 또는 ‘산골에 있는 들(野, 壤)’의 뜻이다.

## 모래내 [마을]

**[위치]** 모래내 개울 상류, 현 단계택지 지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사천리(沙川里)’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모라내’라 하였다.

**[내용]** 현 단계택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모래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다. ‘모래내’가 마을 이름과 내를 동시에 지칭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구분하

기 위해 마을은 ‘사천(沙川)’이라고 부르고, 내는 ‘사천천(沙川川)’이라고 하였다. ‘모래내’라는 이름이 모래내 개울이 흐르는 지역을 통칭하게 됨에 따라 백간을 중심으로 한 상류지역을 ‘웃모래내’, 북원로를 중심으로 한 아래지역을 ‘아래모래내’라고 불렀다. 그런가 하면 무상골과 배부른산 아래 무실동도 ‘웃모래내’라고 부르기도 한 것으로 보아 ‘모래내’란 이름은 현 단계택지지역 전체를 통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모래내길 [길]

**[위치]** 모래내 앞, 현 단계초등학교 앞길을 말한다. ‘모란길’이라고도 한다.

#### 모래내다리 [다리] → 모란교

#### 무상곡(舞像谷, 武相谷) [골] [마을] → 무상골

##### 무상골 [골]

**[위치]** 박달미 남동쪽, 매봉산 북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점말사거리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무상곡(武相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상골(武相洞)’이라 하였다.

##### 무상골 [마을]

**[위치]** 점말 북쪽, 매봉산 동쪽, 무상골에 있는 마을이다. 박달미 남동쪽 아래에 있다. ‘무상동(武相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상골(武相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상골(무상곡武相谷)’이라 하였다.

**[유래담]** 마을 산의 형상이 무당이 춤추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데서 ‘무상(舞像)’이라 불렀다고도 하고 지형이 장수(무사)가 날만한 곳이라 해서 ‘무상(武相)’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무상골’이란 이름은 널리 분포하는 지명이다. 이를 한자로 ‘무상(舞像)’ 또는 ‘무상(武相)’으로 기록하면서 춤 또는 무사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물과 관련된 지명이다. 무상골도 모래내 지류인 무상골천이 흐르는 곳이다.



「무상골 ; 2019년」

#### 무상골들 [들]

**[위치]** 무상골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무상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상골들(武相谷坪)’이라고 하였다.

#### 무상골천 [내]

**[위치]** 박달미와 매봉산에서 시작하여 무상골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현 현대3차아파트와 동보렉스 3차·4차아파트를 지나 단계사거리에서 모래내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 무실천(茂實川) [내]

**[위치]** 배부른산에서 시작하여 무실동과 단계동 뒷내를 지나 모래내사거리에서 모래내와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용]** 뒷내에서 합류하기 전의 모래내 상류를 ‘무실천’이라 하였다.

#### 바우골 [골]

**[위치]** 청골사거리에서 서쪽 상봉(上峰)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고개 넘어 밤나무우리골, 밤나무골을 거쳐 만종리 남오동에 닿는다. 한자로는 ‘암곡(岩谷)’이라 하였다. 골짜기 전체가 봉화산2택지지구에 편입되었다.

**[유래]** 바위가 많았던 곳이므로 바우골이라 하였다.

#### 바우골 [마을]

**[위치]** 바우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봉화산2택지구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에 ‘바우



골(岩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바위골(암곡岩谷)’이라 하였다.

#### 바우골들 [들]

**[위치]** 바우골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봉화산2택지지구에 모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에 ‘바우골들(岩谷坪)’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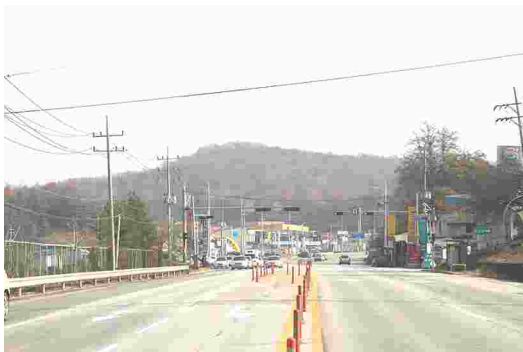
#### 바우골재 [고개]

**[위치]** 바우골에서 서쪽 남오동 만종초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밤나무우리골과 밤나무골, 상봉천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바우골씨(岩谷峴)’라고 하였다.

#### 박달미 [산]

**[위치]** 무상골 북서쪽 위에 있는 210.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만종리와 경계가 되는 산으로, 만종으로 넘어가는 비독재가 있고 남쪽에 매봉산이 있다. 산의 남동쪽 아래에 약천사터가 있다.

**[내용]** 산 서쪽에 만종리의 박달미 마을이 있다. 주민들은 이 산을 고개 이름인 비독재, 비독재라 부르기도 하고 남쪽의 매봉산과 구분하지 않고 매봉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작은 산이어서 굳이 다양한 이름이 필요하지도 않고 고갯길도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명이 단순화되는 과정에 있다.



「박달미」; 2019년

#### 백간(白澗) [마을]

**[위치]** 모래내 남서쪽, 봉화산 동쪽, 백간저수지 남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금불사거리에서 백

간공원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백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빅간니(白澗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백간이(백간白澗)’라 하였다.

**[유래담]** 마을 뒷산인 백두산 골짜기에서 맑은 샘물이 마을로 흘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살았으므로 백두산의 ‘白’자와 물 이름 ‘澗’자를 따서 ‘백간(白澗)’이라 하였다 한다. 또는 조선 말에 백씨 성을 가진 과부가 피난을 와서 살아서 백과부촌, 백간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개발되어 상가밀집지역이 되었다. 백간저수지는 축소되어 그 자리에 백간공원으로 남아있다.

#### 백간들 [들]

**[위치]** 백간저수지 동쪽으로 모래내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빅간니들(白澗里坪)’이라고 하였다.

**[내용]** 현 모래내사거리 남서쪽, 백간저수지 남동쪽에 이르는 넓은 들로, 벽산아파트 남쪽, 평원초등학교 및 장미공원에 이르는 단계택지의 대부분 지역을 ‘백간들’이라 하였다.

#### 백간못 [못] → 백간저수지

#### 백간암(白澗庵) [절]

**[위치]** 쇠기골 서쪽, 봉화산 북동쪽 아래에 있던 작은 절을 말한다. 현 봉화산숲유치원에서 봉화산 정상 중간 지점에 있던 암자이다.

#### 백간이 [마을] → 백간

#### 백간이길 [길]

**[위치]** 점말에서 백간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현재 봉화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백간이길’이라 하였다.

#### 백간저수지 [못]

**[위치]** 백간 마을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현재 저수지가 축소된 채로 ‘백간공원’이 되어 있다. 『한

국지명총람』에 ‘백간뭇’이라 하였다.



「백간저수지 ; 2019년」

**백과부촌** [마을] → 백간

**백두산**(白頭山) [산]

**[위치]** 백간 마을 앞에 있는 작은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백두산(白頭山)’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백도산이라는 사람의 묘소를 썼는데 이름이 변하여 백두산이 되었다고 한다.

**본부락**(本部落) [마을] → 안말

**봉우재** [산] → 봉화산

**봉화산**(烽火山, 鳳華山) [산]

**[위치]** 백간 서쪽에 있는 높이 336.2m의 산을 말한다. ‘봉우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봉우지(烽火山)’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봉화를 올렸으므로 봉화산이라 하였고 하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1980년대에는 정상에 ‘자연보호’라는 거대한 철간판을 세웠으므로 ‘자연보호산’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정상에서 불탄 흙자리와 함께 소량의 기와가 출토되었으나 봉화와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봉화산 북쪽의 상봉, 남쪽으로 감박산, 배부른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원주시의 서쪽을 막고 있어서 호저면 흥업면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봉화산약수** [샘] → 약물탕

**북다라니고개** [고개] → 북다랭이고개

**북다랭이고개** [고개]

**[위치]** 정말 서쪽, 현 청골사거리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박달미에서 북다랭이들을 지나 단계동으로 가는 경사가 완만한 고개로, 현재 청골사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서원대교가 나 있다. 옛날에는 이를 세분하여 만종 쪽은 큰고개, 단계동 쪽은 작은 고개로 불렀다. ‘북다리고개’, ‘북다라니고개’, ‘북두미재’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현종현(縣鍾峴)’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북다라니고기(鍾懸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북다라니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왕이 행차할 때 환영하는 뜻으로 이 고개에서 북을 달고 쳤으므로 북다라니고개, 북다랭이고개라 하였다고 전한다.

**[내용]** 옛날 서울~원주의 행로는 솔치>안창>마라우>질마재>만종>우무개 길이었다. 이 고개에서 길이 있는 만종 쪽이 잘 내려다보이므로 관리들이 만종에 나타나면 북을 매달아 치면서 환영 겸 우무개로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이 고개에서 북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면 우무개에서는 관기(官妓)들이 춤을 추며 삼현육각을 합주하여 이들을 맞이했다고 한다.

**북다랭이들** [들]

**[위치]** 바우골 입구에 남북으로 북다랭이고개를 따라 길게 난 들을 말한다. 전나무골 동쪽, 매봉산 남서쪽 아래에 있다. 현 서원대로 주변으로, 봉화산2택지지구에 편입되었다.

**북다리고개** [고개] → 북다랭이고개

**북두미재** [고개] → 북다랭이고개

**비득재** [고개]

**[위치]** 박달미와 매봉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무상골과 우산동, 만종리 본동 쪽으로 이어지는 고개이다. ‘비득재’, ‘비들재’라고도 하였다.

**[유래]** 비둘기가 많이 살았으므로 ‘비둘재>비득재, 비득재’라 하였다.

**[풀이]** 비둘기는 옛말에 ‘비두루기, 비둘기, 비둘기, 비두리, 비들기’로 나온다. ‘닭’처럼 비둘기의 어원은 ‘둘’이다. ‘닭>닭, 달기, 달구’와 같이 ‘비둘>비дук, 비두루기, 비들기’로, ‘비둘재>비дук재(비дук재), 비들재(비들재)’로 실현되었다.

**비дук재** [고개] → 비дук재

**비들재** [고개] → 비дук재

**비석거리** [마을]

**[위치]** 현 북원여고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비석거리’라 하였다.

**[유래]** 길옆에 선정비(善政碑)가 있었으므로 비석거리라 하였다. 또는 운곡 원천석을 찾아 이 길을 거쳐 간 태종을 기념하여 주민들이 비를 세웠으므로 비석거리라 하였다고도 한다.

**사리(四里)** [마을] → 사천리, 단계동

**사천(沙川)** [내] [마을] → 모래내

**사천리(沙川里)** [마을] → 모래내

**사천천(沙川川)** [내] → 모래내

**살구골** [골]

**[위치]** 백간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평원초등학교에서 장미공원에 이르는 곳이다.

**살낙골** [마을] → 살라골

**살라골** [마을]

**[위치]** 점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현 치악중학교 남쪽 세경3차아파트가 있는 곳을 말한다. ‘살낙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살낙골(矢落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살라골’이라 하였다.

**살라골** [골] → 살라골

**상봉(上峰)** [산]

**[위치]** 봉화산 북쪽, 대명원 남쪽에 있는 269.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현 만종터널 북쪽 고속도로 순찰대 제7지구대 북동쪽 상봉골 끝에 있다. 호저

면 만종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상봉(上峰)’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봉(上峰), 상봉산’이라 하였다.

**[유래]** 산이 매우 높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 기슭에 물이 찬 샘이 있다.

**상봉산(上峰山)** [산] → 상봉

**새말** [마을] → 신촌

**샘둔지골** [골]

**[위치]** 소삼터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단계택지사거리에서 북원초등학교로 가는 단구로가 나 있다.

**서원대로(西原大路)** [길]

**[위치]** 현 청골사거리에서 자오기사거리, 뚝내사거리, 의료원사거리, 단구사거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유래]** 원주의 서편을 관통하는 큰길이므로 서원대로라고 하였다.



「서원대로(단계동) ; 1981년」



「서원대로 ; 1982년」



「서원대로 ; 1997년」

#### 소고개 [고개]

**[위치]** 백간 북서쪽 쇠기골에서 북쪽 바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에 ‘쇠고기(牛峯)’라고 하였다.

**[유래담]** 옛날 이 고개에서 소가 호랑이를 잡았으므로 소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 소삼고개 [고개]

**[위치]** 소삼터에서 동쪽 동진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단계택지사거리에서 동진골사거리로 넘어가는 천사로가 나 있다.



「소삼고개 ; 2019년」

#### 소삼터 [마을]

**[위치]** 소삼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단계택지사거리 북동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삼터’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삼태기같이 생겼으므로 소삼터라 하

였다.

#### 소삼터골 [골]

**[위치]** 소삼터에서 소삼고개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천사로가 나 있다.

#### 속고래들 [들]

**[위치]** 백간저수지에서 서쪽 위로 이어진 들을 말한다. 현재 서원대로 및 서쪽의 상가지역이다. 골 남서쪽 위로 봉화산까지 쇠기골이 이어진다.

#### 쇠기골 [골]

**[위치]** 백간 북서쪽 속고래들, 소고개 아래에서 남서쪽으로 봉화산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봉화산숲유치원이 있는 넓은 골짜기이다.

#### 신촌(新村) [마을]

**[위치]** 뚝내 마을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한다. ‘새말’이라고도 한다. 현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서쪽, 이화마을 지역이다.

**[유래]** 새마을사업으로 뚝내의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말’, ‘신촌’이라 하였다.

#### 신촌들 [들]

**[위치]** 신촌 서쪽, 무실천 개울 건너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이화마을 서쪽, 복원로가 나 있는 곳이다.

#### 아래모래내 [마을]

**[위치]** 모래내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현 우산철교를 중심으로 뚝내사거리까지에 있던 마을들을 말한다.

#### 안담 [마을] → 안말

#### 안말 [마을]

**[위치]** 모래내 안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안담’, ‘중말’, ‘중촌’, ‘본부락’이라고도 한다. 현 단계사거리에서 단계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말(안담, 중말, 중촌)’이라 하였다.

**[유래]** 산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안말, 안담’이라 하였다. ‘몰’과 ‘안’이 결합하여 ‘모란(<몰안),

모란дук(<몰안дук), 모란길(<몰안길), 모란교(<몰안교)’ 등의 지명이 생겼다.

**[내용]** 단계택지가 개발되기 전 단계동에서 중심된 마을이었다. 단계동의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이었으므로 ‘중말(中-), ‘중촌(中村)’ 또는 ‘본부락’이라 하였다.

**암곡(岩谷) [마을] → 바우골**

**애촌골 [마을]**

**[위치]** 신촌 남쪽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현 달빛어린이공원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약물탕 [샘]**

**[위치]** 봉화산 정상 동쪽 아래에 있는 약수터를 말한다. ‘봉화산약수’라고도 한다.



「봉화산약수 ; 2017년」

**열닷마지기뱀들 [들]**

**[위치]** 신촌들 남쪽, 애촌골 서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원주교도소 동쪽 건너편, 이화마을사거리 동쪽 지역에 있던 들이다.

**우물등지골 [골]**

**[위치]** 뚝내마을 북쪽 뚝내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북원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단계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움터골 [골] [마을] → 음터골**

**웃모래내 [마을]**

**[위치]** 뚝내 마을 중 동쪽 위, 우물등지골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뚝내사거리에서 단계주공

아파트 입구에 있던 마을이다.

**웃모래내 [마을]**

**[위치]** 모래내 상류에 해당하는 곳의 마을로, 현 백간공원 북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음터골 [골]**

**[위치]** 무상골에서 동쪽 봉학로 도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음터골(陰垆谷)’이라고 하였다.

**음터골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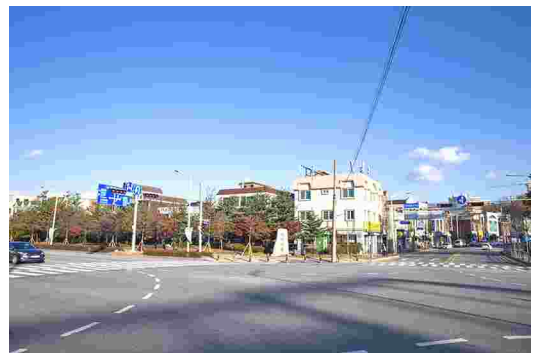
**[위치]** 음터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아직도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응봉(鷹峰) [산] → 매봉산**

**이화마을(梨花--) [마을]**

**[위치]** 옛 뚝내 마을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한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남서쪽, 이화마을사거리 북동쪽에 있다.

**[내용]** 옛 뚝내 마을 중 ‘새말(신촌)’에 새로 마을을 세우고 ‘이화마을’이라 하였다.



「이화마을 ; 2019년」

**자연보호산 [산] → 봉화산**

**자오기골 [골]**

**[위치]** 건너담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선 곳에 있던 골짜기이다.

**[내용]** 현 AK플라자 앞 사거리에 ‘자오기사거리’로 이름을 남겼다.



**작은고개** [고개] → 복다랭이고개

**장미공원** [공원]

**[위치]** 단계택지 중앙에 있는 공원을 말한다.

**[내용]** 단계택지를 개발하면서 만든 큰 공원으로 해마다 장미축제를 연다.



「장미공원 ; 1998년」

**장수고개** [고개]

**[위치]** 백간 동쪽, 현 삼천감리교회 앞에 있던 고개를 말한다. 도로가 넓게 나면서 고개의 흔적은 사라졌다.

**[유래담]** 여기에서 유명한 장수가 나온다고 하여 장수고개라 하였다.

**전나무골** [골]

**[위치]** 대명원 동쪽, 복다랭이들 북쪽에서 바우골을 따라 남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로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 봉화산2택지구에 편입되었다.

**점말** [마을]

**[위치]** 백간 북쪽, 무상골 남쪽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점촌(店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점말(점촌店村)’이라 하였다.

**[내용]** 천주교 신자들이 이주해 와서 항아리와 옹기그릇을 굽던 곳으로 가마가 세 개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옹기를 구워 생활을 영위해오면서 포교활동도 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다. 점말사거리에 마을 이름을 남겼다.

**점말고개** [고개]

**[위치]** 점말 남쪽에 있던 고개로, 점말에서 백간으로 넘어가던 고개이다. 현 봉화산밸라시티아파트 단지에 편입되었다.

**점촌(店村)** [마을] → 점말

**중말** [마을] → 안말

**중촌(中村)** [마을] → 안말

**청곡(靑谷)** [골] → 청골(1), 청골(2)

**청곡(靑谷)** [마을] → 청골

**청골(1)** [골]

**[위치]** 듯내 새말에서 동쪽 청산 밑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이화마을 남쪽 우편집중국에서 무실사거리, 청산사거리에 이르는 골짜기로 현재 무실로가 나 있다. ‘청산골’, ‘청곡(靑谷)’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산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푸른 소나무 등 수목이 우거져 있고 과수원이 있어서 ‘청골’이라 하였다.

**청골(2)** [골]

**[위치]** 백간 쇠기골에서 북서쪽으로, 바우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원주시농산물공영도매시장과 서원대로가 나 있는 곳으로 골짜기 위에 소고개가 있다. ‘청곡(靑谷)’이라고도 한다. 백간공원 북쪽의 ‘청곡공원’과 바우골 앞 ‘청골사거리’에 이름을 남겼다.

**청골** [마을]

**[위치]** 현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남쪽, 우편집중국 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청산골’, ‘청곡(靑谷)’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골(靑靑靑谷)’이라 하였다.

**청산(靑山)** [산]

**[위치]** 청골 북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현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동쪽, 복원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청산(靑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청산(靑山)’이라 하였다.

**[내용]** 산의 한가운데를 서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청산골** [골] → 청골(1)

**청산골** [마을] → 청골

**청산들** [들]

**[위치]** 청산 앞, 청골(1)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재 무실사거리에서 청산사거리에 이르는 도로가 나 있는 곳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천산뜰(靑山坪)’이라고 하였다.

**청산물** [샘]

**[위치]** 청골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유난히 차고 맛이 좋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산물’이라고 하였다.

**큰고개** [고개] → 북다랭이고개

**터골** [마을]

**[위치]** 백간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터썰(垆谷)’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좋은 터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중현(縣鍾峴)** [고개] → 북다랭이고개

**후천(後川)** [마을] → 뚝내

**후천들** [들] → 뚝내들

**후촌(後村)** [마을] → 뚝내

## 단구동(丹邱洞)

### [위치]

단구동(丹邱洞)은 원주시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반곡동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명륜동과 판부면 서곡리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관설동과 판부면 서곡리, 북쪽으로는 개운동·명륜동과 각각 접해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판제면(板梯面)의 상일리(上一里)·하일리(下一里),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일리(一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들을 병합하여 단구리(丹邱里)라 하고 원주군 판부면(板富面) 단구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시에 편입되어 원주시 단구동(丹邱洞)이 되어 현재에 이른다.

### [유래]

단구역(丹邱驛)이 있었으므로 단구(丹邱)라 하였다. 단구란 이름은 약재로 쓰이는 붉은 단석(丹石)이 나는 언덕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단구역에 대한 기록은 고려 성종 11년(991)에 처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역참제도가 통일신라기에 전국망이 확립되었으므로 단구역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운영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구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정착된 것으로 역사가 오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가늌 [마을] → 관너메

가늌당 [당]

**[위치]** 관너메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늘품사거리 부근에서 왕상봉 동쪽 아래에 이르는 가늌당골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당’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늌당’이라 하였다.

**[유래]** 단구역관 언덕 너머에 당집이 있었으므로 ‘관념당>과늌당>가늌당’이 되었다.

**[내용]** 이 지역이 단구역관 너머에 있는 곳이므로 ‘관념>가늌, 관음’이 되었고 거기에 당집이 있었으므로 ‘가늌당(관음당)’이라 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골짜기와 저수지, 들 이름이 붙여졌다.

**[풀이]** 역관 언덕 너머에 있다고 하여 ‘관념>과늌>가늌’으로 변하였다.

가늌당골 [골]

**[위치]** 관너메에서 서쪽으로, 왕상봉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늘품사거리 부근에서 서쪽으로 왕상봉에 이르는 곳이다.

가늌당들 [들]

**[위치]** 관너메 북서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늘품사거리에서 해청아파트에 이르는 들이다. 관음저수지 물을 이용하였다.

개건너 [마을]

**[위치]** 옛 단구역에서 서쪽으로 작은 개울 건너 저무니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프리미엄아울렛과 시립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개건너’라 하였다.

**[유래]** 현 서원대로 옆으로 옛날에 개울이 흘렀고,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므로 ‘개건너’라고 하였다. ‘개’는 강이나 바다처럼 물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서는 개울을 뜻한다.

개척동(開拓洞) [마을]

**[위치]** 옛 경천원의 제일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외남송저수지와 천매봉의 중간 지점에 있던

마을로 옥녀봉 남서쪽, 열닷마지기골 북쪽 끝에 있던 마을이다. 현 남원주중학교와 남원주중사거리 사이에 있었다.

갯가말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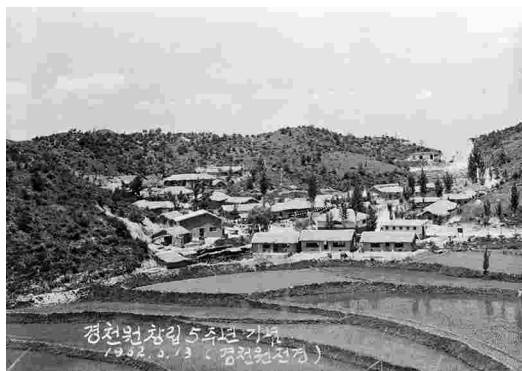
**[위치]** 옛 단구역 동쪽, 원주천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단구초등학교 동쪽, 병영사거리를 중심으로 강변로를 따라 들어서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갯가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원주천 강 옆에 있는 마을이므로 갯가말이라 하였다.

경천농원(敬天農園) [농장]

**[위치]** 옛 경천원에 있던 농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경천농원’이라 하였다.

**[내용]** 1950년대 경천원을 결성한 나환자들이 처음 돼지 60마리, 소 1마리, 닭 80마리, 양 4마리로 시작한 농원이었다.



「경천원 ; 1962년」



「경천농원 ; 1963년」

### 경천원(敬天園) [마을]

**[위치]** 천매봉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 기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1957년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생긴 마을로 주로 양계업을 하였다. 지금은 모두 구곡택지지구로 개발되었다.

### 곶집모퉁이 [모퉁이]

**[위치]** 관너메 앞에 있던 길모퉁이를 말한다. 현 늘품사거리 부근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곶집모퉁이’라 하였다.

**[유래]** 상여를 보관하던 곶집이 있는 길모퉁이어서 생긴 이름이다.

### 관너메 [마을]

**[위치]** 단구역관 서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늘품사거리 남동쪽 아래 언덕에 있던 마을이다. ‘관념’, ‘관눔’, ‘관음’, ‘가눔’, ‘관후동’, ‘너메’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관너메(관후동, 관노모, 너메)’라 하였다.

**[유래]** 역관에서 보아 언덕 너머에 있으므로 ‘관남>관너머, 관너메, 관념, 관눔, 가눔’이라 하였고 한자로 ‘관후(館後)’라 하였다.

**[풀이]** 마을 이름이 발음에 따라 ‘관념, 관눔, 관음, 가눔, 관후동, 너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옛 단구역이 있던 곳은 현 KT남원주빌딩 북쪽 부근으로 추정되므로 서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관너메’, ‘관념’이라 하였고 이것이 다양한 이름으로 실현되었다.

### 관노모 [마을] → 관너메

### 관눔 [마을] → 관너메

### 관대(館垓) [마을] → 관터

### 관앞 [마을]

**[위치]** 옛 단구역 동쪽 앞의 마을을 말한다. 현 단구동행정복지센터 부근의 마을이다.

**[유래]** 옛 단구역관 앞의 마을이므로 관앞이라고

하였다.



‘관앞 마을 ; 2019년’

### 관앞들 [들]

**[위치]** 관앞 마을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관후사거리에서 KT남원주빌딩 동쪽을 지나는 단구로가 옛 신촌천(新村川)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역관은 신촌천 서쪽 위에 있었고 이 개울 주변이 역관 동쪽 관앞들이었다. 들의 현 위치는 신촌천이 흐르던 단구로의 좌우 주택지역이다. ‘관앞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관앞이’라 하였다.

### 관앞이 [들] → 관앞들

### 관옹덩골 [골]

**[위치]** 관앞에서 관너메 북쪽, 송림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송림사거리에서 늘품사거리에 이르는 늘품로가 나 있는 곳이다.

### 관음당 [당] → 가눔당

### 관음사 [절]

**[위치]** 가눔당골에 있던 옛 절을 말한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지형으로 볼 때 왕상봉 아래, 관음저수지 위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관음사터’라고 하였다.

### 관음저수지 [못]

**[위치]** 관너메 서쪽, 왕상봉 동쪽 아래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현 늘품사거리 서쪽, 노빌리티타워 남쪽에 있던 저수지로 그 자리에 현 월드할인마트 매장이 들어서 있다. 가눔당들에 물을 대었



다. ‘관념저수지’, ‘관후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 지명총람』에 ‘관음저수지’라고 하였다.

#### 관터 [마을]

**[위치]** 옛 단구역 찰방(察訪)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KT남원주빌딩 북쪽, 보라매아파트 남쪽 사이의 지역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관터(관대館垌)’라고 하였다.

**[내용]** 예부터 단구역은 매우 크고 중요한 곳이어서 단구동의 중심이 되었고, 지명들은 이 단구역이 중심이 되어 관앞, 관너메, 관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관후동(館後洞) [마을] → 관너메

#### 관후부락(館後部落) [마을] → 관너메

#### 관후저수지 [못] → 관음저수지

#### 구루니 [마을] → 귀론

#### 구루니골 [골] [마을]

**[위치]** 귀론 마을이 있는 골짜기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귀론골’이라고도 한다.

#### 구루니뒀산 [산]

**[위치]** 귀론 남쪽에 있는 높이 293m의 산을 말한다. ‘귀론뒀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루니뒀산’이라 하였다.

**[내용]** 판부면 서곡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남쪽 너머에 서곡리 내남송이 있다.

#### 구루니앞들 [들]

**[위치]** 귀론 마을 앞,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마을에서 귀론사거리, 시청로에 이르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루니앞들’이라 하였다.

#### 귀론(歸論) [마을]

**[위치]** 나옹정 남서쪽, 옥녀봉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북쪽 아래, 귀론사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래 이름 ‘구루니’를 한자로 적어 ‘귀론(歸論)’이라고 하였다. ‘구루니’, ‘구

루니골’, ‘귀론골’, ‘귀론동’이라고도 한다. 『한국 지명총람』에 ‘귀론동(귀론골, 구루니)’이라 하였다.

**[유래]** 삼면이 산으로 막혀 북향의 우묵한 곳에 논이 있고 마을이 섰으므로 ‘골+논>골논(이)>굴론(이)>굴룬(이)>구루니’가 되었다.

**[내용]** ‘골’, ‘논’ 등은 자연지명 ‘구루니’로 남아있고 마을 행정 지명은 ‘귀론(歸論)’으로 정착되었다.

**[풀이]** ‘구루니’는 ‘굴(골)+논+이>굴논이>굴론이>굴룬이>구루니’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굴, 굴, 굴, 움’ 등은 우묵한 낮은 곳에 붙는 지명소이고 ‘이’는 접미사이다. 동쪽, 남쪽, 서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곳에 논이 있고 마을이 섰으므로 생긴 이름이다. 이를 한자로는 ‘귀론(歸論)’이라 하였는데 이는 ‘구루니’의 ‘굴논’을 음차하여 ‘논’을 ‘論’으로, ‘굴, 구’는 ‘歸’로 음차하여 적은 결과이다. ‘논’이 ‘눈’으로 변한 경우는 ‘벌논>볼논(관설동)’이 있고 ‘룬’으로 변한 경우는 ‘재논>재론>재우론(지정면 신평리)’이 있다. ‘굴, 구’를 ‘歸’로 음차한 예는 부론면 손곡리의 ‘구만이>귀만(歸晩)’이 있다.



「귀론 마을 ; 1973년」

#### 귀론골 [골] [마을]

**[위치]** 귀론 마을이 있는 골짜기와 마을을 말한다. ‘구루니골’이라고도 한다.

#### 귀론골 [마을] → 귀론

#### 귀론동(歸論洞) [마을] → 귀론

귀론뒷산 [산] → 구루니뒷산

귀론성황당 [당]

**[위치]** 귀론 마을 남서쪽 귀론뒷산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귀론저수지 서쪽, 중앙고속도로 아래 터널을 지나서 있다. ‘서낭당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귀론서낭당이’라 하였다.

**[내용]** 고속도로가 나면서 당제는 폐지되었으나 당집은 온전하게 남아있다.



「귀론성황당 ; 2018년」

귀론저수지 [못]

**[위치]** 귀론 마을 남동쪽 위, 중앙고속도로 남쪽 건너에 있다. 귀론뒷산과 약물탕거리의 물을 모아 귀론들로 내려 보낸다. 『한국지명총람』에 ‘귀론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1960년에 준공하였다.

나비허리 [들]

**[위치]** 내벌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긴 들을 말한다. 솔경지들에서 남쪽 우리리를 지나 모래구덩이고개에 이르는 넓고 긴 골짜기에 있던 들이다. 현 박경리문학공원에서 남쪽으로 단관공원사거리를 지나 치악고등학교에 이르는 곳으로, 단관공원길이 넓게 나 있다. 골짜기 남쪽 끝에 치악고등학교와 중앙하이츠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내비혈’, ‘내비허리’라고도 한다.

**[유래]** 신촌천이 있는 넓은 솔경지들에서 보아 골짜기 안쪽으로 깊숙이 나 있는 들이므로 ‘내벌’이라 하였는데, ‘내벌>내비혈>내비허리>나비허리’가

되었다.

나비허리 [마을]

**[위치]** 관앞 남쪽의 내벌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박경리문학공원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나비혈(羅飛穴)’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내비혈(나비허리)’이라 하였다.

**[유래]** 원래 마을 이름 ‘내벌’이 음운 변화를 거쳐 ‘나비허리’가 되었다.

**[풀이]** 솔경지들 안쪽 깊이 들이 있으므로 ‘내벌’이라 하였고 그 들에 마을이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내벌’이라 하였다. ‘내벌>내비혈>내비허리>나비허리’로 음운 변화하였다.

나비허리산 [산]

**[위치]** 나비허리 서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내비혈산(나비허리산)’이라 하였다.

**[내용]** 현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남쪽으로, 단구중학교와 한국가스공사에 이르는 낮은 야산을 ‘내벌산’이라 하였다. 박경리문학공원의 서쪽에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언덕이다. ‘내벌산>내비혈산>내비허리산>나비허리산’이 되었다.

낙원동 [마을]

**[위치]** 오성들골 북서쪽 언덕 위, 배울저수지 남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위치는 현 오성마을사거리 남동쪽 도로 주변이다.

내벌 [들] [마을] → 나비허리

내비혈 [들] [마을] → 나비허리

내비혈산 [산] → 나비허리산

너더리 [고개] → 너더리고개

너더리 [들]

**[위치]** 너더리골에 있던 들을 말한다. 모래리촌 앞에서 북동쪽,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에 있던 들이다. 현 원주소방서에서 천매사거리, 남송사거리에 이르는 남원로가 나 있다. ‘널다리’라고도 한다.

**[유래]** 넓은 들이었으므로 ‘너더리’라고 하였다.

## 너더리고개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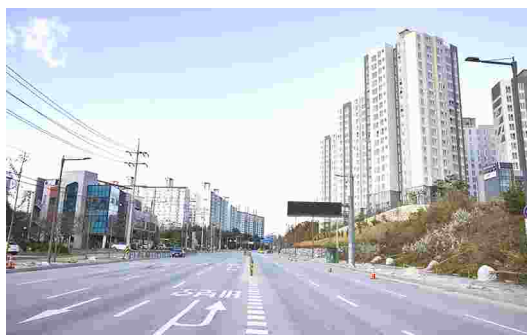
**[위치]** 원주에서 외남송 너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모래리촌 남쪽 아래에 있던 고개로 현 원주소방서에서 천매사거리, 남송사거리를 지나는 고개이다. ‘널다리고개’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판제현(板梯峴)’이라 하였고 『조선지리지』에 ‘느더리고기(板梯峴)’라 하였다.

**[내용]** 현 ‘판부면(板富面)’의 이름은 옛 ‘판제면(板梯面)’과 ‘부흥사면(富興寺面)’이 합쳐지면서 각각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부흥사면은 ‘부흥사(富興寺)’라는 절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판제면은 이곳 ‘너더리’에서 유래하였다. 너더리를 ‘널(판자)+사다리’로 보아 ‘板’과 ‘梯’를 취하여 ‘판제(板梯)’라 하였고 이 고개가 옛날 충주로 가는 중요한 고개였으므로 면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옛날 원주에서 충주로 가는 행로는 감영에서 출발하여 ‘너더리 고개>매지리>양아치’를 넘는 길이었다. 1700년대 당시 감영에서 충주로 가는 길은 다음과 같다.

官門 → 鄉校(3리) → 板梯峴 → 兩大峙 → 大川 → 省台陽峴 → 忠州(55리)

**[풀이]** ‘너더리’는 ‘널(<넓>+달>널달(이)>널다리>너다리>너더리’로 되었다. ‘달’은 ‘높은 곳(高), 산(山)’을 뜻하는 옛말이나 여기에서는 ‘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옛날에는 그 고개의 아래와 위에 있는 들 이름이 ‘너더리’였고 거기에 있는 고개를 ‘너더리고개’라 하였다.



「너더리고개」; 2019년

## 너더리골 [골]

**[위치]** 외남송에서 북쪽으로, 모래리촌 앞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들이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남원로가 나 있다.

너메 [마을] → 관너메

널다리 [들] → 너더리

널다리고개 [고개] → 너더리고개

단구(丹邱) [마을] → 단구동

**[위치]** 『조선지리지』에 ‘단구(丹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단구동(丹邱洞), 단구丹邱, 단구리丹邱里’라 하였다.

단구리(丹邱里) [마을] → 단구동

단구역(丹邱驛) [역]

**[위치]** 단구동에 있던 옛 역을 말한다. 현 KT남원주빌딩 북쪽, 보라매아파트 남쪽의 사이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고을 동쪽 7리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는 고을 남쪽 7리에, 『조선환여승람』에 남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단구역(丹邱驛)’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관터(관대館垵)’라 하였다.

**[내용]** 단구역(丹邱驛)은 영서지역에서 가장 컸던 역으로, 충주 방면과 영월·제천 등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다. 찰방이 주재하는 본역으로 큰말 2필, 기마 1필, 복마(卜馬) 7필이 있고 역리 35명, 노비 97명이 있었다. 단구역에 대한 기록은 고려 성종 11년(991)의 행정구역 개편 때 평구도(平丘道) 소속 원주 예하에 등장하면서 처음 나타난다. 우리나라 역참제도가 5세기 삼국시대 초기부터 운영되었고, 이후 통일신라기에 전국망이 확립되었으며, 그것이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보면, 단구역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운영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단구(丹丘)’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정착된 역사가 오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 단구역말 [마을]

**[위치]** 옛 단구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말한다. 위치는 현 단구동행정복지센터 부근 지역이다.

#### 단사정(丹沙亭) [누정]

**[위치]** 단구동에 있던 옛 정자를 말한다. 옛 단구역 관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있던 정자이다.

**[내용]** 영조 10년(1734)에 이우신이 쓴 『협선루중수기』에 '예전에 단사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빈터만이 있다. 그 빈터를 가리켜 단구라고 하고 독우(督郵)라는 관사(官舍)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 당재모퉁이 [모퉁이]

**[위치]** 갯가말 앞에 있던 길모퉁이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한국지명총람』에 '당재모퉁이'라 하였다.

**[유래]** 큰 서낭당이 있던 모퉁이었으므로 당재모퉁이라 하였다.

#### 당첨정(當簷亭) [누정]

**[위치]** 단구동에 있던 옛 정자를 말한다. 『조선한여승람』에 동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원주천 옆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위치는 알 수 없다.

#### 뒷동네 [마을]

**[위치]** 갯가말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뒷모퉁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뒷동네(뒷모퉁이)'라 하였다.

#### 뒷모퉁이 [마을] → 뒷동네

#### 모래구덩이고개 [고개] → 모래재

#### 모래재 [고개]

**[위치]** 약물탕거리골 남쪽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단구동과 관설동, 판부면 서곡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현재 서곡로가 나 있다. '모래구덩이고개'라고도 한다.

#### 무랑골 [마을] → 무항골

#### 무양골 [마을] → 무항골

#### 무왕골(武旺谷) [마을] → 무항골

#### 무항곡(舞巷谷) [마을] → 무항골

#### 무항골(霧巷-) [골]

**[위치]** 송림앞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 단구동성당에서 단구시장으로 가는 단구로가 나 있다. 개운동과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유래]** 안개가 항상 끼어 있었으므로 무항골이라 하였고, 소나무가 많아 송림(松林)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골짜기 안에 생육신 원호(元昊)를 모신 정충각(旌忠閣)이 있다. 조선 세종 때 직제학에 이르렀던 원호가 낙향하여 있을 때 세조가 호조참의를 제수하여 조정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나졸로 하여금 수소문하였으나 군사들이 오면 항상 안개 속에 숨어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생육신 중의 한 사람으로 호를 '관란(觀瀾)' 또는 마을 이름을 따라 '무항(霧巷)'이라 하였다.

#### 무항골(霧巷-) [마을]

**[위치]** 송림 마을 중 무항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단구시장과 정충각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무랑골', '무양골', '무왕골', '무항곡', '송림'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왕골(武旺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랑골(무항곡霧巷谷, 송림松林)'이라 하였다.

**[내용]** '무랑·무양·무왕·무항'은 동일한 지명이 발음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 것이며, '송림'은 무항골이 고개 위 '송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같은 마을로 인식된 결과이다.

#### 문고개 [고개]

**[위치]** 귀론에서 남동쪽으로, 귀론저수지로 올라가는 고개를 말한다. '문바우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문고기(門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고개(門--)'라 하였다.

**[유래]** 고개에 문바우가 있어 문고개라 하였다.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고갯길은 터널이 되었다.

## 문바우 [바위]

**[위치]** 귀론저수지 북쪽 아래 문고개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고속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문바우(門--)’라 하였다.

**[유래]** 고개에 있는 바위의 모양이 문처럼 생겼으므로 문바우라고 하였다. 옛날에 바위를 떠넘겨 적병이 오는 것을 막았는데 그때 큰 바위 하나는 골짜기 아래에 떨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그 길에 중앙고속도로가 나면서 모두 없어졌다.

## 문바우고개 [고개] → 문고개

## 바당이 [들] → 바대이

## 바대이 [들]

**[위치]** 관너메와 귀론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바대이’라고도 한다. 현재 단관택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바대이(바당이)’라 하였다.

**[풀이]** ‘바당(이)>바당이>바댕이>바대이’로 변천하였다. ‘바당’은 ‘버덩’의 방언이다.

## 박경리문학공원 [공원]

**[위치]** 단관택지지구 단구사거리 남서쪽, 문학공원 사거리 북쪽에 있는 기념관 및 공원을 말한다.

**[내용]** 소설가 박경리가 1980~1989년까지 여기에 살면서 『토지』 4~5부를 집필하며 완결한 기념으로 살던 집과 텃밭, 정원수를 보존하여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하였다.



「박경리문학공원 ; 2018년」



「박경리문학공원 ; 2019년」

## 배울 [들]

**[위치]** 저무니골 남쪽 끝에서 서쪽의 옥녀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골짜기 위에 배울저수지가 있었다. 현 단구중사거리에서 서쪽 위, 남원주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골짜기에 있던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울’이라 하였다.

**[풀이]** ‘배울’이란 지명은 ‘배+울>배울’로서 ‘울’은 ‘골·굴’과 함께 골짜기 또는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을 뜻한다. 지명에서 ‘배’는 ①배(舟)와 관련된 것(예:봉산동 배말舟村), ②‘산(山)’의 뜻(예:귀래면 운남리 ‘배재’, 치악산 ‘배너미’, ‘배무덤’), ③배나무가 있는 곳 등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①은 관계가 없으므로 ② 또는 ③과 관련이 있다. 즉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 또는 옥녀봉 아래에 있으므로 ‘산의 골짜기’란 뜻이다.

## 배울저수지 [못]

**[위치]** 옥녀봉 남쪽, 배울들 위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저수지를 매운 자리에 현 남원주초등학교가 들어섰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울저수지’라 하였다.

## 본부락(本部落) [마을]

**[위치]** 관앞 마을 동쪽, 원주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상단구(上丹邱) [마을]

**[위치]** 옛 단구리 중 원주천 서쪽 단구역이 있는 곳의 마을들을 말한다. 원주천 동쪽, 지금의 반곡동인 월운정 지역은 하단구라 하였다. 『한국지명



총람]에 ‘상단구(上丹邱)’라 하였다.

서낭당이 [당] → 귀론성황당

솔경지 [들]

**[위치]** 내벌 남쪽, 나옹정 북쪽, 단구초등학교 서쪽에 있던 넓은 들을 말한다. 신촌천을 중심으로 넓게 발달한 들이었으나 도로 및 주택단지에 모두 편입되었다. ‘송정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송정뜰(松亭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경지’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소나무가 많았으므로 ‘솔경지’, ‘송정들’이라 하였다.

송림(松林) [마을]

**[위치]** 송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단구시장 북쪽 주택가를 말한다. 마을 안에 무항골 마을이 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 전체를 ‘무항골’이라고도 하였다.

송림(松林) [산]

**[위치]** 현 개운한신희플러스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을 지칭하였다. 지금은 모두 주택단지가 되었다. 산 남동쪽 아래에 송림 마을과 무항골 마을이 있다.

**[유래]** 소나무가 많은 숲이었으므로 송림이라 하였다.

송림앞들 [들]

**[위치]** 송림 마을 동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 단구동성당 남쪽의 넓은 지역이었으나 대부분 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송정뜰(松亭坪)’이라 하였다.

**[유래]** 송림 마을 앞에 있으므로 송림앞들이라 하였다.

송엄정 [누정]

**[위치]** 귀론 마을 남쪽, 귀론성황당 동쪽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중앙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없어졌다.

송정들 [들] → 솔경지

송화정(崇化亭) [누정]

**[위치]** 단구동에 있었다고 하는 정자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원주원성향토지』에 ‘원주시 단구동에 있었으며 약 10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였고, 그 외의 옛 읍지에는 ‘관아 서쪽 2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기록상의 방향도 서로 달라 짐작할 수 없다. 이 정자에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서거정과 함께 『신편동국통감』을 편찬하고 전라도관찰사, 이조참판을 지낸 문장공(文莊公) 이숙감(李淑臧)의 기문(記文)이 있었다고 전한다.

시운동 [마을]

**[위치]** 경천원 마을 중 천매봉의 남서쪽, 신촌동 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매봉사거리 북쪽 위에 있는 마을 지역이다.

신촌동(新村洞) [마을]

**[위치]** 경천원 마을 중 천매봉 남쪽, 옥녀봉 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천매봉과 개척동 사이, 현 구곡성당과 남원주중학교 사이에서 매봉사거리까지에 있던 마을이다.

신촌천(新村川) [내]

**[위치]** 갈촌의 구루니골과 진밭골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나옹정을 지나온 물줄기와, 귀론과 저무니골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관앞에서 만난 후, 북쪽으로 흘러 개운동 궁만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용]** 나옹정과 내벌, 관앞, 송림 앞을 지나 현 개운동 북개천을 지나면서 주변에 넓은 들을 형성한 내였다. 이 내가 원주천에 합류하는 남부시장 앞 현 개운교사거리 주변은 지대가 낮았으므로 원주천이 범람하면 항상 수해를 입었다. 개운동의 마을 이름 구만이는 지대가 낮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안가마골 [골]

**[위치]** 명륜동 망골 남쪽 건너편, 원주소방서 건너편에서 경천원으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대림아파트와 한일아파트에서 두산아파트에 이르는 지역이다.

**양월(仰月) [마을] → 우러리**

**양월부락 [마을] → 우러리**

**약물탕거리골 [골]**

**[위치]** 귀론저수지에서 남쪽으로, 모래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엄나무골 [골]**

**[위치]** 우러리 서쪽, 내벌들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치악고등학교 동쪽 단관사거리 사이의 마을이 들어선 곳이다. 골짜기 끝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여우바우 [바위]**

**[위치]** 귀론에서 판부면 남송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아래에 여우굴이 있어서 여우바우라고 한다.

**연단석(鍊丹石) [바위]**

**[위치]** 단구역관 앞에 있던 돌절구를 말한다. 『여지도서』에 ‘단구(丹丘)의 선인(仙人)이 연단(鍊丹)하는 곳이라 한다.’고 하였다.

**[내용]** 연단(鍊丹)은 신선이 먹는 환약(丸藥)을 말한다.

**연단장모퉁이 [모퉁이]**

**[위치]** 관너메 앞에 있던 길모퉁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연단장모퉁이’라 하였다.

**옥녀봉(玉女峰) [산]**

**[위치]** 천매봉 남동쪽, 왕상봉 남쪽에 있는 232m 높이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현 남원주초등학교 서쪽, 남원주중학교 동쪽에 있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옥녀봉(玉女峰)’이라 하였다.

**[유래담]** 옥녀가 내려와 머리를 빗었다고 하여 옥

녀봉이라 한다.

**웃나무배기 [샘]**

**[위치]** 관너메 앞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나무배기’라 하였다.

**[유래]** 우물가에 큰 웃나무가 있었으므로 웃나무배기라 하였다.

**왕상봉(王上峰) [산]**

**[위치]** 웃저무니골 북쪽 끝, 천매봉 북동쪽에 있는 높이 226m의 봉우리를 말한다. 남쪽으로 옥녀봉과 이어진다. 현 원주우체국 남쪽, 늘품사거리 서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왕상봉(王上峰)’이라고 하였다.

**[내용]** 서계문화재단(西溪文化財團)에 의하면 조선 후기 실학자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후손 박사심(朴師心, 1703~1735)의 묘가 ‘원주단구촌(丹邱村) 왕상봉(王相峰) 동쪽 자락에 있었는데 1976년에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장하였다.’고 하였다. 묘 자리에는 현 단구시온교회가 들어서 있다.



「왕상봉 ; 2019년」

**우러리 [마을]**

**[위치]** 귀론 동쪽, 귀론저수지 북동쪽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위치는 현 치악고등학교 서쪽이다. 이를 한자로 ‘양월(仰月)’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우러리(양월仰月)’라 하였다.

**[유래담]** 마을이 반달 같은 모습이라 하여 한자로

‘앙월(仰月)’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우러리’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우러리’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이를 ‘울+월’로 보고 ‘울’을 ‘우러리보다’로 보아 ‘仰’으로 적고 ‘월’을 ‘月’로 적어 ‘앙월(仰月)’이라 하였다.

#### 우러리고개 [고개]

**[위치]** 우러리에서 북쪽 나옹정으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우러리고기(仰月峴)’라 하였다.

#### 우러리들 [들]

**[위치]** 우러리 마을 북쪽 앞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단관공원사거리 지역에 있던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우러리들’이라 하였다.

#### 우화당(羽化堂) [누정]

**[위치]** 옛 단구역사 안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내용]** 『관동지』에 단구역관에 있다고 나오고 이 우신의 『협선루증수기』에 ‘누는 협선루(挾仙樓)라 하였고 당은 우화당(羽化堂)이라 한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 웃우물 [우물]

**[위치]** 관너메 맨 위쪽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우물’이라 하였다.

#### 웃저무니골 [골]

**[위치]** 저무니골 입구 저무니골 마을에서 서쪽 위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현 프리미엄아울렛이 있는 단관택지사거리에서 구곡초등학교 쪽으로 난 곳이다. 골짜기에 현진에버빌1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저무니골’이라 하였다.

**[유래]** 서쪽이 왕상봉과 옥녀봉 산줄기로 막혀 있어서 날이 일찍 저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입구촌(入口村) [마을]

**[위치]** 옛 경천원 마을 중 천매봉 서쪽 아래, 도로

에 붙어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천매사거리 북동쪽 지역이다.

**[유래]** 경천원 마을 입구이므로 입구촌이라 하였다.

#### 저무니골 [골]

**[위치]** 관앞에서 남쪽 배울들 입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관후사거리에서 남서쪽 단구중사 거리에 이르는 곳으로 단구로가 나 있다. ‘저문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저무니골’이라 하였다.

**[유래]** 서쪽이 왕상봉과 옥녀봉 산줄기로 막혀 있어서 날이 일찍 저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저무니골 [마을]

**[위치]** 관너메 남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프리미엄아울렛이 있는 곳이다. ‘저문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저문골(幕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저무니골’이라 하였다.

#### 저문골 [골] [마을] → 저무니골

#### 처나무고개 [고개]

**[위치]** 귀론에서 남서쪽으로, 귀론뒷산을 넘어 외남송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처나무고개’라 하였다.

#### 천매봉 [산]

**[위치]** 옛 경천원 마을, 구곡택지에 있는 24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현 원주소방서 남쪽, 남원주중학교와 구곡성당의 북쪽에 있는 산이다. 산 남동쪽에 옥녀봉이 있고 북동쪽에는 왕상봉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천마봉(天馬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천매봉’이라 하였다.

**[유래담]** 예전에 사냥꾼들이 이 산꼭대기에서 매를 놓아 사냥을 했다고 한다. 또는 천 마리의 새가 먹이를 잡아다 쌓아놓고 먹고 살았다 하여 천매봉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그래서 천매봉 아래 산사람들은 항상 공간에 곡식이 가득하여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전한다.

**판제현(板梯峴)** [고개] → 너더리고개

**풍전산업** [산업]

**[위치]** 옛 삼흥아파트, 현 단구신성미소지움아파트  
자리에 있던 옛 방직공장을 말한다.

**하단구(下丹邱)** [마을]

**[위치]** 옛 단구리 아래쪽의 마을을 말한다. 단구리  
중에서 원주천 서쪽 단구역 주변을 상단구라 하였  
고 원주천 동쪽에 있는 입춘내와 월운정, 유만동  
을 하단구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하단구  
(下丹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하단구(下  
丹邱)’라 하였다.

**하단구주막** [주막]

**[위치]** 하단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  
지자료』에 ‘하단구주막(下丹丘酒幕)’이라고 하였다.

**협선루(挾仙樓)** [누정]

**[위치]** 옛 단구역관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현재 위  
치는 알 수 없다.

**[내용]** 『관동지』에 ‘고을의 남쪽 단구역에 있다.’  
고 하였다. 『원주원성향토지』에 ‘협선루창건기’가  
실려 있다.

**희망동(希望洞)** [마을]

**[위치]** 천매봉 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두산아파트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 명륜동(明倫洞)

### [위치]

명륜동은 원주시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개운동, 서쪽으로는 무실동, 남쪽으로는 단구동과 판부면 서곡리, 북쪽으로는 원인동·단계동과 접해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 상동리(上洞里) 지역이었다.

1937년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면서 상동리를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개운정(開運町)·남산정(南山町)·대화정(大和町)으로, 하동리(下洞里)를 영정(榮町)과 옥정(旭町)으로 나누고 상동 일부와 하동 일부를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과 금정(錦町)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개운정(開運町) 지역에 있었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어 개운동(開運洞)으로 할 때 개운동에 포함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개운동에서 분리되어 원주시 명륜동이 되었다.

### [유래]

1955년 개운동에서 분동하면서 향교의 명륜당(明倫堂) 이름을 따서 명륜동이라고 하였다.



### 개운골 [골]

**[위치]** 남문거리에서 남서쪽으로 향교골에 이르는 골짜기로, 향교천이 흐르던 골짜기를 말한다. 현 남부시장 앞에서 원주향교에 이르는 곳으로 남원로가 나 있다. 개운동과 명륜동의 경계가 된다.

교촌(校村) [마을] → 향교말

남문거리(南門--) [길] → 개운동 남문거리

### 남부시장(南部市場) [장]

**[위치]** 남산 남동쪽, 옛 남문거리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남부시장(南部市場)'이라 하였다.

**[내용]** 현 남부시장은 한국전쟁 후에 설립되었고 1979년에 재개발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남부시장 ; 1978년」



「남부시장 ; 1985년」

### 남산(南山) [산]

**[위치]** 강원감영 남쪽, 남부시장 북서쪽에 있는 높이 169.9m의 산을 말한다. 명륜동과 원인동의 경

계가 되는 산이다. 『대동지지』에 서남쪽 1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남산(南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南山)'이라 하였다.

**[내용]** 강원감영에서 보아 남쪽에 있으므로 남산이라고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주택지로 변하였고, 추월대가 있었으나 없어졌는데 현재는 원주KBS 뒤 동산에 복원되어 있다.

### 남산골 [골]

**[위치]** 남문거리에서 북서쪽으로, 남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 남부시장에서 남산고개길이 나 있다.

### 남산골 [마을]

**[위치]** 남부시장 뒷편 남산골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골'이라 하였다.

**[유래]** 남산 밑에 있는 마을이므로 남산골이라 불렀다.



「남산골 마을 ; 2019년」

### 남산정(南山町) [마을] → 원인동

### 너더리 [고개] → 너더리고개

### 너더리 [들]

**[위치]** 너더리고개를 중심으로 그 아래와 위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남송사거리에서 천매사거리를 지나 원주소방서에 이르는 지역으로 남원로가 나 있다. 명륜동과 단구동의 경계이다.

**[유래]** 넓은 들이므로 너더리라 하였다.

**[풀이]** '너더리'는 '널(넙)+달>널달>널달(이)>널다

리>너다리>너더리'로 음운 변천된 것으로 '넓은 들'의 뜻이다. '너'는 '너르다, 넓다'에서 나온 말이며 여기에서의 '더리'는 옛말 '들'에서 파생된 것으로 '들'을 뜻한다.

'너더리<널다리'는 전국에 흔한 지명인데 '너<널'은 널판으로 보아 판(板)을 취하고 '더리<다리'는 다리로 보아 '교(橋)'를 취하여 대체로 '판교(板橋)'로 정착되었다.

귀래면 운남리에서는 '너더리'를 '판교(板橋)' 또는 '판터(板塹)'라고 하였는데 '판터(板塹)'는 이것이 넓은 들이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지정면 판대리의 '판대(板塹)'도 넓은 터,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는 '너더리'의 '더리'를 '사다리'로 보아 '판제(板梯)'라 하였고 이것이 옛날 이 지역의 이름인 판제면(板梯面)이 되었다.

#### 너더리고개 [고개]

**[위치]** 외남송에서 북쪽으로, 원주로 넘어오는 고개를 말한다. 현 청구아파트 앞 천매사거리에 있던 고개로, 천매사거리에서 원주소방서로 남원로가 나 있다. '널다리'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판제현(板梯峴)'이라고 하였고 『조선지리지』에 '느더리고기(板梯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의 아래와 위가 모두 너더리(넓은 들)이었기 때문에 '너더리고개'라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에 강원감영에서 너더리고개와 양아치를 넘어 충주로 가던 주 교통로였다.

#### 널다리 [고개] → 너더리고개

#### 동양양조장(東洋釀造場) [산업]

**[위치]** 원주향교 동쪽, 현 대성현대아파트 지역 인근에 있던 옛 양조장을 말한다.

**[내용]** 1950년대에 막걸리를 생산하다가 1962년부터 1965년에 백로소주(白鷺燒酒)를 생산하였다. 이후 백로소주(白露燒酒)로 이름을 바꾸어 1972년까지 생산한 양조장이었다. 백로소주는 원주양조

장의 옥로소주(玉露燒酒)와 함께 1960년대 원주를 대표하던 소주였다.

#### 망골 [골]

**[위치]** 너더리고개에서 현 원주소방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남원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 모래리촌 [마을]

**[위치]** 너더리고개에서 북서쪽 226.5m의 용화산을 향하여 난 고갯길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너더리고개는 현 천매사거리에 있던 고개로,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난 고갯길을 따라 마을이 있었다. 위치는 현 용화산삼거리 남동쪽에 있는 구곡청구아파트단지 및 동보노빌리티아파트 지역이다.

**[풀이]** '모래리'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몰+아래+이>모라리>모래리'이다. '몰'은 산을 뜻하는 옛말이고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 무터골 [골]

**[위치]** 향교들 북쪽에 동서로 뻗어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현 치악예술관이 있는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무터골(茂塹谷)'이라 하였다.

**[풀이]** '못(못)+터+골>무터골>무터골'이 되었다. 물터, 즉 물이 많은 골짜기란 뜻이다.

#### 부채고개 [고개]

**[위치]** 향교골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부치고개(扇子峴)'라 하였다.

#### 부흥마을(復興--) [마을]

**[위치]** 현 젊음의광장사거리 북동쪽, 원주향교 남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유래]** 향교 마을로 부르던 곳인데 주민들이 이름을 바꾸었다.

#### 상나무골 [골] [마을] → 향나무골

#### 상동리(上洞里) [마을] → 개운동 상동리

**생교말** [마을] → 향교말

**서낭당** [당]

**[위치]** 향나무골 약수터 부근에 있던 옛 서낭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낭당’이라 하였다.

**약수터** [마을]

**[위치]** 현 용화사 약수터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명륜동에서 무실동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약수터가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약수터라 하였다.

**양지말** [마을]

**[위치]** 향교말 중 젊음의광장사거리 북쪽, 국립공원연구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향교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마을이 남향으로, 항상 빛이 든다고 하여 양지말이라고 부른다. 옆에 향교가 있어 향교골이라고도 한다.

**외삼문(外三門)** [건물]

**[위치]** 향교로 들어가는 정문(正門)을 말한다.



「원주향교 외삼문 ; 1970년」

**용화산(龍華山)** [산]

**[위치]** 치악초등학교 남쪽에서 서원주초등학교 북쪽, 모래리촌 서쪽에 이르는 산을 말한다. 높이가 대체로 200~230m에 이르는 작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가장 높은 봉우리는 치악초등학교 남쪽, 원주소방서 북서쪽에 있는 230.6m의

봉우리이다. 명륜동, 무실동과의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판부면 서곡리와 닿아 있다.

**중앙동(中央洞)** [마을]

**[위치]** 모래리촌 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서원주초등학교 남동쪽 지역이다.

**[내용]** 서원주초등학교 뒤의 공원 이름을 원주중앙공원으로 하여 이름을 남겼다.

**청풍루(淸風樓)** [누정]

**[위치]** 현 원주향교 자리에 있던 옛 누각을 말한다.

**[내용]** 태종 2년(1402)에 원주목사 신호가 청풍루가 있던 자리에 향교를 창건했다고 한다. 향교를 지을 당시에 이미 청풍루는 없어진 뒤였다.

**탑동(塔洞)** [마을] → 탑두둑

**탑두둑** [마을]

**[위치]** 개운골 북서쪽, 남산 아래 둔덕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옛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있던 마을이다. 현 그 마을에 명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원주여고를 지나 동성아파트에 이르는 탑두둑길이 나 있다. ‘탑동(塔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탑두둑(塔阜)’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탑두둑(탑동塔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남산에 탑이 있어서 탑두둑이라 하였다. ‘두둑’은 ‘덕’과 같은 의미로 둔덕, 언덕을 의미한다.

**평화촌(平和村)** [마을]

**[위치]** 원주소방서 서쪽, 중앙동 북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서원주초등학교 동쪽 지역 산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하마비(下馬碑)** [비]

**[위치]** 현 젊음의광장사거리 향교골 입구에 있던 비를 말한다.

**[내용]** 향교 입구인 이곳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라는 표지석이었다.

**학봉정(鶴鳳亭)** [누정]

**[위치]** 원주교육지원청 남쪽에 있는 국궁도장을 말한다.

**[유래]** 1983년 원주궁도협회에서 활을 쏘기 위해 새로 지은 2층 정자이다. 봉산동 학봉정의 이름을 따라 학봉정이라 하였다.



「학봉정 ; 1983년」

#### 향교(鄕校) [학교]

**[위치]** 원주시 명륜동 258번지에 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198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 서쪽 3리에 있고 청풍루(淸風樓)가 있다고 하였다.

**[내용]** 조선 제4대 세종 4년(1422)에 목사(牧使) 신호(申浩)가 세웠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으며, 그 후 선조 36년(1603)에 이탁(李澤)이 중창하였다. 7년 뒤 광해 2년(1610)에 목사 임취정(任就正)이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東西齋)를 중축하였다. 1965년 담장을 복원하였고 1987년에 명륜당과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매년 봄, 가을 2회로 석전제례(釋典祭禮)를 행하고 있다.



「원주향교 ; 1968년」



「원주향교 대성전 ; 1968년」



「원주향교 명륜당 ; 1970년」



「원주향교 ; 2014년」

#### 향교골 [골]

**[위치]** 개운골에서 남서쪽으로 의료원사거리에 이르는 곳, 향교사거리에서 향교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남원로가 나 있고, 주택과 상가, 향교길이 나 있다. 개운동과 명륜동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유래]** 향교로 가는 골짜기였으므로 향교골이라고

하였다.

**향교골** [마을] → 양지말

**향교골다리** [다리]

**[위치]** 옛 향교말 앞 향교천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향교골다리’라고 하였다.

**향교들** [들]

**[위치]** 원주향교 남쪽, 남원로 북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젊음의광장사거리에서 남서쪽 옛 우림가든, 현 원주국민체육센터에 이르는 곳에 있던 들이었다.

**향교말** [마을]

**[위치]** 원주향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말한다. ‘교촌’, ‘생교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생교말(교촌校村, 향교말)’이라 하였다.

**향교천(鄉校川)** [내]

**[위치]** 송림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향교골과 개운골을 지나 남부시장 앞 개운교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가 흐르던 곳으로 현재 남원로가 나 있다.

**향나무골** [골]

**[위치]** 현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서쪽으로, 용화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을 현 서원대로가 가로질러 나 있다. ‘상나무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향나무가 있었으므로 향나무골이라 하였다.

**향나무골** [마을]

**[위치]** 향나무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향나무골(香木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나무골(향나무골)’이라 하였다.



## 무실동(茂實洞)

### [위치]

무실동은 원주시청이 있는 곳이다. 무실동행정복지센터는 시청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단구동과 명륜동, 서쪽으로는 봉화산에서 감박산·배부른산으로 연결되는 능선을 경계로 하여 흥업면 사제리와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흥업면 흥업리와 판부면 서곡리, 북쪽으로는 단계동과 접해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판제면(板梯面) 본삼리(本三里)·분삼리(分三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여산·마장동·은행정·행가리동·양지촌·이촌·만대·송삼을 병합하여 무실리라 하고 금물산면(今勿山面)에 편입되어 원주군 금물산면 무실리가 되었다.

1917년 금물산면을 흥업면(興業面)으로 고침에 따라 원주군 흥업면 무실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성군(原城郡) 흥업면 무실리(茂實里)가 되었다.

1973년 원주시로 편입되어 원주시 무실동(茂實洞)이 되었다.

### [유래]

물이 많은 골짜기이므로 무실(<물실), 또는 무리실이라 하였다.

### [풀이]

‘무실’은 ‘물(水)+실(谷)>물실>무실’로, 즉 ‘물이 나는, 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무리실’은 ‘물실>물+( )+실>물이실>무리실’이다. ‘ㅣ’는 매개모음이다. 배부른산에서 발원하는 무실천이 모래내(사천)에 합류하고 단계동 뚝내, 우산동을 거쳐 원주천에 합류한다.

## 가래나무들 [들]

**[위치]** 만대저수지 동쪽 아래로 펼쳐진 들을 말한다. 건너담 남쪽에 있는 들이다. 현 원주무실주공 5단지아파트, 무실e편한세상아파트, 원주무실휴먼시아6단지아파트, 박건호공원에 이르는 지역이다.

## 가마바우산 [산] → 감박산

## 감바우산 [산] → 감박산

## 감박산 [산]

**[위치]** 중부 동쪽, 감박산골 남쪽에 있는 313.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봉화산과 배부른산 줄기에 있으며 만종터널 바로 남서쪽에 있다. 호저면 만종리와 경계가 되는 산으로 참나무가 많다. ‘감바우산’, ‘가마바우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정상 부근에 감바우가 있어서 ‘감박산, 감바우산, 가마바우산’이라고 한다.

**[유래담]** 옛날 여왕의 가마가 쉬어간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는 ‘가마바우(<감바우>의 ‘가마’를 가마로 보고 가마를 탄 여왕을 결부시켜 이를 미화한 것이다.

**[풀이]** 감박산은 감바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감바우는 ‘곰+바우>곰바우>감바우’인데 ‘곰’은 ‘감’, ‘곰’으로 분화되어 ‘감·가마, 곰·고모, 검·거무’ 등으로 나타난다. ‘곰’은 ‘神, 신성한, 크고 높은’ 등의 뜻을 가진 옛말로 감바우는 ‘크고 신성한 바위’라는 뜻이다. ‘가마바위’를 가마로 이해하고 (여왕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쉬 곳이라는 유래담이 생겼다.

## 감박산재 [고개]

**[위치]** 만대에서 북서쪽으로, 감박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감박산 북쪽, 현 중앙고속도로의 만종터널 위를 지난다. ‘감박재’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250m이다. 『조선지리지』에 ‘감박지(甘朴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박산재’라 하였다.

**[유래]** 감박산 옆을 지나므로 감박산재라고 하였다.

## 감박재 [고개] → 감박산재

## 개미재 [고개]

**[위치]** 송삼 지동터들에서 서쪽으로, 흥업면 사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늦은재 북쪽 아래에 있다. 고개 높이는 280m이다. ‘된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기미지(蟻峴)’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학동들이 이 고개를 넘어 사제로 서곡천에 낚시를 다니기도 하였다.

## 개바우 [바위]

**[위치]** 행거리 능골 입구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현 고려원사랑채 앞에 있었으나 도로를 내면서 없어졌다. 대안리 사람들은 이 바위가 원주를 오가는 길의 중간이 되므로 ‘반바우’라 불렀다고 한다.

**[내용]** 넓적한 바위로 비녀바우와 함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던 것이다.

## 개사리골 [골]

**[위치]** 공말 남동쪽, 진억이 마을 남쪽에 남송천을 따라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의 입구가 새 중앙선 철로에 편입되었다.

## 개사리들 [들]

**[위치]** 진억이 마을 남쪽에서 동쪽으로, 개사리골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새 중앙선 철로에 거의 다 편입되었다.

## 개사리보 [보]

**[위치]** 개사리들 앞에 있던 남송천의 보(洑)를 말한다. 새 중앙선 철로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에 ‘기사리보(開沙里洑)’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사리보’라 하였다.

## 건너담 [마을]

**[위치]** 만대 마을 중 서쪽, 산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시의회와 시청공원이 있는 곳이다.

## 고모골 [골] → 고목골

## 고목골 [골]

**[위치]** 마당들에서 동쪽으로 다시 난 골짜기를 말

한다. 현 무실세영리첼2차아파트 지역이다. 『조선 지리지』에 ‘고무골(故武谷)’이라고 하였다.

**고목골** [마을]

**[위치]** 고목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고무골** [골] → 고목골

**곳집거리들** [들]

**[위치]** 남여산 북동쪽, 둔전들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옛날 상여를 넣어두던 곳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말(1)** [마을]

**[위치]** 진역이 서쪽의 공말골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현 이마트원주점 남쪽 산 밑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공말(2)** [마을]

**[위치]** 만대 마을 중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건너담 남동쪽, 숫거리골 북쪽 위에 있던 마을이다. 위치는 현 로아노크사거리 서쪽 지역으로 국민연금공단원주지사 주변이다.

**공말골** [골]

**[위치]** 행거리 앞 둔전들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공말(1) 서쪽 도로 건너의 골짜기이다.

**광태골** [들]

**[위치]** 행거리 망태골 마을 남쪽 남송천을 따라난 들을 말한다. 들 일부에 현 남원주폐차장이 들어서 있다.

**군양골** [골] → 군장골

**군장골** [골]

**[위치]** 송삼 아랫담 동쪽 앞 능선 과수원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른마지기구렁골에서 남서로 난 작은 골짜기이다. ‘군양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군양골(軍糧谷)’이라 하였다.

**긴동골** [골]

**[위치]** 현 만대공원삼거리,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북서쪽으로, 봉화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동골(筒谷)’이라고 하였다.

**남송천(南松川)** [내]

**[위치]** 판부면 서곡리 매봉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내남송저수지와 변판서골, 진역이 남쪽 개사리들, 행거리 남쪽 광태골, 양지말앞들을 지나 합포원에서 서곡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남여산(南呂山)** [마을]

**[위치]** 남여산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여산(南呂山)’이라 하였다.

**남여산(南呂山)** [산]

**[위치]** 합포원 남쪽, 범파정 내 건너 동쪽에 있는 높이 154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남여산(南呂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지형이 남여(藍輿)처럼 생겼다고 하여 남여산이라고 한다. ‘남여’는 의자처럼 생긴,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이다.

**남여산주막** [주막]

**[위치]** 남여산 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남여산주막(南呂山酒幕)’이라고 하였다.

**넘말** [마을] → 넘어담

**넘어담** [마을]

**[위치]** 송삼저수지 동쪽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현재 대성가구단지에 편입되었다. ‘넘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넘말(躑村)’이라고 하였다.

**노적봉** [산]

**[위치]** 만대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318m의 산을 말한다. 봉화산 남쪽, 현 원주시청 북서쪽에 있는 산이다.

## 능골 [골]

**[위치]** 행가리 안산밑골에서 북서쪽으로, 배부른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고려원식당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남원주가구할인매장이 들어서 있다.

**[유래담]** 골 안에 옛날 왕릉을 정하였으므로 능골이라 하였는데, 지금도 그 능터가 남아있다고 한다.

## 능골 [마을]

**[위치]** 능골 입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남원주가구매장이 있는 곳에 있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능디동(陵垔洞)’이라고 하였다.

## 능너메 [마을]

**[위치]** 행가리동 북쪽, 능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충청교회 북서쪽, 은행나무가 있는 마을로, ‘아랫능넌’과 ‘윗능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능라동’, ‘능래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능라동’이라 하였다.

**[유래]** 능터 남쪽 능선 너머에 마을이 있으므로 능너메라고 하였다.

## 능라동 [마을] → 능너메

## 능래동 [마을] → 능너메

## 능터 [터]

**[위치]** 능골에 있는 능의 터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 폐주가 된 왕의 능을 쓰려고 터를 잡았던 곳으로 지금도 터가 남아있다고 한다. 능골이란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 늦은재 [고개]

**[위치]** 배부른산 능선 북쪽 아래, 개미재 남쪽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송삼저수지에서 서쪽으로, 사제리 오작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300m이다.

## 다난무골 [골]

**[위치]** 솔우물들에서 남동쪽으로, 중앙고속도로 옆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무실체육공원

과 무실동성당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이다.

## 다박골 [골]

**[위치]** 만대저수지에서 서쪽으로 감박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한국전쟁 전 공산주의자들을 총살하던 곳이라고 한다.

## 도룡골 [골] → 도룡골

## 도룡산 [산] → 도룡산

## 도룡골 [골]

**[위치]** 북골 마을에서 북쪽 도룡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있다. ‘도룡골’, ‘되농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원래 마을에서 돌아가는 모퉁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돌음골>도룡골>도룡골’이 되었다.

## 도룡산(道龍山) [산]

**[위치]** 은행정 북쪽, 진억이 동쪽에 있는 19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산 남쪽에 새 중앙선 철로의 역사가 들어선다. ‘도룡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도괴용(倒騎龍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룡산(道龍山)’이라고 하였다.

## 독바우 [바위]

**[위치]** 만대저수지 북쪽 위, 노적봉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마치 독을 올려놓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독바우라고 하였다.

## 돌모랭이골 [골]

**[위치]** 안산밑골에서 북쪽으로, 송삼동 중간담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성중고등학교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다.

## 돌터뿌리골 [골]

**[위치]** 만대저수지에서 북서쪽으로, 감박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동골 [골] → 긴동골

### 동산재(銅山峴) [고개]

**[위치]** 송삼에서 남동쪽으로, 현 대성고등학교를 넘어 박석고개로 난 고갯길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동산지(銅山峴)’라 하였다.

### 되농골 [골] → 도룡골

### 된재 [고개] → 개미재

### 둔전들 [들]

**[위치]** 은행정 서쪽, 남여산 북동쪽, 행가리 남동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둔전저수지(은행정저수지)의 물을 댄다. ‘중전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둔전뜰(屯田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둔전들’이라 하였다.

**[내용]** 들판으로 새 중앙선 철로가 동서로 지나고 들 한가운데에 새 역사가 건설되고 있다.

### 둔전보 [보]

**[위치]** 둔전들에 있는 남송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둔전보(屯田湫)’라 하였다.

### 둔전저수지 [못] → 은행정저수지

### 뒷골(1) [골]

**[위치]** 무리실에서 서쪽 만대 마을로 난 골짜기로, 현 만대공원이 있는 곳을 말한다. 원주교도소의 남쪽 경계선이다.

### 뒷골(2) [골]

**[위치]** 송삼 토돈네담에서 북서쪽으로, 33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뒷골(3) [골]

**[위치]** 사제리 범파지들에서 서곡천 건너 북쪽 화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북거리들 동쪽에 있다. 골 입구로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 뒷들 [들]

**[위치]** 남여산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뒷들보 [보]

**[위치]** 뒷들에 있는 남송천의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뒷뜰보(後坪湫)’라 하였다.

### 등골고개 [고개]

**[위치]** 행가리에서 서쪽으로, 사제리 등골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화봉산 북쪽 바로 아래를 지나는 높이 270m의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에 ‘등골고기(燈谷峴)’라고 하였다.

### 마당들 [들]

**[위치]** 솔우물들 중간에서 동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고목골 서쪽에 있는 들이다. 현 세영리첼1차 아파트와 솔샘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다.

### 마장동(馬場洞) [마을]

**[위치]** 은행정 남쪽, 서곡천 북쪽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재 남서쪽, 강릉원주대학 북쪽에 있는 마을로 현재 원주허브팜이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에 ‘마장이(馬場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장동(馬場洞)’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말을 놓아먹이던 곳이라 하여 마장동이라 한다.



「마장동 ; 2019년」

### 마재 [고개] [마을] → 판부면 서곡리 마재

### 마재들 [들]

**[위치]** 마장동 북쪽, 마재고개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막자골 [들]



**[위치]** 돌모랭이골 북서쪽, 송삼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대성고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만다** [마을] → 만대

**만다동** [마을] → 만대

**만답골** [골] → 만대골

**만대(晩垌, 萬垌)** [마을]

**[위치]** 백간 남쪽, 감박산 동쪽 아래, 만대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시청이 들어선 자리이다. 마을 안에 ‘공말’, ‘건너담’이 있었다. 한자로는 ‘晩垌’, ‘萬垌’ 등으로 적었다. ‘만다’, ‘만다동’, ‘만대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답골(만대동, 만터골)’이라 하였다.

**[유래]** 날이 일찍 저물므로 ‘만대(晩垌)’라 하였다. 또는 터가 크고 넓으므로 ‘만대(萬垌)’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서쪽이 봉화산과 감박산으로 막혀 날이 일찍 저물므로 ‘만대(晩垌)’라 하였다. 산줄기에 ‘늦은재’ 고개가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다. 터가 크고 넓으므로 ‘만대(萬垌)’라 하였다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1만호의 거대한 마을을 형성하였다 하여 ‘만대(萬垌)’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만대(萬垌)’ 이름을 뒷받침하듯 현재 원주시청이 들어서 있다.

**만대골** [골]

**[위치]** 무리실 북서쪽, 봉화산 남동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주시청이 들어선 골짜기이다. ‘만답골’, ‘만터골’이라고도 한다.

**만대골고개** [고개]

**[위치]** 만대에서 북서쪽으로, 감박산 남쪽을 지나 중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만다곶고기(萬垌峴)’라고 하였다.

**만대동(晩垌洞)** [마을] → 만대

**만대저수지** [못]

**[위치]** 감박산 동쪽 계곡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중앙고속도로 만종터널 남동쪽 아래 계곡에

있다. 현 원주시청 남서쪽 무실주공5단지아파트 지역에 공원으로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다골저수지’라 하였다.



「만대저수지 ; 2019년」

**만석골(萬石-) [골]**

**[위치]** 윗주막거리 북쪽, 광태골 서쪽 끝에서 북쪽으로, 화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자로 ‘만석동(萬石洞)’이라고 하였다.

**만석동(萬石洞)** [골] → 만석골

**만종터널** [굴]

**[위치]** 송삼동 북쪽, 봉화산과 배부른산 능선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의 터널을 말한다.

**만터골** [골] → 만대골

**망태골** [마을]

**[위치]** 행거리 마을 중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배부래이 남쪽, 광태골 북쪽 바로 위에 있는 마을이다.

**매봉재** [고개]

**[위치]** 만대저수지에서 서쪽으로, 참나무골, 감박산 남쪽을 지나 호저면 만종리 중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273m이다. 지금은 중앙고속도로가 나 길이 끊어졌다.

**명밭들** [들]

**[위치]** 송삼동 아랫말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

한다. 명밭들과 쇠경골 사이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목골 [마을]

**[위치]** 도룡산 남쪽, 도룡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무리실(茂里實) [마을]

**[위치]** 뚝내 남쪽, 만대 남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무실동의 중심마을로 마을 안에 ‘양지말’, ‘음지말’, ‘웃말’이 있었다. 위치는 이화마을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 법조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으로, 현재 방울꽃어린이공원과 푸른자연유치원, 원주무실 LH8단지아파트와 롯데시네마 건물이 있는 곳이다. ‘무실’, ‘무실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실리(무실, 무리실, 무실동)’라 하였다.

**[유래]** 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인 ‘물실, 무리실’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풀이]** ‘물+실>물실>무실’, ‘물( )실>물이실>무리실’로 변천하였다. 이를 한자로 소리를 적어 ‘茂實’, 또는 ‘茂里實’이라 하였다.

#### 무리실주막 [주막]

**[위치]** 무실동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무리실주막(茂里實酒幕)’이라고 하였다.

#### 무실(茂實) [마을] → 무리실

#### 무실동(茂實洞) [마을] → 무리실

#### 무실동유적지 [유적]

**[위치]** 현 시청자리와 동쪽 건너담 자리, 복거리골에서 발견된 유적지를 말한다.

**[내용]** 새 시청청사 건설작업, 새 중앙선 철로 공사중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유적지이다. 조선시대의 토기 및 자기편이 발견되었다.

#### 무실저수지 [못]

**[위치]** 무리실 남쪽, 봉바우골 중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법조사거리 남쪽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무실저수지 : 2019년」

#### 무실천(茂實川) [내]

**[위치]** 감박산과 배부른산에서 시작하여 무리실과 뚝내를 지나 단계동에서 모래내(沙川)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현 단계동을 중심으로 모래내 상류에 해당하는 위쪽을 ‘무실천’, 그 아래를 ‘모래내’로 불렀다. 한편 뚝내에서는 이를 ‘뚝내천’이라고 하였다.

#### 문옥골 [골]

**[위치]** 송삼동 송삼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바치배미들을 향해 난 넓은 들을 말한다. 현 대성중학교 서쪽에 있는 들이다. 문옥골 끝, 바치배미들 사이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 바른골 [골]

**[위치]** 만대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봉화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긴동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 시청 북쪽 주차장 위에 있다.

**[유래]** 마을에서 보아 오른쪽에 있으므로 바른골이라 하였다.

#### 바치배미들 [들]

**[위치]** 섬밭들 남쪽에 붙어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송삼사거리와 만대사거리에서 중앙고속도로 쪽에 있는 마을 지역이다.

**[풀이]** ‘밭+배미>밭( )배미>바티배미>바치배미’로 되었다. 밭이 많은 들이라는 뜻이다.

#### 박석고개 [고개]

**[위치]** 무리실에서 남쪽 행거리와 진억이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만대사거리에서 남서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갯길에 현 삼육초중교와 대성중교 사이의 복원로가 나 있다. 『대동지지』에 ‘박현(礪峴)’이라 하고 서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박석고기(礪石峴)’라고 하였다.

#### 박석고개 [마을]

**[위치]** 박석고개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대성중학교 자리에 있던 마을이다.

#### 박현(礪峴) [고개] → 박석고개

#### 반바우 [바위] → 개바우

#### 방골 [골]

**[위치]** 솔우물들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현 한국도로공사 남원주영업소 동쪽에서 남원주IC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동쪽으로 중앙고속도로가 나 있고 남동쪽 너머에 남송골프연습장이 있다. ‘방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방골(房谷)’이라고 하였다.

#### 밤바우 [바위]

**[위치]** 진억이와 행거리 사이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도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방골 [골] → 밤골

#### 방죽거리골 [골]

**[위치]** 양지말들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로 음지말 남쪽에 있다. 동쪽 너머에 봉바우골과 무실저수지가 있다. 현 위치는 어깨동무어린이공원, 짝지어린이공원 지역이다.

#### 배부래이 [마을]

**[위치]** 행거리 마을 중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능너메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배부른산 [산]

**[위치]** 원주시 무실동과 흥업면 경계에 위치한 높이 417.6m의 산을 말한다. ‘식악산(食岳山)’, ‘포

복산(胞腹山)’, ‘배부른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비부른산(腹飽山)’이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식악산(食岳山)’이라고 하고 ‘고을에서 서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 『원주읍지』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1872년원주목지도』에는 ‘식악산(食岳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는 ‘포복산’과 ‘배부른산’을 모두 표기하고 판제면(板梯面) 본3리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산의 모습이 임산부처럼 배가 불러보이므로 배부른산이라 부른다.

**[유래담]** 옛날 홍수가 나면 원주에서 이 산에 올라 문막의 배를 불렀기 때문에 ‘배를 부른 산>배부른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배부른산은 감박산, 봉화산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원주시의 서쪽을 가로막고 있다. 중앙고속도로의 만종터널이 이 능선을 지난다. 능선 서쪽은 흥업면과 호저면이다.



「배부른산 ; 2019년」

#### 배부른산 [산] → 배부른산

#### 병풍바우 [바위]

**[위치]** 만대 마을 북서쪽 봉화산 줄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으므로 병풍바우라 한다.

#### 복거리골 [골]

**[위치]** 진억이 개사리들 동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운향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새 중앙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내용]** 철로공사 중 조선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 복골 [마을]

**[위치]** 은행정 북쪽, 도룡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도룡골 서쪽 입구로서, 새 중앙선 철로 바로 북쪽에 붙어있다.

#### 본동(本洞) [마을]

**[위치]** 무실동의 동사무소가 있던 중심 마을을 말한다. 현 이화마을사거리 남쪽 지역이다. 대부분이 택지 및 복원로, 시청로 등의 도로에 편입되었다. ‘본부락’이라고도 하였다.

#### 본부락(本部落) [마을] → 본동

#### 봉바우(1) [바위]

**[위치]** 봉바우골 위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고개 정상, 현 용화산삼거리에 있던 바위로 시청로가 나면서 없어지고 흔적만 벼랑으로 조금 남아있다. ‘부영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부영이가 와서 올던 바위이므로 ‘부영바우>봉바우’라 하였다.

**[풀이]** 봉(鳳)이 들어가는 지명은 대개 부영이, 또는 황새와 관련되어 있는 수가 많다. ‘부영이’가 음운 축약에 의해 ‘봉’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 봉바우(2) [바위]

**[위치]** 행거리 능골 북서쪽, 배부른산 남동쪽 7부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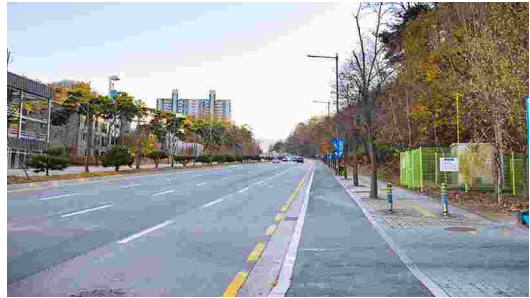
#### 봉바우(3) [바위]

**[위치]** 현 시청 서쪽, 노적봉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봉바우고개 [고개]

**[위치]** 봉바우골에서 남동쪽으로, 너더리(현 천매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마루에 용화산삼거리가 있다. ‘부영바우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부영바우고기(鵞谷峴)’라고 하였다.

였다.



「봉바우고개 : 2019년」

#### 봉바우골 [골]

**[위치]** 무리실 옷말과 음지말 사이에서 남동쪽으로, 용화산의 봉바우(1)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로 현 시청로가 나 있고, 골짜기 중간에 무실저수지가 있다. ‘부영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부영바우골(鵞岩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부영이가 올던 봉바우(1)이 있었으므로 ‘부영바우골>봉바우골’이라 하였다.

**[내용]** 현 시청사거리에서 법조사거리, 무실저수지를 지나 용화산삼거리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대부분이 도로 및 주택지로 편입되고 무실저수지만 공원으로 남아있다.

#### 봉우재 [산] → 봉화산

#### 봉화산(烽火山) [산]

**[위치]** 원주시청 북서쪽에 있는 높이 336.2m의 산을 말한다. 무실동과 단계동, 호저면 만종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줄기는 남서쪽으로 만종터널과 감박산을 지나 배부른산과 연결된다. 『조선지리지』에 ‘봉우지(烽火山)’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여기서 봉화를 올렸다고 하여 봉화산이라 부른다. 봉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다.

#### 부영바우 [바위]

**[위치]** 샘고개골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도로를 내고 개발이 되면서 없어졌다.

**[유래]** 밤에 부엉이가 내려와서 많이 울었으므로 부엉바우라 하였다.

**부엉바우고개** [고개] → 봉바우고개

**부엉바우골** [골] → 봉바우골

**비녀바우** [바위]

**[위치]** 행거리와 합포원 사이 비녀바우들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광태골 남쪽, 현 남원주폐차장 남쪽, 길옆 논에 있다.

**[유래]** 넓적한 바위에 비녀를 꽂을만한 구멍이 있어서 비녀바우라 하였다.

**[내용]** 마을에서는 개바우와 함께 행거리의 수호신으로 믿던 바위였다.

**비녀바우들** [들]

**[위치]** 합포원 윗주막거리 북동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광태골에서 내건너 남쪽에 있다.

**[유래]** 들에 비녀바우가 있으므로 비녀바우들이라고 하였다.

**사태밑에** [마을]

**[위치]** 행거리 마을 중 동쪽, 능라동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터에 현 동아제약 원주물류센터가 들어서 있다.

**삼리(三里)** [마을] → 무실리

**새골** [마을]

**[위치]** 부엉바우(1)과 뒷골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들** [들]

**[위치]** 남여산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들’이라 하였다.

**새말** [마을]

**[위치]** 박석고개 남서쪽, 송삼 마을 중간담 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삼육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말들** [들]

**[위치]** 박석고개 남서쪽, 새말 앞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삼육초등학교 서쪽에 있던 들로 도로에 모두 편입되었다.

**샘고개** [고개]

**[위치]** 진억이에서 북쪽 박석고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이마트 서쪽 구릉에 있는 고개로 지니기길이 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싱고지(生陽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고개’라 하였다.

**[유래]** 옛날 고개에 샘이 있었으므로 샘고개라 하였다.

**샘고개** [마을]

**[위치]** 샘고개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마트 동쪽의 골짜기로 현 원주구광장할인마트가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고개’라 하였다.

**샘고개골** [골]

**[위치]** 진억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끝에 샘고개가 있고 샘고개 서쪽에 박석고개가 있다. 현 이마트에서 북쪽으로, 동서식품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서곡천(瑞谷川)** [내] → 판부면 서곡리 서곡천

**서낭당고개** [고개]

**[위치]** 무실동에서 원동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옛 무리실에서 뚝내 남쪽 신촌을 거쳐 북동쪽으로 정골을 지나가던 고갯길로, 현 원주우편집중국과 평원중학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남쪽을 지나 청산사거리로 가던 고갯길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성황당고지(城隍堂)’라 하였다.

**[유래]** 고갯길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서낭당고개라 하였다.

**서른마지기구렁골** [골]

**[위치]** 송삼동에서 북동쪽으로, 바치배미들을 향하여 송삼사거리까지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부분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논밭이 서른마지기 정도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섬밭들 [들]

**[위치]** 방죽거리골 서쪽, 박석고개 북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프란체아파트 단지 남쪽 주택지역이다.

#### 성살미 [골]

**[위치]** 솔우물들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룡산과 판부면 외남송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 세실고개 [고개]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지명이다. ‘세실고기(洗茂峴)’라 하고 분3리 무리실에 있다고 하였다. 배부른산 줄기에 있다고 추정되나 현재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 소견골 [골]

**[위치]** 송삼 웃담과 아랫담 사이에서 남서쪽 배부른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쇼리기고기(鵲峴)’라고 하였다.

#### 소로물 [마을] → 솔우물

#### 소르물 [마을] → 솔우물

#### 소르물들 [들] → 솔우물들

#### 소삼 [마을] → 송삼

#### 속담 [마을] → 안말

#### 속도룡골 [골]

**[위치]** 도룡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너머에 취실골 운향사가 있다.

#### 솔우물 [마을]

**[위치]** 솔우물들 북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세영리체1차아파트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소로물’, ‘소르물’, ‘솔음물’이라고도 한다.

**[내용]** 새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솔샘초등학교’

라 하여 마을 이름을 변형하여 남겼다.

#### 솔우물들 [들]

**[위치]** 방죽거리골 입구에서 박석거리 서쪽을 지나 샘고개에 이르는 긴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골짜기 끝에 방골이 이어진다. 현 만대사거리와 남원주인터체인지 지역 및 중앙고속도로 남쪽 삼육고등학교 남동쪽까지 이어진 긴 골짜기이다.

**[내용]** 골 전체가 남원주TG, 남원주IC 등으로 편입되고 일부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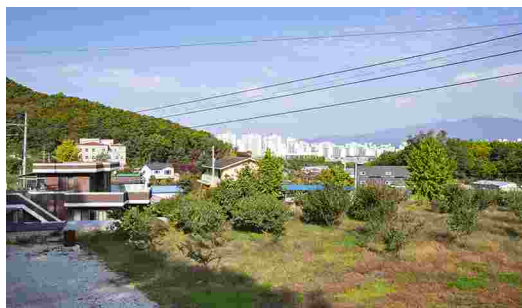
#### 솔음물 [마을] → 솔우물

#### 송삼(松三) [마을]

**[위치]** 배부른산 북동쪽 아래, 감박산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서쪽, 대성중고등학교와 대성가구단지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웃담’, ‘아랫담’, ‘넘어담’, ‘토돈네담’, ‘아랫말’, ‘중간담’ 등이 있다. ‘소삼’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삼(송삼松三)’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뒤편의 배부른산에 소나무가 울창하므로 송삼(松三)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 북쪽과 서쪽은 감박산과 배부른산 능선이 막아주고 있어서 아늑한 마을이다. 마을 앞에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가 시내 원동과 명륜동에서 각각 이전하여 와서 원주시의 새로운 학교촌이 되었다. 마을 남쪽에는 대성가구단지가 들어서 있고,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송삼 마을 ; 2019년」

### 송삼고개 [고개]

**[위치]** 송삼에서 북동쪽으로, 만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쇼삼고지(松三峴)’라고 하였다.

### 송삼저수지 [못]

**[위치]** 송삼 남쪽 위, 현 대성가구단지 북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서쪽 배부른산의 물을 모아 남동쪽의 문옥골들에 물을 댄다.

**[내용]** 1967년에 준공하였다.



「송삼저수지 ; 2019년」

### 쇠경골 [골]

**[위치]** 송삼동 아랫말 명밭들에서 북쪽 만대못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무실e편한세상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 송삼사거리에서 만종터널쪽으로 만대로가 나 있는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쇼겨골(孝經谷)’이라 하였다.

### 숫거리골 [골]

**[위치]** 팽나무들에서 북서쪽으로, 만대골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위치는 현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 지역이다.

### 식악산(食岳山) [산] → 배부른산

### 신산매골 [골]

**[위치]** 양짓말에서 북쪽 화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행거리재가 있다.

### 신선바우 [바위]

**[위치]** 배부른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

국지명총람』에 ‘신선바우’라 하였다.

**[유래담]**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고 하여 신선바우라 하였다.

### 아래무실 [마을]

**[위치]** 무실 마을 중 무실천 하류 지역의 마을을 말한다. 현 만대사거리, 시청사거리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 아래주막거리 [마을]

**[위치]** 합포원 마을 중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위에 윗주막거리가 있었다.

### 아랫담 [마을]

**[위치]** 송삼 마을 중 송삼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아랫말 [마을]

**[위치]** 송삼 마을 중 북동쪽 아래, 중앙고속도로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에 명밭들이 있다.

### 안말 [마을]

**[위치]** 진억이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속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말’이라고 하였다.

### 안산밀골 [골]

**[위치]** 공말골 북쪽, 행거리 사태밀에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고려원에서 남쪽으로, 한진택배에 이르는 곳이다.

### 앞들 [들]

**[위치]** 남여산 남쪽 서곡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앞들보 [보]

**[위치]** 앞들에 있는 서곡천의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압들보(前坪淤)’라 하였다.

### 약수터 [샘]

**[위치]** 무리실 남쪽 봉바우골에 있던 샘을 말한다.

**[내용]** 물이 좋아 옛날 고을 원님이 마시던 샘물이라고 한다.

**양지(陽地)** [마을] → 양짓말

**양지담** [마을] → 양짓말

**양지말** [마을]

**[위치]** 무리실 본동에서 서쪽 내 건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무실동주민센터와 NH농협은행이 있는 자리이다. 『조선지리지』에 ‘양지말(陽之村)’이라고 하였다.

**양지말들** [들]

**[위치]** 무리실 양지말 남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시청사거리 서쪽 상가 및 무실주공4단지아파트 지역으로, 들의 일부가 시청로에 편입되었다.

**양지촌(陽地村)** [마을] → 양짓말

**양짓담** [마을] → 양짓말

**양짓말** [마을]

**[위치]** 배부른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 ‘양지담’, ‘양지촌’, ‘양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짓말(양지촌, 양짓담, 양촌)’이라 하였다.

**[유래]** 햇별이 잘 드는 양지쪽에 있어서 양짓말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 앞으로는 서곡천이 흐르고 있어서 들이 넓게 발달하였다. 햇별이 잘 들어 한겨울에도 아늑하고 따스하다고 한다. 현 마을과 들판 사이로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양짓말앞들** [들]

**[위치]** 양짓말 남쪽 앞, 합포원 서쪽에 있는 남송천변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짓말앞들’이라 하였다.

**양촌(陽村)** [마을] → 양짓말

**영산골** [골]

**[위치]** 진억이 마을 북쪽 샘고개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도룡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현 베스트코 회사가 들어서 있다.

**오목개** [마을]

**[위치]** 아래주막거리 동쪽, 남여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목개’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오목하므로 오목개라 하였다.

**용골** [골]

**[위치]** 송삼에서 북서쪽으로, 감박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난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용골(龍谷)’이라 하였다.

**용화산(龍華山)** [산]

**[위치]** 현 법원과 검찰청 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모래리촌까지 길게 뻗은 산을 말한다. 높이 220~260m에 이르는 작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명륜동과의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판부면 서곡리와 닿아 있다.

**웃담** [마을]

**[위치]** 송삼 마을 중 서쪽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말** [마을]

**[위치]** 무리실 마을 중 봉바우골 입구의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법조사거리를 중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과 원주무실LH8단지 801~805동, 810동 지역이다.

**[유래]** 무실천이 흐르는 무리실 본동과 음지말에 비하여 동쪽 높은 곳에 있으므로 웃말이라 하였다.

**웃무실** [마을]

**[위치]** 무실천을 중심으로 배부른산 쪽의 상류지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대성가구단지 및 송삼 지역을 가리킨다.

**웃주막거리** [마을]

**[위치]** 합포원 아래주막거리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비녀바우들 남쪽의 아래 마을이다.

**은행정(銀杏亭)** [마을]

**[위치]** 마장동 북쪽, 은행정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거장아파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은행정(銀杏亭)’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가운데에 수령 350년의 두 그루의 큰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정이라고 하였다.



「은행정 마을 ; 2019년」

#### 은행정서낭 [당]

**[위치]** 은행정 마을에 있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말한다. 암서낭은 길옆에, 솟서낭은 거기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다.

**[내용]** 수은행나무와 암은행나무가 따로 떨어져 있다. 수령은 각각 350년 이상이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의 길흉을 점치는 신성한 나무로 보호되고 있는데, 전하는 말로는 옛날 판부면 서곡리 후리절의 서곡대사가 꽃아 놓은 은행나무 지팡이가 잎이 피어 현재에 이른다고 한다. 매년 동짓달 초하루에 서낭고사를 지낸다. 은행정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 두 나무에서 유래하였다.



「은행정서낭 ; 2019년」

#### 은행정저수지 [못]

**[위치]** 진억이 남동쪽, 은행정 북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재 건설 중인 역사(驛舍) 남쪽에 있다. 둔전들에 있으므로 ‘둔전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둔전저수지’라 하였다.

#### 음달담 [마을] → 음지말

#### 음지말 [마을]

**[위치]** 무리실 봉바우골 입구에 있던 마을로 양지말 남쪽, 웃말 남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무실저수지 서쪽 아래, 양지말들 남동쪽에 있었다. 현 위치는 시청사거리 남쪽, 법조사거리 남서쪽의 상가지역이다. ‘음달담’, ‘음촌(陰村)’이라고도 한다.

#### 음촌(陰村) [마을] → 음지말

#### 이촌(泥村) [마을] → 진억이

#### 이화마을(梨花--) [마을]

**[위치]** 옛 돛내지역, 구 원주시립도서관 서쪽, 원주교도소 동쪽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새로 마을을 조성하면서 마을 이름을 이화마을이라 하였다.

#### 조상거리 [마을]

**[위치]** 행거리 마을 중 사태말에 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 중간담 [마을]

**[위치]** 송삼 마을 중 문옥골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대성중고등학교 자리이다.

#### 중전들 [들] → 둔전들

#### 지니기 [마을] → 진억이

#### 지동터들 [들]

**[위치]** 송삼 웃담과 토돈네담 사이에서 서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들 입구에 약 3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다.

#### 진억이 [마을]

**[위치]** 샘고개 남쪽, 둔전들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현 이마트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니기’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이촌(泥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이촌(泥村, 지니기)’이라 하였다.

**[유래]** 땅이 매우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같은 지명으로 문막읍 취병리의 ‘진발’이 있다.

**[내용]** 마을 바로 앞에 새 중앙선 철로의 역사가 건설되고 있다.

**[풀이]** 땅이 매우 질므로 ‘진흙+(ㅣ)>진흙이>진이>진역이>지너기>지니기’가 되었다.

#### 참나무골 [골]

**[위치]** 만다골 저수지에서 서쪽으로, 매봉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앙고속도로 만종터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다리보 [보]

**[위치]** 무리실 앞에 있던 무실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큰다리보(大橋湫)’라고 하였다.

#### 탑거리들 [들]

**[위치]** 합포원 아래주막거리 남서쪽 서곡천 옆의 들을 말한다. 양짓말앞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조선지리지』에 ‘탑거리들(塔街坪)’이라고 하였다.

#### 토돈네담 [마을]

**[위치]** 송삼 웃담과 아랫말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지동터들 북쪽, 뒷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 팽나무들 [들]

**[위치]** 숫거리골 남쪽, 양짓말들 서쪽의 들을 말한다. 위치는 현 무실주공4단지아파트 지역이다. 『조선지리지』에 ‘팽나무들(樺木坪)’이라고 하였다.

#### 할미바우 [바위]

**[위치]** 만대 마을 북서쪽 노적봉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함포 [마을] → 합포원

#### 합포원(合浦院) [마을]

**[위치]** 남여산 서쪽, 양짓말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함포’, ‘합헌’, ‘합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합현(合浦院)’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합포원(合浦院)’이라 하였다.

**[유래]** 물줄기들이 합쳐지는 곳이므로 합포원이라 하였다.

**[내용]** 이 마을은 판부면 서곡리 외남송에서 내려오는 ‘서곡천’에 흥업면 매지리에서 내려온 ‘매지천’이 남여산 앞에서 합류하고, 거기에 다시 판부면 서곡리 내남송에서 흘러 내려오는 ‘남송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합포원 마을 : 2019년」

#### 합포원주막 [주막]

**[위치]** 합포원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합헌주막(合浦院酒幕)’이라 하였다.

#### 합포천(合浦川) [내] → 서곡천

**[위치]**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합포원 앞을 지나므로 여기에서는 ‘합포천’이라 부른다. 『관동지』에 ‘합포천(合浦川)’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합헌니(合浦院溪)’라고 하였다.

#### 합헌 [마을] → 합포원

#### 합헌내 [내] → 합포천, 서곡천

#### 합현 [마을] → 합포원

#### 행가리(行街里) [마을]

**[위치]** 배부른산 남동쪽 아래, 합포원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남원주가구할인단지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능골’, ‘능너메’, ‘망태골’, ‘배부래이’, ‘초상거리’, ‘사태밑에’ 등의 작은 마을들이 있다. ‘행가리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행가리(行街里)’라 하였다.

**[유래]** 마을에 큰 은행나무가 있으므로 행가리(杏街里)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양반이 많이 살고 주민들의 행실이 발라 모범이 되므로 행가리(行街里, 行佳里)라 하였다고도 한다. 효자문과 열녀문이 길가에 서 있었다고 한다.

**[풀이]** 이곳 행가리의 원래 유래는 찾기 어렵다. ‘행(杏)’자가 들어간 지명인 ‘행구동(杏邱洞)’, ‘행평(杏坪, 지정면 신평리)’ 등은 은행나무 또는 살구나무와 관련이 있다. 그런가하면 호저면 용곡리 행가리의 경우 바위벼랑을 뜻하는 ‘엉’ 또는 ‘앙’에서 ‘앙(아)리>앙아리>앙가리>앵가리>행가리’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곳은 마을의 큰 은행나무에서 이름이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래담]은 한자로 미화하여 기록한 지명을 다시 풀어쓴 것이다.

**행가리동(行街里洞)** [마을] → 행가리

**행가리서낭** [당]

**[위치]** 행가리 마을에 있는 은행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450년의 마을 당산목이다.



「행가리서낭 ; 2017년」

**행가리재** [고개]

**[위치]** 행가리에서 서쪽으로, 사제리 북거리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서쪽 고개 너머에 뒷

골(3)이 있고 북거리마을이 있다.

**호랑이굴** [굴]

**[위치]** 행가리 능골 북서쪽, 배부른산 남동쪽 7부능선에 있는 바위의 굴을 말한다.

**화봉산(華鳳山)** [산]

**[위치]** 행가리 서쪽, 북거리 북동쪽에 있는 288.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배부른산 남쪽 줄기에 있다.

## 반곡동(盤谷洞)

### [위치]

반곡동은 원주시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치악산 줄기를 경계로 판부면 금대리, 서쪽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하여 단구동, 남쪽으로는 관설동, 북쪽으로는 행구동과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흥사면(復興寺面) 이리(二里)·삼리(三里)·사리(四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유만·월운정·후동·삼보동·한가터·방묘동(方畝洞)을 병합하여 반곡리(盤谷里)라 하여 판부면(板富面)에 편입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原城郡)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원성군 판부면 반곡리가 되었다.

1973년 원주시에 편입되어 원주시 반곡동이 되었다.

### [유래]

지형이 소반처럼 생겼다고 하여 반곡(盤谷)이라 하였다.

## 가래실산 [산]

**[위치]** 서리실 북동쪽에 있는 높이 211.1m, 205.5m, 223.5m, 206.6m 등 200m급의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산을 말한다.

**[유래]** 골짜기가 여러 갈래로 많이 갈라져 있으므로 가래실산이라 하였다.

**[내용]** 이 산은 반곡동 혁신도시 지구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이곳을 대표하는 산이다. 산의 줄기가 동쪽으로는 봉대를 거쳐 치악산 줄기에 닿고 북쪽으로는 오리현천, 남쪽으로는 입춘내에 이른다. 반곡동 전체가 혁신도시로 개발되며 지형이 크게 변형되었지만 이 산은 현재 가래실공원으로 남아있다.

**[풀이]** ‘가래’는 ‘갈래(分)’의 옛말이며 ‘실’은 골짜기를 뜻한다. 이 산이 봉우리가 뚜렷하지 않고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가 흩어져 골짜기가 많으므로 ‘골짜기가 여러 갈래로 많이 갈라진 산’의 뜻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개구리봉 [산]

**[위치]** 오리현 남쪽, 옛 봉대초등학교 북쪽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을 말한다. 현 대사관 식당 앞으로 봉대길이 나 있는 곳이다.

**[유래]** 고개 모습이 마치 개구리가 엮드린 모습이므로 개구리봉이라 부른다.

## 개구리재 [고개]

**[위치]** 옛 봉대초교에서 북쪽으로, 오리현을 향해 난 개구리봉의 낮은 고개를 말한다. 현 오리현2교 쪽으로 봉대길이 나 있는 곳이다.

## 개웅정보 [보]

**[위치]** 버들만이 앞 개웅지들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웅정보’라 하였다.

## 개웅지들 [들]

**[위치]** 버들만이 마을에서 남쪽 원주천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오향골 아래, 원서터들 북쪽에

있다. 남동쪽으로는 구술골이 이어진다. 개웅지들과 원서터들 중간으로 동부순환로가 지나고 있다.

## 갱골 [골]

**[위치]** 반곡역 철도관사에서 남동쪽으로, 반곡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진골 남쪽, 검은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중간에서 검은골이 갈라져 나간다. ‘행골’이라고도 한다.

## 거란지골 [골]

**[위치]** 삼보골 양지담에서 북서쪽 구시울골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거문골(黑門洞) [골] → 검은골

## 검디버덩 [골]

**[위치]** 한가터 북동쪽, 향로봉 아래 아홉모래 중의 한 골짜기를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주민들이 나무를 하고 산나물을 뜯으러 다니던 아홉모래 중의 한 곳으로, 들이 넓다고 한다.

## 검은골 [골]

**[위치]** 갯골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반곡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미력골 북쪽에 있다. ‘거문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거문골(黑門洞)’이라고 하였다.

**[내용]** 뒷골 마을사람들이 땀감을 마련하기 위해 36명의 명의로 매입한 골짜기라 한다.

## 고대나무골 [골] → 고지나무골

## 고래실 [들]

**[위치]** 심묵골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수렁논이었으므로 고래실이라 하였다.

## 고지나무골 [골]

**[위치]** 한가터 서쪽, 풍열이골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대나무골’이라고도 한다.

## 공동묘지골 [골]

**[위치]** 구술골 끝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영서고등학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 위에 버들만이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구술골 [골]

**[위치]** 반곡동 개웅지들 위에서 남쪽으로, 현 영서고등학교 뒤편까지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동쪽으로 공동묘지골이 이어진다.

**[유래]** 골짜기 형상이 ‘구시(구유)’처럼 우묵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구시울골 [골] → 구시울골

#### 구시울 [골] → 구시울골

#### 구시울골 [골]

**[위치]** 반곡동 뒷골 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버덩말골 서쪽, 거란지골 북쪽에 있다. 현 버들초등학교 남쪽 5번 도로가 난 곳이다. ‘구시울골’, ‘구지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구시울(求是洞)’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형상이 ‘구시(구유)’처럼 우묵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구용골 [골]

**[위치]** 한가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구지울 [골] → 구시울골

#### 금두산성(金頭山城) [성]

**[위치]** 향로봉 남서쪽, 행구동 보문사 앞 산줄기와 반곡동, 판부면 금대리 금두고원에 걸쳐 있는 옛 산성을 말한다.

**[유래]** 금대리 뒤, 금두계곡 위에 있으므로 금두(金頭)산성, 금후(金後)산성이라 하였다.

**[내용]** 이 성은 금대산성(金臺山城), 금두산성(金頭山城), 금후산성(金後山城)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성과 해미산성의 이름이 혼동되고 있으나 이 성은 금대리 뒤에 있다고 하여 ‘금후산성’, ‘금두산성’, 또는 ‘금대산성’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대리에서 성으로 올라오는 계곡이 ‘금두계곡’이며 성의 안쪽에 ‘금두고원(치악평전)’이 있고 성의 동

쪽에는 황성군 강림면 부곡리의 ‘금두골’이 있기 때문이다. ‘두(頭)’는 ‘뒤’의 소리를, ‘후(後)’는 ‘뒤’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 성의 축조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축조 방식이나 유물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축이 남아있으나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고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기록에는 물을 막아 수공작전을 썼다고도 하나 지대가 높아 물이 귀하므로 믿을 수 없다. 남쪽으로는 영원산성 쪽이 잘 보인다. 성 안에는 금두고원(치악평전)으로 불리는 평탄지대가 있고, 성터에서 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 금두재 [고개]

**[위치]** 한가터 오양골에서 동쪽으로, 금두산성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금두지(金頭嶺)’라 하였다.

#### 길아재 [고개] → 길아치

#### 길아재봉 [산] → 길아치봉

#### 길아치 [고개]

**[위치]** 한가터에서 남동쪽으로, 한가터골과 널목재골을 지나 금대리 일론으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650m이다. ‘길아재’, ‘질아재’, ‘질아치’, ‘널목재’, ‘늘목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길아치(吉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길아치(吉峨峙)’라 하였다.

**[풀이]** ‘길+(ㅈ)+치>길아치>질아치’, ‘길+(ㅈ)+재>길아재>질아재’가 되었다. ‘길’은 길다는 뜻이고 ‘치’와 ‘재’는 고개를 뜻하며 ‘ㅈ’는 매개모음이다. ‘갈>질’은 구개음화에 따른 변화이다.

#### 길아치봉 [산]

**[위치]** 한가터 남동쪽, 널목재골 끝에 있는 724.3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봉우리 서쪽 아래에 길아치가 있고 동쪽 급경사 아래에는 금대리 금두계곡이 있다. ‘길아재봉’이라고도 한다.

**넬목이** [마을]

**[위치]** 넬목재골 입구에 있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 자료』에 ‘넬목이(訖目里)’라고 하였다.

**넬목재** [고개] → 길아치

**넬목재골** [골]

**[위치]** 한가터골 끝 넬목이에서 선바우골과 갈라져 남쪽으로, 길아치가 있는 673.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넬목이지(訖目嶺)’라고 하였다.

**노가지골** [골]

**[위치]** 삼보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넬목이(訖目里)** [마을] → 넬목이

**넬목재** [고개] → 길아치

**다락골** [골]

**[위치]** 한가터 터골에서 남동쪽으로 721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횃골 남쪽 위, 넬목재골 북쪽 아래에 있다.

**[유래]** 다락바우가 있어서 다락골이라고 하였다. 또는 다래나무가 많아 다락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다락바우** [바위]

**[위치]** 한가터 다락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덩말골** [골]

**[위치]** 구시울골에서 동쪽으로, 뒷골 음달말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버들초등학교 동쪽, 삼보공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둔지들** [들]

**[위치]** 원서터들 서쪽에 붙어 있는 들을 말한다. 현 관설동화훼단지에서 원주천 건너 동쪽에 있는 들이다. 원주천에서 북쪽으로 개웅지들과 연결된다. 둔지들과 원서터들 사이로 외곽순환도로가 나 있다.

**뒷골(1)** [골]

**[위치]** 반곡동 뒷골 마을이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삼생이골에서 동쪽 반곡역에 이르는 골짜기로, 현 보배사거리 동쪽 도로와 뒷골공원이 있는 지역이다.

**뒷골(2)** [골]

**[위치]** 입춘내 개울의 삼생이골 맞은편에서 가래실산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미리내사거리에서 양지뜰삼거리에 이르는 지역이다.

**[내용]** 이 골짜기는 논밭이 형성되어 있었고 가래실산을 넘는 길이 나 있었다. 현재 산 너머의 안골을 거쳐 양지배울로 이어지는 양지로가 나 있다.

**뒷골** [마을]

**[위치]** 봉대 남쪽, 반곡역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외둔지들에서 반곡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던 마을이다. 현 위치는 반곡역 서쪽 아래 달마중길을 중심으로 한 마을, 보름달어린이공원, 삼보공원, 뒷골공원지역이다. 한자로 적어 ‘후동(後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뒤설(後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이 반곡동의 동쪽, 골짜기 먼 뒤쪽인 입춘내 상류에 있으므로 ‘뒷골’이라 하였다.

**[내용]** 입춘내는 외둔지들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뱅이둑’으로, 다른 하나는 반곡역이 있는 쪽으로 물줄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반곡역 쪽의 작은 개울을 중심으로 논밭이 형성되고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를 ‘뒷골’이라고 불렀다. ‘뒷골공원’에 마을 이름을 남겼다.

**뒷골성황당** [당]

**[위치]** 옛 뒷골교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城隍之神’이라는 위패가 있었으며 1930년대까지 고사를 지냈다.

**띠아골** [골]

**[위치]** 한가터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506.4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띠아골 동쪽 건너에 무심정골이 있다.

**무네미** [마을]

**[위치]** 무네미저수지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무네미저수지 [못]

**[위치]** 한가터에 있는 저수지로 한가터골 신선천의 물을 모은다. 행구동과 경계가 되는 곳이다. ‘한가터저수지’, ‘신선납시터’라고도 한다.

**[내용]** 1940년에 준공하였다.



「무네미저수지 ; 2019년」

### 무래울골 [골]

**[위치]** 원주천과 오리현천이 합류하는 현 반곡골에서 남동쪽으로, 인터불고호텔 북쪽과 동쪽의 가래실산으로 이어지는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물이 나오는 골짜기이므로 무래울이라 하였다.

**[내용]** 이 골짜기의 상류는 현재 인터불고호텔의 골프장 전체를 거쳐 가래실산 중앙으로 우뚝하게 들어가 있다. 골짜기의 하류에는 반곡블루밍1차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남동쪽으로 인터불고호텔, 골프장, 가래실산으로 이어져 있다. 반곡중학교 앞 ‘무래울사거리’에 이름을 남겼다.

**[풀이]** ‘무래울’은 문막의 ‘무내기’나 무실동의 ‘물실>무실’과 같이 물과 관련된 지명이다. ‘물(Ⅱ)울>물애울>무래울’이 되었다. ‘울’은 ‘골·마을’을 뜻한다. ‘물골’ 또는 ‘물이 나오는 골짜기’의 뜻이다.

### 무심정골 [골]

**[위치]** 한가터골에서 동쪽으로, 480.1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띠아골과 마주보고 있다.

### 물여울 [마을] → 입춘내

### 미력골 [골]

**[위치]** 음달말 동쪽 웃골 끝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484.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반곡역 남동쪽, 검은골 남쪽에 있다.

### 반곡(盤谷) [마을] → 반곡리

**[위치]** 지금의 반곡동 전체 지역을 말한다. ‘반곡리’, ‘반곡동’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반곡리(반곡, 반곡동, 이리)’라 하였다.

**[유래]** 지역이 소반처럼 생겼다하여 반곡이라 불렀다고 한다.

### 반곡동(盤谷洞) [마을] → 반곡리

### 반곡봉(盤谷峰) [산]

**[위치]** 반곡역 남동쪽, 한가터 남서쪽에 있는 높이 506.4m의 봉우리를 말한다. 진골과 갯골, 검은골, 한가터의 호랑바우골이 모두 이 봉우리를 향하고 있다.

### 반곡역(盤谷驛) [역]

**[위치]** 뒷골 동쪽 위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역을 말한다.

**[내용]**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치악산의 별목운반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보통 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지방 역사의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으며, 근대의 서양 목조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이 장악하여 격전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영업이 개시된 1941년부터 산간지역인 이 지역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65호로 지정되었다.



「반곡역 ; 1971년」



「반곡역 ; 2010년」



「반곡역 ; 2016년」

#### 밤나무골 [골]

**[위치]** 한가터골의 현 정주사에서 남쪽으로, 높이 57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피아골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산골’이라고도 한다.

밤산골 [골] → 밤나무골

방묘동(方畝洞) [마을] → 뱅이둑

방묘천(方畝川) [내] → 뱅이둑천

방이두둑 [마을] → 뱅이둑

배나무골 [마을] → 배울

배나무골고개 [고개]

**[위치]** 배울에 있던 고개 이름이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비나무골고기(梨木洞峴)’라 하였다.

배마을 [마을] → 배울

배물 [마을] → 배울

#### 배울 [마을]

**[위치]** ‘영냉이들’을 중심으로 오리현천 좌우에 있는 마을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주로 현재의 영랑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양지배울까지의 주변 마을을 말한다. ‘배나무골’, ‘배마을’, ‘배물’, ‘이곡(梨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비울(梨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울(이곡)’이라 하였다.

**[유래]** 배나무가 많았으므로 배울이라 하였다.

#### 배울들 [들]

**[위치]** 입춘내 음달말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입춘앞들과 무래울골의 북쪽, 영냉이들 남쪽 오리현천 건너에 있는 들이다. 현 벽산블루밍2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뱅이 [마을] → 뱅이둑

뱅이두둑 [마을] → 뱅이둑

뱅이두둑들 [들]

**[위치]** 뱅이두둑 앞에 있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뱅이두둑들’이라 하였다.

뱅이두둑저수지 [못] → 뱅이둑저수지, 봉대저수지

뱅이둑 [둑]

**[위치]** ‘뱅이들’ 남쪽에 있던 뱅이둑천의 둑을 말한다.

**[유래]** 입춘내 상류 뱅이둑천의 물을 막기 위해 둑을 쌓고 그 위 둔덕에 밭농사를 지었는데 이 둔덕의 이름 ‘뱅이둑’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뱅이둑 [마을]

**[위치]** 한가터 및 반곡동 동쪽 깊은 골짜기에 있던 마을로 봉대 남서쪽, 한가터저수지 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금두생태통로 남서쪽, 금두삼거리와 황금사거리, 뱅이둑사거리에 이르는 주택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마을 안에 ‘웃담’과 ‘아랫담’이 있었다. ‘방이두둑’, ‘뱅이’, ‘뱅이두둑’이라고도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방묘동(方畝洞)’

이라고 하였다. ‘뱅이독사거리’와 ‘뱅이독수변공원’에 마을 이름을 남겼다. 『조선지리지』에 ‘방이두독(方畝)’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방묘동(方畝洞, 뱅이두독)’이라 하였다.

**[유래]** 하천 옆에 독을 쌓아 ‘뱅이독’이라 하였는데 이 이름이 곧 마을 이름이 되었다. 입춘내 상류지역인 뱅이독천 주변에 화전민들이 살면서 산과 버덩을 개간하여 밭농사를 주로 하였는데 두두룩한 밭이 둥그런 둔덕처럼 보여서 ‘뱅이두독’이라 하였다.

**[풀이]** 이곳에는 ‘방이, 뱅이, 뱅이독, 뱅이두독, 버덩이, 버덩이’ 등의 지명이 전한다. ‘뱅이’는 ‘방이’가 ‘ㅣ’모음 역행동화를 일으켜 ‘뱅이’가 된 것이므로 ‘방이두독’의 어원은 ‘방독(防川)’이다. 방천에 독을 쌓고 두두룩한 둔덕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방독’, ‘방이두독’이라 하였다. 원 지명에 나타나는 ‘버덩’, ‘버덩이’는 둔덕, 두덕과 같은 뜻이다. 『조선지리지』에는 ‘방이두독’이라 하고 한자로 ‘방묘(方畝)’라고 기록하였다. ‘方’은 ‘방이’, ‘뱅이’의 소리를 취한 것이며 ‘畝’는 밭두독, 밭이랑이라는 뜻을 적은 것이다. 즉 ‘방이+두독>방이두독>뱅이두독, 뱅이독’으로 변천하여 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독’의 의미를 지닌 ‘방이두독’이 ‘뱅이독’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정착되었고 행정명으로는 ‘방묘동(方畝洞)’이라 하였다.



「뱅이독수변공원 ; 2019년」

**뱅이독저수지 [못] → 봉대저수지**

**[위치]** 봉대 마을 남서쪽, 뱅이독 북쪽 아래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봉대저수지’라고도 한다. 혁신로의 봉두생태통로가 난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뱅이두독저수지’라 하였다.

**뱅이독천 [내]**

**[위치]** 입춘내의 상류로, 한가터 남쪽에서 뱅이독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주변에 외둔지들과 뱅이들이 있다. ‘방묘천(方畝川)’이라고도 한다. 현 ‘뱅이독수변공원’으로 조성되어 이름을 남겼다.

**뱅이들 [들]**

**[위치]** 뱅이독 남동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웃담 서쪽 아래에 있던 들이다. 들 아래에 현 금두삼거리 남동쪽의 강원혁신B1블록이 예정되어 있다.

**버덩말골 [골]**

**[위치]** 반곡동 구시울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반곡교차로 지역이다.

**[내용]** 버덩말골은 삼생이골로 이어져 입춘내와 외둔지들에 이른다. 서로 이어지는 이 두 골짜기에 도로가 넓게 개설되었다.

**버덩이 [들]**

**[위치]** 뱅이독 마을 남서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는 지역이다. ‘버덩이’라고도 한다.

**버덩이 [들] → 버덩이**

**버드만이 [마을] → 버들만이**

**버들만 [마을] → 버들만이**

**버들만이 [마을]**

**[위치]** 반곡동 남서쪽 원주천 상류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버들만이삼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혁신도시 남단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버드만이’, ‘버들만’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유만동(柳灣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유만동(柳灣洞, 버들만)’이라고 하였다.

**[유래]** 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았으므로 ‘버들만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 동쪽으로는 원주천이 흐르고 마을과 원주천 사이에 들이 넓게 형성되었다. 1910년대 『조선지리지자료』에 마을 이름은 전하지 않지만 지명이 나타나 있어서 지명만 있었거나 작은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경에 약 15호, 한국전쟁 직후는 약 30호, 2000년대에는 110호가 살았다고 한다. 마을 안에 ‘웃담(웃만이)’, ‘중간담’, ‘아랫담(아랫만이)’이 있다. 웃만이는 대부분 혁신도시 지역에 편입되었다.

#### 버들만이들 [들]

**[위치]** 버들만이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들만이들’이라 하였다.

#### 버들만이성황당 [당]

**[위치]** 버들만이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옛 반곡 관설동주민센터 옆 독에 있던 당집으로 현 동부순환로의 동부교 남동쪽 독에 있었다. ‘유만동서낭당’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유만동서낭당’이라 하였다.

**[내용]** 수령 약 200년의 갈참나무와 두 그루의 큰 소나무를 당목으로 삼은 당집이었다. 매년 음력 10월 초순에 마을의 평안을 위해 성황고사를 지냈다. 마을 전체가 혁신도시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당집과 당목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버들만이성황당 ; 2005년」

#### 벌말 [마을]

**[위치]** 삼보골 마을 중 남쪽 삼보들에 있는 집성촌을 말한다. 삼보골저수지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 봇들은 [들]

**[위치]** 서리실 앞 개울가에 있던 논을 말한다. 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는 자리이다.

#### 봉대(鳳臺) [마을]

**[위치]** 오리현 남쪽, 한가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봉대초등학교가 있던 마을로 현재 마을은 거의 다 혁신도시 지구에 편입되었다. ‘봉두(鳳頭)’, ‘봉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터(鳳臺)’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두(鳳頭, 봉대鳳臺)’라 하였다.

**[유래]** 황새쟁이들 주변으로 마을에 황새들이 많이 왔으므로 ‘봉터>봉대’라 하였다. 또는 마을의 형상이 봉황이 내려앉은 모습이라고 하여 ‘봉터>봉대(鳳臺)’, 지형이 봉황(부엉이) 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봉두(鳳頭)’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대체로 ‘봉(鳳)’이 들어간 지명은 부엉이, 또는 황새와 연관되어 있다.

**[내용]** 옛날에는 뱅이둑, 한가터와 함께 원주의 오지였으나 서리실, 뒷골, 뱅이둑 등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뱅이둑 북쪽의 봉대도 혁신도시에 편입되었다. 봉대초등학교가 원래의 자리에서 북서쪽 황새쟁이들로 옮겨가고 마을은 혁신도시 외곽지역으로 남아있다.

혁신도시에 ‘봉황사거리, 봉황길, 봉두공원, 봉황소공원, 둥지어린이공원, 봉두생태통로, 둥지생태통로’ 등에 마을 이름과 관련된 지명을 남겼다.

#### 봉대골 [골]

**[위치]** 오리현에서 남동쪽으로, 한가터 아래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봉대천이 흐르는 골짜기이다.

#### 봉대들 [들]

**[위치]** 봉대 마을 북서쪽, 봉대 마을과 봉대천 사



이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봉디들(鳳埧坪)’이라고 하였다.

#### 봉대성황당 [당]

**[위치]** 봉대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마장골 동쪽, 철길 아래 소나무 당숲에 있다.

**[내용]** 치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10여 년 전에 폐지되었다.



「봉대성황당 ; 2019년」

#### 봉대저수지 [못]

**[위치]** 봉대 마을 남서쪽, 뱅이둑 북쪽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현 혁신로의 봉두생태통로가 난 곳이다. ‘뱅이둑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뱅이두둑저수지’라 하였다.

#### 봉대천(鳳岱川) [내]

**[위치]** 향로봉 남서쪽에서 시작하여 한가터, 무네미저수지, 봉대를 지나 오리현 마을 앞에서 오리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원주혁신도시의 북쪽 경계선으로 행구동과 경계를 이룬다. ‘신선천(神仙川)’이라고도 한다.

**[유래]** 봉대(鳳臺)를 지나므로 봉대천이라 하였다.

#### 봉두(鳳頭) [마을] → 봉대

#### 봉터 [마을] → 봉대

#### 비득골 [골]

**[위치]** 한가터골의 오양골 남동쪽 위에서 남서쪽

으로 높이 447.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산제당골 [골]

**[위치]** 한가터와 뱅이둑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산신제를 지내는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산제당골이라고 하였다.

#### 산제당폭포 [폭포]

**[위치]** 산제당골 입구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 삼보골 [골]

**[위치]** 삼보골 마을 양지담에서 동쪽으로, 중앙선 철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삼보골(三寶-) [마을]

**[위치]** 버들만이 남동쪽, 뒷골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쪽은 중앙선 철로와 치악산으로 막혀 있고 남쪽은 관설동 접재로 이어진다. 마을에 ‘벌말’과 ‘양지담’이 있다. ‘삼보동’, ‘삼복골’, ‘삼부골(三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삼보골(三寶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보동(三寶洞, 삼보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이곳에는 세 가지 보물(좋은 산, 좋은 물, 좋은 인심)이 있으므로 ‘삼보골’, 부자가 세 집이 살았기 때문에 ‘삼부골(三富-)’이라 한다고도 한다. 주민들은 대개 ‘삼부골’로 부른다.



「삼보골 마을 ; 1984년」





「삼보골 마을」; 2019년

#### 삼보골고개 [고개]

**[위치]** 뒷골에서 삼보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삼부골고기(三富洞峴)’라고 하였다.

#### 삼보골저수지 [못]

**[위치]** 삼보골 마을 남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삼보들에 물을 댈다. 남쪽에 섬재저수지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보동저수지’라 하였다.



「삼보골저수지」; 2019년

#### 삼보동(三寶洞) [마을] → 삼보골

#### 삼보동저수지 [못] → 삼보골저수지

#### 삼보들 [들]

**[위치]** 삼보저수지에서 북서쪽 아래로 난 들을 말한다. 벌말 서쪽과 북쪽으로 펼쳐진 들이다.

#### 삼복골 [골] [마을] → 삼보골

#### 삼부골 [마을] → 삼보골

#### 삼부골고개 [고개] → 삼보골고개

#### 삼생이골 [골]

**[위치]** 외둔지들 남서쪽, 버덩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뱅이둑에서 내려온 물과 뒷골에서 내려온 물이 만나는 합수지점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남쪽 고개 너머에 버덩말골이 있다. 현 삼생교에서 삼생사거리에 이르는 도로가 나 있다. 혁신도시 안 삼생교, 삼생사거리 등에 이름을 남겼다.

#### 서리실 [마을]

**[위치]** 가래실산의 서남쪽 기슭, 현 인터불고호텔의 정남향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마을이 혁신도시에 모두 편입되고 서리실사거리에 이름을 남겼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서리실(盤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리실’이라 하였다.

**[유래]** 가래실산의 산봉우리 아래에 있으므로 ‘수리실>서리실’이라 하였다. 배나무와 오얏이 많아서 서리실이라 하였다고도 하나, 이는 한자로 쓴 서리실(瑞李實)을 다시 해석한 것으로 원래의 이름과는 관련이 없다.

**[내용]** 마을 북쪽으로 가래실산을 등지고 있고 남쪽 앞에는 입춘내가 흐른다. 마을은 모두 혁신도시에 편입되어 마을 가운데로 도로가 나고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들어서 있다. 마을 옆 서리실사거리에 마을 이름을 남겼다.

**[풀이]** 서리실을 한자로 ‘서리실(瑞李實)’로 쓰면서 ‘배나무와 오얏이 많아서’라고 하였으나 ‘실’은 골짜기를 뜻하는 고유어이다. 골짜기를 뜻하는 ‘실’을 과일을 뜻하는 ‘실(實)’로 쓴 결과 그 앞에 쓴 ‘리(李)’를 오얏 또는 같은 발음의 배나무(梨)로 설명하였다.

서리실은 ‘서리+실>서리실’인데 이때 ‘실’은 골짜기 또는 골짜기의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골’과 함께 널리 쓰이는 지명소이다.

‘서리’는 ①‘수리’에서 음운 변화한 것, ②겨울의 서리(霜), ③‘사이,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인 ‘서리’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의 경우 ; 서리(霜)와 관련된 지명 또는 유래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마을의 위치나 지형으로 보아 서리와는 거리가 멀다.

③의 경우 ; ‘서리’는 ‘사이,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이다. 반곡동은 입춘내를 중심으로 한 골짜기에 크게 세 개의 마을이 발달하여 있었다. 입춘내 상류에 뱅이두과 뒷골, 입춘내 하류에 입춘내 마을, 그리고 서리실은 입춘내를 따라 그 중간에 있었으므로 서리실을 ‘사이에 있는 마을’, ‘가운데 마을’로 인식했을 수 있다.

①의 경우 ; 서리실은 가래실산을 북쪽으로 등지고 남쪽에는 입춘내를 내려다보는 양지바른 곳에 있던 마을이다.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서리실을 ‘수려한 봉우리 밑’이라고 하여 가래실산을 수려한 산봉우리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래실산을 수리봉으로, 그 아래 골짜기를 수리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판부면 서곡리가 수리봉 아래에 있었으므로 ‘수리실’로 불리다가 ‘수리실>서리실>서곡(瑞谷)’으로 정착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서곡리의 ‘서(瑞)와 서리실의 ‘서(瑞)’가 일치하는 것도 그것이 같은 어원을 가졌음을 뜻한다. 이때 ‘수리’는 가장 높은 곳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수릿날, 정수리, 독수리 등에 남아있다. ‘수리’는 ‘술·수리, 설·서리, 술·소리’ 등으로 실현되어 수레너미, 수리봉(매봉, 응봉), 술개, 술치, 소리개, 소리재 등의 지명을 낳았다.

따라서 서리실은 가래실산을 높은 산이란 뜻으로 ‘수리봉’이라 보고 그 아래 골짜기를 수리실이라 하였으며, 그것이 음운 변천하여 ‘수리실>서리실’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녀바위** [바위] → 선바우

**[위치]** 선바우골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선

바우’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옛날 한가터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길동이와 선녀라는 남매가 있었다. 무척 가난하여 산나물로 연명을 하다가 어머니가 병들어 눕고 말았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남매가 울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노승이 33가지의 약초를 구해 먹이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남매는 32가지의 약초는 구했으나 바위 위에서만 자란다는 모연실이라는 약초는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선바우 위에 있는 모연실을 보고 올라갔으나 그것은 모연실을 닮은 다른 풀이었다. 남매는 실망하여 그만 벼랑에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길동이는 선녀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살았고 선녀만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는데, 딸 선녀를 못 잊어 매일같이 바위에 가서 울다가 죽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선바우를 선녀바우라고 불렀다.

**선바우** [바위]

**[위치]** 선바우골 정상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선녀바우’라고도 한다.

**선바우골** [골]

**[위치]** 한가터골 끝에서 널목재골과 갈라져 남서쪽 574.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풍열이골 남쪽에 있다. 골 남서쪽 산 너머로 관설동 큰숫둔골로 이어진다. ‘큰선바우골’과 ‘작은선바우골’이 있다.

**[유래]** 골짜기 위 정상 능선에 큰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우골이라고 한다.

**술무정** [마을]

**[위치]** 개구리봉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오리현과 뱅이두독 사이의 나즈막하고 좁은 능선이 마치 큰 구렁이가 구불거리며 개구리봉을 향해 입을 벌리고 쫓아가는 형국이라 하여 술무정이라 한다. 술무정은 양지바르고 아늑하여 살기 좋으나 지형이 구렁이가 개구리를 삼켜버리는

형국이므로 재산을 모을 수 없어 곧 망한다고 한다.

#### 수박골 [골]

**[위치]** 검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검은골을 지나 나무를 하러 다니던 골짜기이다.

#### 수원지들 [들]

**[위치]** 입춘내 마을 서쪽, 입춘앞들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서 있다.

#### 신선납시터 [못] → 무네미저수지

#### 신선천(神仙川) [내] → 봉대천

#### 신월운정(新月雲亭) [마을]

**[위치]** 월운정 북쪽, 입춘내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월운정 옆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신월운정 마을 ; 2019년」

#### 실봉 [산] → 소초면 학곡리 비로봉

**[내용]** 치악산 비로봉의 다른 이름이다. 이곳에서는 비로봉을 ‘시루봉’, ‘실봉’이라 하였다.

#### 심목골 [들]

**[위치]** 서리실 아래에 있던 들을 말한다. ‘고래실’이라고도 한다.

#### 아랫담 [마을] → 아랫만이

#### 아랫만이 [마을]

**[위치]** 반곡동 벼들만이 마을 중 서쪽 아래. 원주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담’이라고도 한다.

#### 아홉고개 [골] → 아홉모래

#### 아홉골 [골] → 아홉모래

#### 아홉모래 [고개] [골]

**[위치]** 향로봉 아래에 있는 아홉골, 아홉고개를 말한다.

**[내용]** 한가터 사람들이 향로봉 쪽으로 햇동재를 지나 나무를 하고 산나물을 뜯으러 다니던 골짜기들이다. 산과 골이 아홉 개라는 뜻으로 ‘탐산거리’, ‘검디버덩’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아홉골’, ‘아홉고개’라고도 한다.

**[풀이]** ‘아홉모래’를 ‘아홉고개’, ‘아홉골’이라고도 하므로 ‘모래=고개=골’, 즉 여기에서의 ‘모래’는 산(고개)을 뜻하는 옛말 ‘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몰’은 단계동의 ‘모래내’, 관설동·귀래리·운남리·신평리 등의 ‘모래재’에 남아있다.

#### 안골(1) [골]

**[위치]** 음달배울 앞 앞산들에서 남쪽으로, 가래실 산 서쪽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안골(2) [골]

**[위치]** 황새쟁이들 가운데에서 남쪽으로, 가래실산 사이를 지나가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남쪽 너머는 가래실산 남쪽의 뒷골이다. 현재 이 골짜기를 따라 오리현천교 앞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황새쟁이사거리를 지나 안골생태통로에 이르는 양지호가 나 있다.

**[내용]** 골짜기 끝에 해당하는 곳에 안골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이름을 남겼다.

#### 암물 [샘]

**[위치]** 음달배울에 있던 샘을 말한다. 물이 하얗다고 한다.

#### 앞산들 [들]

**[위치]** 영랑이들 남동쪽, 오리현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이 들에서 가래실산으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안골(1)이며 동쪽으로는 황새쟁이들이 이 어진다.

**양지담** [마을]

**[위치]** 삼보골 마을 중 북쪽 삼보골 골짜기 아래 양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연애골** [골] → 혼인골

**열녀문(烈女門)** [정문]

**[위치]** 뒷골에 있던 최씨의 열행을 표창한 정문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열녀문(烈女門)’이라 하였다.

**영랑천(永浪川)** [내] → 오리현천

**오리현천(梧里縣川)** [내]

**[위치]** 향로봉에서 시작하여 보문사, 국형사가 있는 고문골을 거쳐 오리현에서 봉대천을 합류하고 너르내에서 화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행구동과 반곡동의 경계가 되는 내이다. ‘영랑천’이라고도 한다.

**[유래]** 이 내를 영랑이 앞을 흐르므로 ‘영랑천’으로 부르기도 하고 오리현 앞을 지나므로 ‘오리현천’으로 부르기도 한다.

**오양골** [골]

**[위치]** 한가터골, 무네미저수지 남동쪽 위에서 동쪽으로, 향로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오양골폭포** [폭포]

**[위치]** 오양골 입구에 있는 높이 약 15m의 폭포를 말한다. 오양골 입구 카페 그란지 북서쪽 계곡에 있다.

**오향골** [골]

**[위치]** 개웅지들에서 북동쪽 버들만이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버들만이삼거리 지역이다.

**왕상목들** [들] → 왕성목들

**왕상목저수지** [못] → 왕성목저수지

**왕성목들** [들]

**[위치]** 버들만이 북동쪽, 왕성목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진대울삼거리 동쪽 도로

교통공단본부가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왕상목들’이라고 하였다. 왕성목소공원에 이름을 남겼다.

**왕성목저수지** [못]

**[위치]** 버들만이 북서쪽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왕성목들에 물을 댔다. 현 도로교통공단본부가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왕상목저수지’라 하였다.

**왕성묘지골** [골]

**[위치]** 반곡동 버들만이 아랫담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왕성목소공원과 LH3단지아파트에 있던 골짜기이다.

**외둔지들** [들]

**[위치]** 뱅이둑에서 내려오는 입춘내 양 옆에 있던 들을 말한다. 뱅이들 아래쪽에서 시작하여 두 물줄기가 합수되는 삼생이골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들이다. 현 두물삼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다.

**웃골** [골]

**[위치]** 반곡역 남쪽의 음달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로 미력골이 이어진다.

**웃담(1)** [마을]

**[위치]** 뱅이둑 마을 중 동쪽 높은 곳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뱅이들 동쪽 위에 있던 마을이다. 위치는 현 금두삼거리 동쪽, 강원혁신B1블록 예정지구이다.

**웃담(2)** [마을] → 웃만이

**웃만이** [마을]

**[위치]** 버들만이 마을에서 남서쪽 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웃만이소공원 자리에 있던 마을이다. ‘웃담’이라고도 한다. ‘웃만이소공원’에 이름을 남겼다.

**원서터들** [들]

**[위치]** 반곡동 개웅지들 남쪽 원주천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버들만이삼거리 남쪽, 옛 반곡관 설동주민센터 동쪽과 남쪽에 펼쳐져 있던 넓은 들이다. 현재 복합시설단지가 들어서 있다.

#### 월운정(月雲亭) [누정]

**[위치]** 반곡동 38사단 안, 앞동산에 있는 정자를 말한다.

**[유래]** 1970년 38사단장 최모 준장이 옛 월은정 터에 남아있던 주초석을 이용해 정자를 짓고 월운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월운정 : 2019년」

#### 월운정(月雲亭) [마을]

**[위치]** 입춘내 남쪽, 단구동 옛 관터에서 봉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월운정(月雲亭)’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단구동 흥판서의 소실인 월은(月隱)이라는 기생이 놀던 정자 월은정(月隱亭)이 있었으므로 ‘월은정>월운정’이 되었다.

**[내용]** 질그릇, 문창호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도자기 공장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입춘내에도 용기공장이 있었다.



「월운정 마을 : 2019년」

#### 월운정독 [독]

**[위치]** 월운정 마을 앞에 있는 원주천의 독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월운정제방’이라고 하였다.

#### 월운정보 [보]

**[위치]** 월운정 마을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월운정보’라고 하였다.

#### 월은정(月隱亭) [누정]

**[위치]** 옛 단구역에서 동쪽 원주천 건너, 현 월운정 마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자를 말한다.

**[내용]** 『여지도서』 『관동지』에 고을 동쪽 7리 단구천(丹丘川)가에 있으며 터만 남아있다고 하였다. 옛 지리지에 단구역이 5리 또는 7리로 나오므로 월은정의 위치는 현 월운정 마을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판서를 지낸 홍중효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원주에 돌아와서 ‘월은(月隱)’이란 기생에게 정자를 지어주고 이름도 ‘월은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홍 판서와 월은이 죽은 뒤 후손들이 정자를 헐어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현 단구동 홍유성 씨의 집 행랑채라고 전한다.

#### 유만동(柳灣洞) [마을] → 버들만이

#### 유만동서낭당 [당] → 버들만이성황당

#### 음달말(1) [마을]

**[위치]** 뒷골 남동쪽, 반곡역 남서쪽, 중앙선 철로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 현재 ‘음달말소공원’이 있다. 소공원에 이름을 남겼다.

**[유래]** 동쪽은 중앙선 철로와 치악산으로 막혀있고 남쪽은 삼보골로 이어지는 산으로 막혀있어서 응달이 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음달말(2) [마을] → 음달배울

#### 음달말(3) [마을]

**[위치]** 입춘내 마을 북동쪽, 영녕이들 남쪽 오리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벽산블루밍2차 아파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남쪽이 높이 160m의 산으로 막혀있어 응달이 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음달배울 [마을]

**[위치]** 양지배울 남서쪽으로 영랑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위치는 배울사거리 북동쪽 아래, 원주여자고등학교 동쪽 아래이다. ‘음달말’, ‘음지배울’이라고도 한다.

**[유래]** 남쪽이 산으로 막혀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쪽이 가래실산, 배울생태통로 등으로 막혀 있고 지대가 낮아 응달이 지는 곳이다.

음지배울 [마을] → 음달배울

이리(二里) [마을] → 반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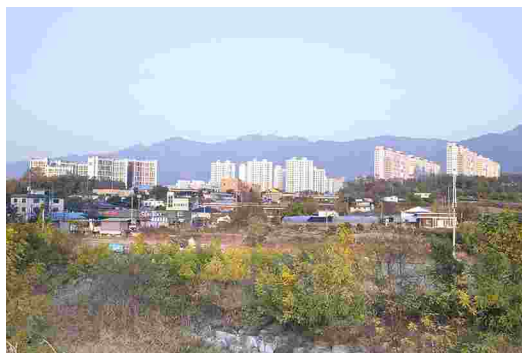
#### 입춘내(立春內) [마을]

**[위치]** 반곡동에서 북서쪽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주천과 번재천, 오리현천이 합류하는 곳에 발달한 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입춘천’, ‘물여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입춘내(立春川)’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입춘천(立春川)’이라 하였다.

**[유래]** 입춘단(立春壇)이 있으므로 마을 이름을 입춘내라 하였다. 또는 지형이 아주 따뜻한 곳이어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이므로 입춘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원래의 마을은 남아있지만 주변 들판은 모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서 마을이 포위된 형국이다. 마을 동쪽 무래울사거리까지 혁신도시로 개발되어서 남은 마을 지역도 곧 원래의 모습을 잃을 운명이다.

**[풀이]** ‘입춘단(立春壇)’이 있었으므로 ‘입춘단이 있는 내, 또는 들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입춘내’라 하였다. ‘내’는 내(川), 또는 들(壤)을 뜻하는 옛말이다. 여기에서는 큰 내가 합쳐지는 곳에 들도 넓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내(川)로 통용되고 있다.



「입춘내 마을 ; 2019년」

#### 입춘단(立春壇) [제단]

**[위치]** 영랑촌에 있던 제단을 말한다.

**[내용]** 5칸의 기와집으로 사방에 흙돌담을 치고 동쪽으로 문을 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 ‘고을 동쪽 4리 영랑촌에 있다. 이 지방의 특유한 풍속으로 입춘 날에 흙으로 소를 빚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였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방 수령이 제주가 되어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시작되고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 입춘들 [들]

**[위치]** 입춘내 남쪽, 월운정 동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들의 대부분이 군부대에 편입되었다.

#### 입춘앞들 [들]

**[위치]** 입춘내 마을 북서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입춘앞들 아래 부분에는 벽산블루밍 1차2차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서 있다.

**[내용]** 동쪽에 무래울골이 있고 북쪽에는 오리현천과 번재천, 서쪽은 원주천이 흐르면서 들 북서쪽 아래에서 모두 합류한다. 하천이 모두 합류하는 이곳에 넓은 들이 발달하여 ‘너르내’, ‘영냉이들’, ‘배울들’, ‘입춘들’, ‘입춘앞들’이 펼쳐있다.

#### 입춘천(立春川) [내]

**[위치]** 뱅이두둑의 뱅이둑천과 뒷골의 내가 합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며, 서리실과 입춘내를 지나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현 원주혁신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다.

**입춘천**(立春川) [마을] → 입춘내

**입춘천양어장** [못]

**[위치]** 입춘내 앞, 원주천 옆에 있던 양어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입춘천양어장’이라 하였다.

**작은선바우골** [골]

**[위치]** 한가터 선바우골 중 서쪽으로, 5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암골** [골]

**[위치]** 반곡역 철도관사에서 남동쪽으로, 27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갭골 서쪽 아래, 미력골 북쪽에 있다.

**중간담** [마을]

**[위치]** 버들만이 마을 중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옷만이소공원 북서쪽 도로 건너 무항사가 있는 마을이다.

**진골** [골]

**[위치]** 한가터골 입구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인 산돌자연학교가 들어서 있다.

**진대울** [들]

**[위치]** 진대울골에 있던 들을 말한다. ‘짬대월’, ‘천수바래기’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진대울(陳垔坪)’이라고 하였다.

**진대울골** [골]

**[위치]** 버들만이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버들만에서 진대울삼거리를 거쳐 서리실사거리에 이르는 동부순환로 옆 골짜기로, 들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다. ‘진대울삼거리’에 이름을 남겼다.

**질아재** [고개] → 질아치

**질아치** [고개] → 질아치

**짬대월** [들] → 진대울

**천수바래기** [들] → 진대울

**[유래]** 천수답이었으므로 천수바래기라 하였다.

**초당거리** [학교]

**[위치]** 뒷골의 마을회관 위쪽에 있던 임시 서당을 말한다.

**[유래]** 학동들이 여름 더위를 피해 풀집을 만들어 공부를 하였으므로 초당거리라 하였다.

**큰산** [산] → 큰재

**큰선바우골** [골]

**[위치]** 한가터 선바우골 중 남서쪽으로, 574.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재** [산]

**[위치]** 향로봉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큰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한가터 주민들이 나무를 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던 향로봉을 ‘큰재’, ‘큰산’이라고 하였다.

**탐산거리** [골]

**[위치]** 향로봉 서쪽 아래 아홉모래 골짜기 중 하나이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터골** [골] → 한가터골

**풍열이골** [골]

**[위치]** 한가터골 터골 남쪽 위에서 서쪽으로, 높이 57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고지나무골이 갈라져 나간다.

**학바우** [바위]

**[위치]** 버들만이 남쪽, 원주천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학바우’라 하였다.

**[유래]** 학이 날개를 펴고 엮드린 것처럼 생겼으므로 학바우라 하였다.

**학바우들** [들]

**[위치]** 버들만이 남쪽 학바우가 있는 곳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학바우들(鶴岩坪)’이라고 하였다.

**학바우보** [보]

**[위치]** 학바우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淤)를 말한다. 학바우들, 버들만아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학바우보’라 하였다.

**한가대(韓加垓, 漢加垓)** [마을] → 한가터

**한가터** [마을]

**[위치]** 봉대 남동쪽 위 한가터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일대(一垓)’, ‘한가대(韓加垓)’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한가터(汗哥垓)’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가대(漢加垓, 한가터)’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의 넓은 터에 마을이 있으므로 ‘넓고 큰 터’의 의미로 ‘한+터>한터’가 되었다. 예전 한씨의 집성촌으로 큰 부자가 살았다고도 전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99호가 살았다고 하며 곡식이 잘 되어서 ‘작은 북간도’라고 불렸다고도 한다.

**[내용]** 무네미저수지 남동쪽 위로 길게 이어진 골짜기 곳곳에 마을이 있었다. 주 계곡인 한가터골 남쪽과 동쪽 8부 능선에까지 화전을 하고 산 옛 집터와 밭터가 남아있다.

**[풀이]** ‘한’이 ‘一’, ‘韓’, ‘漢’, ‘汗’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한’의 소리를 음차한 것으로서, 한씨 집성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골짜기 안의 넓은 터에 마을이 있으므로 ‘넓고 큰 터’의 뜻으로 ‘한+터>한터’가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한’을 ‘하나’로 보아 ‘일대(一垓)’, 소리를 음차하여 ‘韓, 漢, 汗’으로 적었다. ‘한가터’는 ‘한터’에 매개모음이 들어가 음운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한가터골** [골]

**[위치]** 한가터 무네미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터골’이라고도 한다.

**한가터봉** [산]

**[위치]** 한가터 다락골 동쪽 끝에 있는 704.4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봉우리 남서쪽에 길아치가 있고 동쪽 아래는 판부면 금대리 치악골이 있다.

**한가터성황당** [당]

**[위치]** 한가터골 중간 헛골 입구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현 정주사 동쪽 길옆에 터가 남아있다.

**[내용]**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시멘트와 슬레이트로 지은 당집이 있었으나 약 10여 년 전에 폐지되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한가터저수지** [못] → 무네미저수지

**햇동재** [골]

**[위치]** 향로봉 아래, 아홉모래(아홉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햇동재’라고도 한다.

**행골** [골] → 갯골

**호랑바우** [바위]

**[위치]** 호랑바우골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우묵한 굴처럼 생긴 바위로, 옛날에 여기서 호랑이가 새끼를 쳤으므로 호랑바우라고 하였다.

**호랑바우골** [골]

**[위치]** 한가터 띠아골에서 남서쪽으로, 반곡봉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 안에 호랑바우가 있으므로 호랑바우골이라 하였다.

**혼인골** [골]

**[위치]** 한가터 정주사 남동쪽, 다락골 입구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연애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로 둘러싸인 좁고 은밀한 곳으로 연애하기 좋다고 하여 연애골, 연애를 하여 혼인을 하므로 혼인골이라 하였다.

**화채바우** [바위]

**[위치]** 검은골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뒷골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이 바위를 흔들면 일주일 이내에 비가 왔다고 한다.

**황새쟁이들** [들]

**[위치]** 가래실산 북쪽, 오리현교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 푸른숨9단지아파트와 부영8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황새쟁이사거리’와 ‘황새쟁이소공원’에 이름을 남겼다.

**[유래]** 황새가 많이 찾아오는 들이므로 황새쟁이 들이라고 하였다.

**햇동재** [골] → 햇동재

**횃골** [골]

**[위치]** 한가터 터골 정주사 앞에서 동쪽으로 높이 725.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에서 회를 켜므로 횃골이라 하였다.

**후동(後洞)** [마을] → 뒷골

## 봉산동(鳳山洞)

### [위치]

봉산동은 원주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4.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행구동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태장동 및 봉천을 경계로 하여 평원동·원인동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개운동과 행구동, 북쪽으로는 태장동과 소초면 흥양리와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 일리(一里)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화시래의 이름을 따라 본부면 화천리(花川里)라 하였다.

1937년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면서 봉산(鳳山)의 이름을 따서 봉산정(鳳山町)이 되었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고쳐 부르면서 원주읍 봉산동(鳳山洞)이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시(原州市) 봉산동이 되었다.

### [유래]

봉산(鳳山)이 있으므로 산의 이름을 따라 봉산동이라고 하였다. 처음 화시래의 이름을 따서 화천리(花川里)라 하다가 1937년 봉산의 이름을 따서 봉산정(鳳山町)이 된 후 봉산의 이름이 통용되고 있다.



## 개구리봉 [산]

**[위치]** 모래기철교 동쪽에 있는 203m의 산을 말한다. 못골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있다.

## 개랑고개 [고개] → 개륜고개

## 개랑골 [골] [마을] → 개륜골

## 개론골 [골] [마을] → 개륜골

## 개륜고개 [고개]

**[위치]** 개륜골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개륜골에서 북쪽으로, 번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개랑고개’, ‘개릉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기론고기(開論谷)’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개릉고개’라 하였다.

## 개륜골(1) [골]

**[위치]** 현 봉산동성당에서 북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봉산 동쪽의 가장 큰 골짜기이다. 골 너머에 태장동 ‘육판바우골’이 있다. ‘개랑골’, ‘개론골’, ‘개릉골’, ‘개운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기운골(開雲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개릉골’이라 하였다.

## 개륜골(2) [골]

**[위치]** 아래화실 서쪽 옛 중앙선철로에서 북서쪽 181.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너머에 개륜골(1)이 있다.

## 개륜골 [마을]

**[위치]** 개륜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천사들의 집 동쪽에 있다. ‘개랑골’, ‘개론골’, ‘개릉골’, ‘개운골’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므로 ‘개랑골’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지형이 개가 누워있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어원이 불분명한데 ‘개랑골·개론골·개릉골·개륜골·개운골’ 등의 비슷한 이름으로 실현되었다.

## 개륜골봉 [산]

**[위치]** 봉산 북동쪽, 개륜골 북쪽 끝에 있는 높이 217.6m의 산을 말한다. 살대울 서쪽에 있다. 산 북서쪽 아래에 육판바우골이 있고 북동쪽 능선 아래에 아리랑고개가 있다. 태장동과 봉산동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 개릉고개 [고개] → 개륜고개

## 개릉골 [골] [마을] → 개륜골

## 개운골 [골] [마을] → 개륜골

## 거름터골 [골]

**[위치]** 살대울 마을 동쪽에서 모래기천을 따라 북동쪽으로, 고재골 입구까지 난 골짜기를 말한다. 모래기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 있다.

## 고재골 [골]

**[위치]** 모래기천 철교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유교역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철길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다.

## 골밖에 [산]

**[위치]** 모래기철교 남쪽, 고재골 북동쪽의 못골 입구에 있는 193.7m의 야산을 말한다.

**[유래]** 못골 마을 밖에 있으므로 ‘골밖에’라고 부른다.

## 공기터골 [골]

**[위치]** 향문터 번재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 북쪽에 붙어있다.

## 광천(廣川) [내] → 너르내

## 구석정(龜石亭) [누정]

**[위치]** 봉산 남쪽 기슭, 원주천 옆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은와(隱窩)’, ‘은휴와(恩休窩)’라고도 하였다. 『여지도서』에 고을 동쪽 2리쯤의 봉산 기슭에 있는데 그 아래로는 봉천이 빙빙 돌며 흐른다고 하였다.

**[유래]** 거북처럼 생긴 바위 위에 정자를 세웠으므로 구석정이라 하였다.

**[내용]** 1640년에 신상(申恂)이 지었다고 한다. 관

찰사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이 지은 기문에 ‘동양 신상이 원주의 동천 위쪽에 아담한 정자를 지어 놓고 그 정자의 이름을 은휴(隱休)라 하였기에 이에 기문을 짓는다. … 일산(一山)이 양 날개를 편 남쪽에 돌을 묶어 세웠고 돛대와 입암(立岩)이 서로 대하고 있는 곳이 봉산의 주촌(舟村)이다. 물이 영원(領原)에서 나와 백운(白雲) 서북에서 합수하여 이것이 구비치고 감돌아 단구역(丹邱驛) 아래서 구부러져 향교 사당(射堂) 사이를 감돌아 고을의 북쪽에서 큰 강으로 흘러들었으니 이것이 동천(東川)이다.’라고 하였다.

#### 구정(龜亭, 九亭) [마을]

**[위치]** 봉산동 당간지주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정(九亭)’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정(九亭)’이라 하였다.

**[유래]** 당간지주 아래 벼랑에 거북이와 같은 넓은 바위가 있어 구정이라 하였다. 100년 전만 하여도 강물이 당간지주 아래를 휘돌아 나갔다고 한다.



「구정 마을 : 2019년」

#### 궁실(弓失) [마을] → 화시래

#### 궁실천(弓失川) [내] → 화천

#### 궁위전(弓位田) [마을] → 살대울, 화실

#### 기와집담 [마을] → 제집담

#### 나무전거리 [장]

**[위치]** 우물시장 옆 나무를 팔던 장터를 말한다. 원주천을 가운데 두고 양 강둑에서 나무를 팔았는데

강 서쪽은 옛 분수대, 현 원주교오거리 주변 강둑이었다고 한다.

#### 나흘가리들 [들]

**[위치]** 잣나무골 남쪽, 황문터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들이 넓어서 밭을 가는데 4일이나 걸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너르내 [들] → 행구동 너르내

#### 높은배골 [골]

**[위치]** 못골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5번 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능곡(陵谷) [골] → 능골(1)

#### 능곡동(陵谷洞) [마을] → 능골

#### 능골(1) [골]

**[위치]** 번재 능골 마을 북동쪽, 송문산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들이 형성되어 있다. 작두골과 마주보고 있다. 골짜기 끝 산 너머에 강원과학고등학교와 하우고개가 있다.

#### 능골(2) [골]

**[위치]** 모래기 마을 앞에서 북서쪽 뒷골고개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 고개 아래 길을 따라 들로 형성되어 있다.

#### 능골 [마을]

**[위치]** 번재 마을 북쪽, 송문산 유새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번재저수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능골(陵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능골(능곡동陵谷洞)’이라 하였다.

**[유래]** 이 마을에 정공, 정흥 등의 묘가 많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후기에 왕릉을 보기 위해 다녀갔다고 하나 근거는 없다.

#### 능골봉 [산]

**[위치]** 모래기 용내미골 북쪽, 황골 흥양 남쪽에 있는 높이 342m의 산을 말한다. 산 북동쪽 너머에

흥양리 큰쇠파니골이 있다.

#### 능골성황당 [당]

**[위치]** 능골 마을 작두골 앞 도로 옆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작은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큰 소나무 한 그루를 당목으로 삼은 당집이 있다. 매년 음력 10월에 고사를 지낸다. 황문터에 있는 번재성황당을 ‘큰당’, 이 당을 ‘작은당’이라고 부른다.

#### 늦달골 [골]

**[위치]** 살대울성황당에서 남동쪽으로, 윗화시래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늦달골(晩月洞)’이라 하였다.

#### 당간지주(幢竿支柱) [유적]

**[위치]** 원주초등학교 남쪽, 개봉교 북쪽 건너 원주천 옆에 있는 당간지주를 말한다. ‘등때’, ‘짐대’라고도 한다. 『조선환여승람』에 원주면 화천리(花川里) 주촌(舟村)에 있다고 하고 고려 초에 건설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간지주(幢竿支柱, 등때, 짐대)’라 하였다.

**[내용]** 당간지주가 있는 곳은 신라 말의 사찰인 옛 천왕사터(天王寺-)이다. 1910년 이전에 한쪽 지주가 부러져 있던 것을 1980년에 복원하였다. 형식과 조성 수법으로 보아 고려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당간지주가 옛날에 사형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9호이다.



「봉산동 당간지주 : 2019년」

#### 당골 [골]

**[위치]** 살대울 양지담의 새들에서 북쪽으로, 번재철교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당골 위로 큰당골이 이어진다.

**[유래]** 황문터에 번재성황당이 있으므로 당골이라 하였다.

#### 동부시장(東部市場) [장] → 우물시장

#### 동천(東川) [내] → 원주천

#### 두덕골 [골] → 두태골

#### 두리봉 [산]

**[위치]** 번재 능골에 있는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둘이봉(斗里峰)’이라 하였다.

#### 두태골 [들]

**[위치]** 살대울 마을 거름터골에서 남서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살대울성황당 동쪽에 있는 들이다. ‘두덕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두터씨(杜德坪)’라 하였다.

#### 뒷고개 [고개]

**[위치]** 능골 마을 남동쪽 아래 뒷골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모래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에 ‘뒤고기(後峴)’라 하였다.

#### 뒷골 [골]

**[위치]** 번재 능골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뒷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등때 [유적] → 당간지주

#### 로아노크광장 [광장]

**[위치]** 당간지주 남동쪽 봉천 강변에 있는 광장을 말한다.

**[유래]** 미국 로아노크시와 원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만든 광장이다.

#### 마산(馬山) [산]

**[위치]** 유암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190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마산(馬山)’이라 하였다.



「마산」; 2019년

### 마산머리 [모롱이]

**[위치]** 옷화실 마산 남동쪽, 유암 마을 남쪽에 있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유래]** 마산의 끝자락으로 큰 바위로 된 길모퉁이므로 마산머리라 하였다.

**[풀이]** ‘마산+머리>마산머리’인데 ‘머리’는 모퉁이를 뜻하는 ‘모롱이>모리>머리’로 음운 변천한 말이다.

### 며느리봉 [산]

**[위치]** 모래기저수지 북동쪽 위에 있는 301.6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봉산동과 소초면 흥양리의 경계에 있는 봉우리이다.

**[전설]** 옛날 이곳에 인색하고 심술궂은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 부자 노인이 탁발하러 온 스님에게 외양간의 똥을 퍼주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얼른 쌀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몰래 중을 쫓아가 시주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며칠 후 뇌성벽력이 치며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때 스님이 겁에 질린 며느리의 손을 잡고는 그대로 산을 향해 뛰었다. 산중턱에 이르러 스님은 며느리에게 부처님께서 시아버지를 벌주는 것이니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천둥 벼락으로 산봉우리가 하나씩 무너지고 부잣집은 깊은 물속에 잠겼는데, 땅속에 살고 있던 용이 승천하는 것이 보였다. 집안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돌이 되었다. 이후 며느리가 홍수를

피한 산을 며느리봉, 용이 승천한 곳을 용터지리라 불렀다.

**모내기천 [내] → 모래기천**

**모락(毛樂) [마을] → 모래기**

**모래개천 [내] → 모래기천**

**모래기 [마을]**

**[위치]** 능골 마을 남동쪽 아래, 못골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으로 5번 외곽순환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자로 소리를 적어 ‘모락(毛樂)’, ‘모약동(毛藥洞)’이라고 하였다. ‘용내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모락이(毛樂里, 毛藥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모래기(모락毛樂, 모약동毛藥洞)’, ‘용내미’라 하였다.

**[유래]** 산의 골짜기에 있는 산마을이란 뜻이다.

**[유래담]** 마을 중심에 있는 모래기들에 모래가 많았으므로 모래기라 하였다고 한다. 땅이 척박하였는데 모래기저수지가 생기고 물을 공급하게 되어 옥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풀이]** 모래기는 산을 뜻하는 ‘몰’에 ‘기’가 결합하여 ‘몰+기>몰기>몰(卜)기>모라기>모래기’가 된 것이다. ‘몰’은 ‘모래내’, ‘모래재’에서처럼 ‘높은 곳(高), 산(山)’의 뜻이고 ‘기(己)’는 ‘지(只)’와 같이 ‘곳’, ‘장소’, ‘마을’에 붙는 지명소이다. 따라서 ‘모래기’는 ‘산마을’의 뜻이다. 소초면 교항리의 ‘모래기’도 같은 이치이다. 한자 지명 ‘毛藥里’는 ‘모래기(毛藥里)’에 마을에 약수가 있으므로 후대에 고쳐 쓴 것이다.

**모래기들 [들]**

**[위치]** 모래기 마을 남쪽에서 북서쪽 모래기저수지까지 이어진 들을 말한다.

**모래기성황당 [당]**

**[위치]** 모래기 마을 동남쪽, 못골 북쪽 고갯길 정상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모래기 마을과 못골 마을 주민이 당고사를

지내왔지만 지금은 모래기 마을 주민들만 매년 동짓달 10일 안으로 길일을 택해 당고사를 지낸다. 모래기 마을과 못골 마을 사람들이 성황당이 있는 산길을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 모래기약수 [샘]

**[위치]** 모래기저수지 남쪽, 현 약사암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약수암약수(藥水岩藥水)’라 하였다.

**[내용]**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온다. 이 샘이 있으므로 모래기를 ‘모락(毛樂)’에서 ‘모약(毛藥)’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 모래기재 [고개]

**[위치]** 모래기에서 북동쪽으로, 황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살대울모래기길이 나 있다. 고개 높이는 255m이다.

#### 모래기저수지 [못]

**[위치]** 모래기 마을 동쪽 산 아래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모래기들에 물을 댄다. 저수지 서쪽, 마을과의 사이에 5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용내미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용내미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1963년에 준공하였다.

#### 모래기천 [내]

**[위치]** 모래기 동쪽 계곡에서 시작하여 모래기저수지를 지나고 남서쪽으로 흘러 살대울 앞에서 번재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모내기천’, ‘모래개천’이라고도 한다.

#### 모래기철다리 [다리]

**[위치]** 모래기천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다리를 말한다. 살대울과 못골 사이에 있다.

#### 모약동(毛藥洞) [마을] → 모래기

**[유래]** ‘모래기’를 소리를 적어서 ‘모락(毛樂)’이라 하였는데, 마을에 약수가 있으므로 후에 ‘락(樂)’자를 ‘약(藥)’자로 바꾸어 ‘모약(毛藥)’이라고 하였

다고 한다.

#### 못골 [마을]

**[위치]** 살대울 북동쪽, 모래기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택동(澤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못골(澤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못골(택동澤洞)’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동쪽 위 큰골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으므로 못골이라 하였다.

**[내용]** 원래는 못골이 이 부근의 주된 마을이었다고 전한다. 들이 척박하였는데 못을 막아 물을 대면서 옥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자주 빠져 죽으므로 마을 주민들이 오래 전에 못을 메웠다고 하는데, 마을 이름이나 마을 앞의 넓은 들을 보아 큰 못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언제 메웠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못이 있던 자리에 현재 5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못골들 [들]

**[위치]** 모래기철교에서 동쪽 못골을 향하여 난 넓은 들을 말한다.

#### 무진고개(茂辰--) [고개]

**[위치]** 봉산(鳳山) 북서쪽 능선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배말타운 위 보문사, 소림사 쪽에서 북서쪽으로 태장동 영천사 또는 가매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옥판바우골이 있다. ‘효자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진고기(武辰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진고개(茂辰--)’라 하였다.

**[유래]** 효자 황무진이 고개 너머에서 태어났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서 무진고개, 효자고개라 하였다.

**[내용]** 황무진(黃茂辰)의 효성은 하늘에 닿아 그가 부모님의 약을 지어 밤중에 이 고개를 넘을 때는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업고 넘거나 호위했다는 전설이 있다.

#### 무진동(戊辰洞) [마을]

**[위치]** 봉산동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환여승람』에



동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조선환여승람』에 효자 황무진이 이곳에서 태어났으므로 무진동(戊辰洞)이라 한다고 하였다.

**무학당(武學堂)** [터] → 열무당

**미력당골** [골]

**[위치]** 원주경찰서에서 북동쪽으로, 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미력당골(彌力堂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골짜기 위 미림에 고려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석조보살입상이 있다.

**민공호 묘역** [묘]

**[위치]** 봉산 서쪽, 무진고개 남동쪽에 있는 의병장 민공호의 묘를 말한다.

**[내용]** 민공호(閔肯鎬, 1865~1908)는 1901년 특무정교(特務正校)로 발탁되어 원주진위대 본대에서 근무하였다. 1907년 8월 5일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진위대 병사들을 이끌고 봉기를 하였다. 이 봉기는 의병운동이 의병전쟁으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민공호의 의병봉기는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봉기였으며, 의병운동이 의병전쟁으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민공호 묘역 ; 2019년」

**바시골** [골]

**[위치]** 살대울 거름터골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고재골이 있다.

**밤나무골** [산]

**[위치]** 거름터골 동쪽, 고재골 남쪽 사이에 있는 산을 말한다. 약수터가 있다.

**[유래]** 산에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었으므로 밤나무골이라 하였다.

**밤나무골약수** [샘]

**[위치]** 고재골 입구 남쪽, 유에스정보통신 등의 회사 건물 뒤에 있는 샘을 말한다. 수량이 풍부하며 현재도 사용 중이다.

**배말** [마을]

**[위치]** 봉산 서쪽 아래 원주천 옆의 마을을 말한다. 원주경찰서 북서쪽, 현 배말타운아파트 지역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주촌(舟村)’, ‘주정리(舟亭里)’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비말(舟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말(주촌舟村)’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으로 배가 드나들었으므로 배말이라 하였다.

**배말들** [들]

**[위치]** 배말 마을에 있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비말들(舟村坪)’이라고 하였다.

**번재** [고개]

**[위치]** 번재경로당에서 서쪽으로 삼보골을 지나 태장동 옥판바우골을 거쳐 가매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95m이다. ‘본재’, ‘본현(本峴)’이라고도 한다.

**번재** [마을]

**[위치]** 살대울 북쪽, 번재저수지 아래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을 말한다. 살대울 북쪽 번재천을 따라 많은 마을이 들어섰으므로 번재천을 중심으로한 이 지역을 넓은 의미로 번재로 부른다. ‘본재’, ‘본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번지(本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본재(번재, 본현本峴)’라 하였다.

**[유래]** 고개 이름인 ‘번재’를 따라 마을 이름도 번

재라 하였다.

**[내용]** ‘변’과 ‘본’은 발음이 가까워 서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변재, 본재가 혼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변재와 본재가 혼용되는 것과 같이 본동과 변동, 본답과 변답 등은 대체적으로 구분 없이 쓰인다. 일제강점기에는 ‘본현(本峴, 本洞)’으로 쓰였으나 현재는 변재로 정착되었다.



「변재 마을 ; 2019년」

#### 변재들 [들]

**[위치]** 황문터에서 동쪽으로 화현터널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교 밑으로 이어진 들이다.

#### 변재성향당 [당]

**[위치]** 변재 황문터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교와 마을 길 사이 언덕에 있다. ‘큰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당을 큰당이라고 하고 능골에 있는 당을 작은당이라고 부른다.



「변재성향당 ; 2019년」

#### 변재저수지 [못]

**[위치]** 살대울 북쪽, 송문산 유새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송문산 계곡의 물을 모은다. 『한국지명총람』에 ‘본재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1943년에 준공하였다.

#### 변재천 [내]

**[위치]** 봉산동 북쪽 송문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변재저수지와 변재를 지나는 내를 말한다. 살대울 앞에서 모래기천을 합류하고 다시 남서로 잠시 흘러 너르네 북쪽에서 화천에 합류한다.

#### 변재철교 [다리]

**[위치]** 변재 마을 남쪽, 황문터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다리를 말한다.

#### 보문사(普門寺) [절] → 행구동 보문사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보문사(普門寺, 포교당布教堂)’이라 하였다.

#### 본재 [고개] [마을] → 변재

#### 본현(本峴) [고개] → 변재

#### 본현(本峴, 本洞) [마을] → 변재

#### 봉계(鳳溪) [내] → 원주천

#### 봉산(鳳山) [산]

**[위치]** 원주초등학교 뒤에 있는 높이 233.2m의 산을 말한다. ‘봉산뒤편, 봉산미, 봉살미, 봉향산(鳳凰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살미(鳳凰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봉산(鳳山, 봉향산鳳凰山, 봉산뒤편)’이라고 하였다.

**[유래]** ‘봉산’, ‘봉산뒤편’은 산, 또는 산봉우리를 뜻하는 봉(峰), 산(山), 뒤편(山)이 중첩된 결과이다. ‘봉(峰)+산(山)>봉산’, ‘봉(峰)+산(山)+뒤편(山)>봉산뒤편>봉산미>봉살미’가 되었다. 이후 ‘봉(峰)’을 ‘봉(鳳)’으로 보아 봉향과 관련시킴으로써 이름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래담]** 산의 형상이 봉향의 꼬리 부분 같다하여 ‘봉산’, ‘봉산미(鳳山尾)’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봉산의 모양을 보고 원주에서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봉의 꼬리에 해당되는 곳에 큰 말뚝을 박아 봉산의 정기를 죽였다고 하여 ‘봉살뿔(鳳殺뿔)’ 혹은 ‘봉살미(鳳殺尾)’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해동지도』(1750)에 봉산이 표시되어 있고, 『여지도서』(1765)에는 고을 동쪽 2리에 있다고 하였다. 『1872년지방지도』에는 ‘봉황산’으로 나오고 ‘봉천(鳳川)’이 표시되어 있다. 『강원도지』(1941)에는 ‘관문 동쪽 2리에 있다. 아래로는 봉천이 있다.’고 하였다.

**[풀이]** ‘봉(峰)’은 산의 봉우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봉(峰)+산(山)>봉산’, 또는 ‘봉(峰)+산(山)+뿔(山)>봉산뿔>봉산미>봉살미’의 음운 변화를 거쳤다. 즉 ‘봉산, 봉산뿔’은 산을 뜻하는 ‘봉’, ‘산’, ‘뿔’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형태이다.

원주천을 ‘봉천(<봉+천>’)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지명들의 근본은 ‘봉’임을 알 수 있다. 즉 ‘봉(峰)’을 근원으로 하여 ‘봉+산>봉산’, ‘봉+천>봉천’, ‘봉산+뿔>봉산뿔>봉산미>봉살미’ 등의 이름이 파생된 것이다.

‘봉(峰)’을 ‘봉(鳳)’으로 미화하여, 이후 ‘봉산(鳳山)’, ‘봉천(鳳川)’으로 정착되었고 봉황과 관련된 다양한 유래담이 생겼다. ‘봉(峰, 山)’을 ‘봉(鳳)’으로 바꾸어 ‘봉산(鳳山)·봉천(鳳川)’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였다. ‘봉(峰)’을 ‘봉(鳳)’으로 미화한 것은 지명을 기록할 때 가급적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 봉산동절터 [터]

**[위치]** 개륜골 천주교회공동묘지 북서쪽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봉산의 남서쪽 기슭으로, 남쪽은 트여진 곳이다.

**[내용]** 이 절터는 일제강점기 때 오가와게이찌(小川敬吉)가 석조보살입상의 위치로 표시한 곳으로 경작지에서 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 보살입상은 현재 신선골 입구에 옮겨져 있다.



「신선암 미륵불 ; 2019년」

#### 봉산동철교 [다리]

**[위치]** 봉산동과 학성동 사이의 원주천에 있는 옛 중앙선 철교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봉산동 철다리’라 하였다.



「봉산동철교 ; 2019년」

봉산뿔 [산] → 봉산

봉산미 [산] → 봉산

봉산천(鳳山川) [내] → 봉천, 원주천

봉살미 [산] → 봉산

봉천(鳳川) [내] → 원주천

**[위치]** 원주천의 다른 이름이다. ‘봉천(鳳川)’, ‘봉천내’, ‘봉계(鳳溪)’, ‘봉산천(鳳山川)’, ‘동천(東川)’, ‘전천(前川)’이라고도 하였다.

**[유래]** 봉산 아래를 흐르므로 ‘봉천(鳳川)’이라 하

였다. 감영 동쪽에 있으므로 ‘동천(東川)’, 감영 앞에 있으므로 ‘전천(前川)’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이 내의 정식 명칭인 원주천보다 봉천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동천’, ‘전천’이라고도 부른 것은 감영을 기준으로 하여 지척에 있는 친숙한 내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원주천보다 봉천이라는 이름이 더 널리 유포되어 있다.

#### 봉천교(鳳川橋)(1) [다리]

**[위치]** 봉천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동국여지지』에 고을 동쪽에 있는데, 널빤지로 다리를 놓아 봉천을 넘어 다닌다고 하였다.

#### 봉천교(鳳川橋)(2) [다리] → 쌍다리

봉천내 [내] → 봉천, 원주천

봉황산 [산] → 봉산

#### 산시골 [골]

**[위치]** 살대울 기와집담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나흘거리들 서쪽에 있다. 고개 너머에 태장동 능골이 있다.

살대 [마을] → 살대울

#### 살대들 [들]

**[위치]** 살대울 마을 앞, 모래기천과 번재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살대울 [마을]

**[위치]** 화실 북쪽, 번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양지담’, ‘음지담’, ‘웃담’이 있다. ‘살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살디울(矢垆)’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살대울(시대 矢垆, 시탄)’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옆과 앞을 흐르는 번재천과 화천의 물살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므로 살대울이라 하였다. 또는 이 지역에 전하는 전설로 조선 태종 때 화시래에서 쏜 새가 화살에 맞아 이곳에 와서 떨어졌으므로 살대울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살대+울>살대울’로 분석된다. ‘살대’는 화살대를 의미하고 ‘울’은 물이 얇고 세차게 흐르는 여울, 또는 마을을 뜻하는 ‘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살대울’은 ‘물살이 빠른 개울, 또는 그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소초면 흥양리의 ‘살여울(<살+여울>’도 같은 이치이다.

이 지역에는 살대울과 연관된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시대(矢岱)’, ‘시탄(矢灘)’, ‘화실’, ‘화시래’, ‘화천’, ‘화실천’, ‘활시위밭’, ‘궁위전’, ‘궁위천’ 등이 그것들인데, 이 지명들에는 조선 태종 이방원과 관련하여 활과 결부된 전설이 전하고 있다. 어원상 이들은 모두 ‘살대울’의 ‘(화)살대’, ‘울’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시대(矢岱)’는 ‘살대울’의 ‘살대’를 ‘살(화살)+대>살대’로 보아 ‘살’을 ‘시(矢:화살)’로 취하고 ‘대’를 장소·마을로 보아 ‘대(岱:터)’를 취한 결과이며, ‘시탄(矢灘)’은 ‘살대울’을 ‘살대(화살)+울(여울)’로 보고 ‘살대’를 ‘시(矢)’, ‘여울’을 ‘탄(灘)’으로 본 결과이다.

한편, ‘살대울’의 ‘울’을 ‘실(谷)’로 보아 ‘활(弓)+살>활살>화실’이 되었고, 이것을 한자로 옮겨서 ‘궁실(弓失)’이 나왔다. ‘궁(弓)’은 ‘활’의 뜻을 옮긴 것이며 ‘실(失)’은 골짜기를 뜻하는 옛말 ‘~실’을 적을 때 쓰던 글자이다.

이렇게 화실, 궁실(弓失)이 나온 뒤 내(川)가 결합하여 ‘화실+내>화실내>화실래>화시래’가 되었다. 화시래에서 ‘화’의 소리를 따라 ‘화(花, 華)’를 취하고 ‘내’의 뜻을 따라 ‘천(川)’을 취하여 ‘화천(花川, 華川)’과 ‘화사천(花似川)’, ‘화실’에 ‘천(川)’을 결합하여 ‘화실천(화실川)’이 나왔다.

#### 살대울들 [들]

**[위치]** 살대울 앞 화실 마을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살대울성황당 [당]

**[위치]** 살대울 마을 남쪽, 모래기천 건너 산 아래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2003년에 신축한 당집에 치악산신과 성황신을 모셨다.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깨끗한 제관을 선정하여 당고사를 올린다.



「살대울성향당 ; 2018년」

### 삼광 [마을]

**[위치]** 느르내 서쪽, 현 원주시역사박물관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세광덕’, ‘세광마을’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광(三光)’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옛날 박필남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집을 짓고 이중으로 담을 쌓은 뒤 창고 세 군데에 각각 무기, 식량,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역적을 모의하다가 실패하였는데 광이 세 개가 있었으므로 ‘세광덕’, ‘세광마을’로 부르다가 ‘삼광(三光)’이 되었다고 한다.

### 삼광굴 [굴]

**[위치]** 삼광 북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굴로, 원주터널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광굴’이라고 하였다.

### 삼광들 [들]

**[위치]** 삼광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삼익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삼광들(三光坪)’이라고 하였다.

### 삼보골 [골]

**[위치]** 번재 삼형제담에서 북서쪽 삼보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서쪽으로 번재고개가 나 있다. ‘삼복골’, ‘삼부골’이라고도 한다.

### 삼보골고개 [고개]

**[위치]** 삼보골에서 북서쪽으로, 태장동 소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소일 봉두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235m이다. ‘삼복골고개’, ‘삼부골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삼부골고기(三富洞峴)’라 하였다.

### 삼복골 [골] → 삼보골

### 삼복골고개 [고개] → 삼보골고개

### 삼부골 [골] → 삼보골

### 삼부골고개 [고개] → 삼보골고개

### 삼형제담 [마을]

**[위치]** 번재 앵두나무골 마을 남쪽, 삼보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번재삼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삼형제가 이웃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므로 삼형제담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그 집들이 남아있다.

### 새들 [들]

**[위치]** 살대울 마을과 서쪽 번재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황문터에서 남쪽으로 살대들까지 이어진 들이다. 현 산림조합임산물직매장과 설악이앤씨 등이 들어서 있다.

### 석제(石堤) [둑]

**[위치]** 봉산동에 있던 원주천의 옛 둑을 말한다.

**[내용]** 『동국여지』에 봉천 가에 있으며 큰비가 오면 피해가 크므로 돌을 쌓아 물을 막았다고 하였다. 길이는 1천 보라고 하였다. 『대동지지』 『조선환여승람』에 봉천 주변, 길이 1천 보 이상이라고 하였다.

### 세광덕 [터] → 삼광

### 세광마을 [마을] → 삼광

### 솔문이골 [골]

**[위치]** 번재저수지 위에서 북동쪽으로 24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강원과학고, 하우고개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솔문이골(松門里洞)’이라 하였다.

### 송문산(松門山) [산]

**[위치]** 능골 북쪽, 하우고개 남동쪽에 있는 높이 268.5m의 산을 말한다. 또는 이 봉우리의 북서쪽에 있는 302m 봉우리를 송문산이라고도 한다. 북쪽 산 너머에 소초면 흥양리 유새 마을이 있다.

**시대(矢岱) [마을]** → 살대울

**시탄(矢灘) [마을]** → 살대울

### 신선골(神仙-) [골]

**[위치]** 개륜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 말한다. 신선암(神仙庵)이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개륜골 봉산동절터에서 옮겨온 신선암 석조보살입상이 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성골(神聖-)’이라 하였다.

**[유래]** 신선이 판 신선약수가 있으므로 신선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 신선약수 [샘]

**[위치]** 신선암에 있던 약수를 말한다. ‘어수정(御水井)’이라고도 하였다.

**[유래]** 신선이 파놓은 약수라 하여 신선약수라 하였다. 태종 이방원이 운곡 원천석을 찾아가다가 이 물을 마셨다고 하여 어수정(御水井)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지금은 폐쇄되었다.

### 쌍다리 [다리]

**[위치]** 경찰서삼거리에서 서쪽 분수대가 있던 원주교오거리로 놓여진 원주천의 다리를 말한다. 원주교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쌍다리(봉천교, 원주교)’라 하였다.

**[유래]** 두 개의 다리가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쌍다리라 부른다.

**[내용]** 1915년에 가설하였는데 1922년의 홍수로 유실되었고, 1923년 신축, 1930년에 다시 유실되었다. 1931년 6월에 신축하였으며 ‘쌍다리’로 통

용되고 있다.



「쌍다리 ; 1974년」

### 아래화실 [마을]

**[위치]** 화실 마을 중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모래기천을 합류한 번재천이 화천에 합류하는 지역으로, 들이 발달한 곳이다. 마을 앞에 ‘화시래들’, 화천 건너에는 행구동 ‘건너들’이 있다.

### 아래화실성황당 [당]

**[위치]** 화시래들 논 가운데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내용]** 옷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매년 음력 3월 3일에 성황고사를 올렸으나 동부순환로를 내면서 도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아랫배말 [마을]

**[위치]** 배말 마을 중 서쪽 아래, 원주천 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배말’이라 하였다.

### 아리랑고개 [고개]

**[위치]** 살대울 황문터 서쪽 기와집담에서 동쪽으로, 태장동 육판바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85m이다.

**[유래]** 번재 주민들이 ‘원주장’을 보기 위해서 넘던 고갯길이다. 옛날 나무꾼들이 원주 나무전거리로 가면서 힘이 들어 ‘아리랑’을 부르며 오르는데 고개가 가팔라 ‘아리랑’이 ‘어리랑’으로 불렸다고 한다.

### 안갯나무골 [마을]

**[위치]** 살대울 북쪽, 앵두나무골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번재삼거리에서 북동쪽 골짜기에 있다.

**[유래]** 잣나무들 동쪽 안 골짜기에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앵두나무골 [골]

**[위치]** 번재 마을 남쪽, 앵두나무골 마을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앵두나무골 [마을]

**[위치]** 번재 마을 남쪽, 삼형제담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약수암약수(藥水岩藥水) [샘] → 모래기약수

#### 양지담 [마을]

**[위치]** 살대울 마을 중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쪽 모래기천 건너에는 ‘음지담’이 있다.

#### 어수정(御水井) [샘] → 신선약수

#### 열무당(閱武堂) [터]

**[위치]** 봉산 남쪽, 현 원주초등학교 부근 천왕사터에 있던 옛 군막사 터를 말한다. 『여지도서』에 9칸으로, 고을 동쪽 2리에 있으며 천왕사의 옛터라고 하였다. 『강원도지』에 원주군 동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원래 강원감영 부근에 있던 무학당(武學堂, 연무당鍊武堂이라고도 함)을 1735년 옛 천왕사터로 옮겨 막사를 짓고 원주진관(原州鎭管)의 일곱 고을(원주, 영월, 평창, 정선, 횡성, 홍천, 인제)의 군사를 훈련시켰다. 1754년에 민백행(閔百行)이 18칸으로 크게 건립하여 열무당(閱武堂)이라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폐쇄되어 없어졌다.

#### 예천(醴泉) [샘]

**[위치]** 배말에 있던 약수터를 말한다. 바위 아래에서 물이 나왔다고 한다. 현재는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예천(醴泉)’이라 하였다.

#### 용내미 [마을] → 모래기

#### 용내미고개 [고개]

**[위치]** 모래기 마을 북쪽 용내미골에서 서쪽으로, 소초면 흥양리 유새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약 240m이다.

**[유래]** 용터지기에서 나온 용이 이 고개를 넘어갔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용내미골 [골]

**[위치]** 모래기 마을에서 북쪽으로 능골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 북서쪽 아래에 소초면 흥양리 유새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용내미골(龍踰洞)’이라 하였다.

**[유래]** 용터지기에서 나온 용이 이 골짜기로 넘어갔으므로 ‘용넘이골>용내미골, 용내미골’이라고 부른다.

#### 용내미저수지 [못] → 모래기저수지

#### 용터지기 [골]

**[위치]** 모래기저수지 동쪽 위, 현 약수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머느리봉 전설에서 땅속에서 용이 나와 승천한 곳이므로 용터지기라고 부른다.

#### 우물거리 [마을] → 우물마을

#### 우물마을 [마을]

**[위치]** 원주초등학교 남쪽, 당간지주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물거리’라고도 한다.

**[유래]** 지형이 우묵한 낮은 곳, 또는 우물이 있었으므로 우물거리, 우물마을이라 하였다.



「우물마을 : 2019년」

### 우물시장 [장]

**[위치]** 현 원주초등학교 남동쪽, 당간지주 동쪽에 있던 시장을 말한다. 지금은 주택 및 상가가 들어서 있다. ‘동부시장’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부시장(東部市場)’이라 하였다.

**[유래]** 우물마에에 시장이 섰으므로 우물시장, 시의 동쪽에 있으므로 동부시장이라 하였다.

### 웃담 [마을]

**[위치]** 살대울 마을 중 북동쪽 위, 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웃배말 [마을]

**[위치]** 배말 마을 중 동쪽 언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배말’이라고 하였다.

### 웃화실 [마을]

**[위치]** 화실 마을 중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암 서쪽에 있다.



「웃화실 마을 ; 2019년」

### 웃화실성황당 [당]

**[위치]** 웃화실에서 북쪽으로, 고재골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소나무와 참나무 당숲에 당집이 있다. 매년 음력 3월 3일에 성황당고사를 올린다.

### 원주대학터(原州大學-) [터]

**[위치]** 봉산동 1048-2번지, 현 배말타운과 중앙선 철로 사이에 있던 옛 원주대학의 터를 말한다.

**[내용]** 원주대학은 현 상지대학교의 전신이다. 1962

년에 원흥목이 설립하였으며 1973년에 우산동의 현 위치로 옮기고 학교명을 상지대로 바꾸었다.



「원주대학 ; 1978년」

### 원주쇠전 [장]

**[위치]** 쌍다리 풍물시장 건너편, 배말타운 북쪽에 있던 소시장을 말한다.

**[내용]** 시가지가 팽창함에 따라 개운동 새말의 쇠전이 1960년대 말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4일과 9일에 서는 작은 규모의 5일장이었다.

### 원주천(原州川) [내]

**[위치]** 치악산 남대봉과 가리파에서 발원하여 원주 시가지를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관통하고 호저면 주산리 옥산 앞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유로연장 225.7km의 내를 말한다. 봉산 앞을 흐르므로 ‘봉천(鳳川)’, ‘봉천내’, ‘봉계(鳳溪)’, ‘봉산천(鳳山川)’이라고도 하고, 감영의 동쪽을 흐른다고 해서 ‘동천(東川)’, 감영 앞을 흐른다고 해서 ‘전천(前川)’이라고도 하였다.

**[유래]** 원주시를 관통하는 큰 하천이므로 원주천(原州川)이라 하였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동천(東川)’이라고 ‘고을 동쪽 150보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동천(東川)’이 곧 ‘봉천’이라고 하면서 ‘동문 밖에 있다. 치악산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 관어대(觀魚臺) 아래에 이르러 황성의 서천(西川)과 합하여 섬강으로 흘러든다.’고 하였다. 『조선한여승람』 『강원도지』에 ‘전천(前川)’이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봉천니(鳳川)’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봉천(鳳川)’이라고 하였다.

이 내는 정식 명칭인 원주천보다 봉천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동천’, ‘전천’으로 부른 것은 감영을 기준으로 하여 가까이 있는 친숙한 내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원주천보다 봉천이라는 이름이 더 널리 유포되어 있다.



「원주천 ; 1974년」

#### 유새 [마을]

**[위치]** 능골 위, 뒷고개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북쪽 위에 유새고개가 있고 그 너머에 소초면 흥양리 유새 마을이 있다.

#### 유새고개 [고개]

**[위치]** 능골 작두골에서 북동쪽으로, 소초면 흥양리 유새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송문산 남쪽 바로 아래에 있다. 높이는 245m이다.

#### 유암(流岩) [마을]

**[위치]** 옷화실 동쪽, 살구둑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 유교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유암(流岩)’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유암(流岩)’이라 하였다.

**[내용]** 마산머리 동쪽, 유암들을 끼고 있는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 유암개울 [내] → 화천

**[위치]** 고둔치에서 시작하여 유암을 지나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화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유암 마을 앞을 흐르므로 여기서는 유암개울이라 부른다.

#### 유암들 [들] → 행구동 유암들

**[위치]** 유암 마을 동쪽, 화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유암성황당 [당]

**[위치]** 옛 중앙선 유교역 남동쪽, 화시래철교 길옆 작은 동산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상수리나무 당숲의 당집에 치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에 당고사를 올렸다. 지금은 폐지되어 사유지가 되었고, 당숲만 남아있다.

#### 은와(隱窩, 恩窩) [누정] → 구석정

#### 은휴와(恩休窩) [누정] → 구석정

#### 음지담 [마을]

**[위치]** 살대울 마을 중 남쪽 모래기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 동쪽과 남쪽이 산으로 막힌 음지에 있으므로 음지담이라 한다.

#### 일문이골 [골]

**[위치]** 번재저수지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솔문이골 남쪽에 있다.

#### 자지봉(紫芝峰) [산]

**[위치]** 모래기에 있는 산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자지봉(紫芝峰)’이라 하였다.

#### 작두골 [골]

**[위치]** 번재 능골 마을 북쪽, 유새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작두골 [마을]

**[위치]** 유새고개 남동쪽, 번재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작은개륜골 [골]

**[위치]** 개륜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봉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개륜골** [마을]

**[위치]** 작은개륜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은당** [당] → 능골성황당

**작은쇠파니골** [골]

**[위치]** 모래기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소초면 흥양에서 남쪽으로 난 큰쇠파니골과 비교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жат나무골** [골]

**[위치]** 살대울 동쪽, 현 번재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жат나무골 마을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жат나무골** [마을]

**[위치]** 살대울 동쪽, жат나무골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번재삼거리 남쪽에 있다.

**жат나무들** [들]

**[위치]** 살대울 북쪽, 안жат나무골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번재천 옆에 있다.

**전천(前川)** [내] → 원주천

**정지밖들** [들]

**[위치]** 윗화시래 남쪽, 화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화천 건너 남쪽에 건너들이 있다.

**제집담** [마을]

**[위치]** 살대울 황문터 서쪽, 옛 중앙선 철교 서쪽에 붙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기와집담’이라고도 한다.

**[유래]** 기와집이 있으므로 ‘기와집담>제집담’이라고 하였다.

**[풀이]** ‘기와집담>제와집담>제집담’으로 음운 변천하였다.

**주정리(舟亭里)** [마을] → 배말

**주촌(舟村)** [마을] → 배말

**집대** [유적] → 당간지주

**천왕들** [들] → 천왕벌

**천왕벌** [들]

**[위치]** 봉산동 당간지주 북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원주초등학교 및 그 주변에 있던 들이다. ‘천왕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천왕벌(天王-)’이라 하였다.

**[유래]** 옛 천왕사가 있던 곳이어서 천왕벌, 또는 천왕들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학교와 주택이 들어서 있다.

**천왕사터(天王寺-)** [터]

**[위치]** 현 원주경찰서와 원주초등학교 자리 및 그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옛 절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고을 동쪽 2리에 있는데 지금은 사청(射廳)이 되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고을에서 동쪽으로 2리쯤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열무당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천왕사터(天王寺-)’라 하였다.

**[내용]** 신라시대의 절 천왕사(天王寺)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봉산동 당간지주는 천왕사의 것으로, 절터는 그 북쪽 위로 추정된다. 당간지주가 고려 초기의 것으로 보이므로 절은 고려 초기 또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성종 대에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주택가가 되었고, 천왕사터 출토라고 알려진 석탑재가 학성동 법응사에 있다.

**충혼탑(忠魂塔)** [탑]

**[위치]** 봉산 기슭에 있는 탑을 말한다.

**[내용]** 의병대장 민공호(閔肯鎬)를 기념한 탑이다. 1907년에 원주진위대 특무정교(特務正校) 민공호가 왜인들이 강제로 한국 군대를 해산함에 항거하여 스스로 의병대장이 되어 왜병들과 격투하다가 1908년에 순국하였으므로, 1955년 3월 1일에 그 유해를 봉산 기슭에 이장하고 충혼탑을 세웠다.





「충혼탑 : 1971년」

#### 큰골(1) [골]

**[위치]** 살대울 웃담에서 북동쪽으로, 214.8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 너머에 번재들이 있다.

#### 큰골(2) [골]

**[위치]** 못골 마을에서 북동쪽 31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5번 외곽순환도로가 나 있다.

#### 큰당 [당] → 번재성향당

#### 큰당골 [골]

**[위치]** 황문터 당골에서 번재성향당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택동(澤洞) [마을] → 못골

#### 학봉정(鶴鳳亭)(1) [누정]

**[위치]** 태장1동 주민센터 남쪽, 무진고개 서쪽 산마루에 있는 정자를 말한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손창관(孫昌寬, 1863~1951)이 1939년에 지어 이름을 학봉정(鶴鳳亭)이라 하였다. 설미회(雪眉會)의 시인 묵객들이 시를 읊고 독립을 의논하던 곳으로, 일제에 의하여 폐쇄되었다가 6·25동란 때 완전 소실되었다. 지금 건물은 1991년에 콘크리트로 새로 지은 것이다.



「학봉정(1) : 1993년」

#### 학봉정(鶴鳳亭)(2) [누정]

**[위치]** 민금호(閔肯鎬) 의병장 묘역 북동쪽 위, 봉산1길 47-5에 있는 사정(射亭)을 말한다.

**[내용]** 민·관·군의 노력으로 1968년에 준공된 2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사정거리 150m로 국궁장으로 사용되다가 1983년에 명륜동 종합운동장에 또 다른 학봉정을 지어 옮겨갔다. 지금은 노인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봉정(2) : 1976년」

#### 황문터 [마을] → 황문터

#### 혈터골 [골] → 혈터골

#### 혈터골 [골]

**[위치]** 못골들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못골에서 유암들로 넘어가는 고개의 서남쪽에 있다. 골짜기 너머에 유암이 있다. ‘혈터골’, ‘활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이 마을에서 장수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쇠막대기를 이곳에 박았으므로 혈터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화사천(花似川)** [내] → 화천

**[내용]** 『관동지』에 화사천(花似川)이라 하였다.

**화사천(花似川)** [마을] → 화실

**화시래** [마을] → 화실

**화시래들** [들]

**[위치]** 아래화실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화천과 번재천이 만나는 곳에 넓게 발달한 들이다.

**화시래천** [내] → 화천

**화실** [마을] → 살대울

**[위치]** 살대울 남쪽, 행구동 너르내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번재천과 화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넓은 들이 형성된 곳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웃화실’과 ‘아래화실’이 있다. ‘궁실, 궁위전, 화천, 화사천, 화실천, 화천리, 실대, 화시래, 활시위밭’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화시리(花川)’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화시래(화천花川, 활시위밭, 궁위전弓位田)’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 태종이 스승 운곡 원천석을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에 이곳에 이르렀다. 행차 위의 소리개를 보고 왕은 무관에게 새를 쏘아 떨어뜨리면 그 땅을 주겠노라고 하였다. 호위하던 무관이 활을 쏘아 새를 땅에 떨어뜨리자 태종이 기뻐하며 새가 떨어진 부근 일대를 무관에게 하사하였다. 활이 떨어진 자리를 ‘궁실(弓失)’, 그 곳을 흐르는 내를 ‘궁실천(弓失川)’이라 하였는데 음역하여 ‘화실’, ‘화실천’, ‘화시래’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풀이]** 화실 관련 지명들은 살대울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살대울’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개울 물살이 화살처럼 빠르므로 흥양리의 ‘살여울’처럼 ‘살대울’이란 지명이 생기고 여기에 준해서 ‘활’ 관련 지명과 이를 한역한 ‘궁(弓)’ 관련 지명이 파생되었다.

즉 ‘살대울’이란 지명이 활, 화살과 관련된 화실, 화천, 화시래, 실대 등 다양한 지명으로 파생되었

고 ‘활, 화살’의 뜻을 가진 ‘시대(矢岱), 시탄(矢灘), 궁실(弓失), 궁실천(弓失川), 궁위전’ 등으로 불린 것이다. 이때 ‘활’은 소리를 따라 ‘花’, ‘華’ 등으로 썼다.

**화천(花川, 華川)** [내]

**[위치]** 치악산 향로봉 북쪽 고둔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거름터와 유암을 지나 살대울 앞에서 번재천을 합류하고, 너르내에서 오리현천과 합친 후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궁실천’, ‘화사천’, ‘화실천’, ‘화시래천’이라고도 한다. 『관동지』에 ‘화사천(花似川)’이라고 하였다.

**[내용]** 고유지명인 살대울이 조선 태종과 관련된 전설과 결합하여 ‘실대, 화실, 화시래, 궁위전, 화천, 화사천, 화실천’ 등의 다양한 이름을 낳았다. 『관동지』에 ‘화사천(花似川)’이라 하고 감영에서 동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화천(花川, 華川)** [마을] → 화실

**화천리(花川里)** [마을] → 화실

**화현터널** [굴]

**[위치]** 모래기철교 서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활문터** [마을] → 황문터

**활시위밭** [마을] → 화실

**활터골** [골] → 혈터골

**황문터** [마을]

**[위치]** 살대울 잣나무골 남쪽, 기와집담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 밑에 있는 마을이다. ‘항문터’라고도 하고 ‘활문터’라고도 한다.

**황문터골** [골]

**[위치]** 살대울 황문터 마을 남쪽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으로 번재골이 이어진다.

**효자고개** [고개] → 무진고개

## 우산동(牛山洞)

### [위치]

우산동은 원주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5.6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태장동과 학성동 정지뜰, 서쪽으로는 호저면 만종리, 남쪽으로는 단계동, 북쪽으로는 가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저전동면(楮田洞面)의 지역으로서 이리(二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우산리(牛山里)라 하여 원주군 호저면(好楮面)에 편입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시로 승격할 때 원주시(原州市)에 편입되어 원주시 우산동(牛山洞)이 되었다.

### [유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우두산(牛頭山)의 이름을 따서 우산리(牛山里)라 하였고, 1955년 우산동(牛山洞)이 된 후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 고방터골 [골]

**[위치]** 우산동 잣나무골 중간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상지대학교 북서쪽과 영동고속도로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고방터골 [마을]

**[위치]** 고방터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 고성원(古城員) [들]

**[위치]** 『조선고적도보』에 나오는 지명이다.

**[내용]** 일제강점기인 1912년 유적조사 당시 석조 석가여래좌상이 저전동면(楮田洞面) ‘고성원(古城員)’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이 지명과 연관이 있는 곳은 소리가 비슷한 ‘구성암뜰’이 있고 뜻이 비슷한 것은 ‘재칫골’이다. 고성원과 구성암은 같은 지명인데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재칫골은 현 폴리텍대학과 한라비발디1차아파트가 있는 골짜기인데 이를 한자로 ‘성치곡(城峙谷)’ 또는 ‘재치곡(才值谷)’이라 하였다. 성치곡은 한자의 뜻을 따른 것으로 재칫골의 ‘재’를 ‘성’으로 보아 ‘城’으로 표기하였고, 재치곡은 소리를 따라 적은 것이다. 따라서 고성원(古城員)의 ‘城’도 재칫골의 뜻을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재칫골은 위치가 명확하며 고성원 또는 구성암뜰은 재칫골 부근의 들일 것이므로 그 위치는 이 지역의 지형상 재칫골 동쪽과 북쪽으로 펼쳐진 들로서 현 폴리텍대학 북동쪽, 우산철교에서 우무개삼거리를 중심으로 1군지사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 구성암뜰 [들]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들 이름이다. 2리 우두산에 있다고 하고 한자로는 ‘구성암평(九成岩坪)’이라고 적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현 우산철교에서 우무개삼거리에 이르는 곳을 중심으로 1군지사 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 금바우 [바위]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이름이다. 2리 우

두산마을에 있다고 하였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돌터거리에 있던 바위로 추정된다. 한자로 ‘금암(琴岩)’이라고 하였다.

### 금암(琴岩) [바위] → 금바우

### 낙천사(洛天寺) [절] → 약천사

### 덤바우 [바위] → 덩바우

### 덤바우 [바위]

**[위치]** 현 상지대학교 북서쪽, 영동고속도로 건너편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덤바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덤바우(場岩)’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덤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들이 겹겹이 얹혀 담처럼 높이 둘러쳐져 병풍처럼 있으므로 ‘덤바우’, ‘담바우’라 한다.

### 덤바우산 [산]

**[위치]** 우두산 서쪽, 장구봉의 남동쪽 줄기에 있는 높이 262.6m의 바위산을 말한다. 현 상지대학교 북서쪽 영동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산이다. 우산동과 가현동, 호저면 만종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덤바우산’, ‘덤부우산’, ‘말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말미(馬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덤부우산’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덩바우가 있으므로 덩바우산이라 하였다.

**[내용]** 북동쪽 아래로 여우바우골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박달미까지 말미골과 말미들이 이어진다. 북서쪽 줄기에 말미고개, 재내재, 장구봉, 저고무지고개, 할미바우산, 군두봉이 이어진다.

### 덤부우산 [산] → 덩바우산

### 독보거리들 [들]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들 이름이다. 태장동과 우두산 경계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 복원교삼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정지들 북쪽 우산시민체육단지 부근으로 추정된다. 한자로는 독보가평

(獨湫街坪)으로 적었다.

#### 돌터거리 [마을]

**[위치]** 유원 동쪽, 현 진광중고교 남동쪽의 마을로 상지영서대사거리와 우산동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석대(石垓)’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돌터거리(석대石垓)’라 하였다.

**[유래]** 마을에 큰 반석이 있었으므로 돌터거리라 하였다.

#### 돌터거리들 [들]

**[위치]** 돌터거리 마을 북쪽으로 모래내를 따라 펼쳐진 들을 말한다. 현 모래내 서쪽 우산동의 상가 지역이다.

#### 돌터거리주막 [주막]

**[위치]** 우산동 돌터거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돌터거리주막(石鉅里酒幕)’이라 하였다.

#### 독너머들 [들]

**[위치]** 우두산골 마을 동쪽 아래에 있는 앞담들 너머, 원주천 옆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현대블루핸즈, 안전공업사 등이 있는 지역이다.

**[유래]** 우두산골 마을 동쪽 앞의 앞담들과 독너머들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독이 있었는데 이 독 너머에 있는 들이므로 ‘독너머들’이라고 하였다. 모래내가 이 앞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므로 원주천이 역류하여 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독을 쌓아 앞담들과 우두산 마을을 보호하였다.

#### 들미 [산]

**[위치]** 『조선지리지』에 ‘거산(擧山)’이라 적고 2리 유원(由原)에 있다고 하였다. 『관동지』에 고을 북쪽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옥산(玉山)이 고을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주산리 구슬뿔 정도로 추정되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풀이]** ‘들>뿔>들메>들미’로 변하였다. 한자로 거산(擧山)이라고 하였는데 들(野)에 있는 산을 뜻하였

을 수도 있다.

#### 만종굴 [굴]

**[위치]** 우무개에서 서쪽 진골, 산골고개 아래로 난 옛 중앙선 철로의 굴을 말한다. 호저면 만종리에 연결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만종굴’이라 하였다.

#### 말미 [산] → 덩바우산

**[위치]** 덩바우산의 다른 이름이다. 덩바우산에서 남쪽 대안사에 이르는 줄기를 말미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에 ‘말미(馬山)’라 하였다.

**[풀이]** ‘말+뫼>말뫼>말메>말미’로 변하였다. ‘말’은 ‘말벌, 말고개, 말무덤’처럼 크다는 뜻이고 ‘뫼>메>미’는 산의 뜻이다. 덩바우산이 크고 우뚝하게 높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매봉산 [산]

**[위치]** 우두산골 마을 북쪽, 대동거리 남쪽에 있는 높이 203m의 산을 말한다. 가현동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산이 높아서 매가 잘 내렸으므로 매봉산이라 하였다.

#### 매봉재 [고개]

**[위치]** 우두산골 마을에서 북서쪽 점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매봉산과 195.3m 우두산의 중간에 있다.

#### 모래내 [내] → 단계동 모래내

**[위치]** 봉화산과 배부른산에서 발원하여 단계동에서 합수한 후, 우산동을 지나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사천천(沙川川)’이라고도 한다.

#### 모세거리보 [보]

**[위치]** 현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던 모래내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모세거리보’라 하였다.

**[유래]** 모래가 많고 터가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발개들** [들] → 학성동 발개들

**봉바우** [바위]

**[위치]** 덩바우산 남서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부영이바우’라고도 한다.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며, 밧줄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바우’라 하였다.

**[유래]** 부영이가 살고 있었으므로 ‘부영이바우’, ‘봉바우’라고 한다.

**봉바우산** [산]

**[위치]** 덩바우산 남쪽 봉바우가 있는 바위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바우산’이라 하였다.

**부영이바우** [바위] → 봉바우

**비득재** [고개]

**[위치]** 단계동 무상골과 우산동, 만종리 본동 쪽으로 이어지는 고개를 말한다. 매봉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난 고갯길이다. 고개 아래에 약천사터가 있다. ‘비득재’, ‘비들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비득재’라 하였다.

**[유래]** 비둘기가 많이 살았으므로 ‘비둘재>비득재, 비들재’라 하였다.

**[풀이]** 비둘기는 옛말에 ‘비두루기, 비둘기, 비둘기, 비두리, 비들기’로 나온다. ‘닭’처럼 비둘기의 어원은 ‘둘’이다. ‘닭>닥, 달기, 달구’와 같이 ‘비둘>비득, 비두루기, 비둘기’로, ‘비둘재>비득재(비들재), 비들재(비들재)’로 실현되었다.

**비들재** [고개] → 비들재

**비들재** [고개] → 비들재

**사천천**(沙川川) [내] → 모래내

**사천철교**(沙川鐵橋) [다리] → 우산철교

**산골고개** [고개]

**[위치]** 우무개에서 서쪽 상만종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롯데푸드 북쪽 능선이다. 서낭당고개와 겹친다. ‘우무개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암현치(菴峴峙)’라고 하였다. 『한국지

명총람』에 ‘산골고개’라 하였다.

**[유래]** 땅속 바위에서 산골을 깨던 곳이라 산골고개라 부른다. 서낭당고개 옆, 현 롯데푸드 부근 땅속에서 산골을 갇으나 도로가 나면서 모두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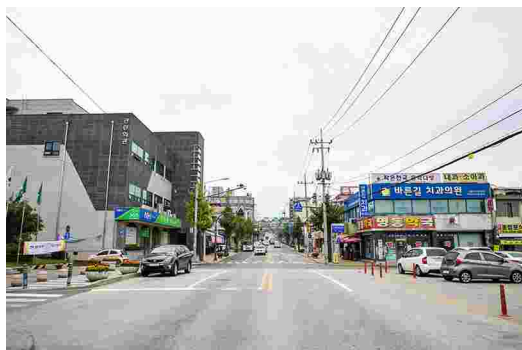
**상보**(上湫) [보]

**[위치]** 돌터거리 앞에 있던 모래내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보(上湫)’라 하였다.

**새마을** [마을]

**[위치]** 돌터거리 남쪽, 옛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모래내 건너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명동약국,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조선지리지』에 ‘시말(시촌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마을’이라 하였다.

**[유래]** 돌터거리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마을’이라 하였다.



「새마을 마을 : 2019년」

**서낭당고개** [고개]

**[위치]** 우무개에서 서쪽 만종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산골고개와 겹친다. 우무개로가 나 있다.

**[내용]** 큰 참나무에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서낭당고개라 부른다. 큰 참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당집이 있었으나 도로공사로 없어졌다. 현재는 도로 옆 작은 제단에 무속인들이 치성을 드린다. 우산동과 만종리의 경계가 되는 낮은 고개이다.

**석대**(石岱) [마을] → 돌터거리

**성치곡**(城峙谷) → 재치골

## 세거리들 [들]

**[위치]** 우무개 마을 앞 삼거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제거리뜰(三巨里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앞 삼거리에 들이 있으므로 세거리들이라고 하였다.

## 소영덩이산 [산]

**[위치]** 현 우산초등학교 북서쪽, 상지대학교 후문에 있는 산을 말한다.

**[유래담]** 우두산이 소의 머리, 이곳이 소의 엉덩이, 그 중간 유원 마을이 소의 허리 부분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소가 누운 형상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솔모롱이골 [골]

**[위치]** 우무개 진골 끝 부분에서 남쪽 비독재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비독재가 있고 비독재 아래에 약천사터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솔모롱이골’이라 하였다.

## 순조골 [골]

**[위치]** 우산동 솔모롱이골에서 철길을 건너 북쪽 맞은편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롯데푸드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북쪽에는 산골고개, 서쪽에는 서낭당고개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순조골’이라 하였다.

## 암현(庵峴) [마을] → 우무개

## 앞담들 [들]

**[위치]** 우두산골 마을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덕너머들 서쪽에 붙어있다. 현 농협사료공장에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우산공단사거리에 이르는 넓은 들이다.

## 약정사(藥井寺) [절] → 약천사

## 약천사(藥泉寺) [절]

**[위치]** 우산동 비독재 북쪽, 약수터 아래에 있던 절

을 말한다. ‘낙천사(洛天寺)’, ‘약정사(藥井寺)’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낙천사(洛天寺)’라 하였다.

**[유래]** 절 위에 약수터가 있으므로 ‘약천사(藥泉寺)’로 하였다 한다. 원래 ‘은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1960년에 오승원이 다시 지었다고 한다. 현재 절터는 밭이 되었다.

## 역들 [들]

**[위치]** 옛 유원역 동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재는 모두 주택단지가 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역뜰(驛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역들’이라 하였다.

**[유래]** 유원역 주변에 있는 들이므로 역들이라고 하였다.

## 역말 [마을]

**[위치]** 옛 유원역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진광고등학교에 이르는 지역의 마을이다.

## 연못말골 [골]

**[위치]** 우두산고개 남쪽 아래, 우두산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치악교통이 있는 곳이다.

**[유래]** 위에 작은 연못이 있으므로 연못말골이라고 하였다.

## 영산바위 [바위]

**[위치]** 우두산 남쪽, 현 상지대학교 한방병원 북쪽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오래울골 [골] → 오래울골

## 오래울골 [골]

**[위치]** 우무개골에서 남서쪽으로, 비독재를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 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남쪽 너머에 무상골이 있다. ‘오래울골’, ‘오령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오령골(五靈谷)’이라고 하

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례울골’이라 하였다.

**오령골** [골] → 오례울골

**울물** [샘] → 우두산샘물

**우두산** [마을]

**[위치]** 우두산골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현 삼양식품 북쪽, 우산공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두산의 북동쪽으로 현 우산공단의 넓은 들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한 마을이었다.

**[유래]** 우두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마을 이름도 우두산이라 하였다.



「우두산 마을 ; 1974년」

**우두산(牛頭山) [산]**

**[위치]** 우산동의 한가운데 있는 195.3m, 191.7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우산공단 남서쪽, 상지대학교 북동쪽에 있다. 『대동지지』에는 감영 북쪽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우두산(牛頭山)’이라 하였다.

**[유래]** 소머리를 닮아 우두산(牛頭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유래담]** 옛날 어느 농부가 잃어버린 소를 이 산 아래에서 찾았다고 우두산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또는 우두산이 소의 머리, 유원 마을이 소의 허리, 상지대학교 후문의 산이 소의 엉덩이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소가 누운 형국이어서 우산동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도 한다.

**[내용]** 대체로 진광중고등학교 뒤쪽의 191.7m 봉우리를 우두산이라고 하나 자은향 동쪽, 우산공단 북서쪽에 있는 높이 172m의 산을 우두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두산이라는 이름은 현 우산공단 서쪽에 있는 산줄기를 범칭하는 지명이다.



「우두산 ; 1971년」



「우두산 ; 1977년」

**우두산고개 [고개]**

**[위치]** 우두산 마을과 연못밑골에서 북서쪽 영동고속도로 방면 자은향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우두산길이 나 있다. 고개 높이는 145m이다.

**우두산골 [골]**

**[위치]** 우두산 마을에서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강원도도서관리사업소 북쪽 아래에서 서쪽 영동고속도로를 지나 여우바우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 우두산골 [마을]

**[위치]** 우두산골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우두산샘물 [샘]

**[위치]** 우두산골 입구, 현 강원도로관리사업소 북쪽에 있는 샘을 말한다. 옷오른 사람에게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도 사용 중이다. ‘옷물’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옷물’이라 하였다.



「우두산샘물 ; 2019년」

## 우무개 [마을]

**[위치]** 상지대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으무개’, ‘음무개’라고도 한다. 한자로 ‘음현(音峴)’, ‘음무현(音舞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으무기(奄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으무개(암현庵峴)’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의 지형이 우묵하므로 우무개라 하였다.

**[유래담]** 원주목사가 원주로 부임해 올 때 우무개에서부터 삼현육각을 울렸으므로 고개 이름을 ‘음무현(音舞峴)’이라 하다가 ‘음현(音峴)’, ‘음무개’, ‘우무개’라 불리게 되었다고도 한다.

**[풀이]** 우무개는 ‘음+(ㄱ)+개>우무개’이다. ‘음’은 ‘굴, 굴’과 뿌리가 같은 말로, 우묵한 곳 또는 굴을 의미한다. ‘우무개’의 ‘우무(<음)’는 땅의 모습이 우묵하므로 붙은 이름이고 ‘개’는 물가에 붙은 이름이나 이곳처럼 ‘고개’에 붙기도 한다. 한자로 모두 ‘峴’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만종으로 넘어가는 산골고개, 서낭당고개의 아래 마을이란 뜻이다. 똑같은 지명으로 호저면 옥산리에 ‘우무개(庵峴,陰

峴)’ 마을과 ‘우무개고개’가 있다. 같은 어원을 가진 지명으로는 단구동과 관설동 사이의 ‘우무골’, 판부면 서곡리의 ‘우무골’, 문막읍 대둔리의 ‘우묵골’이 있다. 이곳 지형들은 모두 땅의 모습이 우묵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무개 마을 ; 2019년」

## 우무개고개 [고개] → 산골고개

## 우무개골 [들]

**[위치]** 우무개 마을 남쪽 앞에 동서쪽으로 길게 난 들을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옛 중앙선 철도가 나 있다.

## 우무개삼거리 [길]

**[위치]** 우무개 마을 입구에 있는 삼거리를 말한다. 삼거리 주변으로 세거리들이 있다.

## 우무개주막 [주막]

**[위치]** 우무개 마을 앞 삼거리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음무기주막(奄峴酒幕)’이라고 하였다.

## 우산들 [들]

**[위치]** 우두산 마을 앞 모래내를 중심으로 발달한 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우산들’이라 하였다.

## 우산철교 [다리]

**[위치]** 1군지사 남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다리를 말한다. 모래내(沙川) 위에 있으므로 ‘사천철교(沙川鐵橋)’라고도 한다.



「우산철교 ; 1968년」

#### 우산철교로터리 [길]

**[위치]** 우산철교 앞 사거리에 있던 회전식 교차로를 말한다.

**[내용]** 가운데에 화원을 만든 회전식 교차로였으나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1990년대에 신호등 체계로 바뀌었다.



「우산철교로터리 ; 1983년」



「우산철교로터리 ; 1991년」

#### 유문(由門) [터]

**[위치]** 유원의 동쪽에 있던 문을 말한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래]** 유원역(由原驛)의 관문 역할을 한 곳으로, 이곳에서 말을 갈아탔다고 한다.

#### 유원(由原, 幽原) [마을]

**[위치]** 돌터거리 서쪽, 잣나무골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상지대학교 한방병원과 진광중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유원(由原)’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유원(由原)’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유원역(由原驛)이 있던 곳이므로 마을 이름도 유원이라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유원(由原)이 원래 ‘유원(幽原)’이었다고 하였다.

#### 유원들 [들]

**[위치]** 유원 마을에 있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유원뜰(由原)’이라고 하였다.

#### 유원역(由原驛) [역]

**[위치]** 유원에 있던 역을 말한다. 위치는 현 상지대학교 한방병원 부근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고을 북쪽 7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유원역(由原驛)’이라고 하였다.

**[내용]** 찰방 역인 단구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역으로서 횡성, 문막, 부론, 안창 방면으로 이어지는 원주 북쪽의 요충지에 있었다. 『여지도서』에 고을 북쪽 7리에 있으며 큰말 1필, 복마(卜馬) 6필, 역리(驛吏) 1명, 노비 80명이 있다고 하였다.

#### 우무개 [마을] → 우무개

#### 은수사 [절] → 약천사

#### 은질마배기 [골]

**[위치]** 우산동 장자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한국지명총람』에 ‘은질마배기’라 하였다.



**[유래]** 옛날 장자골 어느 부자가 은질마(은으로 만든 말안장)를 묻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음무개** [마을] → 우무개

**음무현**(音舞峴) [마을] → 우무개

**음현**(音峴) [마을] → 우무개

**잣나무골** [골]

**[위치]** 유원에서 북서쪽으로, 우두산 서쪽을 따라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진 골짜기이다. 잣나무골 중간에서 서쪽으로 고방터골이 갈라진다.

**[유래]** 잣나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잣나무골이라 하였다.

**잣나무골** [마을]

**[위치]** 잣나무골 위쪽, 우두산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잔나무골(栢子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잣나무골’이라 하였다.

**장곡**(長谷) [골] → 진골

**장자골**(長者-) [마을]

**[위치]** 우두산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자골’이라 하였다.

**[유래]**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장자골고개** [고개]

**[위치]** 장자골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에 ‘장지솔고기(長洞峴)’라고 하였다.

**재치곡**(才值谷) → 재치골

**재치골** [골]

**[위치]** 우무개 남쪽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폴리텍대학과 한라비발디1차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지치골(才值谷)’, ‘성치

곡(城峙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재치골’이라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에 ‘재치곡(才值谷)’, ‘성치곡(城峙谷)’으로 표기하였다. ‘재치곡’은 재치골의 소리를 따라 표기한 것이고, ‘성치곡’은 재치골의 뜻을 따라 표기한 것이다.

**재치골고개** [고개]

**[위치]** 재치골, 현 폴리텍대학에서 남쪽으로 단계동 무상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지치골고기(城峙谷)’라 하였다.

**주랍들** [들] → 주래들

**주래들** [들]

**[위치]** 우두산골 마을, 현 우산공단 북쪽에서 대동거리 앞까지 원주천을 따라 발달한 넓은 들을 말한다. ‘앞담들’, ‘둑너머들’과 이어져 있다. ‘주랍들’이라고도 한다.

**[내용]** 현 우산공단사거리에서 원주시음식물자원 화공공처리시설, 원주환경체육단지,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등이 있는 지역이다. 도로 및 시설에 편입되어 들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중보**(中湫) [보]

**[위치]** 새말 앞 모래내에 있던 보(湫)를 말한다. 우산들에 물을 댔다. 현 명동약국과 옛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있던 보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보(中湫)’라 하였다.

**진골** [골]

**[위치]** 산골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우무개 앞에서 옛 중앙선 철로를 따라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진솔(長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가 길어서 ‘긴골>진골’이라고 하였다.

**[풀이]** ‘진, 질, 길’은 모두 ‘길다(長)’는 뜻으로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이 연결된 말이다. ‘진, 질’은 ‘긴, 길’이 구개음화한 결과이다.

#### 철도연변 [마을]

**[위치]** 우무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한라비발디아파트와 한국폴리텍대학 주변 철로 옆의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철도연변’이라고 하였다.

**[유래]** 한국전쟁 후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생긴 마을로 옛 중앙선 철로 연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철도연변 ; 2019년」

#### 태장들 [들]

**[위치]** 돌터거리 북동쪽 도로건너에 있는 들로, 정지들의 북쪽지역을 말한다. 현 육군1군수사령부 북쪽, 원주시민체육단지가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태장들’이라 하였다.

#### 풀무골 [골]

**[위치]** 우산초등학교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하보(下湫) [보] → 모세거리보

해살골 [골] [마을] → 화살골

#### 화살골 [골]

**[위치]** 유원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후문을 지나 운동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해살골’, ‘활쌀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활쌀골(弓矢谷)’이라 하였다.

**[유래]** 덩바우산에서 고방터골을 거쳐 내려오는 냇물이 급하게 흐르므로 ‘화살골’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봉산동의 ‘살대울’, 흥양리의 ‘살여울’, 학곡리의 ‘활골’ 등이 있다.

#### 화살골 [마을]

**[위치]** 화살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상지대학교 캠퍼스에 모두 편입되었다. ‘해살골’, ‘활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화살골(해살골)’이라 하였다.

활쌀골 [골] [마을] → 화살골

## 원인동(園仁洞)

### [위치]

원인동은 원주시청에서 동쪽으로 약 3.3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봉산동, 서쪽으로는 일산동, 남쪽으로는 명륜동, 북쪽으로는 중평동 및 학성동과 접해 있는 시내의 중심 지역이다.

### [연혁]

원동(園洞)과 인동(仁洞)은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 상동리(上同里)에 속해 있었다.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며 14개 정(町)으로 편성될 때 상동리는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개운정(開運町)·남산정(南山町)·대화정(大和町)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는데 이때 원동은 남산정, 인동은 대화정 지역이었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변경하면서 남산정을 원동으로, 대화정을 인동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시 원동·인동이 되었다.

1961년 연합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원동·인동을 원인동으로 하였다.

### [유래]

‘원동(園洞)’은 강원감영 앞의 남산을 원주의 정원으로 보아 남산정(南山町)의 이름을 고쳐 원동(園洞)이라 하였다. ‘인동(仁洞)’은 조선시대 때 원주목사 한준겸(韓浚謙)의 딸이 이곳에서 태어나 16대 인조(仁祖)의 비(妃) 인열왕후(仁烈王后)가 되었으므로 ‘인(仁)’자를 따서 ‘인동(仁洞)’이라 하였다. ‘원인동(園仁洞)’은 1961년 원동과 인동을 병합하면서 각각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 가톨릭센터 [건물]

**[위치]** 인동사거리 남동쪽, 원동성당 동쪽 아래에 있는 건물을 말한다.

**[내용]** 1968년 오스트리아 천주교 부인회의 원조로 지은 건물로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문화회관이다. 문화강좌, 문화교육사업 등과 함께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가톨릭센터 ; 1974년」



「가톨릭센터 ; 1986년」

## 나무전거리 [장]

**[위치]** 원주교오거리, 옛 분수대 주변 강둑에 서던 땔나무시장을 말한다.

**[내용]** 땔나무를 팔던 시장이었다. 봉천을 가운데 두고 양 강둑에서 땔나무시장이 열렸다. 강 동쪽은 우물시장 옆, 강 서쪽은 현 원주교오거리, 옛 분수대 주변 강둑이었다. 주로 행구동, 반곡동, 관설동 등의 주민들이 치악산의 땔나무를 지고 와서 이곳에서 팔았다.

## 남리(南里) [마을]

**[위치]** 남산 북쪽 아래, 현 원주문화원 주변의 마을을 말한다.

**[유래]** 강원감영에서 보아 남쪽 남산 아래에 있으므로 '남리'라 하였다.



「남리 마을 ; 1974년」

## 남산(南山) [산]

**[위치]** 강원감영 남쪽, 남부시장 북쪽에 있는 높이 169.9m의 산을 말한다. 원인동과 명륜동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대동지지』에 서남쪽 1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남산(南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南山)'이라 하였다.

**[유래]** 강원감영에서 보아 남쪽에 있으므로 남산(南山)이라고 하였다.

**[내용]** 한국전쟁 이후 주택지로 변하였고 원주배수지로 쓰이기도 하였다. 추월대가 있었으나 없어지고 지금은 KBS원주방송국 뒤쪽 남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남산 ; 1969년」



「남산 ; 1984년」

**남산정(南山町)** [마을] → 원인동

**[위치]** 원동을 말한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의 원동(園洞)의 옛 이름이다. 1937년에 남산정을 설치하였고, 1946년에 지금의 이름 원동(園洞)으로 바꾸었다.

**다박골** [골]

**[위치]** 강원감영 남서쪽, 현 다박골사거리에서 남서쪽으로 일산로가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다복골’, ‘타박골’, ‘박발골’, ‘탑앞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현 원주제일교회 자리에 옛 천수사(泉水寺)가 있었고 그 절의 탑 앞 골짜기이므로 ‘탑앞골>타박골>다박골’이라 하였다.

**다박골** [마을]

**[위치]** 다박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다박골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다. ‘타박골’, ‘저전동’, ‘다복동’, ‘박발골’, ‘탑앞골’, ‘탑전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박골(타박골, 저전동, 다복동, 박발골, 탑전동, 탑앞골)’이라 하였다.

**[유래]** 절에 탑이 있으므로 그 앞의 골짜기를 ‘탑앞골’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탑앞골>타박골>다박골>다박골’이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어서 ‘탑전(塔前)’ 또는 다박골을 닥발골(닥나무밭)로 인식하여 ‘저전동(楮田洞)’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저전동면(楮田洞面)’은 이 다박골에서 연유한 것이다.

**[내용]** 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동쪽 원주제일교회가 옛 천수사(泉水寺) 절터였다. 거기에 있던 5층 석탑은 일제강점기에 ‘저전동오층석탑’으로 기록되었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천

수사오층석탑’으로 전시되어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의 이 탑 옆의 ‘천수사삼층석탑’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탑은 태장동 영천사에 있던 삼층석탑이다.



「다박골 마을 ; 2019년」

**다보골** [골] → 다박골

**다복동(多福洞)** [마을] → 다박골

**대화정(大和町)** [마을] → 원인동

**[위치]** 인동을 말한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의 현 인동(仁洞)의 옛 이름이다. 1937년에 대화정을 설치하였다가 1946년에 지금의 이름 인동(仁洞)으로 바꾸었다.

**동문(東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동문(東門)이 있던 터를 말한다. 현 인동사거리에서 원주교오거리 사이로 추정된다.

**동문거리(東門--)** [마을]

**[위치]** 동문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원주교오거리 서쪽, 쌍다리풍물시장 주변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에 ‘동문거리(東門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문거리(東門--)’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동문(東門)이 있던 길 주변으로 마을이 섰으므로 동문거리라 하였다.

**박발골** [골] [마을] → 다박골

**상동리(上洞里)** [마을]

**[위치]** 1910년대 현 행정구역상의 원동, 인동, 개



운동, 명륜동 지역을 지칭하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상동(畠上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동리(上洞里, 상동上洞)’라고 하였다.

**[유래]** 원래 본부면의 위쪽이므로 본부면 상동(上洞)이라 하였다.

**[내용]**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본부면의 본읍리(本邑里)와 삼리(三里),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일리(一里), 판재면(板梯面)의 하일리(下一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상동리(上洞里)라 하였다.

1937년에 본부면이 원주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개운정(開運町), 남산정(南山町), 대화정(大和町),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으로 나누고, 상동리 일부와 하동리 일부를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 금정(錦町)으로 나누었다가 1946년에 동명 변경에 의해 남산정을 원동(園洞)으로, 대화정을 인동(仁洞)으로, 본정이정목을 중앙동(中央洞)으로, 금정을 일산동(一山洞)으로 고치고, 개운정은 개운동(開運洞)으로 하였다.

**서낭당** [당] → 성황사

**[위치]** 남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낭당으로, 성황사를 말한다.

**서낭당고개** [고개]

**[위치]** 원동에서 무실동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청산사거리에서 정골을 지나 뚝내, 신촌을 거쳐 무리실로 가던 고갯길로, 현 청산사거리에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남쪽을 지나 평원중학교, 원주우편집중국으로 가던 고갯길이다. 『조선지리지』에 ‘성황당고기(城隍堂)’라 하였다.

**[유래]**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성황사(城隍祠)** [당]

**[위치]** 남산에 있던 사당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관문 남쪽 2리에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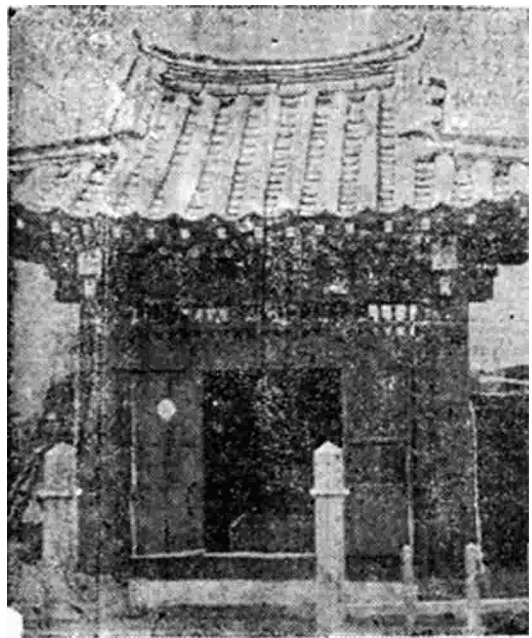
**어서비각(御書碑閣)** [비각] → 왕비각터

**왕비각터(王妃閣-)** [터]

**[위치]** 현 원주교오거리 남서쪽에 있던 조선 인조

(仁祖)의 비(妃)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탄생을 기념한 비각을 말한다. 『여지도서』에 인열왕후가 태어난 옛터로 관아에서 동쪽으로 수십 보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왕비각터(王妃閣-)’라 하였다.

**[내용]** 인열왕후의 아버지 한준겸(韓浚謙)이 선조 27년(1594)에 원주목사가 되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은 뒤라 오직 이 자리에만 집이 남아있어서 임시 관사로 쓰는 중에 이 집에서 인열왕후가 탄생하였다. 뒤에 기념비각을 세웠는데,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인동(仁洞)의 이름이 인열왕후(仁烈王后)에서 유래하였다.



「인열왕후탄생비각 : 1928년」

**원동(園洞)** [마을] → 원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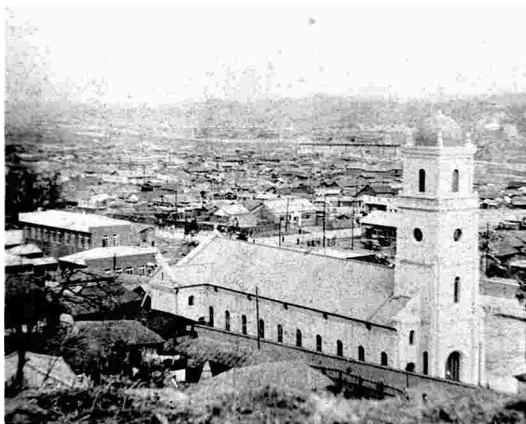
**[위치]** 강원감영 남쪽, 남산 북쪽, 서쪽으로는 원동주공아파트에 이르는 지역의 마을이다.

**[유래]** 강원감영 앞의 남산을 원주의 정원으로 보아 원동(園洞)이라 하였다. 원래 원주군 본부면 상동리에 속하였는데, 1937년 남산정(南山町)이 되었다가 1946년 원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원동성당(園洞聖堂) [성당]

**[위치]** KBS원주방송국 남동쪽, 가톨릭센터 서쪽에 있는 천주교 성당을 말한다.

**[내용]** 1896년 르메르 신부가 부임하여 세 번째 본당으로 설정되면서 ‘원주본당’으로 불렸다. 1913년에 고딕식으로 지었으나 한국전쟁 때 건물이 전소되고 1954년 9월에 현 건물을 완공하였다. 학성동성당이 생긴 1957년에 ‘원동성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원동성당 ; 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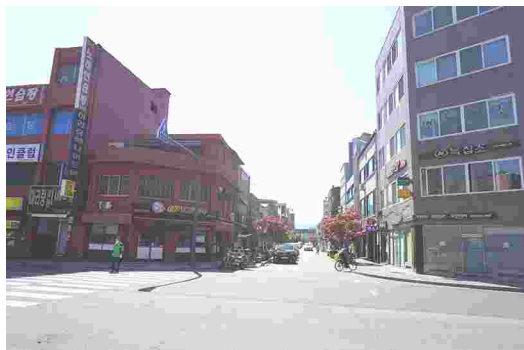
「원동성당 ; 2018년」

## 인동(仁洞) [마을] → 원인동

**[위치]** 원주교오거리와 인동사거리, 남부시장을 잇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안에 가톨릭센터와 성지병원이 있다.

**[유래]** 조선 16대 인조(仁祖)의 비(妃) 인열왕후(仁

烈王后)가 태어난 곳이므로 인동(仁洞)이라 하였다. 원래 원주군 본부면 상동리 지역인데, 1937년 원주읍제 실시에 따라 대화정(大和町)이라 하다가 1946년 인동으로 고쳤다.



「인동 마을 ; 2019년」

## 저전동(楮田洞) [마을] → 다박골

**[유래]** 탑앞골이 다박골, 닥밭골, 다복골, 박밭골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되면서 이를 닥나무밭으로 해석하여 한자로 ‘저전동(楮田洞)’이라고 하였다. 이 이름이 ‘저전동면(楮田洞面)’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 추월대(秋月臺) [유적]

**[위치]** 남산 봉우리 북동쪽, 능선 끝에 있던 대(臺)를 말한다. 현 KBS원주방송국 남쪽 언덕에 기념비를 세웠다. 『한국지명총람』에 ‘추월대(秋月臺)’라 하였다.

**[유래]** 『여지도서』에 고을 뒤쪽 산기슭에 있는데 예전에 섬돌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인조 때의 강원도관찰사였던 이민구(李敏求)가 이곳에 올라 치악산에 뜬 가을 달을 보고 그 경관이 좋아서 ‘추월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시가 한 수 전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여기가 빈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주택이 들어섰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문화원에서 터를 확보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에는 이민구의 「등추월대(登秋月臺)」시가 새겨져 있다.



「추월대 : 2019년」

**타박골** [골] [마을] → 다박골

**탑앞골** [골] [마을] → 다박골

**탑전**(塔前) [마을] → 다박골

**탑전동**(塔前洞) [마을] → 다박골

**호주말** [마을]

**[위치]** 옛 소방서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지금의 강원감영 남쪽 지역을 말한다.

**[내용]** 옛날에 백정들이 집단으로 모여 산 곳이라고 한다.

## 일산동(一山洞)

### [위치]

일산동은 원주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3.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중앙동, 서쪽으로는 단계동, 남쪽으로는 원인동, 북쪽으로는 학성동과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 상동리(上洞里)와 하동리(下洞里)에 속한 지역이었다.  
1937년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할 때 원주읍을 14개 정(町)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때 상동리와 하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정(錦町)이라 하였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개정하면서 금정(錦町)을 일산동(一山洞)으로 바꾸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시 일산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유래]

마을의 서쪽 경계인 일산봉(一山峰), 막골산, 백장산(百場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일(一)자로 늘어서 있으므로 일산(一山)이라고 하였다.

**갈두(葛頭)** [마을] → 갈머리

**갈머리** [마을]

**[위치]** 옛 사직당 마을 남쪽, 구 원주시청의 북쪽 아래에 있던 마을로, 현 원주시보건소 서쪽, 일산 어린이공원 동쪽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옮겨 ‘갈두(葛頭)’, ‘추두(秋頭)’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갈머리(秋頭)’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갈머리(갈두葛頭)’라 하였다.

**[유래]** 길이 갈라지는 모퉁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갈머리라 하였다. 옛날 이곳은 북서쪽 누문으로 가는 길과 남동쪽 강원감영으로 가는 길, 서쪽으로는 막골을 거쳐 모래내와 백간으로 넘어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갈머리는 ‘갈+머리>갈머리’인데 ‘갈’은 ‘갈라지다(分)’의 뜻이며 ‘머리’는 모퉁이를 뜻하는 ‘모롱이’가 ‘모롱이>모리>머리’로 변한 것이다. ‘길이 갈라지는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갈두(葛頭)’ 또는 ‘추두(秋頭)’라 하였는데 ‘葛頭’는 ‘갈머리’의 ‘갈’의 소리와 ‘머리’의 뜻을 따라 쓴 것이다. ‘秋頭’의 ‘추(秋)’는 ‘갈머리’의 ‘갈’을 ‘가을(秋)’로 보고 뜻을 따라 적은 것이며, ‘두(頭)’는 ‘머리’의 뜻을 따라 적은 결과이다.

**감리교부근** [마을]

**[위치]** 원주제일교회 부근, 현 다박골사거리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리교부근(監理敎--)’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에 감리교 교회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용]** 다박골사거리 옆 감리교회(현 원주제일교회)가 있는 곳은 옛 천수사(泉水寺)터이다. 천수사에 있던 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천수사5층석탑’으로 전시되어 있다. 현 교회 건물은 1993년에 준공하였는데, 공사 당시 출토된 옛 천수사 유물들이 원주시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강원감영(江原監營)** [유적]

**[위치]** 원일로 85에 있는 조선시대 강원도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관청을 말한다.

**[내용]** 조선 초기인 1395년 원주가 강원도의 수부(首府)로 지정된 후 500년 동안 강원도의 전체 행정을 관장하던 곳으로, 조선시대 강원도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원래 감영의 규모는 지금의 자리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넓은 마을을 포괄하였으며 건물의 숫자만도 40동이 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원주군 청사로 사용되었다. 현재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과 관청 입구인 포정루 및 내아 등이 원 위치에 남아있고 중삼문지, 내삼문지, 공방고지, 책방고 등의 터가 그대로 남아있어 복원하였다. 2018년에는 연못과 영주관, 봉래각, 관풍각을 복원하는 등으로 전국의 조선 팔도 감영 중 원형이 가장 잘 복원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적 제439호로 지정되었다.



「강원감영 ; 2019년」

**강원감영문루(江原監營門樓)** [누정] → 포정루



「강원감영문루 현판 ; 1969년」



## 객관터(客館-) [터]

**[위치]** 강원감영 북쪽, 현 중앙동 하나마트 부근에 있던 감영에 딸린 건물을 말한다. '객사(客舍)터'라고도 한다. 객관은 '신월헌(新月軒)', '학성관(鶴城館)'이라고도 하였다. 『여지도서』에 70칸으로 관문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35년에 다시 10여 칸으로 짓고, '신월헌(新月軒)'이라 하였다. 그 자리에 옛 원주공립농업학교(현 영서고등학교)가 들어섰다가 한국전쟁 때 전소된 후 지금은 주택 및 상가가 들어서 있다.



「객관 ; 1912년」

## 객사터(客舍-) [터] → 객관터

## 과수원골 [마을]

**[위치]** 동진골 남서쪽 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동진골사거리 남동쪽, 일산봉 동쪽 아래, 신진 빌리지가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과수원골'이라 하였다.

**[유래]** 과수원이 있었으므로 과수원골이라 하였다.

## 관사촌(官舍村) [마을] → 중앙동 관사촌, 상청거리

## 관풍각(觀風閣) [누정]

**[위치]** 강원감영 선화당 서쪽 연못의 봉래각 북쪽에 있던 누각을 말한다. 현재 선화당 서쪽 연못 가운데에 복원하였다.

**[유래]** '관풍(觀風)'이란 '관풍속찰(觀風俗察)'에서 온 말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고을 사정을 잘 살핀다는 뜻에서 쓰는 것이다. 이런 이름은 일

반 정각에는 쓰지 않고 관아의 정각에만 쓰는 것이라고 한다.

**[내용]** 1796년(정조 20년)에 강원도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이 지은 누각이다. 2018년에 복원하였다.

**[전설]** 못에 개구리가 있어도 우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강감찬(姜邯贊)이 방예(防豫)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관풍각 ; 1912년」

## 군인극장 [극장]

**[위치]** 원일로 지하상가사거리 서쪽에 있던 극장을 말한다. 그 자리에 현재 원주시보건소가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군인극장'이라 하였다.

**[내용]** 1950년대 중반에 국방부에 의해 건립되어 주로 군인들의 문화공간 시설로 사용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1992년 원주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지금은 원주시보건소, 원주시건강문화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인극장 ; 1973년」



「군인극장 : 1988년」

#### 군인극장뒤 [마을]

**[위치]** 옛 군인극장 뒤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시보건소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군인극장뒤’라 하였다.

#### 금정(錦町) [마을] → 일산동

**[위치]** 현 일산동의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다.

**[유래]**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원주읍으로 승격하면서 원주읍을 14개 정(町)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때 상동리와 하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정(錦町)이라 하였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금정(錦町)을 일산동(一山洞)으로 바꿨다.

#### 내삼문(內三門) [건물]

**[위치]** 강원감영에 있는 문을 말한다. 관찰사가 있는 선화당으로 가기 위해서 포정루->중삼문->내삼문->선화당으로 가는 마지막 문이다. ‘징청문(澄淸門)’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삼문(中三門)에서 직각으로 꺾여 선화당 정면을 향하고 있다.



「내삼문 : 2019년」

#### 내아(內衙) [건물]

**[위치]** 현재 강원감영 선화당 동쪽 옆에 있는 건물을 말한다. ‘청운당(靑雲堂)’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대은당(戴恩堂)’이라고 하였다. 『관동지』에 ‘내아(內衙)’라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강원감영에 부속되었던 건물로 관찰사의 가족이 거처하던 안채이다. 온돌방과 창고가 함께 있는 ㄱ자형의 목조 기와집으로, ㄱ자 집인 점과 툇마루가 달려 있는 것이 특이하다. 1760년(영조 36년)에 지어진 건물로 2005년에 전면 해체 복원하였다.



「내아 : 2019년」

#### 다박골 [골]

**[위치]** 강원감영 서쪽, 현 다박골사거리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 다박골사거리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일산로가 나 있다. ‘다복골’, ‘타박골’, ‘박발골’, ‘탑앞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현 원주제일교회 자리에 옛 ‘천수사(泉水寺)’가 있었고 그 절의 탑 앞에 있던 골짜기이므로 ‘탑앞골>타박골>다박골’이라 하였다.

#### 다박골 [마을]

**[위치]** 다박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다박골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다. ‘타박골’, ‘저전동(楮田洞)’, ‘다복동’, ‘박발골’, ‘탑앞골’, ‘탑전동(塔前洞)’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박골(타박골, 저전동, 다복동, 박발골, 탑전동, 탑앞골)’이

라 하였다.

**[유래]** 옛 천수사(泉水寺)에 탑이 있으므로 그 앞의 골짜기를 ‘탑앞골’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탑앞골>타밭골>타박골>다박골’이 되면서 비슷한 이름들이 생겼다. 이를 한자로 적어서 ‘탑전(塔前)’, 다박골을 닥밭골(닥나무밭)로 인식하여 ‘저전동(楮田洞)’이라 하였다.

**다보골** [골] → 다박골

**다복동(多福洞)** [마을] → 다박골

**대은당(戴恩堂)** [건물] → 내아

**동진곡(東辰谷, 東進谷, 童眞谷)** [마을] → 동진골

**동진골** [골]

**[위치]** 옛 시청 터에서 남서쪽으로, 동진골사거리와 소삼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서 현재 천사로가 나 있다. ‘동짓골’이라고도 한다.

**동진골** [마을]

**[위치]** 동진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소삼고개 동쪽 아래, 현 동진골사거리와 학성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동짓골’, ‘동진동(東辰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동진골(東進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진골(동진골, 동진곡東辰谷)’이라 하였다.

**[유래담]** 예전에 동지(同知) 벼슬을 하던 사람이 살았으므로 동짓골, 동진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한 건장한 남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를 모르는 채 평생을 농사일만 하다가 죽었다 하여 아이 ‘동(童)’자에 ‘진(眞)’자를 사용하여 동진골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동진골들** [들]

**[위치]** 동진골에 있던 들을 말한다. 골짜기의 들을 따라 현 천사로가 나 있고 주변은 주택지가 되었다. 『조선지리지』에 ‘동진골밭(東進谷坪)’이라고

하였다.

**동진골** [마을] → 동진골

**동진동(東辰洞)** [마을] → 동진골

**동짓골** [골] [마을] → 동진골

**동헌(東軒)** [유적] → 친민당

**막골** [골]

**[위치]** 갈머리에서 서쪽 막골고개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주시보건소에서 영진아파트, 일산동성당을 지나 중앙초등학교에 이르는 지역이다. 고개 너머에는 모래내와 백간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막골(幕谷)’이라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에 ‘막골(幕谷)’이라 하고 갈머리와 백간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이 골짜기를 따라 ‘옛시청길’, ‘갈머리길’, ‘백간길’이 이어져 나 있으며 이 길이 일산동과 학성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막골 골짜기의 남쪽이 일산동이다.

**막골고개** [고개]

**[위치]** 막골에서 서쪽으로 백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70m이다. 현 일산동성당에서 중앙초등학교를 지나 삼천리아파트를 넘어가는 백간길이 나 있다. 고개 너머에 모래내사거리가 있다.

**막골산** [산]

**[위치]** 막골고개 남서쪽에 있는 높이 184m의 산을 말한다. 현 일산연립 남서쪽, 원주교육문화관 남쪽에 있는 산이다.

**무학당(武學堂)** [건물] → 중앙동 연무당

**박밭골** [골] [마을] → 다박골

**본다박골** [마을]

**[위치]** 원래의 다박골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일산동 지역을 말한다. 한자로 ‘본저전동(本楮田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본다밭골(本楮田

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다박골(<탑앞골)을 ‘다박골(닥나무밭골)’로 보아 ‘저전동(楮田洞)’이라 하였는데 이후 이 이름이 ‘저전동면(楮田洞面)’으로 확대되어 저전동면 1리(가현동), 2리(우산동), 3리(만종리), 4리(사제리)까지 포함하게 됨에 따라 원래의 다박골을 중심으로 한 일산동 지역을 ‘본저전동(本楮田洞)’이라 하였다.

**본저전동(本楮田洞)** [마을] → 본다박골

**봉래각(蓬萊閣)** [누정]

**[위치]** 강원감영 선화당 뒤 연못 가운데의 섬 위에 있는 누각을 말한다.

**[내용]** 『여지도서』 『원주읍지』 『강원도지』에 갑자년(1684)에 관찰사 신완(申琬)이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정자의 크기는 6간이고 선화당 뒤쪽 연못 가운데 작은 섬에 있었다. 송환기(宋煥箕)의 성담집(性潭集)에 ‘봉래각은 선화당 북쪽 작은 연못 가운데에 있었다. 외나무다리를 건너 들어가니 특별한 정취가 있었다.’고 하였다. 2018년에 새로이 복원하였다.



「봉래각 ; 2019년」

**봉명루(奉命樓)** [누정] → 중앙동 봉명루

**[위치]** 객관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 누각(樓閣)의 이름이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객관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예전에 객관

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창건 연대나 내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기문이나 시문도 남아 전해지는 것도 없어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부자촌(富者村)** [마을]

**[위치]** 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문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자촌(富者村)’이라 하였다.

**[유래]** 병원 앞에 있는 마을로 문화주택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평각(浮萍閣)** [누정] [마을] → 중앙동 부평각

**부평각골목** [마을] → 중앙동 부평각

**상동리(上同里)** [마을] → 개운동 상동리

**서문(西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서문이 있던 곳을 말한다. 현 다박골사거리와 원동사거리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서문거리(西門--)** [마을]

**[위치]** 강원감영 서쪽 서문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서문거리(西門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문거리’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서문 주변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선화당(宣化堂)** [건물]

**[위치]** 강원감영의 가운데에 있는 주된 건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화당(宣化堂)’이라고 하였다.

**[내용]** 강원감영의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집무하던 정청(正廳)이다. 태조 4년(1395)에 강원감영을 원주에 설치하고 고려 충숙왕(忠肅王) 때 지은 객사(客舍)를 그대로 쓰다가 성종 11년(1480)에 관찰사 권륜(權綸)과 목사(牧使) 이지(李墀)가 신축에 착수하여 4년 뒤 목사 김적(金積)이 준공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전소되어 현종 8년(1667)에 관찰사 이후산(李後山)이 다시 완공하였다. 고

종 32년(1895)에 강원감영이 폐지되고 춘천에 관찰부(觀察府)를 둬 따라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가 사용하였다. 이후 원성군, 원주군 청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청 별관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이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한 단층집으로 중후한 느낌이 드는 건축물이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이다.



「선화당 ; 1912년」



「선화당 ; 2019년」

#### 소삼고개 [고개]

**[위치]** 동진골에서 서쪽 모래내와 백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진골사거리에서 단계택지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갯길을 따라 천사가 가 나 있다. 고개 너머에 소삼터 마을이 있다.

#### 송선정(崇仙亭) [누정] → 송화정

#### 송화정(崇化亭) [누정]

**[위치]** 강원감영 서쪽에 있었다고 하는 정자를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고을에

서 서쪽으로 2리쯤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고을 서쪽 2리쯤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원주원성향토지』에 단구동에 있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송선정(崇仙亭)’이라고도 하였다. 『조선환여승람』에 ‘송선정(崇仙亭)’이라 하였다.

**[내용]** 목사(牧使) 민정(閔貞)이 세웠다. 강원감영 서쪽 2리라면 현 위치는 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산초등학교 사이로 추정된다. 일산봉 또는 소삼고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단구동은 감영에서 남쪽에 있으므로 기록상의 방향이 맞지 않다.

#### 신명신사(神明神社) [당]

**[위치]** 일제강점기 때 남산에 있던 신사(神社)를 말한다. 남산 북쪽 아래, 현 원주문화원 부근으로 추정된다. 『강원도지』에 원주읍 남리(南里)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1933년에 건립되었다.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을 제사한다고 하였다.

#### 신월헌(新月軒) [유적] → 객사터

#### 쌍수대(雙樹臺) [누정]

**[위치]** 강원감영 객관 서쪽에 있던 누각을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창건이나 철폐된 시기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객관 서쪽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객관 서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원주원성향토지』에 시청별관 자리에 있었다고 하였다.

#### 연무당(鍊武堂) [건물] → 중앙동 연무당, 봉산동 열무당

#### 옥거리(獄--) [마을]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감옥이 있던 마을로 감영 북서쪽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치는 현 지하상가사거리 부근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에 ‘옥거리(玉街)’



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옥거리’라고 하였다.

#### 원주공설운동장 [시설]

**[위치]** 옛 원주시청 북쪽 아래에 있던 운동장을 말한다. 현 원주시보건소 서쪽, 일산어린이공원 남쪽에 있었다. 현재 주택지가 되어 있다. 인근에 원주실내체육관이 함께 있었다.



「원주공설운동장 ; 1969년」



「원주공설운동장 ; 1972년」

#### 일산(一山) [산] → 일산봉

#### 일산동 지하도 [장] → 지하상가

#### 일산봉(一山峰) [산]

**[위치]** 소삼고개 남쪽, 동진골 남서쪽, 샘둔지골 북동쪽에 있는 높이 192.7m의 산을 말한다. 현 신진빌리지 서쪽, 우보삼성아파트 북서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일산봉(一山峰)’이라고 하였다.

**[유래]** 일산봉에서 백장산(百場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일(一)자로 정렬하였으므로 일산(一山)이라 하였고, 이 이름을 따서 일산동이라는 이름이 생

겼다.

#### 저전동(楮田洞) [마을] → 다박골

**[유래]** ‘탐얏골’이 ‘다박골, 닥밭골, 다복골, 박밭골’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되면서 이를 닥나무밭으로 해석하여 한자로 ‘저전동(楮田洞)’이라 하였다. 이 이름이 ‘저전동면(楮田洞面)’으로 확장되어 면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중삼문(中三門) [건물]

**[위치]** 강원감영에 있는 문을 말한다. 선화당으로 가는 길로 포정루 다음에 있는 문이다.

**[내용]** 관찰사가 있는 선화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정루→중삼문을 지나 다시 내삼문을 거쳐야 하였다. 중삼문에서 다시 신원을 확인하고 용무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중삼문 ; 1964년」



「중삼문 ; 2019년」

#### 지하도 [장] → 지하상가

#### 지하상가 [장]

**[위치]** 현 지하상가사거리 지하에 들어선 상가를 말한다. 1989년에 사거리 지하에 만든 상가 및 민방위 대피시설이다.



「지하상가 : 1985년」

**징청문(澄淸門) [건물] → 내삼문**

**[유래]**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다. 청렴결백한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뜻으로 '징청문(澄淸門)'이라 하였다.

**천수사(泉水寺) [절]**

**[위치]** 다박골사거리 옆 현 원주제일교회 자리에 있던 옛 절을 말한다.

**[내용]** 현 다박골사거리 옆의 원주제일교회 자리가 옛 천수사(泉水寺) 절터였다. 절에 대한 내력은 전하지 않는다. 거기에 있던 오층석탑이 일제강점기에 '저전동5층석탑'이라 기록되었는데, 이 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천수사오층석탑'으로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발굴된 또 다른 석탑 부재로 원주시역사박물관에는 삼층석탑을 복원해 놓았다. 따라서 옛 천수사에는 적어도 두 기의 석탑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석탑들은 고려 초기 또는 중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절이 창건된 시기는 고려 전기 또는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천수사삼층석탑'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탑은 태장동 영천사에 있던 삼층석탑

이다.

**청운당(靑雲堂) [건물] → 내아**

**청음정(淸陰亭) [누정]**

**[위치]** 강원감영의 객관 남쪽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청음당(淸陰堂)'이라고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에 객관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원주읍지』에 이선제의 칠언절구 한 수가 기록되어 있다. '햇살이 퍼져 밤이슬 그치고 장미가 활짝 피어 뜰 앞은 밝다. 일이 없어 난간에 기대어 있으니 피꼬리 노래 소리 어디선가 들리네.'

**친민당(親民堂) [유적]**

**[위치]** 강원감영에 있던 동헌(東軒)을 말한다. 『여지도서』에 15칸으로 1752년에 목사(牧使) 윤흡(尹滄)이 동헌으로 중건하였다고 하였다.

**타박골 [골] [마을] → 다박골**

**탐앞골 [골] [마을] → 다박골**

**탐전(塔前) [마을] → 다박골**

**탐전동(塔前洞) [마을] → 다박골**

**포정루(布政樓) [건물]**

**[위치]** 강원감영의 정문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강원감영문루(江原監營門樓)'라 하였다.

**[내용]** 정면 3칸, 측면 2칸인 중층 팔작지붕이다. 태조 4년(1395년) 강원감영을 설치할 때 건립하였으나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현종 8년(1667)에 이후산(李後山)이 준공하였다. 원래는 포정루였으나 1896년 강원감영이 춘천으로 이전하고 나서 '운주헌(運籌軒)', '선위루(宣威樓)'라는 현판을 달았다가 없어졌고, 한국전쟁 이후 '강원감영문루(江原監營門樓)'라는 현판을 달았다가 1991년에 다시 '포정루(布政樓)'라는 현판을 달았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포정루 ; 2019년」

하동리(下洞里) [마을] → 학성동 하동리

학성관(鶴城館) [건물] → 객사터

해골산 [산]

**[위치]** 구 원주시청 자리, 현 원주일산두진하트리  
옴시티아파트 자리에 있던 산을 말한다.

향사당(鄉射堂) [건물] → 중앙동 향사당

호떡거리 [길]

**[위치]** 옛 금강제화 사거리에서 남서쪽으로 다박  
골사거리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현 로데오거리 남  
동쪽 무실로가 나 있는 길이다.

**[유래]** 골목에서 호떡을 많이 팔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환선정(喚仙亭) [누정]

**[위치]** 강원감영 봉래각 옆에 있던 정자이다. 현재  
선화당 서쪽에 복원하였다.

**[내용]** 1746년에 관찰사 김상성(金尙星)이 창건하  
였다. 창건기가 있다.

## 중앙동(中央洞)

### [위치]

중앙동은 원주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평원로를 중심으로 평원동, 서쪽으로는 원일로를 중심으로 일산동, 남쪽으로는 원동과 인동, 북쪽으로는 학성동과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의 상동리(上洞里)와 하동리(下洞里)에 속한 지역이었다.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면서 원주읍을 14개 정(町)으로 편성하였다. 이때 상동리 일부와 하동리 일부를 본정이정목(本町二町目)과 금정(錦町)으로 재편하였는데, 중앙동 지역은 본정이정목에 속하였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바꿀 때 중앙동(中央洞)으로 하였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시 중앙동이 되었다.

### [유래]

일제강점기에는 ‘본정이정목(本町二町目)’이라 하였는데, 원주읍의 중앙이 되므로 1946년 중앙동이라 하여 현재에 이른다.

### 객관터(客館-) [터]

**[위치]** 강원감영 북쪽, 현 중앙동 하나로마트 부근에 있던 감영에 딸린 건물을 말한다. '객사(客舍)', 또는 '신월헌(新月軒)', '학성관(鶴城館)'이라고도 하였다. 『여지도서』에 70칸으로 관문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객사터(客舍-)'라 하였다.

**[내용]**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35년에 다시 10여 칸으로 짓고, '신월헌(新月軒)'이라 하였다. 그 자리에 옛 원주공립농업학교(현 영서고등학교)가 들어섰다가 한국전쟁 때 전소되었고, 지금은 주택 및 상가가 들어서 있다.

### 객사터(客舍-) [터] → 객사터

### 관사촌(官舍村) [마을]

**[위치]** 옛 강원감영의 관사가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관광호텔 부근으로 추정된다. 관사촌 주변 마을은 '상청거리'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관사촌(官舍村)'이라 하였다.

**[유래]** 강원감영의 관사가 있으므로 관사촌이라 하였다.

### 동문(東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동문(東門)이 있던 터를 말한다. 현 인동사거리에서 원주교외거리 사이로 추정된다.

### 동문거리(東門--) [마을]

**[위치]** 동문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원주교외거리 서쪽, 쌍다리풍물시장 주변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에 '동문거리(東門街)'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동문(東門)이 있던 길 주변으로 마을이 섰으므로 동문거리라 하였다.

### 무학당(武學堂) [건물] → 연무당

### 미로시장 [장]

**[위치]** 중앙시장 건물 2층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주로 소품 가게와 카페, 화실, 공방 등이 자리 잡

고 있다.

### 민속풍물시장 [장] → 평원동 쌍다리풍물시장

### 봉명루(奉命樓) [누정]

**[위치]** 객사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 누각의 이름이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객관 동쪽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예전에 객관 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창건 연대나 내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기문이나 시문도 남아 전해지는 것도 없어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 부평각(浮萍閣) [누정]

**[위치]** 강원감영의 객관 옆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감영 동헌 동쪽 10여 걸음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가운데 작은 섬에 지었던 정각이다. 현재 위치는 옛 객관이 있던 중앙동 하나로마트 옆, SC제일은행원주지점 자리로 추정된다. 『여지도서』에 6칸으로 객관 동쪽에 있다고 하였고 『원주원성향토지』에 선화당 동쪽에 있었다고 하였다.

**[내용]** 강원도관찰사 이명한(李明漢)이 세웠으며 영조 갑인년(1734)에 이우신(李雨臣)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원래의 정각은 없지만 이 정각의 창건이나 중수는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곤 하였다. 이명한이 감영 동헌 동쪽 못가운데의 섬에 작은 정자를 짓고 마치 섬 속에 부평초가 떠있는 것 같아서 '부평각'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다.

### 부평각(浮萍閣) [마을]

**[위치]** 옛 강원감영의 부평각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부평각골목(浮萍洞)'이라고 하였다. 현 중앙로 문화의거리와 평원로 사이로 추정된다.

### 부평각골목 [마을] → 부평각

### 북문(北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북문이 있던 터를 말



한다. 현 학성초등학교의 남쪽 평원사거리를 중심으로, 평원동과 학성동, 중앙동의 경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북문거리(北門--) [마을]

**[위치]** 북문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학성초등학교 남쪽 평원사거리 부근에 있던 마을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북문거리(北門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북문거리(北門--)’라 하였다.

#### 분수대 [길]

**[위치]** 현 원주교오거리를 말한다. 중앙동과 평원동, 인동의 경계가 되는 길이다.

**[유래]** 1990년대 초까지 분수대가 있는 로터리였는데, 이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신호체제로 바뀌었다.

#### 상동리(上洞里) [마을] → 개운동 ‘상동리’

#### 상청거리(上廳--) [마을]

**[위치]** 현 원주관광호텔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청거리’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향청거리(鄉洞)’라 하였다.

**[유래]** 원주목의 관사(상청)가 있어 상청거리라 하였다.

#### 새말 [마을]

**[위치]** 원주교오거리에서 개봉교사거리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신촌(新村)’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유래]** 새로 마을이 들어섰으므로 새말이라 하였다.

#### 쇠전거리 [장]

**[위치]** 현 국민은행 부근에 있던 장터를 말한다. ‘우시장거리’라고도 하였다.

**[유래]** 예전에 우시장이 있었으므로 쇠전거리, 우시장거리라고 하였다.

#### 시공관 [극장]

**[위치]** 쌍다리풍물시장의 아카데미극장 남쪽, 평원로 건너편에 있던 극장을 말한다.

**[내용]** 1962년에 지은 1,180석의 큰 극장이었다. 2009년에 철거되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공관 ; 1983년」



「시공관 ; 1983년」

#### 신월헌(新月軒) [건물] → 객관터

#### 신촌(新村) [마을] → 새말

#### 쌍다리 [다리]

**[위치]** 분수대가 있던 현 원주교오거리에서 동쪽 봉산동으로 놓여진 원주천의 다리, 원주교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쌍다리(봉천교, 원주교)’라 하였다.

**[유래]** 두 개의 다리가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쌍다리라 하였다.

**[내용]** 1915년에 가설하였는데 1922년의 홍수로 유실되었고, 1923년 신축, 1930년에 다시 유실되

었다. 1931년 6월에 신축하였으며 ‘쌍다리’로 통용되고 있다.

**쌍다리풍물시장 [장]** → 평원동 쌍다리풍물시장

**양키시장 [장]**

**[위치]** 현 자유시장과 중앙시장을 말한다.

**[유래]** 1965년 두 시장이 분리되기 이전에 각종 미군부대 군수물자가 거래되었으므로 양키시장이라고 하였다.

**연무당(鍊武堂) [건물]** → 봉산동 열무당

**[위치]** 옛 강원감영의 군사훈련 시설을 말한다. 위치는 현 SC제일은행 부근으로 추정된다. ‘무학당(武學堂)’이라고도 하였다. 『동국여지지』에 객관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원래 객관 남쪽에 있던 ‘무학당(武學堂)’을 1735년 봉산동 옛 천왕사터로 옮겨 ‘열무당(閱武堂)’이라 하였다.

**옥거리(獄--) [마을]**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감옥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감영의 북서쪽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현 지하상가사거리 부근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에 ‘옥거리(玉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옥거리’라 하였다.

**우시장거리(牛市場--) [장]** → 쇠전거리

**옥정(旭町) [마을]** → 평원동

**원주극장 [극장]**

**[위치]** 평원로 원주관광호텔 동쪽 옆에 있던 극장을 말한다. 지금은 철거되어 그 자리에 원주중앙우체국이 들어서 있다.

**[내용]** 군인극장을 제외하고 원주에서 민간인이 처음 세운 극장이다. 처음 1950년대 후반에는 아가데미극장 자리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후 민간인에게 양도하며 자리도 옮겼다. 영화와 공연 쇼도 진행하였다. 2009년에 철거하였다.

**원주양조장 [산업]**

**[위치]** 현 원주관광호텔 자리에 있던 옛 양조장을 말한다.

**[내용]** 1960년대에 원주를 대표하던 옥로소주(玉露燒酒)를 생산하던 양조장이었다. 옥로소주는 1960년대 전국 300여 지역 소주 중 10대 소주에 들었다고 한다.

**일전시장(一錢市場) [장]** → 중앙시장

**자유시장(自由市場) [장]**

**[위치]** 중앙시장 북서쪽 길 건너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유래]** 1960년대 미군부대에서 나온 군수물자를 거래하던 양키시장이 시장의 모습을 갖추면서 중앙시장과 분리되어 자유시장이 되었다. 1987년 주상복합으로 건축하여 지금의 실내 시장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유시장 ; 1953년」



「자유시장 ; 1974년」



「자유시장 : 1988년」



「자유시장·중앙시장 입구 : 1973년」

#### 저자거리 [마을]

**[위치]** 현 인동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사이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산채나물, 두부, 콩나물 등 부식을 팔던 아침 시장이 열려 이를 저자거리라 하였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원일로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 중앙시장(中央市場) [장]

**[위치]** 강원감영 북서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북동쪽 아래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원주시의 중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원주지역 대표 재래시장이다. '일전시장'이라고도 한다.

**[내용]**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북한 주민과 지역 상인들에 의해 형성된 칸막이 형태의 판자촌에서 시작하였다. 1950년대 영서지역의 도매시장 역할을 해오다가 1960년대 큰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

고 1970년에 재개장해 오늘에 이른다. 2층은 미로시장으로 불린다. 예전에는 한 가지 물건에 무조건 일전씩만 주었다고 해서 일전시장(一錢市場)이라고도 하였다.



「중앙시장 : 1969년」



「중앙시장 : 1972년」



「중앙시장 : 1985년」

**포교당터(布教堂-)** [터] → 평원동 포교당터

**풍물시장 [장]** → 평원동 쌍다리풍물시장

**하동리(下洞里)** [마을]

**[위치]** 원주시의 북쪽 아래 지역을 말한다. 현 중양동과 평원동, 학성동 지역을 지칭하였다.

**[유래]** 남쪽에 남산이 있고 북쪽 지역이 원주천의 하류에 해당하여 지대가 낮으므로 하동리라 하였다. 감영 쪽의 높은 곳은 상동리(上洞里)라 하였다.

**[내용]** 1937년에 원주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상동리와 하동리를 14개의 정(町)으로 편성하였다. 1946년에 일본식 명칭인 정(町)을 동(洞)으로 모두 바꾸었다.

**학성관터(鶴城館-)** [터] → 객관터

**향사당(鄉射堂)** [건물]

**[위치]** 강원감영에 딸린 건물을 말한다. 『동국여지지』에 객관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 태장동(台庄洞)

### [위치]

태장동은 원주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봉산동과 소초면 수암리, 서쪽으로는 가현동과 학성동, 남쪽으로는 봉산동, 북쪽으로는 소초면 장양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의 이리(二里)와 삼리(三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2리와 3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본부면 태장리(台庄里)라 하였다.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면서 원주읍을 14개 정(町)으로 편성할 때 태장정(台庄町) 1구·2구로 되었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태장동(台庄洞)이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함에 따라 원주시 태장동이 되었다.

### [유래]

조선 성종(成宗)의 왕녀 복란(福蘭)의 태실(胎室)이 있었으므로 ‘태장(胎藏)’이라 하다가 ‘태장(台庄)’이라 하였다.



### 가래실골 [골]

**[위치]** 덕현들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백운3차아파트 서쪽 태장공단으로 가는 태장공단길이 나 있다.

### 가마기 [마을] → 가매기

### 가마이(加馬耳) [마을] → 가매기

### 가마이교(加馬耳橋) [다리]

**[위치]** 가매기 앞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 가마지(加馬只) [마을] → 가매기

### 가막지(可莫只) [마을] → 가매기

### 가막지현(可莫只峴) [고개] → 가매기고개

### 가매기 [골]

**[위치]** 현 가매기사거리에서 북동쪽 가매기고개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덩덩이골(大王堂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마기(가마이加馬耳, 가마지加馬只)라 하였다.

### 가매기 [마을]

**[위치]** 현 가매기사거리에서 북동쪽 가매기고개로 이어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넓게는 현 가매기골과 육판바우골 입구, 땡땡이골, 쑥디버덩 지역을 통칭하던 이름이다. ‘가마이·가마기·가미기·가마지·가막지·둔뜰리·땡땡이골’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가미기(加馬只)라 하였다.

**[유래]** ‘가매기’는 ‘신을 모신 곳’이라는 뜻이다. 봉산 뒤흘에는 땡땡이골을 비롯, 신령이 성한 곳이므로 ‘가매기’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에 강원감영에 올 때, 이곳에서 가마에서 내려 말을 갈아타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말의 수효를 늘리고 줄이고 하였으므로 가마지(加馬只), 가매기라 불렀다는 말이 전한다.

**[풀이]** 『조선지리지』에 땡땡이골을 ‘대왕당곡(大王堂谷)’으로 적고 가마지(加馬只)에 있다고 하였다. 즉 대왕(신)을 모신 땡땡이골이 있으므로 이 골

짜기를 가마지로 부르게 된 것이다.

‘대왕당’은 성황당을 일컫는 말이다. 신(神)을 왕이나 대왕으로 칭하고 이 마을신을 모신 성황당을 ‘대왕당(땡땡이)’, 대왕당이 있는 곳을 ‘대왕당골(땡땡이골)’이라고 하였다. 춘천시 보안동의 땡땡이골(대왕당大皇堂), 소초면 흥양리 웃황골의 ‘대왕재’, 소초면 평장리 섬배의 ‘대왕산’ 등은 서낭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가매기’는 ‘가마+기(지)>가마기(지)>가매기, 가매지’로 된 것으로, ‘가마’는 신(神)을 뜻하는 옛말 ‘곰’에서 파생된 말이며, ‘기(己)·지(只)’는 ‘곳, 장소’를 의미하는 지명소이다. 즉 가매기는 ‘신을 모신 신령스런 장소’의 뜻이다.

따라서 ‘神=大王=곰(가마)’의 등식에 의하여 신을 모신 서낭당 골짜기가 ‘대왕당골=땡땡이골=가매기’로 불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봉산 주변은 유난히 절이나 암자가 많은데 특히 봉산 주변은 ‘영전골’과 ‘땡땡이골’을 위시하여 암자가 무수히 많고 무속이 성한 것으로 보아 예부터 신기(神氣)가 강한 곳으로 인식되어 ‘가매기’라는 지명이 생겼고 이것이 확장되어 이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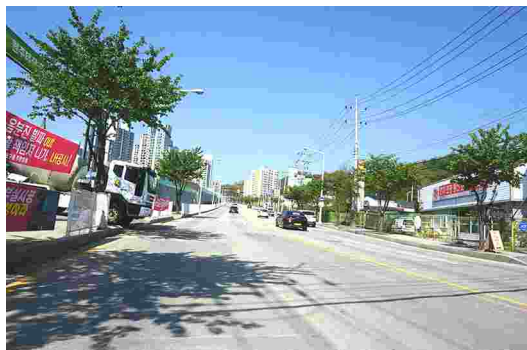
「가매기 마을 : 2019년」

### 가매기고개 [고개]

**[위치]** 가매기에서 북쪽 소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옆에 화장장이 있으므로 ‘화장티고개’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가막지현(可莫只峴)’

이라고 하였다.

**[내용]** 가매기는 옛날 강원감영에서 소초면 학곡리 토동, 횡성 오원역을 거쳐 강릉으로 가는 주요 도로였다.



「가매기고개 ; 2019년」

#### 가매기골(1) [골]

**[위치]** 가매기 마을 앞에서 가매기천을 따라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가매기고개가 있다. 현재 골짜기를 따라 가매기사거리에서 북동쪽으로 치악로가 나 있다.

#### 가매기골(2) [골] → 영전골, 절골

**[위치]** 가매기마을에서 동쪽으로 영천사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영전골’, ‘절골’이라고도 한다. 현 태장중학교 북동쪽으로 길이 나 있다.

#### 가매기와요지 [터]

**[위치]** 가매기고개 남동쪽 아래, 번재골 공동묘지 아래에 있는 와요지를 말한다.

#### 가매기천 [내]

**[위치]** 웃가매기골, 번재골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봉 학교 앞에서 원주천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현 치악로 옆을 따라 흐르는 내이다.

#### 가매지절 [절] → 영전사

#### 가미기 [마을] → 가매기

#### 가치래미고개 [고개]

**[위치]** 못마구니 마지기골에서 남서쪽 가치래미(가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25m이다.

#### 갈무니골 [골] → 갈문이골

#### 갈문이골 [골]

**[위치]** 현 태장농공단지 서쪽, 섬강에서 남쪽으로, 못마구니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 강릉선 철로가 지나고 골 끝 위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갈무니골’이라고 하였다.

#### 개륜골봉 [산]

**[위치]** 봉산 북동쪽, 옥판바우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 217.6m의 산을 말한다. 봉산동 살대울 서쪽에 있다. 남쪽 아래에 개륜골이 있고 산 북동쪽 능선 아래에 아리랑고개가 있다. 태장동과 봉산동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 거래들 [들]

**[위치]** 점촌에서 남동쪽 절골저수지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우성1차아파트와 백운2차아파트 남쪽에 있는 들이다.

#### 거리대(巨里岱) [마을] → 거릿대

#### 거리터들 [들]

**[위치]** 거릿대에서 남쪽으로 흥양천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 하태장의 주택단지가 되었다. 『조선지리지』에 ‘거리씨들(巨里岱坪)’이라고 하였다.

#### 거릿대 [마을]

**[위치]** 하태장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복원중학교와 태봉초등학교 북쪽, 옛 캠프롱 남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거리대’, ‘고리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거리씨(巨里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릿대(거리대巨里岱, 고리대)’라 하였다.

**[유래]**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길이 연결된 곳이므로 거릿대라 하였다.

**[유래담]** ‘큰 잉어의 터’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마을 형태가 금닭(金雞)이 알을 품고 있는 오목한 형

태이고, 한편으로 큰 잉어의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거릿대라 하였다고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한다.

**[내용]** 옛날에는 거릿대 남쪽과 남서쪽, 현 하태장이 있는 곳이 모두 ‘태장들’, ‘거리터들’이라는 들판이었고 마을은 현 복원중학교 북쪽에 있었다. 이 마을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여서 마치 오늘날의 사거리나 오거리의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서 연결되는 길은 동쪽으로 돌모루와 피미, 황골, 북동쪽으로는 갯바위와 회촌, 장양리, 서쪽으로는 노리개와 가치래미를 거쳐 구슬뿔, 남서쪽으로는 우산동, 북쪽으로는 적동과 장전을 거쳐 횡성으로 연결되어 마치 방사선처럼 길이 나있던 곳이었다. 길들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므로 ‘거릿대’라고 하였다.

**[풀이]** ‘거리+대(垓)>거리대>거릿대’가 되었다. ‘거리’는 ‘길’을, ‘대(垓)’는 ‘장소, 터’를 뜻한다.

#### 거릿대제방둑 [둑]

**[위치]** 거릿대 앞 흥양천에 있는 긴 둑을 말한다. 태장들에 흥양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막은 둑이다.

#### 건너담 [마을]

**[위치]** 절골(2)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노루고개(2) 서쪽 아래에 있다.

#### 고리대 [마을] → 거릿대

#### 고추골 [마을]

**[위치]** 한배미 남동쪽에 있는 집성촌을 말한다. 신마지기들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구룡곡(九龍谷) [골] [마을] → 구룡골

#### 구룡골 [골]

**[위치]** 거릿대의 거리터들 남쪽 흥양천 건너에서 남동쪽으로, 붉은덕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두진아파트를 비롯한 상가 및 아파트 단지에서 남동쪽 원주태장체육단지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골짜기 안에 구룡골저

수지가 있었고 동쪽에 맹골산, 그 산줄기에 붉은덕고개, 하우고개가 있다. 맹골산 남쪽 소리개골은 쓰레기가 매립된 후 현재는 원주태장체육공원이 들어서 있다.

**[유래]** 지형이 우묵한 구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름골>구룡골’이라 하였다.

**[유래담]** ①이곳 지형이 구렁이처럼 생겼으므로 구룡골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②소의 여물을 먹이는 구유(먹이통)처럼 생겨서 구룡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③또는 이곳 용바우 아래 깊은 소에 아홉 마리 용이 살았으므로 구룡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아홉 마리 중 여덟 마리는 하늘로 승천하였으나 한 마리는 사람의 눈에 띄어 승천하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풀이]** 구룡골은 대체로 지형이 우묵한 구름으로 된 곳에 붙는 지명이다. 구룡골 앞 흥양천의 구룡소를 ‘구용소(九雄沼)’라 하였으므로 ‘구용(九雄)’ 또는 ‘구룡(九龍)’은 ‘구름’을 음차하여 좋은 뜻으로 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구룡골 [마을]

**[위치]** 거릿대, 거리터들 남쪽 흥양천 건너 구룡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태장2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던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룡골(구룡곡九龍谷)’이라 하였다.

#### 구룡골서낭당이 [당]

**[위치]** 구룡골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음력 정월 보름에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폐지되었다.

#### 구룡골약수 [샘]

**[위치]** 맹골산 서쪽 아래, 구룡골에 있는 샘을 말한다. ‘웃물’이라고도 한다. 현재도 사용 중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룡골약물(웃물)’이라 하였다. **[내용]** 웃이 오른 사람이 이 물을 먹고 몸을 씻으면 잘 낫는다고 한다.



구룡골약수 ; 2019년

### 구룡골저수지 [못]

**[위치]** 구룡골 안, 땡골산 남서쪽에 있던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지금은 매워 없어졌다. 땡골산 아래에 있으므로 ‘땡골언’이라고도 하였다.

### 구룡소 [소]

**[위치]** 구룡골 앞 용바우 아래에 있던 흥양천의 소(沼)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구웅쇼(九雄沼)’라 하였다.

### 구룡소다리 [다리]

**[위치]** 흥양천 구룡소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 구웅소(九雄沼) [소] → 구룡소

### 진발골 [마을] → 진발골

### 넘어담 [마을]

**[위치]** 점촌 남동쪽, 적동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동쪽에 절골이 있다. 현 백운 2차아파트 지역이다.

### 노루고개(1) [고개]

**[위치]** 하태장에서 북쪽으로 점촌, 장양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옛 1군사령부와 옛 캠프롱 사이의 도로가 난 곳으로 가현리와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노루목고개’, ‘놀개’, ‘놀고개’, ‘노리개’, ‘노리고개’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대개 ‘노현(老峴)’으로 적었는데 『여지도서』에는 ‘장현(獐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노루기(老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노루를 사냥할 때 물이꾼들이 이곳

으로 노루를 몰아 사냥한 고개이므로 노루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놀~노루~노리’는 ‘넓다, 늘어지다’의 뜻이 있다. ‘넓은 골(마을)’의 뜻인 ‘너르골, 너르실’은 지방에 따라 ‘노루골, 누르실, 느리실’ 등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한자로는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노루’는 ‘널, 너르, 놀, 노르, 노리, 누르, 누리, 늘’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는데 ‘노리개’의 ‘노리’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놀>노루>노리’가 되고 ‘노리고개>노리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자로 ‘장현(獐峴)’은 ‘노루’의 뜻을 취한 결과이며 ‘노현(老峴)’은 ‘노루(獐)’가 아니라 ‘늘어지다’로 보아 ‘놀, 노리’의 소리를 취한 결과이다.

### 노루고개(2) [고개]

**[위치]** 사리고개 서쪽 아래, 정지터골에서 북쪽 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노루골 [골]

**[위치]** 한배미 양지말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상록아파트와 금광포란재1단지아파트 지역이다.

**[유래]** 예전에는 이곳에 노루가 많았다고 한다.

### 노루골 [마을]

**[위치]** 노루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상록아파트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

### 노루목고개 [고개] → 노루고개(1)

### 노리개 [고개] → 노루고개(1)

### 노리개 [마을] → 가현동 노리개

### 노리고개 [고개] → 노루고개(1)

### 노하(路下) [마을]

**[위치]** 원주IC 남쪽, 원주TG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원주영업소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갈이뤼(路下)’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노하(路下)’라고 하였다.

**[유래]** 큰 길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노하(路下)

라 하였다.

**[내용]** 옛 국도 서쪽 아래에 있으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도 마을의 동쪽과 북쪽이 영동고속도로 IC와 TG로 둘러싸이고 남쪽에도 다시 진입로가 나서 마을이 도로로 둘러싸였다.

#### 노하들 [들]

**[위치]** 노하 마을 남쪽과 서쪽으로 펼쳐진 들을 말한다.

#### 노하천(路下川) [내]

**[위치]** 절골에서 북서쪽으로, 노하와 못마구니를 지나 봉장 앞에서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작은 내를 말한다.

#### 놀개 [고개] → 노루고개(1)

#### 놀고개 [고개] → 노루고개(1)

#### 능골 [골]

**[위치]** 옥판바우와 번재고개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공동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위에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능골이라 하였다.

#### 대교천(大橋川) [내] → 흥양천

**[위치]** 흥양천의 옛 이름이다.

#### 대왕당곡(大王堂谷) [골] → 가매기

#### 댕대골 [골] → 땡땡이골

#### 땡땡이골 [골]

**[위치]** 작은옥판바우들 동쪽, 옥판정 서쪽 아래에서 남쪽으로, 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각사와 관음사 사이에서 남쪽, 보현사 동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댕대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땡땡이골(大王堂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골짜기 안에 잘 관리된 샘이 있고 무당들의 제단이 산재해 있다. 전국에서 무당들이 올라와 제를 지내는 곳이라 한다. 성황당이 있었으나 개인 사유지이므로 2017년에 폐지되었다.

**[풀이]** 신을 모신 서낭당을 대왕당이라고 하고 그 골짜기를 ‘대왕당골>땡땡이골’이라고 한다. ‘신(神)=왕(王)=금’이므로 ‘금+기(땅,장소)>감(卜)기>가마기>가매기’가 되었다. 즉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인 ‘가매기’는 이곳 땡땡이골에서 나온 것이다.

#### 땡땡이골성황당 [당]

**[위치]** 작은옥판바우골 남동쪽, 땡땡이골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매년 정월 열나흘날 오전에 제사를 지냈다. 2017년에 폐지되어 없어졌다.

#### 덕고개 [고개]

**[위치]** 덕현들에서 북쪽으로, 장양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태장농공단지삼거리에서 장양사거리로 넘어가는 복원로가 나 있다. ‘덕현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고기(德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고개’라 하였다.

#### 덕현고개(德峴--) [고개] → 덕고개

#### 덕현들 [들]

**[위치]** 덕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백운3차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한국도로공사강원지역본부 북쪽 영동고속도로 건너에 있는 들이다.

#### 도락골 [골]

**[위치]** 한배미 열여섯마지기들에서 남쪽 음달말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도락골(道樂洞)’이라고 하였다.

#### 뒸봉 [산]

**[위치]** 땡골산 남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197m의 산을 말한다. 땡골산과 하우고개의 중간에 있는 산이다. 봉우리 북쪽에 붉은덕고개가 바로 붙어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뒸봉’이라 하였다.

**[유래]** 산이 가팔라서 오르기가 매우 힘들므로 뒸봉이라고 한다.

#### 두지바우 [바위]

**[위치]** 소일 두집이골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현재는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두지바우’라고 하였다.



였다.

**[유래]** 바위 모습이 뒤주처럼 생겼으므로 ‘두지바우(<뒤주바우>)’라 하였다.

#### 두짐 [마을]

**[위치]** 소일에서 도로 건너 동쪽, 우곡저수지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사당골 입구에 있던 마을이다. 마을 자리에 현 원주시개인택시지부가 들어서 있다.

**[유래]** 두짐이골 입구에 있던 마을이므로 ‘두짐’이라 하였다.

**[풀이]** ‘뒤주>디주>두지>두짐’으로 변하였다. ‘디주>두지’는 모음교체에 의한 변화이다.

#### 두짐이골 [골]

**[위치]** 두짐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우곡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둔뚝리 [마을] → 가매기

#### 뒷골 [마을]

**[위치]** 방강골 뒤쪽 현 태장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골’, ‘윗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골’이라 하였다.

**[유래]** 방강골의 뒤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뒷골이라 하였다.

#### 마섬머리골 [골]

**[위치]** 적동저수지 남동쪽 사리고개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망석골지(望石峙)’라고 하였다.

#### 마지기골 [들]

**[위치]** 못마구니들 남동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가치래미고개 북쪽 아래에 있다.

#### 망석골 [골] → 마섬머리골

#### 매양골 [마을] → 맹골

#### 맹곡 [골] → 맹골(1)

#### 맹골(1) [골]

**[위치]** 구룡골에서 남쪽으로 크게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삼정백조아파트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에 통제고개가 있고 그 남쪽 너머에 소일이 있다. ‘맹곡’이라고도 한다.

#### 맹골(2) [골]

**[위치]** 우곡저수지 서쪽 아래 샘말들에서 통제고개가 있는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맹골골짜기’라 하였다.

#### 맹골(3) [골]

**[위치]** 하우고개 북쪽 아래 뱀사태머리골에서 서쪽 붉은덕고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곳으로 행정구역은 소초면 흥양리이다.

#### 맹골 [마을]

**[위치]** 맹골(2)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미양골(梅良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맹골’이라 하였다.

#### 맹골골짜기 [골] → 맹골(2)

#### 맹골산 [산]

**[위치]** 구룡골 동쪽 끝, 현 갯바위사거리의 남서쪽에 있는 높이 222m의 산을 말한다. 현 원주태장체육단지 북쪽으로 붙어있는 산이다. ‘된봉’과 구분하지 않고 이 산을 ‘된봉’이라고도 한다.

**[내용]** 남동쪽 아래로 붉은덕고개와 된봉이 있고 그 아래에 하우고개가 있다. 북쪽 사면은 경사가 급하고 하우고개로 내려가는 남동쪽은 경사가 완만하다.

#### 맹골언 [못] → 구룡골저수지

#### 메골 [골]

**[위치]** 현 강원과학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메’라는 풀이 많이 나므로 메골이라 한다.

#### 못골 [마을] → 택동

#### 못마구니 [마을] → 택동

### 못마구니고개 [고개]

**[위치]** 못마구니에서 동쪽 호저면 주산리 작골 남쪽 중보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에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못마구니 마을 앞에 있으므로 못마구니고개라 하였다.

### 못마구니들 [들]

**[위치]** 못마구니 마을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무진고개 [고개]

**[위치]** 봉산(鳳山) 북서쪽 능선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태장중학교 남쪽 육판바우골 입구에서 남서쪽 봉산동 배말타운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효자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진고기(武辰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진고개(茂辰--)’라 하였다.

**[유래]** 효자 황무진이 이곳에서 태어났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서 무진고개, 효자고개라 하였다.

**[내용]** 황무진의 효성은 하늘에 닿아 그가 부모님의 약을 지어 밤중에 이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업고 넘거나 호위했다는 전설이 있다.



「무진고개 ; 2019년」

### 방강골 [골]

**[위치]** 옛 태봉 남쪽, 한배미(일야미)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강변교와 태장초등학교의 북쪽, 현 진우아파트와 대흥2차아파트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태장초등학교 서쪽, 한배미 앞에서 원주천

이 거의 70도로 각이 져 흐르므로 ‘방강(方江)’이라고 하였다.

### 방강골(方江-, 芳江-) [마을]

**[위치]** 방강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상태장의 중심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방강골(芳江谷)’이라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는 ‘方江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방강골(方江-)’이라 하였다.

### 백바우 [바위]

**[위치]** 육판바우골 대각사에서 뱀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의 색깔이 희므로 백바우라 부른다.

### 뱀산 [산]

**[위치]** 육판바우 북서쪽, 영천사 동쪽에 있는 높이 242m의 산을 말한다.

**[유래]** 뱀이 많으므로 뱀산이라고 부른다.

### 번재 [고개]

**[위치]** 육판바우골에서 북동쪽으로 능골을 지나 번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95m이다. ‘본재’라고도 한다.

### 번재골 [골]

**[위치]** 가매기고개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들어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성호아파트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개 위에 공동묘지가 있고 고개 너머에는 능골이 있다. ‘본재골’이라고도 한다.

### 보들(湫-) [들]

**[위치]** 사리고개골 아래, 웃담 북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예찬어린이집 서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웃담 위쪽, 현 신애교 위 흥양천에 보(湫)를 막은 곳의 들이므로 보들이라 하였다.

### 보석골 [골]

**[위치]** 자월구령이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보수골(浦水洞)’이라고 하였다.

보제존자사리탑 [탑] → 보제존자삼층석탑

보제존자 삼층석탑(普濟尊者 三層石塔) [유물]

**[위치]** 영전사(令傳寺:현 영천사靈泉寺) 터에 있던 고려 말의 고승(高僧) 나옹(懶翁) 곧 보제존자(普濟尊者)의 사리탑을 말한다.

**[내용]** 나옹(懶翁) 화상(和尚)의 사리탑으로 고려 우왕 13년(1387)에 세웠는데, 1915년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겼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영전사에는 탑이 3기가 있었는데, 그 중 2기가 나옹 화상의 사리탑이다. 현재 3기 모두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보제존자 삼층석탑 ; 1912년」

보현사약수 [샘]

**[위치]** 봉산 북쪽 아래, 작은육판바우들 남쪽 위, 보현사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현재에도 사용 중이다.



「보현사약수 ; 2019년」

본재 [고개] → 번재

본재골 [골] → 번재골

봉두골 [골]

**[위치]** 소일에서 도로 건너 남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 남동쪽에 봉산동 번재의 삼보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두골(鳳頭谷)’이라고 하였다.

봉사골 [골]

**[위치]** 점촌 서쪽 도로 건너, 현 원주IC교차로에서 남서쪽 가지래미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상가 및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봉사골들 [들]

**[위치]** 봉사골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원주IC교차로 남서쪽, 자동차 판매소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부채바우 [바위]

**[위치]** 우곡저수지 동쪽 도로 옆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부흥재 [고개]

**[위치]** 『조선지리지자료』에 나오는 고개 이름이다. 본부면 3리 ‘가매기’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부흥적(復興峴)’이라고 하였다.

**[내용]** 본부면 3리 가매기에 있다고 하였다. 가매기에서 흥양리 유새의 부흥사(富興寺) 방면으로 넘는 고개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분터골 [골]

**[위치]** 현 원주IC교차로에서 동쪽 장전저수지를 지나 183.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분터골저수지 [못] → 장전저수지

붉은덕고개 [고개]

**[위치]** 맹골산 남동쪽 산줄기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된봉 북쪽 아래에 있다. 높이는 185m이다.

**[내용]** 구룡골에서 동쪽 솔문안으로 넘어가는 고

개로, 현 원주태장체육단지 야구장에서 동쪽으로 넘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 땡골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 비득재골 [골]

**[위치]** 우곡저수지에서 길 건너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진골이 갈라져 나간다. 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 사당골 [골]

**[위치]** 두집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진골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안에 원주시개인택시지부가 들어서 있다. ‘사장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예전에 사당이 있었으므로 사당골이라 한다.

#### 사리고개 [고개]

**[위치]** 거릿대에서 웃담을 지나 동쪽으로, 소초면 수암리 갯바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리고개’라 하였다.

**[유래]** 논밭의 사래처럼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사래고개>사리고개’로 음운 변천하였다.

#### 사리고개골 [골]

**[위치]** 보들에서 북서쪽으로, 191.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리고개 서쪽 아래에 있다.

#### 사장골 [골] → 사당골

#### 삼보골고개 [고개]

**[위치]** 소일 남동쪽, 봉두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봉산동 번재의 삼보골이 있다. ‘삼복골고개’, ‘삼부골고개’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235m이다. 『조선지리지』에 ‘삼부골고지(三富洞峴)’라 하였다.

#### 삼복골고개 [고개] → 삼보골고개

#### 삼부골고개 [고개] → 삼보골고개

#### 상보(上湫) [보]

**[위치]** 거릿대 앞 흥양천에 있는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보(上湫)’라 하였다.

#### 상태장(上台庄) [마을]

**[위치]** 태장동 중 흥양천 남쪽 태봉을 중심으로 한 방강골 마을을 말한다. 현 태장삼거리에서 강변교 삼거리에 이르는 지역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상태장(上台庄)’이라 하였다.

**[내용]** 흥양천을 기준으로 남쪽에 상태장과 중태장, 북쪽에 하태장이 있었다.

#### 새마을 [마을] → 신촌

#### 새보 [보]

**[위치]** 방강골 앞 원주천에 있던 보(湫)를 말한다. 학성동들에 물을 대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보’라고 하였다.

#### 샘말 [마을]

**[위치]** 통제고개 남동쪽, 우곡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샘말들 [들]

**[위치]** 샘말 남쪽, 우곡저수지 서쪽 아래로 나 있는 들을 말한다. 들의 일부가 현 원주태장2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 석우천(石隅川) [내] → 소초면 흥양리 돌모루개울

#### 섬구령골 [골]

**[위치]** 하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강원과학고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소리개골 [골]

**[위치]** 땡골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구룡골에서 이어진 골짜기로 현 삼정백조아파트에서 남동쪽 붉은덕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현재 원주태장체육단지가 들어서 있다.

**[내용]** 골짜기 중간에 구룡골저수지가 있었다. 이 골짜기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체육단지가

들어섰다.

**소새바우** [마을] [바위] → 진암

**소일** [마을]

**[위치]** 가매기고개 북쪽 아래, 하우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곡저수지가 있는 마을이다. 한자로 적어 ‘우곡(牛谷)’이라고도 한다. 마을 대부분이 원주태장2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소일(牛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일(우곡牛谷)’이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풀이]** 소 골짜기를 뜻하는 ‘소실’이 ‘소실>소실>소일’로 음운 변천하였다.

**소일저수지** [못] → 우곡저수지

**쇠쟁이들** [들]

**[위치]** 일야미천 상류, 양지담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우곡저수지 아래 샘말들에서 서쪽으로 일야미천을 따라서 난 들이다. 들 북쪽에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다. 현 원주태장2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유래]** 들의 모양이 소의 쟁기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마지기들** [들]

**[위치]** 한배미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상록2차아파트 남쪽, 나영유치원 옆에 있는 골짜기의 들이다.

**[유래]** 논이 현 마지기나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촌(新村)** [마을]

**[위치]** 원주IC교차로 남쪽, 봉사골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신촌감리교회가 있는 마을이다. ‘새마을’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마을(신촌)’이라고 하였다.

**[유래]** 새로 들어선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썩뒤** [마을] → 썩디버덩

**썩디** [마을] → 썩디버덩

**썩디골** [골]

**[위치]** 썩디버덩에서 북동쪽으로, 보석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현 흥화브라운빌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성호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다.

**[유래]** 썩이 많은 골짜기여서 ‘썩대골>썩디골’이라 한다.

**썩디버덩** [마을]

**[위치]** 진암 남쪽, 가매기 북서쪽, 썩디골 입구 둔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현충탑 남쪽 태장도서관이 있는 마을이다. ‘썩디’, ‘썩뒤’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썩뒤들(藪後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썩디버덩(썩뒤)’이라 하였다.

**[풀이]** 버덩은 ‘뜰, 층계’의 뜻에서 ‘들, 벌판(坪, 野)’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 말이다. ‘썩디버덩’은 ‘썩이 무성한 둔덕 들’이란 뜻이다. ‘썩디’는 ‘썩대>썩디’로 변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디’를 ‘긔, 장소’를 뜻하는 ‘지(只)’로 보기도 한다.

**아랫담** [마을]

**[위치]** 맹골산 북서쪽 아래 도로변, 구룡골약수터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흥양천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웃담과 마주보고 있다.

**아리랑고개** [고개]

**[위치]** 옥판바우골에서 동쪽으로, 번재의 향문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85m이다.

**[유래]** 번재 주민들이 원주장을 보기 위해서 넘던 고갯길이다. 옛날 나무꾼들이 원주 나무전거리로 가면서 힘이 들어 ‘아리랑’을 부르며 오르는데 고개가 가팔라 ‘어리랑’으로 불렸다고 한다.

**양지담** [마을]

**[위치]** 소일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태장2개발지구에 마을이 모두 편입되었다.

**양지말** [마을]



**[위치]** 한배미 북쪽, 노루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한배미삼거리 남쪽, 상록2차아파트 앞에 있다. ‘양지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지말(양지촌陽地村)’이라 하였다.

**양지촌(陽地村)** [마을] → 양지말

**언니** [못] → 우곡저수지

**언둔(堰屯)** [마을] → 언뚝지

**언뚝지** [마을]

**[위치]** 하태장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언뚝지(언둔堰屯)’라 하였다.

**[내용]** 옛날 하태장이 개발되기 전, 현 태장동성당 서쪽의 도로 옆에 연못이 있었으므로 그 저수지의 옆에 붙어 있던 마을을 ‘언뚝지’라고 하였다. 연못은 1971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메웠다.

**[풀이]** ‘언(堰)’은 ‘둑, 제방’이란 뜻이고 ‘둔(屯)’은 ‘언덕, 둔덕’이란 뜻이며, ‘지’는 ‘지(只)’로 표기하는 것으로 ‘곳, 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못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엄나무골** [골]

**[위치]** 일야미천 상류 샘말들에서 북쪽 통제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에 쇠쟁이들이 있다. 골 서쪽에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다.

**[유래]** 엄나무가 많아서 엄나무골이라 하였다.

**엄나무골** [마을]

**[위치]** 엄나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열여섯마지기들** [들]

**[위치]** 한배미 고추골 마을에서 동쪽으로, 일야미천 옆으로 난 들을 말한다. 쇠쟁이들 서쪽 아래, 도락골 입구에 있다.

**[유래]** 논이 열여섯마지기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전골** [골]

**[위치]** 가매기 마을에서 동쪽 영천사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태장중학교 북쪽에 있는 길이다. 『조선지리지』에 ‘영전골(寧靜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영전사가 있던 골짜기이므로 영전골이라 한다.

**영전사(令傳寺)** [절]

**[위치]** 가매기골에 있던 옛 절을 말한다. 그 자리에 현 영천사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전사터(令傳寺-)’라 하였다.

**[내용]** 고려 말 공민왕의 국사였던 나옹 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이 절에 있던 삼층석탑 3기가 1915년에 서울 경복궁에 옮겨갔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영천사(靈泉寺)** [절]

**[위치]** 가매기에 있는 조계종 절을 말한다. ‘가매지절’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천사(靈泉寺)’라 하였다.

**[유래]** 옛날 영전사(令傳寺)가 있던 곳에 1940년 암자가 중건되고 법당과 요사채는 1963년에 새로 지었다. 1969년에 김대성이 중건하고 1987년에 ‘영천사(靈泉寺)’라고 이름을 고쳤다.

**[내용]** 이곳에 있던 석탑 3기가 1915년 경복궁으로 옮겨갔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2기는 나옹 화상의 사리탑이다. 다른 1기는 천수사 삼층석탑이라고 잘못 소개되어 있다.



「영천사」 2018년

웃물 [샘] → 구룡골약수

왕녀복란태실비(王女福蘭胎室碑) [비] → 태봉비

용바우 [바위]

[위치] 구룡골 앞 흥양천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바위 아래에 구룡소가 있었고 용소에 용이 아홉 마리가 살았다고 전한다.

우곡(牛谷) [마을] → 소일

우곡저수지 [못]

[위치] 소일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언니’, ‘소일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일저수지(언니)’라 하였다. 1943년에 준공하였다.

웃가매기골 [골]

[위치] 가매기고개 아래, 번재골에서 갈라져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원주화장장의 남쪽에 있다.

웃가매기골 [마을]

[위치] 웃가매기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골 [마을] → 뒗골

[위치] 웃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담 [마을]

[위치] 거리터들 동쪽, 보들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예찬어린이집 서쪽, 아랫담 북쪽의 내 건너에 있다.

뒗골 [골]

[위치] 태장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뒗골 끝에서 통제고개를 넘어 소일과 연결된다.

[내용] 골짜기 안에 옛 절터가 있다. 현 청량사 자리이다.

뒗골 [마을] → 뒗골

육판바우 [마을]

[위치] 육판바우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육판바우 [바위]

[위치] 육판바우골 안 능골 아래, 육판길 길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웃판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육판바우’라 하였다.

[유래] 유래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①이 골짜기에서 판서가 6명이 나와서 ②판서 6명이 여기에 와서 풍류를 즐겨서 ③15세기 조선 성종 때 복란공주의 태봉을 물색하던 중앙관리들이 강원감영의 지방관, 관기들과 함께 웃놀이, 바둑, 장기 등을 즐겨서 ④바위에 웃판을 새기고 웃놀이를 하여서라는 것이다.

[내용] 원래 바위 형상이 어떠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길을 내면서 부수어서 작아졌다고도 하고 바위가 몇 개 있었는데 숫자가 줄었다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육판바우가 있는 장소는 풍류를 즐기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다. 남은 바위로 볼 때 크게 넓거나 크지도 않고 내도 없으며 경치도 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 위에 고누판 같은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④번이 그 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고누판을 웃판이라 하고 발음이 비슷한 육판으로 음운 변천되면서 여섯 판서 이야기로 미화된 것으로 보인다.



「육판바위 ; 2018년」

육판바우골 [골]

[위치] 육판바우 남쪽에 동서로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서쪽 아래에 작은육판바우들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육판바우골(六板岩洞)’이라고 하였다.

**육판정(六判亭)** [누정]

**[위치]** 육판바우골 육판바우 남서쪽 아래, 대각사 입구에 있는 정자를 말한다. 현대에 세운 것이다.

**육판바우** [바위] → 육판바우

**음달말(1)** [마을]

**[위치]**한배미 도락골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음달말’이라 하였다.

**[유래]**동쪽과 서쪽이 다 산으로 막혀 있어 응달이 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음달말(2)** [마을]

**[위치]**맹골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음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음달말(음지陰地)’이라 하였다.

**[유래]**맹골산 아래 구룡골의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陰地)** [마을] → 음달말(2)

**일야미(一夜味)** [마을] → 한배미

**일야미천(一夜味川)** [내]

**[위치]**통제고개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한배미를 거쳐 원주천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한배미천’이라고도 한다.

**자월구렁이골** [골]

**[위치]**한배미 열여섯마지기들에서 남동쪽으로, 가매기고개를 향하여 길게 뻗은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가매기고개, 원주화장장이 있다. 골짜기 중간에서 남쪽으로 보석골이 갈라져 나간다.

**작은육판바우들** [들]

**[위치]**현 가매기사거리에서 육판바우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무진고개 남동쪽 아래, 보현사로 들어가는 골짜기에 있는 들이다.

**장전(長田)** [마을] → 진밭골

**장전동(長田洞)** [마을] → 진밭골

**장전저수지** [못]

**[위치]**분터골에서 동쪽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분터골저수지’라고도 한다.

**장현(獐峴)** [고개] → 노루고개(1)

**재건촌(再建村)** [마을] → 가현동 청룡마을

**적골** [마을] → 적동

**적동(積洞)** [마을]

**[위치]**적동저수지 북서쪽, 현 우성1차아파트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적골’, ‘절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적골(積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적동(積洞, 절골)’이라 하였다.

**적동저수지** [못]

**[위치]**절골 서쪽 아래, 거래들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절골저수지’라고도 한다. 1937년에 준공되었다.

**절골(1)** [골] → 가매기골, 영전골

**[위치]**현 영천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가매기골’, ‘영전골’이라고도 한다.

**[유래]**오랜 옛날부터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하였다.

**절골(2)** [골]

**[위치]**점촌 적동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노루고개 옆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은혜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절 앞으로 원주동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절골** [마을] → 적동

**[위치]**절골(2)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절골저수지** [못] → 적동저수지

**점촌** [마을]

**[위치]**노루고개(1) 위, 장양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IC교차로 남동쪽, 우성1차아파트 앞에 있는 마을이다.

**정지터골** [골]

**[위치]**사리고개골에서 북동쪽 노루고개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구룡골 웃담에서 북서쪽 마섬머 리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 중보(中湫) [보]

**[위치]** 거릿대 앞 흥양천에 있는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보(中湫)’라 하였다.

#### 중태장(中台庄) [마을]

**[위치]** 상태장과 하태장의 중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북원로 서쪽, 학다리 북쪽 현 군부대가 있는 곳에 있던 마을이다.

#### 지암 [마을] → 진암

#### 지울너메 [들]

**[위치]** 소일 앞에 있는 3만여 평의 들을 말한다. 우곡저수지 물을 이용하였다. 현 원주태장2개발지구 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울너메’라 하였다.

#### 진골 [골]

**[위치]** 우곡저수지에서 길 건너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비득재골 남쪽에 붙어 있다. 현 골프연습장과 두집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박골 [마을] → 진밭골

#### 진밭골 [골] → 진밭골

#### 진밭골 [마을]

**[위치]** 현 장양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분터골과 집넘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밭골’, ‘진밭골’, ‘진박골’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장전(長田)’, ‘장전동(長田洞)’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에 ‘진밭골(長田里)’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전(長田, 장전동長田洞, 진밭골)’이라 하였다.

**[유래]** 사래 긴 밭이 있으므로 ‘긴밭골>진밭골’이 되었다. 밭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또 는 원래 이곳은 황무지여서 죽밖에 못 먹으므로 ‘죽박골’이라 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농지가 개량되어 하루 세끼의 밥을 먹게 되었으므로 ‘진밭골’이

라 하다가 ‘진박골’이 되었다고도 한다.

#### 진암(珍岩, 鎭岩) [마을]

**[위치]** 현 영진2차아파트 동쪽 길 건너에 있는 집성촌을 말한다. 현충탑 북쪽, 산 아래에 있다. ‘소새바우’, ‘지암’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진암(鎭岩)’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새바우(진암鎭岩, 지암)’라 하였다.

**[유래]** 마을에 소새바우라는 기이한 바위가 있었으므로 ‘진암(珍岩, 鎭岩)’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에 있었다는 소새바우의 ‘소새’는 ‘헛바닥>셋바닥’처럼 ‘소의 혀’에서 나온 말이다. 흥양리 살여울의 소새바우는 소의 혀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므로 여기의 소새바우도 그와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가 넓게 나면서 마을의 산이 거의 깎여나갔는데 산에는 바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바위를 중심으로 삼고 원주천을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었으므로 옛날 마을 앞에 집승당(集勝堂)을 지었다.

**[전설]** 이곳에도 원주에 널리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설화가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부잣집에 손님이 많았다. ②손님치기가 귀찮아서 스님에게 비방을 얻는다. ③비방에 따라 바위를 부순다. ④손님이 끊기고 집도 망한다는 내용이다.



「진암 마을 ; 2019년」

#### 진암(珍岩) [바위]

**[위치]** 현 진암 마을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내용]** 도로가 나고 원주천을 개발하면서 대부분

해체되어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 진암약수 [샘]

**[위치]** 진암 마을에 있는 샘을 말한다. 현 영진2차 아파트 동쪽 산 아래에 있다.

#### 집넘어골 [골]

**[위치]** 현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동쪽으로, 능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재 장수2로가 지나가고 있다. 집넘어져수지와 능고개를 넘어 장양리 도곡상촌에 닿는다.

#### 집넘어져수지 [못]

**[위치]** 집넘어골 동쪽, 능고개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 집승당(集勝堂) [누정]

**[위치]** 진암 마을 앞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위치는 진암 마을 앞, 원주천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현 마을 앞 도로변 또는 원주천 둔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여지도서』 『관동지』 『원주군읍지』에 8칸으로 원주 북쪽 7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창건기나 중수기가 없어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정자 뒤에 기이하게 생긴 진암(珍岩)이 있다고 하였다. 오숙(吳翺)·이명한(李明漢)·이정신(李正臣)·윤중삼(尹重三)의 시가 남아있는데 이 시들을 살펴보면, 집승당은 숲이 우거져 세속과 절연된 느낌이 있고 맑은 물도 흐르는 좋은 경치로 묘사되어 있다.

#### 참샘이골 [골]

**[위치]** 소일 남쪽 봉두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원주 화장장을 향해 갈라져 나간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 청량사약수 [샘]

**[위치]** 윗골 동쪽 통제고개 아래, 옛 절터인 청량사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 청룡마을(靑龍--) [마을] → 가현동 청룡마을

#### 충견비(忠犬碑) [비]

**[위치]** 장양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비석을 말한다.

**[유래]** 원래는 현 우성1차아파트 부근 적동 입구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70년대에 현 위치로 옮겼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전형적인 ‘개’ 전설로, 술이 취해 쓰러진 주인을 구하고 죽는다는 내용이나 비면에는 ‘孝子元氏’라고 되어 있다. 연유를 알 수 없고 건립시기도 알 수 없다.



「충견비」; 2019년

#### 태묘비(胎墓碑) [비] → 태봉비

#### 태봉(胎峰) [마을]

**[위치]** 태봉 아래, 현 우성2차아파트 지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 태봉(胎峰, 台峰) [산]

**[위치]** 상태장에 있던 높이 131m의 봉우리를 말한다. 태봉을 없애고 그 자리에 현재 우성2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에 ‘타봉(台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태봉(胎峰)’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 성종(成宗)의 딸 복란(福蘭) 공주의 태를 묻었으므로 ‘태봉’이라 하였고 이것이 ‘태장동(胎藏洞, 台庄洞)’의 기원이 되었다.

#### 태봉들 [들]

**[위치]** 상태장 동쪽, 태봉의 북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지금은 모두 주택단지가 되었다.

#### 태봉비(胎峰碑) [비]

**[위치]** 태봉에 있던 태실비를 말한다. 태장2동 우



성2차아파트 자리에 있다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발굴되어 유물은 춘천국립박물관에 있고, 현장에는 태실비만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태봉비(태묘비胎墓碑)’라 하였다.

**[내용]** 태실비의 앞면에 ‘왕녀복란태실비’(王女福蘭胎室碑), 뒷면에는 ‘성화이십이년십이월이십구일입(成化貳拾貳年拾貳月貳拾玖日立)’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태실의 주인공이 조선 성종의 딸 복란이라는 것과 성종 17년(1486) 12월 29일에 비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복란은 숙의 홍씨가 두 번째로 낳은 정순옹주이다. 태장(胎藏, 台庄)이란 마을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환여승람』에 복란 태봉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왕녀복란태실비 ; 2019년」

**태장(台庄) [마을] → 태장동**

**태장동선사유적 [유적]**

**[위치]** 하태장 서쪽, 흥양천과 원주천이 합류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 있는 유적을 말한다. 가현동의 노리개와 청룡마을 지역이다.

**[내용]** 옛 국군통합병원 터에서 청동기와 철기,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 및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태장동절터 [터]**

**[위치]** 태장초등학교 북동쪽 윗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현 청량사가 있는 자리이다. 절의 내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태장들 [들]**

**[위치]** 거릿대에서 남쪽으로 흥양천에 이르는 넓

은 들을 말한다. 현재 상가 및 태장주공아파트 등의 주택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티장들(台場坪)’이라고 하였다.

**태장리(台庄里) [마을] → 태장동**

**태장시장(台庄市場) [장]**

**[위치]** 하태장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현 복원상가 지역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태장시장(台庄市場)’이라 하였다.

**태장주막 [주막]**

**[위치]** 상태장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티장주막(台庄酒幕)’이라 하였다.

**택동(澤洞) [마을]**

**[위치]** 노하 서쪽, 가치래미 북쪽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갈문이골 남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뒤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못골’, ‘못마구니’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못막은이(澤洞)’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택동(못골, 못마구니)’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연못이 있었기에 ‘못골’, 못을 막았다고 하여 ‘못마구니’라고 하였다.

**통고개 [마을] → 통재**

**통재 [마을]**

**[위치]** 거릿대 북쪽, 옛 Camp Long 자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복원중학교 북쪽, 적동저수지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통고개’, ‘통현(通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통고기(通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통재(통현通峴)’라 하였다.

**[유래]** 옛 교통의 요지인 거릿대 위 고개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길이 여러 곳으로 통하는 고개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통제고개 [고개]**

**[위치]** 구룡골 마을에서 맹골을 거쳐 남동쪽 소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삼정백조아파트 남

쪽, 우곡저수지 북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통현(通峴)** [마을] → 통재

**하보(下淤)** [보]

**[위치]** 거릿대 앞에 있는 흥양천의 보(淤)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하보(下淤)’라 하였다.

**하우고개** [고개]

**[위치]** 태장동 소일과 솔문안을 잇는 고개를 말한다. 현 강원과학고 앞 과학고삼거리에서 송문사거리에 이르는 곳으로, 치악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하우고기(河鳥峴)’라고 하였다.

**하우골** [골]

**[위치]** 우곡저수지에서 북쪽 하우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하우골** [마을]

**[위치]** 현 강원과학고등학교 남서쪽, 하우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하태장(下台庄)** [마을]

**[위치]** 태장동 가운데 흥양천의 북쪽 지역을 말한다. 현 복원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하태장(下台庄)’이라 하였다.

**[유래]** 흥양천의 남쪽 지역을 상태장, 중간 마을을 중태장, 북쪽 지역을 하태장이라고 하였다.

**학다리** [다리]

**[위치]** 현 복원교(北原橋)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다리 양쪽에 학을 세워놓았으므로 학다리라고 부른다.



「학다리 ; 1981년」



「학다리 ; 1987년」

**한배미** [마을]

**[위치]** 태장초등학교 남쪽, 현 상록아파트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일야미(一夜味)’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한바미(一夜味)’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배미(일야미—夜味)’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에 6천 평 정도 되는 큰 논배미가 있었으므로 한배미라 하였다.

**[유래담]** 고을 원님이 하룻밤을 달게 묵어가서 일야미(一夜尾)라고 하였다 한다.

**[풀이]** 전국적으로 한배미란 이름은 많이 발견된다. ‘대전(大田)<한밭>’이 좋은 예이다.

‘한배미’는 논을 세는 단위인 ‘배미’에 크다는 뜻의 ‘한’이 결합하여 ‘한+배미>한배미’가 되었다. 한배미를 ‘大夜味’로 쓴 예도 있고, ‘大栗’로 쓴 예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을 다른 지역과 달리 하나를 뜻하는 ‘一’로 표기하여 ‘한+밤>—夜’라 하였다. 원래 이름이 ‘한배미’인데 ‘—夜’로 하고 나니 ‘한밤’이 되어 끝에 ‘미’가 남으므로 이를 음차하여 ‘味’를 추가하여 ‘—夜味’라 하였다. [유래담]의 원님 이야기는 한배미를 ‘일야미(一夜味)’로 적고 난 이후 이를 다시 풀이하여 지어낸 말이다.

**한배미들**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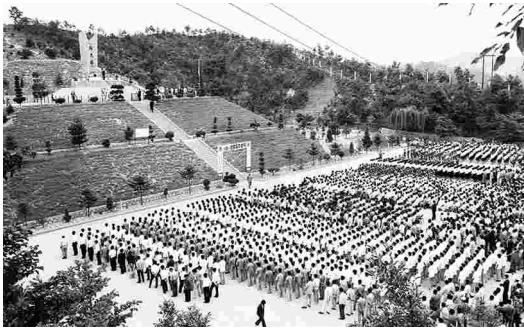
**[위치]** 한배미 마을 서쪽 원주천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태장초등학교에서 길 건너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한배미천 [내] → 일야미천

### 현충탑(顯忠塔) [탑]

**[위치]** 태장동 현충로에 있는 탑을 말한다.

**[유래]** 한국전쟁 당시 순국한 군인, 경찰, 청년 등 순국 충혼 680위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탑이다. 1966년 학성동의 심기연 씨가 대지 1만여 평을 희사하여 이해 6월 6일에 제막과 동시에 전사자 680위의 영령을 봉안하였다.



「현충탑 ; 1973년」



「현충탑 ; 1993년」



「현충탑 건립취지문 ; 1993년」



「현충탑 ; 2019년」

### 현충탑약수 [샘]

**[위치]** 현충탑 서쪽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현충탑약수 ; 2019년」

### 형제바위 [바위]

**[위치]** 옛 공덕사 북동쪽, 현 태장1동성당 북쪽 산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현재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바위가 있던 산 전체가 없어졌다.

### 형제바우골 [골]

**[위치]** 형제바우가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형제바우골(兄弟峯谷)’이라 하였다. 지금은 산을 밀고 택지가 되어 없어졌다.

### 화장터고개 [고개] → 가매기고개

### 항새골 [골]

**[위치]** 장양초등학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분터골에서 남동으로 이어져 있다.

### 효자고개 [고개] → 무진고개

## 흥양천(興陽川) [내]

**[위치]** 치악산 삼봉과 투구봉에서 시작하여 황골, 살여울, 태장동을 지나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돌모루개울’, ‘석우천’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대교천(大橋川)’이라 하였다.



「흥양천 ; 2007년」

## 평원동(平原洞)

### [위치]

평원동은 원주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4.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하여 봉산동, 서쪽으로는 평원로(平原路)를 경계로 하여 중앙동, 남쪽으로는 원주교외거리를 경계로 하여 인동, 북쪽으로는 학성동과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 하동리(下洞里) 지역이었다.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여 원주읍을 14개 정(町)으로 편성할 때 하동리는 영정(榮町)과 옥정(旭町)으로 나뉘었는데 이때 평원동은 옥정에 속해 있었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옥정을 평원동(平原洞)으로 하였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함에 따라 원주시 평원동이 되었다.

### [유래]

고구려 장수왕 57년(469)에 원주에 평원군(平原郡)이 설치되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1946년 평원동(平原洞)이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금성호텔 [건물]

**[위치]** KB국민은행원주지점 동쪽, 원주중앙동우체국 남동쪽, 평원로 옆에 있던 옛 호텔을 말한다.

**[내용]** 원주관광호텔이 있기 전 1960년대 원주에서 최초로 세워진 호텔이다. 원주관광호텔이 들어서면서 문을 닫았다. 지금도 건물은 원형이 남아 있어서 병원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금성호텔 ; 1972년」



「금성호텔 ; 1985년」

## 나무전거리 [장]

**[위치]** 쇠전거리 옆에 있던 나무시장으로 구 분수대, 현 원주교오거리 부근을 말한다. 지금은 상가와 주택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나무전거리’라 하였다.

**[유래]** 원주천 주변 약 1,500평의 잡종지에 땔나무시장이 열리던 곳이므로 나무전거리라 하였다. 치악산에서 채취한 장작과 싸리나무, 숲을 우마차와 지게로 옮겨 땔나무로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 동문(東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동문(東門)이 있던 터를 말한다. 현 인동사거리에서 원주교오거리 사이로 추정된다.

## 동문거리(東門--) [마을]

**[위치]** 동문 주변에 있던 마을로 현 원주교오거리 서쪽, 쌍다리풍물시장 주변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에 ‘동문거리(東門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문거리(東門--)’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동문(東門)이 있던 길 주변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동문거리라 하였다.

## 민속풍물시장 [장] → 쌍다리풍물시장

## 북문(北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북문이 있던 터를 말한다. 현 학성초등학교 남쪽 평원사거리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북문거리(北門--) [마을]

**[위치]** 북문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학성초등학교 남쪽에 있던 마을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에 ‘북문거리(北門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북문거리(北門--)’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북문(北門)이 있던 길 주변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북문거리라 하였다.

## 분수대 [길]

**[위치]** 현 원주교오거리를 말한다. 중앙동과 평원동, 인동의 경계가 되는 길이다.

**[유래]** 1990년대 초까지 분수대가 있는 로터리였다.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신호체제로 바뀌었다.



「분수대 ; 1983년」

상동리(上洞里) [마을] → 개운동 ‘상동리’

상청거리(上廳--) [마을]

**[위치]** 현 원주관광호텔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청거리’라 하였다.

**[유래]** 원주목의 관사(상청)가 있어 상청거리라 하였다.

새벽시장 [장]

**[위치]** 원주교오거리 북쪽, 쌍다리(원주교)와 봉평교 사이의 원주천 강변 주차장에 개설되는 시장을 말한다.

**[내용]** 4월부터 12월까지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장이 선다.



「새벽시장 개장 ; 1999년 4월 26일」

쌍다리 [다리]

**[위치]** 분수대가 있던 현 원주교오거리에서 동쪽 봉산동으로 놓여진 원주천의 다리로, 원주교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쌍다리(봉천교, 원주교)’라 하였다.

**[유래]** 두 개의 다리가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쌍다리라 부른다.

**[내용]** 1915년 가설되었다가 1922년 홍수로 유실되었다. 1923년 신축, 1930년에 다시 유실되었다. 1931년 6월 신축하였으며 ‘쌍다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쌍다리풍물시장 [장]

**[위치]** 쌍다리 서쪽에 있는 원주민속풍물시장을 말한다. 중앙동, 평원동에 걸쳐 있는 시장이다. ‘풍물시장’, ‘민속풍물시장’이라고도 한다.

**[유래]** 쌍다리가 옆에 있으므로 쌍다리풍물시장이라고 한다.

**[내용]** 원주 유일의 5일장으로 노점을 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1989년 시장 건물을 지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쌍다리풍물시장 ; 1989년」

아카데미극장 [극장]

**[위치]** 쌍다리풍물시장이 있는 평원로의 극장을 말한다.

**[내용]** 1960년대 지어져 영화 상연과 강연회, 연설회 등을 하였다. 지금은 폐업하였으나 건물은 남아있다.



「아카데미극장 : 1983년」

### 옥들(沃-) [들]

**[위치]** 현 평원로에서 동쪽, 원주천에 이르는 들로, 평원로에서 새벽시장이 열리는 원주천까지의 들을 말한다. ‘옥똥’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옥평(沃坪)’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옥들(沃坪)’이라고 하였다.

옥똥 [들] → 옥들

옥평(沃坪) [들] → 옥들

옥정(旭町) [마을] → 평원동

### 원천(原川) [내]

**[위치]** 남산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쌍다리풍물시장과 학성초등학교, 정지뚝 한가운대를 지나 우산공단삼거리에서 모래내에 합류하던 내를 말한다.

**[내용]** 원주천의 서쪽 들판인 옥들과 유문들, 정지뚝을 흐르던 내였다. 그 냇물을 따라 현재 문화촌길과 정지길이 나 있다.

### 포교당터(布教堂-) [터]

**[위치]** 평원동에 있던 옛 포교당의 터를 말한다. 위치는 현 원주관광호텔 북쪽, 옛 중앙선 철로 남쪽 주택지이다.

**[유래]** 옛날 이곳에 포교당을 짓고 불교를 포교하다가 1940년에 봉산동으로, 이후 다시 치악산 보문사(普門寺)로 옮겨갔다고 한다.

풍물시장 [장] → 쌍다리풍물시장



「쌍다리풍물시장 개장 : 1989년 12월 24일」



「민속풍물시장 : 2019년」

### 하동리(下洞里) [마을]

**[위치]** 원주 시내 북쪽 아래 지역, 현 중앙동과 평원동·학성동 지역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하동(邑下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하동리(下洞里, 하동下洞)’라 하였다.

**[유래]** 남쪽에 남산이 있고 북쪽 지역이 원주천의 하류에 해당하여 지대가 낮으므로 하동리라 하였다. 감영 쪽의 높은 곳은 상동리(上洞里)라 하였다.

**[내용]**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본부면의 본읍리(本邑里)와 삼리(三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하동리라 하였다.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하동리를 영정(榮町)·옥정(旭町)으로 나누고, 상동 일부와 하동 일부를 금정(錦町)과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으로 나누었다. 1946년 일본식 동명을 고치면서 영정을 학성동으로, 옥정을 평원동으로, 금정을 일산동으로, 본정이정목을 중앙동으로 고쳤다.

## 학성동(鶴城洞)

### [위치]

학성동은 원주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하여 태장동, 서쪽으로는 북원로를 경계로 하여 우산동·단계동, 남쪽으로는 일산동·중앙동·평원동, 북쪽으로는 태장동과 접하고 있다.

학성동의 동쪽에는 원주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원주역을 중심으로 옛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어 철로를 가운데 두고 남쪽의 도시 지역과 정지뜰이 있는 북쪽의 농촌 지역으로 나뉜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의 하동리(下洞里) 지역이었다.

1937년 본부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면서 하동리를 영정(榮町)과 옥정(旭町)으로 나누었는데 이 때 학성동은 영정 지역에 속해 있었다.

1946년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원주의 옛 이름 가운데 학성(鶴城)을 취하여 학성동(鶴城洞)이라 하였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함에 따라 원주시 학성동이 되었다.

### [유래]

조선시대 원주의 속현(屬縣)이던 주천현(酒泉縣)의 별호(別號) 학성(鶴城)의 이름을 따라 학성동(鶴城洞)이라 하였다.

**갈두(葛頭)** [마을] → 갈머리

**갈머리** [마을]

**[위치]** 옛 사직당 마을 남쪽, 구 원주시청의 북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지하상가사거리의 원주시보건소 서쪽, 일산어린이공원 동쪽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옮겨 ‘갈두(葛頭)’, ‘추두(秋頭)’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갈머리(秋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갈머리(갈두葛頭)’라 하였다.

**[유래]** 길이 갈라지는 모퉁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갈머리라 하였다. 옛날 이곳은 북서쪽 누문으로 가는 길과 남동쪽 감영으로 가는 길, 서쪽 막골을 거쳐 모래내와 백간으로 넘어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갈머리는 ‘갈+머리>갈머리’인데 ‘갈’은 ‘갈라지다(分)’의 뜻이며 ‘머리’는 모퉁이를 뜻하는 ‘모롱이’가 ‘모롱이>모리>머리’로 변한 것이다. 길이 갈라지는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갈두(葛頭)’ 또는 ‘추두(秋頭)’라 하였는데 ‘葛頭’는 ‘갈머리’의 ‘갈’의 소리와 ‘머리’의 뜻을 따라 쓴 것이고, ‘秋頭’의 ‘추(秋)’는 ‘갈머리’의 ‘갈’을 ‘가을(秋)’로 보고 뜻을 따라 적은 것이며, ‘두(頭)’는 ‘머리’의 뜻을 따라 적은 결과이다.

**과부골** [마을] → 청산골

**광명마을(光明--)** [마을] → 희망촌

**긴골목** [길]

**[위치]** 현 학성동성당에서 우산철교에 이르는 옛 길을 말한다. 현재 송계1길이 나 있다.

**누문(樓門)** [마을] → 유문

**누문들(樓門-)** [들] → 유문들

**누문터(樓門-)** [터] → 유문터

**땀띠물** [샘]

**[위치]** 청산골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청산물’이

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땀띠물’이라 하였다.

**[유래]** 물이 매우 차서 목욕을 하면 땀띠가 스러지므로 ‘땀띠물’이라 하였다.

**막골** [골]

**[위치]** 갈머리에서 서쪽 막골고개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주시보건소에서 영진로알맹선을 지나 중앙초등학교에 이르는 지역이다. 고개 너머에는 모래내와 백간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막골(幕谷)’이라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에 ‘막골(幕谷)’이라 하고 갈머리와 백간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이 골짜기를 따라 ‘옛시청길’, ‘갈머리1길’, ‘백간길’이 이어져 나 있으며 이 길이 학성동과 일산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즉 막골 골짜기의 남쪽이 일산동, 북쪽이 학성동이다.

**막골고개** [고개]

**[위치]** 막골에서 서쪽으로 백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중앙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삼천리아파트를 넘어가는 백간길이 나 있다. 고개 너머에 모래내사거리가 있다. 고개 높이는 170m이다.

**막골산** [산]

**[위치]** 막골고개 남서쪽에 있는 높이 184m의 산을 말한다. 현 단계택지사거리 북동쪽, 소삼고개 북쪽, 원주교육문화관 남쪽의 산이다.

**매화촌(梅花村)** [마을]

**[위치]** 옛 원주역 남쪽, 구 법원과 검찰청 동쪽에 있는 달동네를 말한다.

**[유래]** 한국전쟁 후 원주역 앞 달동네에 윤락여성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문숙공김제갑충렬탑(文肅公金悌甲忠烈塔)** [탑]

**[위치]** 원주역 앞 광장에 있는 탑을 말한다.

**[내용]** 1966년에 강원도애국애족부활위원회에서 세웠다. 탑은 화강암을 벽돌처럼 만들어 쌓아 올렸는데 옆의 한쪽은 수직으로, 다른 쪽은 계단처럼



줄이며 올린 모습이다. 가운데에 ‘문숙공김제갑충렬탑(文肅公金悌甲忠烈塔)’이라고 세로로 새겨 놓았다. 충렬탑 비문은 박종화가 짓고 글씨는 김기승이 썼다.

김제갑(金悌甲, 1525~159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원주 영원산성에서 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전사하였다.



「김제갑 원주목사 충렬탑 제막식 ; 1966년」



「김제갑 원주목사 충렬탑 ;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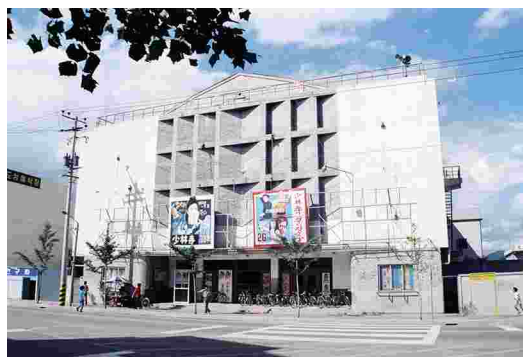


「김제갑 원주목사 충렬탑 ; 1995년」

## 문화극장(文化劇場) [극장]

**[위치]** 원주역 남동쪽, 평원로와 중앙로가 합쳐지는 곳에 있는 옛 극장을 말한다.

**[내용]** 독특한 외관의 3층 건물로 원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극장이었다. 2015년에 철거되었다.



「문화극장 ; 1983년」

## 민사부앞(民事部-) [마을]

**[위치]** 옛 문화극장 남서쪽, 평원로와 중앙로가 합쳐지는 지역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민사부앞’이라 하였다.

**[유래]** 1950년 한국전쟁 때 이 지역이 공산치하가 되었다가 수복된 후 민사부(民事部)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바깥유문 [마을]

**[위치]** 유문의 북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KT플라자원주점과 학성동성당 부근, 우산철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유문의 바깥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바깥유문이라 하였다.

## 발개들 [들]

**[위치]** 정지 밑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원주천의 물을 이용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발기뜰(發浦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발개들’이라 하였다.

## 백장산(百場山) [산]

**[위치]** 막골고개 북쪽, 단계사거리 남쪽에 있는 높

이 165m의 산을 말한다. 삼천리아파트 서쪽에 있는 산으로 현재 학성공원으로 개발되었다. 『조선지리지』에 ‘백장산(百場山)’이라고 하였다.

#### 법웅사(法雄寺) [절]

**[위치]** 단계사거리와 원주역사거리 사이에 있는 조계종 절을 말한다.

**[내용]** 1971년 1군사령부의 법당으로 창건하였다. 봉산동 옛 천왕사터에서 출토된 석탑재가 있다.

#### 북문(北門) [터]

**[위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북문이 있던 터를 말한다. 평원동과 학성동의 경계, 현 학성초등학교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북문거리 [마을]

**[위치]** 북문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학성초등학교 남쪽과 서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에 ‘북문거리(北門街)’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북문거리(北門--)’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북문 주변의 길을 따라 마을이 있었으므로 북문거리라 하였다.

#### 비석거리(碑石--) [길]

**[위치]** 유문에서 서쪽으로, 법웅사를 지나 현 단계동 북원여고로 가는 길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비석거리(碑石--)’라 하였다.

**[유래]** 선정비(善政碑)들이 있었으므로 비석거리라 하였다. 비는 한국전쟁 후 없어졌다고 한다. 한편, 태종이 운곡 원천석을 찾기 위해 이 길을 거쳐 갔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주민들이 비를 세웠으므로 비석거리라 하였다고도 한다.

#### 사직단(社稷壇) [마을]

**[위치]** 조선시대 사직단(社稷壇)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학성동행정복지센터 부근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사직당(社稷堂)’이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사직단 주변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사직단이라 하였다.

#### 사직단(社稷壇) [제단]

**[위치]** 유문 남쪽, 갈머리 북쪽 사이에 있던 조선시대의 제단을 말한다. 위치는 갈머리와 원주역사거리 사이, 학성동행정복지센터 주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 서쪽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관문 서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사직(社稷)은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곡식을 주관하는 직신(稷神)을 가리킨다. 두 신을 제사지내는 단(壇)을 만들어 모신 곳이 사직단(社稷壇)이다.

#### 사직당(社稷堂) [당]

**[위치]** 학성초등학교 북쪽, 현 선우자동차공업사와 강변로 사이에 있던 당을 말한다.

**[내용]** 1928년 원주면 김석보 외 22명의 무후자(無後者) 재산을 회사 받아서 학성1동 103-8번지, 현 학성초등학교 북쪽 도로변에 목조와가(木造瓦家) 2평 정도의 사직당(社稷堂)을 건립하고 위패를 모시어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무우제(無虞祭)를 지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거쳐하다 소실되면서 무우제도 중단되었다. 1985년 학성1동 노인회의 건의로 매년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학성1동 경로당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 송계촌(松溪村) [마을]

**[위치]** 단계사거리 북동쪽, 현 학성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주변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 옆을 흐르는 모래내에 큰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송계촌이라 하였다.

#### 송림(松林) [숲]

**[위치]** 원주역 북쪽, 정지뜰에 있던 소나무 숲을 말한다.

#### 안유문 [마을]

**[위치]** 옛 유문의 남쪽에 있던 마을로 사직단과 갈머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학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원주시보건소 쪽에 있던 마을이다. 안유문에 사직단이 있다고 하였다.

**[유래]** 유문에서 남동쪽, 감영 쪽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안유문이라 하였다.

**여단(厲壇) [제단] → 여제단**

**여제단(厲祭壇) [제단]**

**[위치]** 사직단 북동쪽에 있다고 한 조선시대 원주 여제단의 터를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사직단 북동쪽, 관문 북쪽 3리라고 하였으므로 현 학성초등학교 북쪽, 원주천 서쪽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여단(厲壇)이 고을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관문 북쪽 3리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여제단터(厲祭壇-)’라 하였다.

**[내용]** 여단(厲壇)·여제단(厲祭壇)은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인이 없는 외로운 혼령을 국가에서 제사지내던 제단이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나 태종 1년(1401)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역전광장(驛前廣場) [광장]**

**[위치]** 옛 원주역 앞에 있는 광장을 말한다. 도로를 넓히면서 좁아졌다.



「역전광장 ; 1972년」

**역전시장(驛前市場) [장]**

**[위치]** 옛 원주역 앞, 원주역사거리 남쪽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역전시장’이라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 생겼다.



「역전시장 ; 1985년」

**영정(榮町) [마을] → 학성동**

**[위치]** 현 학성동의 일제강점기 때의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학성동(영정榮町)’이라고 하였다.

**[유래]**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원주읍으로 승격할 때 하동리(下洞里)를 둘로 나누어 영정(榮町)과 옥정(旭町)이라 하였다. 옥정은 현 평원동, 영정은 현 학성동이다. 1946년에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학성동이라고 하였다.

**예기당이 [마을]**

**[위치]** 옛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동쪽 산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예기당’이라 하였다.

**[유래]** 산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오시아니앞 [마을]**

**[위치]** 현 학성동성당 부근의 마을을 말한다. ‘천주교옆’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시아니앞(천주교옆)’이라 하였다.

**옥정(旭町) [마을] → 평원동**

**원주역(原州驛)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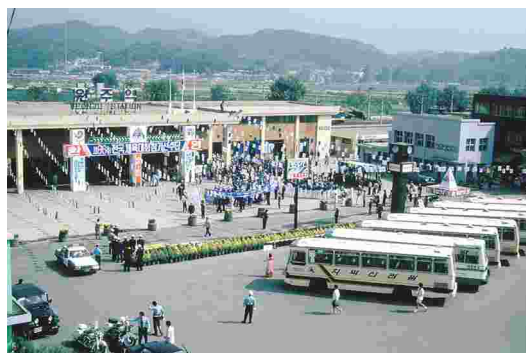
**[위치]** 학성동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역을 말한다.

**[유래]** 1937년에 설치되어 1940년 4월 1일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1950년에 역사가 소실되었고, 1955년에 역사를 준공하였다. 1980년에 역사를 새로 지었다.

**[내용]** 역 광장에 임진왜란 당시 영원산성에서 전사한 김제갑 원주목사의 충렬탑이 있다.



「원주역 ; 1973년」



「원주역 ; 1985년」



「원주역 ; 1988년」

#### 원주역급수탑 [시설]

**[위치]** 원주역 구내에 있는 옛 급수시설 탑을 말한다.

**[내용]** 옛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탑으로 1940년에 설치되었다. 높이 18m이며 상

부 지름이 하부 지름(4.5m)보다 큰 원추형으로 뿔을 잘라낸 형상이다. 1930년대 이전에 건축된 석조 급수탑과 구별되는 일제강점기의 철근콘크리트 급수탑으로, 1940년대 급수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138호이다.



「원주역 급수탑 ; 2018년」

#### 원천(原川) [내]

**[위치]** 남산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풍물시장과 학성초등학교, 정지뜰 한가운데를 지나 우산공단삼거리에서 모래내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용]** 원주천의 서쪽 들판인 옥돌과 유문들, 정지뜰을 흐르던 내였다. 그 냇물을 따라 현재 문화촌길과 정지길이 나 있다.

#### 유문(樓門) [터]

**[위치]** 조선시대 누문(樓門)이 있던 곳으로, 학성동 304번지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치는 원주역사거리와 학성동행정복지센터 사이의 원일로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유문(누문樓門, 누문터)’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누문이 있던 곳이다. ‘누문>유문’으로 실현되고 있다.

#### 유문 [마을]

**[위치]** 옛 누문이 있던 곳의 마을을 말한다. 원주역사거리 남쪽, 역전시장 부근 마을이다. ‘누문(樓門)’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누문(樓門)’

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유문(樓門)’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에 ‘누문(樓門)’이 있던 곳의 마을로 안유문, 바깥유문이 있었다. 안유문 마을에 사직당이 있다고 하였다. 현 역전시장 부근이 당시 유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유문들 [들]

**[위치]** 유문 서쪽, 원천(原川) 주변의 들을 말한다. 옛 원주역 주변에 있던 들이다. 『조선지리지』에 ‘누문뜰(樓門坪)’이라고 하였다.

#### 유문보 [보]

**[위치]** 유문들에 있던 원천(原川)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유문보’라 하였다.

#### 정거장뒤 [마을] → 정지뜰

#### 정지(艇址) [마을] → 정지뜰

#### 정지뜰(艇址-) [들]

**[위치]** 우산동 동쪽, 옛 원주역 북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육군1군수지원사령부 부지 및 그 동쪽 원주천을 끼고 있는 들이다. 『조선지리지』에 ‘정지뜰(艇址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정지뜰(艇址-)’이라 하였다.

**[내용]** 모래내와 원주천(봉천) 사이에 넓게 발달한 들이다. 두 강 사이로 원천(原川)이 흐르고 그 내 주변으로 들이 넓게 발달하였다. 현재는 육군1군수지원사령부가 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지뜰 : 1992년」

#### 정지뜰 [마을]

**[위치]** 원주역 북쪽, 현 육군1군수지원사령부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에 원주천이 흐르고 서쪽에는 모래내와 복원로로 우산동과 접하고 있다. 정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정지(艇址, 정거장뒤)’라 하였다.

**[유래]** 봉천을 거슬러 봉산동 배말로 소금을 싣고 가던 배가 이곳 나루에 들러 쉬어가던 곳으로, 거룻배를 많이 매어두던 곳이므로 배(艇)자에 터(址)자를 써서 ‘정지(艇址)’라 하였다.

**[내용]** 정지뜰의 서쪽은 육군1군수지원사령부에 편입되었고 마을과 들은 부대 동쪽에 남아있다. 마을과 동쪽 들은 원래 있던 곳에 남기고 마을 서쪽과 북쪽 지역에 군지사가 들어섰다. 이곳에서 일제강점기에 철물 5구, 석불, 석탑 등 많은 불교유물이 조사되었다. 기름진 논밭과 맑은 봉천의 냇물, 송림이 우거져 있어서 마을 특산품으로 정지뜰고추장이 예부터 유명하였다.

#### 정지보(艇址湫) [보]

**[위치]** 정지뜰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 천주교엿 [마을] → 오시아니앞

#### 청산골 [골]

**[위치]** 현 원주MBC방송국 뒤편의 마을을 말한다. ‘과부골’이라고도 한다. 이 골짜기에 땀띠물이 있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청산골’이라 하였다.

**[유래]** 과부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과부골이라고도 하였다.

#### 청산물 [샘] → 땀띠물

#### 충렬사(忠烈祠) [당]

**[위치]** 『여지도서』에 건물 규모는 14칸이며 관아 북쪽 1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고려시대 영원산성에서 합단과 싸워 승전한 원충갑과 임진왜란 때 영원산성에서 전사한 김제갑, 여주목사 원호를 배향하여 현종 10년(1669)



에 건립하였다.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폐철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 하동(下洞) [마을] → 하동리

##### 하동리(下洞里) [마을]

**[위치]** 원주 시내 북쪽 아래 지역, 현 중앙동과 평원동·학성동 지역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하동(畝下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하동리(下洞里, 하동下洞)’라 하였다.

**[유래]** 남쪽에 남산이 있고 북쪽 지역이 원주천의 하류에 해당하여 지대가 낮으므로 하동리라 하였다. 감영 쪽의 지대가 높은 곳은 ‘상동리(上洞里)’라 하였다.

**[내용]**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본부면의 본읍리(本邑里)와 삼리(三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하동리라 하였다. 1937년 원주군 본부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하동리를 영정(榮町)·옥정(旭町)으로 나누고, 상동(上洞) 일부와 하동(下洞) 일부를 금정(錦町)과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으로 나누었다. 1946년 일본식 동명을 고치면서 영정을 학성동으로, 옥정을 평원동으로, 금정을 일산동으로, 본정이정목을 중앙동으로 고쳤다.

##### 희망촌(希望村) [마을]

**[위치]** 원주역사거리 하나로마트의 남서쪽, 법웅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광명마을’이라고도 한다.

**[유래]** 1945년 광복 이후 이재춘이라는 지역유지가 월남한 피난민들을 위하여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고 피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라는 뜻에서 ‘희망촌(希望村)’이라 하였다. 1973년 광명마을금고 설립 때 주민들이 광명마을로 개칭하였다.

##### 희매촌(希梅村) [마을]

**[유래]** 희망촌(希望村)과 매화촌(梅花村)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 행구동(杏邱洞)

### [위치]

행구동은 원주시청에서 동쪽으로 약 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치악산을 경계로 하여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서쪽으로는 봉산동과 개운동, 남쪽으로는 반곡동, 북쪽으로는 소초면 흥양리와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사리(四里)와 오리(五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4리 일부와 5리를 병합하여 행구리(杏邱里)라 하고 원주군 판부면(板富面)에 편입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구역 확장에 따라 원주시에 편입되어 원주시 행구동(杏邱洞)이 되었다.

### [유래]

살구나무가 많았으므로 ‘살구둑’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행구(杏邱)’라고 하였다.

### 가는골 [골]

**[위치]** 고둔치골 입구, 꽃밭머리교에서 관음사로 올라가는 길을 말한다.

**[유래]** 예전에는 길이 좁고 가늘었으므로 가는골이라 하였다.

### 가는골 [마을]

**[위치]** 가는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는골’이라 하였다.

### 가리봉 [바위]

**[위치]** 고문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가리봉바위’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갈리봉(加里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리봉’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 두 개가 나란히 갈라져 선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얹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라진 바위’라는 뜻이다.

**[풀이]** ‘갈·갈래·가리’ 등은 ‘分’의 뜻으로서, 산 줄기가 갈라지거나 지역이 분기되는 곳에 붙는 지명이다. 여기서는 바위가 갈라진 산봉우리이므로 ‘가리봉’이라 하였다.

### 가리봉바위 [바위] → 가리봉

### 간모봉(竿帽峰) [산]

**[위치]** 돌개이에 있는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간모봉(竿帽峰)’이라 하였다.

### 갯바위 [바위]

**[위치]** 지영골 연암사 동쪽 언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개구리봉 [산]

**[위치]** 오리현 남쪽, 옛 봉대초등학교 북쪽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을 말한다.

**[유래]** 고개 모습이 마치 개구리가 엮드린 모습으로 개구리봉이라 부른다.

### 개구리재 [고개]

**[위치]** 오리현에서 남쪽으로, 반곡동 옛 봉대초등학교를 넘어가는 개구리봉에 있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에 현 오리현2교에서 남쪽으로 봉대길이 나 있다.

### 개산골 [골]

**[위치]** 현 고둔치공원지킴터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679.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연암사와 냉정이 있는 지영골 동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산골’이라 하였다.

### 개산절터 [터]

**[위치]** 개산골 정상 부근에 있는 옛 절의 터를 말한다.

**[내용]** 절터에는 높이 2m 이상의 축대가 길게 남아있고 많은 석재와 기와편, 도자기 조각이 산재해 있다. 절 이름만 전할 뿐 연혁은 알 수 없다.

### 거르내 [내] [들]

**[위치]** 거름터 서쪽 아래에 있는 내와 주변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르내(廣川)’라 하였다.

**[풀이]** ‘거르내’의 ‘거르’는 비옥하다는 뜻의 ‘갈다(沃)’에서 파생된 것으로, ‘갈+내>걸내>거르내’이다. ‘내’는 내(川), 또는 들(土, 壤)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들(壤)’의 뜻이다. 즉 ‘비옥하고 기름진 들’이라는 뜻이다. 『한국지명총람』에서 ‘거르내’를 ‘광천廣川’이라고 한 것은 ‘내’를 개울로 해석한 결과이다.

### 거름터 [마을]

**[위치]** 유암 동쪽, 신월랑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웃거름터’와 ‘아랫거름터’가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거음대(巨音垓)’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거름터(巨音垓)’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름터(거음대巨音垓)’라 하였다.

**[유래담]** 주민들은 거름을 많이 모아두던 곳이라고 하여 거름터라 부른다고 한다.

**[풀이]** 거름터는 ‘거름+터>거름터’인데 이때 ‘거름’은 땅이 비옥하다는 뜻의 ‘겉다(沃)’가 명사로 전성된 것이다. 땅이 비옥하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거음대(巨音岱)’의 ‘거음’은 소리를 적은 것이며, ‘대(岱)’는 ‘터’의 뜻을 적은 것이다.

#### 거름터골 [골]

**[이치]** 아랫거름터에서 동쪽으로, 웃거름터를 거쳐 관음사 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 거름터성향당 [당]

**[위치]** 거름터저수지의 남쪽, 웃거름터 북쪽의 웃나무골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름터서낭당’이라 하였다.

**[내용]** 참나무 당숲에 당집이 있다. 매년 음력 3월 3일에 서낭고사를 지낸다. 마을 주민 숫자가 줄어 들어 고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 거름터저수지 [못]

**[위치]** 거름터에서 돌갱이 사이, 운곡로 동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덕성골과 석경골, 쇠시랭이골의 물을 모은다.

**[내용]** 1957년에 준공하였다.



「거름터저수지 : 2019년」

#### 거음대(巨音岱) [마을] → 거름터

#### 건너들(1) [들]

**[위치]** 아래화실 남쪽, 화천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원주영강교회 북서쪽 아래에 있는 들

이다. 들 서쪽에 동부순환도로가 나 있다.

**[유래]** 화실 마을에서 내 건너에 있는 들이므로 건너들이라 하였다.

#### 건너들(2) [들]

**[위치]** 웃화실 남쪽, 화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교통안전공단원주검사소 북쪽 아래에 있다.

#### 건너들(3) [들]

**[위치]** 오리현 마을 남쪽, 오리현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개구리재 동쪽에 있다.

**[유래]** 오리현 마을에서 내 건너에 있는 들이므로 건너들이라 하였다.

#### 고둔치(高頓峙) [고개] → 고둔치

#### 고둔치 [고개]

**[위치]** 관음사 동쪽 고둔치골 위에 있는 860m 높이의 고개를 말한다. 치악산 비로봉과 남대봉 줄기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며 향로봉의 능선 북쪽에 있다. ‘곧은치’, ‘고둔치’, ‘고둔치’, ‘고든재’, ‘고둔치재’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직치(直峙)’, ‘직현(直峴)’이라고 하였다.

『여지도서』 『관동지』 『원주읍지』 『조선환여승람』에 ‘고둔치(高頓峙)’라 하였고, 『대동지지』 『원주원성향토지』에 ‘고둔치(高屯峙)’라 하고 고을 동쪽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곳둔치(直峙)’, 『한국지명총람』에 ‘고든치재(고든재, 직현直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 너머의 부곡까지 길이 쭉 곧았으므로 ‘곧은치(재)>고둔치’라 하였다.

**[내용]** 횡성군 강림면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평창·강릉으로 가는 치악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지름길이었다. 골짜기에 ‘주막거리’, ‘점터’, ‘미랭이’라는 마을 이름과 마을의 흔적이 남아있다.

**[풀이]** ‘곧은+치(재)>곧은치(재)>고둔치(재), 고둔치’로 되었다. 쭉 곧은 고개라는 뜻이다. ‘고둔치(高頓峙)’, ‘고둔치(高屯峙)’는 소리를 적은 것이고 ‘직

치(直峙)’, ‘직현(直峴)’은 뜻을 적은 것이다.

#### 고둔치골 [골]

**[위치]** 행구골 갈카폐촌에서 고둔치 고개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이 골짜기까지 합하여 ‘행구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고든재 [고개] → 고둔치

#### 고든치재 [고개] → 고둔치

#### 고문골 [골]

**[위치]** 오리현에서 국형사와 보문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국형사 앞까지를 ‘아랫고문골’, 그 위 보문사 까지를 ‘웃고문골’이라고 부른다. ‘보문골’, ‘법수골’, ‘절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웃보문(上普門)’, ‘아리보문(下普門)’, ‘절골(寺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문골(보문골)’이라 하였다.

**[유래]** 고문절(보문사普門寺)이 있어 고문골이라고 부른다.

**[내용]** 골짜기 안에 국형사와 보문사, 동악단이 있고 웃고문골 위에는 향로봉이 있다.

#### 고문암(古文庵) [절] → 보문사

#### 광천(廣川) [마을] → 너르내

#### 빚골 [골]

**[위치]** 오리현 마을 동쪽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빚골’이라 하였다.

#### 국형사(國亨寺) [절] → 국형사

#### 국형사(國亨寺) [절]

**[위치]** 아랫고문골에 있는 조계종 절을 말한다. ‘국형사’, ‘아랫고문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아리보문(下普門)’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국형사(國亨寺, 아랫고문절)’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 태조가 이 절에 동악신(東岳神)을 봉안하고 동악단(東岳壇)을 쌓았으며, 매년 원주·형

성·영월·평창·정선 다섯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 제례를 봉행하였으므로 ‘국형사(國亨寺)’라 하였다.

**[내용]** 신라 말 경순왕(敬順王) 때 무착선사(無着禪師)가 세웠다고 한다. 조선 정종의 둘째 공주 희희공주가 병을 얻고 이 절에서 백일기도를 한 후에 완치되었으므로, 왕이 기뻐하여 절을 크게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1680년(숙종 6)에 왕명으로 중건하고, 1907년에 벽하(碧河)와 응송(應松)이, 1949년에는 자항대사(慈航大師)가 중수하였다. 현재는 절집을 많이 신축하여 그 규모가 커졌다. 절에서 북서쪽 200m 지점에 봄과 가을에 호국대제를 봉행하는 ‘동악단(東岳壇)’이 있다.



「국형사 ; 1968년」



「국형사 ; 2018년」

#### 궁실천(弓失川) [내] → 화천

#### 규석광산 [광산]

**[위치]** 국형사 북동쪽 뒤에 있던 광산을 말한다. 규



석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규석광산(珪石鑛山)’이라 하였다.

#### 금두고원(金頭高原) [들]

**[위치]** 향로봉 남쪽 능선, 금두산성 안에 있는 평평한 버덩을 말한다. ‘치악평전(雉嶽平田)’이라고도 한다.

#### 금두산성(金頭山城) [성] → 반곡동 금두산성

#### 금바우 [마을]

**[위치]** 현대아파트 남쪽 앞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금암(琴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금바우(금암琴岩)’라 하였다.

**[유래]** 금바우라는 바위가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도 금바우라 하였다.

#### 금바우보 [보]

**[위치]** 금바우 앞에 있는 오리현천의 보(淤)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금바우보’라 하였다.

#### 금암(琴岩) [마을] → 금바우

#### 기장산골 [골]

**[위치]** 지영골 중간에서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샘에서 자라는 산골이 기장처럼 생겼으므로 ‘기장산골’이라고 부른다.

#### 긴등 [고개] → 진등

#### 꽃밭머리 [마을]

**[위치]** 신월랑 동쪽 위의 현 길카페촌 북동쪽, 관음사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연암사가 있는 지영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화전동(花田洞)’, ‘화전촌(花田村)’, ‘화장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송밭모름이(花田隅)’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꽃밭머리(화전촌花田村)’라고 하였다.

**[유래]** 산의 큰 모퉁이를 돌아 화전으로 밭을 일구던 마을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원래는 화전(火田)을 일구어서 밭농사를 짓

던 곳으로, 火田을 미화하여 花田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풀어써서 ‘꽃밭’이라 하였다. ‘꽃밭머리’의 ‘머리(隅)’는 ‘돌모루’처럼 모퉁이를 뜻하는 것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곳에 큰 모퉁이가 있으므로 ‘모롱이>모리>머리’가 되었다.

#### 꽃밭머리삼거리 [길]

**[위치]** 꽃밭머리 마을 가운데에 있는 삼거리길을 말한다. 연암사로 가는 지영골, 거름터로 가는 길, 신월랑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이다.

#### 꽃밭머리성황당 [당]

**[위치]** 꽃밭머리 삼거리의 북서쪽 아래, 현 레인보우 카페 북쪽 아래 계곡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당집은 깊은 개울 옆에 느릅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자연석으로 3면의 벽을 쌓은 전면 개방형이다. 매년 음력 10월에 택일하여 성황고사를 올렸다.

#### 끝에담 [마을]

**[위치]** 신월랑 마을 중 북서쪽 끝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 끝에 있으므로 ‘끝에담’이라고 하였다.

#### 냉정(冷井) [샘]

**[위치]** 꽃밭머리 지영골의 연암사에 있는 샘을 말한다. ‘약물탕’이라고도 한다. 연암사 위 옛 연암사터에도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는 약수가 있다. 지금도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유래]** 『여지도서』에 ‘냉정(冷井)’이라 하고, ‘동쪽 25리 거리 치악산 중턱 제영동(濟泳洞)에 있는데 바위굴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 머리가 아프거나 부스럼이 있는 환자가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면 곧 바로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내용]** 큰 암벽의 굴에서 나오는 물이 오랜 옛날부터 나병 등 피부병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다. 『여지도서』에 유일하게 치악산 약수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냉정은 오랜 옛날부터 유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가 1757~1765년에 편찬되

있고, 냉정이 있는 삼성각 옆의 느티나무 수령이 300~400년 이상으로 보이므로, 이 샘은 적어도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냉정」; 2019년

### 너르내 [들]

**[위치]** 오리현천과 변재천이 합치는 곳에 형성된 넓은 들을 말한다. 너그네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넓은 들로, 현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남쪽과 금강아미움아파트 동쪽의 넓은 들이다. ‘너른들’, ‘광천(廣川)’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너르니(廣川)’라고 하였다.

**[풀이]** ‘너르내’를 내(川)가 넓다고 해석하여 한자로 ‘광천(廣川)’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때 ‘내’는 고구려의 옛말 ‘들(土, 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곳은 오리현천과 변재천이 합쳐지는 곳으로 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들이 매우 넓게 형성된 곳이기 때문이다. ‘너르내’를 ‘너른들’이라고 부르고, 들 앞을 흐르는 내(오리현천)를 ‘너르내개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르내를 ‘내(川)’가 아니라 ‘들(野)’로 인식하였다는 뜻이다. 호저면 주산리의 ‘퍼내(平川)’, 문막읍 건동리의 ‘너그내(寬川)’도 같은 이치이다.

### 너르내개울 [내] → 오리현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너르내개울’이라 하였다.

### 너른들 [들] → 너르내

### 노산골 [골]

**[위치]** 지영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노상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노상골’이라 하였다.

### 노상골 [골] → 노산골

### 노적바우 [바위]

**[위치]** 지영골 입구 석이버섯바우의 남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노적봉(露積峰) [산]

**[위치]** 노적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노적봉(露積峰)’이라 하였다.

### 달마배기 [터]

**[위치]** 향로봉에서 산삼골로 내려가기 전의 언덕진 곳을 말한다.

### 덕고재 [고개]

**[위치]** 오리현에서 북동쪽으로, 덕고재골을 지나 신월랑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덕재’, ‘덕현(德峴)’이라고도 한다. 고개 북쪽 너머에 썰지저수지와 옷뱅기랏들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덕고기(德峴)’라 하였다.

### 덕고재골 [골]

**[위치]** 오리현에서 북동쪽으로 덕고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들 위에 있다.

### 덕새 [골]

**[위치]** 혼인골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노산골이 있다.

### 덕성골 [골]

**[위치]** 거름터저수지에서 동쪽으로, 75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원천석 묘역이 있는 석경골 남쪽, 연암사가 있는 지영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입구에 강원과학정보원이 있고 골짜기 안에 월각사가 있다.

### 덕재 [고개] → 덕고재

### 덕현(德峴) [고개] → 덕고재

### 덤불골 [골]

**[위치]** 고둔치공원지킴터와 고둔치의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향로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덤불골’이라 하였다.

### 돌개 [마을] → 돌갱이

#### 돌갱이 [마을]

**[위치]** 신월랑 북동쪽, 석경사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돌개’, ‘돌경이’, ‘석경(石逕)’, ‘석경촌(石逕村)’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돌경이(石逕里)’라고 하였고 석경사는 ‘동경이절(石逕寺)’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경이(돌개, 석경, 석경촌)’라 하였다.

**[유래]** 돌이 많으므로 ‘돌갱이’, ‘돌경이’, 한자로 ‘석경(石逕)’이라 하였다.

**[내용]**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인 윤곡 원천석의 묘소와 재실이 있다. 매년 가을 원주원씨(原州元氏)의 시제(時祭)가 이곳에서 봉행된다.

**[풀이]** ‘돌개’, ‘돌갱이’는 물가에 돌이 많거나 물이 돌아나가는 곳에 붙는 지명이다. ‘돌(石)+갱이> 돌갱이’가 되었다. ‘갱이’는 접미사이다. 이를 한자로 ‘석경(石逕)’이라 하였는데 이때 ‘석(石)’은 뜻을 적은 것이고 ‘경(逕)’은 소리를 적은 것이다. 여기는 물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돌이 많다는 뜻으로 쓰였다.

### 돌갱이성황당 [당]

**[위치]** 돌갱이 마을 입구 낮은 야산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경이서낭당’이라 하였다.

**[내용]** 성황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8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 동경이절 [절] → 석경사

### 동막 [마을]

**[위치]** 신월랑 동막골 안, 동막저수지 동쪽 위에 있

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이라 하였다.

### 동막골 [골]

**[위치]** 신월랑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동막저수지가 있다.

### 동막저수지 [못]

**[위치]** 신월랑 동쪽, 동막골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둘레는 약 300m, 깊이는 4~5m, 뚝 길이는 60m로 1961년에 준공하였다.

### 동악단(東岳壇) [제단]

**[위치]** 샘골 위, 국형사 북서쪽에 있다.

**[내용]** 치악산은 조선시대에 5악의 하나로서 조선 태조는 국형사에 동악신(東岳神)을 봉안하고 동악단을 쌓았으며, 매년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 다섯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 제례를 봉행하였다. 즉 동악단은 5악 신앙의 하나로서 동악의 신령께 감사하고 국가의 진호(鎮護)를 기원하는 호국대제를 올리던 곳이었다. 현재도 제례를 올리고 있다.



「동악단」; 2018년

### 뒷들 [들]

**[위치]** 오리현 북쪽, 옛 중앙선 철로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등성이 [마을] → 진등

### 마당골 [골]

**[위치]** 한가터 무네미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46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마장골 [골]

**[위치]** 봉대 마을 북동쪽, 오리현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건너들(3)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 끝에 옛 중앙선 철로와 원주순환로가 지나가고 있다. ‘마전골(麻田-)’이라고도 한다.

**[유래]** 삼베를 많이 재배해서 마장골이라 한다.

### 마장골(麻場-) [마을]

**[위치]** 봉대 북동쪽, 건너들 동쪽, 옛 중앙선 철로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에 옛 중앙선 철로와 원주순환도로가 나 있다. ‘마전동(麻田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마전동(麻田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전골’이라 하였다.



「마장골 마을 ; 2019년」

마전골 [골] [마을] → 마장골

마전동(麻田洞) [마을] → 마장골

메밀산골 [골] → 샘골, 산골

**[유래]** 샘이 있어서 ‘샘골’, 샘에서 산골이 많이 나오므로 ‘산골’, 산골이 메밀을 닮았으므로 ‘메밀산골’이라고 하였다.

### 무네미저수지 [못]

**[위치]** 한가터 앞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반곡동과 경계가 되는 골짜기에 있다. ‘한가터저수지’, ‘신

선남시터’라고도 한다.



「무네미저수지 ; 2019년」

### 물탕골 [샘]

**[위치]** 마장골에 있는 약수터를 말한다. 잔병에 좋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물탕골’이라 하였다.

### 미랭이 [골]

**[위치]** 고둔치골 동쪽 위, 고둔치 고개 서쪽 아래의 마을이 있던 곳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는 황골 절골의 미랭이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미랑이골(密陽里洞)’이라고 하였다.

### 미랭이 [마을]

**[위치]** 고둔치골 상류, 고둔치 고개 아래의 넓은 터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큰미랭이’와 ‘작은미랭이’가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밀양(密陽)’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밀양이(密陽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미랭이(밀양密陽)’라 하였다.

**[유래]** 고둔치 아래 물이 있는 골짜기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밀양이>미랑이>미랭이’라고 하였다.

**[내용]** 주막이 있던 점터 동쪽 상류, 고둔치 서쪽 아래 지역을 미랭이라 하였다. 골짜기 안의 넓은 터에 큰미랭이, 북쪽 위 산에 작은미랭이가 있었다. 지금도 사람이 살던 집터와 흔적이 남아있다.

**[풀이]** ‘밀+양+이>밀양이>미랑이>미랭이’로 분석된다. ‘밀(密)’은 ‘물(밀>물>물)’, 또는 숫자‘3(三)’을 뜻하는 옛말로, 여기에서는 ‘물’을 의미한다. ‘양

(陽)’과 ‘이’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미랭이(密陽)’는 고둔치 아래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화전하던 마을을 뜻하는 이름이다.

**밀양(密陽)** [마을] → 미랭이

**밀양이(密陽里)** [마을] → 미랭이

**배나무골고개** [고개]

**[위치]** 배울에 있던 고개 이름이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에 ‘비나무골고기(梨木洞峴)’라 하였다.

**[내용]** 배울은 현 반곡동과 행구동에 소속된 마을들로 오리현천을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길게 흩어져 있으므로 고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배말** [마을] → 배울

**배물** [마을] → 배울

**배울** [마을]

**[위치]** ‘영냉이들’을 중심으로 오리현천 좌우에 있는 마을들을 통칭해서 말한다. 현 영랑사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양지배울까지의 주변 마을들을 지칭한다. ‘배마을’, ‘배물’, ‘이곡(梨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비울(梨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울(이곡)’이라 하였다.

**[유래]** 배나무가 많았으므로 배울이라 하였다.

**배울보** [보]

**[위치]** 양지배울 앞에 있는 오리현천의 보(淤)를 말한다. 배울앞들에 물을 댈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울보’라 하였다.

**배울앞들** [들]

**[위치]** 양지배울 앞 오리현천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배울보의 물을 이용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울앞들’이라 하였다.

**뱅기릿고개** [고개]

**[위치]** 양지배울 앞 현 오리현교에서 북동쪽 살구둑저수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뱅기릿들** [들]

**[위치]** 살구둑저수지 서쪽으로 너르내사거리에서 이르는 넓은 들과, 살구둑저수지 동쪽 위로 췌저저수지에 이르는 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동쪽 위의 들을 웃뱅기릿들, 서쪽 아래의 들을 아랫뱅기릿들이라 한다. 『조선지리지』에 ‘방기리들(方吉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뱅기릿들’이라 하였다.

**[유래]** 저수지가 있는 방둑을 중심으로 들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뱅기리’는 ‘뱅이(<방이>)’가 음운 변천한 것이다. 반곡동의 ‘뱅이두둑(<방이두둑>’처럼 ‘방이’는 ‘방둑’에서 나온 말로, ‘뱅이(사)들>뱅잇들’이 ‘뱅깃들, 뱅기릿들’로 실현되었다. 큰 살구둑저수지를 중심으로 하여 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벌이좁은골** [골] → 부리좁은골

**법수골** [골] → 고문골

**보문골(普門-) [골]** → 고문골

**보문당(普門堂) [절]** → 보문사

**보문사(普門寺) [절]**

**[위치]** 치악산 향로봉 아래, 웃고문골에 있는 태고종 절을 말한다. ‘웃고문절’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에 ‘치악산사(雉嶽山祠)’, ‘보문연사(普門蓮社)’, ‘보문당(普門堂)’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웃보문(上普門)’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고문절(보문사)’, ‘보문사(普門寺, 포교당布敎堂)’라고 하였다.

**[유래]** 신라 때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세우고 보문사(普門寺)라 하였다 한다. 또는 통일신라 경순왕(927~935) 때 무착(無着)이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1940년에 종무원의 지시로 평원동으로 옮기고 포교하다가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1952년에 이곳에 중건하였다고 한다. 청석탑이 있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치악산사(雉嶽山祠)라고 하고 ‘산꼭대기에 있다. 세상에서는 보문당(普門堂)이라고 일컫는데 봄가을로 향과 축문을 내리어 치제(致祭)한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치악산사(雉岳山祠)라고 하고 동쪽으로 15리 산 정상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처음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보문당(普門堂)이라는 사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보문연사(普門蓮社)’라고 하였다 한다. 보문사로 일컬어지는 웃고문절과 국형사로 일컬어지는 아랫고문절은 기록의 여러 곳에서 중첩되어 혼동되고 있다.



「보문사 ; 1938년」



「보문사 ; 2018년」

보문연사(普門蓮社) [절] → 보문사

봉대골 [골]

**[위치]** 오리현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573.9m 봉우

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 ‘오리현저수지’가 있고 골 북쪽 위에는 ‘샘골’, 남쪽에는 ‘안오릿골’이 있다. 현재 골 입구에 상애노인전문요양원과 KT그룹인력개발원이 들어서 있다.

봉대들 [들]

**[위치]** 봉대골 남쪽, 오리현 남쪽에서 봉대 마을 북쪽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와 5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봉디들(金城坪)’이라고 하였다.

봉대성황당 [당]

**[위치]** 옛 중앙선 철로 서쪽, 봉대천 북쪽 솔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소나무 당숲에 당집이 있다.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봉대천(鳳垚川) [내]

**[위치]** 한가터 남쪽 길아치에서 시작하여 한가터, 무네미저수지, 봉터를 지나 오리현에서 오리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원주혁신도시의 북쪽으로 행구동과 경계를 이룬다.

**[유래]** 봉대(鳳垚)를 지나므로 봉대천이라 하였다.

부리좁은골 [골]

**[위치]** 고둔치골 입구 관음사에서 북동쪽으로, 연암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벌이좁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리좁은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과 골 사이가 좁아서 ‘부리좁은골’이라고 하였다. 또는 벌이가 안 되는 골짜기이므로 ‘벌이좁은골’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산골 [골] → 샘골

**[위치]** 샘골의 다른 이름이다. ‘샘골’을 ‘산골’ 또는 ‘메밀산골’이라고도 하였다.

**[유래]** 샘골의 샘에서 산골이 많이 나므로 ‘산골’, 산골이 메밀처럼 생겼으므로 ‘메밀산골’이라고도 하였다.

### 산삼골 [골]

**[위치]** 향로봉에서 동쪽으로, 횡성 강림 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산삼이 많이 나는 골짜기이므로 산삼골이라고 부른다.

### 살구독 [마을]

**[위치]** 살구독저수지 북쪽 아래, 현 건영아파트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와 원주횡성우회도로의 사이에 있다. 마을 북쪽 아래로 삼성들과 유암들이 펼쳐져 있다. ‘향구’, ‘행구’, ‘행구동’, ‘행구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살구두독(杏臯)’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행구동(살구독, 행구, 행구리, 행구촌)’이라 하였다.

**[유래]** 살구나마가 많아서 ‘살구독’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행구(杏丘)’라 하였다.

### 살구독선사유적 [유적]

**[위치]** 살구독 마을과 유암 사이, 마산머리 앞의 삼성들을 중심으로 한 유적지를 말한다.

**[내용]** 들에서 돌도끼가 발견되었다.

### 살구독성황당 [당]

**[위치]** 살구독 마을 삼성들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향구촌서낭당’이라 하였다.

**[내용]**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치악산신을 모셨다. 매년 음력 3월 3일에 성황고사를 지낸다.



「살구독성황당 : 2018년」

### 살구독저수지 [못] → 행구수변공원

**[위치]** 살구독 남쪽, 신월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큰 저수지를 말한다. 넓은 아랫배기릿들에 물을 댄다. ‘향구저수지’라고도 한다.

**[내용]** 1939년에 준공하였다. 낚시터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행구수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 살구독천 [내]

**[위치]** 살구독저수지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현 행구로 도로 남쪽을 따라 흘러 아랫배기릿들을 지난다.

### 삼성들 [들]

**[위치]** 봉산동 유암 남쪽, 살구독 북쪽과 서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로 인하여 동서로 갈라져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삼성평(三城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삼성들’이라 하였다.

### 삼성보 [보]

**[위치]** 삼성들에 있는 화천(花川)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성보’라 하였다.

### 상뜰거리 [들]

**[위치]** 상뜰거리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뜰거리’라 하였다.

### 상뜰거리골 [골]

**[위치]** 아랫거름터에서 북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서 쇠시랭이골과 만난다.

### 새지저수지 [못] → 쉐지저수지

### 샘골 [골]

**[위치]** 현 원주공업고등학교 남동쪽 길 건너편에서 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보문사 북서쪽 806.9m 봉의 능선으로 이어진다. ‘샘골’, ‘천곡(泉谷)’, ‘산골’, ‘메밀산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골(천곡泉谷)’이라 하였다.

**[유래]** 현 원주민속박물관 앞에 약수터가 있고 동약단 북서쪽 아래에도 샘이 있다. 샘이 있어서 샘

골, 샘에서 산골이 많이 나므로 ‘산골’, 산골이 메밀을 닮았으므로 ‘메밀산골’이라고도 하였다.

#### 샘골 [마을]

**[위치]** 샘골 입구, 현 원주공업고등학교 남동쪽, 원주민속박물관 아래 약수터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샘골약수 [샘]

**[위치]** 샘골에 있는 약수터를 말한다. 국형사 북서쪽 아래, 현 치악민속박물관 아래 길 옆에 있다. 현재도 사용 중이다.

#### 샘골 [골] → 샘골

#### 서천땀(西泉-) [마을]

**[위치]** 신월랑 북쪽, 웃거름터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정바우들 북서쪽 끝에 있다.

**[유래]** 신월랑에서 보아 샘골이 남동쪽, 서천땀이 북서쪽이므로 서천땀이라 하였다.

**[풀이]** ‘땀’, ‘땀’은 마을에서 떨어져 몇 집이 있는 곳에 붙는 이름이다.

#### 석경(石逕) [마을] → 돌갱이

#### 석경골 [골]

**[위치]** 석경촌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운곡 원천석 묘역과 석경사가 있다.

#### 석경사(石逕寺) [절]

**[위치]** 돌갱이 마을 안쪽 석경골에 있는 태고종 절을 말한다. 『여지도서』에 14칸으로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다. 절 남서쪽에 원천석의 묘역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동경이절(石逕寺)’이라고 하였다.

**[유래]** 절 이름은 돌갱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석경촌(石逕村) [마을] → 돌갱이

#### 석박골 [골]

**[위치]** 고둔치골 안 점터(주막거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석박골’이라 하였다.

#### 석이버섯바우 [바위]

**[위치]** 지영골 입구 치마바위카페의 북쪽에 있는 절벽바위를 말한다. 바위 남쪽에 노적바우가 있다.

#### 세지보 [보]

**[위치]** 오리현 앞에 있는 오리현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세지보’라 하였다.

#### 송장골 [골]

**[위치]** 현 현대아파트 동쪽, 옥녀봉 아래에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길 옆에 주인 없는 무덤이 많고 뼈가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송장골’이라 하였다. 오리현과 양지배울에서 영녕이, 느르내, 시내로 가는 주된 길이었다.

#### 쇄시랭이골 [골] → 쇠시랭이골(2)

#### 쇄지골 [골]

**[위치]** 쇠지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샘골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쇠죽골’이라고도 한다.

#### 쇄지저수지 [못]

**[위치]** 살구독저수지 동쪽, 신월랑 마을 남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신다랭이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쇄지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둘레 600m, 깊이 7m, 독 길이는 150m로 1941년에 준공하였다.

#### 쇠시랭이 [마을]

**[위치]** 쇠시랭이골(1)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살구독 동쪽 위, 끝에담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현 동부연회가 있는 곳이다.

#### 쇠시랭이골(1) [골]

**[위치]** 살구독 마을 동쪽, 삼성들에서 동쪽으로 신월랑 끝에담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살구독길과 끝에담길이 나 있고, 골짜기를 가로질러 5번 외곽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쇠시랭이골(2) [골]

**[위치]** 거름터저수지에서 북서쪽으로, 312.5m 봉

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쇄시랭이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쇠시랭이골’이라 하였다.

**쇠죽골** [골] → 쇠지골

**숲들** [들]

**[위치]** 오리현 마을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숲들’이라 하였다.

**숲들보** [보]

**[위치]** 숲들에 딸린 오리현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숲들보’라 하였다.

**승지골** [골]

**[위치]** 꽃밭머리고 북동쪽, 현 치악산기도원에서 관음사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승지골(承旨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승지골’이라 하였다.

**시무나무골** [골]

**[위치]** 고둔치골 입구, 관음사 남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가시가 굵고 긴 시무나무가 많으므로 시무나무골이라 하였다.

**신다랭이** [마을] → 신월랑

**신다랭이저수지** [못] → 쇠지저수지

**신들** [들]

**[위치]** 상톨거리들 입구, 아랫거름터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서쪽 끝으로 5번 순환도로가 나 있다.

**신선뉘시터** [못] → 무네미저수지

**신월랑(新月郎)** [마을]

**[위치]** 살구둑 동쪽 위, 오리현 북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신다랭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신다랭이(新月郎)’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다랭이(신월랑新月郎)’라 하였다.

**[유래]** 계단식 논밭이 쉰 개나 될 정도로 많아 ‘신

다랭이>신다랭이’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신월랑(新月郎)’이라 하였다.

**[풀이]** ‘신다랭이>신다랭이’가 되었고 이를 한자로 적어서 ‘신월랑(新月郎)’이라 하였다. 이때 ‘新’과 ‘郎’은 소리를 적은 것이며 ‘月’은 뜻을 적은 것이다. ‘다랭이’는 ‘높은 곳’, ‘산’을 뜻하는 옛말 ‘달’에서 파생된 것으로 ‘다락, 다랑이, 달동네’ 등의 말을 낳았다. ‘다랑이>다랭이’는 산골짜기 높은 곳에 있는 좁은 논밭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다랭이를 ‘달+양’으로 보아 ‘월랑(月郎)’으로 적어 ‘신월랑’이라 하였다. 지금은 ‘신월랑’이란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신월랑성향당** [당]

**[위치]** 샘골 마을 아래, 치악골프연습장 입구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현재 당제는 올리지 않고 있다.

**쌔기골** [골]

**[위치]** 꽃밭머리 치마바우 뒤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쌔기골’이라 하였다.

**아들바우** [바위]

**[위치]** 고둔치골 입구, 고둔치교가 있는 즈터의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에 돌을 던져서 돌이 없어지면 아들을 낳으므로 아들바우라 부른다.

**아랫거름터** [마을]

**[위치]** 거름터 마을 중 서쪽 아래, 유암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운곡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거름터’라고 하였다.

**아랫고문골** [골]

**[위치]** 고문골 중 오리현에서 국형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아랫보문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아리보문(下普門)’이라고 하였다.

**[유래]** 고문골 중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아랫고문골이라 부른다.

**아랫고문절** [절] → 국형사

#### 아랫담 [마을]

**[위치]** 영랑이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영랑교 북동쪽의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담’이라 하였다.

#### 아랫등성이 [마을]

**[위치]** 진등 마을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등성이’라고 하였다.

#### 아랫뱅기릿들 [들]

**[위치]** 살구독저수지에서 서쪽 아래로, 너르내에 이르는 넓고 긴 들을 말한다. 현 행구로 남쪽 도로 아래에 있는 들이다. ‘뱅기릿들’이라고도 한다.

**[내용]** 살구독저수지 아래로 옛 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들 가운데의 남북으로 혁신도로의 진입로가 났으며, 너르내 부근은 대규모 주택단지로 편입되었다.

#### 아랫보문골 [골] → 아랫고문골

#### 안오랏골 [골]

**[위치]** 봉대들에서 동쪽으로, 412.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재 행구덕현길이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오랏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 중간을 옛 중앙선 철로와 5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골 북쪽에 봉대골이 있고 골 남쪽에는 마당골이 있다.

#### 애가진바우 [바위]

**[위치]** 국형사 아래, 북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애가진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임산부의 배처럼 생겼으므로 애가진바우라고 하였다.

#### 애바우 [바위]

**[위치]** 치마바우 북쪽, 혼인골 작은 도랑 남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약물탕 [샘] → 냉정

#### 양달말 [마을]

**[위치]** 영랑이 마을 중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너르내사거리 남동쪽, 영랑사거리 북서쪽으로, 현재 하나로마트와 원주농협이 들어서 있다.

#### 양지배울 [마을]

**[위치]** 영녕이 동쪽, 오리현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오리현천교앞 교차로 북동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오리현천 건너 남서쪽에는 음달배울이 있다.

**[유래]** 뱅기릿고개 서쪽, 오리현천 북쪽 산 아래에 있어 햇빛이 잘 들므로 양지배울이라 하였다.

#### 연암사(燕岩寺) [절]

**[위치]** 꽃밭머리 동쪽 지영골에 있는 태고종 절을 말한다.

**[내용]** 현 연암사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일설에는 1940년에 세운 절로, 국형사에 있던 대처승들이 비구승들에게 국형사를 빼앗기고 이 절에 와서 생활하였다고 전한다. 현 연암사 위쪽에 옛 연암사 터가 있다. 옛 절터에는 축대가 남아있고 기와 조각도 산재한다. 현 삼성각 옆의 느티나무로 보아 절의 역사는 오래일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 제영동(濟泳洞)과 냉정(冷井)이 기록되어 있는데 냉정을 이야기하면서 연암사 대신에 제영동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절이 없었을 수도 있다.



「연암사 ; 2019년」

#### 연암사약수 [샘] → 냉정



## 연암사터 [터]

**[위치]** 현 연암사 뒷쪽 약 100m 위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연암사의 옛 절터라고 알려져 있다. 축대 등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기와도 발견된다. 고려시대의 절이라고 하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 영랑천(永郎川) [내] → 오리현천

## 영랑촌(永郎村) [마을] → 영랑이

## 영랑이 [마을]

**[위치]** 너르내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오리현천(영랑천)의 넓은 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현 현대아파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웃담'과 '아랫담', '양달말'이 있다. '영랑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영랑이(永浪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영랑이(영랑촌永郎村)'라 하였다.

## 영랑이내 [내] → 오리현천

**[위치]** 오리현천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영랑이내'라 하였다.

**[유래]** 영랑이 마을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영랑이내'라 부른다.

## 영랑이들 [들]

**[위치]** 영랑이 마을을 중심으로 오리현천을 따라 난 마을 앞의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영랑이들'이라 하였다.

**[내용]** 대체로 현대아파트 앞에서 시작하여 영랑이 마을 앞, 너르내에서 오리현천과 번재천이 합류하는 지역까지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번재천과 합류하는 너르내 지역에는 현 금강아미움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서서 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 오리동(梧里洞) [마을] → 오리현

## 오리촌(梧里村) [마을] → 오리현

## 오리현(梧里縣) [마을]

**[위치]** 행구동 남동쪽, 영랑이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오리동', '오리촌', '오릿골', '함지박'이라

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오리솔(梧里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릿골(오리촌梧里村, 오리현梧里縣)'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앞에 무성한 오리나무숲이 있어서 '오리촌', '오리골'로 부르다가 '오리'라는 이름이 흥하다고 하여 조선 말에 '오리현(梧里縣)'으로 고쳐 썼다고 한다.

**[내용]** 옛날에는 마을 앞에 오리나무 숲이 무성하여 밖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전쟁에서도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오리현 마을 ; 1974년」

## 오리현서낭 [당]

**[위치]** 오리현 경로당 동쪽, 오리현천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은 약 1,000년, 높이는 35m의 거목이다. 예전에는 나무 밑에 당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오리현서낭 ; 2019년」

## 오리현성황당 [당]

**[위치]** 현 오리현서낭이 있는 느티나무 아래와 마

을 앞 옛 양어장 옆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릿골서낭당’이라 하였다.

**[내용]** 느티나무 아래의 서낭을 암서낭, 양어장 옆의 서낭을 솟서낭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폐지되고 없어졌다.

#### 오리현양어장 [못]

**[위치]** 오리현 마을 입구에 있던 양어장을 말한다. 현 영광병원 동쪽, 오리현2교 북서쪽 길옆에 있던 양어장으로 지금은 매워져 밭이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리현양어장’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의 청년들이 자주 죽고 노인들만 남게 된 것이 마을 앞의 이 연못 때문이라고 믿어 저수지를 매워 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 오리현저수지 [못]

**[위치]** 오리현 동쪽 봉대골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원주공업고등학교 정남쪽 아래, KT그룹인력개발원 부지 안에 있다.

**[내용]** 1964년에 준공하였다.



「오리현저수지 ; 2019년」

#### 오리현천(梧里縣川) [내]

**[위치]** 향로봉에서 시작하여 서쪽 아래로 고문골을 거쳐 오리현에서 봉대천을 합류하고 느르내에서 화천과 합류하여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행구동과 반곡동의 경계가 되는 내이다. ‘느르내개울’, ‘오릿골내’, ‘영랭이내’, ‘영랑천’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느르내개울’이라고 하였다.

**[유래]** 오리현 앞을 지나므로 ‘오릿골내’, ‘오리현천’이라 부른다. 느르내 앞을 흐르므로 ‘느르내개울’, 영랭이 앞을 흐르므로 ‘영랑천’, ‘영랭이내’로 부르기도 한다.

오릿골 [마을] → 오리현

오릿골내 [내] → 오리현천

**[위치]** 오리현천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릿골내’라 하였다.

오양골 [골] [마을] → 오영골

오영골 [골]

**[위치]** 석경사 뒤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 너머에 입석대로 가는 황골과 절골이 있다. ‘오양골’, ‘오형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형골’이라고 하였다.

**[풀이]** ‘오양골’, ‘오영골’, ‘오용골’ 등은 대개 ‘험한 길, 나쁜 길’을 뜻하는 ‘오양’에서 비롯되었다. 골짜기의 길이 험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오영골 [마을]

**[위치]** 오영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오양골’, ‘오형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영골’이라 하였다.

오형골 [골] [마을] → 오영골

옥녀봉(玉女峰) [산]

**[위치]** 현 현대아파트 동쪽, 양지배울 북서쪽에 있는 높이 139.3m의 봉우리를 말한다. 현재 산을 밀어 택지로 개발 중이다.

**[내용]** 옷물이 솟는 샘이 유명하였다고 한다.

옷나무골 [골]

**[위치]** 옷거름터와 거름터저수지 사이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거름터성황당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옷나무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옷나무가 많고 옷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거름터 [마을]

**[위치]** 거름터 마을 동쪽 위, 현 운곡로 동쪽 산기슭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거름터’라 하였다.

#### 웃고문골 [골]

**[위치]** 국형사에서 보문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웃보문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웃보문(上普門)’이라 하였다.

**[유래]** 고문골 중 위쪽에 있으므로 ‘웃고문골’이라 부른다.

#### 웃고문절 [절] → 보문사

#### 웃담 [마을]

**[위치]** 영랭이 마을 중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행구동현대아파트 서쪽 옆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담’이라고 하였다.

#### 웃뱅기릿들 [들]

**[위치]** 살구독저수지에서 동쪽 위로, 썰지저수지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들의 넓은 지역이 행구수변공원과 도로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뱅기릿들’이라 하였다.

#### 웃보문골 [골] → 웃고문골

#### 웃오릿골 [마을]

**[위치]** 오리현 마을 중 동쪽 위, 현 KT그룹인력개발원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오릿골’이라 하였다.

#### 원안바우골 [골]

**[위치]** 신일랑 동막저수지의 동쪽 골짜기를 말한다.

#### 원천석 묘역 [묘]

**[위치]** 돌갱이 마을 동쪽, 석경사 남서쪽에 있는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의 묘를 말한다.

**[내용]** 운곡 원천석(1330~?)은 고려 말의 학자이자 고려의 유신(儒臣)으로, 고려가 멸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치악산에 숨어 살면서 평생을 은사(隱士)로 지냈다.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으므로 태종이 즉위 후 여러 차례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고, 치악산에 있는 그의 집으로 친히 찾아와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원통재, 변암, 노구소, 태종대 등의 지명이 원천석과 관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묘역 옆에 그의 영정을 봉안한 창의사(彰義祠)가 있다. 강원도 기념물 제57호이다.



「원천석 묘역 ; 2015년」

#### 유교역(流交驛) [역]

**[위치]** 유암 동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신호장을 말한다.

**[유래]** 유암(流岩)의 ‘유’자와 교행을 의미하는 ‘교’자를 결합하여 ‘유교역’이라 하였다.

**[내용]**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의 선로용량 포화로 인하여 1977년에 신호장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95년에 유인신호장으로 승격하였다가 2005년에 무인신호장으로 변경되었다.

#### 유암(流岩) [마을]

**[위치]** 웃화실 동쪽, 살구독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 유교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로 마산머리 동쪽, 유암들을 끼고 있는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봉산동과 경계를 이룬다. 『조선지리지』에 ‘유암(流岩)’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유암(流岩)’이라 하였다.

#### 유암개울 [내] → 화천

**[위치]** 고둔치에서 시작하여 유암을 지나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화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유암 마을 앞을 흐르므로 여기에서는 유암개울이라고 부른다.

#### 유암들 [들]

**[위치]** 봉산동 유암 마을 동쪽, 화천 옆에 있는 들

을 말한다. 삼성들과 화천 사이에 있다.

#### 유암성황당 [당]

**[위치]** 옛 중앙선 유교역 남동쪽, 화시래철교 길옆 작은 동산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상수리나무 당숲의 당집에 치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에 당고사를 올렸다. 지금은 당숲만 남아있고 폐지되어 사유지가 되었다.

#### 이곡(梨谷) → 배울

#### 작달고개 [고개]

**[위치]** 오리현에서 동쪽으로, 국형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각달고지(作達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달고개’라 하였다.

#### 작은미랭이 [마을]

**[위치]** 고둔치 고개 서쪽 아래의 큰미랭이에서 북동쪽 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 장자터 [마을]

**[위치]** 웃거름터 동쪽 위, 서천담교 북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자터’라고 하였다.

**[유래]** 예전에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 절골 [마을] → 고문골

#### 점터 [마을]

**[위치]** 고둔치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주막이 있던 곳으로 주막터가 남아있다. ‘주막거리’라고도 한다.

**[유래]** 주막점이 있었으므로 점터라 하였다.

#### 정바우 [마을]

**[위치]** 정바우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길카페촌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정바우’라 하였다.

#### 정바우 [바위]

**[위치]** 신월랑 북동쪽, 꽃밭머리고 남서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길카페 아래, 북촌식당 앞 길옆에 있는 바위이다.

**[내용]** 이 바위에 깃대를 꽂으면 치악산의 모든 절에서 스님들이 내려와 승지골에서 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행구동이 개발되기 전에는 고둔치로 가는 길목의 서낭 역할을 하던 바위이다. 1980년대까지도 무당들이 굿을 하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이 바위의 이름을 따서 신월랑 주변의 넓은 들 이름이 ‘정바우들’이 되었다.



「정바우 ; 2018년」

#### 정바우들 [들]

**[위치]** 정바우 마을에서 서쪽 아래로, 신월랑까지 주변에 펼쳐진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증바우들(正岩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정바우’가 있으므로 ‘정바우들’이라 하였다.

#### 정바우보 [보]

**[위치]** 정바우들에 있는 화천(花川)의 보(洑)를 말한다.

#### 정성들 [들]

**[위치]** 뱅기릿고개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양지배울과 오리현 마을 사이에 있는 들이다.

#### 제영골 [골] → 지영골

#### 제영동(濟泳洞) [마을] → 지영골

#### 제형동(臍形洞) [골] → 지영골

#### 주막거리 [마을] → 점터

**[위치]** 고둔치골 안 미랭이의 주막터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지금도 주막터가 남아있다. ‘점터’라고도 한다.





「주막거리 : 2019년」

#### 쥬터 [터]

**[위치]** 고둔치골 입구, 고둔치고 옆 절벽 아래의 터를 말한다.

**[내용]** 철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옆에 아들바위가 있다.

#### 지루수보 [보]

**[위치]** 영랭이 앞에 있던 오리현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루수보’라고 하였다.

#### 지영골 [골]

**[위치]** 꽃밭머리 치마바위에서 동쪽, 연암사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 지영골 [마을]

**[위치]** 지영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진골’, ‘징골’, ‘제영골’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제영동(濟泳洞)’, ‘제형동(臍形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진골(臍形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영골’이라 하였다.

**[풀이]** ‘진골, 징골, 지영골’은 모두 같은 이름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된 것들이다. 한자 지명 ‘제영동’, ‘제형동’은 뜻과는 상관없이 소리를 적은 것이다.

#### 지칠바위 [바위]

**[위치]** 웃고문골 보문사 아래 100m 지점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칠바위’라 하였다.

#### 직치(直峙) [고개] → 고둔치

#### 진골 [골] → 지영골

#### 진등 [고개]

**[위치]** 살구дук 마을에서 남쪽으로, 살구дук저수지를 향하여 난 고갯길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긴등(長登)’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갯길이 길므로 ‘긴등>진등’이라 하였다.

#### 진등 [마을]

**[위치]** 살구дук 남서쪽, 진등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등성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등성이’, ‘진등’이라 하였다.

#### 진등다리 [다리]

**[위치]** 진등 마을 아래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진등다리’라 하였다.

#### 징골 [골] → 지영골

#### 참샘물뜯지 [샘]

**[위치]** 고둔치골 점터에서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샘을 말한다.

**[내용]** 옛날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창의사(彰義祠) [당]

**[위치]** 돌갱이 원천석 묘역 동쪽에 있는 사당을 말한다.

**[내용]** 운곡 원천석의 절의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운곡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2006년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세웠다. 매년 이곳에서 운곡제가 열린다.



「창의사 ; 2015년」



**천곡(泉谷)** [골] → 샘골

**철광산** [광산]

**[위치]** 고둔치골 점터에 있던 광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철광광산’이라 하였다.

**[내용]** 아직도 붉은 물이 흐르고 이 주변의 돌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한다.

**치마바우** [바위]

**[위치]** 꽃밭머리삼거리 동쪽, 현 치마바위카페 뒤에 있는 바위벼랑을 말한다.

**치악산사(雉嶽山祠)** [절] → 보문사

**치악태봉(雉嶽胎峰)** [산]

**[위치]** 고둔치 넘어 우측 봉우리에 있다고 하는 고려 공민왕의 태를 묻은 산을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원주읍지』에 고을 동쪽 30리 거린 치악산 기슭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고려 공민왕의 태실이라고 전한다. 공민왕 2년(1353)에 태를 안치하면서 성안부(咸安府)로 강등되었던 원주를 다시 원주목(原州牧)으로 회복시켰다.

**치악평전(雉嶽平田)** [산] → 금두고원

**큰골** [골]

**[위치]** 신월랑 마을 동쪽 뒤에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행구로와 고문골길 사이의 넓은 들이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 하였다.

**큰미랭이** [마을]

**[위치]** 미랭이 마을 중 고둔치 고개 서쪽 아래의 넓은 터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큰산** [산] → 향로봉

**큰재** [산] → 향로봉

**터앞들** [들]

**[위치]** 화실 남서쪽, 건너들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너르내 북쪽으로, 현재 효성백년가악아파트

가 대단지로 들어서 있다. ‘너른들’이라고도 한다.

**토끼고개** [고개]

**[위치]** 돌갱이에서 북서쪽으로, 황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에 운곡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토끼지(兎峴)’라고 하였다.

**토끼재** [고개] → 토끼고개

**한가터저수지** [못] → 무네미저수지

**함지박** [마을] → 오리현

**[위치]** 오리현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마을의 지형이 함지박처럼 둥글고 오목하게 생겨서 함지박이라 하였다. 또는 함씨, 지씨, 박씨가 많이 살아서 함지박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 풍수가 이곳을 살피고서 ‘마을이 함지박 모양으로 생겼고 땅의 정기도 그러하니 함씨, 지씨, 박씨가 와서 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200여 년 전 강릉 함씨 문종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함씨의 수효가 제일 많아서 재채기만 하여도 ‘이것도 함씨네 가져가라.’하고 웃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는 마을의 98가구 중 함(咸)씨 80가구, 지(池)씨 16가구, 박(朴)씨 2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행구(杏邱)** [마을] → 살구둑

**행구골** [골]

**[위치]** 신월랑에서 정바우를 지나 현 길가폐촌, 꽃밭머리교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또는 고둔치 골짜기 합하여 행구골로 부르기도 한다.

**행구리(杏邱里)** [마을] → 살구둑

**행구수변공원** [못]

**[위치]** 살구둑 남쪽, 신월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옛 살구둑저수지를 말한다. 아랫배기랏들에 물을 댔다. ‘살구둑저수지’, ‘향구저수지’라고도 하였다. 낚시터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수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행구수변공원 : 2015년」

**행구촌**(杏邱村) [마을] → 살구둑

**향구** [마을] → 살구둑

**향구저수지** [못] → 살구둑저수지, 행구수변공원

**향구촌서낭당** [당] → 살구둑성황당

**향로봉** [산]

**[위치]** 원주시 행구동, 판부면, 신림면과 횡성군 강림면의 경계가 되는 높이 1,042.9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웃고문골 위, 보문사 동쪽 위에 있다. ‘큰산’, ‘큰재’라고도 한다.

**[유래]** 향로봉이란 이름은 현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주민들은 이 봉우리를 ‘큰산’, 또는 ‘큰재’라고 불렀다.

**[내용]** 치악산 주봉인 비로봉(1,288m)에서 남쪽으로 약 5km 지점에 솟아 치악산의 한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남쪽 능선에 있는 금두고원(치악평전)은 평탄한 분지로 되어 있다. 봉우리 아래에 금두산성(金頭山城)이 있고 보문사가 있다.

**향로봉삼거리** [길]

**[위치]** 향로봉 북쪽 바로 아래, 고둔치 방면과 보문사 방면, 상원사 방면으로 갈라지는 능선의 길을 말한다.

**혼인골** [골]

**[위치]** 치마바우의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많이 올려서 혼

인골이라고 부른다.

**화사천**(花似川) [마을] → 봉산동 화실

**화시래** [마을] → 봉산동 화실

**화시래천** [내] → 화천

**화실천** [내] → 화천

**화실철교** [다리]

**[위치]** 마산머리 동쪽, 유암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다리를 말한다.

**화장동** [마을] → 꽃밭머리

**화전동**(花田洞) [마을] → 꽃밭머리

**화전촌**(花田村) [마을] → 꽃밭머리

**화천**(花川) [내]

**[위치]** 고둔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거름터, 유암, 화실을 거쳐 살대울교에서 모래기천을 합류한 후 너르내에서 다시 오리현천과 합류하고,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내이다. ‘유암개울’, ‘궁실천’, ‘화시래천’, ‘화실천’이라고도 한다.

**횃가마골** [골]

**[위치]** 지영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회가 많이 출토되었으므로 횃가마골이라 하였다.

# 제3편

## 문막읍(文幕邑) 지명(地名)



문막읍 소재지 ; 1972년

## [위치]

문막읍은 원주시청을 기점으로 하여 남서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흥업면, 서쪽으로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남쪽으로는 부론면과 귀래면, 북쪽으로는 지정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사제면(沙堤面)과 미내면(綿乃面, 紆乃面, 彌乃面) 지역이었다.

1760년대의 『여지도서』에 사제면과 미내면이 행정명으로 등장한 이후 1912년까지 두 면(面)이 병존해 오다가 1914년에 건등면(建登面)으로 바뀌었다.

옛 사제면(沙堤面)은 현재의 반계리(분1리, 분2리)·취병리(분2리, 분3리)·건등리(분3리, 분4리, 분5리)·동화리(분5리, 분6리)·사제리(분7리, 분8리)의 8개 리를 관할하였고, 옛 미내면은 현재의 비두리(1리, 2리)·궁촌리(3리, 4리)·포진리(5리, 6리)·문막리(7리, 8리)·후용리(9리)의 9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미내면은 건등면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사제면은 분할되어 각각 금물산면(今勿山面)과 건등면에 통합되면서 없어졌다.

이름을 바꾼 건등면은 미내면에 사제면 소속이던 현재의 반계·취병·건등·동화를 합하여 반계(礮溪)·건등(建登)·궁촌(宮村)·동화(桐華)·문막(文幕)·비두(碑頭)·취병(翠屏)·포진(浦津)·후용(厚用)의 9개 리로 개편하였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였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은 원성군(原城郡)으로 바뀌어 원성군 문막면이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문막면이 되었다.

1995년 3월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를 병합하고 원주시 문막읍(文幕邑)이 되었다.

## [유래]

사제면(沙堤面)은 사제리의 옛 이름 사제울에서 나온 것이며, 미내면(綿乃面, 紆乃面, 彌乃面)은 면화 농사를 지은 메나골(<며나골>면화골)의 소리를 따라 ‘미내(彌乃), 며내(紆乃)’라 한 것이다. 또는 ‘메나’의 원뜻 ‘면화’를 따라 ‘면내(綿乃)’라고도 하였다.

건등면(建登面)은 왕건이 올랐다는 건등산(建登山)에서 따온 이름이다.

‘문막(文幕)’은 예부터 섬강(蟾江) 나루터에 막(幕)을 치고 마을이 있었으므로 유래된 이름이다. ‘물’의 옛말인 ‘뭇’에 ‘막(幕)’이 결합하여 ‘뭇+막>뭇막>문막’이 되었다. 이후 오늘날의 읍 명칭으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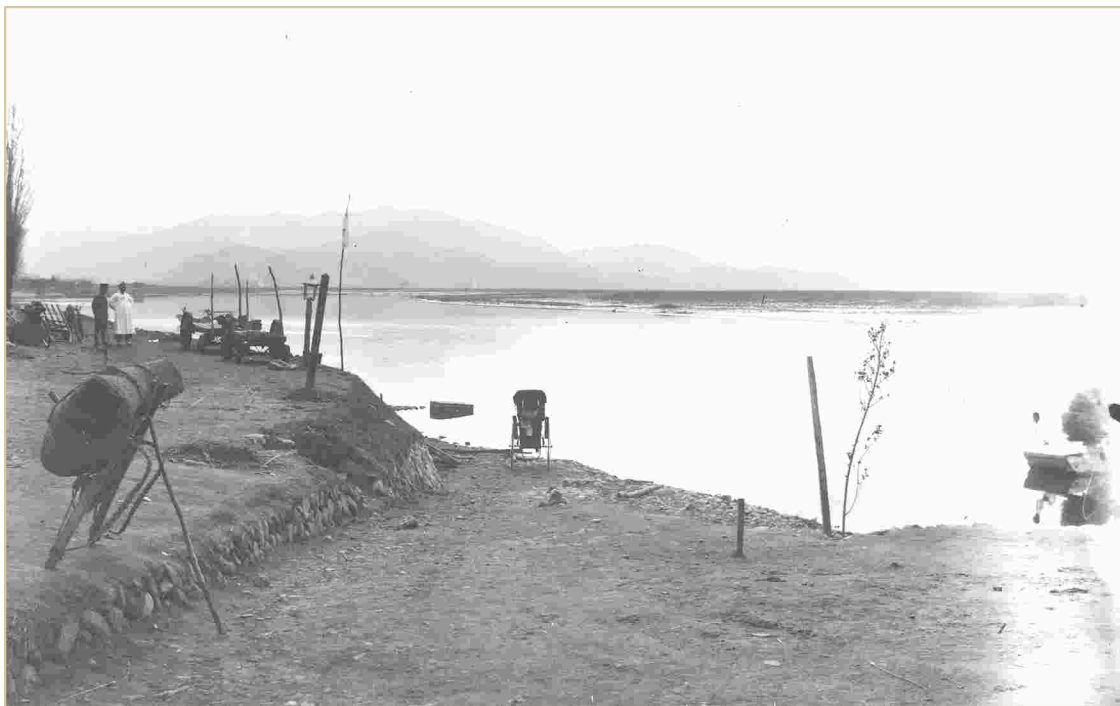


문막면사무소 ; 1977년

문막면사무소 준공 ; 1992년 12월 23일







물구비나루 ; 1912년

문막 대홍수 ; 19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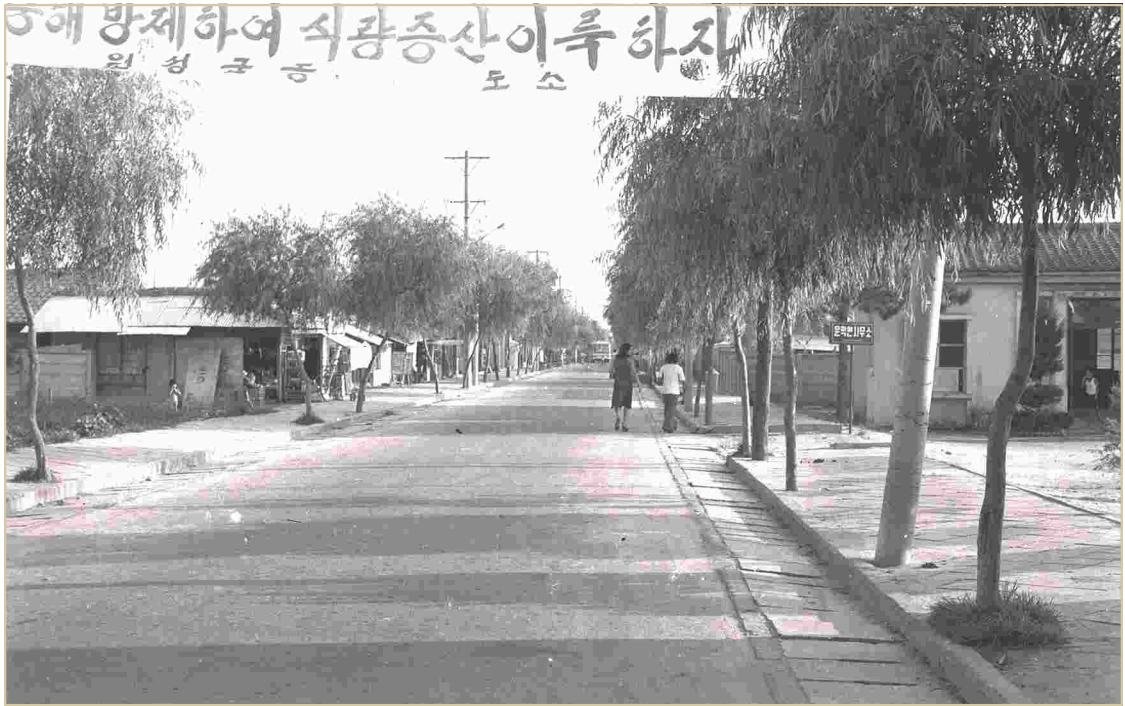




문막리 시가지 ; 19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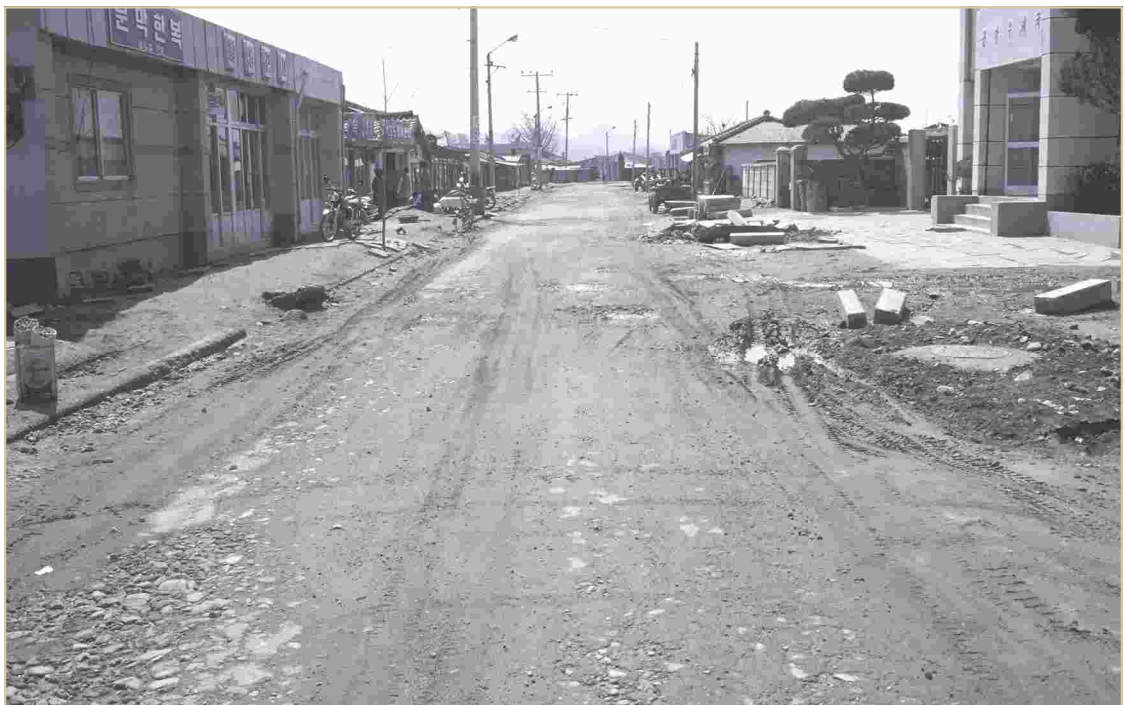
문막주조장 ; 19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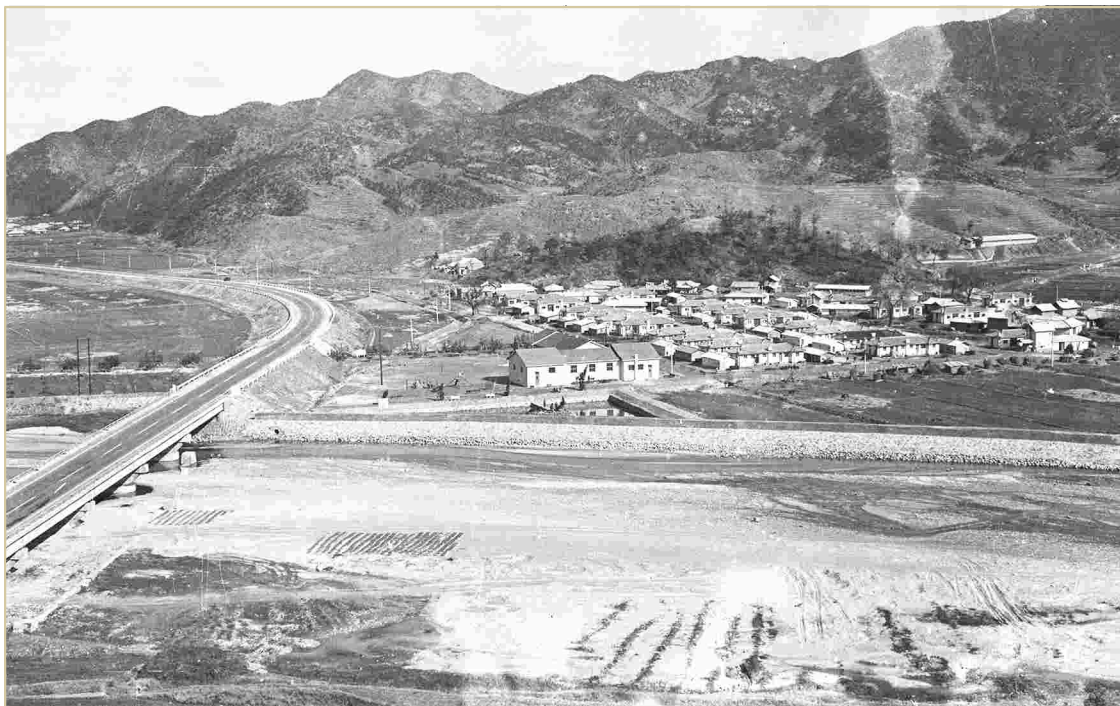


문막리 시가지 ; 1973년

문막리 시가지 ;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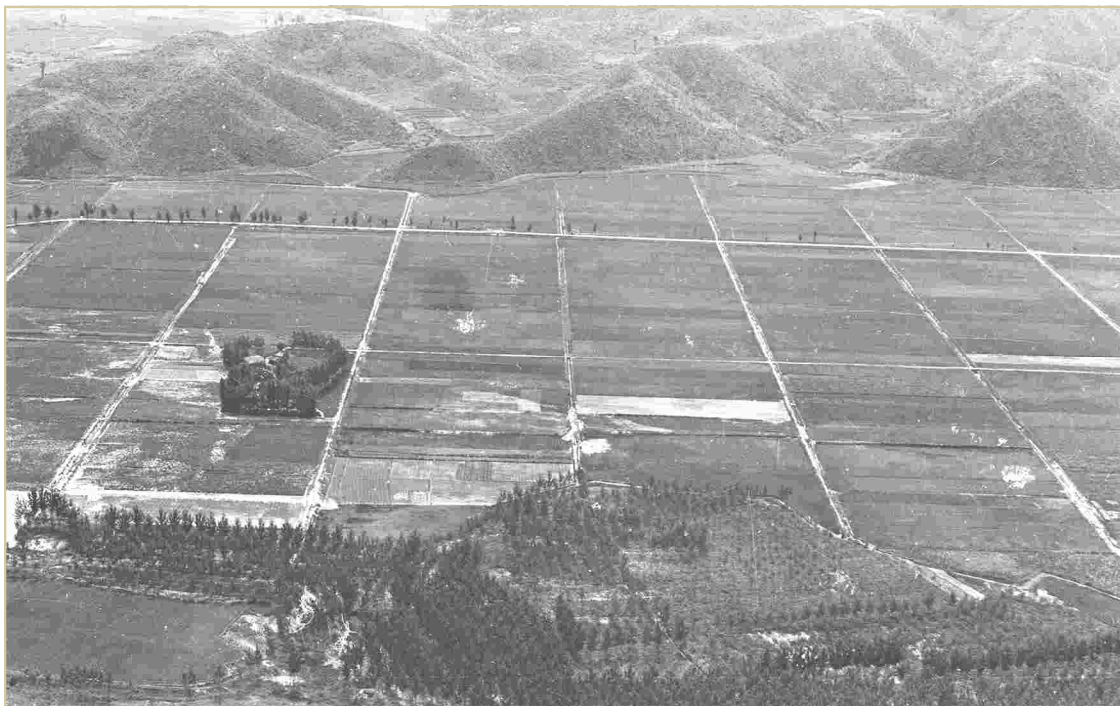




포진리 ; 1973년

후용리 ; 1981년





문막면 경지정리 ; 1971년

문막교 ; 1973년







문막읍 승격 ; 1995년 3월 2일

문막읍 소재지 ; 2015년



## 건등리(建登里)

### [위치]

건등리는 건등산(建登山)을 중심으로 하여 문막읍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마을이다.  
동쪽은 동화리, 서쪽과 북쪽은 취병리, 남쪽으로는 문막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연혁]

원래 사제면(沙堤面)의 분3리·분4리·분5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래의 분3리·분4리·분5리와 미내면(彌乃面)의 7리(문막리) 일부를 병합하여 건등리(建登里)라 하여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건등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건등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건등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건등산(建登山)의 이름을 따서 건등리라 하였다.

### 가는대골 [골]

**[위치]** 건등저수지 위, 메나골 입구에서 남서쪽 천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가자물 [샘]

**[위치]** 등안 황가터 너머에 있는 샘을 말한다. 오물(五水) 중 하나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가자물’이라 하였다.

**[내용]**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한다.

### 가자물고개 [고개]

**[위치]** 원평에서 북쪽 등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황가터 앞의 고개이다.

### 감투바위 [바위]

**[위치]** 취병산 아래 섬강의 비둑바위 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마치 고관대작이 쓰던 감투와 비슷하여 감투바위라고 부른다. 이 바위를 만지면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이 바위를 만지며 소원을 빈다고 한다.

### 강개 [터]

**[위치]** 등안 마을 북쪽, 등안고개 아래 소개들 남쪽 끝에 있는 강변의 터를 말한다.

**[유래]** 강물 옆, 강가에 있으므로 ‘강개>강개’라 한다. ‘개’는 물가에 붙는 어휘이다.

**[내용]** 등안 사람들이 목욕과 빨래를 하던 곳이다. 반계리 강 옆의 들 이름으로 ‘강개들’이 있다.

### 건등산(建登山) [산]

**[위치]** 구라우와 너그내 북쪽에 있는 높이 259.8m의 산을 말한다. ‘영산(靈山)’, ‘기린산(麒麟山)’이라고도 한다. 『동국여지』에 고을 서쪽 32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기린산(麒麟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등산(建登山)’이라 하였다.

**[유래]** 후삼국시대 건등산에서는 왕건이 진을 치고, 견훤은 후용리에 견훤산성을 쌓아 대적하였다

고 전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이 산에 올랐다고 해서 ‘건등산’이라 하였다.

**[내용]** 건등산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남아있다. 1793년(정조 13)에 ‘머리와 꼬리는 말과 같고, 소의 눈에 발굽은 둥글며, 크기는 세 살 난 송아지만하고 털은 잿빛인데 반짝반짝 윤이 나며 이마 위에는 길이가 두서너 치쯤 되는 털이 있고 그 사이에 숨겨진 뿔이 있는 짐승이 사제면에 나타나 명봉산을 거쳐 건등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여지도서』 『강원도원주군읍지』에는 ‘관문(官門)에서 서쪽으로 40리에 있다.’고 소개하고 ‘고려 때 적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정돈하여 이 산에 올랐던 일이 돌에 새겨져 뒷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여 지명의 유래를 적고 있다. 건등산은 『광여도』 『지승』 『1872년지방지도』 『해동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기린산(麒麟山)으로 나온다.

**[전설]** 후삼국시대, 왕건과 견훤이 격전을 치르던 중, 왕건이 견훤산성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여 군량미 조달을 막고 섬강에 횃가루를 풀어 뿌옇게 흐르게 했다고 한다. 굶주린 견훤의 병사들이 쌀뜨물인 줄 알고 강물을 마시고 죽는 바람에 왕건의 승리로 끝났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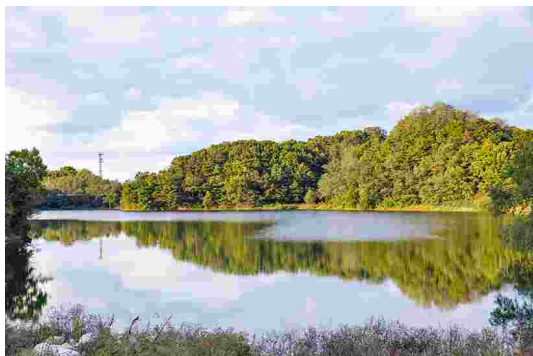


「건등산 ; 2015년」

### 건등저수지 [못]

**[위치]** 메나골 앞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등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메나골 물을 모아 너그내들에 물을 댄다.



「건등저수지 ; 2019년」

### 고안들 [들]

**[위치]** 토평 서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괴안니들(槐屹坪)’이라 하였다.

**[내용]** 들 한가운데로 여원로가 지나고 들의 남쪽에는 현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신한아파트, 삼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골언 [골]

**[위치]** 안너그내에서 북동쪽 건등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언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 위에 작은 못을 막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너그내들에 물을 댔다.

**[풀어]** ‘언(堰)’은 못둑, 제방을 뜻한다. ‘골+언(堰)>골언’이 되었다.

### 골언이 [골] →골언

### 관천(寬川, 寬泉) [내] [마을] → 너그내

**[위치]** 메나골 남동쪽 명봉산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건등저수지에 머물다가 서쪽으로 너그내, 토평, 잔대물 앞을 지나 석지앞들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너그내 마을을 ‘관천(寬川)’이라 하고, 내는 ‘관천계수(寬川溪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을은 ‘너그내(관천寬川)’, 내는 ‘관천계수(寬川溪水)’라고 구분하였다.

**[유래]** ‘너그내’를 한자로 적은 지명이다. 내가 넓게 펼쳐지므로 ‘관천(寬川)’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이곳은 땅을 조금만 파면 샘물이 나와 물이 흔하므로 ‘관천(寬泉)’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 관천계수(寬川溪水) [내] → 관천

### 관천보(寬川湫) [보]

**[위치]** 원평 앞에 있던 관천의 보(湫)를 말한다. ‘너그내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관천보(寬川湫)’라 하였다.

### 구라우 [마을]

**[위치]** 건등산 남쪽 아래, 현 삼양유업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구암(龜岩)’이라고 하였다. 마을 안에 ‘웃구라우’, ‘아랫구라우’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굴아우(龜巖)’라고 하였고 『1917년지적도』에 ‘龜巖’으로 표기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구라우(九岩, 龜岩)’라고 하였다.

**[유래]** 웃구라우와 아랫구라우 사이에 큰 거북모양의 넓적한 바위가 있어 구라우라 하였다고도 하고, 마을에 큰 바위가 아홉 개가 있어서 구라우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바위를 중심으로 마을은 웃구라우와 아랫구라우로 나뉘어 불렸다. 들과 주택지로 개발되어 바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구라우 마을 ; 2019년」

### 구라우고인돌 [유적]

**[위치]** 구라우 마을에 있는 두 기의 고인돌을 말한다.

### 구라우들 [들]

**[위치]** 구라우 마을 남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구라우성황당 [당]

**[위치]** 아랫구라우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너그 내성황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길옆 큰 바위 위, 수령 약 330년의 느티나무 세 그루를 당목으로 삼고 그 아래에 성황당이 있었다. 당은 구라우, 너그내, 토평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중국의 치우 장군을 모셨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도 당집이 있었고 음력 10월에 당고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느티나무가 있는 이 바위를 장수발자국바우라고 부른다.



「구라우성황당 ; 2019년」

#### 구매바우 [바위]

**[위치]** 취병산 동쪽의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구명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강물에 잠겨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굴이 있어 '구명바우, 구매바우'라 한다.

#### 구매바우굴 [굴]

**[위치]** 구매바우 물속에 잠겨있는 굴을 말한다.

**[내용]** 깊이가 약 2m로 바닥에는 모래가 있고 위에는 천장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 구명바우 [바위] → 구매바우

#### 구암(九岩, 龜岩) [마을] → 구라우

#### 국수봉(國守峰) [산]

**[위치]** 명봉산 서쪽, 천마산 남동쪽에 있는 높이

481.2m의 산을 말한다. 건등리와 궁촌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남쪽에는 센추리21 골프장이 대규모로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국수봉(國守峰)'이라 하였다.

**[유래]** 국수봉(國守峰)은 대개 국사봉(國師峰)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명이다. 국사(國師)는 '國祠, 國土, 國祀' 등으로 쓰이는데 산신을 모시거나 당, 봉수대가 있거나 신사(神祀)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봉우리가 수려하여 산 밑에서 인물이 난다고 전한다.

**[내용]** 국수봉으로 알려진 산은 두 군데이다. 하나는 481.2m인 이 봉우리이며 다른 하나는 이 봉우리 남쪽에 있는 455.8m 봉우리이다. 두 봉우는 남북으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1917년지적도』에는 455.8m 봉우리를, 국립지리원에서는 481.2m 봉우리를 국수봉으로 기록하고 있다.

#### 기린산(麒麟山) [산] → 건등산

#### 김두한가옥 [건물]

**[위치]** 건등리 산 902번지에 있는 집을 말한다.

**[내용]** 원주목사와 남원부사를 지낸 김탄행(金坦行, 1714~1774)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건립된 묘막(墓幕)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6호이다.



「김두한 가옥 ; 2019년」

#### 나동(羅洞) [마을] → 메나골

#### 너그내 [들]

**[위치]** 건등저수지 서쪽 아래로 펼쳐진 들을 말한다



다. 한자로 ‘관천(寬川)’이라 하였다.

**[유래]** 내가 넓게 펼쳐지는 곳이므로 너그네라고 하였다. 이때 ‘내’를 ‘들’로 보아 들이 넓게 펼쳐지는 곳으로 볼 수도 있다.

**[풀이]** ‘너그네’의 ‘너그’를 ‘너그럽다’로 보아 관(寬)을 취하고 ‘내’를 개울(川)로 보아 ‘관천(寬川)’이라 하였다. 건등저수지를 건설하기 전에는 메나골 아래 현 건등저수지 위치에서 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동경이, 너그네, 토평, 원평, 문막까지 넓은 들을 흘러 지나갔으므로 너그네라 하였다. ‘관천(寬泉)’의 경우, 샘이 많아 들에 물이 흔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오수(五水), 팔정(八井)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물이 흔하다는 증거이다. 한편, ‘내’는 개울이나 하천이 아니라 ‘들’로 볼 수도 있다. 고구려의 옛말 중 ‘내’는 ‘들(土, 壤)’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의 관천이나 흰개울천은 작고 좁은 개울로서, 좁은 냇물이 지나가면서 들이 넓게 펼쳐진 곳이다. 따라서 이때 ‘내’를 옛말 ‘들’로 해석하여, ‘너그네’를 ‘들이 넓게 펼쳐지는 곳’으로 볼 수도 있다.

#### 너그네 [마을]

**[위치]** 구라우 남서쪽 관천 냇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너근니(寬川)’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너그네(관천寬川)’라 하였다.

**[유래]** 들이 넓게 펼쳐지므로 ‘너그네’라고 하였고 거기에 마을이 있으므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 마을 안에 ‘너그네’와 ‘안너그네’가 있다.

#### 너그네고개 [고개]

**[위치]** 안너그네에서 북쪽 등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너그네고개’라 하였다.

#### 너그네들 [들]

**[위치]** 너그네와 토평 사이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재 도로와 주택단지에 거의 다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너그네들’이라 하였다.

**[내용]** 너그네들을 가로질러 42번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고 들 자리에는 서원주코아루아너스와 원주문막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너그네보 [보] → 관천보

#### 너그네성황당 [당] → 구라우성황당

#### 달밭골 [골]

**[위치]** 메나골 끝부분에서 남동쪽으로, 명봉산 능선 북쪽의 높이 56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대찬이들 [들] → 되찬이들

#### 덕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덜밀 [들] → 들밀

#### 돈경이 [마을] → 동경이

#### 돌담물 [샘]

**[위치]** 석지 제방 쪽에 돌담을 쌓아 만든 우물을 말한다. 팔정(八井) 중의 하나이다.

#### 동경(東京) [마을] → 동경이

#### 동경동(東京洞) [마을] → 동경이

#### 동경이 [마을]

**[위치]** 건등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돈경이’, ‘딩경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동경이(東京里)’라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는 ‘동경리(東京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딩경이(동경)’라 하였다.

**[유래]** 메나골에서 내려오는 흰개울천의 물이 꺾여 휘돌아나가는 곳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돈(<돌>+경이>동경이>동경이’가 되었다. ‘돈’은 ‘돌대(回)’, ‘경이’는 행구동 ‘돌갱이’의 ‘갱이’처럼 접미사이다. 여기에서는 ‘물이 돌아나가는 곳’의 뜻이다. 건등저수지를 막기 이전, 메나골의 물줄기가 북으로 흘러내려 현 마을 위치에서 서쪽으로 90도로 꺾여 돌아나가던 곳이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 동경이뒷들 [들]

**[위치]** 동경이 북쪽, 건등저수지 서쪽 아래의 들을 말한다.

### 동경이들 [들]

**[위치]** 동경이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문막TG 동쪽에 있는 들이다. 들 한가운데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경이들’이라 하였다.

### 동이점 [마을]

**[위치]** 메나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웅기를 굶던 마을이었으므로 동이점이라고 하였다.

**[내용]** 밭에서 향아리가 나왔고 거기에서 조선시대의 해동통보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밭에는 웅기 파편이 산재해 있다.

### 되찬이들 [들]

**[위치]** 너그내 서쪽, 원평 남동쪽으로 나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대찬이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되찬이들(道贊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추수를 하면 알곡들이 되에 짹짹 차고 넘친다고 하여 ‘되찬이들’이라 하였다. 너그내, 구라우의 곡식창고로 불리던 들이다. 별목도랑과 관천의 물을 보(洑)로 막아 들에 대었다.

### 뒷경이 [마을] → 동경이

### 뒷경이들 [들] → 동경이들

### 두엄똥지기 [마을]

**[위치]** 메나골 안, 동이점 남쪽 위에 있던 웅기를 굶던 마을을 말한다.

### 뒤로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뒤리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뒤일고개 [고개]

**[위치]** 메나골에서 쇠재골을 지나 궁촌리 메나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천마산과 국수봉 사이에 있다. 높이는 200m이다. ‘뒤로고개’, ‘뒤리

고개’, ‘덕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마을 뒤에 골짜기가 있으므로 ‘뒤실>뒤일’이라 하였다.

**[유래담]** 왕건이 견훤의 군사를 뒤에서 쳐서 이겼다고 해서 ‘뒤로고개>뒤리고개, 뒷고개’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내용]** 궁촌리 마을 뒤의 ‘뒤일골, 뒤일천, 뒤일고개’ 등의 지명이 통용되고 있다.

**[풀이]** ‘뒤(後)+실(谷)>뒤실>뒤실>뒤일’로 음운 변천하였다.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 뒷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뒷벌 [들]

**[위치]** 토평 마을 남서쪽에서 고안들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원주의리고등학교 북쪽, 삼익아파트, 신한아파트, 극동아파트 지역이다.

**[내용]** 원래 밭이었는데 건등저수지가 생기면서 논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모두 주택단지가 되었다.

### 뒷벌고개 [고개]

**[위치]** 현 문막성당에서 북쪽으로, 토평 뒷벌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에 현 문막초등학교, 문막의리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 뒷밀 [들]

**[위치]** 등안 마을 뒷산 너머, 남산들 남쪽 끝부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소개들 남동쪽 끝에 있다. ‘덜밀’이라고도 한다.

### 등옥골 [마을]

**[위치]** 두엄똥지기 남쪽 위에 있던 웅기를 굶던 마을을 말한다.

### 등안(登岸) [마을]

**[위치]** 건등산의 서쪽 둔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등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등안니(登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등안(登岸)’이라 하였다.

**[유래]** 건등산 기슭(岸)에 있으므로 등안(登岸)이라

고 하였다.

**[풀이]**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안’이 들어간 지명으로 애안, 덕안, 수반(<숲안) 등이 있다. 이때 ‘안’을 한자로는 모두 언덕 또는 산을 뜻하는 ‘안(岸)’ 또는 ‘홀(屹)’로 기록하고 있어서 안쪽(內)이 아니라 ‘언덕’ 또는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의 ‘언덕, 기슭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등안 마을 : 2019년」

#### 등안고개 [고개]

**[위치]** 등안 마을에서 북서쪽 섬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여지도서』에 ‘등안현(登岸峴)’이라고 하였다.

**[내용]** 등안고개는 강원감영에서 흥원창으로 가는 옛 길이었다. 강원감영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감영>만종>질마재>마라우>안창>솔치>양평’으로 가는 육로와, 마라우에서 남쪽으로 ‘마라우>마라우고개>등안고개>궁촌천>모산고개>흥원창’으로 가는 남한강 수로가 있었다.

#### 등안이 [마을] → 등안

#### 등안이골 [골]

**[위치]** 등안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등안이골’이라 하였다.

#### 등안이들 [들]

**[위치]** 지샘물앞에서 북동쪽 등안 마을로 난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등안이들’이라고 하였다.

#### 등안현(登岸峴) [고개] → 등안고개

#### 마당바우 [바위]

**[위치]** 석지 앞 섬강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당바우’라 하였다.

**[유래]** 5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마당처럼 넓고 평평한 바위라서 마당바우라고 한다.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 천렵을 하던 곳이다.

#### 매봉산 [산]

**[위치]** 등안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이 148.7m의 뒷동산을 말한다.

**[유래]** 이 산에 올라 매를 놓았으므로 매봉산이라고 하였다.

#### 먹지 [마을] → 석지

**[위치]** 석지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옛날 나루터를 중심으로 먹거리 장사가 많았으므로 ‘석지’의 이름을 빌어서 ‘먹지’라 하였다.

#### 메나골 [골]

**[위치]** 건등저수지 남쪽의 메나골 마을이 있는 골짜기, 또는 명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 전체를 메나골로 부르기도 한다. 옛 행정지명 ‘며내면’, ‘미내면’이 여기에서 나왔다.

**[유래]** 옛날 면화 농사를 지었으므로 ‘면화골>메나골’이라 하였다.

**[내용]** 메나골을 마을 중심으로 국한하고 남동쪽으로 명봉산을 향한 골짜기를 안막골로, 남쪽으로 뒤일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쇠재골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풀이]** ‘메나’는 ‘면화’의 영서방언이다. 면화 농사를 짓던 골짜기여서 ‘면화골>며나골>메나골’이 되었다.

#### 메나골 [마을]

**[위치]** 건등저수지 위, 메나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나동(羅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은더니(蘿洞)’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메나골(나동)’이라 하였다.

**[내용]** 명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고려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쉬어갔다는 전설이 있다.

#### 메나산 [산]

**[위치]** 메나골 동쪽 위에 있는 높이 444m의 산을 말한다. 명봉산의 북쪽 능선에 있는 산으로 동화리와 경계를 이룬다. 『한국지명총람』에 ‘명봉산(메나산)’이라고 하여 두 산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내용]** ‘메나산’은 메나골에 있는 산줄기의 봉우리들에 통칭되는 이름이다. 명봉산을 비롯하여 메나골 동쪽에 있는 산줄기의 444m, 398m, 400m 봉우리 등을 메나산으로 부른다.

며내면(脉乃面) [마을] → 미내면

면내면(綿乃面) [마을] → 미내면

#### 명봉산(鳴鳳山) [산]

**[위치]** 건등리 남동쪽, 메나산 남쪽에 있는 높이 598.7m, 또는 그 북동쪽의 614.5m의 산을 말한다. 건등리, 궁촌리, 흥업면 대안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신선봉’, ‘성짚봉’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명봉산(鳴鳳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명봉산(메나산)’이라 하였다.

**[유래]** 봉황이 깃들어 온 산이라고 하여 명봉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마을에 큰 일이 생기면 부엉이가 밤에 찾아와서 늘 울기 때문에 명봉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백운산을 모산으로 한다. 남대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서쪽으로 휘어져 백운산을 이루고, 여맥이 북쪽으로 이어져 명봉산에서 솟았다. 『1872년지방지도』에 명봉산이 표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을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지도서』 『강원도원주군읍지』에는 ‘고을의 서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는 ‘금물산면 초일리(初一里)와 며내면 4리와 7리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

지명총람』에 ‘명봉산(메나산)’이라 하여 명봉산과 메나산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명봉산 정상에 대해서는 고증이 엇갈린다. 『1917년지적도』에는 614.5m 봉우리라 하였고 국토지리원에서는 614.5m 봉의 남서쪽 598.7m 봉우리를 명봉산으로 표기하였다. 현재 등산객들은 598.7m 봉우리를 명봉산 ‘주봉(主峰)’, 614.5m 봉우리를 명봉산 ‘상봉(上峰)’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 명봉산 상봉(上峰) [산]

**[위치]** 명봉산의 두 봉우리 중 북동쪽에 있는 높이 614.5m의 봉우리를 말한다.

**[내용]** 두 봉우리가 서로 혼용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등산객들이 붙인 이름이다. 상봉이 더 높지만 전망이 좋지 않으므로 주봉이 정상 구실을 하고 있다.

#### 명봉산 주봉(主峰) [산]

**[위치]** 명봉산의 두 봉우리 중 남서쪽에 있는 높이 598.7m 봉우리를 말한다. ‘신선봉’, ‘성짚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두 봉우리가 서로 혼용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등산객들이 붙인 이름이다. 상봉이 더 높지만 이 봉이 전망이 좋고 바위가 많아 수려하므로 정상 노릇을 하고 있다. 바위에 신선들이 내려왔다고 하여 ‘신선봉’, 마치 바위로 성을 쌓은 것 같다고 하여 ‘성짚봉(<성쌓은봉>)’이라고도 한다.



「명봉산 주봉 : 2018년」

## 모단구령 [들]

**[위치]** 현 원주의료고등학교와 문막성당 사이의 버덩을 말한다. 현재는 도로가 나고 문막읍사무소와 문막초등학교, 문막우체국 등 마을이 들어섰다.

## 목골 [골]

**[위치]** 동경이 서쪽 동경이들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17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목구멍골 [골] → 몽골

## 몽골 [골]

**[위치]** 산제당골 위, 신배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목구멍골’이라고도 한다. 작은몽골, 큰몽골이 있다.

**[유래]** 골짜기가 사람의 목구멍을 넘듯 볼록볼록 솟은 곳이 있어 목젖과 비슷하다고 하여 ‘목구멍골’, ‘몽골’이라고 부른다.

## 무산보 [보]

**[위치]** 원평 앞에 있는 무산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산보’라 하였다.

## 무산 시내 [내] → 무산천

## 무산천 [내]

**[위치]** 메나골에서 건등저수지를 지나고 서쪽으로 너그내와 원평 앞을 흘러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무산 시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무산시니(茂山溪)’라고 하였다.

## 미내면(彌乃面) [마을]

**[위치]** 현 문막읍의 옛 이름 중 하나이다. 현재의 건등리와 문막리 일부, 포진리, 궁촌리, 비두리, 후용리 지역이다. ‘며내면(弥乃面)’, ‘면내면(綿乃面)’이라고도 하였다.

**[유래]** 메나골, 메나산 등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메나’의 소리를 따라 ‘미내(彌乃)’, ‘며내(弥乃)’라 하였고 ‘메나’의 원뜻 ‘면화’를 따라 ‘면내(綿乃)’라고도 하였다.

**[내용]** ‘미내’라는 이름은 1530년 『신증동국여지

승람』에 이미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역사가 오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미내면의 지역은 1·2리가 현재 비두리, 3·4리가 궁촌리, 5·6리가 포진리, 7·8리가 건등리와 문막리 일부, 9리가 후용리 지역이었다. 즉 미내면은 현 문막읍의 남쪽 지역을 일컫던 지명이다. 미내면은 이후 건등면>문막면>문막읍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바둑바우 [바위] → 신선바우

## 바사골 [골]

**[위치]** 세골 북쪽, 석지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원촌과 취병정터 사이에 있다. ‘바삭골’, ‘법사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예전에 법사(法寺)라는 절이 있어 ‘법사골’로 부르다가 ‘바사골’, ‘바삭골’로 부른다고 한다.

**[내용]** 바사골 북쪽에 강변을 끼고 호암산장 등의 택지가 조성되어 있다.

## 바삭골 [골] → 바사골

## 받음물 [샘]

**[위치]** 건등산 아래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팔정(八井) 중의 하나이다.

**[유래]** 원래 밭 위에 있어서 ‘밭우물’로 불렸는데 음이 변하여 ‘받음물’이 되었다고 한다.

## 방가물 [샘]

**[위치]** 등안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오수(五水) 중의 하나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방가물’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방가 집안에서 쓰던 우물이어서 방가물이라 하였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없어졌다.

## 배맨바우 [바위]

**[위치]** 명봉산 주봉 정상 바둑바우 옆의 선바위를 말한다. 마치 작은 괘불대처럼 생긴 바위이다. ‘선돌’, ‘입석’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먼 옛날 천지개벽을 할 때 촛대처럼 서



있는 이 바위에 배를 붙들어 매 떠나려가지 않게 하였으므로 ‘배 붙들어 맨 바위>배맨바위’라 한다.



‘배맨바위 : 2018년’

#### 백동네 [마을]

**[위치]** 토평 서쪽, 고안들 북쪽의 작은 동산마을을 말한다. 현 대감집, 홍갈비가든이 있는 마을이다.  
**[유래]** 옛날에 백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여 백동네라고 부른다.

#### 별목도랑 [내]

**[위치]** 건등산에서 남쪽으로, 삼양유업을 거치고 웃 구라우와 아랫구라우 사이를 지나 관천에 들어가는 개울을 말한다.  
**[내용]** 겨울철에도 물이 따뜻하여 빨래를 하던 곳이었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흘러 농업용수로 쓰였다.

#### 법사골(法寺-) [골] → 바사골

#### 복작고개 [고개] → 복재고개

#### 복재고개 [고개]

**[위치]** 등안에서 북동쪽으로, 매사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매봉산 동쪽에 있다. ‘복작고개’라고도 한다.  
**[유래담]** 고개가 매우 가팔라서 옆드려 기어 올라가야 하므로 복재고개라 하였다고도 하고, 평이 많이 옆드려 있는 고개라고 하여 복작고개(伏鵲--)라 하였다고도 한다. 매봉산에서 푼 매가 이 고개에 옆드린 평을 낚아챘다고 한다.

#### 복재고개서낭 [당]

**[위치]** 복재고개에 있던 서낭을 말한다.

**[내용]** 아주 큰 엄나무를 신성시하여 당목으로 삼고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한다.

#### 불당골 [골] → 산제당골

#### 불양답(佛養畓) [들]

**[위치]** 등안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경주 김씨 사한공 종가에서 부처님께 공양할 벼농사를 짓던 논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비둑바위 [바위]

**[위치]** 석지나루 상류 형제바위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비둑바위’라 하였다.

**[유래]** 비둘기집이 아주 많아 비둑바위라 하였다.

**[풀이]** 비둘기바위>비둑바위>비둑바위가 되었다.

#### 산제당골 [골]

**[위치]** 메나골 마을 남동쪽, 안막골 입구에서 동쪽 메나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제를 지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서원촌(書院村) [마을]

**[위치]** 바사골 북쪽, 지간골 서쪽 강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호암빌리지 등이 들어선 신 주택지이다.

**[유래]** 마을 남쪽 세골 입구에 옛 취병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촌이라 하였다.

#### 석지(石芝) [마을]

**[위치]** 지샘물 서쪽, 섬강 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석지나루가 있다. ‘먹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석지(石芝)’라 하였다.

#### 석지골 [골]

**[위치]** 석지와 지샘물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다.

#### 석지나루 [나루]

**[위치]** 석지와 취병리 버들골을 잇는 섬강의 나루를 말한다. 경기도 여주를 오가던 사람들이 이용

하던 나루이다.

#### 석지들 [들]

**[위치]** 석지 마을 남쪽, 잔대물 서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석지앞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석지들’이라 하였다.

#### 석지앞들 [들] → 석지들

#### 선돌 [바위] → 배맨바우

#### 성싼봉 [산] → 명봉산

**[유래]** 명봉산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산 정상 부근의 바위가 마치 성을 쌓은 것 같으므로 ‘성쌓은봉>성싼봉’이라고 부른다.

#### 세골 [골]

**[위치]** 석지 마을 앞 섬강 강변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소개들 [들]

**[위치]** 동화리 탑전 북서쪽, 섬강 가에 길게 붙어 있는 들을 말한다. 안창리 흥법 마을에서 강 건너 남동쪽에 있다.

#### 쇄재골 [골]

**[위치]** 건등저수지 위 메나골에서 천마산과 국수봉 사이 안부를 향하여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음수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쇄재골에서 남동쪽으로 증골이 갈라져 나간다. 고개 너머 궁촌리의 뒷골과 잣골, 메나골로 이어진다.

#### 쇠뚱바우 [바위]

**[위치]** 등안 북쪽 섬강 가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습이 마치 소가 똥을 싸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내용]** 일부가 섬강 물에 잠긴 큰 바위로, 바위꼭대기에서 다이빙을 하던 곳이다.

#### 신개들 [들]

**[위치]** 고안들 동쪽, 토평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원래는 밭이었었는데, 건등저수지가 생긴 후 새로 개답하였으므로 ‘신개들’이라 하였다.

**[내용]** 1970년대에 경지정리가 되었다. 지금은 들 한가운데로 42번 국도인 여원로가 지나가고 있고 들 남쪽지역에는 신한아파트, 삼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신배나무골 [골]

**[위치]** 메나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444m 봉우리 와 398.3m 봉우리 사이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동화리의 옛 동화사터가 있다.

#### 신사당터 [터]

**[위치]** 일제강점기에 신사(神社)가 있던 터를 말한다. 현 문막읍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자리이다.

#### 신선바우 [바위]

**[위치]** 절골 남동쪽 명봉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선바우’라고 하였다.

**[유래담]** 신선이 내려와 약수터에서 목욕을 하고 바둑을 두며 놀았다고 하여 신선바우라 한다.

#### 신선바우골 [골]

**[위치]** 명봉산 절골 남서쪽, 신선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신선봉(神仙峰) [산] → 명봉산

**[유래담]**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으므로 신선봉이라고도 하였다.

#### 신선암터(神仙庵-) [터]

**[위치]** 절골 신선바우골 위, 명봉산 주봉(主峰) 북서쪽 아래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바위 아래 좁은 곳에 있는 터이다.

#### 신선약수 [샘]

**[위치]** 신선암터에 있는 샘을 말한다.

**[내용]** 물맛이 좋고 영험하며 수량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 부정 탄 사람이 가면 약수물 위에 뱀

이 떠있어 물을 떠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신촌(新村)** [마을]

**[위치]** 현 원주의료고등학교 주변 마을을 말한다.

**[유래]** 1950년대 중학교가 생기면서 이후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신촌이라고 한다.

**심발서령** [골]

**[위치]** 메나골 안 흰골 위에 있는 평평한 버덩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산삼을 캐 곳이어서 심발서령이라 부른다.

**아랫구라우** [마을]

**[위치]** 구라우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삼양유업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좁은목이** [마을]

**[위치]** 건등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좁은목이 남서쪽, 현 문막자동차학원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안너그내** [마을]

**[위치]** 너그내 북동쪽, 건등산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너그내 마을 중 골짜기 안에 있으므로 안너그내라 한다.

**안너그내들** [들]

**[위치]** 원평 앞 되찬이들에서 안너그내 마을로 향하여 난 들을 말한다.

**안막골** [골]

**[위치]** 건등저수지 위 메나골에서 명봉산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메나골 마을 위를 안막골로 부르기도 하고 골 전체를 메나골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한다.

**애항(隘項)** [마을] → 좁은목이

**여우박골** [골]

**[위치]** 안너그내에서 북동쪽으로 건등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건등산 중턱 큰 바위절벽 아래의 골에 여우가 살았으므로 여우박골이라 한다.

**영산(靈山)** [산] → 건등산

**영산둔더지** [산] → 영산둔덕

**영산둔덕(靈山--)** [산]

**[위치]** 등안 뒷산 밭 위에 있는 언덕을 말한다. 건등산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영산둔더지’라고도 한다.

**[유래]** 건등산에 신이 있다고 믿어 영산(靈山)이라고 하였다.

**오물** [샘]

**[위치]** 건등리에 있는 다섯 곳의 샘을 말한다. ‘오수(五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물(오수)’이라 하였다.

**[내용]** 지샘물, 토물, 잔대물, 가자물, 방가물 등 다섯 군데의 우물을 말한다.

**오수(五水)** [샘] → 오물

**외아들** [들] → 외야들

**외아들고개** [고개] → 외야들고개

**외야들(外野-) [들]**

**[위치]** 지샘물앞들에서 북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들 북쪽으로 지간골이 이어진다. ‘외아들’이라고도 한다.

**외야들고개** [고개]

**[위치]** 등안에서 외야들을 오가던 낮은 고개를 말한다. ‘외아들고개’라고도 한다.

**움평** [마을] → 원평

**웃구라우** [마을] → 구라우

**[위치]** 구라우 본 마을을 말한다. 아랫구라우와 구분하기 위해 웃구라우라고 부른다.

**웃좁은목이** [마을]

**[위치]** 문막자동차운전학원 북동쪽 아래, 음수골과

여우바우골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원평(原坪) [마을]

**[위치]** 구라우 서쪽, 토평 북서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움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원평이(原坪)’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원평(움평)’이라 하였다.

#### 원평들 [들]

**[위치]** 원평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원평들’이라 하였다.

#### 율리촌(栗里村) [마을]

**[위치]** 취병정이 있었다는 옛 마을 이름이다. 현 세골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여지도서』에 취병정이 ‘고을 서쪽 40리 거린 율리촌에 있다.’고 하였다.

#### 음수골 [골] → 새재골

#### 익항(益項) [마을] → 좁은목이

#### 입석(立石) [바위] → 배만바우

#### 작은몽골 [골]

**[위치]** 산제당골 위 몽골 중 아래쪽의 골짜기를 말한다. 위에 큰몽골이 있다.

#### 잔대물 [마을]

**[위치]** 지샘물 남쪽, 원평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잔덧물’이라고도 한다.

**[유래]** 잔대물 샘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되었다.

#### 잔대물 [샘]

**[위치]** 잔대물 마을에 있는 샘을 말한다. 오수(五水) 중의 하나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잔대물’이라 하였다.

**[유래]** 우물 근처 숲에 잔대와 더덕이 많아 그 물이 스며나오므로 잔대물이라 하였다.

**[내용]** 식수로서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 잔덧물 [마을] → 잔대물

#### 장수발자국바우 [바위]

**[위치]** 아랫구라우 길옆의 구라우성향당이 있던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 한 장수가 더위에 지쳐 위바위와 아래바위 양쪽을 밟고 세수를 하여 발자국이 남았다고도 하고, 옛날 왜병에게 쫓기던 한 장수가 이 바위를 건너뛰다가 가랑이가 찢어져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그때 발자국이 찍혔고 그 흘린 피로 바위 아래의 모래는 붉게 물들었다고도 한다.

**[내용]** 큰 바위가 위와 아래에 있었는데 아래 바위는 길을 내면서 없어지고 현재 위의 바위만 남아 있다.



「장수발자국바우 ; 2019년」

#### 장향(長鄉) [마을] → 쟁쟁이

#### 쟁쟁이 [마을]

**[위치]** 원평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장향’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쟁쟁이(장향)’라 하였다.

#### 절골 [골]

**[위치]** 메나골 끝부분에서 달밭골과 갈라져 남쪽으로, 598.7m 높이의 명봉산 주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 위에 옛 신선암이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하였다.

#### 절터 [터] → 신선암터

**[위치]** 명봉산 주봉 북서쪽 아래, 절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바위 아래에 있는 좁은 절터로 신선암터라고 알려져 있다.

**좁은맥이** [마을] → 좁은목이

**좁은목다리** [다리]

**[위치]** 좁은목 앞에 있던 관천 마을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좁은목다리’라 하였다.

**좁은목이** [마을]

**[위치]** 구라우 남동쪽, 건등사거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뒤로 49번 원문로, 42번 여원로가 지나가고 있다. 현 문막시외버스정류장 남쪽 앞의 마을이다. ‘좁은맥이’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애항(隘項)’, ‘익항(益項)’이라고도 한다. 좁은목이, 웃좁은목이, 아랫좁은목이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좁은목(애항, 익항)’이라 하였다.

**[유래]** 길이 좁아지는 곳이므로 ‘좁은목이’라고 하였다.

**[내용]** 좁은목이, 웃좁은목이, 아랫좁은목이 등 세 마을이 있다. 도로가 나기 전의 옛 길목에 있던 마을들이다.

**[풀이]** ‘목’은 손목, 발목, 길목, 병목과 같이 ‘넓다가 좁아지는 통로’를 뜻한다. 지명에 많이 쓰이는 예로는 ‘다리목(橋項)’이 있다. ‘좁은목이’는 길이 갑자기 좁아질 때 쓰는 이름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고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병목현상은 바로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좁은목이성황당** [당]

**[위치]** 좁은목이에 있던 옛 성황당을 말한다.

**좁은목이주막** [주막]

**[위치]** 좁은목이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내용]** 원주로 가기 위해서는 시고개를 넘어 삼방곡을 지나야 했는데 삼방곡에 산적이 나타나므로 여기에 머물면서 무리를 지어 갔다고 한다.

**증골** [골]

**[위치]** 메나골 남쪽에서 쇠재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국수봉으로 이어진다.

**지간곡(地間谷)** → 지간골

**지간골** [골]

**[위치]** 외야들에서 북쪽 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지간곡’이라고도 한다.

**지사물** [마을] [샘] → 지샘물

**지새물** [마을] [샘] → 지샘물

**지샘물** [마을]

**[위치]** 석지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지사물’, ‘지새물’, ‘지재물’, ‘지정(芝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지지우물(芝井)’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사물(지정, 지새물)’이라 하였다.

**[유래]** 지샘물 샘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되었다. 김두한 가옥이 있다.

**지샘물** [샘]

**[위치]** 지샘물 마을에 있는 샘을 말한다. 오물 중의 하나이다. ‘지사물’, ‘지새물’, ‘지정(芝井)’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새물’이라 하였다.

**[내용]** 가뭄이 아주 심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지샘물고개** [고개]

**[위치]** 지샘물 마을 앞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지샘물에서 원평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샘물앞들** [들]

**[위치]** 지샘물 마을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난 들을 말한다. 들 북쪽에 외야들이 있다.

**지재물** [샘] → 지샘물

**지정(芝井)** [마을] [샘] → 지샘물

**지철바우폭포** [폭포]

**[위치]** 신배나무골 안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천마산(天馬山, 天麻山)** [산]

**[위치]** 건등저수지 남서쪽, 국수봉 북서쪽에 있는 높이 320m의 산을 말한다. 쇠재골 서쪽에 있다.



문막리, 건등리, 포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天麻山’으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천마산(天馬山, 天麻山)’이라 하였다.

**[유래담]** 산의 모양이 마치 말처럼 생겨서 천마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궁촌리 쪽은 말머리, 건등리 쪽은 말꼬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 취병서원터(翠屏書院-) [터]

**[위치]** 건등리에 있던 옛 서원 터를 말한다. 세골과 바삭골 사이에 있는 세골 마을 주변이다.

**[내용]** 조선 후기에 건립하여 사한 김창일을 봉안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건립 연대와 훼손 시기는 알 수 없다. 본래 사한의 사당은 취병산 기슭에 있었으나 후손들이 건등리에 새로 사당을 마련하면서 이전하여 세우고, 순조 때 취병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이곳은 섬강과 취병산이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구릉지이다. 경행사(景行祠) 사당 자리에는 묘가 있었으나 최근 후손이 이장하였고, 지금은 목축지로 쓰이고 있다. 주변에는 기와편이 발견되나 건물을 지었던 석재는 보이지 않는다. 김씨 문중에 의하면 사당이 아니라 서원(書院)이 있었다고 한다.

#### 취병소(翠屏沼) [소]

**[위치]** 취병산 동쪽 벼랑 아래에 있는 섬강의 소(沼)를 말한다.

#### 취병정(翠屏亭) [누정]

**[위치]** 건등리에 있던 옛 정자를 말한다. 현재 세골과 바삭골 사이의 세골 마을 은행나무 옆이라고 추정된다.

**[내용]**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한 김창일이 건등리에 와서 정착한 17세기 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원래 취병정터는 양씨(梁氏)라고 하는 부자가 사는 집이었는데 이곳 집주인 양씨가 호환을 당해 죽자 흥가로 비어있던 것을 김창일이 사들였다고 한다. 취병정터로 추정되는 곳은 섬강 너머로 취병산이 건너다보이는 세골 마을의 뒷산

은행나무 고목 옆 묘소 주변이다.

종래 취병정의 위치에 대하여 『여지도서』에는 ‘고을 서쪽 40리 되는 울리촌(栗里村)에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고 하였고, 『원주원성향토지』에 ‘문막면 취병리 앞 섬강 변의 푸른 절벽 맑은 강물 가에 있다.’고 하였다. 중국인 진좌요(陳佐堯)의 시에 ‘모옥(茅屋)’이라고 한 점과 취병산이 바로 바라다 보이는 곳이라는 점, 고목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건등리의 은행나무 주변이 취병정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김씨 문중의 약도에는 취병정이 섬강 강변 지금의 취병사지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취병정 유허비 ; 2019년」



「취병정 시비 ; 2019년」

#### 큰몽골 [골]

**[위치]** 산제당골 위 몽골 중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몽골을 지나면 신배나무골이 나온다. 아래에는 작은몽골이 있다.

### 토물 [샘]

**[위치]** 토평에 있는 샘을 말한다. 오물 중의 하나이다. ‘통정(通井)’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토물’이라 하였다.

**[내용]** 가뭄이 아주 심해도 마르지 않는다 한다.

### 토물골 [들]

**[위치]** 지샘물앞들 끝에서 북동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골 동쪽에 ‘등안이앞들’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토물골’이라 하였다.

### 토평(土坪) [마을]

**[위치]** 원평 남동쪽, 너그내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42번 여원로 옆, 문막사거리 북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통평(土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토평(土坪)’이라 하였다.

### 토평골 [들] → 토평들

### 토평뒷들 [들]

**[위치]** 토평 남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문막사거리 남서쪽, 현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지역이다.

### 토평들 [들]

**[위치]** 토평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토평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토평들’이라 하였다.

### 통정(通井) [샘] → 토물

### 팔정(八井) [샘]

**[위치]** 건등리에 있는 여덟 개의 우물을 말한다.

**[내용]** 오물인 지샘물, 토물, 잔대물, 가자물, 방가물에 받음물, 돌담물, 황가물을 합쳐 팔정이라고 한다.

### 형제바우 [바위]

**[위치]** 섬강 가 취병소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마당바우 위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형제바우’라 하였다.

**[유래]** 사람 몸체만한 바위 둘이 나란히 형제처럼

서있어서 형제바우라 한다. 이 바위를 자주 안아주면 형제간에 우애가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

### 황가물 [샘]

**[위치]** 원평 북쪽, 등안 남쪽 사이 황가터에 있는 샘을 말한다. 팔정(八井) 중의 하나이다.

**[유래]** 황가라는 아주 큰 부잣집에서 먹던 우물이라고 한다. 지금도 우물이 남아있다.

### 황가터 [터]

**[위치]** 원평 북쪽, 등안 남쪽 사이 산기슭에 있는 집터를 말한다.

**[유래]** 황가라는 부자가 살던 집터로, 지금도 기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 흰골 [골]

**[위치]** 메나골 안 쇠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심밭서령이 있다.

### 흰개울천 [내]

**[위치]** 천마산 남동쪽 뒤일고개에서 북쪽으로 쇠재골과 메나골을 지나 동경이 앞에서 서쪽으로 문막들을 지나고 물구비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유래]** 물길이 흰골에서 내려오므로 흰개울천이라 하였다.

## 궁촌리(宮村里)

### [위치]

궁촌리는 문막읍행정복지센터에서 남동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흥업면 대안리, 서쪽으로는 포진리와 후용리, 남쪽으로는 비두리, 북쪽으로는 건등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연혁]

원래 미내면(彌乃面) 3리·4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리·4리를 병합하여 궁촌리(宮村里)라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궁촌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궁촌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궁촌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조선 고종(高宗)의 후궁 순빈(淳嬪) 엄씨의 경우궁(慶佑宮)이 있었으므로 ‘궁말’ 또는 ‘궁촌(宮村)’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후백제 견훤이 견훤산성에는 석성(石城)을 쌓고 여기에는 토성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고 해서 ‘궁말’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 가마봉 [산]

**[위치]** 명봉산 상봉과 뽕릉재 중간에 있는 498.2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유래담]** 산의 모양이 앞뒤로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가마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 각시골 [골]

**[위치]** 큰만디 입구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갈매울골 [골]

**[위치]** 서들과 바리미 마을 사이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18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건넌들 [들]

**[위치]** 구말 남쪽, 서석 서쪽 궁촌천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함밭들 남쪽 내 건너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는들’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에서 보아 내 건너에 있으므로 건넌들이라고 한다.

### 건넌들보 [보]

**[위치]** 건넌들에 있는 궁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는들보’라 하였다.

### 경우궁터(慶佑宮-) [터] → 궁터

### 고려장골(1) [골]

**[위치]** 메나골에서 북동쪽으로 국수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국수봉 남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고려장으로 추정되는 돌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려장골(2) [골]

**[위치]** 작은만디골 끝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고려장을 지낸 것으로 보이는 석관과 부장품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므로 고려장골이라 부른다.

### 골미 [산]

**[위치]** 구말 북쪽, 탁개 동쪽 궁말천 옆에 있는 작

은 산을 말한다. 센츄리21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산이다. ‘꽃묘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자락이 꽃처럼 튀어나와 있으므로 ‘꽃뫼>꽃미>꽃미, 골미’라 하였다.

**[유래담]** 산 모양이 양쪽에 봉우리가 있고 가운데에 작은 봉우리가 있어 마치 함박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꽃묘산’이라 하였는데 음이 변하여 ‘골미’가 되었다고도 한다.

**[풀이]** ‘꽃묘산’의 ‘묘’는 산을 뜻하는 ‘뫼’가 변한 것이고 ‘산’은 산이므로 ‘~묘산’은 동의어가 두 번 쓰인 것이다. 이때 ‘꽃’은 ‘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꽃’은 물가 또는 들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일컫는 말로 ‘꽃,꽃’으로 발음되어 이를 한자로 옮길 때는 대체로 ‘화(花)’자를 쓴다. 이곳도 주변 3면이 들인데 작은 산줄기가 들의 한가운데로 꽃처럼 뻗어 튀어나온 부분이라 ‘꽃뫼>꽃메>꽃미>꽃미, 골미’로 음운 변천하였다.

### 공비난골 [골]

**[위치]** 아치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무장공비가 나타난 골짜기이므로 공비난골이라 부른다.

### 괭이내골 [골]

**[위치]** 고려장골 위, 국수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국수봉(國守峰)(1) [산]

**[위치]** 명봉산 서쪽, 천마산 남동쪽에 있는 481.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건등리와 궁촌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남쪽에는 센츄리21골프장이 대규모로 들어서 있다.

**[유래]** 국수봉은 대개 ‘국사봉’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명이다. ‘국사’는 ‘國師, 國祠, 國土, 國祀’ 등으로 쓰는데 산신을 모시거나 당 또는 봉수대가 있거나 신사(神事)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국사봉 봉우리는 수려하여 산 밑에서 인물이 난다고 전한다.

**[내용]** 국수봉으로 알려진 산은 두 군데이다. 하나

는 481.2m 봉우리이며 다른 하나는 이 봉우리 남쪽에 있는 455.8m 봉우리이다. 두 봉우는 남북능선에 가까이 있다. 『1917년지적도』에 455.8m 봉우리를 현 국립지리원에서는 481.2m 봉우리를 국수봉으로 기록하고 있다. 산 남동쪽 아래 골프장에 옛 염불암의 터가 남아있다.

### 국수봉(國守峰)(2) [산]

**[위치]** 국수봉(1) 남쪽 능선에 있는 455.8m 봉우리를 말한다. 주민들은 이 봉우리를 국수봉이라고 한다. 봉우리 동쪽 아래에 센츄리21 퍼블릭 8번 코스 그린에 있다. 『1917년지적도』에는 이 봉우리를 국수봉이라 하였다.

### 궁말 [마을] → 궁촌

#### 궁말천 [내]

**[위치]** 명봉산과 국수봉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큰골을 흐르며, 선비와 궁말 앞을 지나 골미 앞에서 궁촌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큰골에서 내려오므로 ‘큰골천’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내의 상류에 해당하는 국수봉과 명봉산 아래는 거의 다 센츄리21골프장에 편입되었다.

### 궁집터 [터] → 궁터

#### 궁촌(宮村) [마을]

**[위치]** 날근터 남동쪽, 국수봉 남서쪽 아래 들판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궁촌천 하류의 넓은 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마을로 궁촌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궁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궁말(宮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궁촌(宮村, 궁말)’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 고종의 후궁 순빈 엄씨의 경우궁이 있었으므로 궁말, 궁촌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후백제 견훤이 견훤산성에는 석성을 쌓고 여기에는 토성을 쌓았으며 이곳에 견훤이 은거하던 궁실을 지었다고 해서 궁말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내용]** 선비, 탁개, 함밭 등을 합쳐서 넓은 의미로 궁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중의 한 마을로서 함

밭과 선비 사이에 있는 옛 경우궁이 있던 마을을 좁은 의미로 궁말이라고도 한다. 1989년에 이곳 밭에서 고려 명종 21년(1151)의 청동제 범종이 발견되어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범종의 명문에는 흥법사 소유의 종으로 밝히고 있어서 마을의 역사가 오래임을 말해주고 있다.



‘궁촌 마을 ; 2019년’



‘흥법사 청동범종 ; 2017년’

### 궁촌리선사유적 [유적]

**[위치]** 서들 마을회관 옆 밭 주변의 선사시대 주거지를 말한다.

**[내용]** 청동기시대의 간돌칼 1점, 간돌화살촉 6점, 반달돌칼 1점이 발굴되었다. 주민들에 의해 신고



된 이 유물들은 현재 마을회관이 들어선 자리에 있던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로 추정되며, 주변에서는 토기편도 발견되고 있다.

#### 궁촌리성황당 [당]

**[위치]** 골미 서쪽, 귀문로 도로 옆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명봉교가 있는 정원가든 옆에 있었다.

**[내용]** 문막에서 가장 큰 성황당이었다고 한다. 새 마을운동 때 없어졌다.

#### 궁촌천(宮村川) [내]

**[위치]** 귀래면 큰양아치와 천은사계곡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귀운궁촌저수지에 머물다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궁촌앞 날근터를 지나 포진리와 후용리의 경계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궁말천’, ‘모래내’, ‘봉두개울’, ‘사천(沙川)’이라고도 하며 후용리에서는 ‘개지개울’, 상류인 귀래에서는 ‘귀래내’라 부른다.

**[유래]** 궁촌리 앞을 흐르므로 마을 이름을 따라 궁촌천으로 부른다.

#### 궁터 [터]

**[위치]** 옛 경우궁이 있었다고 하는 궁말의 터를 말한다. 함밭 마을에서 동쪽 도로 건너에 있는 마을과 들 지역으로 골미 북쪽, 선비 서쪽, 샛담 남쪽의 자리이다. ‘경우궁터’, ‘궁집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궁집터(경우궁터)’라 하였다.

**[유래]** 궁말이 고종의 후궁 순빈 엄씨의 고향이므로 경우궁을 지었다고 한다. 엄씨는 고종의 후궁으로 있다가 명성황후 서거 후 고종의 셋째아들 은(垠)을 낳고 이후 귀인에서 순빈, 1901년에 계비가 되었다. 숙명여학교와 진명여학교를 세워 근대 여성교육에 공헌하였다.

#### 곶은골 [골]

**[위치]** 만디골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 귀래내 [내] → 궁촌천

#### 극락암(極樂庵) [절]

**[위치]** 다락골 위, 절골에 있는 절을 말한다. 비두초등학교 북동쪽 골짜기에 있다.

#### 꽃묘산 [산] → 골미

#### 낭골 [골]

**[위치]** 메나골 안, 고려장골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바위벼랑이 있으므로 낭골이라 하였다. ‘낭’은 ‘벼랑’의 방언이다.

#### 너래바우 [바위]

**[위치]** 큰골에 있던 넓은 바위를 말한다. 골프하우스 남서쪽에 있던 바위로 지금은 없어졌다.

#### 노비노골 [골]

**[위치]** 사두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녹골 [골]

**[위치]** 서들 남쪽, 현 충효교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작은녹골’, ‘웃녹골’이 있다.

#### 녹골들 [들]

**[위치]** 녹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녹골저수지 [못]

**[위치]** 웃녹골에 있던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녹골저수지’라 하였다.

#### 놀거리 [터]

**[위치]** 치마바우 남쪽, 불당골 입구에 있는 터를 말한다.

**[유래]** 사람들이 모여 놀던 곳이므로 놀거리라고 하였다.

#### 다락골 [골]

**[위치]** 비두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다락골 끝에 절골이 있고 절골에 극락암이 있다.

#### 다래미들 [들]

**[위치]** 화지개들 남동쪽 위, 동막골 서쪽 궁말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레미들’이라 하였다.

**담너머** [마을]

**[위치]** 골미 북쪽, 경로당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당땃들** [들]

**[위치]** 비두초등학교에서 서쪽 궁촌천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덕고개** [고개] → 뒤일고개

**도둑바우** [바위]

**[위치]** 아치내골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굴 안에 도둑이 살았으므로 도둑바우라 한다.

**도둑바우골** [골]

**[위치]** 아치내골 안, 도둑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도래기골** [골]

**[위치]** 서들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청산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끝에서 사두골이 이어진다.

**도래기천** [내] → 뒤일천(1)

**도치골** [골]

**[위치]** 함밭 마을 남서쪽 궁촌천 건너에서 남쪽으로, 40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좁고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도치골고개’와 ‘웃도치골고개’가 있다. ‘쪼치골’이라고도 한다. 이곳 마을 이름으로 전하는 ‘월진리(월진리鉞辰里, 戊辰里)’는 도치골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조선지리지』에 ‘도치골(道峙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치골’이라 하였다.

**[유래]** 돼지가 있는 골짜기이므로 ‘돌골>도티골>도치골>쪼치골’이라 하였다.

**[유래담]**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싸울 때 이 골로 병사들이 쫓고 쫓기었으므로 쪼치골이라 불

렀다고 한다.

**[풀이]** ‘도치골’은 ‘돼지’의 옛말 ‘돌, 돌’에서 파생된 것이다. ‘돌+골>돌+( )+골>도티골>도치골>쪼치골, 쪼치골’로 변천되었다. 전국적으로 도치골은 『조선지리지』에서처럼 ‘道峙谷’으로 적었다. 한편 이 지역에 나타나는 ‘월진리(鉞辰里, 戊辰里)’라는 지명은 ‘도치골’의 ‘도치’를 ‘도끼’로 보고 ‘도끼월(戊, 鉞)’자를 취하고 벼랑<별양<별+양>의 별을 하늘의 ‘별진(辰)’으로 적은 것이다. 즉 마을이 돌골과 견훤산성이 있는 석맥산의 바위벼랑이 있는 곳에 있다는 뜻이다.

**도치골고개** [고개]

**[위치]** 도치골 중간에서 서쪽 후용리 고청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벵골산 북쪽 아래에 붙어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고청동 비야목이 있다. 높이는 190m이다.

**돌선거리** [길]

**[위치]** 궁촌리 마을 입구, 메나골 입구의 귀문로를 말한다. ‘석감당’이라고도 한다.

**[유래]** 길 양 옆에 큰 돌기둥이 하나씩 서 있으므로 ‘돌이 서 있는 거리>돌선거리’라 하였다.

**[내용]** 형상으로 보아 미완성의 당간지주처럼 보인다. 현재 도로 양 옆으로 두 기가 각각 따로 서 있다.



「돌선거리 ; 2018년」

**동막골** [마을]

**[위치]** 서들 북동쪽, 궁말천 안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마을 서쪽 앞에 다래미들이 있고 마을 동쪽으로 송송골, 남동쪽으로는 큰동막골과 작은동막골이 갈라져 나간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골’이라 하였다.

#### 되안골 [골]

**[위치]** 큰만디 상류, 현 예동터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408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뒸골 [골]

**[위치]** 작은만디 입구에서 서쪽으로 32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대규모의 충현공원묘원이 들어서 있다.

#### 두꺼비바우 [바위] → 자라바우

**[위치]** 돌선거리 남쪽 언덕에 있던 두꺼비 모양의 바위를 말한다. ‘자라바우’라고도 하였다. 지금은 없어졌다.

**[내용]** 두꺼비를 닮은 이 돌을 ‘섬부(剌阜, 蟾阜)’라 하였고 그것이 ‘선비(<섬부)’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 두일 [마을] → 뒤일

#### 두일천 [내] → 뒤일천(1)

#### 뒤로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뒤리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뒤일 [마을]

**[위치]** 메나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두일’, ‘뒸일’이라고도 한다.

**[풀이]** 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므로 ‘뒸실>뒤일’이라 하였다. ‘뒸(後)+실(谷)>뒸실>뒤실>뒤일’로 변하였다. 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 뒤일고개 [고개]

**[위치]** 메나골에서 뒸골을 거쳐 북쪽 건등리 메나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천마산과 국수봉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200m이다. ‘뒸고개’, ‘뒤로고개’, ‘뒤리고개’, ‘뒸고개’, ‘덕고개’라고도 한

다. 『한국지명총람』에 ‘뒸고개’라 하였다.

#### 뒤일골 [골]

**[위치]** 메나골 잣들 마을에서 북쪽으로 뒤일고개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뒸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골짜기 위에 뒤일고개가 있고 고개 너머에는 건등리 메나골이 있다.

#### 뒤일천(1) [내]

**[위치]** 천마산 남동쪽 뒤일고개에서 남쪽으로 뒤일골과 잣들, 메나골을 거쳐 날근터 앞 하사오리들에서 궁촌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도래기천’, ‘두일천’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뒸두터니(後坪川)’라고 하였다.

#### 뒤일천(2) [내]

**[위치]** 웃녹골에서 남쪽으로 녹골을 지나 서들 앞 오미들에서 궁촌천에 합류하는 작은 내를 말한다. ‘뒸일천’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지역에서 ‘뒤일’과 ‘도래기’는 혼동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교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뒸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뒸고개 [고개] → 뒤일고개

#### 뒸골 [골] → 뒤일골

#### 뒸일 [마을] → 뒤일

#### 뒸일천 [내] → 뒤일천(2)

#### 마루들 [들]

**[위치]** 궁말천 화지개들의 동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내용]** 밭마다 깨어진 기왓장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절이나 부잣집이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는 곳이다.

#### 막상골 [골]

**[위치]** 비두초등학교에서 북동쪽 뒤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쪽으로 다락골이 이어진다. 거성

자동차공업사 등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내용]** 골짜기 안에 피부병에 좋은 약물이 있어서 마시거나 목욕을 하였다고 한다.

**만곡재저수지** [못] → 만디골저수지

**만대골** [골] → 만디골

**만대금광** [광산]

**[위치]** 만대산에 있던 금광을 말한다.

**[내용]**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직전까지 금을 채굴 하였다. 금광이 있어서 문막에는 전기가 일찍 들어왔다고 한다.

**만대산(萬垡山)** [산]

**[위치]** 서들 남서쪽, 만디골에 있는 높이 374.2m의 산을 말한다. 부른면 손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산 동쪽 아래에 만디고개가 있고 그 동쪽에 높이 443.4m의 상봉산이 있다. ‘만디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만딕(萬垡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대’, ‘만대산(萬垡山)’이라고 하였다.

**만대재** [고개] → 만디고개

**만디고개** [고개]

**[위치]** 서들에서 남서쪽으로 만디골을 지나 부른면 손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손곡리 만디골을 지나 새말에 이른다. 고개 높이는 287m이다. ‘만대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대재’라 하였다.

**만디골** [골]

**[위치]** 서들 남서쪽, 당뒤들에서 남서쪽으로 만디천을 따라 만디고개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만디’와 ‘작은만디’가 있다. ‘만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대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짜기 안에서 ‘큰만디’, ‘작은만디’로 갈라지고 큰만디 안에 ‘반두령골’, ‘붉은골’, ‘윤달골’, ‘되안골’ 등이 있다. 현재 큰만디 안에 예동터청소년수련원이 크게 두 군데에 들어서 있고 작은만디

는 전체가 충효공원묘원으로 조성되었다. 골 너머에는 손곡리 새말이 있다.

**만디골저수지** [못]

**[위치]** 큰만디, 붉은골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재 예동터청소년수련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만곡재저수지’라 하였다.

**만디산** [산] → 만대산

**만디천** [내]

**[위치]** 상봉산 서쪽 만디고개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만디골을 흘러 서들 앞에서 궁촌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말발굽바위** [바위]

**[위치]** 만디골 베틀바우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말이 달려가면서 찍은 말발굽 자국이 있어서 말발굽바우라 한다.

**망곡재(望哭-) [산]**

**[위치]** 셋담 북동쪽 뒤에 있던 작은 동산을 말한다. ‘수풍’이라고도 한다.

**[유래]** 원래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참나무가 울창하여서 수풍이라 하였는데, 고종 승하로 만세운동을 할 때 주민들이 통곡하면서 한양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해서 망곡재라 하였다.

**[내용]** 이곳 서낭당이 있던 자리에 일제강점기에 신사를 두었다. 나중에 후용리와 포진리 마루논을 개답하면서 이 산의 흙을 옮겨가서 동산은 사라지고 들이 되었다고 한다.

**[풀이]** 이곳 자연 지명은 ‘수풍’이다. ‘수풍’은 ‘숲>수푸>수풍’으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망곡재’는 고종 승하와 관련,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맷돌바우** [바위]

**[위치]** 국수봉 남서쪽, 고려장골 남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지금은 논둑에 있다.

**[유래]** 맷돌의 아래 부분을 다듬어 놓은 것 같은 큰 바위가 있으므로 맷돌바우라 한다.

**메나개울** [내] → 뒤일천

**[위치]** 메나골을 흐르는 뒤일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며니기울(綿川)’이라고 하였다.

**메나골** [골]

**[위치]** 날근터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메나골과 뒤일골을 거쳐 뒤일고개를 넘으면 건등리 쇠재골, 메나골이 있다.

**[유래]** 골짜기 안에서 옛날 면화농사를 지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메나’는 ‘면화’의 영서방언이다. 면화 농사를 짓던 골짜기였으므로 ‘면화골>며나골>메나골’이 되었다.

**메나골들** [들]

**[위치]** 메나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명봉산(鳴鳳山)** [산]

**[위치]** 궁촌리 북동쪽, 큰골 북쪽에 있는 598.7m, 또는 그 북동쪽의 614.5m의 산을 말한다. 건등리, 궁촌리, 흥업면 대안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신선봉’, ‘성싼봉’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명봉산(鳴鳳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명봉산(메나산)’이라 하였다.

**[유래]** 봉황이 깃들어 운 산이라고 하여 명봉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마을에 큰 일이 생기면 부엉이가 밤에 찾아와 울기 때문에 명봉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백운산을 모산으로 한다. 치악산 남대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서쪽으로 휘어져 백운산을 이루고, 여맥이 북쪽으로 이어져 명봉산에서 솟았다.

『1872년지방지도』에 명봉산이 표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지도서』 『강원도원주군읍지』에 ‘고을의 서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금물산면 초일리(初一里)와 며내면 4

리와 7리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명봉산(메나산)’이라 하여 명봉산과 메나산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명봉산 정상에 대해서는 고증이 엇갈린다. 『1917년지적도』에는 614.5m 봉우리라 하였고 국토지리원에서는 614.5m 봉의 남서쪽 598.7m 봉우리를 명봉산으로 표기하였다. 현재 등산객들은 598.7m 봉우리를 명봉산 ‘주봉(主峰)’, 614.5m 봉우리를 명봉산 ‘상봉(上峰)’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명봉산 상봉(上峰)** [산]

**[위치]** 명봉산의 두 봉우리 중 북동쪽에 있는 높이 614.5m의 봉우리를 말한다.

**[내용]** 두 봉우리가 서로 혼용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등산객들이 붙인 이름이다. 상봉이 더 높지만 전망이 좋지 않으므로 주봉이 정상 구실을 하고 있다.

**명봉산 주봉(主峰)** [산]

**[위치]** 명봉산의 두 봉우리 중 남서쪽에 있는 높이 598.7m의 봉우리를 말한다. ‘신선봉’, ‘성싼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두 봉우리가 서로 혼용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등산객들이 붙인 이름이다. 상봉이 더 높지만 이 주봉이 전망이 좋고 바위가 많아 수려하므로 정상 노릇을 하여 주봉(主峰)이라고 부른다. 바위에 신선들이 내려왔다고 하여 ‘신선봉’, 바위들이 마치 성을 쌓은 것 같다고 하여 ‘성싼봉’이라고도 한다.

**모래내** [내] → 궁촌천

**[유래]** 궁촌천이 궁촌리와 포진리, 후용리 사이의 모래밭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모래내라 불렀다.

**모래내들** [들]

**[위치]** 궁촌리 서쪽 궁촌천 옆의 들을 말한다. 하사오리들, 함밭 등과 겹친다. ‘모래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모리들(沙川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궁촌천을 모래내라 불렀으므로 그 주변의 들을 모래내들이라고 불렀다.

**모래들** [들] → 모래내들

**무량절터** [터]

**[위치]** 뽕론재 북서쪽 아래, 현 센추리21 골프하우스 동쪽에 있던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기암절벽과 너래반석이 있는 절경 속 절벽 위에 절이 있었으나 빈대 때문에 절은 폐사되었고, 센추리21골프장이 건설되면서 모두 없어졌다.

**바개미골** [골]

**[위치]** 큰골 북쪽 끝, 명봉산 아래의 골짜기를 말한다.

**바둑바우** [바위]

**[위치]** 명봉산 주봉 정상에 있는 넓은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둔 곳이라 한다.

**바르미** [마을] → 바리미

**바리미** [마을]

**[위치]** 서들 북쪽, 갈매울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배기들 남동쪽에 있다. ‘바르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바름이(發陰)’라고 하였다.

**바우배기** [터]

**[위치]** 궁말 입구 길가 둔덕의 고인돌이 있던 곳의 터를 말한다.

**[유래]** 고인돌 바위가 있던 곳이므로 바우배기라 한다.

**[내용]** 크고 넓적한 돌 두 개가 아래 위에 포개어져 있었는데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위에 있던 타원형 돌은 포진리 삼괴정 마을헌장비로 만들어 세웠고 아래에 있던 돌은 궁촌1리 마을 표지석으로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바우배기 두마지기** [들]

**[위치]** 바우배기 옆에 있던 작은 논을 말한다.

**반두령골** [골]

**[위치]** 큰만디 중간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로 붉은골과 작은만디골이 이어진다. 골 입구에는 예동터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 있다.

**방아다리들** [들]

**[위치]** 서들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아다리들’이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방아다리처럼 생겨서 방아다리들이라 한다.

**방아다리보** [보]

**[위치]** 서들 앞에 있는 궁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궁촌천 물을 방아다리들로 댈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아다리보’라 하였다.

**배기들** [들]

**[위치]** 탁개 남동쪽, 서들 북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배기들’이라 하였다.

**배기보** [보]

**[위치]** 서들 앞에 있는 궁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궁촌천 물을 배기들로 댈다. 『한국지명총람』에 ‘배기보’라 하였다.

**배맨바우** [바위]

**[위치]** 명봉산 주봉 정상에 바둑바우 옆에 서 있는 바위를 말한다. 작은 괘불대처럼 생긴 바위이다. ‘선돌’, ‘입석’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촛대처럼 서 있는 바위에 먼 옛날 천지개벽을 할 때 배를 붙들어 매어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배를 붙들어 맨 바우>배맨바우’라고 한다.

**뱅골산** [산]

**[위치]** 도치골 남서쪽에 있는 높이 216.8m의 산을 말한다. 산 북쪽 아래에 도치골고개가 있고 남쪽 능선에 웃도치골고개가 있다. 산 서쪽 너머에 후용리의 고창동 비야목이 있다. ‘비야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뱀이 많다는 뱀골 남쪽 끝에 있는 산이므로 ‘뱀골산>뱀골산’이 되었다.

#### 베틀굴 [굴]

**[위치]** 만다골 베틀바우에 있는 굴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베틀굴’이라 하였다.

#### 베틀바우 [바위]

**[위치]** 큰만디 예동터청소소년수련원 본관 남쪽 다리 건너 산중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바위에 동굴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피난 온 여인이 이 굴 속에서 베를 찼다고 한다.



「베틀바우 ; 2018년」

#### 병마배골 [골]

**[위치]** 만다골 안, 큰만디와 작은만디가 갈라지기 전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부채바우골 [골]

**[위치]** 송송골 안 첫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산골바우가 있다.

#### 불당골 [골]

**[위치]** 지난이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집채보다 큰 바위에 10여 명이 들어갈 만한 굴이 있는데 그 굴을 신성시하여 치성을 드리던 곳이어서 불당골이라고 한다.

#### 붉은골 [골]

**[위치]** 예동터청소소년수련원이 있는 반두령골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만디골저수지가 있고 그 위로 작은만디골이 다시 이어진다.

#### 뽕룽재 [고개] [산] → 뽕룽재

#### 뽕룽재 [고개]

**[위치]** 뽕룽재 산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현 센츄리21골프장에서 북동쪽으로 난 고갯길이다. 고개 너머에 흥업면 대안리 술미 마을의 뽕룽재골이 있고 골 아래에 대안저수지가 있다. 산 남쪽에 뽕룽재 고개가 있다. 고개 높이는 480m이다. ‘뽕룽재’, ‘태봉재’라고도 한다.

**[내용]** 옛 궁촌리 주민들이 원주장을 보러 넘어 다니던 지름길이다.

#### 뽕룽재 [산]

**[위치]** 궁촌리 동쪽, 명봉산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486m의 산을 말한다. 현 센츄리21골프장에서 동쪽에 있는 산이다. ‘뽕룽재’, ‘뽕룽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뽕룽재’라 하였다.

**[유래]** 봉우리가 매우 뽕족하므로 ‘뽕룽재>뽕룽재, 뽕룽재’라고 한다.

#### 뽕룽재 [고개] [산] → 뽕룽재

#### 사두골 [골]

**[위치]** 도래기골 동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사비노골과 작은동막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끝에는 궁말천 옆 다래미들이 있다.

#### 사천(沙川) [내] → 궁촌천

**[유래]** 궁촌천이 지나는 궁촌리와 포진리, 후용리 사이의 모래밭을 지나므로 ‘모래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옮겨 ‘사천(沙川)’이라고 하였다.

#### 산골바우 [바위]

**[위치]** 뽕룽재 서쪽 아래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골프장 건설로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산골바우’라 하였다.

**[유래]** 골절에 쓰는 산골이 났으므로 산골바우라 하였다.

#### 삼꽃나들이 [터]

**[위치]** 선비마을 동쪽 개울에 있는 터를 말한다. 삼을 매던 곳으로, 현 섬부교가 있는 곳이다.

#### 삼바우 [바위]

**[위치]** 비두초등학교 북동쪽, 다락골 아래에 있는 크고 험한 바위들을 말한다. 석이버섯이 많이 난다고 한다.

#### 상봉산(上峰山) [산]

**[위치]** 서들 남쪽, 만디고개 동쪽에 있는 443.4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궁촌리와 비두리, 부론면 손곡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 새봉목 [바위]

**[위치]** 무량절터 맞은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새작골 [골]

**[위치]** 큰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국수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센츄리21 퍼블릭 코스 가 나 있는 골짜기이다.

#### 샛담 [마을]

**[위치]** 궁말 북쪽, 선비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샛담’이라 하였다.

**[유래]** 두 마을 사이에 있으므로 ‘사이(間)+담>사이담>새담>샛담’이라 하였다.

#### 서들 [마을] → 서들

#### 서들 [마을]

**[위치]** 궁말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서들’, ‘서석(西石)’, ‘서석동(西石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서들(西石)’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석(서들)’이라 하였다.

**[유래]** 돌이 많았으므로 ‘서덜>서들’이라 하였다.

**[유래담]** ‘서쪽’에 돌이 많다고 하여 ‘서석(西石), 서들’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들에 돌이 많아 ‘석 섬’ 정도가 나므로 ‘서들’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1973년 이곳 마을에서 간돌검, 화살촉, 반달돌칼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풀이]** 냇가에 돌이 많은 곳을 ‘서덜’, ‘서덕’이라

고 하는데 이곳도 강변에 돌이 많았으므로 ‘서덜>서들, 서들’이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서석(西石)’이라 하였다. ‘서(西)’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소리를 적은 것인데 나중에 그것을 ‘서쪽’이라고 풀이하였고, ‘석(石)’은 ‘덜, 돌, 들’을 ‘돌’로 보고 뜻을 적은 것이다.



「서들 마을 ; 2019년」

#### 서석(西石) [마을] → 서들

#### 서석동(西石洞) [마을] → 서들

#### 석감당 [길] → 돌선거리

#### 석섬들 [들]

**[위치]** 서들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석섬들’이라 하였다.

**[유래]** 들 전체가 석 섬지기 정도라고 하여 석섬들이라고 한다.

#### 선돌 [바위] → 배맨바우

#### 선비 [마을]

**[위치]** 궁말 동쪽, 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섬부’, ‘섬뿌’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섬비(剡阜)’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부(剡阜)’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에 두꺼비바우가 있어서 이를 한자로 ‘섬부(蟾阜)’라 하였고, 이후 음운 변화로 ‘선비’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선비’로 부르고 있다.

**[풀이]** ‘섬(蟾)바우>섬부>섬비>선비’가 되었다.

#### 섬부(剡阜, 蟾阜) [마을] → 선비

### 섬부저수지 [못]

**[위치]** 선비 동쪽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화지개들과 마루들 사이에 있던 작은 연못으로 지금은 그곳에 집이 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부저수지’라 하였다.

### 섬부제방 [둑]

**[위치]** 선비 앞에 있는 궁말천의 둑을 말한다. 큰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는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부제방’이라 하였다.

### 섬뽕 [마을] → 선비

### 소나무배기 [숲] → 소낭배기

### 소낭배기 [숲]

**[위치]** 선비 동쪽에 있던 동산을 말한다. ‘소나무배기’라고도 한다.

**[유래]** 동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짝 들어차 있다고 해서 ‘소나무백이>소낭배기>소낭배기’라 하였다. 지금은 없어졌다.

### 식매골 [골]

**[위치]** 다락골에서 북동쪽으로, 224.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바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담]** 소가 병이 나면 이곳에 끌고 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삐를 잡고 몇 바퀴씩 돌고 왔다고 한다.

### 수풍 [숲] → 망곡재

### 술미산 [산] → 오복동

### 술미재 [고개]

**[위치]** 궁촌리에서 현 센츨리21골프장을 지나 동쪽으로, 흥업면 대안리 거무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명봉산 상봉 남쪽, 가마봉 북쪽에 있는 505m 높이의 고개이다. ‘중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술미지(述山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술미재’라 하였다.

### 송송곡(崇崇谷) [골] → 송송골

### 송송골 [골]

**[위치]** 동막골에서 북동쪽, 골프장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센츨리21CC 레이크 코스가 나 있다. ‘송송곡’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송송골(송송곡)’이라 하였다.

**[내용]** 골 입구에 한옥 마을이 들어서 있고 송송골과 남쪽 동막골 사이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다.

### 숯터거리 [터]

**[위치]** 큰골 치마바우 맞은편의 터를 말한다.

### 송지골 [골]

**[위치]** 큰만디 베틀바우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만디천에서 남쪽 상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 신선봉(神仙峰) [산] → 명봉산 주봉

**[위치]** 598.7m인 명봉산 주봉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정상에 큰 바위 위에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고 하여 신선봉이라 한다.

### 아래도치골 [골]

**[위치]** 도치골 가운데 입구 부분의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도치골’이라 하였다.

### 아치내골 [골]

**[위치]** 큰골 위에서 남동쪽으로 뻗은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센츨리21 골프하우스 남쪽, 레이크코스가 나 있는 곳이다.

### 안담 [마을]

**[위치]** 셋담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담’이라 하였다.

### 앞산 [산]

**[위치]** 서들 서쪽, 함밭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높이 233m의 산을 말한다. 충현공원묘역 북쪽에 있다.

### 양지땀 [마을]

**[위치]** 선비 마을 북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여술 [골]

**[위치]** 배기들에서 북동쪽으로 128.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화지개들이 있다.

### 염불암터(念佛庵-) [터]

**[위치]** 국수봉 남동쪽, 명봉산 남서쪽 아래에 있는 옛 염불암 절터를 말한다. 센츄리21골프장에 편입되어 필드 5번코스 남쪽, 7번코스 북쪽 사이의 산길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염불암(念佛菴)’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염불암(念佛庵)’이라고 하고, 궁촌리 산제당이 되었다고 하였다.

**[내용]**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시대부터 염불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 1974년에 그 자리에 절을 다시 지었다가 센츄리21골프장에 편입되었다. 절은 2000년에 발생한 산불에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산신제를 지내는 제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절터 앞에는 수령 약 600년의 소나무가 불에 타 넘어져 있고 느티나무 두 그루가 아직도 살아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그곳에서 정월 보름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염불암터 ; 2018년」

### 염불암샘 [샘]

**[위치]** 염불암 뒤편에 있는 샘을 말한다. 샘은 남아 있으나 물은 말랐다.

**[내용]** 한겨울에도 따뜻하며 치성을 드리러 가는 사람 수만كم의 물이 나왔다고 한다.

### 염불암연못 [못]

**[위치]** 염불암터 앞에 있는 연못을 말한다. 가뭄에

도 마르지 않고 지금도 물이 항상 차 있다.

### 오미들 [들]

**[위치]** 서들 남쪽 궁촌천을 따라 나 있는 들을 말한다. ‘노골’, ‘툰투골’, ‘막상골’ 앞으로 이어진 들이다.

### 오복동 [산]

**[위치]** 백룡재 남쪽에 있는 높이 645m의 산을 말한다. 송송골 북동쪽 끝에 있는 산이다. 대안리에 서는 이를 ‘술미산’이라고 부른다.

### 와우혈 [터]

**[위치]** 골미(꽃묘산) 안에 있는 둔덕을 말한다. 작은 산에 명당이라고 하여 묘가 많다.

**[유래담]** 땅모양이 어미 소가 드러누워 송아지에 게 젖을 주는 모습이므로 붙인 이름이라 한다.

### 용바우 [바위]

**[위치]** 큰골 안, 백룡재 북서쪽 아래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현 골프하우스 남쪽, 레이크코스 1번과 9번 필드 사이에 있다.



「용바우 ; 2018년」

### 용우물 [샘]

**[위치]** 큰골 용바우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내용]** 바위 아래에서 흐르는 물이 한겨울에도 계속 흘러내린다. 마을 사람들이 길어다 먹던 샘이라고 한다.

### 웃늑골 [골]



**[위치]** 녹골에서 뛰일천을 따라 북동쪽으로 길게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 웃도치골 [골]

**[위치]** 도치골 남쪽 위의 골짜기 상류를 말한다. 『한 국지명총람』에 ‘웃도치골’이라 하였다.

#### 웃도치골고개 [고개]

**[위치]** 도치골 상류, 웃도치골에서 서쪽 후용리 용수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땡골산 남쪽 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용수터 마을의 삼방골이 있다. 높이는 230m이다.

#### 윤달골 [골]

**[위치]** 만디골 중간, 되안골 못 미쳐서 남동쪽으로, 상봉산 줄기인 374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은골 [골]

**[위치]** 건넌들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170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충효공원묘역이 있다.

#### 입석(立石) [바위] → 배맨바우

#### 자라바우 [바위]

**[위치]** 돌선거리 남쪽 언덕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두꺼비바우’라고도 한다. 이 바위에서 ‘섬부’, ‘선비’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전설]** 원주에 널리 분포된 ‘손님 많은 부잣집’ 전설이 전하고 있다. ‘부잣집 많은 손님, 지친 며느리, 스님의 처방, 처방의 이행, 특이한 현상, 손님이 끊어진 후 집안도 망한다.’는 모티프를 가진 이 설화는 원주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①집 앞 자라바우를 깨뜨려 붉은 피가 나오고 ②손님이 끊어지고 ③부잣집도 망했다는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깨어진 자라바우는 석공들이 옮겨갔다고 전한다.

#### 작은녹골 [골]

**[위치]** 녹골 중간에서 북동쪽 187m 봉우리를 향

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작은동막골 [골]

**[위치]** 동막골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38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 작은만디(1) [골]

**[위치]** 만디골 안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유기질비료공장이 있고 골 안은 거의 다 충효공원묘역으로 조성되었다.

#### 작은만디(2) [골]

**[위치]** 큰만디 안 붉은골에서 서쪽으로, 40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작은전나무골 [골]

**[위치]** 건넌들에서 남서쪽으로 앞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은골 북서쪽에 있다.

#### 장수미끄러진바우 [바위]

**[위치]** 만디골 베틀바우 앞에 있는 넓고 경사진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힘센 장수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진 바위라고 한다. 바위 위에 사람이 미끄러진 발자국과 손자국이 남아있다.

#### 재드래기 [들] → 재드래기뜰

#### 재드래기뜰 [들]

**[위치]** 현 함발 마을 서쪽에서 궁촌천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재드래기’, ‘재떨이들’, ‘재뚜덕들’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에는 망곡재에서 바우배기를 지나 궁촌천에 이르기까지 낮은 산자락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끝부분이 두개의 동산으로 갈라져 있어 마치 재떨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므로 재떨이들로 부르다가 ‘재드래기’, ‘재드래기뜰’이 되었다고 한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후용리 앞 섬강 변에 제방을 쌓고 포진리 마루는 개답을 할 때 이 산의 흙을 써서 산은 없어지고 모두 들이 되었다. 현 샛담에서 서쪽으로, 함발을 지나 하사오리들과 재드래기뜰

에 이르는 지역이다.

**재떨이들** [들] → 재드래기틀

**재뚜덕들** [들] → 재드래기틀

**잣들** [들]

**[위치]** 국수봉 서남쪽 아래, 메나골 마을 위 잣들 마을에 있는 좁은 들을 말한다. 현 심로악기공장 위에 있는 들이다.

**[유래]** 고개에 들이 있으므로 ‘재+들>재들>잣들’이라 하였다.

**잣들** [마을]

**[위치]** 메나골 마을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잣들고개골** [골]

**[위치]** 잣들에서 북동쪽으로 국수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 [골]

**[위치]** 다락골 끝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비두초등학교 북동쪽, 극락암이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골’이라 하였다.

**중촌** [마을]

**[위치]** 절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중촌(中村)’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중이 살던 곳이므로 중촌이라 하였다.

**지난이산** [산]

**[위치]** 선비 남쪽 큰골 입구, 화지개들 남쪽에 있는 낮고 긴 산줄기를 말한다.

**[유래담]** 기러기 모양의 산이 목을 길게 늘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진안이산>지난이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지처골** [골]

**[위치]** 막상골 끝, 다락골 입구에서 남동쪽의 높이 245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쇠매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치차골’이라고도 한다.

**진안이산** [산] → 지난이산

**질가마골** [골]

**[위치]** 큰만디 상류, 현 예동터청소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남동쪽으로 상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쪼치골** [골] → 도치골

**첫골** [골]

**[위치]** 송송골에서 북동쪽, 센츄리21골프장 레이크 코스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처음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이므로 첫골이라고 부른다.

**청산골** [골]

**[위치]** 도래기골 중간에서 북동쪽 182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춘나무새골** [골]

**[위치]** 큰골 안 너래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춤바골** [골]

**[위치]** 큰만디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화랑제비골 아래에 있다.

**치마바우** [바위]

**[위치]** 선비 마을 동쪽 위, 센츄리21골프장 정문 서쪽 아래, 현 수압장 자리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치마바우’라 하였다.

**[유래]** 넓고 큰 바위가 비스듬하게 누워 치마같이 생겨서 치마바우라고 하였다.

**[내용]** 미끄럼을 타던 큰 바위였으나 지금은 도로에 묻혔다.

**치차골** [골] → 지처골

**코찔려죽은바우** [바위]

**[위치]** 아치내골 새봉목 맞은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나뭇꾼이 나무를 하다가 엎어졌는데 바위 위 나무 등지에 코를 찌혀 죽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코찔려죽은바우골** [골]

**[위치]** 아치내골, 코찔려죽은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프장에 편입되었다.

#### 큰골 [골]

**[위치]** 궁말에서 현 궁말길을 따라 선비 북동쪽 명봉산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센츄리 21골프장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난 골짜기로, 골프 하우스 동쪽 아래 밸리 코스와 필드 코스가 나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 하였다.

#### 큰골천 [내] → 궁말천

#### 큰동막골 [골]

**[위치]** 동막골에서 남동쪽으로, 38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송송골과 작은동막골 사이에 있다.

#### 큰만디 [골]

**[위치]** 만디골 안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예동터청소년수련원이 크게 들어서 있다. 골 남쪽에 만대산, 상봉산, 만디고개 등이 있다.

#### 탁개 [마을]

**[위치]** 함발 남쪽, 골미 서쪽의 마을을 말한다.

#### 탑선거리 [길]

**[위치]** 선비에서 남쪽으로, 비두초등학교로 다니던 길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탑이 서 있었으므로 탑선거리라 하였다.

#### 태봉재 [고개] → 뽕롱재

**[위치]** 뽕롱재의 다른 이름이다. 서들에서 북동쪽으로, 흥업면 대안리 술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내용]** 서들에서 도래기골>사두골>송송골>뽕론재에 이르는 긴 고갯길이다.

#### 툰투골 [골]

**[위치]** 오미들에서 동쪽 17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녹골 남쪽, 막상골 북쪽 사이에

있다.

#### 하사오리들 [들]

**[위치]** 궁촌천 하류에 발달한 넓은 들로, 포진리 날근터 앞에서 남쪽으로 메나골 앞, 선비 앞, 함발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넓은 들을 말한다. ‘하사울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하사오리들’이라 하였다.

#### 하사오리보 [보]

**[위치]** 하사오리들에 있는 궁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궁촌천 물을 하사오리들로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하사오리보’라 하였다.

#### 하사울들 [들] → 하사오리들

#### 한밭 [마을] → 함밭

#### 한밭들 [들] → 함밭들

#### 함밭 [마을]

**[위치]** 궁말 서쪽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함전(咸田)’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함밭(咸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밭(함전)’이라 하였다.

**[유래]** 커다란 밭 하나가 한 집안 것이라 하여 ‘한밭>함밭’이라 부른다.

#### 함밭들 [들]

**[위치]** 함밭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함전’이라고도 한다.

#### 함전(咸田) [마을] → 함밭

#### 화랑제비골 [골]

**[위치]** 큰만디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윤달골 맞은편에 있다.

#### 화지개들 [들]

**[위치]** 선비 남쪽, 궁말천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골미 동쪽 위에 있는 들이다.

**[유래담]** 들의 모양이 개를 닮아서 화지개들이라 부른다고 한다.

## 대둔리(垞屯里)

### [위치]

대둔리는 문막읍행정복지센터에서 남서쪽에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마을이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하여 노림리, 서쪽으로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북쪽으로는 문막읍 반계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 [연혁]

대둔리(垞屯里)는 원래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지역이었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여주군(驪州郡)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론면의 7리(노림리)를 병합하여 대둔리(垞屯里)라 하였다.

이후 대둔리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康川面) 소속이었다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1995년 3월 1일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文幕邑)에 편입, 문막읍 대둔리가 되었다.

### [유래]

마을 앞의 터가 넓으므로 텃둔지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대둔지(垞屯地)라 하였는데, 이후 마을 이름을 대둔리(垞屯里)라 하였다. 또는 옛날에 군사가 주둔하였으므로 터둔지·텃둔지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적어서 대둔지(垞屯地, 垞屯之)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 골무내기앞들 [들]

[위치] 텃둔지 북동쪽 원문로 남쪽에 붙어있는 도로 앞의 들을 말한다. 반계리와 겹쳐있는 들이다.

### 기호동(基湖洞) [마을]

[위치] 대둔리의 옛 이름이라고 전한다.

[유래] 처음 기호동으로 불리다가 텃둔지로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대둔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 노림진(魯林津) [나루] → 노습나들이

### 노소나들이 [나루] → 노습나들이

### 노습나들이 [나루]

[위치] 텃둔지 남쪽, 번개들에서 남쪽으로 섬강을 건너 노림으로 가는 나루터를 말한다. '노소나들이', '노림진(魯林津)'이라고도 한다.

[유래] 섬강 건너 남쪽 부론면 노습으로 가는 길목이므로 '노습나들이'라고 한다.

[내용] 이곳 사람들은 노림리 노습을 '노습', '노소'라고 하였다.

### 노화동 [마을]

[위치] 대둔리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징용을 피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 전한다.

### 대둔지(垓屯地, 垓屯之) [마을] → 대둔리, 텃둔지

### 도독골 [골]

[위치] 사자골 중간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샷갯봉 북동쪽, 사자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북서쪽 고개 너머에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의 사자골이 있다.

[내용]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관할이던 대둔리가 원주시 문막읍의 관할로 바뀜에 따라 이 골짜기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었다.

### 도토리덩굴골 [골]

[위치] 사자골에서 42번 여원로 건너 남쪽으로, 높이 2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둔뱅이 [골]

[위치] 42번 국도 여원로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마루들 [들]

[위치] 텃둔지 동쪽의 넓은 들을 말한다. 골무내기 앞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반계리와 겹친다.

### 바사리 [터]

[위치] 마을 앞 남서쪽 들의 끝, 바사리고개 동쪽 아래 섬강 변의 터를 말한다.

[유래담] 섬강 제방이 끝나는 바사리고개 아래에 소를 매어 놓았더니 깊은 소(沼)에 사는 이무기가 소를 잡아먹고 소 밧줄만 남아있어 바(소밧줄)만 사려서 왔다고 해서 바사리라 하였다고 한다.

### 바사리고개 [고개]

[위치] 텃둔지 남서쪽 들판의 끝 바사리에서 여주시 강천면 가마섬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가마섬 산수골이 있고 산수골 입구에 한 백경 신도비가 있다. 고개 높이는 130m이다.

### 반계초등학교 대둔분교 [학교]

[위치] 대둔리 텃둔지에 있던 학교를 말한다.

[내용] 1933년에 대둔학술강습소로 개소, 1946년 강천국민학교 대둔분교장으로 개교, 1965년 대둔국민학교로 승격,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계초등학교 대둔분교장, 1999년에 반계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반계초등학교 대둔분교 ; 2019년」

### 번개들 [들]

[위치] 텃둔지 남쪽 끝, 바사리 동쪽에 있는 섬강



변의 넓은 들을 말한다.

**사자곡(沙瓷谷)** [골] → 사자골

**사자골** [골]

**[위치]** 대둔리에서 북서쪽으로 개울을 따라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자골 위 북서쪽에는 우렁박골을 지나 승지봉이 있고 북동쪽에는 사자고개를 넘어 반계리 사자골이 있다. 사자골 중간 위는 반계리이다. 한자로 ‘사자곡(沙瓷谷)’이라 하였다.

**[유래]** 옹기점과 옹기 굽는 가마가 있어서 사자골, 사자곡(沙瓷谷)이라 하였다.

**사자골개울** [내]

**[위치]** 승지봉과 사자고개에서 발원하여 반계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 흘러, 마을 앞 번개들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샘골** [골]

**[위치]** 사자골로 들어가는 입구의 골짜기를 말한다. 42번 여원으로 북동쪽에 있다.

**서낭나무** [당]

**[위치]** 사자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당목을 말한다.

**[내용]**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 나무에 서낭제를 지냈다고 한다. 1976년 장마에 소실되었다.

**서낭당이** [마을]

**[위치]** 사자골 입구의 서낭나무가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원래 당집은 없이 서낭만 있었다고 한다.

**섬강제방** [둑]

**[위치]** 반계리 벌무내기 앞에서 시작하여 대둔리 앞까지 섬강을 막은 둑을 말한다.

**소골** [골]

**[위치]** 텃둔지 북동쪽, 대둔IC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미래팜스가 들어서 있다.

**아랫줄** [골] → 아랫줄골

**아랫줄골** [골]

**[위치]** 윗줄골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윗줄골과 바사리고개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조곡(漁鳥谷)** [골] → 어줄

**어줄** [골]

**[위치]** ‘웃어줄(윗줄골)’과 ‘아랫줄(아랫줄골)’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유래담]** 골짜기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며 새들이 지저귀는다고 해서 ‘어조곡(漁鳥谷)’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어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우도골** [골] → 윗줄골

**우묵골** [골] → 우물골

**우묵골물** [샘] → 우물골샘

**우물골** [골]

**[위치]** 옛 대둔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우묵골’이라고도 한다.

**우물골샘** [샘]

**[위치]** 텃둔지 마을 서쪽 우물골에 있는 샘을 말한다. ‘우묵골샘’이라고도 한다.

**[내용]** 텃둔지 위쪽 사람들이 마시던 물이다.

**웃어줄** [골] → 윗줄골

**윗줄골** [골]

**[위치]** 절터골과 아랫줄골 사이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어줄’, ‘우도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아랫줄골 위에 있어서 윗줄골이라 한다.

**장꾼앞** [소] → 창포늪

**절터골** [골]

**[위치]** 텃둔지 마을에서 남쪽 첫째 골짜기를 말한다. 번개들에서 북서쪽으로 높이 224.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산 너머에는 도토리덩굴골이 있다.

**[유래]** 예전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하였다. 절은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전한다.

### 주막거리 [마을]

**[위치]** 원문로 옆. 마을 입구에 옛 주막이 있던 곳을 말한다.

### 창포늪 [소]

**[위치]** 마을 앞 섬강에 있는 소와 늪을 말한다. ‘장푼앞’이라고도 한다.

**[유래]** 창포가 무성하게 자라는 작은 늪이 많았으므로 ‘창포늪’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이 지금은 ‘장푼앞’으로 변천되었다고 한다.

### 처장골 [골] → 초장골

### 초당골 [골] → 초장골

### 초장골 [골]

**[위치]** 텃둔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처장골’, ‘초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이곳 풍광이 좋으므로 옛날 선비들이 초당을 지어 글을 읽고 시를 읊은 곳이라 하여 초당골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처장골, 초장골로 부른다고 한다.

### 초장골물 [샘]

**[위치]** 초장골에 있는 샘을 말한다. 텃둔지 아래쪽 사람들이 마시던 물이다.

### 큰삿골 [골]

**[위치]** 사자골에서 남서쪽으로 260.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으뜸식품이 들어서 있다.

### 터둔지 [마을] → 텃둔지

### 텃둔지 [마을]

**[위치]** 42번 여원로 남쪽, 대둔리에 있는 가장 큰 마을을 말한다. ‘터둔지’, ‘대둔리’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대둔리(垈屯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둔리(대둔지, 터둔지)’라 하였다.

**[유래]** 마을과 마을 앞들의 터가 넓으므로 텃둔지라 하였다.



「대둔리 마을 표지석 ; 2019년」

### 흥창나들이 [나루]

**[위치]** 바사리고개 남쪽 끝, 가마섬 앞에서 남동쪽으로 섬강을 건너 흥호리로 가는 나루를 말한다.

**[유래]** 부르면 흥창으로 가는 길목이므로 흥창나들이라고 한다.

**[내용]** 텃둔지에서 흥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사리에서 바사리고개를 넘고, 가마섬에서 흥창나들이를 경유하여야 했다.

## 동화리(桐華里)

### [위치]

동화리는 문막읍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흥업면, 서쪽으로는 건등리와 지정면 안창리, 남쪽으로는 건등리, 북쪽으로는 지정면 간현리와 접해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사제면(沙堤面)의 분5리·분6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5리·분6리 일부를 병합하여 동화리(桐華里)로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동화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동화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동화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동화산(桐華山) 밑에 마을이 있으므로 동화리라 하였다.

### 개저리들 [들]

**[위치]** 동화골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저리들’이라 하였다.

### 개저리보 [보]

**[위치]** 동화골 마을 앞에 있는 동화천의 보(湫)를 말한다. 개저리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저리보’라 하였다.

### 곤매니들 [들] → 큰애니들

**[위치]** 큰애니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곤매니들’이라 하였다.

### 괴목나무 [나무]

**[위치]** 작은애니 앞에 있던 느티나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괴목나무’라 하였다.

### 굴치 [들]

**[위치]** 호적골 마을 앞에 있는 메마른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굴치’라 하였다.

### 궁골 [골]

**[위치]** 차돌배기 앞 바깥마루들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농공단지교차로에서 동쪽으로 동화공단로가 나 있다.

### 긴나무들 [들] → 장미들

### 남산들 [들]

**[위치]** 건등산 북쪽 아래 섬강 옆에 발달한 넓은 들을 말한다. 매사리 서쪽, 애니와 탑전 사이에 있는 들이다. 남산들과 섬강 사이에는 소개들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남산들(南山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들’이라 하였다.

### 남산보 [보]

**[위치]** 남산들에 딸린 동화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보’라 하였다.

### 노노뫼 [산] → 노루메

### 노노산 [산] → 노루메

### 노루메 [마을]

**[위치]** 차돌배기 동쪽, 노루메 산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주동화농공단지 농공단지교차로 북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장산(獐山)’, ‘장산동(獐山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놀우뫼(獐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노루매(장산동)’라 하였다.

**[유래담]** 지형이 어미 노루가 새끼 노루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서 노루메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아랫노루메, 웃노루메가 있다. 아랫노루메, 웃노루메, 차돌배기를 합하여 노루메라고 부른다.

### 노루메 [산]

**[위치]** 원주동화농공단지 북쪽, 마라우 남쪽에 있는 높이 139.9m의 산을 말한다. 현재 왕건로가 지나가고 있다. ‘노노산’, ‘노노뫼’라고도 한다.

### 노루메들 [들]

**[위치]** 노루메와 차돌배기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노루매들’이라 하였다.

### 노적골 [골]

**[위치]** 호병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노적골’, ‘작은노적골’이 있다. ‘노족골’, ‘노쪽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노족골’이라고 하였다.

### 노족골 [골] → 노적골

### 노쪽골 [골] → 노적골

### 노푸리고개 [고개]

**[위치]** 동화역에서 남쪽으로, 노푸리산을 넘어 돌고개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약 140m이다.

**[유래]** 노푸리산을 넘는 높은 고개이므로 노푸리고개라고 한다.

### 노푸리산 [산]

**[위치]** 만장포 남동쪽, 동화역 남쪽에 있는 181.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내용]** 산의 남동쪽에는 영동고속도로, 북쪽에는 강

릉행 KTX철로, 산 정상 아래로는 새 중앙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산 능선 남쪽에 노푸리고개가 나 있고 남쪽에는 돌고개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문막휴게소가 있다.

**대안(大岸)** [마을] → 애니

**대안이(大岸-)** [마을] → 애니

**댓골** [골]

**[위치]** 백년바우를 중심으로 한 아래 위의 골짜기를 말한다. 큰댓골과 작은댓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댓골’이라 하였다.

**덕난(德蘭)** [마을]

**[위치]** 큰애니 남쪽, 작은애니 동쪽, 수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문로 동화교 북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덕난동’, ‘덕안이(德岸-)’, ‘덕난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안니(德屹里)’, ‘덕난니(德蘭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난동(덕난)’이라 하였다.

**[유래]** ‘덕(德)과 안(岸, 屹)은 모두 언덕을 의미한다. 즉 언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덕안’이라 하였다. 또는 예전에 이 지역에서 난초가 많이 나서 ‘덕난(德蘭)’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덕안(德岸)의 ‘덕(德)’은 ‘둔덕, 언덕’을 뜻하는 말로 ‘덕고개’, ‘덕가산’ 등으로 많이 쓰였다. ‘안’은 ①‘안’을 ‘안(岸)’ 또는 ‘흘(屹)’로 적었으므로 ‘산’ 또는 ‘언덕’을 의미한다. 따라서 ‘덕(德)’과 ‘안(岸)’은 둔덕, 언덕이라는 뜻이 중첩된 것으로서, 언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②안쪽(內)의 뜻으로 볼 수 있어서 ‘언덕의 안쪽’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후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따라 이를 미화하여 ‘덕난(德蘭)’이라고 하였다. ‘덕안’과 ‘덕난’이 혼용되다가 지금은 ‘덕난’으로 정착되었다.

**덕난동(德蘭洞)** [마을] → 덕난

**덕난이** [마을] → 덕난

**덕난이내** [내]

**[위치]** 동화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덕난니시니(德蘭溪)’라고 하였다.

**[유래]** 동화천이 덕난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덕난이내’라고 불렀다.

**덕난이들** [들]

**[위치]** 덕난이 북서쪽, 동화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덕난이들’이라 하였다.

**덕난이보** [보]

**[위치]** 덕난이 앞에 있는 동화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덕난이보’라 하였다.

**덕안(德岸)** [마을] → 덕난

**덕안이(德岸-)** [마을] → 덕난

**도야니현(都也尼峴)** [고개] → 돼니고개

**돌고개** [고개]

**[위치]** 동막산 남서쪽 능선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강릉 방향)에서 서쪽 마암산 옆 말림골로 넘어가는 좁은 고갯길을 말한다. 현 보통로 옆 세종통신 동쪽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12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고개’라 하였다.

**[유래담]** 좁은 고갯길에 큰 나무가 있고 서낭당이 있었는데 길손들이 돌을 던져 쌓았으므로 돌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돌고개다리** [다리]

**[위치]** 돌고개 서쪽, 보통로 도로 밑 개울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고개다리’라 하였다.

**돌고개성황당** [당]

**[위치]** 돌고개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고개서낭’이라고 하였다.

**동막골** [골]

**[위치]** 동화골 마을에서 동쪽으로, 박달봉을 향하



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골’이라 하였다.

#### 동막산 [산]

**[위치]** 만남포 동쪽 마을 뒤, 동화역 서쪽에 있는 높이 104m의 작은 산을 말한다.

**[내용]** 동막산 아래에 행원(杏園) 최동립(崔東立, 1557~1611)의 행원재실(杏園齋室)이 있다.

#### 동정골 [골] → 동진골

#### 동진골 [골]

**[위치]** 마라우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노루메 산 북쪽의 105.6m 봉우리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제말 서쪽 뒤에 있다. ‘동정골’이라고도 한다.

#### 동진골고개 [고개]

**[위치]** 마라우에서 남동쪽으로, 동진골을 지나 사제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95m이다.

#### 동진동(東辰洞) [마을]

**[위치]** 마라우 남쪽 노루메 산 북쪽 아래 동진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동진동(東辰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진동(東辰洞)’이라고 하였다.

#### 동화골 [골]

**[위치]** 참새미들에서 동화천을 따라 남동쪽으로, 명봉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 안에 호적골과 동화골 마을, 벽계수 이종숙의 묘와 산적골, 동화사가 있다. 옛 동화사터가 남아있다.

#### 동화골 [마을]

**[위치]** 동화골 안, 호적골 동쪽, 박달봉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동화동(桐華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화리(동화골)’라 하였다.

#### 동화골들 [들]

**[위치]** 동화골 마을 뒤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화골들’이라 하였다.

#### 동화골숲 [숲]

**[위치]** 동화골 마을 앞에 있는 숲을 말한다. 조선 버들, 참나무, 옻나무 등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동화골숲’이라 하였다.

#### 동화동(桐華洞) [마을] → 동화골, 동화리

#### 동화리선사유적 [유적]

**[위치]** 매사리 서쪽, 섬강 변 남산들의 문막제2취수장 주변 유적을 말한다.

**[내용]**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붉은간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 동화사터(桐華寺-) [터]

**[위치]** 동화골 안, 절골에 있는 옛 동화사 터를 말한다. 현 동화사 서쪽 골짜기에 있던 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동화사(桐華寺)’라 하고 도야니현(都也尼峴)에 있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에 ‘동화암(桐華菴)’이라 하였다. 『여지도서』에 ‘동화사(桐華寺)’라 하고 도야니지(都也尼峙)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절터(동화사터)’라 하였다.

**[내용]** 창건과 폐사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규모가 큰 석축과 상당수의 기와편이 남아있다.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이 여기에서 지내며 지었다는 시가 『매월당집』에 실려 있고, 신광환의 『기재집』, 김부륵의 『설월당집』, 한준겸의 『유천유고』 등에 동화사와 관련된 시가 전한다.

**[전설(1)]** 명봉산 험준한 골짜기에 절을 지으려면 봉황(鳳凰)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는다는 옛말에 따라 절 이름을 동화사라 하고 절 앞에는 오동나무를 심었다. 오동나무가 수백 년이 지나 절을 뒤덮어버리는 지경에 이르자 주지승이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제일 큰 오동나무를 베어 넘기려는 찰나 봉황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날개소리가 메아리치면서 핏물이 흘렀고 이에 놀란 스님들이 공포에 떨면서 절을 떠났다. 주지승 홀로 절을 지켰으나 빈대가 기승을 부려 주지승마저 절을 떠났다.

사람들은 오동나무를 베어 명봉산(鳴鳳山) 정기가 빠져 나가는 바람에 절이 망했다고 말한다.

**[전설(2)]** 조선 중엽에 한 승려가 오동나무 한 그루를 주면서 이 나무를 잘 기르면 자손과 마을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동화산 부처골로 가서 절을 지었다. 그 절에는 큰스님과 동자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자는 무척 총명하여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익혔다. 동자가 18세가 되어 작은 스님이 되자 기운이 쇠약해진 큰스님은 작은 스님에게 장차 이 절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는 작은 스님에게 자신이 불공을 드리는 동안 마을에 가서 시주를 하여 가지고 오라 하였는데 동화사 입구에서 절까지 오는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작은 스님이 시주를 끝내고 동화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굉음이 울리며 광풍이 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천년 묵은 빈대가 소리를 지르며 빨리 가서 부처를 가지고 오면 큰스님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큰스님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 작은 스님은 무작정 절을 향해 뛰었는데 그때 큰스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작은 스님이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큰스님은 살아있고 빈대가 죽으면서 큰스님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었다. 작은 스님이 돌아보며 큰스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빈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로 큰스님을 후려쳤다. 큰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때서야 잘못을 안 작은 스님은 절을 향해 도망치다가 백년바우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원래 절터는 빈대의 소굴이었는데 큰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절을 지었고 천년 묵은 빈대는 큰스님의 기운이 쇠약해질 때를 기다려 싸움을 건 것이었다. 이를 보이지 않으려고 작은 스님을 시주 보낸 것이었다. 절은 폐허가 되었고 백년바우에는 노송이 흔히 되어 서 있으며 오동나무도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두어 그루가 남아있는데 그 후부터

이 산을 동화산이라 하고 마을은 동화골이라 하었다고 한다.



「동화사터 ; 2018년」



「동화사 ; 2019년」

### 동화산(桐華山) [산]

**[위치]** 동화골 현 동화사 동쪽에 있는 389.6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돼니고개 남쪽, 명봉산 북쪽 능선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동화산(棟華洞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화산(桐華山)’이라 하였다.

**[유래]** 옛 동화사가 있었으므로 동화산이라고 하였다.

### 동화역(桐華驛) [역]

**[위치]** 만장포 옆에 있는 옛 중앙선의 기차정거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화역’이라 하였다.

**[내용]** 1940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1950년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된 것을 1956년에 신축하였다. 2011년에 폐역인 간현역의 여객취급 기능을 인수하였다. 현재 강릉선의 선로가 동화역과 승강장을 지나가지만 강릉선의 영업거리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화역 ; 1940년」



「동화역 ; 2016년」

#### 동화천(桐華川) [내]

**[위치]** 명봉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동화사, 동화골을 지나고 수반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건등산 북쪽에서 섬강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 돼니고개 [고개] → 흥업면 대안리 돼니고개

**[위치]** 동화골에서 동쪽으로, 흥업면 대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박달봉 남쪽, 동화산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에 ‘되야니지(升安里峴)’, ‘되안니고개(升安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되니고개(도야니현)’라고 하였다.

#### 돼니골 [골]

**[위치]** 동화골에서 남동쪽으로 돼니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임도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되넛골’이라 하였다.

#### 돼니서낭당 [당]

**[위치]** 돼니고개 정상에 있던 서낭당을 말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되니서낭’이라

하였다.

#### 되니고개 [고개] → 돼니고개

#### 되니골 [골] → 돼니골

#### 마당바우 [바위]

**[위치]** 마람산 아래 무당소 옆에 있는 넓은 바위를 말한다. 무당이 굿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 마동(馬洞) [마을] → 마라우

#### 마동들 [들] → 마라우들

#### 마라우 [마을]

**[위치]** 지정초등학교 남서쪽, 서원주역에서 서곡천 건너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사제말 북서쪽, 서곡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말바우 모퉁이에 있다고 하였다. ‘마동(馬洞)’, ‘마현동(馬峴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마아우(馬峴)’, 『1917년지적도』에 ‘마현동(馬峴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동(馬洞)’, ‘마라우(마현동)’라 하였다.

**[유래]** 마을 남동쪽에 마람산이 있어 그 모퉁이에 해당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마람산과 관련된 지명이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내용]**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던 주된 길로서, ‘강원감영>만종>질마재>마라우>안창진>솔치’로 가던 길목이다. 말을 갈아타던 곳이었다고 한다.

**[풀이]** 마암산(馬岩山)에 ‘말바우’가 있으므로 ‘말바우>말바우>말와우>말아우>마라우’가 되었다.

#### 마라우 [바위]

**[위치]** 마람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마암(馬岩)’이라고도 한다. 이 바위에서 마라우(마현동) 마을, 마람산, 말안산, 마람소, 만낭개 등의 이름이 파생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라우(마암馬岩)’라고 하였다.

**[유래]** 큰 바위를 뜻하는 ‘말바우’가 있으므로 ‘말바우>마라우’라 하였다. 바위가 말처럼 생겼으므로 붙여진 지명이라는 유래담이 전한다.

**[풀이]** 큰 암벽으로 된 산이므로 ‘말(大)+바우>말바우>말바우>말와우>말아우>마라우’가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마암산(馬岩山)>마람산>말안산’이 되었으며 ‘마람골>말람골>말림골’로 음운 변천하였다. 이때 ‘말’은 ‘말벌’, ‘말고개’, ‘말무덤’처럼 ‘크다’는 의미이다.

#### 마라우고개 [고개]

**[위치]** 마라우에서 남쪽으로, 노루메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여지도서』 『대동지지』에 ‘마현(馬峴)’이라 하였다.

**[유래]** 마라우에 있으므로 마라우고개라 하였다.

**[내용]** 질마재를 거쳐 마라우>등안고개>안창, 또는 흥원창으로 가던 옛 길이다.

#### 마라우들 [들]

**[위치]** 마라우 마을 북서쪽 아래 섬강과 서곡천의 합류지점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동들’이라 하였다.

#### 마라우소 [소] → 마람소

#### 마람골 [골]

**[위치]** 만장포에서 세고개까지 이어지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보통로가 지나가는 골짜기로 고개 위에 세고개가 있다. ‘큰골’, ‘말림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마람산과 아래마람산 능선의 동쪽 계곡이므로 ‘마람골’이라 하였고, 골짜기가 크므로 ‘큰골’이라고도 하였다.

#### 마람산 [산]

**[위치]** 사제말 남동쪽, 오야골 남쪽 서곡천 건너에 있는 높이 144m의 산을 말한다. 세고개 북쪽, 동화일반산업단지의 북쪽 아래에 있다. ‘마암(馬岩)’, ‘말바우’, ‘말림산’, ‘말안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람산’이라 하였다.

**[내용]** 동쪽 사면은 서곡천으로 급경사 벼랑을 이루고 있고 그 건너에 ‘오야골’이 있다. 옛날에 노(盧) 정승(政丞)이 이 말바우에 별당을 짓고 공부

를 하였다고 전한다.

**[풀이]** 큰 암벽으로 된 산이므로 ‘말바우>말바우>말아우>마라우’가 되고 ‘마암산(馬岩山)>말암산>말안산’이 되었으며 ‘말암골>말람골>말림골’이 되었다. 이때 ‘말’은 ‘크다’는 의미이다. 이 산 이름이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쳐 ‘마라우’, ‘마람소’, ‘말림골’, ‘만장개’ 등의 이름을 낳았다.



‘마람산 ; 2018년’

#### 마람소 [소]

**[위치]** 마람산 절벽 아래에 있는 서곡천의 소(沼)를 말한다. 현재 보(洑)가 설치되어 있다. ‘마라우소’, ‘무당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라우소(마암소)’라 하였다.

**[내용]** 옛날 이곳에 무당이 오야당이라는 당집을 짓고 마당바우에서 굿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마람소 ; 2018년’

마암(馬岩) [바위] → 마라우

마암산(馬岩山) [산] → 마람산

마암소(馬岩沼) [소] → 마람소

마현(馬峴) [고개] → 마라우고개

마현동(馬峴洞) [마을] → 마라우

만낭개 [마을] → 만낭포

만낭개개울 [내]

**[위치]** 만낭포에서 부르는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만낭기지울(晩浪溪)’이라고 하였다.

**[유래]** 만낭포(만낭개)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만낭개개울이라 하였다.

만낭개들 [들]

**[위치]** 만낭포 앞, 서곡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낭개들’이라 하였다.

만낭개보 [보]

**[위치]** 만낭포 앞에 있는 서곡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만낭기보(晩浪浦湫)’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낭개보’라 하였다.

만낭개산 [산]

**[위치]** 만낭포 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낭개산’이라 하였다.

만낭고개 [고개] → 헛고개

만낭포(晩浪浦) [마을]

**[위치]** 노푸리산의 북쪽과 북서쪽으로, 서곡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화역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만낭개’, ‘만랑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만낭기(晩浪浦)’라 하였고 『1917년지적도』에 ‘晩浪浦’로 기록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랑포(만낭개)’라 하였다.

**[유래]** 옆에 마람산이 있으므로 ‘마람개>마랑개>만낭개’가 되었다. 원래 만낭개라 하였으나 현재에는 만낭포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풀이]** ‘만낭개’는 마람산(<마암산) 옆에 있는 포구이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말암(馬岩)+개(浦)>말암개>마람개>마랑개>만낭개’로 변천한 것이다. 강 옆 포구였으므로 ‘~개’라고 하였다. ‘만낭개’를 ‘만랑

포(晩浪浦)’라고 한 것은 ‘만’과 ‘낭’은 소리를 따라 ‘晩’, ‘浪’을 취하고 ‘개’는 뜻을 따라 ‘포(浦)’라고 한 결과이다.



「만낭포 마을 ; 2019년」

만랑포(晩浪浦) [마을] → 만낭포

말림골 [골] → 마람골

말림산 [산] → 마람산

말안산 [산] → 마람산

매사(梅沙) [마을] → 매사리

매사골 [마을] → 매사리

매사리(梅沙里) [마을]

**[위치]** 탑전 북쪽 아래, 차돌배기 서쪽, 동화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프리미어아레나승마클럽이 있는 곳이다. ‘매사’, ‘매사골’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미살리(梅沙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매사리(매사)’라 하였다.

**[내용]** 3·1운동 당시 마을 주민 김준기 등 수십 명이 봉화시위를 하였던 곳이다.

**[풀이]** 동화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곳에 있는 마을이므로 ‘매사(梅沙)’의 ‘매’는 물의 옛말로 추정된다. ‘수원(水原)’은 옛 ‘매홀(買忽)’이었으며, ‘물구리’를 ‘매호(梅湖, 호저면)’라고 한 것은 ‘매’가 곧 물이었다는 뜻이므로 이곳 ‘매사’의 ‘매’도 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사리보 [보]

**[위치]** 매사리 마을 앞에 있는 동화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매사리보’라 하였다.

**메나산** [산] → 건등리 메나산

**[위치]** 동화사 남서쪽에 있는 높이 444m의 산을 말한다. 명봉산의 북쪽 능선에 있다. 건등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무당소** [소] → 마람소

**바랑산** [산]

**[위치]** 박달봉 남쪽, 동화산 북쪽 사이에 있는 높이 324m의 산을 말한다. 돼니고개 고갯마루 바로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동화리와 흥업면 대안리, 사제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산에 벼랑이 있으므로 바랑산이라 하였다.

**[풀이]** ‘바랑’이 들어간 산 이름과 골짜기 이름은 많다. 그리고 그 유래는 대개 스님들이 매고 다니는 자루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즉 산에 벼랑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바깥마루들** [들]

**[위치]** 탑전 북쪽, 차돌배기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농공단지교차로 서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마을 밖의 들이 마치 뒷마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달봉** [산]

**[위치]** 동화골 마을 동쪽에 있는 높이 329.9m의 산을 말한다. 세고개 남동쪽, 현 원주양궁장 남쪽에 있는 산이다.

**[유래]** 박달나무가 많이 자라므로 박달봉이라 한다.

**[내용]** 산 동쪽 너머에 흥업면 사제리 수루니골의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가 있다.

**[풀이]** 박달봉은 ‘박+달+봉>박달봉’이 되었다. ‘박’은 옛말 ‘뽕’에서 파생된 것으로 ‘높다’, ‘밝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달’과 ‘봉’은 ‘산’의 뜻으로서 같은 의미가 중첩되어 쓰인 것이다. 따라서 박달봉은 ‘높고 밝은 산’이라는 뜻이다.

**방아골** [골]

**[위치]** 옛 동화사터 아래 백년바우에서 남서쪽으로, 456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아골’이라 하였다.

**백년바우** [바위]

**[위치]** 옛 동화사터 아래 호병골 입구에 있는 바위절벽을 말한다.

**[유래]** 돌팔매를 하여 그 바위에 돌을 얹으면 백년을 산다고 하여 백년바우라 한다.

**보통이다리** [다리]

**[위치]** 동화역 남동쪽, 지정면 보통리 석바통이로 연결되는 서곡천의 옛 다리를 말한다. 현재 있는 두 개의 다리 중 구도로에 있는 남쪽의 좁은 다리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보통이다리’라 하였다.

**부도골** [골]

**[위치]** 동화골 옛 동화사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백년바우 아래의 작은 골짜기이다.

**[유래]** 부도탑이 있던 곳이어서 부도골이라 한다. 부도탑과 다른 석조물들을 1910년경 일본인들이 반출해갔다고 한다.

**부처골** [골]

**[위치]** 옛 동화사터 방아골 서쪽 잔등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수목원에서 남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처골’이라 하였다.

**[유래]** 불상이 있던 골짜기여서 부처골이라 하였다.

**부첫골** [골] → 부처골

**사제동(沙提洞)** [마을] → 사제말

**사제들** [들]

**[위치]** 사제말과 북쪽 서곡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사제말** [마을]

**[위치]** 노루메 동쪽 산 아래, 경장동 남쪽 강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동화산업단지 북쪽 아

래 강변에 있다. ‘새젓말’, ‘새젓말’이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사제동(沙提洞)’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젓말(사제동, 세제동)’이라 하였다.

**[유래]** 서곡천의 범람을 막는 긴 제방이 있으므로 ‘사제(沙提)>새제’라 부른다. 흥업면 사제리와 같은 이치이다.

**[내용]** 흥업면 사제리의 사제울에도 서곡천의 긴 제방이 있으므로 ‘사제울’이라 하였다. 옛날 사제면이었을 때 이곳도 사제면 소속이었으므로 소재지가 있는 흥업면 사제울과 이곳을 구분하기 위하여 흥업면 사제울은 ‘대사제(大沙堤)’라 하였다.

#### 산적골 [골]

**[위치]** 동화골 이종숙 묘역에서 북동쪽으로, 박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수루니(현재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가 있다.

#### 삼방곡(三方谷) [골]

**[위치]** 박달봉 북서쪽, 현 세고개삼거리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원주와 문막, 흥업면 대수리 쪽으로 세 갈래로 고갯길이 난 골짜기였으므로 삼방곡이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험한 오지로 산적들이 나타난 곳이라 한다. 한국전쟁 때 이곳에서 유엔군의 피해가 컸고 휴전을 할 때까지 미 공병대대가 주둔하였다. 지금은 영동고속도로와 42번 원문로가 교차하고 있으며 골짜기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 삼현(三峴) [고개] → 세고개

#### 삼형제고개 [고개]

**[위치]** 수반에서 북서쪽으로, 산 사이 골짜기를 따라 사제말, 마라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삼형제고기(三兄第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삼형제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봉우리 세 개가 있어서 고개가 셋이므로 삼형제고개라 한다. 또는 옛날 이 고개 아래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어서 삼형제고개라고 하였다

고도 한다.

**[풀이]** 삼형제고개(문막읍 동화리, 소초면 교항리), 삼형제골(문막읍 취병리) 등은 대개 산봉우리 세 개가 나란히 있을 때 붙는 지명이다. 이 이름들에 는 공통적으로 (의좋은)삼형제가 살았다는 내용이 후에 추가된다. 이 고개가 있어 ‘세고개’라는 이름이 생겼다.

#### 새고개 [고개] → 세고개

#### 새말 [마을]

**[위치]** 탑전 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부품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 새미골 [골]

**[위치]** 궁골 동쪽 끝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마람산 남쪽 아래, 현 동화산업단지 송암시스콤이 들어선 곳이다. 골 남쪽에 안새미골이 있다. ‘쇠미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쇠미골’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이 골짜기에서 좋은 샘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샘을 내었으므로 ‘샘이골>새미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 새젓들 [들] → 사제들

#### 새젓말 [마을] → 사제말

#### 새젓말제방 [둑]

**[위치]** 사제말 앞에 있는 서곡천의 둑을 말한다. 길이는 약 1.2km이다.

#### 새젓물 [내]

**[위치]** 사제말에서 부르는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새제물’이라 하였다.

**[유래]** 사제말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사제물>새제물>새젓물’이라 하였다.

#### 새젓보 [보]

**[위치]** 사제말 앞에 있는 서곡천의 보(湫)를 말한다. 사제들과 마라우들에 물을 댄다.

#### 새젓말 [마을] → 사제말

### 석이바우 [바위]

**[위치]** 마람산 남쪽 새미골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 이 바위에서 석이버섯이 많이 났으므로 석이바우라 하였다.

### 석이바우골 [골]

**[위치]** 절골 남쪽 현 동화사 서쪽 너머, 호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석이버섯이 나는 큰 바위가 있으므로 석이바우골이라 하였다.

### 성화골 [골]

**[위치]** 음수골 위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 세고개 [고개]

**[위치]** 건등리 옷좁은목에서 북동쪽 만장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새고개’, ‘시고개’, ‘삼현(三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세골(細洞)’이라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는 ‘삼현(三峴)’으로 표기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시고개(삼현, 세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개 서쪽에 삼형제고개가 있었으므로 ‘세고개>시고개’라고 하였다. 또는 고개가 가늘고 좁았으므로 ‘세고개(細--)>시고개’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세고개 정상은 42번 원문로와 보통로가 만나는 곳으로 현재 주유소, 골프연습장, 자동차매매상사 등이 들어서 있다.

**[풀이]** 삼형제고개(문막읍 동화리, 소초면 교항리), 삼형제골(문막읍 취병리) 등은 대체로 산봉우리가 세 개인 곳에 붙는 지명이다. 이후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았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곳 세고개도 옆에 삼형제고개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세고개>시고개’로 되었고 한자로는 ‘삼현(三峴)’, ‘세동(세골, 細洞)’ 등으로 기록되었다.

### 세고개산 [산]

**[위치]** 세고개 남동쪽에 있는 높이 199.9m의 산

을 말한다. ‘시고개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시고개산’이라 하였다.

### 세재동 [마을] → 새젓말

### 소개들 [들] → 건등리 소개들

### 소안(小岸) [마을] → 작은애니

### 소아미골 [골] → 작은애니골

### 소아미들(小野味坪) [들] → 작은애니들

### 숫대거리 [들]

**[위치]** 호적골과 원거리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연주2교와 원문로 사이에 있는 들이다. 동화골삼거리 동쪽에 있다.

**[유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숫대와 벼슬한 사람이 산다는 표시인 숫대가 나란히 있던 들이므로 숫대거리라 하였다.

### 쇠미골 [골] → 새미골

### 수내(藪內) [마을] → 수반

### 수내뒗산 [산]

**[위치]** 수반 마을 동쪽 뒤에 있는 높이 141.3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내뒗산’이라 하였다.

### 수반 [마을]

**[위치]** 건등산 동쪽, 동화골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숲안’, ‘습안’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수내(藪內)’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는 ‘뽕안(藪內)’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습안(수내)’라 하였다.

**[유래]** 울창한 숲 안쪽, 또는 숲 언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숲안>습안>수반’이 되었다.

**[풀이]** 한자로 ‘수내(藪內)’라 하였으므로 ‘숲의 안쪽’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애안’, ‘등안’, ‘덕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안(岸, 屹)’의 의미로 본다면 이때 ‘안’은 ‘내(內)’가 아니라 ‘언덕(岸, 屹)’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숲 언

덕'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 된다.

#### 수반들 [들]

**[위치]** 수반 마을 앞, 원문로 건너편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반들'이라 하였다.

#### 수반보 [보]

**[위치]** 수반들에 있는 동화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반보'라 하였다.

#### 수반앞들 [들]

**[위치]** 수반 마을 앞과 동화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습안 [마을] → 수반

#### 시고개 [고개] → 세고개

#### 시고개산 [산] → 세고개산

#### 아래노루메 [마을]

**[위치]** 노루메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동화농공단지의 농공단지교차로 동쪽, 미디어나가 들어선 지역이다.

#### 아래마람산 [산]

**[위치]** 세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높이 156m의 산을 말한다. '아래말안산', 또는 '아래말림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마람산의 남쪽 아래에 있으므로 '아래마람산'이라고 부른다.

#### 아래말림산 [산] → 아래마람산

#### 아래말안산 [산] → 아래마람산

#### 아래좁은목이 [마을] → 건등리 아래좁은목이

#### 아카시아나무숲 [숲]

**[위치]** 만낭개들 앞에 있는 숲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카시나무숲'이라 하였다.

**[유래]** 800여 평의 넓이에 아카시아 나무만 서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안새미골 [골]

**[위치]** 궁골 동쪽 끝, 새미골 서쪽 끝에서 남동쪽

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세고개삼거리에서 북쪽으로 도로가 난 곳이다.

**[유래]** 새미골에서 산 안쪽에 있으므로 '안새미골'이라 부른다.

#### 안참샘골 [골]

**[위치]** 참샘이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애니 [마을]

**[위치]** 덕난 북동쪽, 탑전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큰애니', '작은애니'가 있다. 이 마을을 '큰애니'라 부른다. '대안(大岸)', '대안이', '애안(涯岸)', '애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이안이(崖屹)'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애안(대안)'이라 하였다.

**[유래]** 건등산 동쪽 급한 낭떠러지 아래 둔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애(涯, 崖)+안(岸, 屹)>애안+이>애안이>애니'가 되었다.

**[유래담]** 건등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을 모양이 마치 기러기가 날개를 펴고 내려앉은 모습이라고 하여 애안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풀이]** '애+안+이>애안이>애니'가 되었다. 한자로는 '涯岸, 崖屹, 大岸'으로 기록하였다. '애(涯)'는 물가를 뜻하고 '애(崖)'는 낭떠러지, '안(岸)'과 '흘(屹)'은 언덕 또는 산을 의미한다. '이'는 접미사이다. 건등산 동쪽 급한 낭떠러지 아래, 동화천 안쪽 둔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애(涯, 崖)+안(岸, 屹)>애안+이>애안이>애니'라 하였다. 낭떠러지 안쪽, 동화천 옆에 마을이 있으므로 '涯'와 '崖'가 통용되었다. 이 중 큰 마을을 '큰애니(大岸)', 작은 마을을 '작은애니(小岸)'라 하였다.

#### 애안(涯岸) [마을] → 애니

#### 애안이(涯岸-) [마을] → 애니

#### 여우바우 [바위]

**[위치]** 여우바우골 산등성이 중턱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답]** 바위의 모습이 마치 여우가 웅크리고 앉은 것 같아 여우바우라 한다.

#### 여우바우골 [골]

**[위치]** 옷좁은목이 동쪽 아래, 참새미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골 위에 공원낚시터가 있다.

**[유래]** 여우바우가 있어 여우바우골이라 한다.

#### 오야골 [골] → 지정면 간현리 오야골

#### 옹기점지 [터]

**[위치]** 동화역 남쪽, 헛고개 아래에 있던 옹기 굽던 터를 말한다.

#### 움수골 [마을] → 음수골

#### 음수골산 [산] → 음수골산

#### 웃노루메 [마을]

**[위치]** 노루메 마을 중 북쪽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왕건로 길 서쪽에 있다.

#### 웃노루메골 [골]

**[위치]** 차돌배기 서쪽 남산들에서 북동쪽으로, 웃노루메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웃좁은목이 [마을]

**[위치]** 여우바우골 서쪽, 음수골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덕남교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내용]** 건등저수지 북쪽 아래에 건등리 아랫좁은목이 있다.

#### 원거리 [마을]

**[위치]** 수반 동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호적골 앞 동화골삼거리 지역이다.

**[유래]** 옛날 원(院)이 있던 곳이어서 '원거리'라고 한다.

#### 원거리들 [들]

**[위치]** 참새미들 동쪽, 호적골 북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동화골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들이다. 들 중앙으로 42번 원문로가 지나가고 산 밑에는 상가, 주유소, 회사들이 들어섰다. 『조선지리지』에 '원거리들(院街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원거리들'이라 하였다.

#### 원거리보 [보]

**[위치]** 원거리들에 있던 동화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원거리보'라 하였다.

#### 윗둔지 [들]

**[위치]** 호적골 뒤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윗둔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윗둔지'라 하였다.

#### 윗둔지보 [보]

**[위치]** 윗둔지들에 있는 동화천의 보(洑)를 말한다. '윗둔지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윗둔지보'라 하였다.

#### 음수곡(飲水谷) [마을] → 음수골

#### 음수골 [골]

**[위치]** 옷좁은목이에서 남서쪽, 현 문막자동차학원 동쪽 옆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음수곡'이라고도 한다.

#### 음수골 [마을]

**[위치]** 음수골 입구 옷좁은목이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문막자동차학원 북동쪽 아래에 있다. '음수골', '음수곡'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음숫골(음수곡)'이라 하였다.

#### 음수골산 [산]

**[위치]** 음수골 남쪽에 있는 높이 154.8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음수골산'이라 하였다.

#### 작은내들 [들] → 작은애니들

#### 작은노적골 [골]

**[위치]** 호병골 위에서 남동쪽으로, 504.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작은대안이 [마을] → 작은애니



### 작은땃골 [골]

**[위치]** 땃골 중 백년바우 아래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땃골’이라 하였다.

### 작은애니 [마을]

**[위치]** 덕난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신원아침도시아파트 뒤에 있는 마을이다. ‘소안이(小岸-)’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애니’, ‘작은대안이(소안)’라 하였다.

**[내용]** 덕난을 중심으로 북쪽 위를 큰애니, 남서쪽 아래의 마을을 작은애니라고 부른다.

### 작은애니골 [골]

**[위치]** 작은애니에서 북서쪽 건등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부영아파트 문막현진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소야미골’이라고도 한다.

### 작은애니뒷산 [산]

**[위치]** 작은애니 마을 뒤에 있는 건등산 줄기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애니뒷산’이라 하였다.

### 작은애니들 [들]

**[위치]** 작은애니 북쪽 아래, 현 부영아파트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작은내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소야미들(小野味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내들’이라 하였다.

### 작은재골 [골]

**[위치]** 궁골 동쪽 끝에서 남쪽 150.5m의 산봉우리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재넘어골 서쪽에 나란히 붙어있다. 현 동화산업단지의 삼아제약이 있는 곳이다.

### 장미들 [들]

**[위치]** 만장포 남쪽의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긴나무들(長木坪)’이라고 하였다.

### 장산(獐山) [마을] [산] → 노루메

### 장산동(獐山洞) [마을] → 노루메

### 장자들 [들]

**[위치]** 노루메 마을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자들’이라 하였다.

### 장자우물 [샘]

**[위치]** 노루메 마을 옆에 있던 샘을 말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자우물’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부자가 살던 곳의 우물이라고 한다. 원주에 널리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자집’ 설화가 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산 허리를 끊고 집안이 망한 것으로 나온다.

### 절골 [골]

**[위치]** 동화골 안에서 할미소들머리골과 갈라져 남쪽으로, 명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 동화사가 있던 곳이므로 절골이라고 하였다.

### 절터 [터] → 동화사터

**[위치]** 절골에 있는 옛 동화사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터(동화사터)’라 하였다.

**[내용]** 규모가 큰 석축과 많은 수의 기왓장이 흩어져 있다.

### 점골 [골] → 할미소들머리골

**[위치]** 현 동화사가 있는 할미소들머리골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골 입구에 가마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 옛 동화사에 필요한 기와를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 점너메들 [들]

**[위치]** 참샘이들 뒤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점너메들’이라 하였다.

### 점너메보 [보]

**[위치]** 점너메들에 있는 동화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점너메보’라 하였다.

### 좁은목이 [마을] → 건등리 좁은목이

### 주봉(珠峰) [산]

**[위치]** 동화골 안에 있는 높이 202m의 산을 말한다. 박달봉 남쪽, 돼니골 입구에 있는 산이다.

**[내용]** 벽계수(碧溪守) 이종숙(李終叔) 묘소가 있다.

### 중노골 [골] → 중로골

### 중로골 [골]

**[위치]** 마람산 동쪽, 오야골보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지정면 간현리 오야골에서 남쪽 강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중로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노골’이라 하였다.

### 지루네미 [고개]

**[위치]** 박달봉 호랑이돌머리 아래에 있는 지름길을 말한다. 옛날 문막에서 원주로 가던 지름길이였다.

**[유래]** 지름길로 질러가는 고개이므로 ‘지루네미’라 하였다. 옛날 반계리 골무내기의 황무진이 원주 강원감영으로 출퇴근을 한 길이라고 한다.

### 차돌배기 [마을]

**[위치]** 탑전 북쪽 아래, 노루메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주동화농공단지 서쪽의 농공단지교 차로에 있는 마을이다.

### 참샘약수 [샘]

**[위치]** 음수골 마을 동쪽 영동고속도로 위쪽에 있는 맑고 찬 샘을 말한다.

**[내용]** 약으로 쓰는 산골이 나오는데 골절환자나 의골환자가 가끔 주워간다고 한다.

### 참샘이들 [들]

**[위치]** 수반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남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참샘이들’이라 하였다.

**[유래]** 들에 좋은 샘이 있었으므로 ‘참샘이들’이라고 한다.

### 참샘이보 [보]

**[위치]** 참샘이들에 딸린 동화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참샘이보’라 하였다.

### 큰골 [골] → 마람골

**[위치]** 마람골의 다른 이름이다.

**[내용]** 한국전쟁 때 큰골 세고개 지역에 미군 공병대 본부가 주둔하였다.

### 큰노적골 [골]

**[위치]** 호병골 위에서 남쪽으로, 명봉산 상봉(上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큰대안 [마을] → 큰애니

### 큰대안이 [마을] → 큰애니

### 큰댁골 [골]

**[위치]** 댁골 가운데 백년바우 위의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댁골’이라 하였다.

### 큰애니 [마을] → 애니

### 큰애니들 [들]

**[위치]** 큰애니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곤매니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곤매니들’이라 하였다.

### 큰애니보 [보]

**[위치]** 큰애니 앞에 있는 동화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애니보’라 하였다.

### 큰재넘어골 [골]

**[위치]** 궁골 동쪽 끝에서 남쪽, 높이 141.3m 봉우리 옆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 동화산업단지 삼아제약이 있는 곳이다.

### 탑전(塔田) [마을]

**[위치]** 건등산 북동쪽 아래, 애니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만도사원아파트 남서쪽, 자동차부품단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탑전니(塔田)’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탑전(塔田)’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밭 중앙에 탑이 있었으므로 탑전이

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탑은 반출되었다고 한다.



「탑전 마을 : 2019년」

**탑전이** [마을] → 탑전

**탑전이저수지** [못] → 탑전지

**탑전지**(塔田池) [못]

**[위치]** 탑전 북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탑전이저수지’라 하였다.

**할미소들머리골** [골]

**[위치]** 동화골 동화천 최상류로 현 동화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남동쪽 419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로, 골 동쪽 너머에는 대안리 돼니 마을이 있다. ‘점골’이라고도 한다.

**헛고개** [고개]

**[위치]** 만장포에서 동화역에 이르는 낮은 고갯길을 말한다. ‘만장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고개라고 할 수도 없는 낮은 고개라서 헛고개라고 한다.

**호랑이돌머리** [바위]

**[위치]** 박달봉 아래에 있는 절벽 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반계리 골무내기의 효자 황무진이 원주 강원감영으로 출퇴근할 때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태우고 삼방곡과 세고개를 넘었다는 전설이 있다.

**호병골** [골]

**[위치]** 백년바우에서 남쪽으로 명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노적골이 있다. ‘회병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이 좁고 길어서 병목처럼 생겼으므로 호병골이라 한다.

**호적골** [골]

**[위치]** 동화골에서 남쪽으로, 높이 398.3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호적골** [마을]

**[위치]** 동화골 남서쪽, 호적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호적동(戶籍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호적골(戶籍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호적골’이라 하였다.

**[내용]** 옛 기록에는 ‘고적동(枯積洞)’이었는데 뜻이 좋지 않으므로 ‘호적동(戶籍洞)’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옛 절이 있었다고 한다.



「호적골 마을 : 2019년」

**호적동**(戶籍洞) [마을] → 호적골

**회병골** [골] → 호병골

**회병목이** [소]

**[위치]** 돼니골 안 개울 옆 작은 동산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유래]** 동산 아래 큰 수렁이 있어 장마가 지면 물이 휘돌아들고 소리를 내므로 ‘회병목이’라 한다.

## 문막리(文幕里)

### [위치]

문막리는 문막읍의 중심지로 읍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과 북쪽으로는 건등리, 서쪽으로는 반계리, 남쪽으로는 포진리와 경계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미내면(彌乃面)의 7리·8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물구비·웃골말·아랫골말·웃담·아랫담·장터거리를 병합하여 문막리로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문막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문막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문막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물가 옆에 마을이 섰으므로 못막>문막이라 하였다.

### [풀이]

문막에 있던 나루터 중 문막리의 물구비나루가 가장 번성했는데 나루 부근에 막을 치고 마을이 번창하여 ‘못막>문막’이라 하였다. ‘못+막>못막>문막’으로 변천하였는데 ‘문막(文幕)’의 ‘문(文)’은 원래의 뜻 ‘물(水)’을 취하지 않고 소리를 적어 미화한 것이며, ‘막(幕)’은 ‘원두막·오두막·주막·천막’ 등에 남아있는 말로, 마을이란 뜻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골말 [마을]

**[위치]** 천마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골말'과 '아랫골말'이 있다. 원래의 마을 자리는 현 영동고속도로 문막TG 자리이다. '너루니', '두옥(斗玉)'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말(두옥)'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므로 '골+말>골말'이라 하였다. '두옥(斗玉)'은 후대에 새로 지은 이름이다.

**[내용]** 1972년 영동고속도로가 마을을 지나가고 문막IC가 생기면서 마을은 고속도로 동쪽, 천마산 남서쪽 아래의 현 아랫골말로 이주하였다.

### 골말골 [골]

**[위치]** 조작골들에서 남동쪽으로, 천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골말과 아랫골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골말약수 [샘] → 옷물탕

### 너루니 [마을] → 골말

### 도지들 [들] → 조작골들

### 동경이들 [들]

**[위치]** 동경이 북서쪽, 문막TG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원주교아루아너스 남쪽에 있는 들이다.

### 두옥(斗玉) [마을] → 골말

**[유래]** 조선 선조 때 호조판서 이성종이 골말에 살면서 옥관자(玉貫子, 갓에 다는 구슬)가 말로 쓰이지는 마을이란 뜻으로 새로 지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말(두옥)'이라 하였다.

### 뒗벌고개 [고개] → 건등리 뒗벌고개

### 목골 [골]

**[위치]** 동경이들에서 남동쪽으로, 17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경이 마을 남서쪽, 건등저수지 서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우배기골과의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다.

### 무당골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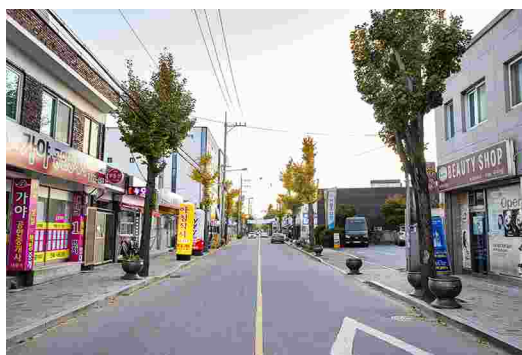
**[위치]** 안골 위쪽, 옛 무당들이 살던 골짜기를 말한다. 지금도 굿하던 제단과 옷물탕이 남아있다.

### 문막(文幕) [마을]

**[위치]** 현 장터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문막읍, 문막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물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문막(文幕)'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막리(물막)'라 하였다.

**[유래]** 섬강 물가에 집과 마을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물'의 옛말 '뭇'과 집, 마을을 뜻하는 '막'이 결합하여 '뭇+막>뭇막>문막'이 되었다. '문(文)'은 '문막'의 '문'을 음차한 것이고 '막'은 집 또는 마을을 뜻한다.



「문막 마을 ; 2019년」

### 문막공소 [성당]

**[위치]** 현 문막성당 밑에 있던 옛 천주교 성당을 말한다. 1938년경에 설립되었다.

### 문막뒗들 [들]

**[위치]** 현 문막농협 동쪽, 아랫골말 북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서쪽에 있는 들이다. 조작골들 남쪽, 물구비들 북쪽에 있다.

### 문막들 [들]

**[위치]** 고안들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문막체육공원 동쪽에 있는 들이다. 들 한 가운데로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 문막제방 [둑]

**[위치]** 문막 앞에 있는 섬강의 둑을 말한다. 『한국 지명총람』에 ‘문막제방’이라 하였다.

### 문막저수지 [못]

**[위치]** 절골 서쪽 아래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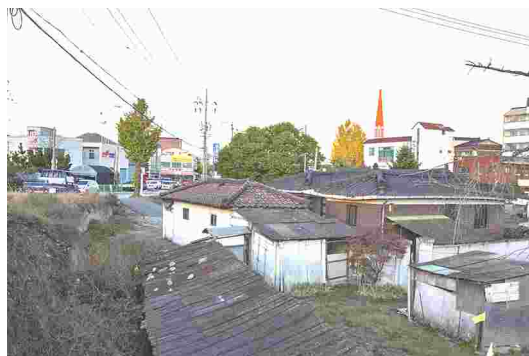
### 물구비 [마을]

**[위치]** 장터거리 남쪽, 포진리 동가장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119안전센터 주변의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수곡(水曲)’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물구비(水曲)’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물구비(수곡)’라 하였다.

**[유래]** 섬강의 물이 굽이친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물굽이>물구비’라 하였다.

**[내용]** 옛 문막리의 주된 마을은 ‘웃담’이었고 물구비는 포구가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붐비고 식당과 유곽이 많았다.

**[풀이]** ‘물+굽+이>물굽이>물구비’가 되었다. 물길이 휘어져 나가는 곳이란 뜻이다.



「물구비 마을 ; 2019년」

### 물구비나루 [나루]

**[위치]** 물구비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물구비나루(水曲津)’라 하였다.

**[내용]** 섬강의 나루터인 석지나루, 물구비나루, 개나루, 후용리나루 중 가장 큰 나루였다. 뱃사공들이 많았고 많은 물류가 원주와 여주를 이동하였으며 근처에는 여각과 주막, 유곽이 많았다. 1952년

에 물구비나루 위쪽에 옛 문막교를 놓았다.



「물구비나루 ; 1930년대」



「물구비 ; 2018년」

### 물구비들 [들]

**[위치]** 물구비 마을 동쪽과 남쪽, 문막리와 포진리에 걸쳐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문막뒷들에서 남쪽으로, 물구비를 지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문막휴게소까지 이르는 넓은 들이다.

물굽이 [마을] → 물구비

물막 [마을] → 문막

### 바우배기골 [골]

**[위치]** 문막TG 남동쪽에서 동쪽으로, 17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상두옥(上斗玉) [마을] → 웃골말

수곡(水曲) [마을] → 물굽이

스무리 [마을] → 시무리

스무리들 [들] → 시무리들

시무리 [마을]

**[위치]** 개나루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스무

리'라고도 한다. 한자로 '입리(什里坪)'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앞 들이 섬강을 따라 길게 뻗어 이십리나 된다고 하여 '스무리>시무리'라 하였다.

**[풀이]** '스물+이>스물+이>스무리>시무리'가 되었다.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 시무리들 [들]

**[위치]** 시무리 마을 서쪽, 시무리에서 포진리 낚은터에 이르는 긴 들을 말한다. '스무리들', '이십리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무니들(什里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시무리들(이십리들)'이라 하였다.

#### 신산내골 [골] → 신산이골

#### 신산이골 [골]

**[위치]** 아랫골말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천마산 남쪽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신산내골'이라고도 한다.

#### 아랫골 [골]

**[위치]** 물구비들 동쪽, 골말골 남서쪽 아래에서 동쪽 천마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신산이골이 있다.

#### 아랫골말 [마을]

**[위치]** 골말 마을 중 남서쪽 아래, 신산이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너루니', '하두옥(下斗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아리너루니(下斗玉)'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골말(하두옥)'이라 하였다.

**[내용]** 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골말 주민들이 이주해 와 마을이 커졌다. 마을 서쪽 아래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아랫너루니 [마을] → 아랫골말

#### 아랫담 [마을]

**[위치]** 웃담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안골 [골]

**[위치]** 문막TG 남서쪽에서 남쪽으로, 천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안골저수지 [못]

**[위치]** 안골 입구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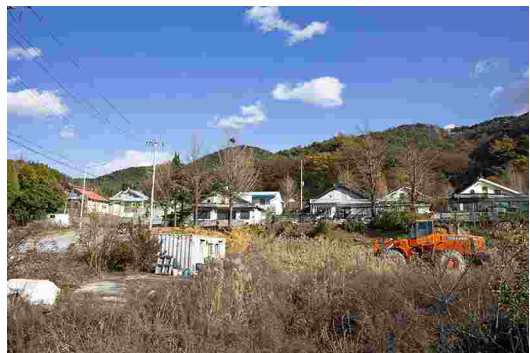


「안골저수지 ; 2019년」

#### 안말 [마을]

**[위치]** 안골 입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문막TG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내용]** 현 문막TG에 있던 마을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모두 웃담으로 이주하였다.



「안말 마을 ; 2019년」

#### 약물탕 [샘] → 웃물탕

#### 웃물 [샘] → 웃물탕

#### 웃물탕 [샘]

**[위치]** 무당골 제단 옆에 있는 샘을 말한다. '웃물', '약물탕', '골말약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물'이라 하였다.

**[유래]** 웃이 오른 사람이 그 물로 목욕을 하면 깨

곳이 낫는다 하여 옷물탕이라고 한다. 지금도 사용 중이다.

#### 웃골 [골]

**[위치]** 웃골말에서 남동쪽으로, 천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과 골말골 사이에 있다.

#### 웃골말 [마을]

**[위치]** 골말 북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너루니’, ‘상두옥(上斗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웃너루니(上斗玉)’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골말(상두옥)’이라 하였다.

#### 웃너루니 [마을] → 웃골말

#### 웃담 [마을]

**[위치]** 문막리 중 위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문막성당 남쪽 아래의 마을이다.

**[내용]** 문막리에서 처음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 이십리들 [들] → 시무리들

#### 입리(廿里) [마을] → 시무리

#### 장수암터(長壽庵-) [터]

**[위치]** 아랫골말에 있던 옛 절의 터를 말한다.

#### 장터거리 [마을]

**[위치]** 현 문막읍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농협과 하나로마트, 문막중고등학교 및 시장이 있는 곳이다. ‘저잣거리’라고도 한다.

**[내용]** ‘웃담’은 문막에 마을이 처음 들어선 곳이며 ‘물구비’는 포구로 상인들로 붐볐던 곳이고, 현 시장거리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던 곳이다.

#### 저잣거리 [마을] → 장터거리

#### 절골 [골]

**[위치]** 골말골 남동쪽 위에서 천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칠성암(七星庵)이라는 절이 있으므로 절골이라고 한다.

#### 조작골들 [들]

**[위치]** 현 문막성당, 문막감리교회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문막뒷들 위에 있다. ‘도지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지들(斗地坪)’이라고 하였다.

#### 중학교거리들 [들]

**[위치]** 현 원주의료고등학교 남쪽, 원주TG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재 도로가 나고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유래]** 1951년에 뒷벌고개, 현 원주의료고등학교 자리에 문막중학교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중학교 앞에 들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천마산(天馬山, 天麻山) [산]

**[위치]** 건등저수지 남서쪽, 국수봉 북서쪽에 있는 높이 320m의 산을 말한다. 절골 동쪽에 있다. 문막리, 건등리, 포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자로 ‘天馬山’으로 통용되나, ‘天麻山’으로 쓰기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철마산(天馬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천마산(天馬山, 天麻山)’이라 하였다.

**[유래담]** 산의 모양이 마치 말처럼 생겨서 천마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전하는 말로는 궁촌리 쪽은 말머리, 건등리 쪽은 말꼬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천마산」; 2019년

#### 천마산산신당 [당]

**[위치]** 천마산 서쪽 절골 위, 칠성암 서쪽 아래에 있는 산신당을 말한다. 공원 안에 제단이 있다.

**[내용]** 원래는 천마산 중턱에 비각을 세우고 위패

를 모셨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고 한 때는 칠성암에서 지내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제단을 마련하였다. 문막의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큰 제의로, 천마산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에 산신제를 지낸다.

**[내용]** 바우배기 위에 골이 깊고 넓은 곳이 있어 이를 큰골이라 한다.

**하두옥(下斗玉)** [마을] → 아랫골말



「천마산산신당 ; 2018년」

### 칠성암(七星庵) [절]

**[위치]** 절골 남동쪽 위, 천마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절을 말한다.

**[유래]** 옛날 문막 주민들이 1년에 두 명씩 호환을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천마산 산신에게 산신제를 지내던 것이 사찰로 발전하였다고 전한다.

**[내용]** 칠성당 옆 바위로 된 산자락에 ‘佛’자 등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칠성암 ; 2019년」

### 큰골 [골]

**[위치]** 바우배기 동쪽 위, 천마산 아래의 골짜기를 말한다.

## 반계리(礪溪里)

### [위치]

반계리는 문막읍의 서쪽에 위치하며 경기도 여주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문막리와 포진리, 서쪽으로는 여주시 강천면, 남쪽으로는 대둔리와 후용리·부론면 노림리, 북쪽으로는 취병리와 경계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 사제면(沙堤面) 분1리·분2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1리·분2리를 병합하여 반계리(礪溪里)라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반계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반계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반계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건등산에 있던 고려 태조(太祖) 왕건의 건승비(建勝碑)를 서울로 옮겨가던 도중에 이 마을 앞에서 비가 떨어져 반으로 부러졌으므로 ‘반절(이)>반저리’라 하였는데 이를 소리로 적어 반계리(礪溪里)라 하였다고 한다.

『반계수록(礪溪隨錄)』을 쓴 조선 후기 실학자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호를 반계(礪溪)라 하였는데, 그가 15세 때 병자호란을 피해서 이곳에 피란한 적이 있으므로 그가 이곳 마을 이름을 따서 호(號)로 삼았을 것이라고도 한다.



## 가운데섬 [섬]

**[위치]** 옛 쪽섬의 가운데 지역을 가리키던 말이다.

**[내용]** 옛날 쪽섬이 셋강으로 분리되어 섬으로 있을 때 길쭉한 섬의 가운데 부분을 지칭하던 이름이다.

## 갈가지골 [골]

**[위치]** 골무내기의 황무진 묘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무내기 북쪽, 반계저수지 남쪽에 있는 148.4m 높이의 봉우리 옆 골짜기이다.

**[유래]** 호랑이가 새끼를 친 골이므로 갈가지골이라 한다.

**[풀이]** 갈가지는 호랑이 새끼를 이르는 말로 강원도에서는 개호주라고도 한다. 개호주는 개를 먹잇감으로 삼는 짐승이란 뜻이다.

## 강개들 [들]

**[위치]** 벌무내기 마을 앞 섬강 가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앞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강물 옆, 강가에 있으므로 ‘강개들>강개들’이라 하였다. ‘개’는 물 옆에 붙는 지명소이다. 건등리에 ‘강개’가 있다.

## 골무내기 [마을]

**[위치]** 반계리 반계저수지 남쪽 아래 좁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수락’, ‘동수막’, ‘동수래기’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동수락(洞水落, 東水落)’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골문약이(洞水落)’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무내기(동수락, 동수래기)’라 하였다.

**[유래]** 물이 나오는 마을인 무내기 마을 중 골짜기에 있으므로 ‘골무내기’라 하였다. 무내기 마을 중 들판에 있는 ‘벌무내기’와 상대적인 개념이다.

**[내용]** ‘골무내기’ 마을은 반계저수지 남쪽 독에 해당하는 148.4m 봉우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마을 앞의 들을 가로질러 흐른다. ‘벌무내기’가 들판 한 가운데 있는 것에 비추어 산 위 골짜기에 있으므로 ‘골무

내기’라 하였다. 선조 때의 효자 황무진의 사당인 충효사가 있다.

**[풀이]** 골(谷)+물(水)+나(出)+기>골물나기>골무나기>골무내기가 되었다. 한자로는 ‘동수락(洞水落, 東水落)’이라고 하였다. ‘洞水落’의 경우 ‘골무내기’의 ‘골(谷)’을 ‘마을’로 본 결과이다. 이는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으므로 ‘~골’이 마을 이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치로 ‘벌무내기(坪水落)’와 상대적인 개념이다. ‘東水落’은 ‘洞水落’의 ‘洞’을 같은 음인 ‘東’으로 취한 것으로 방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골무내기 마을 ; 2019년」

## 골무내기 산제당 [당]

**[위치]** 골무내기 북서쪽 골산골에 있던 산제당을 말한다.

**[내용]** 수령 350년의 참나무 고목을 당목으로 삼고 3년마다 제를 올렸다. 돼지 한 마리와 기타 제물로 제를 지내고 장승을 깎아 마을 앞으로 내려와 장승제를 지냈다. 1960년대 이후 폐지되었다.

## 골무내기 성황당 [당]

**[위치]** 골무내기 북쪽, 반계저수지로 넘어가는 서낭당골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수령 약 300년의 참나무 고목을 당목으로 삼았다. 정월 보름에 서낭제를 지냈으나 1960년대 새마을운동 때 당목을 자르고 당집을 허물어 폐지하였다.

## 골무내기 앞들 [들]

**[위치]** 골무내기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골무내기 장승 [장승]

**[위치]** 원문로에서 골무내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을 말한다. 정월 보름에 마을 서낭제를 지내고 장승을 세웠다고 한다. 지금 장승제는 폐지되었다.

### 골무내기 장터 [터]

**[위치]** 반계저수지에 수몰된 옛 잔디밭 쉼터를 말한다.

**[유래]** 저수지로 수몰되기 전, 청년들이 나뭇짐을 지고 가다가 쉬면서 ‘장치기’ 놀이를 하던 곳이다.

**[내용]** 박테리아에 감염된 나무혹부리를 공으로 삼아 지게작대기로 쳐서 상대방의 골문에 넣는 경기를 ‘장치기’라 하였다. 골대는 지게를 세워서 하였다. 현 필드하키와 유사하다.

### 골산골 [골]

**[위치]** 골무내기 서쪽 산골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의 314.2m 봉우리와 317m 봉우리 사이로 향하고 있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사자골과 사자고개가 있다.

### 관모산(冠帽山) [산]

**[위치]** 밤산골 위 즈골 끝에 있는 높이 402.5m의 봉우리를 말한다. 산 동쪽에 취병리 석지골, 진밭골이 있고 산 서쪽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이다.

**[내용]** 당산에서 관위산을 거쳐 남쪽 탑전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이다. 관모산 북쪽에 있는 관위산(362m)과 혼동되어 같은 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름이 서로 바뀌기도 한다.

### 구은봉 [산] → 군봉

### 구은봉우리 [산] → 군봉

### 구은들 [들] → 군들

### 구은평(九銀坪) [들] → 군들

### 구진뺨이 [골]

**[위치]** 덕고개들에서 북서쪽으로 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풍월봉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구진뺨이들 [들]

**[위치]** 반계저수지 남서쪽 아래, 구진뺨이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반계천 동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 구천봉 [산]

**[위치]** 반계저수지 북쪽, 정상봉 남동쪽에 있는 높이 410.2m의 산을 말한다. ‘구층봉(九層峰)’, ‘구첩산(九疊山)’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산이 아홉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구첩산(九疊山) [산] → 구천봉

### 구층봉(九層峰) [산] → 구천봉

### 군들 [들]

**[위치]** 옛 쪽섬에 있던 들 이름이다. 연화동 연화들 앞, 섬들 북쪽에 있던 들로 현 원주문막일반산 업단지 위쪽 지역이다. ‘구은들’, ‘구은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군웃들(九銀坪)’이라고 하였다.

**[내용]** 마을 뒤 은아박골과 군들(구은평九銀坪)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 군봉 [산]

**[위치]** 연화동 남동쪽, 군들에 있던 높이 55m의 낮은 언덕을 말한다. 쪽섬 중앙에 있던 산으로 공단을 건설하면서 없어졌다. 현 한라마이스터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구은봉’, ‘구은봉우리’라고도 하였다.

### 금반향(金盤鄉) [마을] → 작배기

### 남도(藍島) [마을] → 쪽섬

### 남도동(藍島洞) [마을] → 쪽섬

### 넘어사자골 [골]

**[위치]** 사자골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사자고개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사자고개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사자골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진다.

**[유래]** 대둔리에서 보았을 때 사자고개 너머에 있으므로 ‘넘어사자골’이라 하였다.

#### 넓은소 [소]

**[위치]** 옛날, 쪽섬에 샛강이 있을 때 샛강 하류에 있던 소(沼)를 말한다.

**[유래]** 소가 넓어 3,000평이나 되므로 ‘넓은소’라 하였다. 이곳 ‘넓은소’의 물빛이 아름다운 쪽빛이어서 ‘쪽섬’이란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내용]** 소가 크고 깊어 명주실타래 하나가 모자랐다고 전한다.

#### 능골 [골]

**[위치]** 작배기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다라니골 [골]

**[위치]** 천년앞들 서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장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장골 서쪽, 현 무내기휴게소와 GS리테일물류센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다. 골 입구에 42번 여원로와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라닛골’이라 하였다.

#### 다라니폭포 [폭포]

**[위치]** 다라니골 안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라닛골폭포’라 하였다.

#### 다라닛골 [골] → 다라니골

#### 다라닛골폭포 [폭포] → 다라니폭포

#### 대장골 [골]

**[위치]** 천년앞들에서 도로 건너 북쪽으로, 대장산을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다라니골 동쪽, 현 무내기휴게소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위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고 골 입구에는 42번 여원로와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장골’이라 하였다.

#### 대장산(大壯山) [산]

**[위치]** 대장골 북서쪽에 있는 높이 259.5m의 산을 말한다. 골산골 남쪽에 있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디장산(大壯山)’이라고 하였다.

#### 덕고개 [고개]

**[위치]** 반저리 남오동에서 남서쪽으로 무내기로 넘어오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고개’라 하였다.

**[내용]** 옛길은 반계초등학교에서 삼성전자원주물류센터를 거쳐 ‘덕고개가든’으로 내려오는 길이다.

#### 덕고개들 [들]

**[위치]** 덕고개의 서쪽과 남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재 거의 다 택지에 편입되었고 서쪽에 있던 들 일부만 남아있다.

#### 덕고개성황당 [당]

**[위치]** 덕고개 남쪽 아래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큰 오리나무를 당목으로 삼았다.

#### 도래모퉁이들 [들] → 돌모퉁이들

#### 돌모퉁이들 [들]

**[위치]** 골무내기 동쪽, 저수지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도래모퉁이들’이라고도 한다.

#### 동나무거리 [들]

**[위치]** 벌무내기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나무거리’라 하였다.

#### 동수교(洞水橋) [다리]

**[위치]** 벌무내기 뒤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복갯다리’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복갯다리(동수교)’라 하였다.

#### 동수락(洞水落) [마을] → 골무내기

#### 동수래기 [마을] → 골무내기

#### 동수래기서낭당 [당] → 골무내기성황당

#### 동수막 [마을] → 골무내기

#### 뒹구골 [골]

**[위치]** 작배기 마을 동쪽 옆에서 북서쪽 17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틔대전들 [들]

**[위치]** 벌무내기 마을 뒤에 있는 들을 말한다. 42번 여원로 남쪽, 벌무내기 마을과 웃모통이 마을 사이에 있다.

#### 마룻들 [들]

**[위치]** 벌무내기 앞, 텃둔지 동쪽의 넓은 들을 말한다. 대둔리 앞까지 펼쳐진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룻들’이라 하였다.

#### 매네미고개 [고개]

**[위치]** 옥수골에서 북동쪽으로, 취병리로 넘어가는 높이 335m의 고개를 말한다. 성상봉 바로 북쪽에 있다. 고개 너머는 취병저수지이다.

**[유래]** 뫼(山)를 넘어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뫼(山)+넘(越)+이>뫼넘이>매넘이>매너미>매네미’가 되었다.

#### 모실골 [골]

**[위치]** 골무내기 마을 앞에서 북쪽으로 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풀이]** ‘못+실+골>못실골>모실골’이 되었다. ‘실’과 ‘골’은 둘 다 골짜기란 뜻이다.

#### 무내기 [마을]

**[위치]** 벌무내기와 골무내기를 통칭하여 ‘무내기’라고 한다. 반저리 남서쪽, 섬강 변의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들어선 마을이다. 무내기들 넓은 들판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42번 여원로와 옛 국도인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저수지를 막을 만큼 물이 흔해서 물이 내려오는 곳, 물이 나오는 곳이란 뜻에서 ‘물(水)+나(出)+기>물나기>무나기>무내기’가 되었다. 여기서 ‘기(己)’는 ‘지(只)’와 함께 ‘곳, 땅’의 의미로 쓰는 옛말이다.

**[내용]** 옛 지리지에는 ‘문학동(文學洞)’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약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소리를 적은 결과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골문약이(洞水

落)’, ‘벌문약이(坪水落)’라고 하여 ‘무내기’를 ‘문약이’라고 하여서, ‘문학(文學)’은 ‘문약이’를 한자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약이’를 ‘수락(水落)’으로 적은 것은 ‘무내기’를 ‘물(水)+낙(落)+이’로 보았기 때문이다.

#### 물레방아거리 [마을]

**[위치]** 벌무내기 마을과 덕고개 사이, 현 동수1교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골무내기에서 내려오는 반계천의 물을 이용하는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레방아거리라고 하였다.

#### 물레방아거리들 [들]

**[위치]** 물레방아거리 남쪽 앞, 웃모통이 마을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밀개울골 [골]

**[위치]** 하들 남쪽 끝, 밀개울들 북쪽 위에서 북동쪽 351m 봉과 370m 밤산(송삼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퇴골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밀개울들 [들]

**[위치]** 밀개울골 입구에서 남쪽 아래 반계저수지 위까지 난 들을 말한다. 반계저수지 최상류에 있는 들이다. 위로는 하들과 이어져 있다.

#### 반계리도요지 [터]

**[위치]** 밤산골과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경계에 있던 도요지 터를 말한다.

**[내용]** 네 군데의 도요지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백자편이 다량 노출되어 있고 모양도 다양하다. 일제강점기까지 사기장이 있었다고 한다.

#### 반계리은행나무 [나무]

**[위치]** 은행나무골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67호 은행나무를 말한다. 반계초등학교 북서쪽, 42번 여원로의 남동쪽에 있다.

**[유래]** 옛날 한 도사가 이곳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는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고 간

것이 자란 것이라고 한다. 나무속에는 큰 백사가 살고 있어서 아무도 자르지 못하는 신목(神木)으로 가꾸어 왔다고 전한다. 나무가 일시에 단풍이 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고, 서리가 내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시에 잎이 다 떨어진다고 한다. 약 200년 전 화재를 당했으나 지금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내용]** 높이 37m, 둘레 18.5m, 면적 100평으로, 수령은 약 1,0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1929년 조선총독부에서 현지조사 후 거목대장(巨木臺帳)에 기재하였다.



「반계리 은행나무 : 2019년」

## 반계저수지 [못]

**[위치]** 구천봉 남쪽, 무내기 북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반계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1958년에 건립되었다. 여주시 강천면과 성상봉 쪽의 물이 이곳에 모인다. 저수지 남쪽의 넓은 들에 물을 대고 섬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반계저수지 : 2019년」

## 반계천(磻溪川) [내]

**[위치]** 반계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며, 골무내기와 벌무내기를 지나 섬강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내용]** 반계저수지 위의 내를 원심천, 아래의 내를 반계천으로 부르기도 하고 위와 아래를 합쳐서 원심천으로 부르기도 한다.

## 반저리 [마을]

**[위치]** 반계저수지 동쪽 아래, 원주문막농공단지 서쪽, 원문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반계리의 중심 마을로 반계초등학교와 반계리은행나무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반절이(磻溪)’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반계리(반저리)’라 하였다.

**[유래담]** 건등산에 있던 고려 태조 왕건의 건승비를 서울로 옮겨가던 중 이 마을 앞에서 떨어져 반으로 부러졌으므로 ‘반절+이>반절이>반저리’라 하였다고 한다. ‘반저리’를 소리를 따라 한자로 ‘반계리(磻溪里)’라 하였다.

## 밤산 [산]

**[위치]** 구천봉 북쪽, 취병리 성상봉 남쪽에 있는 높이 370m의 산을 말한다. 동쪽 아래에 취병리의 골새터 ‘큰절골’이 있고 북서쪽 아래에는 ‘밤산골’, 남서쪽 아래에는 ‘밀개울골’이 있다. ‘송삼봉(松三峰)’, ‘송상봉(松上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송상봉(송삼봉)’이라 하였다.

**[유래]** 밤산골 동쪽에 있으므로 ‘밤산’, 봉우리가 세 개이므로 ‘송삼봉’이라고 하였다.

## 밤산골 [골]

**[위치]** 반계저수지 북쪽 위, 성상봉 서쪽 아래 계곡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탑전봉과 성상봉 사이에서 북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이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는 취병리 진밭골이 있다. 『1917년지적도』에 ‘율선곡(栗仙谷)’이라고 하였다.

## 밤산골 [마을]

**[위치]** 반계저수지 북쪽, 성상봉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큰밤산골’과 ‘작은밤산골’이 있다. ‘밤상골’, ‘방상골’로 부르기도 한다. 한자로는 ‘울동(栗洞)’이라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울동(栗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밤상골(울동)’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산마다 ‘밤나무’가 많고,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다는 ‘산골’이 나므로 두 이름 가운데 ‘밤’과 ‘산’을 합하여 ‘밤산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밤산골 마을 서쪽 개울이 경기도 여주시와 경계이다. 여주 땅인 탑전동에서 내려오는 ‘원심천(탑전천, 塔前川)’이 밤산골에서 내려오는 내와 마을 앞에서 합수한다. 이곳 사람들이 북서쪽의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탑전동 앞의 들을 소유하고 있어 일을 하러 가기도 하므로 행정권은 다르지만 동일 생활권이다.

**밤산골 웅기점** [터] → 반계리 도요지

**[위치]** 밤산골에 있는 가마터를 말한다.

**[내용]** 밤산골에 모두 네 군데의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두 군데는 밤산골 안 옥수골에서, 하나는 밤산골 마을 위에서, 나머지 하나는 밤산골 상류 증골에서 발견되었다.

**밤상골** [골] [마을] → 밤산골

**밤하들** [들] → 하들

**방상골** [골] [마을] → 밤산골

**배나무거리** [들] → 천년앞들

**[유래]** 이 들에 배나무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천년앞들(배나무거리)’라 하였다.

**배시러니** [들] → 배시러이들

**버덩마을** [마을] → 연화동

**벌무내기** [마을]

**[위치]** 무내기 마을 중 들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골무내기 남쪽, 42번 여원으로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수락(坪水落)’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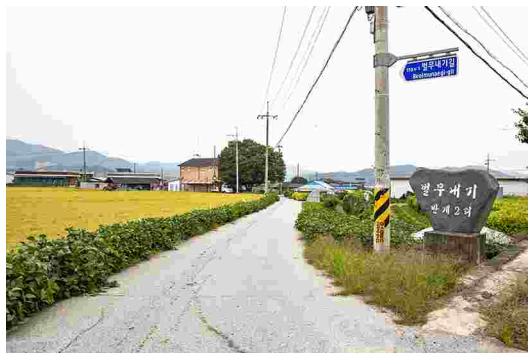
자료』에 ‘벌문약이(坪水落)’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벌무내기(평수락)’라 하였다.

**[유래]** 무내기 마을 중 들판에 있다고 하여 ‘벌무내기’라 하였다. 골무내기를 ‘동수락(洞水落)’이라고 하고 벌무내기를 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평수락(坪水落)’이라고 하였다.

**[풀이]** ‘벌(坪)+물(水)+나(出)+기>벌물내기>벌무나기>벌무내기’가 되었다.



「벌무내기 마을 ; 1971년」



「벌무내기 마을 ; 2019년」

**배시러이내** [내]

**[위치]** 골산골에서 동쪽으로 골무내기를 거치고 배시러이들을 지나 반계천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베실은나니(仕雲川)’라고 하였다.

**[내용]** 지금 이 내는 골무내기에서 동쪽으로 배시러이들을 지나 직선으로 반계천에 연결되어 있다. 원래는 골무내기에서 남쪽과 서쪽으로 현 42번 여

원로를 따라 별무내기 뒤를 거쳐 대둔리 앞에서 섬강에 합류하던 내로 골무내기와 별무내기의 들판을 모두 거쳐 지났다.

#### 베시런이들 [들]

**[위치]** 골무내기 남쪽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벼시름들’, ‘배시러니’, ‘상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사운들(仕雲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시러니’라 하였다.

**[풀이]** 벼가 싹하게 잘 되는 들이므로 ‘벼실한들> 벼시런들>베시런이들’이 되었다. ‘배시런’, ‘벼시름’은 음운 변천에 의한 것이다.

#### 벼시름들 [들] → 베시런이들

#### 복갯다리 [다리] → 동수교

#### 사기막골 [골]

**[위치]** 큰 밤산골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절이 있다.

**[유래]** 도자기를 구운 곳으로 지금도 자기 파편이 나오고 있다.

#### 사운들 [들] → 베시런이들

**[내용]** 『조선지지자료』에 나오는 이름이다. ‘仕雲川’을 ‘베실은니니’라고 하였으므로 ‘사운들(仕雲坪)’은 ‘베시런이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사자고개 [고개]

**[위치]** 사자골 마을에서 남쪽으로 넘어사자골을 넘어, 남서쪽 대둔리 사자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승지봉 남동쪽에 있는 170m의 고개이다.

#### 사자골 [골]

**[위치]** 섬강 변 대둔리 사자골에서 북쪽으로 사자고개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사자골에서 북쪽으로 반계리의 ‘사자고개’를 넘으면 ‘넘어사자골’이 있고 넘어사자골 입구에 ‘사자골’ 마을이 있다. ‘사작골’, ‘사작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작골’이라 하였다.

**[유래]** 사자골을 한자로 ‘사자곡(沙瓷谷)’으로 쓴 것

으로 보아 웅기점과 웅기 굽는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사자골은 섬강 변의 대둔리 사자골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반계리의 사자고개를 넘어 반계저수지 최상류까지 연결되는 골짜기이다. 사자고개부터는 반계리 지역인데 고개 북쪽의 골짜기를 넘어사자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자골은 대둔리 쪽이 주된 골짜기임을 알 수 있다. 대둔리 쪽에 사자골이 있고 현 반계리 쪽에 사자고개, 넘어사자골, 사자골 마을이 있으며 사자고개에서 도둑골 넘어 여주시 강천면에도 사자골이 있어 사자골이란 이름이 이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자골 [마을]

**[위치]** 사자고개 북동쪽 아래, 넘어사자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반계저수지 북쪽 끝, 입송골 위, 멀개울들 서쪽에 있다.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 사자골산 [산]

**[위치]** 골무내기 서쪽 골산골 끝에서 남서쪽에 있는 314.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대둔리 도둑골 동쪽 위에 있는 봉우리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사제곡산(沙堤谷山)’이라 하고 동수락에 있다고 하였다.

#### 사자골 앞들 [들]

**[위치]** 반계저수지 사자골 마을 바로 앞 입송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사작골 [골] → 사자골

#### 사작골 [골] → 사자골

#### 산골 [골]

**[위치]** 골무내기 마을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골산골이 이어진다.

#### 삼이마니골 [골]

**[위치]** 반계저수지 위에서 동쪽으로, 구천봉을 향

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산삼이 많이 나므로 삼이마니골이라 한다.

#### 상들(上-) [들]

**[위치]** ‘베시런이들’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지 자료』에 ‘사운들(仕雲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곡식이 알이 짝 차고 깨끗해서 상품의 쌀이 생산되므로 ‘상들’이라고 하였다.

#### 샛강 [내]

**[위치]** 물구비 서쪽 강 건너, 쪽섬 상류에서 현 반계초등학교 앞에까지 갈라져 흐르던 섬강의 지류를 말한다.

**[내용]** 섬강과 샛강 사이에 ‘쪽섬’이 생겼고 샛강 옆에 ‘연화동’이 있으며 샛강 끝에 ‘넓은소’가 있었다. 샛강을 메워 현재의 공단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쪽섬의 넓이가 약 20만평, 샛강의 넓이가 약 10만평, 넓은소가 약 3,000평이었다고 한다.

#### 서낭당골 [골]

**[위치]** 골무내기 뒤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낭당골’이라 하였다.

#### 서너지골 [골]

**[위치]** 밤산골 마을의 동쪽 뒷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신경통과 관절에 좋다는 ‘산골’이 나는 골짜기이다.

#### 석장골 [골]

**[위치]** 덕고개에서 북서쪽으로 156.5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삼성전자원주 물류센터가 들어섰고 골 중간으로는 42번 여원로가 지나가고 있다.

#### 선낭덕골 [골]

**[위치]** 천이납들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42번 여원로와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 섬들 [들]

**[위치]** 옛 쪽섬의 남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군들 남쪽에 있던 들이다. 현 원주문막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 성상봉 [산]

**[위치]** 반계저수지 북쪽, 밤산골 동쪽에 있는 높이 386.5m의 산을 말한다. 관위산 남쪽, 구천봉 북쪽에 있다. 동쪽 취병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조양산(朝陽山)’이라고도 한다.

#### 송삼봉(松三峰) [산] → 밤산

#### 송상봉(松上峰) [산] → 밤산

#### 승지봉 [산]

**[위치]** 사자고개 북서쪽, 사자골 마을 남서쪽에 있는 높이 414.1m의 산을 말한다. 경기도 여주시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너머에는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의 캐슬파인 골프장이 있다.

#### 아래섬 [섬]

**[위치]** 쪽섬이 옛날 샛강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섬의 남쪽 아래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 안들 [들]

**[위치]** 반저리 마을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안정골에서 남쪽 반계초등학교에 이르는 넓은 들이다.

#### 안장골 [마을] → 안정골

#### 안정곡(安靜谷) [마을] → 안정골

#### 안정골 [골]

**[위치]** 안들에서 북서쪽으로, 구천봉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반저리 마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옛 안정사 절터가 있다.

#### 안정골 [마을]

**[위치]** 안정골 입구, 작배기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장골’, ‘안장곡’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 자료』에 ‘안정골(安靜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안정골(안정곡)’이라 하였다.

**[유래]** 옛 안정사(安靜寺)가 있었으므로 안정골이라 하였다.

#### 안정사터(安靜寺-) [터]

**[위치]** 안정골 마을 북서쪽, 은아박골 입구에 있던 절터를 말한다.

**[내용]** 절의 연혁은 알 수 없으나 경작지로 변한 절터에는 기와편과 도자기편이 흩어져 있다. 마을 주민들은 예전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고 말한다.

#### 앞들(1) [들]

**[위치]** 사자골 마을 앞 원심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앞들(2) [들]

**[위치]** 벌무내기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앞들 남쪽 강변으로 강개들이 이어진다.

#### 앞들(3) [들]

**[위치]** 반저리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마을과 셋강 사이에 있던 들이다.

#### 앞들(4) [들]

**[위치]** 작배기 앞, 연화동 뒤쪽의 들을 말한다.

#### 앞들(5) [들]

**[위치]** 밤산골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언배미 [들]

**[위치]** 안정골 위, 은아박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안정사터 위에 있는 들이다.

**[유래]** 연못이 있으므로 언배미라 하였다. ‘배미’는 논을 세는 단위이고 ‘언(堰)’은 못둑을 뜻한다.

**[내용]** 이곳 토질이 좋아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반계리의 최상품이었다고 한다.

#### 연화동(蓮花洞) [마을]

**[위치]** 작배기 남동쪽, 옛 쪽섬을 가르는 셋강 북서쪽 옆에 있던 마을이다. 현 반계IC 남동쪽에 있던 마을로, 마을이 있던 자리에 세아메탈원주2공장이 들어서 있다. ‘버덩마을’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연화동(蓮花洞)’이라 하였다.

**[유래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라고 하여 연화동으로 불렸다고 한다.

#### 연화들 [들]

**[위치]** 연화동 마을 북쪽과 동쪽, 남쪽에 둘러 있던 들을 말한다.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에 모두 편입되었다.

#### 옥수골 [골]

**[위치]** 밤산골 마을 북쪽 위에서 성상봉을 향하여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끝에 매네미고개가 있고 그 고개 너머에 취병저수지가 있다.

**[유래담]** 옛날 옥수골 마을 위의 큰 바위에 신선이 내려와 통소를 붙여 ‘옥통소골’로 부르다가 ‘옥소골>옥수골’이 되었다고 한다.

#### 옥수골 [마을]

**[위치]** 옥수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내용]** 마을 두 군데의 옛 도요지에서 청자 및 도기류가 발견되었다.

#### 옥통소골 [골] → 옥수골

#### 우렁박골 [골]

**[위치]** 사자고개 남쪽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승지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둔리 사자골에서 사자고개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다.

#### 웃모퉁이 [마을]

**[위치]** 벌무내기 북동쪽, 물레방아거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원심천(遠深川) [내]

**[위치]** 반계저수지 위에 있는 내를 말한다. 여주시 강천면 갈번대기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쪽 도전리에서 당산 서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합하고 도전삼거리에서 남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탑전동을 지나 밤산골에서 증골의 물길을 합한 후 다시 남으로 흘러 반계저수지에 들어가는 내이다.

**[유래]** 당산 남쪽 계곡의 원심동을 지나오므로 원

심천이라 불린다. ‘원심이’는 원주 지역 천주교가 일찍 전파된 오래된 마을이다.

**[내용]** 반계저수지 위의 내를 ‘원심천’, 아래의 내를 ‘반계천’으로 부르기도 하고 위와 아래를 합쳐서 ‘원심천’으로 부르기도 한다.

#### 윗섬 [섬]

**[위치]** 쪽섬이 옛날 샛강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섬의 북쪽 윗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 율동(栗洞) [마을] → 반산골

#### 은아박골 [골]

**[위치]** 안정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 안정골의 큰 부자가 이 골짜기에 은(銀) 아홉 항아리를 묻었다고 해서 ‘은아박골’이라고 하였다 한다. 밭으로 된 절터에는 옛날 기와 파편들이 출토되고 있다. 주민들은 부잣집이 있던 터라고 말한다. 마을 앞 군들(구은평, 九銀坪)과 은아박골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 은행나무골 [골]

**[위치]** 반저리 마을 뒤에서 북서쪽으로 구천봉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42번 여원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반계리은행나무가 있는 골짜기이므로 은행나무골이라 하였다.

**[내용]** 반계리은행나무는 수령 약 1,000년으로 천연기념물 제167호이다. 나무에 흰 뱀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

#### 이지매기 [골]

**[위치]** 작배기 마을 동쪽, 현 현대자동차출고센터에서 북서쪽 140.1m 봉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이진맥이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골짜기 야산에 옛날부터 황계수탉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황계수탉이 황계(黃鷄)이므로 작배기가 ‘금반향(金盤鄉)’으로 불린 근거

라고도 한다.

#### 이진맥이골 [골] → 이지매기

#### 입송골 [골]

**[위치]** 반계저수지 최상류 입구에서 북쪽으로 원심천을 따라 하들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퇴적된 흙으로 쌓여져 있어서 때로는 농사를 짓기도 한다.

#### 작배기 [마을]

**[위치]** 안정골에서 북쪽 낮은 고개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재백’, ‘잿배기’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작백(爵伯)’, ‘작백동’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금반향(金盤鄉)’으로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잿배기(재백)’라 하였다.

**[유래]** 잿나무가 있었으므로 ‘잿배기>작배기’라 하였다. 또는 작백(爵伯) 벼슬할 사람이 나올 곳이라고 해서 작배기라 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작백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작백(爵伯)’으로 적고 이를 다시 풀이한 것이다.

**[내용]** 마을 앞을 여원로와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마을에 이오스하이텍 등 공장이 들어서서 마을은 일부만 남아있다. 마을 동쪽 옆으로는 현대자동차출고센터, 진성자동차정비소 등이 들어서서 공장지대가 되었다. 마을이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옛날 장마 때 고립된 쪽섬 주민들을 미군이 헬기로 이 마을에 대피시키기도 하였다.

**[풀이]** ‘백이, 배기’는 ‘차들배기, 장승배기’처럼 무엇이 박혀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잿나무가 박혀 있어서 ‘잿+박+이>잿박이>잿백이>잿배기>작배기’로 변천한 것으로, ‘잿골’이 ‘작골’로 음운 변천하였고 이를 음차하여 ‘작백(爵伯)’이라 하였다.

#### 작배기들 [들]

**[위치]** 작배기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작배기우물 [샘]

**[위치]** 작배기 마을에 있던 샘을 말한다. 마을 형성 초기에 판 것인데 지금은 폐쇄되었다.



**작백(爵伯)** [마을] → 작배기

**작백동(爵伯洞)** [마을] → 작배기

**작은밤산골** [마을]

**[위치]** 밤산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큰밤산골 아래에 있다.

**작은사자골** [마을]

**[위치]** 사자골 마을에서 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잔골** [골]

**[위치]** 반저리 동쪽, 안정골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은행나무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앞에 '안들'이 펼쳐져 있다.

**[유래]** 골이 작으므로 '잔골'이라 하였다.

**재백** [마을] → 작배기

**전나무거리** [들]

**[위치]** 웃모퉁이 마을 동쪽 반계천과 섬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전나무거리'라 하였다.

**[유래]** 전나무가 있어서 전나무거리라 하였다.

**조양산(朝陽山)** [산] → 성상봉

**즘골** [골]

**[위치]** 밤산골 위에서 큰밤산골 입구를 지나 다시 북서쪽으로, 관위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입구에 옛 가마가 있었으므로 '점골>즘골'이 되었다.

**쪽섬** [마을]

**[위치]** 반저리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반저리 남동쪽, 반계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도(藍島)'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쪽섬(남도)'이라 하였다.

**쪽섬** [섬]

**[위치]** 쪽섬 마을 남동쪽에서 문막교 남쪽에 이르

기까지 현 공단이 들어선 전체 지역이 섬이었고 그 양쪽을 강이 흘렀는데 마을 앞으로는 샛강이 흘렀다. '남도(藍島)', '남도동(藍島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쪽섬(藍島)'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쪽섬(남도)'이라 하였다.

**[유래]** 샛강에 있는 '넓은소'의 물빛이 쪽빛처럼 진 하였으므로 쪽섬이라 하였다.

**[내용]** 섬의 넓이는 약 20만평이었다고 한다. 현재 섬 전체가 원주문막농공단지와 원주문막일반산업단지가 되었다. 섬의 북쪽 끝은 물구비 서쪽 강 건너였고 남쪽 끝은 쪽섬 마을 남동쪽 앞 터앞들이었다. 섬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길게 생겨서 섬의 각 지역을 윗섬, 가운데섬, 아래섬으로 구분하여 불렀다.



「문막농공단지 ; 1994년」

**천년앞들** [들]

**[위치]** 반계리 벌무내기 마을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무내기휴게소 남동쪽 앞에 있는 들이다. '배나무거리', '천연이들', '천이납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천연이들(泉連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천년앞들(배나무거리)'이라 하였다.

**천연이들** [들] → 천년앞들

**천이납들** [들] → 천년앞들

**충효사(忠孝祠)** [당]

**[위치]** 문막읍 반계3리 78번지, 골무내기 동쪽에

있는 충효공 황무진(黃戊辰)을 봉안한 곳이다.

**[내용]** 황무진의 본관은 창원이고, 자는 자룡, 호는 벽룡담이다. 효성이 지극해 하늘이 낸 효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사한 김창일·관설 허후 등과 의병활동도 하였다. 황무진의 전설과 관련된 지명으로 봉산동 ‘무진고개’, 문막읍 동화리의 ‘지루네미’, ‘호랑이돌머리’ 등이 있다.



「충효사 ; 1966년」



「충효사 ; 2019년」

### 큰밤산골 [골]

**[위치]** 밤산골 마을에서 북쪽 옥수골 입구를 지나 관위산 능선을 향하여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옥수골 입구 맞은편 북쪽에 있다.

**[내용]** 골짜기 서쪽은 관위산에서 남쪽으로 뺀 산줄기로 막혀 있는데 그 산줄기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이다.

### 큰밤산골 [마을]

**[위치]** 큰밤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탑대(塔臺) [터]

**[위치]** 밤산골 마을 북동쪽 위 골짜기의 탑이 있던 터를 말한다. 현재 탑의 기단만 남아있다.

**[유래]** 탑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탑대(塔臺)라고 하였다.

**[내용]** 5층 석탑이 있었는데 1943년경 일본인들이 반출해 갔다고 한다. 일설에는 이 탑을 옆 동네인 여주 도전리 탑전동에서 사갔다고도 한다.

### 탑전봉(塔前峰) [산]

**[위치]** 큰밤산골 서쪽, 관위산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263.4m의 산을 말한다. 산 너머는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탑전 마을이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밤산골 북서쪽의 이웃마을인 여주 탑전동 동쪽에 있으므로 탑전봉이라 한다.

### 터앞들 [들]

**[위치]** 덕고개 남쪽 산 아래, 반계천 동쪽에 있는 강변의 들을 말한다. 옛날 쪽섬이 있을 때 한 쪽 물줄기가 옆을 지나며 들이 발달하였다.

### 평수락(坪水落) [마을] → 벌무내기

### 풍월봉(風月峰) [산]

**[위치]** 반계저수지 동쪽, 구진뱅이들 북쪽에 있는 높이 167.3m의 봉우리를 말한다. 북쪽 구천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풍월봉’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신선이 내려와 풍월을 읊었다고 하여 풍월봉이라 한다.

### 하들(下-) [들]

**[위치]** 밤산골 남쪽 아래, 한섬지기들 밑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원심천을 따라 길게 내려가 밀개울골 앞에서 밀개울들과 이어진다. ‘밤하들’이라고도 한다.

**[유래]** 밤산골 아래에 있으므로 ‘밤하들’, ‘하들’이라고 한다.

### 한섬지기들 [들]

**[위치]** 밤산골 남쪽 앞들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쌀이 한 섬 정도 나온다고 해서 한섬지기라고 한다.

### 호랑바우 [바위]

**[위치]** 쪽섬의 동산 아래에 있던 호랑이 모습을 한 바위를 말한다.

### 황무진묘 [묘]

**[위치]** 골무내기의 충효사에서 산 쪽으로 있다.

**[내용]** 묘에는 상석과 축대 2기, 최근에 세운 무인석 2기, 묘비가 있다. 묘비는 1916년에 세운 것으로 조순(趙純)이 글을 짓고 이병석(李炳奭)이 글씨를 썼다.



「황무진 묘소 ; 2016년」

## 비두리(碑頭里)

### [위치]

비두리는 문막읍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흥업면 매지리, 남동쪽으로는 귀래면 귀래리, 서쪽으로는 부론면 손곡리, 북쪽으로는 궁촌리와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 미내면(彌乃面)의 1리·2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지역을 병합하여 비두리(碑頭里)라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비두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비두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비두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부론면 정산리 거돈사 원공국사탑비의 비두(碑頭)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고개를 넘어 돌을 옮겨갔다고 해서 ‘비두넘이>비두네미’ 또는 ‘비두골’이라 하였고, 후에 ‘비두리’로 부르게 되었다.

### 가마골 [골]

**[위치]** 봉두개울에서 입석천을 따라 선돌 마을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가막골’이라고도 한다. 현재 대안로가 지나가고 있다.

### 가막골 [골] → 가마골

### 감투바위 [바위]

**[위치]** 영산재 동쪽, 절골(2)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감투바위’라 하였다.

**[유래]** 큰 바위 위에 감투모양의 또 다른 바위가 얹혀 있어서 감투바위라 한다.

### 감투바위골 [골]

**[위치]** 영산재 동쪽 안, 감투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개싸리들 [들]

**[위치]** 비두네미 마을 남서쪽, 도로와 궁촌천 사이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 거느리골 [골] → 거니골

### 거니골 [골]

**[위치]** 봉두개울과 사흥 중간에서 내 건너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는 서쪽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진다. 고개 너머는 방아실 골짜기의 서쪽 끝이다.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다. ‘건너골’, ‘거느리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느리골’이라 하였다.

**[유래]** 봉두개울 건너의 골짜기에 있으므로 ‘건너골’ ‘거느리골’, ‘거니골’이라 하였다.

### 거먹바위 [바위]

**[위치]** 방아실골 계곡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건너골(1) [골] → 거니골

### 건너골(2) [골]

**[위치]** 먹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궁촌리 지처골, 다락골이 있다.

### 건너말 [마을]

**[위치]** 구포동 마을 중 북쪽 터도래골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검은들 [들] → 먹골들

### 검은들교 [다리]

**[위치]** 비두네미 앞에 있는 궁촌천의 다리를 말한다. 먹골들 남쪽에 있는 다리이다.

### 계임들 [들] → 기름장들

### 계름장들 [들] → 기름장들

### 고디기재 [고개] → 대수리고개

### 고작이골 [골]

**[위치]** 구포동 절골(1)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절골(2)가 이어진다.

### 곡촌(谷村) [마을] → 골말

### 골말 [마을]

**[위치]** 골말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예전에는 10세대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곡촌(谷村)’이라고도 한다.

### 골말골 [골]

**[위치]** 사흥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는 입석천이 흐르는 가마골이 있다.

### 골말구렁들 [들]

**[위치]** 골말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사흥 남쪽, 봉두개울 북쪽 사이에 있는 들이다.

### 괴나무터골 [골]

**[위치]** 봉두개울 남서쪽 위, 현 방아실 마을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방아실골 입구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괴나무터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큰 괴나무(괘나무)가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구라우들 [들]



**[위치]** 비두네미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장승골과 양지편들 사이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라우들’이라 하였다.

#### 구라우보 [보]

**[위치]** 구라우 들에 딸린 궁촌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라우보’라 하였다.

#### 구포골 [마을] → 구포동

#### 구포동(九浦洞, 九包洞) [마을]

**[위치]** 비두네미 마을 북동쪽 계곡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건너말이 있다. ‘구포골’, ‘구포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구포동(九抱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포동(九浦洞, 구포리)’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까지 아홉구비의 내를 돌아들어가므로 구포동이라고 하였다. 또는 아홉 집만 잘 되고 열 집만 되어도 한 집은 망한다고 하여 구포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 구포동재 [고개]

**[위치]** 선돌 앞말에서 북서쪽으로, 구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90m이다. 『조선지리지』에 ‘구포지(九抱山)’라고 하였다.

#### 구포동재골 [골]

**[위치]** 선돌 앞말에서 서쪽으로 33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구포동 앞골이 있다.

#### 구포동천(九浦洞川) [내] → 영산천(1)

#### 구포리(九浦里) [마을] → 구포동

#### 굴바우 [마을]

**[위치]** 봉두개울 마을 동쪽, 입석천이 흐르는 가마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궁촌천(宮村川) [내] → 궁촌리 궁촌천

**[위치]** 동쪽 귀래면 백운계곡에서 시작하여 귀운궁촌저수지를 지나고 비두리와 궁촌리를 지나 포진리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봉두개

울’이라고도 한다.

#### 기름장들 [들]

**[위치]** 비개산 남쪽, 사흥 북쪽에 있는 궁촌천 옆의 들을 말한다. 목골천 입구에 있는 들이다. ‘계름장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계임들(鷄林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아 벼농사가 잘 되는 옥답이므로 ‘계름장들’, ‘기름장들’이라고 한다.

#### 길마재 [고개] → 질마재

#### 난솔골(1) [골]

**[위치]** 덕바당들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시은동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난솔골(2) [골]

**[위치]** 구포동 뒀양지골에서 북동쪽으로, 대수리고개를 향하여 다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난솔구령 [골] → 난솔들

#### 난솔들 [들]

**[위치]** 난솔골(1)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난솔구령’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난솔들(蘭松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난솔구령’이라 하였다.

#### 넙은터 [들]

**[위치]** 무태골 서쪽 아래, 비개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보들 동쪽, 영산천 남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넙은터들’이라고도 한다.

#### 넙은터들 [들] → 넙은터

#### 노루재 [고개]

**[위치]** 선돌에서 북동쪽 흥업면 대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덕가산 북서쪽, 대수리고개 남동쪽에 있다. 고개 높이는 310m로 현 대안로가 나 있다. ‘노루치’, ‘노루치재’, ‘노리재’, ‘노리치재’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장치(獐峙)’, ‘장현(獐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노루치지(獐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노루재(장

치)’라 하였다.

**[유래담]** 노루가 많이 살았으므로 노루재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지형이 노루처럼 생겨서 노루재라 하였다고도 한다.

**노루치** [고개] → 노루재

**노루치재** [고개] → 노루재

**노리재** [고개] → 노루재

**노리치재** [고개] → 노루재

**노리치재골** [골]

**[위치]** 재밑 마을에서 북쪽 노루재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를 따라 대안로가 나 있다.

**농바우골** [골]

**[위치]** 선바우골에서 북동쪽으로, 선돌마을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안로가 지나가고 있다.

**네티나무뒷골** [골]

**[위치]** 넓은터에서 영산천 건너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시은동산 동쪽 아래 골짜기이다.

**능골** [골]

**[위치]** 중보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왕릉과 같은 큰 능이 있어 능골이라 한다.

**당뿔들** [들]

**[위치]** 비두초등학교에서 서쪽 내 건너편에 있는 들을 말한다.

**대수리고개** [고개]

**[위치]** 절골 서쪽, 구포동 북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동쪽으로 흥업면 대안리 대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높이는 475m이다. ‘고디기재’라고도 한다.

**덕가산(德加山)** [산]

**[위치]** 비두리 북동쪽에 있는 높이 700.5m의 산을 말한다. 비두리와 흥업면 매지리, 귀래면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대송산(大松山)’, ‘덕봉

산’, ‘덕화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가산(德加山)’이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다. 한국전쟁 때 교전이 치열했던 곳으로 국군이 큰 승리를 거둔 곳이라고 한다.

**덕바당들** [들]

**[위치]** 개싸리들에서 동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들 북동쪽으로 ‘난솔골’이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덕바당이들’이라 하였다.

**덕바당이들** [들] → 덕바당들

**덕봉산(德峰山)** [산] → 덕가산

**덕화산** [산] → 덕가산

**된양지골** [골]

**[위치]** 구포동에서 북동쪽으로, 469m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둔터골** [골]

**[위치]** 장승골 서쪽 내 건너에서 남서쪽으로 상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똥골** [골]

**[위치]** 구라우들 서쪽, 궁촌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똥말** [마을]

**[위치]** 선돌마을 중 동쪽, 산 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듬배보** [보]

**[위치]** 사흥 밑에 있는 궁촌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듬배보’라 하였다.

**디덜바우** [바위]

**[위치]** 방아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디덜바우’라 하였다.

**뽕엄바우** [바위]

**[위치]** 비두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뽕엄바우’라 하였다.

**[유래]** 이 바위에서 장정들이 뛰엄 내기를 한다고 해서 뛰엄바우라 하였다.

#### 마구할미바위 [바위]

**[위치]** 구포동 북쪽, 절골(2)의 절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큰 바위 가운데가 석고를 뜯 것처럼 사람의 신체 형상이 파여져 있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거기에 맞추어 보곤 한다고 한다.

#### 마른골 [골]

**[위치]** 구포동 건너말 서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매봉골 [골]

**[위치]** 선바우골 내 건너 서쪽 맞은편에서 매봉재를 향하여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매봉재 [산]

**[위치]** 사흥 북동쪽, 선돌마을 남서쪽에 있는 높이 267.1m의 산을 말한다. ‘응봉산’이라고도 한다.

#### 매봉재골 [골]

**[위치]** 선돌 앞말에서 북쪽 357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서 구포동재골이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 먹골 [골]

**[위치]** 석샘이들에서 동쪽 도로 건너,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건너골(1)이 갈라져 나가고 골 끝에서 문연막골이 이어진다. 현재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 먹골들 [들]

**[위치]** 먹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비두초등학교에서 남쪽 석샘이들까지 이어진 들이다. ‘검은들’, ‘묵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묵들(墨坪)’이라고 하였다.

#### 먹골천 [내]

**[위치]** 비개산 북동쪽, 매봉재(288m)의 서쪽 계곡에서 시작하여 남서로 흐르며 기름장들에서 궁촌

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 무태골(1) [골]

**[위치]** 구포동 절골(1) 중간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무태골(2) [골]

**[위치]** 넓은터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웅주고개골이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 묵들 [들] → 먹골들

#### 문연막골 [골]

**[위치]** 먹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353m 봉우리를 향하여 다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 바거리 [마을] → 방아거리

#### 바듬이골 [골]

**[위치]** 중보들 남쪽 끝에서 내 건너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절터골이 갈라져 나간다.

#### 방아거리 [마을]

**[위치]** 방아실골 입구, 괴나무터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바거리’라고도 한다.

**[유래]** 방아실골에서 살던 화전민들이 화전이 금지되자 산에서 내려와 형성된 마을이다.

#### 방아실 [마을]

**[위치]** 방아실골 안, 서지재(방아실고개)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방화실(芳花實)’이라고도 하고 ‘용곡(叢谷)’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아실(용곡)’이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디딜방아같이 생겼으므로 방아실이라 하였다. 또는 여러 종류의 향기로운 꽃이 피므로 방화실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마을 동쪽으로 귀운저수지 아래까지 대규모 공원묘역이 들어서 있다.

**[풀이]** ‘방아실’이란 지명은 길이 갈라져 Y자로 된 지형에 붙는 지명이다. 이곳은 궁촌천의 물길이 귀

래리 양아치 쪽과 방아실골 쪽이 갈라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남쪽 서지재로 연결되는 깊은 골짜기였으나 지금은 대규모로 채석장이 들어섰다.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소리로는 ‘방화실(芳花實)’이라 하였고 뜻으로는 ‘용곡(叢谷)’이라 하였다.

**방아실고개** [고개] → 서지재

**[유래]** 비두리의 방아실과 손곡리의 방아실 마을을 연결하므로 방아실고개라고 한다.

**방아실골** [골]

**[위치]** 방아실에서 남서쪽으로 서지재에 이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1960년대 이 골짜기에 각 지방에서 화전민들이 몰려와 불을 놓아 화전을 일구었으므로 ‘불탕골’이라고도 하였다.

**방아실천** [내]

**[위치]** 서지재(방아실고개)에서 방아실골을 따라 북동쪽으로 흘러 방아실 앞을 흐르는 내를 말한다. 방아거리 앞에서 궁촌천에 합류한다.

**방화실(芳花實)** [마을] → 방아실

**[풀이]** ‘방아실’의 소리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버덩말** [마을]

**[위치]** 영산천(1)(구포동천)이 궁촌천에 합류하는 곳으로 개싸리들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비두리마을회관과 보건진료소가 있는 비두리의 중심마을이다. ‘큰말’이라고도 한다.

**번더골** [골]

**[위치]** 당뒷들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만디골이 있다.

**번말** [마을] → 본말

**벼락뼉에들** [들]

**[위치]** 중보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좁고 긴 들을 말한다. 바듬이골 북쪽 아래에 붙어있는 들이다.

**본말** [마을]

**[위치]** 사흥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번말’이라고

도 한다.

**[유래]** 비두2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므로 ‘본말’이라고 한다.

**봉개들** [들] → 봉두개울들

**봉두개울** [내] → 궁촌천

**[위치]**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궁촌천을 이곳에서는 ‘봉두개울’로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봉두기(奉大川)’라고 하였다.

**[유래]** 귀래에서 내려오는 궁촌천과 선돌에서 내려오는 입석천이 합류하면서 물살이 산봉우리(峰頭)처럼 솟구치므로 봉두개울이라 하였고 이것이 이곳 마을 이름이 되었다.

**봉두개울** [마을]

**[위치]** 사흥 남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궁촌천과 입석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두개울’이라 하였다.

**[유래]** 봉두개울 옆에 마을이 들어서서 개울 이름이 곧 마을 이름이 되었다.



「봉두개울 마을 : 2019년」

**봉두개울들** [들]

**[위치]** 사흥 서쪽 봉두개울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한가운데 콘크리트공장이 들어와 있다. 『조선지리지』에 ‘봉기들(奉介坪)’이라고 하였다.

**봉대골** [골]

**[위치]** 비두네미 개싸리들 서쪽 내 건너에서 남서쪽으로, 상봉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둔터골 남쪽에 있다. 골 중간에서 큰골이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 북바위 [바위]

**[위치]** 영산재 바위산 길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두 바위 사이에 끼인 바위가 있어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므로 북바위라 한다.

#### 불탕골 [골] → 방아실골

#### 비개산 [산]

**[위치]** 비두네미 남동쪽, 사흥 북쪽에 있는 높이 202.2m의 산을 말한다. 먹골천의 발원이 되는 산이다. ‘빅개산’, ‘빗개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빅계산’이라 하였다.

#### 비두골 [마을] → 비두네미

#### 비두네미 [마을] → 비두네미

#### 비두너미 [고개] → 비두네미

#### 비두네미 [고개]

**[위치]** 비두네미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비두네미골을 지나 부론면 손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75m이다. ‘비두네미고개’, ‘비두리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비두리재’라 하였다.

**[유래]** 이곳에서 돌을 채취해 부론면 정산리 거둔사로 비두를 옮겨갔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비두+님+이>비두님이>비두너미>비두네미’가 되었다.

**[전설]** 비두네미에는 옛날부터 질 좋은 화강암이 많이 나와 비석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정산리 거둔사에 원공국사탑비를 세울 때 비갓을 이곳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알맞은 바위를 떠 용이 구름에 쌓여 있는 양각 무늬까지 쪼았지만 막상 비갓을 옮기려고 하니 얼마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이 마을 농가에 들러 비갓을 옮기게 소를 빌리자고 하였다. 주인은 소에게 쇠죽을 잔뜩 먹여 앞마당에 매어놓았다. 그런데 해가 다지도록 스님이 나타나지 않더니 나중에 와서

소를 잘 썰다며 인사를 하였다. 소의 몸은 그대로 둔 채 소의 혼만 데리고 가 일을 하여서 소는 마당에 있는 채로 땀을 흠뻑 흘리고 있던 것이다. 소 주인이 비두네미골로 가보니 비갓은 분명히 옮겨졌고 그것을 끌고 간 자국이 남아있었다. 이후로 이곳을 ‘비두네미’라 하였고, 행정명으로는 ‘비두리’라 하였다.

#### 비두네미 [마을]

**[위치]** 궁촌리 서들 남쪽, 비두리 사흥 북쪽에 있는 마을로 비두리의 중심 마을이다. ‘비두너미’, ‘비두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비두너미(碑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비두네미’라 하였다.

**[유래]** 비두네미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고개 이름이 곧 마을 이름이 되었다.



「비두네미 마을 : 2019년」

#### 비두네미고개 [고개] → 비두네미

#### 비두네미골 [골]

**[위치]** 비두네미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비두네미고개로 이어지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비두네미고개가 있고 고개 너머에는 손곡리 구만이가 있다.

#### 비두리 귀부 및 이수 [비]

**[위치]** 비두네미 북쪽 아래, 석샘이들 동쪽, 귀운로 옆에 있다. 비두리 959-6번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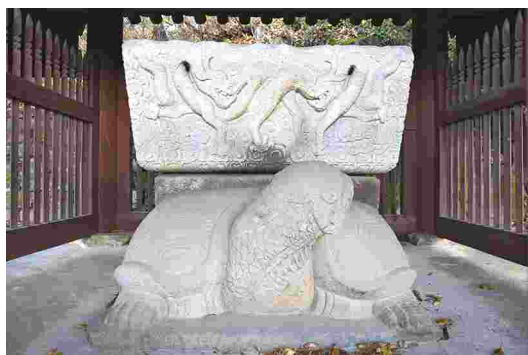
**[내용]** 1982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



되었다. 용바우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두리 귀부 및 이수 ; 1984년」



「비두리 귀부 및 이수 ; 2019년」

**비두리재** [고개] → 비두네미

**비두리절터** [터]

**[위치]** 절골(1)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예전의 경작지에 축대가 남아있다. 기와조각도 발견되나 절의 내력은 알 수 없다.

**비두보** [보]

**[위치]** 비두네미 마을 앞에 있는 궁촌천의 보(湫)를 말한다.

**빅개산** [산] → 비개산

**빅계산** [산] → 비개산

**빗개산** [산] → 비개산

**사옹(沙鷹)** [마을] → 사흥

**사흥(士興)** [마을]

**[위치]** 비두네미 마을 남동쪽 상류, 봉두개울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비개산 남쪽, 매봉재 남서쪽에 있다. ‘사옹(沙鷹)’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사흥(沙興)’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흥(士興)’이라 하였다.

**[내용]** 나라에서 세운 칠성당(七星堂)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이름의 한자표기가 몇 번 바뀌었는데 원래 음운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현재는 ‘사흥(士興)’으로 쓰고 있다.



「사흥 마을 ; 2019년」



「사흥 칠성비 ; 2019년」

**상봉산(上峰山)** [산]

**[위치]** 비두네미 마을 남서쪽에 있는 443.4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궁촌리, 비두리, 부론면 손곡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새말** [마을]

**[위치]** 비두네미 버덩말 북쪽, 황새지골과 석샘이 들어 있는 곳의 마을을 말한다. 마을 북쪽 옆에는 비두리 귀부 및 이수가 있다.

**[유래]** 버덩말에 홍수가 난 후 10여 호가 이주하여 새로 마을을 이루었으므로 새말이라 한다.

#### 서지재 [고개]

**[위치]** 쌀개봉 남쪽, 방아실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80m이다. 한자로는 '신현(薪峴)'이라 하였다. '방아실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지재'라 하였다.

**[내용]** 비두리의 방아실과 부론면 손곡리의 방아실을 연결하는 고개이다. 방아실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방아실골을 지나 부론면 손곡리의 방아실로 연결된다.

#### 석샘이들 [들]

**[위치]** 비두네미 마을 북서쪽 궁촌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윤디리골 내 건너 동쪽에 있는 들이다.

#### 석이바우 [바위] → 선돌

#### 선돌 [마을]

**[위치]** 사흥 북동쪽, 입석천을 따라 난 가마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앞말'과 '뒷말'이 있다. '선들'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입석(立石)'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선들(立石)'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돌(입석)'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과 산에 큰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돌이라 하였고 그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선돌 마을 : 2019년」

#### 선돌 [바위]

**[위치]** 선돌 마을에 있는 큰 바위 두 개를 말한다.

**[내용]** 바위 두 개가 따로 서 있다. 하나는 마을 뒤에 있는 큰 바위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에서 동쪽 덕가산을 향하여 1km 지점에 있는 작은 바위이다. 큰 바위는 높이가 14m, 둘레가 8m로 석이버섯이 나므로 '석이바우'라고도 한다. 작은 바위는 높이가 8m 정도이다.

#### 선돌도요지 [터]

**[위치]** 선돌 마을 현 원주청소년수련원 금광교회 주변에 있는 옛 도요지터를 말한다.

**[내용]** 조선 백자편과 유물이 발굴되었다.

#### 선들 [마을] → 선돌

#### 선바우골 [골]

**[위치]** 선돌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원주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 있다.

**[유래]** 골짜기에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우골이라 하였다.

#### 신현(薪峴) [고개] → 서지재

#### 쌀개봉 [산]

**[위치]** 서지재 북쪽, 비두네미고개 남동쪽에 있는 높이 495.8m의 산을 말한다. 비두리와 부론면 손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 안말 [마을]

**[위치]** 사흥 마을 가운데 동쪽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앞골 [골]

**[위치]** 구포동 마을 남쪽 앞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33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앞말 [마을]

**[위치]** 선돌마을 중 서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양지골 [골]

**[위치]** 비두네미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무태골이 있다.

### 양지평 [마을]

**[위치]** 양지골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비두보건진료소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양지평들 [들]

**[위치]** 비두네미 마을 북동쪽 구포동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양지골 북쪽 내 건너에 있다.

### 영산재 [고개]

**[위치]** 비두네미에서 동쪽으로, 구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산재’라 하였다.

**[내용]** 구포동에 이르는 길은 영산천(1)(구포동천)을 따라 나 있다. 이 내가 무척 심한 사행천이므로 꽃처럼 나온 곳은 고개를 가로질러 넘는데, 그 중 영산천의 입구인 양지편들에서 절골(1)로 넘어가는 고개를 ‘영산재’라고 한다. 또는 구포동으로 들어가는 길 전체를 ‘영산재’라 지칭하기도 한다.

### 영산천(1) [내]

**[위치]** 대수리고개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난솔골(2), 된양지골, 구포동을 거쳐 절골(1), 양지편들을 지나고 비두네미 앞에서 궁촌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구포동천’이라고도 한다.

### 영산천(2) [내]

**[위치]** 매봉재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웅주고개골과 무태골을 지나 뽕은터와 중보들 앞에서 궁촌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 웅주고개 [고개]

**[위치]** 웅주고개골 위, 비개산 북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고개에 돌담장을 치고 비석이 있는 묵은 묘가 한 기 있는데 이를 어느 웅주의 묘라 하고, 이 고개와 골짜기를 ‘웅주고개’, ‘웅주고개골’이라고 한다.

### 웅주고개골 [골]

**[위치]** 영산천(2)를 따라 나 있는 비개산 북쪽 골

짜기를 말한다. 무태골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비개산 뒤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 외면들 [들]

**[위치]** 비개산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보들 남쪽 위에 있는 들이다. ‘외미안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외미안’이라 하였다.

### 외미안들 [들] → 외면들

### 용곡(叢谷) [마을] → 방아실

**[풀이]** 방아실의 뜻을 한자로 적어 ‘용곡(叢谷)’이라 하였다.

### 용바우골 [골]

**[위치]** 비두초등학교 남서쪽, 석샘이들 서쪽 건너에 있는 높이 190m 바위봉우리의 동쪽 아래 골짜기를 말한다. 윤디리골과 번더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내용]** 옛날 화강암을 채취한 흔적이 남아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0호인 ‘비두리 귀부 및 이수’가 여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 윤디리골 [골]

**[위치]** 석샘이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만디골이 있다.

### 응봉산(鷹峰山) [산] → 매봉재

### 이산막골 [골]

**[위치]** 구포동 마을에서 동쪽 35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입석(立石) [마을] → 선돌

### 입석천(立石川) [내]

**[위치]** 흥업면 대안리와 경계에 있는 노루재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며 선돌을 지나 봉두개울에서 궁촌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선돌 마을을 지나므로 이를 한자로 적어 ‘입석천(立石川)’이라 하였다.

### 작은바우 [바위] → 선돌

### 장승골 [들]

[위치] 비두네미 마을 북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구라우들 서쪽에 있다.

### 장치(獐峙) [고개] → 노루재

### 재말골 [골] → 재밀골

### 재밀 [마을]

[위치] 노루재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노리치재 입구에 있다.

[유래] 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재밀’이라 하였다.

### 재밀골 [골]

[위치] 노루재 남쪽 재밀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덕가산과 질마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재말골’이라고도 한다.

### 절골(1) [골]

[위치] 비두네미에서 구포동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양지편들에서 영산천(1)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서 무태골이 동쪽으로 갈라져 나가고 골 중간에서는 고작이골이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 절골(2) [골]

[위치] 구포동 고작이골에서 북동쪽 37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 골짜기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마구할미바위가 있는 골짜기에 기와편 등 집의 흔적이 남아있다. 주락암터로 추정된다.

### 절골(3) [골] → 절터골

### 절터골 [골]

[위치] 중보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바듬이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이다. ‘절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골’이라 하였다.

[유래] 기와편, 돌담장, 축대 등 절의 흔적이 있어 절터골이라 부른다.

### 제비골 [골]

[위치] 사흥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재 남쪽에 있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선돌 마을이 있는 가마골이 있다. ‘집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마을 집들 위로 골짜기가 있어 ‘집우골’이라 하였는데 ‘집우골>지부골>지비골>제비골’이 되었다.

### 주락암터 [터]

[위치] 구포동 북쪽, 절골(2)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옛 절의 터를 말한다.

### 중보 [보]

[위치] 중보들에 있는 궁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들판보 밑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보’라 하였다.

### 중보들 [들]

[위치] 개싸리들 남쪽, 외면들 북쪽의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영산천(2) 옆에 있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보들’이라 하였다.

### 지실개들 [들]

[위치] 비개산 남서쪽, 기름장들 서쪽 궁촌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질마재 [고개]

[위치] 덕가산 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선돌 마을 또는 재밀에서 재밀골을 거쳐 귀래면 귀래리 고청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415m이다. ‘길마재’라고도 한다.

[유래] 모양이 길마(말안장)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질마+재’인데 ‘질마’는 ‘길마’가 구개음화한 것이다. ‘길마’의 영서방언은 ‘지르마, 지르메’로서, ‘지르마+재>지르마재>질마재’가 되었다.

### 집우골 [골] → 제비골

### 큰골(1) [골]

[위치] 선돌에서 북동쪽으로, 노루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대안로가 난 노리치재골 서쪽에 나란히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 하였다.

#### 큰골(2) [골]

**[위치]** 비두네미 마을 서쪽 북대골에서 남서쪽으로 다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큰말 [마을] → 버덩말

**[위치]** 버덩말의 다른 이름이다. 마을에서 가장 큰 마을이므로 큰말이라 하였다.

#### 큰바우 [바위] → 선돌

#### 터도래골 [골]

**[위치]** 구포동 본마을과 건너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영산천(1)에서 북쪽 366m 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 텃논이들 [들]

**[위치]** 비두네미 마을 앞,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텃논이들’이라 하였다.

#### 피나무배기 [마을]

**[위치]** 서지재(방아실고개) 북동쪽 아래, 방아실 마을 남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학가마골 [골]

**[위치]** 사흥에서 북동쪽으로, 매봉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농사철이 되면 학이 많이 모여들어서 학가마골이라 한다.

#### 한담산 [산]

**[위치]** 비두네미 남동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한담산’이라 하였다.

#### 행두둑들 [들]

**[위치]** 봉두개울 남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입석천과 궁촌천이 만나는 곳 위쪽에 있는 들이다.

#### 호랭이바우 [산]

**[위치]** 영산재 아래의 바위산을 말한다.

**[유래]** 옛날 호랑이가 나타나서 호랭이바우라고 한다. 또는 산봉우리가 마치 호랑이 머리처럼 생겨서 호랭이바우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 황새지골 [골]

**[위치]** 구라우들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취병리(翠屏里)

### [위치]

취병리는 문막읍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하여 건등리, 서쪽으로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남쪽으로는 반계리, 북쪽으로 지정면 안창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 사제면(沙堤面)의 분2리·분3리 지역이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두 지역의 일부를 병합하여 취병리(翠屏里)라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취병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취병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취병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취병산(翠屏山) 아래에 있으므로 취병리라 하였다. 『여지도서』에 사한(四寒) 김창일(金昌一)이 이곳에 살면서 취병산의 이름으로 자신의 호(號)를 삼았다고 하였다.

### 가야골 [골]

**[위치]** 벌새터에서 북서쪽, 송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프라이맥스 공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 가운데골 [골]

**[위치]** 송산봉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중 가운데의 골짜기를 말한다. 가야골 끝에서 북서로 이어진 골짜기이다. 작은절골 동쪽, 큰골 서쪽에 있다. ‘간대골’이라고도 한다.

### 간대골 [골] → 가운데골

### 갈매고개 [고개]

**[위치]** 골새터에서 남쪽 갈매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아래에 작은도독골을 거쳐 갈매골에 닿는다.

**[유래]** 갈매골로 넘어가므로 갈매고개라고 하였다. 고개에 느티나무가 있는 놀이터로 단오날 동네처녀들이 그네를 뛰던 곳이다.

### 갈매골 [골]

**[위치]** 취병들에서 서쪽으로, 큰도독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새터 갈매고개 남서쪽에 있다. ‘갈매울’이라고도 한다.

### 갈매울 [골] → 갈매골

### 검성현로(劍星峴路) [고개] → 별고개

### 검송이고개 [고개]

**[위치]** 작달막골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검송이골의 끝에 있는 높이 189m의 고개를 말한다. 북쪽 고개 너머로 지정면 안창리 검송이골을 거쳐 솔안 마을에 닿는다.

**[풀이]** ‘검송이’는 한자 지명 ‘검성(劍星)’의 다른 발음이다. ‘검성(劍星)’의 ‘검(劍)’은 칼을 뜻하고 ‘성(星)’은 벼랑을 뜻한다. 즉 칼 같은 벼랑고개라는 뜻이다. 이곳은 취병산을 중심으로 하여 벼랑이 많으므로 ‘별고개’, 이를 한자로 쓴 ‘검송이<검성>’, ‘검성현(劍星峴)’ 등의 이름이 생겼다.

### 검송이골 [골]

**[위치]** 작달막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끝에 검송이고개가 있다.

### 고사대(古寺臺) [터] → 절터

### 고장골 [골]

**[위치]** 취병저수지 아래 수구에서 남쪽으로, 송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골새터 [마을]

**[위치]** 새터 안쪽, 송산봉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마을’과 ‘음지마을’이 있다. 한자로 ‘내신대(內新臺)’, ‘동신대(洞新臺)’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골시터(內新臺)’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골새터(내신대, 동신대)’라고 하였다.

**[유래]** 골 안에 새로 터를 잡아 마을이 생겼으므로 골새터라 하였다.

**[내용]** 골짜기에 새로 들어선 마을을 ‘골새터’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동신대(洞新臺)’ 또는 들의 안쪽 골짜기에 있으므로 ‘내신대(內新臺)’라고 하였다. 상대적으로 이와 구분하기 위해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을 ‘평신대(坪新臺)’라고 하였다.

### 골안 [골] → 취병골

### 관모산(冠帽山) [산]

**[위치]** 관위산 남쪽, 성상봉 북서쪽에 있는 높이 402.5m의 봉우리를 말한다. 산 남쪽에 반계리 밤산골이 있고 동쪽에는 석지골, 진밭골이 있다. 『조선환여승람』에 ‘입모산(笠帽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환여승람』에 서쪽 40리에 있으며, ‘입모산(笠帽山)’이라고 하였다. 노인이 삿갓을 쓰고 낚싯대를 드리운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용]** 당산에서 관위산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이다. 산 서쪽 너머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이며, 남쪽은 문막읍 반계리, 동쪽은 문막읍 취병리이다. 관위산과 혼동되어 서로 같은 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

름이 서로 바뀌어 불리기도 한다.

#### 관위산 [산]

**[위치]** 당산 산줄기 남쪽에 있는 높이 362m의 산을 말한다. 배네미들에서 서쪽으로 난 일정골 끝에 있다. 북쪽 바로 아래에 석지재가 있고 남쪽 능선에 관모산이 있다.

**[내용]** 산 서쪽 너머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이다. 당산에서 관위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이다. 관모산과 혼동되어 서로 같은 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름이 서로 바뀌기도 한다.

#### 구루물들 [들]

**[위치]** 수풍말 동쪽 아래, 섬강 가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구르문들’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엔 강이었는데 메워져 높이 많은 강변이 되었다가 지금은 들이 된 곳으로, 낮은 구릉에 물이 많은 들이라는 뜻이다.

**[풀이]** ‘굴+물+들>굴물들>굴(ㄱ)물들>구루물들’이 되었다. ‘굴, 굴, 구무’ 등은 낮고 우묵한 곳에 붙는 지명이다. ‘물이 고이는 낮은 늪지대의 들’이란 뜻이다.

#### 구르문들 [들] → 구루물들

#### 구리고개 [고개] → 서낭대이

**[위치]** 서낭대이의 다른 이름이다. ‘어구리고개’라고도 한다.

**[유래담]** 원주에 널리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설화와 관련, 여기에 흙을 흑산토로 파 옮긴 후 고개의 흙이 붉게 물들어 구리를 깔아놓은 것 같으므로 구리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 구멍바우 [바위] → 구메바우

#### 구메바우 [바위]

**[위치]** 취병소 북쪽, 서원촌 북쪽에 있는 섬강의 바위를 말한다. ‘구멍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메바우’라 하였다.

**[유래]** 물속 바위에 몇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굴이 있으므로 ‘구멍바우>구메바우’라 한다.

#### 구메바우굴 [굴]

**[위치]** 구메바우 밑 물속에 있는 굴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메바우굴’이라 하였다.

**[내용]** 깊이 약 2m, 너비 약 5m로 바닥에는 모래가 있고 위는 천장처럼 되어있다고 한다.

#### 구용박골 [골]

**[위치]** 취병저수지와 수리바우골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문필봉 서쪽 아래에서 남서쪽으로, 31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 길골 [골] → 질골

#### 꽃자골 [골]

**[위치]** 큰절골 위에서 서쪽에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봄이면 진달래꽃이 많이 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끝골 [골]

**[위치]** 장대장 아래에서 남서쪽으로, 송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경사가 급해 나무를 해서 끌고 내려올 수 밖에 없으므로 끝골이라 하였다.

#### 낭골 [골]

**[위치]** 진발골 윗당에서 북동쪽으로, 33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논골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지정면 안창리 작은갈밭골, 큰갈밭골이 있다.

**[유래]**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깊은 웅덩이가 있었으므로 낭골이라 하였다.

**[풀이]** ‘낭’은 벼랑을 뜻하는 방언이다. 물이 떨어지는 높은 벼랑이 있으므로 ‘낭골’이라 하였다.

#### 너른골 [골]

**[위치]** 당산숲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논골(1) [골]

**[위치]** 진발골 북쪽 진발재 아래 절골 중간에서 북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논골 입구 북서쪽 맞은편 위에는 ‘밭골’이 있다. 고개 동쪽 너머에는 지정면 안창리 ‘큰갈밭골’이 있다.

#### 논골(2) [골]

**[위치]** 별새터 서낭당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농바우개 [바위]

**[위치]** 취병산 아래 섬강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농작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능골 [골]

**[위치]** 골새터 남쪽, 큰절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사희(思晦) 이진방(李震昉, 1617~1659)의 묘가 있으므로 능골이라 하였다.

#### 당고개 [고개]

**[위치]** 진밭에서 동쪽으로, 지정면 안창리 이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315m이다. 고개 너머에 이운동 당고개골이 있다.

#### 당산 [산] → 지정면 안창리 당산

#### 당산숲 [숲]

**[위치]** 진밭 마을 입구에 있는 숲을 말한다. 석지골 배네미들 위, 진밭 마을 입구에 있는 소나무 당숲이다. ‘당숲’, ‘수풍’, ‘아랫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숲은 마을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려주고 기운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수구막이 숲이다. 숲 사이로 마을 입구 길이나 있고 길 양옆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서 있다. 가을 추수를 마치면 3년 간격으로 마을 제일 위쪽 산에 있는 윗당, 중간당에 이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 당숲 [숲] → 당산숲

#### 도둑놈골 [골] → 큰도둑골

#### 도투갱이 [들]

**[위치]** 장대장 위, 시거리 또는 시거리들을 말한다.

**[유래담]** 옛날에 시거리에 주막이 있었는데 일을 마친 사람들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다투는 일이 잦았으므로 ‘도투갱이’라 하였다.

#### 도투갱이 [골]

**[위치]** 매네미들 건너편, 현재 인삼밭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동신대(東新垔) [마을] → 골새터

#### 두터지기 [들]

**[위치]** 별새터 동쪽 섬강 변의 들을 말한다.

**[유래]** 장마철이 되면 독이 자주 터지므로 ‘독터지기>두터지기’라 하였다.

#### 동굴레골 [골]

**[위치]** 작은절골 끝에서 북동방향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 들골 [골]

**[위치]** 흑산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딸바우 [바위] → 호랑바우

#### 만덕울 [골]

**[위치]** 취병저수지 중간, 낙시터 아래쪽, 구도로 급커브 길에서 북쪽으로 문필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말굽바우 [바위]

**[위치]** 석지골 질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에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이 골짜기를 지나다가 말이 무릎이 꺾이어 엎어지는 바람에 바위에 말발굽이 찍혀 있으므로 말굽바우라 한다. 말발굽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 매네미고개 [고개]

**[위치]** 취병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매네미골을 거쳐 반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성상봉 바로 북서쪽 아래에 있다. 높이는 335m이다.

**[유래]** 뫼(산)를 넘는다고 하여 ‘뫼넘이>매넘이>매너미>매네미’가 되었다.

### 매네미골 [골]

**[위치]** 취병저수지 서쪽 상류에서 남서쪽으로 매네미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매네미들 [들]

**[위치]** 매네미골 입구, 석지골 남쪽에 있는 좁은 들을 말한다. 취병저수지 상류에 있다.

### 명산들 [들]

**[위치]** 벌새터 북쪽 섬강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 [학교]

**[위치]** 취병리 358, 벌새터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0년 문막국민학교 취병분교장으로 설립되었다. 1943년 취병국민학교로 승격, 1985년 문막국민학교 취병분교장으로 격하, 2014년에 문막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 졸업사진 : 1949년」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 : 2019년」

### 문필봉(文筆峰) [산]

**[위치]** 취병저수지 북쪽, 임동천 석지골 동쪽에 있는 266.8m의 산을 말한다. 작달막봉 남쪽에 있다.

### 밤산 [산]

**[위치]** 성상봉 남쪽, 반계리 구천봉 북쪽에 있는 높이 370m의 산을 말한다. 동쪽 아래에 취병리의 골새터 큰절골이 있고 북서쪽 아래에는 반계리 밤산골, 남서쪽 아래에는 밀개울골이 있다. ‘송삼봉(松三峰)’, ‘송상봉(松上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송상봉(송삼봉)’이라 하였다.

[유래] 산 서쪽 아래 반계리 밤산골이 있으므로 ‘밤산’, 봉우리가 세 개여서 ‘송삼봉’이라고도 부른다.

### 방아울 [마을] → 방아울

### 방아울골 [골] → 방아울골

### 방아울 [마을]

**[위치]** 방아울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방아울’이라고도 한다.

### 방아울고개 [고개]

**[위치]** 작달매기 마을 북동쪽 골짜기 위에 있는 높이 275m의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지정면 안창리 솔안 마을에 닿는다. 고개 서쪽에 작달막고개가 있다.

### 방아울골 [골]

**[위치]** 작달매기에서 북쪽과 북동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끝에 작달막고개가 있고 북동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끝에는 방아울고개가 있다. ‘방아울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가 디딜방아처럼 Y자형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므로 방아울이라 한다.

### 발골 [골]

**[위치]** 진발골 북쪽에서 절골과 갈라져 북서쪽 당산 산줄기인 548.5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남동쪽 아래 건너편에 논골이 있다.



### 배네미들 [들]

**[위치]** 석지골 수풍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서쪽에 할미골과 질골이 있다.

### 버들골 [마을]

**[위치]** 흑산터 북쪽, 서낭당이 북동쪽 아래 섬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는 ‘유동(柳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들골(유동)’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던 곳이어서 버들골이라 부른다.

### 버들골들 [들]

**[위치]** 버들골 마을 북쪽 임동천 옆의 들과 서쪽 섬강 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별새들 [들]

**[위치]** 별새터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별새터 [마을]

**[위치]** 수풍말 북쪽 별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터’, ‘별새터골’, ‘호전’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평신대(坪新垓)’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별시터(坪新垓)’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별새터(평신대)’라 하였다.

**[유래]** 별판에 새로 터를 닦고 마을이 섰으므로 ‘별+새+터>별새터’가 되었다.

**[내용]** 골짜기에 새로 들어선 마을을 ‘골새터’, 한자로 ‘동신대(洞新垓)’, 또는 들을 바깥으로 보고 골짜기를 안으로 보아 ‘내신대(內新垓)’라고 하였다. 이와 구분하기 위해 들판에 새로 생긴 마을을 ‘평신대(坪新垓)’라고 하였다.

### 별새터골 [마을] → 별새터

### 별새터서낭 [당]

**[위치]** 별새터 북서쪽, 버들골 남서쪽 서낭당이에 있는 서낭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10월에 택일하여 서낭고사를 지낸다. 당목인 말채나무가 고목으로 쓰러지고 현재

는 꿀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있다.

### 별고개 [고개]

**[위치]** 취병소 북쪽, 구메바우에서 북서쪽으로, 작달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안창리 일산봉 남쪽 아래를 지나는 고개로, 높이는 400m이다. ‘검성현로(劍星峴路)’라고도 한다.

**[유래]** 험한 벼랑으로 고갯길이 나 있으므로 ‘별고개’라 하였다. 이 고갯길에는 유난히 별이 밝아 밤길을 밝혀주므로 별고개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별+고개>별고개’가 되었다. ‘별(별)’은 ‘벼랑’을 뜻하는 옛말이다. ‘별(별)’은 ‘비알’이 음운변천한 것으로, 그 어원은 ‘빗(斜, 橫)+달(高, 山)>빗달>빗알(<ㄷ탈락)>비살>비알>비알, 비알, 별’로 추정된다. 한자로는 뜻을 따라 ‘성(星)’으로 적거나 소리를 따서 ‘별(別)’로 기록하였다. 험한 벼랑으로 고갯길이 나 있으므로 생긴 이름이다.

### 복수머리들 [들] → 취병들

### 부채골 [골]

**[위치]** 큰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가 양지쪽에 부채처럼 펼쳐져 있으므로 부채골이라 한다.

### 사기막골 [골]

**[위치]** 성가마골에서 서쪽으로, 45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옛책고을박물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사기를 굽던 곳이어서 사기막골이라 하였다.

### 사자바우 [바위]

**[위치]** 취병저수지 아래, 현 취병가든 앞에 있는 바위들 중 하나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자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사자를 닮아서 사자바우라고 한다.

### 산신당 [당] → 윗당, 진밭골서낭

### 산치나골 [골] → 치나골

### 삼거리 [길] [마을] → 시거리

### 삼밭골 [골]

**[위치]** 큰절골 안, 꽃자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예전에 삼밭이 있었으므로 삼밭골이라 하였다.

### 삼형제골 [골]

**[위치]** 진밭골 당산숲 남쪽 아래 배네미들에서 동쪽으로, 삼형제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일정골 맞은편에 있다.

### 삼형제봉 [산]

**[위치]** 삼형제골 동쪽에 있는 세 봉우리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위의 능선에 386m, 381m, 395m 봉이 남북으로 나란히 있다.

**[유래]** 비슷한 높이의 세 봉우리가 형제처럼 나란히 있으므로 삼형제봉이라 하였다.

### 상사암(相思岩) [바위]

**[위치]** 취병산 정상 부근에 있는 크고 넓은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 서로 사랑하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기가 어려우므로 서로 보고 싶을 때는 이 바위를 보자고 한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새터 [마을] → 별새터

### 새터여울 [내]

**[위치]** 골새터 서쪽에서 시작하여 골새터와 수풍말을 지나고 남동쪽으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터여울’이라 하였다.

### 서낭당고개 [고개] → 서낭댕이

### 서낭댕이 [고개]

**[위치]** 별새터 북서쪽, 버들골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북쪽으로 작달매기, 진밭으로 가는 고갯길이다. ‘서낭당고개’, ‘구리고개’, ‘어구리고개’라고도 한다.

### 서낭댕이 [서낭] → 별새터서낭

### 서낭댕이샘 [샘]

**[위치]** 서낭댕이에 있는 샘을 말한다.

### 석기재 [고개] → 석지재

### 석지 [마을]

**[위치]** 취병저수지 북서쪽 석지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진밭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석지(石芝)’라 하였다.

### 석지고개 [고개] → 석지재

### 석지골 [골]

**[위치]** 취병저수지에서 북서쪽으로 임동천을 따라 진골에 이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석지골’이라 하였다.

### 석지나루 [나루]

**[위치]** 취병리 버들골과 건등리 석지를 잇는 섬강의 옛 나루를 말한다. 옛날 여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나루이다.

### 석지재 [고개]

**[위치]** 석지골 마을 남쪽 배네미들에서 서쪽으로 난 절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관위산 북쪽 능선 아래에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250m이다. ‘석기재’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석지치(石之峙)’라 하였다. 『대동지지』에 ‘석지현(石之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석지고기(石芝峴)’라고 하였다.

### 석지치(石之峙) [고개] → 석지재

### 석지현(石之峴) [고개] → 석지재

### 성가마마을 [마을] → 성가마을

### 성가마을 [마을]

**[위치]** 석지 마을과 진밭 마을 사이 임동천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성가마마을’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옹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서 성가마마을로 불리다가 성가마을로 불린다고 한다.

### 성상봉 [산]

**[위치]** 취병저수지 남서쪽, 송산봉 서쪽에 있는 높이 386.5m의 산을 말한다. 관위산 남쪽, 구천봉 북쪽에 있다. 서쪽 반계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조양산(朝陽山)’이라고도 한다.

**세거리** [길] [마을] → 시거리

**세거리내** [내] → 시거리내

**세거리들** [들] → 시거리들

**세용골** [골] → 쇠경골

**송산골** [골]

**[위치]** 버들골에서 북서쪽으로 송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송산봉(松山峰)** [산]

**[위치]** 정상봉 동쪽, 취병저수지 남쪽, 골새터 북서쪽에 있는 높이 196m의 산을 말한다.

**[유래]** 소나무가 많으므로 송산봉이라고 하였다.

**송삼봉(松三峰)** [산] → 밤산

**송상봉(松上峰)** [산] → 밤산

**쇠경골** [골]

**[위치]** 횃개골 바로 위 골짜기를 말한다. ‘세용골’, ‘쇠용골’이라고도 한다.

**쇠마당터** [터]

**[위치]** 큰절골 위, 정상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구릉진 곳을 말한다.

**[유래]** 넓은 공터가 있어 소를 놓아먹이며 놀게 하던 곳이어서 쇠마당터라고 한다.

**쇠용골** [골] → 쇠경골

**수리고개** [고개]

**[위치]** 진밭에서 남쪽으로, 수리바우골을 거쳐 밤산골로 넘어가는 높이 210m의 고개를 말한다.

**수리바우골** [골]

**[위치]** 일정골 남쪽에서 남쪽으로, 수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흰골이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수풍말** [마을] → 수풍말

**수풍** [숲] → 당산숲

**수풍말** [마을]

**[위치]** 벌새터 남쪽, 골새터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수풍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풍말’이라 하였다.

**[유래]** 숲이 우거져 있던 곳이어서 ‘숲+말>숲말>수푸말>수풍말’이 되었다.

**수풍장승** [장승]

**[위치]** 당산숲 양쪽에 서 있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말한다.

**[내용]** 대장군에 ‘원주오십리’, 여장군에 ‘여주오십리’라 쓰여져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수풍장승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지내다가 지금은 3, 4년에 한 번씩 지낸다. 제물로 흑돼지 한 마리는 꼭 올린다고 한다.

**숲안밭골** [골]

**[위치]** 진밭 수풍에서 성가마을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풀이]** 수풍(<숲) 안에 밭으로 된 골짜기이므로 ‘숲안밭골’이라고 한다.

**쉽터거리** [길] → 시거리

**시거리** [길]

**[위치]** 취병저수지 둑이 있는 곳의 삼거리를 말한다. ‘세거리’, ‘삼거리’, ‘쉽터거리’라고도 한다.

**[유래]** 벌새터, 진밭, 작달매기로 세 갈래로 길이 갈라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거기에서 모두들 쉬어가므로 ‘쉽터거리’라고도 하였다.

**시거리** [마을]

**[위치]** 시거리 길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시거리내** [내]

**[위치]** 시거리 옆을 흐르는 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세거리니(三街溪)’라고 하였다.

**시거리들** [들]

**[위치]** 시거리에서 남북으로 난 들을 말한다. ‘시거리버덩’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세거리들(三街坪)’이라고 하였다.

시거리버덩 [들] → 시거리들

신골 [골] → 흰골

신금실 [골]

**[위치]** 취병리의 최남단, 취병들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푸른솔가든 뒤흘 골짜기이다.

**[내용]** 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아들바우 [바위] → 호랑바우

아랫당 [당] → 수풍, 당산숲, 진밭골서낭

앞거리 [마을]

**[위치]** 골새터 양지마을 동쪽 앞, 길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수풍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앞거리들 [들]

**[위치]** 골새터 앞거리 마을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흰돌교회와 수풍말 사이에 있는 들이다.

앞막한골 [골]

**[위치]** 큰절골 안, 부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약물탕 [샘]

**[위치]** 횡개골 중턱에 있는 샘을 말한다.

양지마을 [마을]

**[위치]** 골새터 마을 가운데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남향으로 있어 별이 잘 들므로 양지마을이라 한다.

어구리고개 [고개] → 구리고개, 서낭댕이

어구리산 [산]

**[위치]** 구리고개 남쪽에 있는 높이 105.8m의 동산을 말한다.

영봉산(靈鳳山) [산] → 일산봉

영산(靈山) [산] → 일산봉

오쳐개 [골]

**[위치]** 골새터 작은도둑골 남쪽, 갈매골에서 남쪽으로, 이지매기골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윗당 [당] → 진밭골서낭

**[위치]** 진밭골 세 군데의 당 중 제일 위에 있는 당을 말한다. 현 옛책고을박물관 동쪽, 재피골 입구에 있는 당이다. ‘산신당’이라고도 한다.

유동(柳洞) [마을] → 버들골

음지마을 [마을]

**[위치]** 골새터 마을 가운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남쪽이 산으로 막혀 별이 잘 들지 않으므로 음지마을이라 한다.

이전동(泥田洞) [마을] → 진밭

일당산(一堂山) [산] → 지정면 안창리 당산

**[위치]** 당산(塘山)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일당산(一堂山)’이라 하고 진밭골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일당산(一堂山)’이라 하였다.

**[내용]** 당산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와 경기도의 경계이며, 남북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진밭재 북서쪽 능선에 있어 진밭골의 생활권에 있었으므로 취병리의 산으로 인식되었다.

일산봉 [산]

**[위치]** 취병산 북쪽, 안창리 흥법 마을 북서쪽 뒤에 있는 높이 401.8m의 산을 말한다. ‘영산’, ‘영경산’, ‘영봉산’이라고도 한다. 취병리와 지정면 안창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유서 깊은 흥법사를 품고 있는 신령스런 산이라 해서 ‘영봉산(靈鳳山)’ 또는 ‘영산(靈山)’이라고도 하였다. 주민들은 모두 일산봉이라 부른다.

일정골 [골]

**[위치]** 석지골 남쪽 배네미들에서 서쪽으로, 관위산 정상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서쪽 너머에 여주 강천면 도전리의 작은관위산(252m)이 있다. 골짜기 입구에서 큰일정골과 작은일정골로 갈라진다.

#### 임동천 [내]

**[위치]** 당산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절골과 진밭골, 취병저수지를 거치고 흑산터 버들골을 지나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취병리 마을 한가운대를 관통하는 내이다.

#### 입모산(笠帽山) [산] → 관모산

#### 입석대(立石臺) [바위] → 입석바우

#### 입석바우 [바위]

**[위치]** 취병산 정상 부근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입석대’라고도 한다.

**[유래]** 큰 바위기둥이 나란히 서 있으므로 입석바우, 입석대라고 부른다.

#### 작달막(作達幕) [마을] → 작달매기

#### 작달막고개 [고개]

**[위치]** 작달매기에서 북쪽으로 방아울골을 거쳐 지정면 안창리 이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84m이다.

#### 작달막골 [골]

**[위치]** 취병저수지 앞 시거리에서 북쪽 작달매기 마을에 이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작달막골 북쪽 위에 방아울골이 있고 그 위에 작달막고개와 방아울고개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작달미기(作達米)’라 하였다.

#### 작달막봉 [산]

**[위치]** 작달매기 마을 남서쪽, 석지골 동쪽에 있는 높이 351.2m의 산을 말한다. 문필봉 북쪽에 있다.

#### 작달매기 [마을]

**[위치]** 취병저수지 앞 시거리에서 북쪽 작달막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취병저수지에서 북쪽 산

너머에 있다. ‘작달막(作達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작달막이(作達幕)’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작달막(作達幕)’으로 적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작달막(作達幕)’이라 하였다.

**[내용]** 작달매기 위에는 방아울골이 있고 그 북쪽의 작달막고개 너머는 지정면 안창리 이운동이며 북동쪽 방아울고개 너머는 안창리 솔안이다.

#### 작은도독골 [골]

**[위치]** 취병들 큰도독골에서 북쪽으로, 골새터 마을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 작은밤나무골 [골]

**[위치]** 큰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작은일정골 [골]

**[위치]** 일정골에서 큰일정골과 갈라져 서쪽으로 관위산을 향하여 곧바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작은절골 [골]

**[위치]** 골새터 마을 앞에서 북서쪽, 송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작은 절이 있었으므로 작은절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 장대장 [들]

**[위치]** 취병저수지 앞에서 남동쪽으로 임동천을 따라 난 긴 들을 말한다. ‘장대장들’이라고도 한다.

**[유래]** 장대처럼 들이 길게 생겼으므로 장대장이라 하였다.

#### 장대장들 [들] → 장대장

#### 장수우물 [샘]

**[위치]** 벌새터 마을 끝에 있는 샘을 말한다.

**[유래담]** 예전부터 칠월 백중에 문막 씨름대회에서 취병리가 항상 이겼는데 그 이유는 취병리 사람들이 이 장수우물 물을 먹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예전에 곱추가 한 달간 이 우물물로 밥을 해먹고 거뜬히 나아서 돌아갔다는, 장수가 되는 우물이라고 전한다.



### 재피골 [골]

**[위치]** 진밭골 위 잇당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옛책고을박물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절골 [골]

**[위치]** 진밭골 북쪽 끝에 이어져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당산 서쪽 아래의 지정면 안창리 수청골이 있다.

### 절터 [터]

**[위치]** 취병산 정상의 동쪽 사면 절벽 위, 옛 절이 있던 터를 말한다. ‘고사대(古寺臺)’라고도 한다.

### 절터골 [골]

**[위치]** 시거리의 작달막골 입구에서 동쪽 취병산의 절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조양산(朝陽山) [산] → 성상봉

**[위치]** 성상봉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햇빛이 제일 먼저 비친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중간당 [당] → 진밭골서낭

**[위치]** 진밭에 있는 세 당 중 가운데에 있는 당을 말한다. 윗당 남쪽 약 500m 지점, 성가마을과 오랜미래신화박물관 사이에 있다.

### 진밭 [마을]

**[위치]** 취병저수지 북서쪽 골짜기, 석지골 막바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적어 ‘이전동(泥田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진밭(泥田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이전동(泥田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물기가 많아 밭이 질어서 진밭이라 하였다고 한다.

### 진밭골 [골]

**[위치]** 석지골 위 진밭 마을을 중심으로 한 위와 아래의 골짜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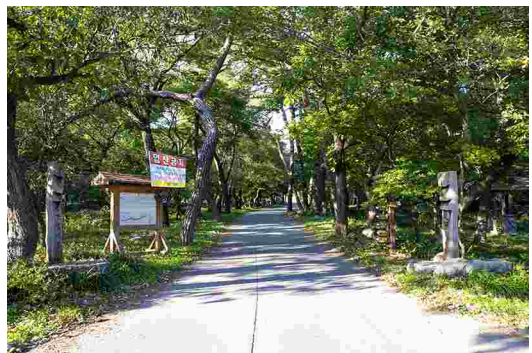


「진밭골 ; 2018년」

### 진밭골서낭 [당]

**[위치]** 진밭골에 있는 서낭들을 말한다.

**[내용]** 진밭골에는 서낭이 세 군데 있다. 마을 위쪽에 산신당(윗당)과 중간당이 있다. 중간당은 윗당에서 약 500m 아래, 아랫당은 진밭 마을 입구 당산숲에 있다. 음력 동짓달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원래 당집은 없이 당산목에 제사를 지냈다. 당산제는 산신당(윗당), 중간당, 수풍(아랫당) 순으로 지낸다. 산신당과 중간당의 당산목은 아름드리 소나무이며 수풍 또한 마을 입구를 지키는 소나무 당숲이다.



「진밭골서낭 ; 2019년」

### 진밭재 [고개]

**[위치]** 진밭골 북쪽의 절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지정면 안창리 수청골이 있고 고개 북서 능선에 당산이 있다. 높이는 320m이다.

### 질골 [골]

**[위치]** 당산숲에서 서쪽으로 석지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할미골이 갈라져 나간다. 골짜기 끝 석지재 너머는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이다. ‘길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가 길므로 ‘길+골>길골>질골’이라 하였다.

**청룡산(靑龍山) [산] → 취병산**

**취병골 [골]**

**[위치]** 취병산 북서쪽, 안창리 골말 남서쪽에서 북서쪽 치마바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창리와 취병리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골안’이라고도 한다.

**취병들 [들]**

**[위치]** 수풍말 남쪽, 갈매골 동쪽 아래의 넓은 들을 말한다. 들 남쪽으로 현 여원로가 지나가고 있다. ‘복수머리들’, ‘취병리앞들’이라고도 한다.

**취병리앞들 [들] → 취병들**

**취병분교 [학교] →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

**취병산(翠屏山) [산]**

**[위치]** 석지나루 북쪽, 일산봉 남쪽 섬강가에 있는 높이 304m의 산을 말한다. ‘청룡산(靑龍山)’이라고도 한다. 『동국여지지』에 고을 서쪽 43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취병산(翠屏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취병산(翠屏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서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사한(四寒) 김창일(金昌一)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이 산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호를 ‘취병(翠屏)’이라 하였다.

**[전설]** 마고할미가 마고할배와 함께 경기도 용문의 용문산을 만들기 위해 돌과 흙을 나르고 있는데 마고할배가 산을 다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고할미가 치마폭에 담고 가던 돌과 흙을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것이 지금의 취병산이라고 한다.

**취병소(翠屏沼) [소]**

**[위치]** 취병산 동쪽 절벽 아래, 섬강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취병소(翠屏沼)’라 하였다.

**취병암(翠屏岩) [바위]**

**[위치]** 섬강에 있는 취병산의 높은 절벽을 말한다. 절벽 아래에 취병소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취병암(翠屏巖)’이라 하였다.

**취병암터(翠屏庵-) [터]**

**[위치]** 취병산 절벽 위에 있던 절터를 말한다.

**[내용]** 고려 초의 고승 진공대사(眞空大師)가 이 절에서 수도 정진하였다고 한다. 1700년대 폐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병암 ; 1967년」

**취병저수지 [못]**

**[위치]** 성상봉 북동쪽, 송산봉 북쪽 아래, 석지나루 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내용]** 1970년에 건립되었다. 작달매기와 진발골의 물을 모아 버들골과 벌새터에 댄다.



「취병저수지 ; 2017년」

**취병정(翠屏亭) [누정] → 건등리 취병정**

**[위치]** 취병산 동쪽 강 건너, 건등리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지금은 터만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취병정터(翠屏亭-)’라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사한(四寒) 김창일(金昌一)이 지은 정자이다.



「취병정터 ; 2019년」

#### 치나골 [골]

**[위치]** 서낭당이 남쪽, 현 프라이맥스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산치나골’이라고도 한다.

#### 치마바우 [산]

**[위치]** 작달막 입구 동쪽에 있는 높이 279m의 산 봉우리를 말한다. 취병산 정상 남쪽 능선에 있는 봉우리이다.

#### 치마바우골 [골]

**[위치]** 장대장에서 북동쪽으로 치마바우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큰골 [골]

**[위치]** 흑산터에서 서쪽으로, 송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청주 광씨 신대파 묘소들이 있는 곳이다.

#### 큰도둑골 [골]

**[위치]** 현 취병교차로에서 취병들을 지나 서쪽 갈매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북쪽 골새터로 넘어가는 ‘작은도둑골’이 있다. ‘도둑농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문막교가 생기기 전, 문막에서 물건을 가지

고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살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큰밤나무골 [골]

**[위치]** 큰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큰일정골 [골]

**[위치]** 일정골에서 작은일정골과 갈라져 남서쪽 관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큰적골 [골] → 큰절골

#### 큰적골산 [산] → 큰절골산

#### 큰절골 [골]

**[위치]** 골새터 마을 뒤에서 북서쪽으로, 성상봉에 이르는 긴 골짜기이다. ‘큰적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에 큰 절이 있었으므로 큰절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절의 유래는 전하지 않고 ‘큰적골’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큰절골산 [산]

**[위치]** 큰절골 끝에 있는 357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성상봉 남쪽, 밤산 북쪽 능선 가운데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큰적골산(大積谷山)’이라고 하였다.

#### 토산(土山) [마을] → 흑산터

#### 토산대(土山垓) [마을] → 흑산터

#### 파골 [골]

**[위치]** 벌새터에서 송산봉이 있는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프라이맥스 바로 북쪽에 붙어있다.

#### 평신대(坪新垓) [마을] → 벌새터

#### 할미골 [골]

**[위치]** 석지 마을 앞 배네마들에서 서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진 골짜기 중 북서쪽, 344.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는 질골이다. ‘할미울’이라고도 한다.

**할미울** [골] → 할미골

**향현사터**(卿賢祠-) [터]

**[위치]** 취병산 남쪽 기슭에 있던 옛 사당터를 말한다. 사한 김창일을 제향하던 곳이다.

**호랑바우** [바위]

**[위치]** 취병저수지 북쪽 가운데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현재 물에 잠겼다. ‘아들바우’, ‘딸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모양이 호랑이를 닮아서 호랑바우라 하였다. 돌을 던져 그 바위에 얹히면 아들을 낳고 얹혀지지 않으면 딸을 낳는다고 해서 ‘아들바우’, ‘딸바우’라고도 하였다.

**호랑이밭** [들]

**[위치]** 벌새들에 있는 서마지기 논을 말한다. ‘호전(虎田)’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원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석양 무렵 나무를 지고 돌아오던 중, 마을 앞 우물에서 쌀 씻는 젊은 아낙을 호랑이가 해치려는 것을 보고 재빨리 도끼로 호랑이를 잡았다. 호랑이를 판 돈으로 논 서마지기를 장만하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상속되고 있다고 한다.

**호전(虎田)** [들] → 호랑이밭, 벌새들

**횃개골** [골]

**[위치]** 석지골 위, 현 현책고을박물관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사기막골 북쪽 위, 재피골 서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흑산(黑山)** [산]

**[위치]** 성상봉 남동쪽, 송산봉 남서쪽에 있는 높이 357m의 산을 말한다. 큰절골 북동쪽에 있다.

**흑산터** [마을]

**[위치]** 버들골 남쪽, 벌새터 북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지금은 들이 되어있다. ‘흙산터’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토산대(土山垓)’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에 ‘흑산터(黑山垓)’라 하였다. 『한국

지명총람』에 ‘흑산터(토산대土山垓)’라 하였다.

**[전설]** 흙산터와 관련하여 원주에 널리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설화가 전하고 있다. 많은 손님, 고생하는 며느리, 스님의 처방 등으로 모티브는 같으나 여기서는 산등을 자르며 버린 흙이 산 더미를 이루어 흙산터가 되었고 잘린 산허리는 붉게 물들어 구리고개가 되었다고 하였다.

**흑산터골** [들]

**[위치]** 섬강에서 서쪽으로, 흑산터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흙산터** [마을] → 흑산터

**흰골** [골]

**[위치]** 진밭 수리바우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신골’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에 고갯길 북서쪽의 관위산에서 흰 호랑이가 나와서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흰골’이라고 한다. 또는 흰 수리가 서식하고 있어서 ‘흰골’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내용]** 진밭골의 서낭제는 호랑이 전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호환을 당하는 내용, 호랑이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의 내용이다.

## 포진리(浦津里)

### [위치]

포진리는 문막읍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으며 섬강 동쪽, 명봉산과 국수봉의 서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천마산 줄기로 막혀 궁촌리와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하여 반계리와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후용리, 북쪽으로는 문막리와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 미내면(彌乃面)의 5리·6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두 지역을 병합하여 포진리(浦津里)라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포진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포진리가 되었다.

1995년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포진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섬강의 나룻가에 있는 마을이므로 개나루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포진리(浦津里)라 하였다.



### 개나루 [나루]

**[위치]** 개나루 마을 서쪽 섬강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휴게소 서쪽에 있는 나루이다.

**[유래]** 물가(개)에 나루가 있으므로 개나루라고 하였다.

**[풀이]** ‘개’는 강이나 내에 물이 드나드는 곳, 또는 개울에 있는 포구를 말한다.

### 개나루 [마을]

**[위치]** 물구비 남쪽, 시무리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휴게소 동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서 ‘포진리(浦津里)’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기나루(浦津)’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포진리(개나루)’라 하였다.

**[유래]** 섬강의 개나루에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개나루’라고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5리, 6리를 병합하여 ‘포진리(浦津里)’라 하였다.



「개나루 마을 : 2019년」

### 개나루골 [골]

**[위치]** 개나루 마을에서 북동쪽 천마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개날골’이라고도 한다.

### 개나루들 [들]

**[위치]** 개나루 마을의 북쪽과 서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휴게소 주변의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개나루들’이라 하였다.

### 개날골 [골] → 개나루골

### 개지개울 [내] → 궁촌천

**[위치]**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궁촌천이 남쪽 포진리의 남은터와 후용리의 개지 마을 사이를 지나므로 ‘개지개울’이라고 하였다.

### 거수골 [골]

**[위치]** 개나루 바른골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괴정(槐亭) [마을] → 날근터

### 괴정마을 [마을] → 날근터

### 구진골 [골]

**[위치]** 시무리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16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위에 노개가 있다.

### 궁말천 [내] → 궁촌천

**[위치]**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궁촌리 궁말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궁말천이라고 부른다.

### 궁촌천(宮村川) [내]

**[위치]** 귀래면 큰양아치와 천은사계곡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귀운궁촌저수지에 머물다가 북서쪽으로 흐르며 날근터를 지나 포진리와 후용리의 경계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궁말천’, ‘모래내’, ‘사천(沙川)’, ‘개지개울’이라고도 하며 상류인 귀래에서는 ‘곰네미천’, ‘귀래내’라 부른다.

**[유래]** 궁촌리 앞을 흐르므로 마을 이름을 따라 궁촌천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정식 하천명이 되었다.

### 날근터 [마을]

**[위치]** 시무리 남쪽, 궁촌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곳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동쪽 옆에 있으며 남동쪽으로 궁촌리와 비두리로 가는 404번 귀문로가 지난다. ‘뱃나루터’, ‘삼괴정(三槐亭)’,

‘괴정마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날근터(槐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날근터(괴정,삼괴정)’라 하였다.

**[유래]** 느티나무 고목 세 그루와 정자가 있어서 ‘삼괴정(三槐亭)’이라 하였다. 수령 약 250년의 느티나무 세 그루와 새로 지은 정자가 남아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원래 마을 이름이 ‘뱃나루터’인데 이름이 와전되어 ‘(뱃)나루터>날터>날근터’가 되었다고도 한다.



「날근터 마을 ; 2019년」



「삼괴정 ; 2019년」

#### 날근터들 [들]

**[위치]** 날근터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너럭바우 [바위] → 너른바우

#### 너른바우 [바위]

**[위치]** 개나루 불당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너럭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큰 바위가 넓고 평평하므로 너른바우, 너럭

바우라고 한다.

#### 노개 [고개]

**[위치]** 시무리 구진골 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빼일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노기(老介)’라 하였다.

#### 노개들 [들]

**[위치]** 노개 남쪽 아래 빼일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노기들(蘆介坪)’이라고 하였다.

#### 다리거리들 [들]

**[위치]** 날근터 남서쪽, 견훤로의 궁촌교 북쪽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궁촌교 다리 옆에 있으므로 다리거리들이라 하였다.

#### 덕고개 [고개]

**[위치]** 개나루골 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개나루에서 북동쪽으로 메나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북동쪽에 뒤일고개가 있다. ‘뒷고개’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21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고개’라 하였다.

#### 덤바우 [바위]

**[위치]** 시무리 구진골 입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덤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산 위에 더미로 쌓여 있어서 덩바우라 한다.

#### 뒷고개 [고개] → 덕고개

#### 도래기천(1) [내] → 뒤일천

**[위치]** 국수봉과 뒤일고개에서 남서쪽으로 잣들, 메나골을 거쳐 궁촌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뒤일천’이라고도 한다.

#### 도래기천(2) [내]

**[위치]** 아랑고지골에서 남서로 흘러 날근터 앞에서 궁촌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 돌건너들 [들]

**[위치]** 개나루 앞 동가장 주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건너들’이라 하였다.

**돌많은골** [골] → 돌밭골

**돌밭골** [골]

**[위치]** 개나루들에서 동쪽으로, 20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안흥식품 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돌많은골’, ‘동박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경사진 벼랑에서 잔돌이 항상 많이 흘러내려 쌓이므로 ‘돌많은골’, ‘돌밭골’이라 부른다.

**돌밭들** [들]

**[위치]** 돌밭골 앞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돌답을들(積石坪)’이라고 하였다.

**동가나무** [마을] → 동가장

**동가장** [마을]

**[위치]** 개나루 서쪽 강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문막휴게소 남서쪽 강변에 있는 마을로 견훤로 옆, 대동공업이 있는 자리이다. ‘동가장이’, ‘동가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동가나무(東柯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가장이(동가정)’라 하였다.

**[유래]** 동가나무(상수리나무)와 정자가 있어 동가정으로 불리다가 후에 동가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동가나무는 이곳의 서낭 당목이었다고 전한다. 또는 마을 앞이 물이 돌아드는 가장자리이므로 동가장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옛날 이곳에 주막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동가장들** [들]

**[위치]** 동가장에서 남쪽으로, 날근터 앞 다리거리들까지 뻗은 긴 들을 말한다.

**[내용]** 들 동쪽을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서쪽 섬강 옆으로는 견훤로가 지나가고 있다. 옛날에는 견훤로가 강물을 막는 제방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제방을 밖으로 더 쌓아 현재의 마루들이 생기고 들이 넓어졌다.

**동가장서낭당** [당]

**[위치]** 동가장 남쪽 시무리 방향에 있던 서낭당을 말한다. 동가나무를 당목으로 삼았는데 장마에 쓸려 나갔다고 한다.

**동가장이** [마을] → 동가장

**동가정(東柯亭)** [누정]

**[위치]** 동가장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동가정(東柯亭)** [마을] → 동가장

**동박골** [골] → 돌밭골

**된양지** [마을]

**[위치]** 개나루 바른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루들** [들]

**[위치]** 동가장들 서쪽 강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날근터 서쪽, 다리거리들 북서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루들’이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제방이 동가장들까지 있었고 이곳은 제방의 바깥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제방을 다시 밖으로 쌓고 궁촌리 입구 채드래기의 동산 흙을 옮겨 메꾸어 들이 되었다.

**명마골** [골]

**[위치]** 거수골 위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이 골짜기에서 옛날 장수가 타는 명마가 나왔다고 하여 명마골이라 부른다.

**명막바우** [바위]

**[위치]** 천마산 줄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명막바우’라 하였다.

**[유래]** 명매기가 집을 짓고 사는 바위라 한다. 명매기는 제비와 비슷한 칼새이다.

**모래내** [내] → 궁촌천

**[위치]**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한자로 사천(沙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궁말 앞에서 섬강 입구까지 모래밭을 흐르므로 모래내라고 한다.

**모래내들** [들]

[위치] 날근터 앞 섬강 입구의 들을 말한다. ‘사천평(沙川坪)’이라고도 한다.

**물구비** [마을] → 문막리 물구비

**물구비나루** [나루] → 문막리 물구비나루

**물구비들** [들]

[위치] 물구비 마을 남쪽과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물동산** [산]

[위치] 개나루 마을 북동쪽, 천마산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209m의 산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휴게소 북동쪽 뒤에 있는 봉우리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물동산’이라 하였다.

**물레방아골** [골]

[위치] 시무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레방아골이라 하였다.

**바른골** [골]

[위치] 개나루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7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개나루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마을에서 보아 오른쪽으로 나 있으므로 바른골이라 하였다.

**뱃나루터** [마을] → 날근터

**불당골** [골]

[위치] 개나루 옷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뱃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 너른바우 옆에 옛 절터가 있으므로 불당골이라 부른다.

**뱃당골** [골] → 불당골

**빼일골** [골]

[위치] 시무리들 남쪽, 날근터 마을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176.5m 봉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

한다. 골 위에 노개가 있고 남동쪽 산 너머에 아랑고지골이 있다.

**사천(沙川)** [내] → 궁촌천

[위치]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궁말 앞에서 섬강 입구까지 모래밭을 흐르므로 모래내, 또는 이를 한자로 적어 사천(沙川)이라 하였다.

**사천평(沙川坪)** [들] → 모래내들

**삼괴정(三槐亭)** [마을] → 날근터

**삼상곡(三相谷)** [골] → 삼상골

**삼상골** [골]

[위치] 개나루 동쪽 뒤, 바른골과 거수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삼상곡(三相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삼상골(삼상곡)’이라 하였다.

[유래담] 정승 세 명이 난다고 하여 삼상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스무리** [마을] → 시무리

**시루떡바우골** [골]

[위치] 개나루 통방골 위, 큰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큰 바위가 마치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여져 있어서 시루떡바우골이라 부른다.

**시무리** [마을]

[위치] 개나루 남쪽, 동가장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스무리’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신은리(新隱里)’, ‘입리(卞里)’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시무니(卞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시무리’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의 들이 20리 된다고 하여 ‘스물+이>스물이>스무리>시무리’가 되었다. ‘신은리(新隱里)’는 소리를 적은 것이고 ‘입리(卞里)’는 뜻을 적은 것이다.



「시무리 마을」; 2019년

#### 시무리들 [들]

**[위치]** 시무리 마을 앞에서 남쪽 날근터 앞까지 이어진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무니들(什埋坪)’이라고 하였다.

#### 신은리(新隱里) [마을] → 시무리

**[풀이]** ‘신은(新隱)’은 ‘시무리’의 음을 따라서 한자로 적은 것이다.

#### 아랑고지골 [골]

**[위치]** 날근터에서 북동쪽으로 23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그린사원아파트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도래기천(2)가 흐르고 있다.

#### 아랑고지들 [들]

**[위치]** 아랑고지골 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 아막골 [골]

**[위치]** 개나루 불당골 입구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어린이들의 묘를 쓴 곳이므로 아막골이라 한다.

#### 옛다리 [다리]

**[위치]** 옛 문막대교를 말한다.

**[내용]** 물구비에서 서쪽 반계리로 놓여져 있던 나무다리였다. 1953년에 미군이 설치하였고, 1960년대 초에 철거하였다.

#### 웃나무골 [골]

**[위치]** 구진골 위, 불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웃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웃나무골이라 한다.

#### 입리(什里) [마을] → 시무리

**[풀이]** ‘시무리’가 20리이므로 뜻을 따라 스물 입(什)자를 써서 ‘입리(什里)’라고 하였다.

#### 작은고개 [고개]

**[위치]** 개나루 큰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 제지나무골 [골]

**[위치]** 개나루 불당골 위의 골짜기를 말한다.

#### 천마산(天馬山, 天麻山) [산]

**[위치]** 국수봉 북서쪽, 건등저수지 남쪽에 있는 높이 320m의 산을 말한다. 문막리, 건등리, 포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담]** 산의 모양이 마치 말처럼 생겨서 천마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궁촌리 쪽은 말머리, 건등리 쪽은 말꼬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 치마바우 [바위]

**[위치]** 빼일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마치 치마를 펼친 것 같으므로 치마바우라 부른다.

#### 큰고개 [고개]

**[위치]** 개나루 바른골 동쪽 끝, 시루떡바우골 위의 고개를 말한다. 고개 동쪽 너머에 잣들고개골과 뒤일골이 있다.

#### 통방골 [골]

**[위치]** 제지나무골 동쪽, 작은고개 북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포진제방 [둑]

**[위치]** 포진리 앞에 있는 섬강 둑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포진제방’이라 하였다.

#### 하사오리들 [들]

**[위치]** 날근터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궁촌천을 따라 남쪽으로 길게 난 들이다. 하사울들이라고도 한다.

#### 하사울들 [들] → 하사오리들



## 후용리(厚用里)

### [위치]

후용리는 문막읍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궁촌리, 서쪽으로는 반계리와 부론면 노림리, 남쪽으로는 부론면 노림리와 손곡리, 북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반계리와 접하고 있다.

### [연혁]

원래 원주군 미내면(彌乃面)의 9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비야동·고청동·양지동·둔촌·용수동·내촌을 병합하여 후용리(厚用里)라 하고 건등면(建登面)에 편입, 건등면 후용리가 되었다.

1936년 건등면을 문막면(文幕面)으로 개칭하여 문막면 후용리가 되었다.

1995년 문막면이 문막읍(文幕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문막읍 후용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래]

후용리는 원래의 지명 ‘후웅이’를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다. 『조선지지자료』(1911)에 ‘후웅이(厚用里)’라고 하였으므로, ‘후용리(厚用里)’는 원래 이름 ‘후웅이’를 좋은 뜻의 한자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이름 ‘후웅이’의 뜻은 알 수 없다.

한편 이 지역에는 성우(마을)·성우들(들)·성우산성(견훤산성)이란 지명이 있고, 또는 견훤산성이 월진리(鉞辰里, 戊辰里)에 있다고 하여 ‘월진’이란 지명이 나온다.

‘성우(星隅)’는 벼랑을 뜻하는 ‘벼루’를 ‘별(<비알<비탈)+우’로 보고 뜻으로는 ‘성(星)’을, 소리로는 ‘우(隅)’를 적은 결과이며 ‘월진(鉞辰, 戊辰)’의 ‘월(鉞, 戊)’은 ‘도치골’의 ‘도치’를 도끼로 인식한 것이며 ‘진(辰)’은 ‘벼루(벼랑)’를 적은 것이다. 즉 ‘성우’나 ‘월진’은 견훤산성이 있는 석맥산에서 고청동과 비야목에 이르는 산의 서쪽에 병풍바위, 칼바위 등의 벼랑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 벼랑 옆에 마을이 있고 산 위에 산성(山城)이 있으므로 이 부근에 벼랑과 관련된 ‘성우마을’, ‘성우들’, ‘성우산성’이라는 지명들이 분포하였다.

## 개지 [마을]

**[위치]** 궁촌교 남서쪽, 궁촌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들판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유래]** 개(물가)에 있으므로 개지라 하였다.

**[풀이]** ‘개+자>개지’가 되었다. ‘개’는 물가를 뜻하고 ‘기(己)’, ‘지(只)’는 땅의 장소, 터에 붙는 지명소이다.

## 개지개울 [내] → 궁촌천

**[위치]**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궁촌천이 개지 마을 옆을 지나므로 이곳에 서는 개지개울이라 하였다.

## 견훤산(甄萱山) [산]

**[위치]** 작골 서쪽, 견훤산성이 있는 높이 130m의 산을 말한다. ‘석맥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견훤산(甄萱山)’이라고 하였다.



「견훤산 ; 2019년」

## 견훤산성(甄萱山城) [성]

**[위치]** 포진리 날근터 남쪽 궁촌천 건너편 견훤산에 있는 옛 산성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바로 동쪽에 있다. ‘성우산성(星隅山城)’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성은 자연적으로 쌓은 것이다. 이 성의 지형은 서쪽으로는 절벽으로 되어 있고 북쪽은 좁은 입구이며 동쪽은 급경사이다. 적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좀 더 완만한 남쪽인데 따라서 남쪽에 건물터가 세 군데 정도 남아있고 성의 흔적도 더 많이 남아있다. 이 지역의 지명이나 전설 등으

로 보아 후삼국시대 견훤과 왕건이 전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되는 토기편이나 축조방식 등으로 보아 성은 그 이전, 즉 삼국시대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둘레는 약 500m이다. 『강원도지』(권3 고적명소 원주:1940년판)에 ‘재건등면후용리 견훤축성둔병 여고려태조 전패망유지(在建登面厚用里 甄萱築城屯兵 與高麗太祖 戰敗亡遺址)’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건등면 월진리 사유림, 견훤산성이라 칭하며, 괴정부락(槐亭部落)의 남방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석성(石城)으로서 주위 약 5정(町)이 거의 폐퇴함. 고려 초기 견훤이 고려와 싸워 이곳에 병사를 주둔한 곳이라 전함.’이라 하였으며, 『전국유적목록』(문화재관리국, 1970)에는 ‘월성군 문막면 무진리(戊辰里), 사유(私有), 괴정부락(槐亭部落)의 남방(南方) 소구상(小丘上)에 재(在). 석성(石城) 속 칭(俗稱) 견훤성(甄萱城)’이라고 하였다. (‘무진리(戊辰里)’의 ‘무(戊)’는 ‘월(戊)’의 오기이다. ‘월(戊)’은 이곳의 ‘도치골’을 나타낸 것이다.)

**[전설]** 후백제의 견훤 군이 왕건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나 군량이 떨어져 곤란할 때 왕건이 꾀를 내어 강물에 석회를 풀었는데 견훤의 군사들은 쌀뜨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병사들이 죽어 패퇴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견훤산성에는 뱀이 많으나 지금도 뱀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죽은 견훤 군사들의 혼이 뱀으로 환생하여 사람의 혼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견훤산성 ; 1992년」

### 고청동(高淸洞) [마을]

**[위치]** 후용리의 한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옛 후용초등학교가 있던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도로 건너에는 새작버덩들이 섬강까지 펼쳐져 있다. ‘성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청동(高淸洞)’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산수가 맑으므로 고청동(高淸洞)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고씨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고청동 마을 ; 2019년」

### 구름다리들 [들]

**[위치]** 개지와 원전의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 구리(九里) [마을] → 후용리

### 구제방 [둑]

**[위치]** 현 견훤로의 궁촌교에서 섬강 궁촌천 하구까지 쌓은 옛 둑을 말한다. ‘주제방’이라고도 한다.

**[내용]** 제방 축대를 쌓을 때 견훤산성의 돌을 사용하여서 이때 산성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 굽들이들 [들]

**[위치]** 배나드리들 남쪽, 장승배기들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궁촌천(宮村川) [내]

**[위치]** 귀래면 큰양아치와 천은사계곡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귀운궁촌저수지에 머물다가 북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궁촌앞 날근터를 지나 포진리와 후용리의 경계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궁말천’, ‘모래내’, ‘봉두개울’, ‘사천(沙川)’이라고도 하며 후용리에서는 ‘개지개울’, 상류인 귀래에서는 ‘곰네미천’, ‘귀래내’라고 부른다.

**[유래]** 궁촌리 앞을 흐르므로 마을 이름을 따라 궁촌천이라 하였다.

**[내용]** 1910년대에는 궁촌천이 지금처럼 바로 섬강에 합류하지 않고 현 후용리 들판 한가운데를 흘러가다가 노림리 앞에서 섬강에 합류하였다. 1960년대에는 궁촌천이 하류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한 갈래는 섬강에 바로 합류하고 다른 한 갈래는 들판을 지나 노림리에서 섬강에 합류하였다. 따라서 옛날에는 현재의 후용리 앞의 들판 한 가운데로 셋강이 흘러 나뉘어져 있었는데 양쪽 모두 개간되어 현재는 넓은 들로 변하였다. 그 셋강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현 노림리 앞 섬강 변을 흐르는 내이다.



「궁촌천 ; 2019년」

### 내촌(內村) [마을] → 안말

### 도치골고개 [고개]

**[위치]** 고청동 비야목에서 동쪽으로 궁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궁촌리 도치골이 있다.

**[풀이]** ‘도치골’은 ‘돼지’의 옛말 ‘돈, 돌’에서 파생된 것이다. ‘돌+골>돌+( )+골>도티골>도치골>조치골, 쪼치골’로 음운 변천하였다. 전국적으로 도치골은 『조선지리지』에서처럼 ‘道峙谷’으로 적

었다. 한편 이 지역에 나타나는 ‘월진리(鉞辰里, 戊辰里)’라는 지명은 ‘도치골’의 ‘도치’를 ‘도끼’로 보고, 바위벼랑(<별양<별+양)의 ‘별’을 ‘진(辰:별)’으로 적은 것이다.

#### 동올매들 [들]

**[위치]** 고청동 비야목 북쪽, 뱀골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두루봉 [산]

**[위치]** 고청동 서쪽, 양지말 북쪽에 있는 87.4m 높이의 작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견훤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터널 동쪽에 있던 산으로 지금은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없어졌다.

**[내용]** 후용 1, 2리의 경계가 되는 산으로, 지금은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평지가 되었다. 3·1운동 당시 봉화를 올렸던 곳이다.

#### 둔배미 [마을]

**[위치]** 용수터 북쪽 아래, 양지동 북서쪽 아래 용수천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가 나면서 마을은 용수터로 옮겨가고 마을 터에 고철창고가 들어서 있다. ‘둔촌(屯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둔뱀미(둔촌屯村)’라고 하였다.

**[유래]** 강 둔덕에 논배미가 있고 여기에 마을이 들어섰으므로 ‘둔배미’라 하였다.

**[내용]** 예전에는 이 마을이 강변이었고 현 영동고속도로와 서쪽 들은 섬강의 모래사장이었다.

**[풀이]** ‘둔+배미>둔배미’가 되었다. ‘둔’은 언덕, 둔덕, ‘배미’는 논을 뜻한다.

#### 둔배미천 [내] → 용수천

**[위치]** 용수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둔배미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둔배미천’이라고 하였다.

#### 둔촌(屯村) [마을] → 둔배미

#### 마루들 [들] → 장승배기들

**[위치]** 배나드리들 동쪽, 장승배기 마을이 있던 곳

의 들을 말한다. ‘모루들’이라고도 하고 ‘장승배기들’이라고도 한다.

**[풀이]** ‘마루’는 산의 꼭대기, 또는 첫째, 으뜸을 뜻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가장 크고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내용]** 원래 이곳은 강바닥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궁촌리의 재드래기 흙을 파 옮겨 들이 되었다.

#### 모루들 [들] → 마루들

#### 모산고개 [고개]

**[위치]** 용수터 남서쪽, 현 경동대학교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부론면 노림리 모산 마을이 있다. 높이는 100m이다. 한자로 ‘모현(茅峴)’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모산고개’라 하였다.

**[내용]** 강원감영에서 흥원창으로 가던 옛길이다. 부론면 노림리와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 문수골 [골]

**[위치]** 용수골 남쪽으로 부문재를 향하여 나 있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는 부론면 손곡리이다. 현 법후리가 나 있다. ‘진골’이라고도 한다.

#### 배나드리들 [들]

**[위치]** 장승배기들 서쪽 강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배가 드나든다고 하여 ‘배나드리들’이라 한다. 후용리에서 반계리 무내기로 건너가는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풀이]** ‘나들이>나드리’는 내가 굽은 곳의 바깥쪽 낮은 터나 한길에서 떨어진 마을로 갈려 들어가는 도로 분기점 같은 곳에 많이 붙는 이름이다. ‘배+나들이>배나들이>배나드리’가 되었다.

#### 뱀골 [골]

**[위치]** 앞구령들에서 남쪽으로 도치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잣골 남서쪽에 있다.

**[유래]** 골짜기에 뱀이 많으므로 뱀골이라고 한다.

**[내용]** 이곳 뱀들은 사람의 혼이 환생하였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

쟁에 패한 후백제 견훤의 군사들이 뱀으로 환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뱀골산 [산]

**[위치]** 뱀골 남쪽, 고창동 비야목 마을 남동쪽에 있는 높이 216.8m의 산을 말한다. 산 북쪽 아래에 도치골고개가 있고 남쪽 능선에는 웃도치골고개가 있다. ‘뱀골산’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비야산(比野山)’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뱀골산(비야산)’이라 하였다.

**[풀이]** 뱀이 많은 골짜기이므로 ‘뱀+골>뱀골>뱀골’이 되었다. ‘비야(比野)’는 ‘비암(뱀)’을 소리를 따라 한자로 적은 것이다.

#### 별말 [마을]

**[위치]** 후용리 윗쪽 섬강의 별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전’, ‘개지’, ‘시무남쟁이’ 등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별말’이라 하였다.

**[유래]** 별(들)에 있는 마을이므로 ‘별말’이라 한다.

#### 별감고개(碧岩峴) [고개] → 부문재

#### 별강고개(別江峴) [고개] → 부문재

#### 병감고지(丙峴) [고개] → 부문재

#### 병풍바우 [바위]

**[위치]** 석맥산 견원산성 서쪽 사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옆에 있는 암벽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병풍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병풍처럼 높게 둘러쳐져 있으므로 병풍바우라 하였다.

#### 부문재 [고개]

**[위치]** 둔배미와 용수터의 남쪽 문수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부론면 손곡리 알산골과 별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별감고개’, ‘별강고개’, ‘후용고개’라고도 한다. 현재는 부문재로 통용되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별감고지(碧岩峴)’, ‘별강고지(別江峴)’, ‘병감고지(丙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에 벼랑이 있었으므로 ‘별감고개’, ‘별

강고개’, ‘병감고개’가 되었고 고개 아래의 골짜기를 ‘별감골’, ‘별강골’이라 하였다. 후용리에 있으므로 ‘후용고개’, 부론과 문막을 이으므로 ‘부문재’라고 하였다. 부문재는 1965년에 길을 내면서 부론과 문막의 이름을 따서 새로 지은 이름이다.

**[풀이]** ‘별감(碧岩)’, ‘별강(別江)’은 ‘벼랑’을 한자로 소리를 표기한 것이다. 이를 다시 ‘병감(丙峴)’이라고도 하였다. ‘벼랑’은 옛말 ‘별+양>별양>벼랑’으로 옛 기록에 벼랑은 ‘별(別)’, ‘성(星)’, ‘연(硯)’, ‘벽진(碧珍)’ 등으로 적었다. 이 중 ‘벽진(碧珍)’은 ‘별’을 나타낸 것인데, ‘벽(碧)’은 소리를 적은 것이고 ‘진(珍)’은 ‘돌(돌)’을 표기한 것으로 이때 ‘돌’의 ‘ㄷ’이 탈락되어 ‘벼(ㄱ)+ㄹ>별’로 읽혔다.

#### 비야동(比野洞) [마을] → 비야목

#### 비야목(比野目) [마을]

**[위치]** 비야산 북서쪽 아래, 고창동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비야동’이라고도 한다.

**[풀이]** 뱀골에서 나온 지명이다. 뱀을 ‘배암’, ‘비암’, ‘비암’이라고도 하므로 이 소리를 따서 ‘비야(比野)’로 적었다. ‘목(目)’은 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인 것이다. 『조선지리지』에 ‘비야목(瑟項)’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비야목(비야동, 比野洞)’이라 하였다.



「비야동 마을 : 2019년」

#### 비야산(比野山) [산] → 뱀골산

#### 비야성황당 [당]



**[위치]** 비야산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비야서낭당’이라 하였다.

#### 삼방골 [골]

**[위치]** 용수터 남쪽 위 모산고개 서쪽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36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방골’이라 하였다.

#### 새래버덩 [들]

**[위치]** 섬강 변 배나드리들 남쪽, 마루들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남쪽에 ‘왓새머리들’이 붙어있다.

#### 새작버덩 [들]

**[위치]** 고청, 비야목 북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남동쪽 마을과의 사이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새재버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재버덩’이라 하였다.

#### 새재버덩 [들] → 새작버덩

#### 샘골 [골]

**[위치]** 용수터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19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 석맥산 [산] → 견훤산

#### 섬강제방 [둑]

**[위치]** 후용리에서 부론면 노림리에 이르기까지 섬강을 막고 있는 긴 제방을 말한다.

#### 성류들 [들] → 성우들

#### 성말(城-) [마을] → 성우

#### 성우(星隅) [마을]

**[위치]** 옛 후용초등학교가 있던 고청동과 비야목을 말한다.

**[유래]** 칼바우 등의 벼랑이 있는 산 옆에 있으므로 성우(星隅)라 하였다. 또는 견훤산성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성말(城-)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성우(星隅)’는 벼랑을 뜻하는 ‘벼루’를 ‘별+우’로 보고 ‘별’은 뜻을 따라서 ‘성(星)’이라 하고 ‘우’는 소리를 따라 ‘우(隅)’라 적은 것이다. 이때

‘우(隅)’는 벼랑 옆의 마을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었다. ‘성(星)’과 ‘성(城)’이 소리가 같고 벼랑 위 산성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성우말<성우마을’이 자연스럽게 ‘성말(城-)’로 인식되었다.

#### 성우들 [들]

**[위치]** 견훤산성 서쪽 아래, 궁촌교 남서쪽 궁촌천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성류들’이라고도 한다.

#### 성우산성(星隅山城) [성] → 견훤산성

**[풀이]** 이 산성이 벼루(벼랑) 위에 있으므로 이를 한자로 기록하면서 ‘별+우>별우>벼루’로 보아 ‘성(星)’과 ‘우(隅)’로 표현하였다. ‘벼루, 베루’는 ‘벼랑’의 방언이다. ‘벼랑’은 ‘별+양>별양>벼랑’인데, ‘별’은 ‘빗(斜, 橫)+달(高, 山)>빗달>비알>별’로서, 이때 ‘별’은 대체로 ‘별(別)’, 또는 ‘성(星)’으로 기록하였다.

#### 시무남쟁이 [마을]

**[위치]** 개지 서쪽, 섬강에 붙어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유래]** 시무나무가 많았으므로 ‘시무나무쟁이>시무남쟁이’라 하였다.

#### 시무남쟁이들 [들]

**[위치]** 개지 서쪽과 배나들이들 동쪽, 섬강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옛 섬강과 샛강 사이에 있던 들이다.

**[내용]** 옛날 이 들은 섬강과 샛강 사이에 있었는데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샛강은 이 들 사이를 흘러 노림리 앞 무당소로 흘러가 섬강에 합류하였다.

#### 안꾸레 [들]

**[위치]** 비야목 마을 안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꾸레’라 하였다.

**[풀이]** ‘안+골+(ㄱ)>안골예>안고레>안꾸레>안꾸레’로 음운 변천하였다. 안쪽 골짜기라는 뜻이다.

#### 안말 [마을]

**[위치]** 용수골 동쪽 안,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내촌(內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말(내촌內村)’이라 하였다.

#### 안산골 [골]

**[위치]** 섬강 변 왓새머리들에서 남서쪽으로 모산 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의 대부분이 현 경동대학교에 편입되었다.

**[유래]** 골짜기 앞이 산으로 막혀 있으므로 산 안쪽 골짜기란 뜻으로 ‘안산골’이 되었다.

#### 앞구렁들 [들]

**[위치]** 작골 서쪽, 영동고속도로 서쪽 건너편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양지동(陽地洞) [마을] → 양짓말

#### 양지말 [마을] → 양짓말

#### 양짓말 [마을]

**[위치]** 용수터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고청동 남서쪽, 둔배미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양지말(陽地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지말(양지동陽地洞)’이라 하였다.



「양지말 마을 : 2019년」

#### 양짓말서당 [학교]

**[위치]** 양짓말에 있던 서당을 말한다.

**[내용]** 1925년에 설립되어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1946년에 없어졌다.

#### 왓새머리들 [들]

**[위치]** 둔배미 북서쪽, 영동고속도로 건너 강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작버덩들 서쪽의 들이다.

**[유래]** 제방을 쌓기 전에는 역새가 우거진 들이었으므로 ‘역새가 있는 모퉁이의 들’을 뜻하는 ‘역새머리들>왓새머리들’이 되었다.

#### 용소(龍沼) [소]

**[위치]** 용수터 마을 용수천에 있던 소(沼)를 말한다. 지금은 메워지고 없다.

#### 용수동(龍水洞) [마을] → 용수터

#### 용수천(龍水川) [내]

**[위치]** 부문재에서 북쪽으로 문수골과 용수터를 지나 둔배미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둔배미천’, ‘후용리천’이라고도 한다.

**[유래]** 용수터를 지나므로 ‘용수천’이라고도 하고 둔배미 앞을 흐르므로 ‘둔배미천’, 후용리를 지나므로 ‘후용리천’이라고도 한다.

#### 용수터 [마을]

**[위치]** 둔배미 남쪽, 모산고개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견훤로 옆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용수터(龍水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수터(용수동龍水洞)’라 하였다.

**[유래]** 샘골 아래 용수천에 용소가 있어 ‘용소터>용수터’라고 하였다. 현재 소(沼)는 메워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 웃도치골고개 [골]

**[위치]** 용수터 삼방골 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궁촌리 도치골을 지나 궁말로 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230m이다.

#### 원전 [마을]

**[위치]** 개지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한집이 살고 있다.

**[내용]** 옛날에는 이곳이 고운 모래밭으로 땅콩이 유명하였는데 섬강에 독을 쌓은 뒤에 논으로 바뀌었다.

### 월진리(鉞辰里, 戊辰里) [마을]

**[위치]** 후용리의 옛 이름이다.

**[내용]** 『강원도지』(1940)에는 견훤산성이 건등면 후용리에 있다고 하였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에는 건등면 월진리에 있다고 하였다. 『전국유적목록』(문화재관리국, 1970)에는 원성군 문막면 무진리(戊辰里) 괴정부락(槐亭部落) 남방에 있다고 하였다. 무진리(戊辰里)의 무(戊)는 월(戌)의 오기이다.

**[풀이]** 월(鉞, 戌)은 도끼를 뜻하는 것으로 이곳 도치골을 나타낸 것이다. 도치골은 돼지의 옛말 ‘돌’에서 나온 것으로, ‘돌+골>돌골>돌( )골>도티골>도치골’이 되었다. 이때 도치를 도끼로 보아서 ‘월(鉞, 戌)’을 취하였고 ‘진(辰)’은 이곳에 병풍바우, 칼바우 등의 벼루(벼랑)가 많으므로 이를 ‘별+우’로 보아 하늘의 ‘별’의 뜻을 적은 것이다. 벼루를 ‘별+우’로 보고 ‘성우(星隅)’라는 지명도 나왔다.

### 은골 [골] → 응골

### 응골 [골]

**[위치]** 삼방골 중간에서 동쪽 뱅골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은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응골(應谷)’이라고 하였다.

### 작골 [골] → 잣골

### 작은다리들 [들]

**[위치]** 장승배기 동쪽과 앞구렁들 서쪽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잣골 [골]

**[위치]** 견훤산성 남서쪽 아래에서 남쪽 도치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작골(作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골’이라 하였다.

**[풀이]** 견훤산성의 주 출입구가 되는 골짜기이므로 성(城)을 뜻하는 ‘잣’에 ‘잣+골>잣골’이 되었다. 현재는 ‘작골’로 부른다.

### 장승배기 [마을]

**[위치]** 옛날 마루들 한가운데에 장승이 있던 곳의 마을을 말한다. 지금은 들로 바뀌었다. ‘장승배기’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승배기’라 하였다.

**[유래]**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었으므로, 장승이 박혀 있다고 하여 장승배기라 하였다.

### 장승배기들 [들] → 마루들

### 장승백이 [마을] → 장승배기

### 주제방 [둑] → 구제방

### 지네바우 [바위]

**[위치]** 견훤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네바우’라 하였다.

### 진골 [골] → 문수골

**[위치]** 용수터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로, 문수골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이 길다고 하여 ‘긴골>진골’이라 하였다.

### 질마등 [산]

**[위치]** 용수터 남동쪽의 산줄기를 말한다.

**[유래]** 산줄기가 마치 길마처럼 보이므로 ‘길마등>질마등’이라 부른다.

### 또치골 [골] → 도치골

### 최병골 [골]

**[위치]** 옛날 어린 아이가 죽으면 묻은 곳을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 칼바우 [바위]

**[위치]** 뱀골 입구 동울매들 동쪽 산자락에 있던 바위들을 말한다.

**[유래]** 칼처럼 날카로운 바위들이 서 있었으므로 칼바우라 하였다. 도로를 내면서 깨어내 지금은 없어졌다.

### 칼바우모퉁이 [모퉁이]

**[위치]** 뱀골 입구 칼바우가 있던 모퉁이를 말한다.

**후용고개** [고개] → 부문재

**후용리나루** [나루]

**[위치]** 고청동 앞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후용리와 반계리 벌무내기를 오가던 나루였다.

**후용리천(厚用里川)** [내] → 용수천

**[위치]** 용수천의 다른 이름이다. 후용리의 주된 내이므로 ‘후용리천’이라고도 한다.

**후용초등학교** [학교]

**[위치]** 후용리 373-3, 고청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7년 문막초등학교 후용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1963년 후용국민학교로 승격, 1996년 후용초등학교로 개칭하였고, 2000년에 문막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후용초등학교 : 2019년」

**후용이** [마을] → 후용리

**[위치]** 후용리의 원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후웅이(厚用里)’라고 하였다.

**홍알** [들]

**[위치]** 후용리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홍알’이라 하였다.

---

## 행 정 지 원

---

- 박종수 : 원주시역사박물관 관장
- 금은숙 : 원주시역사박물관 행정관리팀장
- 김연진 : 원주시역사박물관 주무관

---

## 책 자 편 찬

---

- 김성찬 : 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 

# 원주시명총람(상)

발행일

2019년 12월 9일

발행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 · 편찬

김성찬(학예연구팀장)

원주시 2019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4372